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2020.12.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2020.12.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 재단의 공식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성남문화재단 귀하

본 보고서를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년 12월 28일

연구/조사기관: (주)비욘드리서치

연구/조사책임: 백경현(비욘드리서치 대표)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조사 대상 및 절차	4
1. 조사 대상	4
2. 조사 구성체계	4
3. 조사 절차	5
1) 예술인 설문조사(정량조사)	5
2)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정성조사)	7
3)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정성조사)	8
4) 자료처리 및 분석	8
제3절 조사 설계	10
1. 환경 분석	10
1) 성남의 지역적 특성	10
2) 성남의 문화예술 환경	11
3)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환경	15
2. 선행 실태조사 분석	16
3. 조사항목 도출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의견 분석	17
1) 내부 인터뷰	17
2) 제1차 전문가 회의	18
3) 제2차 전문가 회의	19
4. 조사항목 도출	20
5. 응답자 특성	24

제2장 정량조사 결과

제1절 예술인 실태조사	27
1.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27
1) 주요 활동 직업	27
2) 주요 예술활동 방식	29
3) 예술인 협회/단체 활동 상황	31
4) 예술활동/생활 만족도	35
5) 예술활동 애로사항	40
2. 예술노동 및 복지	42
1) 전업 예술활동 여부	42
2) 고용형태	44
3) 겸업 예술활동 실태	46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54
5) 4대 보험 가입률	56
6) 예술활동증명 여부	58
3. 예술활동 소득	62
1) 연평균 소득수준	62
2)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	64
3)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66
4)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68
5) 예술인으로서 연평균 소득 만족도	70
4. 예술활동 내용	75
1)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75
2) 지원사업 참여/수혜 경험	78
3)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80
4) 활동 지역	82
5)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84
5. 예술활동 공간	87
1) 예술활동 공간 유형	87
2)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89
3)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93
4)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96
5)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필요 요소	98
6)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101

7)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103
6. 예술정책 및 지원	105
1)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 만족도	105
2)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 부문별 평가	106
3) 코로나 관련 지원 실태 및 정책사업 방향	118
4)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 정책사업	127
5) 성남시 문화정책 방향	131
6)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135
7)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요 요소 우선순위	137
제2절 예술단체 실태조사	139
1. 일반 현황	139
1) 법적 형태	139
2)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140
3) 활동 분야	141
4) 활동 지역	142
2. 운영 현황	143
1) 인력구성 현황	143
2) 공간 보유 현황	146
3) 재정 현황	148
3. 예술활동 현황	150
1) 예술활동 실적	150
2) 예술활동 내용	151
3) 지원사업 참여실적	154
4) 지원사업 수혜실적	156
제3절 시사점	158
1.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특성	158
1) 성남 예술인	158
2) 성남 예술단체	159
2.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160
3. 예술노동 및 복지 현황	161
4. 예술활동 소득 현황	162
5. 예술활동 내용 및 지원사업 참여경험	163
6. 예술활동 공간	164
7. 예술정책	165

제3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169
1. 조사 개요	169
1) 창작분야 그룹	169
2) 실연분야 그룹	169
3) 기획, 교육분야 그룹	170
2. 조사 결과	170
1) 코로나19 영향과 예술인 실태조사 의의	170
2) 개인 및 단체 활동 현황	170
3) 성남의 문화예술 환경 위상	171
4) 예술인으로서의 애로사항	173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 인식	174
6) 예술인 지원사업 애로사항	176
7) 예술인 지원사업 비교 평가	177
8) 문화예술 환경 변화 인식	186
9) 예술인 DB 및 플랫폼 구축 방향	189
제2절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191
1. 조사 개요	191
2. 조사 결과	191
1) 기초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및 기능	191
2) 문화예술 환경 변화 및 성남의 도시 특성	193
제3절 시사점	200
1.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200
2.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201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205
1. 성남 예술인 DB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205
1) 예술인 DB 관리 필요성	205
2) 예술인 DB 추가 대상군	205

3) 국내 유사 DB 시스템 사례 분석	206
4) 국내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사례	210
2. 성남 예술인 DB의 관리체계 제안	211
1) 성남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안)	211
2) 성남 예술인 DB 기반 플랫폼 구축	212
3) 성남 예술인 DB 향후 활용 방안	214
제2절 정책 제언	215
1. 사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216
2. 인프라: 공간·네트워크 지원 문화예술행정기반 구축	217
3. 제도: 문화예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마련	218

부록

부록1.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221
부록2. 예술단체 실태조사 설문지	231
부록3. 예술단체 조사목록	233
부록4.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235
부록5.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어젠다	239
부록6.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녹취록	240
부록7.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녹취록	341
부록8. 통계표	372

표 목차

〈표 1-1〉 성남시 지역/성/연령별 인구수 현황	10
〈표 1-2〉 성남시 재정건전성	11
〈표 1-3〉 성남 예술활동 환경 SWOT 분석 결과	16
〈표 1-4〉 선행 실태조사 개관	17
〈표 1-5〉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내용	21
〈표 1-6〉 성남 예술단체 실태조사 조사내용	23
〈표 1-7〉 성남 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24
〈표 2-1〉 응답자특성별 주요 활동 직업	28
〈표 2-2〉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방식	30
〈표 2-3〉 응답자특성별 예술인 협회/단체 가입 여부	32
〈표 2-4〉 응답자특성별 가입 예술인 협회/단체 유형	34
〈표 2-5〉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전반적 만족도	36
〈표 2-6〉 응답자특성별 생활수준 전반적 만족도	38
〈표 2-7〉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예술활동/생활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39
〈표 2-8〉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애로사항	41
〈표 2-9〉 응답자특성별 전업 예술활동 여부	43
〈표 2-10〉 응답자특성별 고용형태	45
〈표 2-11〉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	47
〈표 2-12〉 응답자특성별 겸업 시 직종	49
〈표 2-13〉 응답자특성별 겸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	51
〈표 2-14〉 응답자특성별 겸업의 생계 도움 정도	53
〈표 2-15〉 응답자특성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55
〈표 2-16〉 응답자특성별 4대 보험 가입률	57
〈표 2-17〉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59
〈표 2-18〉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	61
〈표 2-19〉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	63
〈표 2-20〉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수입 비중	65
〈표 2-21〉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67
〈표 2-22〉 응답자특성별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69
〈표 2-23〉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예술(창작)활동 측면	71
〈표 2-24〉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73
〈표 2-25〉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소득수준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74

〈표 2-26〉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76
〈표 2-27〉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예술활동/참여횟수 평균 차이 비교	77
〈표 2-28〉 순위 상관관계 분석 결과	77
〈표 2-29〉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수혜/참여율	79
〈표 2-30〉 응답자특성별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81
〈표 2-31〉 응답자특성별 활동 지역	83
〈표 2-32〉 응답자특성별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85
〈표 2-33〉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공간 유형	88
〈표 2-34〉 응답자특성별 개인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90
〈표 2-35〉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형태	92
〈표 2-36〉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94
〈표 2-37〉 응답자특성별 성남시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97
〈표 2-38〉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필요 요소	99
〈표 2-39〉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102
〈표 2-40〉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104
〈표 2-41〉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	107
〈표 2-42〉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	109
〈표 2-43〉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발표기회 만족도	111
〈표 2-44〉 응답자특성별 예술 인프라 만족도	113
〈표 2-45〉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	115
〈표 2-46〉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	117
〈표 2-47〉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피해 지원 수혜 경험	119
〈표 2-48〉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피해 지원기관	121
〈표 2-49〉 응답자특성별 지원 미수혜 이유	123
〈표 2-50〉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사업	125
〈표 2-51〉 응답자특성별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사업(종합순위)	128
〈표 2-52〉 응답자특성별 ICT 지역특성 활용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132
〈표 2-53〉 응답자특성별 성남시 문화정책 우선 순위	134
〈표 2-54〉 응답자특성별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136
〈표 2-55〉 응답자특성별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 요소	138
〈표 2-56〉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인력구성 현황	143
〈표 2-57〉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회원 성별 현황	144
〈표 2-58〉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회원 연령대 현황	145
〈표 2-59〉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	146
〈표 2-60〉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예산조달 현황(2019년)	148
〈표 2-61〉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예산 지출 비중 현황(2019년)	149

〈표 2-62〉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실적(2019년)	150
〈표 2-63〉 예술단체 예술활동 사례(2019년)	151
〈표 2-64〉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참여실적(2019년)	154
〈표 2-65〉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수혜실적(2019년)	156
〈표 4-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서비스 항목	207
〈표 4-2〉 지자체 운영 예술인 DB 사례	208
〈표 4-3〉 주요 기관별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사례	211
〈표 4-4〉 예술인 DB 추진단계별 기간 및 비용	213

그림 목차

〈그림 1-1〉 조사 배경 및 목적	3
〈그림 1-2〉 조사 구성체계	5
〈그림 1-3〉 정량조사 진행과정	7
〈그림 1-4〉 자료처리과정	9
〈그림 1-5〉 성남시 지역 특성	11
〈그림 1-6〉 성남시 인구변화 추이	12
〈그림 1-7〉 성남시 문화예술 환경	14
〈그림 1-8〉 정성조사 진행과정	20
〈그림 2-1〉 성남 예술인 주요 활동 직업	27
〈그림 2-2〉 성남 예술인 예술활동 방식	29
〈그림 2-3〉 예술인 협회/단체 가입 여부	31
〈그림 2-4〉 가입 예술인 협회/단체 유형	33
〈그림 2-5〉 예술활동 전반적 만족도	35
〈그림 2-6〉 생활수준 전반적 만족도	37
〈그림 2-7〉 예술활동 애로사항	40
〈그림 2-8〉 전업 예술활동 여부	42
〈그림 2-9〉 고용형태	44
〈그림 2-10〉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	46
〈그림 2-11〉 겸업 시 직종	48
〈그림 2-12〉 겸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	50
〈그림 2-13〉 겸업의 생계 도움 정도	52
〈그림 2-1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54
〈그림 2-15〉 4대 보험 가입률	56
〈그림 2-16〉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58
〈그림 2-17〉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	60
〈그림 2-18〉 연평균 소득	62
〈그림 2-19〉 예술활동 수입 비중	64
〈그림 2-20〉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66
〈그림 2-21〉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68
〈그림 2-22〉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예술활동(창작) 측면	70
〈그림 2-23〉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72
〈그림 2-24〉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75

〈그림 2-25〉 지원사업 수혜/참여율	78
〈그림 2-26〉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80
〈그림 2-27〉 활동 지역	82
〈그림 2-28〉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84
〈그림 2-29〉 예술활동 공간 유형	87
〈그림 2-30〉 개인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89
〈그림 2-31〉 공동 예술활동 공간 형태	91
〈그림 2-32〉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93
〈그림 2-33〉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96
〈그림 2-34〉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필요 요소	98
〈그림 2-35〉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101
〈그림 2-36〉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103
〈그림 2-37〉 성남시 예술정책/지원제도 부문별 만족도	105
〈그림 2-38〉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	106
〈그림 2-39〉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	108
〈그림 2-40〉 예술활동 발표기회 만족도	110
〈그림 2-41〉 예술 인프라 만족도	112
〈그림 2-42〉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	114
〈그림 2-43〉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	116
〈그림 2-44〉 코로나 피해 지원 수혜 경험	118
〈그림 2-45〉 코로나 피해 지원기관	120
〈그림 2-46〉 지원 미수혜 이유	122
〈그림 2-47〉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사업	124
〈그림 2-48〉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 정책	127
〈그림 2-49〉 ICT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131
〈그림 2-50〉 성남시 문화정책 우선 순위	133
〈그림 2-51〉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135
〈그림 2-52〉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 요소	137
〈그림 2-53〉 예술단체 법적 형태	139
〈그림 2-54〉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140
〈그림 2-55〉 성남 예술단체 활동분야	141
〈그림 2-56〉 성남 예술단체 활동 지역	142
〈그림 2-57〉 예술단체 인력구성 현황	143
〈그림 2-58〉 예술단체 회원 성별 현황	144
〈그림 2-59〉 예술단체 회원 연령대 현황	145
〈그림 2-60〉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	146

〈그림 2-61〉 예술단체 예산 조달 현황	148
〈그림 2-62〉 예술단체 예산 지출 비중 현황	149
〈그림 2-63〉 예술단체 예술활동 실적(2019년)	150
〈그림 2-64〉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실적(2019년)	154
〈그림 2-65〉 예술단체 지원사업 수혜실적(2019년)	156
〈그림 4-1〉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성	207
〈그림 4-2〉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	208
〈그림 4-3〉 도봉구 문화예술 DB 홈페이지	209
〈그림 4-4〉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DB 사이트 IQ와 문화예술인 DB	210
〈그림 4-5〉 단계별 성남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설계(안)	212
〈그림 4-6〉 성남 문화예술 발전정책 방향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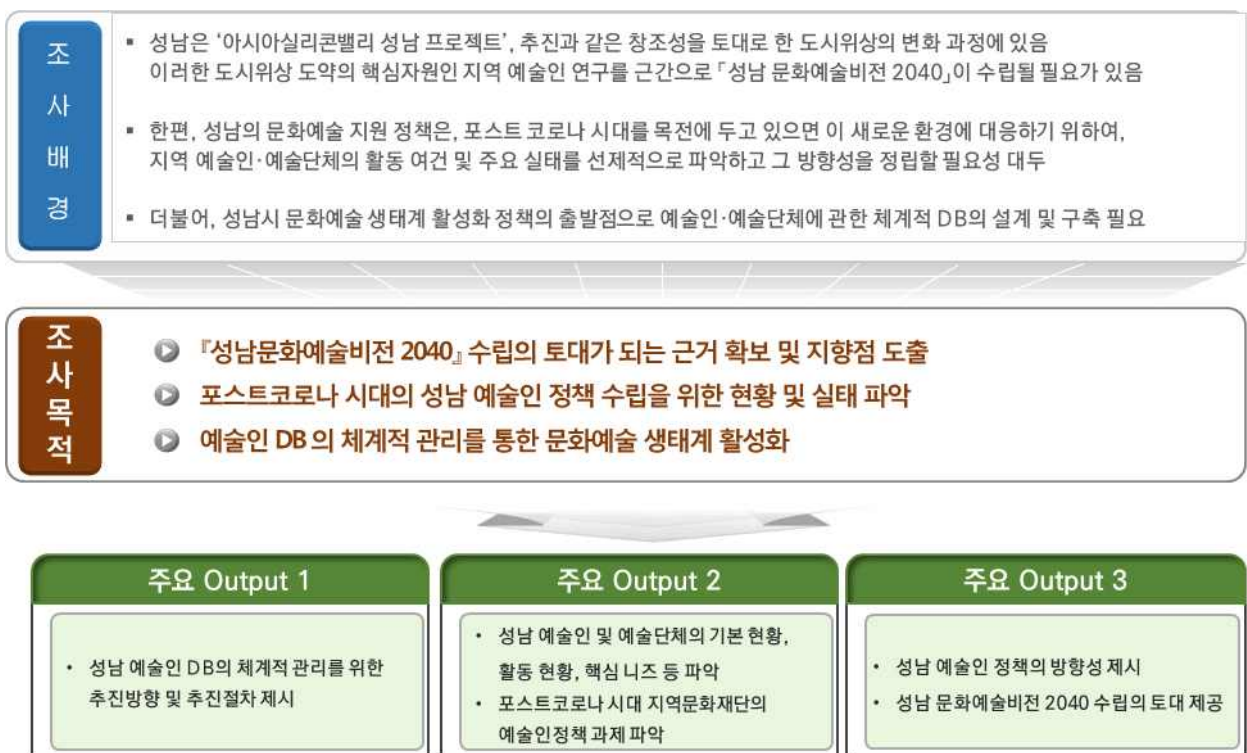
제1장

조사개요

제1장 조사개요

제1절 조사 배경 및 목적

- 본 조사는 거시적 환경의 변화와 성남의 지역 위상의 변화를 토대로, 성남 예술인·예술단체의 활동 환경 및 주요 실태를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성남시 문화예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정책 수립의 근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그림 1-1〉 조사 배경 및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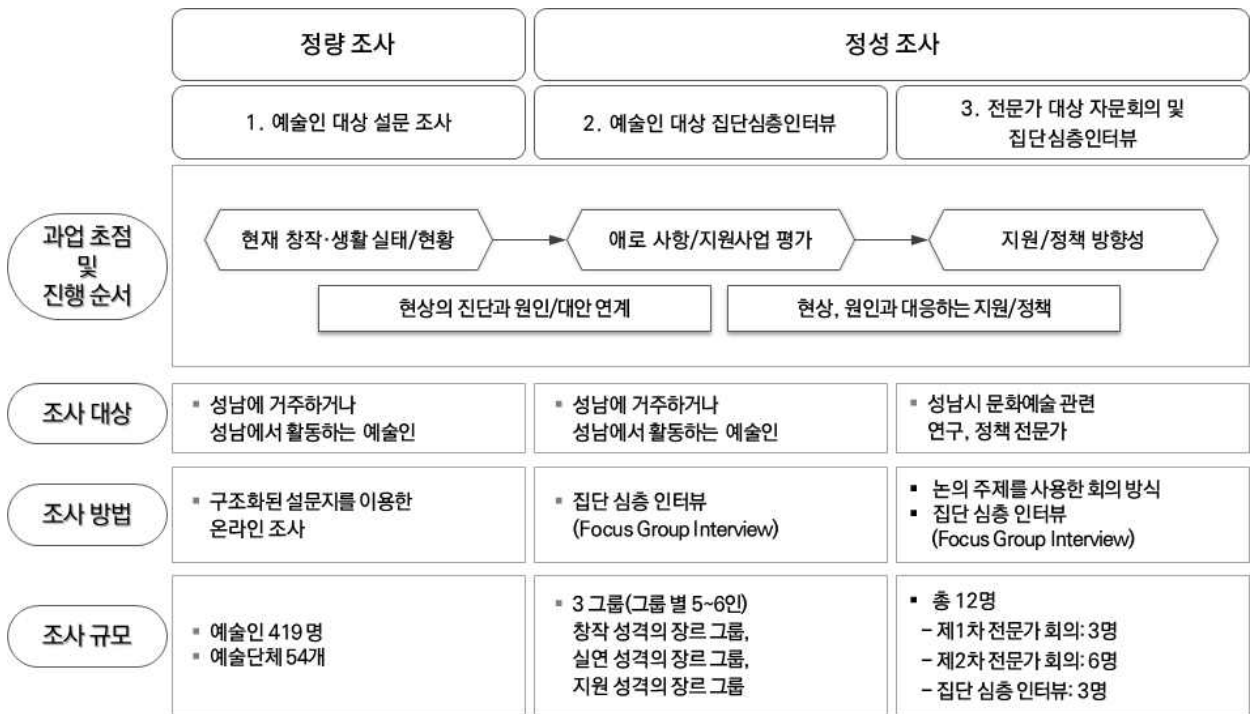
제2절 조사 대상 및 절차

1. 조사 대상

- 대상적 범위: 2020년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활동하는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시간적 범위
 - 활동연도: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예술활동 경험 有
 - 지원연도: 2020년 기준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지원 경험 有

2. 조사 구성체계

- 본 조사는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해, '현상의 진단 → 원인의 탐색 → 대안의 검토' 단계로 과업 진행을 구성
 - 구체적으로는 성남 전문 예술인·예술단체의 현황을 양적 측면에서 확정하기 위한 정량조사, 확정된 현상의 원인, 현상의 심층적 전개, 현상에 대한 대안 등을 맥락 측면에서 탐색하기 위한 정성조사로 구성하였음. 이후 정성조사는 다시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와 문화예술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조사로 나누어 진행



〈그림 1-2〉 조사 구성체계

3. 조사 절차

1) 예술인 설문조사(정량조사)

- 조사 대상: 제안요청서 상, 여타 지역문화재단의 예술인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에 등록한 예술인이 우선적인 조사 대상인 점을 감안하여, 예술을 ‘업’으로 영위하는 전문예술인을 조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취미나, 기호 관점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
- 한편, 성남의 전문예술인은 성남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성남시에서 3년 이상 예술활동을 영위한 전문예술인을 성남의 전문예술인으로 규정. 다만, 거주와 활동을 행정 활동의 하나인 지원의 대상 측면으로 본다면, 거주 예술인은 문제가 없으나, 타 지역에 거주하여 타 지역 지원행정의 대상인 활동 예술인을 성남 지역 예술인으로 볼 것인가 하는 점은 검토의 여지가 있음. 예를 들면, 성남 전문예술인 DB상에 등재할 것인가, 또 그를 토대로 성남문화재단 혹은 지역 기관의 지원 대상으로 보아 지원을 할 것인가의 문제

- 조사 명부: 개념적 정의인 목표 모집단을 규정하고, 이를 현실에서 실체화한 조사 모집단(즉, 리스트)의 경우, 성남시 전문예술인의 모집단은 존재하지 않았음. 따라서 규정된 목표 모집단의 요건을 충족시키는 개별 대상이 있으면 이를 유효 표본으로 구성하는 일종의 편의 추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유효 표본을 구성하였음. 이에 따라 실제 문답 진행의 어려움이 배가되었으나, 목표 유효 표본을 달성하기 위한 성남문화재단 실무진의 적극적인 참여 권유와 소개 지원으로 이를 극복하였음을 밝혀 둠
 - 한편, 이러한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 모집단 대표 정도를 추정하기 어려우므로,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DB상, 성남시 등록 전문예술인의 성, 연령, 장르별 구성 비중 및 2019년 경기문화재단에서 실시한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성남시 표본의 특성 등과 비교하여 표본 구성의 타당성을 검토하였음
- 조사 내용: 이번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의 조사 내용이 여타 지역의 예술인 실태조사와 다른 점은 급격한 기술의 발달로 인한 환경의 변화가 예술활동에 끼친 영향과, 그에 대한 예술인들의 준비 태세를 파악하고자 한 부분임. 이 부분의 결과는, 소수의 대상과 심층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다음 단계인 정성조사와 연계되어 좀 더 깊이 있게 다루어질 예정으로 장치되었음
 - 한편,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영향은 동일 시기에 추진된 유사 조사에서도 많은 부분이 다루어졌음
- 조사 결과: 실제 개별 응답이 모두 이루어지고, 전체 결과를 집계하여 분석한 결과, 전문예술인들의 성, 연령, 거주 지역 보다는 활동하는 분야(장르)에 따라 응답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음. 즉, 조사에 참여한 예술인들이 문학, 미술, 사진 등의 창작적 성격의 장르를 포함하는 집단인지, 아니면 무용, 연극, 음악 공연 등의 실연적 성격의 장르를 포함하는 집단에 속하는가에 따라 대부분의 질문에 대한 응답이 차이를 보여, 이를 중심으로 응답 결과를 분석하였음
 - 또한 이러한 결과의 특징을 반영하여, 설문 조사의 다음의 심화 단계인 예술인 대상 집단심층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의 구성을 창작 성격 집단, 실연 성격 집단, 지원 성격 집단 등 3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보다 심층적인 내용으로 연계하여 탐색하였음

정량조사 진행과정



〈그림 1-3〉 정량조사 진행과정

2)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정성조사)

○ 집단심층인터뷰의 집단 구성: 과업의 첫 번째 단계인 정량적 속성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창작적 성격의 장르를 포함하는 집단과, 실연적 성격의 장르를 포함하는 집단, 그리고 설문조사에서 표본이 적어 두드러진 특징을 보여주진 않았으나, 예술인의 정의에 포함되는 예술기획, 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지원적 성격의 집단으로 각 집단을 구성하여 진행

- 창작 집단: 문학, 미술, 사진, 건축, 만화
- 실연 집단: 국악, 무용, 연극, 음악, 연예, 영화
- 지원 집단: 예술기획, 예술교육

○ 참여자 선정: 각 그룹별 참여자는 의미 있는 의견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설문 조사 문항에 대한 응답을 감안하여 대상자를 선정하였음

- 연령: 그룹별로 활발한 예술활동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30대, 40대 위주 선정
- 지원 정책 경험 여부: 지원의 수혜 경험이 있는 응답자
- 지원 정책 만족도: 개별 정책에 대한 만족도 평가가 5점 만점 중 3점 이하가 있는 응답자
- 가입 단체: 가입 단체가 있는 경우 우선 선정

- 주요 활동 지역: 성남과 성남 외인 경우를 균형 있게 안배

- 진행자 선정: 본 과정과 같은 집단심층인터뷰를 전문으로 진행하는 외부의 전문 진행자를 섭외하여 진행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각 집단별 진행이 끝나면 진행자로서 과업 진행 실무진과 해당 집단의 토론 내용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여 분석의 타당성을 제고
- 조사 결과: 집단심층인터뷰 진행 전, 그룹의 구성이나 내용을 기획, 설계 시 예상했던 것처럼, 예술 환경 변화에 대한 태도나 행동, 성남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평가, 이를 반영한 지원 needs 측면에서 그룹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다음 단계인 전문가 자문회의에 이러한 차이에 대한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정체성, 이러한 차이를 반영한 지원 정책의 방향성을 어떻게 정립할 것인가를 논의 의제(Agenda)로 선정하여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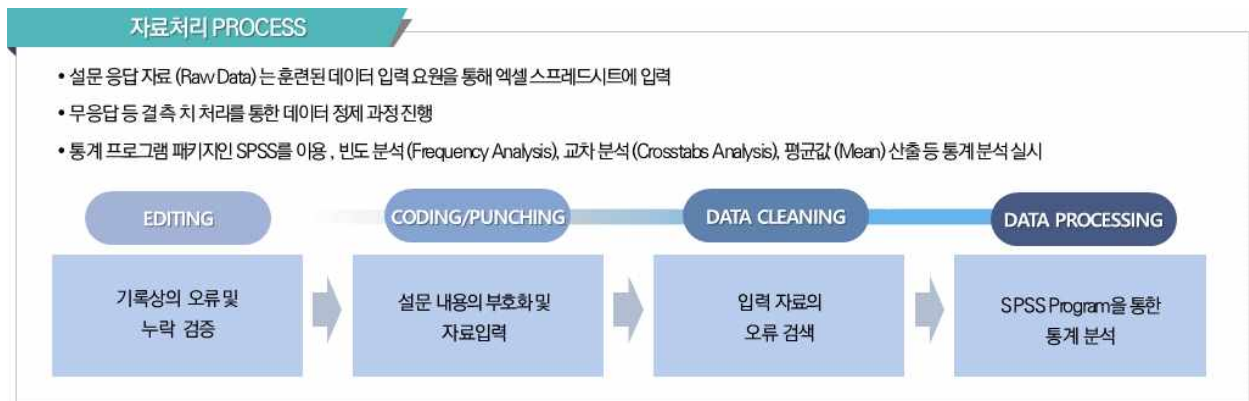
3)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정성조사)

- 논의 주제(Agenda): 정량조사인 설문조사의 주요 발견 사항, 발견 사항의 원인을 탐색한 FGI(정성 조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 주제를 선정하였으며, 주 된 논의의 방향은 선행 FGI 단계에서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은 기초 단위 지역문화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성남문화재단의 향후 정책 방향성으로 설정하였음
- 전문가 선정: 전문가 자문회의의 논의 주제를 감안, 성남문화재단 본 과제 실무진과 협의하여 문화 예술 경영 전공 교수, 前 문화재단 정책 담당자, 前 예술경영지원센터 기관장을 전문가로 선정, 진행하였음
- 본 조사의 설계를 위해 2차에 걸친 선행 전문가회의 및 1차례의 내부 인터뷰를 사전 실시하여 조사 대상 ‘예술인’의 정의 및 조사의 방향성을 사전 규정함
 - 조사 대상 ‘예술인’ 정의: 예술활동의 목적이 소득과 관련이 없는 ‘생활 예술인’을 제외한 필요한 소득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예술활동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전문 예술인’으로 규정
 - 금번 실태조사와 예술인 DB 구축은 분리 접근하는 것으로 조사의 방향성을 규정

4) 자료처리 및 분석

- 조사 수집된 자료(raw data)는 편집(editing), 부호화(coding), 데이터 클리닝(data cleaning) 과정

을 거쳐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Program으로 자료 처리됨



〈그림 1-4〉 자료처리과정

제3절 조사 설계

1. 환경 분석

1) 성남의 지역적 특성

- 성남시는 위성도시로 1960년대부터 이미 서울의 인구 분산과 일부 도시 기능을 분배받아 개발된 계획도시
 - 그러나 60년대 서울시 철거민의 집단정착지로 개발된 현재의 본도심(중원구, 수정구)과 80년대 후반부터 서울시 강남권의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개발된 신도심(분당구)은 그 이주한 집단의 성격이 상이하여 불가피하게 이원화된 도시 구조를 갖게 됨
 -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성남시는 신·구도심에 통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도시 정체성 확보 문제와 문화 정책을 연관짓고 있음
- 성남시는 외형적으로 인구 약 94만 명에 달하는 도시이며, 2019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53.43%, 재정자주도는 63.69%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는 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중 재정자립도는 전체 3위, 재정자주도는 16위에 해당
 - 높은 재정자립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재정자주도는 성남시가 예산 활용에 있어 풍부한 재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예산 활용의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

〈표 1-1〉 성남시 지역/성/연령별 인구수 현황

구	성	19세 이하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79세	80~89세	90세 이상	계
수정구	남성	16,991	18,557	19,208	19,874	20,947	16,249	7,793	2,288	297	122,204
	여성	16,443	16,678	16,763	17,777	20,300	17,233	9,376	4,048	879	119,497
중원구	남성	15,400	16,196	16,733	17,309	19,283	15,252	7,033	2,016	222	109,444
	여성	14,447	15,056	14,390	15,599	18,960	15,462	8,273	3,664	836	106,687
분당구	남성	47,853	33,082	33,657	40,320	37,544	24,151	11,565	4,925	662	233,759
	여성	45,540	32,709	36,257	46,286	38,758	25,270	13,908	7,978	1767	248,473
성남시 계	남성	80,244	67,835	69,598	77,503	77,774	55,652	26,391	9,229	1181	465,407
	여성	76,430	64,443	67,410	79,662	78,018	57,965	31,557	15,690	3482	474,657

출처: 2020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인구통계(행정안전부) 기준

〈표 1-2〉 성남시 재정건전성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비율(%)	순위	비율(%)	순위
경기도 전체	50.58	-	51.49	-
성남시	53.43	3	63.69	16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전문 통계

○ 성남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음

- 개척정신: 1960년대 말 이주민 정착을 토대로 형성, 시민들의 자발적 협동심/응집력이 강함
- 비약적 성장: 제 1신도시 분당 개발, 판교, 위례 신도시 등 꾸준한 개발과 성장 진행중
- 경기도 핵심 도시: 인구 94만의 대도시로 성장, 경제/사회/문화 등에서 경기도의 핵심 도시로 부상
- 생활 인구 증가: 서울 근접성, 교통 편의성으로 거주, 유동 인구 증가, 분당/판교 테크노밸리 등 산업입지 수요 확대
- 원도심과 신도심: 수정, 중원 등의 원도심과 분당, 판교 등의 신도심간의 지역 간 격차 문제 대두
- 아시아 실리콘 밸리: ICT, 바이오헬스, MICE 산업을 주축으로 하는 첨단산업 허브 도시 지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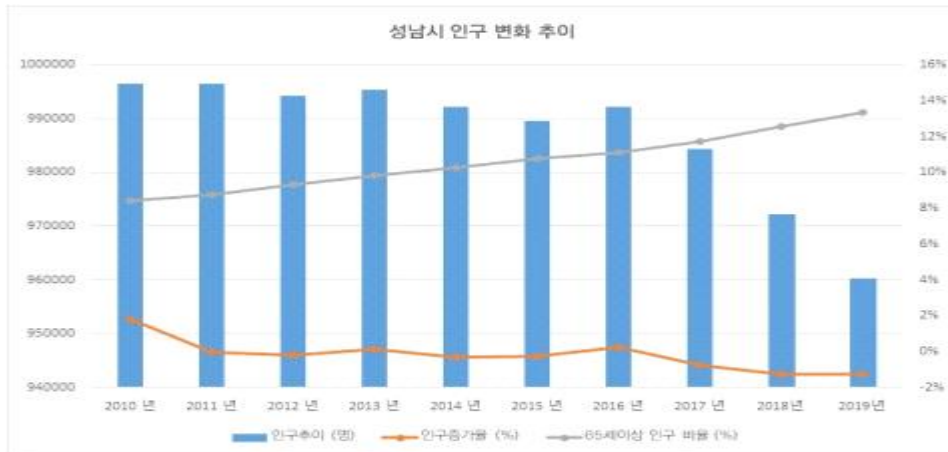


〈그림 1-5〉 성남시 지역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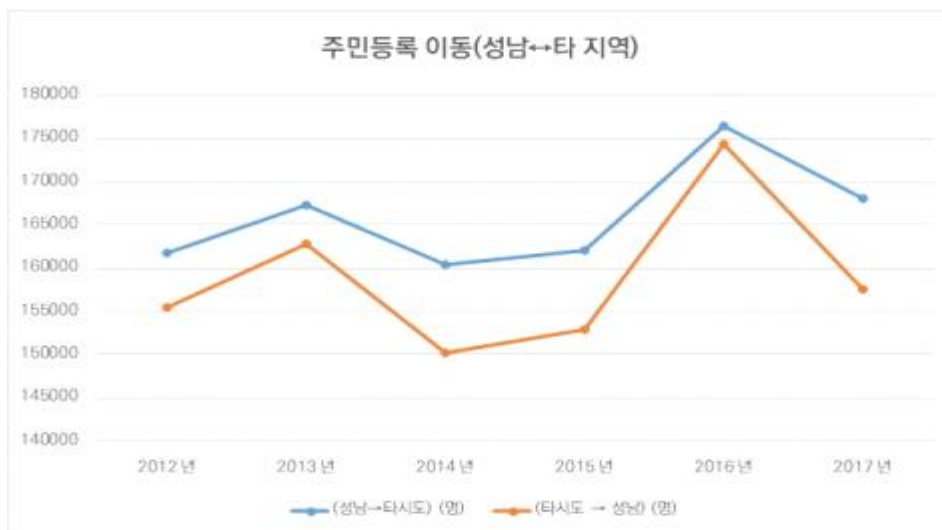
2) 성남의 문화예술 환경

- 성남 문화예술 시장의 저변을 형성할 성남시의 인구 구조는 인구수의 전반적인 감소 및 고령화가 진행 중임

- 전체 인구는 2019년 기준 -1.2%의 인구 증가율로 2017년부터 지속적 하향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6년간 성남의 인구는 유입보다 유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이후 인구 고령화는 꾸준히 진행되어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2019년 기준 13.3%를 기록함



출처: 성남통계(통계보고서/주민등록인구 통계/연도별 기준 세대 및 인구)



출처: 성남통계(통계보고서/주민등록인구 통계/연도별 기준 세대 및 인구)

〈그림 1-6〉 성남시 인구변화 추이

- 하지만 성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바탕으로 추정해볼 때 인구 구조상의 불리한 환경 극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도시개발 및 택지개발지구 사업, 신성장동력 산업 기업 유치 등으로 향후 인구 구조상의 변화 가능성 증가
 - 판교대장 도시개발 사업, 위례신도시 택지개발지구, 고등동 공공택지지구 조성, 복정 1, 2 공공 택

지지구조성 등으로 인구 유입 가능성 증가

- 백현지구 내 대규모의 마이스(MICE)산업 지구 건설 및 아시아실리콘밸리 연계 조성으로 생활인구 증가 기대
- '2035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으로 향후 통합형 도시공간구조, 글로벌 경제기반 구축, 지역 맞춤형 기반시설 조성이 추진되어 거주 인구뿐만 아니라 성남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생활인구의 증가 예상
- 성남시는 위례 스마트시티~테크노밸리~백현 마이스 산업단지~벤처밸리~바이오 헬스단지~하이테크 밸리를 연결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조성과 함께 공공주택사업,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현재 100만명 미만의 인구를 108만 여명까지 끌어올릴 것을 계획 중임
- 신규 주거지구 조성 및 IT 산업 관련 정책 추진으로 지역 사회 공동체 구성원의 비율이 변화될 가능성 높음
- IT 산업 발전에 따른 젊은 층 인구의 유입으로 젊은 층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높아질 수 있음

○ 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국내 문화예술정책의 주요한 변화 또한 성남 문화예술 분야의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기본적으로 현 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을 핵심 국정과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문화 사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
- 지역문화여건, 지자체의 정책 의지, 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문화특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지역별 차등 지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문화체육관광부, 2017), 지자체의 노력 여하에 따라 문화예술은 크게 부흥할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실제로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의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은 기초예술분야의 창작역량 강화, 문화 예술인 발굴, 육성 등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연구결과도 있음(박성호, 2019)
- 문화권 개념의 부각
 - 2013년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해 '문화권(cultural right)'은 국민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로서 문화를 정의함
 - 개인의 고유한 문화적 취향, 활동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문화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로 관점이 확장됨
- 생활문화 시대의 도래
 - 과거 관람자의 입장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던 국민들이 직접 문화예술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문화생활을 요구하고 있음(문화 욕구도 단순 관람에서 창작, 참여, 발표, 단체활동 등으로 복합화됨)
 - 문재인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 '전략5: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문화국가-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선정하여 이런 확대된 문화 욕구에 응답
 - 문화권을 강조하는 정책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새문화정책준비단'을 통해 「문화비전 2030-사람이 있는 문화」를 발표하고 문화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
- 「문화비전 2030」에서는 총 9개의 의제를 중심으로 비전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의제2. '문화예술인·종사자 지위와 권리보장', 의제3. '성평등 문화실현', 의제4.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의제5.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 의제7.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의제8.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의제9.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를 대표사업으로 선정함
- 의제1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에서는 1. 문화권 확산, 2. 일과 삶의 균형으로 여가친화 사회환경 조성 3. 전 국민에게 문화복지 확산 4.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전면 확대 5. 개인의 문화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문화예술교육을 세부과제로 제시하여 문화권과 문화복지의 개념을 강조함
- 의제6 '지역 문화분권 실현'에서는 문화를 매개로 한 다른 분야의 정책과 사업이 활발해지고 적극적인 문화향유와 참여로 인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됨. 지역 문화자치를 위한 기초자료로 지역문화 실태 파악의 중요성은 향후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됨

○ 현재 성남시는 타 시도 대비 활발한 문화예술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향후 '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새로운 비전에 걸맞는 차별화된 문화예술산업 육성 방향 구축이 시급함

성남 문화예술 활동 동향	성남 문화예술 산업 발전 전망
<p>전문 예술인 활동이나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라는 양 측면 모두에서 타 지역 대비 활발한 활동 전개 및 활동의 성장세가 감지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시각예술 126건, 공연예술 384건의 활동이 펼쳐져 2016년의 시각예술 95건, 공연예술 278건 대비 각각 30.2%, 38.3%가 증가함 (2019, 2017 문예연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전국 시각예술 활동건수 증가율 (14.6%) 및 공연예술 활동건수 증가율 (17.4%)을 고려할 때 성남의 문화예술활동 건수는 상대적으로 빠른 증가세임 • 미니콘서트 (13 회 7,600여명), 광복 74주년맞이 경축 기념행사 (3,000여명), 성남 뮤직페스티벌 (4 회 4,950여명) 등의 시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 개최 (성남시 2020 주요업무계획 중 2019년 시정 성과) •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축제 (파크콘서트 및 피크닉콘서트 10 회 96,000여명) 개최 • 문화예술 평생교육에 28,000여명, 생활문화지원센터에 47,000여명의 시민 참여 <p>(자료원 : 2017, 2019 문예연감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성남시 2020 주요업무계획 중 2019년 시정 성과)</p>	<p>'아시아 실리콘밸리'라는 성남시의 새로운 비전에 부합하는 차별화된 방향의 문화예술산업 육성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남시는 판교 제1·2테크노밸리의 게임산업 관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판교 게임 콘텐츠 문화특구'를 추진중에 있음. 2023년 분당구 삼평동에 건립되는 e-스포츠 경기장, '판교 콘텐츠 거리' 조성 사업 등과 함께 복합적인 콘텐츠 문화관련 기본 계획수립을 발표함 • ICT산업 리딩도시로서 기술과 예술의 결합을 통한 새로운 예술 장르의 개척 또는 기존 예술분야에 대한 디지털 전환을 선도하는 'Art + Innovation' City의 방향성 모색 필요 •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시대의 급진전에 따라 변화의 속도 가속화 전망 <p>(자료원 : 비전성남, 20. 6. 19)</p>

〈그림 1-7〉 성남시 문화예술 환경

3)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사업 환경

○ 강점(Strength)

- <성남비전 2020 장기종합발전계획>과 성남 문화예술인의 인터뷰에 따르면, 서울에 인접해 있고 지역의 내부 또는 외부에 접근하기가 편리한 성남시에는 다양한 문화예술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지역적 문화적 수준도 높은 동시에 높은 수준의 문화적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성남의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활동인 사랑방클럽의 위상과 입지, 대내외적 인지도는 전국적으로 확보한 상태임

○ 약점(Weakness)

-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핵심 자료라 할 수 있는 성남의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정확한 실태 및 현황 파악에 관한 데이터와 자료는 부재한 상태이며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역 내 활동과 참여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더불어 성남의 경우, 문화재단이 중점사업으로 운영하는 커뮤니티아트 외에 뚜렷하게 내세울 만한 문화예술 자원이 부재하며 성남아트센터와 전시관 등에서 운영하는 전시와 공연 등의 프로그램 역시 성남의 문화정체성을 드러내는 프로그램 혹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된 문화자원이라 할 수 없음

○ 기회요소(Opportunity)

- 성남시에는 현재, 분당과 판교 신도심 등지에 벤처산업, 창조산업, IT 관련 문화콘텐츠산업 등이 유입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이에 따른 문화적 수요 또한 급증하고 있으며 국가적 차원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이와 관련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신진예술지원 프로젝트만 존재할 뿐 복합문화공간이나 지원조직은 부재한 상태로 알려져 있음
- 국내의 문화예술인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창작 및 공간 부족과 지원 활성화를 요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아트센터, 전시관 등 대내외적 인지도가 높은 공간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성남의 원도심에 오픈한 공공예술창작소 등 또 다른 창작 및 발표를 위한 공간을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상태임

○ 위협요소(Threat)

- 성남의 문화예술인일 경우, 서울에 인접해 있고 경기권역에 속하는 관계로 지역 내부에서 활동하기 보다는 근처의 서울이나 경기권역에서 활동하고 그곳의 지원제도에 응모를 하거나 수혜를 입는 경

우가 더 많으며 이는 장기적으로 볼 때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대외 유출과 활동을 유도하고 활성화
고 지역 내 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전국적으로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에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급증하면서
경기권역의 군포, 화성, 수원, 안산, 부천 등지에서도 다양한 생활문화예술 공동체 지원정책이 수
립, 활성화되고 있으며 또 다른 지역에서는 기초예술과 생활문화예술 공동체를 균형적으로 지원정
책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시행되면서 경쟁력 있고 차별화하는 정책과 사업이 지속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고 있음

〈표 1-3〉 성남 예술활동 환경 SWOT 분석 결과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문화예술 인력 - 사랑방클럽이라는 생활문화예술 공동체와 활발한 시민주체의 문화예술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실태 파악 부재 - 지역 문화예술 경쟁력과 지역 문화예술 콘텐츠 부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유망산업·기업의 입주와 인프라 - 성남문화재단의 물적 인프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예술인의 외부 활동 - 생활문화예술에 대한 타 도시의 관심 집중 	
기회요소(OPPORTUNITY)		위협요소(THREAT)	

출처: 성남문화재단 문화예술지원정책 추진방안 연구(2017)

2. 선행 실태조사 분석

- 예술인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실시하였던 선행 실태조사를 다음과 같이 사전 검토함
- 조사의 목적은 대체로 예술인 활동 현황과 환경 이해 및 복지 수요 파악에 주안점을 둠
- 조사 대상은 주로 지역에서 거주 또는 활동하고 있는 전문 예술인(직업 예술인)으로 한정됨
- 조사 내용은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파악을 기본으로 고용/근로 형태 및 복지와 관련된 내용이 주
를 이루고 있으며 지원사업 및 예술정책에 대한 평가도 빈번히 다루어짐

〈표 1-4〉 선행 실태조사 개관

조사명	일시	조사 목적	조사 대상	주요 조사 내용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	2019. 11	경기도 예술인의 활동 여건과 활동 실태, 복지수요 등을 파악하여 경기예술복지정책의 기반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 경력증명 시스템'에 등재된 경기도 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인 2,000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지원사업 신청 및 수혜 현황 - 활동 공간 및 교류 현황 - 고용 및 복지 현황
세종 예술인실태조사	2019. 10	세종시 예술인의 활동 현황과 창작 환경 그리고 복지 등을 파악하여 세종시의 향후 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	최근 3년간 예술활동 전력이 나 세종시의 문화예술활동 지원을 받은 세종시 거주 혹은 활동 예술인 320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지원사업 현황 - 활동공간 및 교류 현황 - 교육 및 훈련현황 - 고용 및 복지 - 지원 정책 및 역량강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인실태조사	2018. 12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 환경에 대해 파악하여 예술인의 권익보호와 복지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	예술활동증명 신청 예술인,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사업 수혜 예술인, 예술 관련 협회 및 단체 회원 가입 예술인 5,002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고용형태 및 근로 환경 - 생활 및 복지
인천 예술인 복지플랜 : 예술인 실태조사 및 복지정책	2018. 10	인천지역 예술인의 활동 여건과 활동실태, 복지 수요 등을 파악하고 이를 인천 예술인 복지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인천시에 거주하거나 인천지역을 주 활동 지역으로 하는 예술인 1,000명 대상 - 인천시 문화예술 관련 협/단체 회원으로 가입한 예술인 - 인천문화재단의 공모사업에 참여한 예술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활동 분야 및 내용 - 고용형태 및 근로환경 - 생활 및 복지 예술 정책 및 만족도
성남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연구	2006. 9	성남시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실태 파악 및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와 의견 조사	성남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401명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창작여건과 만족도 - 문화예술단체 활동과 봉사활동 -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현황 - 지역의 문화예술 교환 시스템 - 문화예술 당면문제와 정책

3. 조사항목 도출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의견 분석

1) 내부 인터뷰

- 진행 일시: 2020. 9. 9 오전 9시 ~ 오후 2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사무동 1층 강당
- 인터뷰 대상 부서: 창작지원부 포함 총 6개 부서(창작지원부, 생활문화지원부, 공연기획부, 창의교육팀, 전시기획부, 문화예술교육부)

○ 인터뷰 목적: 본 실태조사 필요 내용 및 DB 구축 시 향후 활용 계획

○ 주요 논의 내용

- 예술인 기본현황 파악 후 지원계획 수립 예정, 전문 예술인 구분 문항 필요(창작지원부)
- 전문 예술인들과 생활 예술인들의 매칭(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문항 필요(생활문화지원부)
- 활동 장르에 따른 공연/전시 관람 기회 부여 및 홍보 채널로 활용, 신규 예술인 유입 기대(공연기획부)
-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채널로 활용 예정, 신규 예술인 유입 기대(창의교육팀)
- 예술인 기본 현황 파악이 중요, 홍보 채널로 활용 예정, 신규 예술인(특히 개인 작업을 하는 예술인) 유입 기대(전시기획부)
- 신규 사업에 접목할 업데이트된 DB 필요, 강의(특히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한 문항 추가 필요(문화예술교육부)

○ 시사점

- 새로운 예술인 유입 기대감 높음
- 전문 예술인과 생활 예술인의 구분 필요
- DB를 홍보채널 및 정보채널로 이용하고자 하는 니즈 높음

2) 제1차 전문가 회의

○ 진행 일시: 2020. 9. 9 오후 3시 ~ 5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실

○ 참석자: 임학순 (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최영화 (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민 (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부장)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비온드리서치 관계자 등

○ 목적: 예술인의 개념 정의 및 본 실태 조사의 대상 논의

○ 주요 논의 내용

- 예술인 조사 필요성: 가장 큰 문제는 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 부족. 평면적 수치해석의 단순한 조사를 넘어서 활용 가능한 데이터와 데이터의 상시 관리에 대한 필요성 대두
- 예술인의 정의:
 -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여 국가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데 공헌하는 사람으로서 문화예술 분야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정의됨
 - ‘업’에 대한 기준으로는 국회에서 실시했던 조사의 경우 예술분야에서의 수입, 활동의 지속성/

계속성을 기준으로 함(프랑스에서는 예술활동으로 인한 세금의 납부 여부를 업으로 하는 예술 활동의 기준으로 봄)

- 문화예술진흥법 상 예술인: 예술행위로 인정되는 예술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로 12개임
- 결국, 문화예술진흥법은 분야를,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음. 예술인복지법 상 예술인의 요건

① 활동의 종류: 창작, 실연, 기술지원

② 활동의 목적: 지속적 '업'

③ 활동의 형식: 공식적 증명

→ 일상 속에서 취미 혹은 기호 상 예술활동을 하는 '생활예술인'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그러므로 기본적으로 '업'을 전제하는 예술산업적 관점이나 혹은 법상의 복지적 관점이나 모두 예술활동을 전부 혹은 일부라도 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직업예술인'을 그 대상으로 규정

- 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예술인 복지 지원은 중앙에서, 예술산업 활성화는 지역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지역에서는 컨설팅 정도의 지원만 가능
-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 대상 설정: 성남의 경우 '생활 예술인'의 특성이 강하기 때문에 두 개를 분류하고 조사를 시작하면 안 될 것 같음. 두 조사대상을 모두 조사하고 그 뒤에 소득, 활동기간, 지원사업 참여 등의 기준으로 두 개를 분리해 내면 좋을 것 같음

○ 시사점

- 예술인의 정의는 '직업 예술인'으로 규정됨
- 성남의 특성상 '생활 예술인'의 조사 대상 포함 검토 필요

3) 제2차 전문가 회의

○ 진행 일시: 2020. 9. 15 오후 4시 ~ 6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실

○ 참석자: 정희숙(부천문화재단 부장), 마진욱(한예종 산학협력단 팀장),
이계원(알투스 대표), 이호신(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김정진(성남문화원 사무국장), 김숙(컬처미디어랩 대표),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비온드리서치 관계자 등

○ 목적: 본 실태조사 설문지 초안 검토 자문

○ 주요 논의 내용

- 조사의 의도, 목적, 취지를 명확히 하여야만 조사 범위 및 설문 내용의 구성이 결정됨
- 실태 조사를 DB화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우려 등 무리하고 위험한 시도임. 실태 조사와 DB 구축을 따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공동 지표와 특수 지표를 만들어서 예술인들의 욕구를 파악할 필요 있음
- 조사대상은 예술인 패스, 예술인 경력증명 등으로 기준을 정해 전문 예술인으로 해야 함. 지역 예술인 조사에서 생활 예술인을 대상으로 포함하는 경우는 없음
- 팬데믹 상황에서 예술인들과 어떻게 상생해야 되는지를 고려해야 함

○ 시사점

- 금번 실태조사와 예술인 DB 구축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 있음
- 금번 실태조사 대상은 전문 예술인(직업 예술인)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선행 전문가 회의	내부 인터뷰
<p>1차 전문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일시: 2020. 9. 9 오후 3~5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실 ■ 참석자: 임학순(카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교수) 최영화(인천연구원 연구위원), 김영민(한국예술인 복지재단 부장)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비온드리서치 관계자 등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정의: 전부 또는 일부 소득을 목적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직업 예술인 - 성남시의 경우 지역 특성상 '생활 예술인'에 대한 조사대상 포함 가능성 검토 <p>2차 전문가 회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일시: 2020. 9. 15 오후 4~6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이사회실 ■ 참석자: 정희숙(부천문화재단 부장), 마진옥(한예종 산학협력단 팀장), 이계원(알투스 대표), 이호신(한성대 지식정보학부 교수) 김정진(성남문화원 사무국장), 김숙(컬처미디어랩 대표) 성남문화재단 관계자, 비온드리서치 관계자 등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실태조사와 예술인 DB 구축은 분리해서 접근해야 할 필요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 일시: 2020. 9. 9 오전 9~오후 2시 ■ 장소: 성남문화재단 사무동 1층 강당 ■ 인터뷰 부서: 창작지원부 포함 총 6개 부서 (창작지원부, 생활문화지원부, 공연기획부, 창의교육팀, 전시기획부, 문화예술교육부) ■ 주요 논의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술인 기본현황 파악 후 지원계획 수립 예정, 전문 예술인 구분 문항 필요 (창작지원부) - 전문 예술인들과 생활 예술인들의 매칭 (교육 프로그램 등)에 활용, 교육 프로그램과 연결되는 문항 필요 (생활문화지원부) - 활동 장르에 따른 공연/전시 관람 기회 부여 및 홍보 채널로 활용, 신규 예술인 유입 기대 (공연기획부) - 예술인 지원 프로그램의 홍보 채널로 활용 예정, 신규 예술인 유입 기대 (창의교육팀) - 예술인 기본현황 파악이 중요, 홍보 채널로 활용 예정, 신규 예술인(특히 개인작업을 하는 예술인) 유입 기대 (전시기획부) - 신규사업에 접목할 업데이트된 DB 필요, 강의(특히 온라인 교육) 가능 여부에 대한 문항 추가 필요 (문화예술교육부)

〈그림 1-8〉 정성조사 진행과정

4. 조사항목 도출

- 성남 예술인 및 예술단체에 대한 주요 조사 내용은 기본 현황 정보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됨
- 성남시 예술인들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예술인 기본 정보,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예술노동 및 복지, 예술활동 소득, 예술활동 내용, 예술활동 공간, 예술정책 및 지원 등 크게 7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질문 항목을 구성
- 예술인 기본 정보는 성남시 예술인들의 거주 지역과 주요 활동 지역, 활동분야 등 인적 사항을 중심

으로 내용을 구성. 이를 바탕으로 현 성남시의 예술활동 관련 토대가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지 파악하고자 함

-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는 주요 활동 직업, 활동방식, 가입 협회·단체, 예술활동 만족도, 애로사항 등을 확인
- 예술노동 및 복지 부분에서는 전업/겸업 여부, 4대 보험 가입 여부 등 예술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건이 얼마나 충족되어 있는가를 파악
- 예술활동 소득 부분에서는 소득수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 창출 비중, 예술활동 예산 조달방법 등을 확인
- 예술활동 내용 부분에서는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 지원사업 참여 경험, 지원정보 획득 경로 등을 파악하여 예술인 지원의 현 주소를 분석
- 예술활동 공간 부분에서는 예술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예술활동 공간 구비 정도, 예술활동 공간 참여 의향 등을 확인. 예술활동 지원의 한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는 공간 제공에 대한 필요성 등을 점검
- 예술지원 및 지원 부분에서는 현 성남시 예술정책/지원 수준 평가, 코로나 사태 이후 예술활동 지원 실태 등을 파악. 나아가 성남시 문화정책 수립 기본 취지에 대한 이해 정도, 디지털 전환에 대한 공감 정도를 확인하여 추후 성남문화재단의 정책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표 1-5〉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 조사내용

조사내용	세부 항목	문항수
예술인 기본 응답자 정보	인구통계학적 변수(성, 연령, 연락처)	4
	거주지역	1
	주요 활동지역	1
	예술활동 형태(전업 vs. 겸업)	1
	예술활동분야	1
	예술활동 경력	1
	예술교육/강의 가능 여부	1

조사내용	세부 항목	문항수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예술분야 주요 직업	1
	주 예술활동 방식	1
	예술인 협회·단체 활동 실태	4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	2
	예술활동 애로사항	1
예술노동 및 복지	전업 예술인 여부	1
	전업 예술인 고용형태	1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겸업 분야	2
	겸업에 따른 예술활동/생계 기여 정도	2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1
	4대 보험 가입 여부	5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비신청 이유	2
예술활동 소득	연평균 소득	1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	1
	예술활동 수입 구성비	1
	창작 관련 예산 조달방법 상대적 비중	1
	연평균 소득에 따른 생활 만족도	2
예술활동 내용	연간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1
	지원사업 참여 경험	9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1
	주 활동 지역/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2
예술활동공간	예술활동 공간 형태	1
	개인/공동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2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1
	성남시 예술활동 공간 구비 정도 평가	1
	예술활동 공간 필요 사항	1
	공동 예술활동 공간 참여 의향 및 미참여 이유	2
예술정책 및 지원	예술정책/지원제도 평가	6
	코로나 관련 지원 경험	1
	코로나 지원 기관	5
	코로나 지원 미수혜 이유	1
	코로나 극복 정책사업	1
	예술활동증진을 위한 보강 필요 정책	1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1
	지역특성 고려 필요 문화정책	1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 인식	1
	디지털 전환 필요 조건	1

- 예술인 대상 실태조사에 이어 예술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도 병행. 예술단체 대상 주요 조사내용으로 는 단체명, 소재지, 연락처 등 일반 현황, 인력, 재정 등 운영 현황, 활동 실적, 지원사업 참여 등 활동 현황 등을 중심으로 질문

〈표 1-6〉 성남 예술단체 실태조사 조사내용

조사내용	세부 항목	문항수
예술단체 일반 현황	단체명, 설립일, 소재지	3
	대표자 성명, 연락처, 홈페이지	4
	단체 법적 형태,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2
	주요 활동 지역	1
	활동분야	1
예술단체 운영 현황	인력 현황(인력, 회원수)	7
	공간 보유 현황	7
	재정 현황(예산 조달, 예산 규모)	2
예술단체 활동 현황	예술활동 연간 실적	1
	지원사업 연간 실적	6
	지원사업 세부 실적	1
	지원기관 유형	1
예술단체 활성화 건의사항		1

5. 응답자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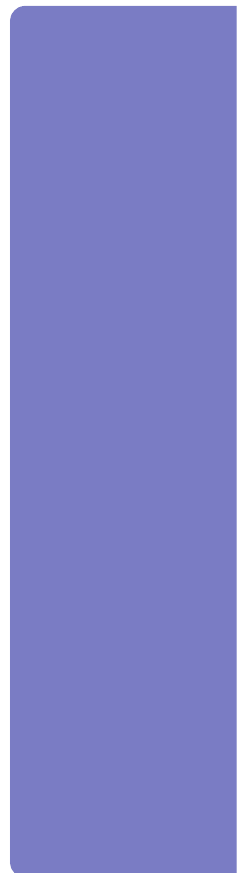
〈표 1-7〉 성남 예술인 응답자 특성표

구분		사례수(명)	비율(%)	구분		사례수(명)	비율(%)
전체		419	100.0	전체		419	100.0
거주지	성남	290	69.2	주요활동분야	문학(출판)	22	5.3
	수정구*	64	22.1		사진	11	2.6
	중원구	56	19.3		미술	106	25.3
	분당구	170	58.6		국악	47	11.2
	성남시 외 지역	80	19.1		무용	37	8.8
	서울	49	11.7		연극	36	8.6
생업 여부	전업	204	48.7		음악	100	23.9
	겸업	215	51.3		영화	19	4.5
성별	여성	225	53.7		만화	2	0.5
	남성	194	46.3		연예	10	2.4
연령대	20대 이하	43	10.3		기타	29	6.9
	30대	103	24.6	예술활동경력	3년 미만	23	5.5
	40대	152	36.3		3~5년	40	9.5
	50대	86	20.5		6~10년	67	16.0
	60대 이상	35	8.4		11~20년	121	28.9
주요활동지역	성남	178	42.5		20년 이상	168	40.1
	성남 외 경기	107	25.5	예술교육/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91.2
	서울	117	27.9		불가능	37	68.8
	그 외 지역	17	4.1				

* 거주지역에서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는 성남시 거주 예술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사례수 및 그 구성비임

제2장

정량조사 결과



제2장 정량조사 결과

제1절 예술인 실태조사

1.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1) 주요 활동 직업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예술 분야와 관련된 주요 활동 직업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 결과, 창작예술가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실연예술가(28.9%), 예술교육자(21.0%), 예술기획자, 문화기획자(각 5.5%) 등의 순으로 조사됨

(N=419)



〈그림 2-1〉 성남 예술인 주요 활동 직업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의 직업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창작예술가는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1.4%)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예술활동분야별로는 문학(77.3%), 미술(71.7%), 사진(63.6%) 등의 장르 예술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반면 실연예술가는 성별로는 여성(24.4%)보다 남성(34.0%), 20대(34.9%), 30대(32.0%) 및 40대(32.2%)층에서, 활동분야별로는 국악(61.7%), 음악(49.0%), 무용(45.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창작예술가들과 대조를 보이고 있음
- 활동방식과 관련해서 창작예술가들은 개인 단독으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실연예술가들은 회사 소속이나 다른 예술인과의 공동작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활동하고 있는 예술 분야에 따라 활동방식은 커다란 차이를 발견할 수 있음

〈표 2-1〉 응답자특성별 주요 활동 직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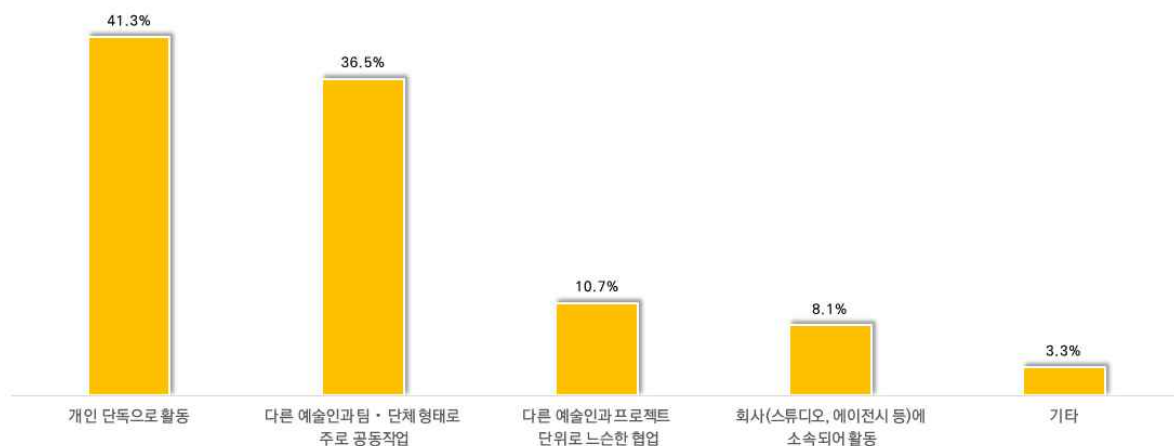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술기획자	문화기획자	예술교육자	기타
전체		(419)	33.7	28.9	5.5	5.5	21.0	5.5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7.8	9.8	1.7	1.2	26.0	3.5
	팀/단체 공동작업	(153)	12.4	47.7	7.2	7.8	18.3	6.5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33.3	22.2	4.4	13.3	20.0	6.7
	회사 소속 활동	(34)	14.7	52.9	11.8	8.8	5.9	5.9
	기타	(14)	14.3	21.4	21.4	0.0	28.6	14.3
성별	여성	(225)	34.7	24.4	4.9	4.0	26.7	5.3
	남성	(194)	32.5	34.0	6.2	7.2	14.4	5.7
연령별	20대 이하	(43)	34.9	34.9	0.0	9.3	11.6	9.3
	30대	(103)	33.0	32.0	5.8	6.8	18.4	3.9
	40대	(152)	28.9	32.2	7.2	3.9	21.7	5.9
	50대	(86)	34.9	19.8	7.0	5.8	27.9	4.7
	60대 이상	(35)	51.4	20.0	0.0	2.9	20.0	5.7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77.3	0.0	0.0	4.5	13.6	4.5
	사진	(11)	63.6	0.0	0.0	0.0	36.4	0.0
	미술	(106)	71.7	0.0	3.8	5.7	14.2	4.7
	국악	(47)	6.4	61.7	4.3	2.1	19.1	6.4
	무용	(37)	5.4	45.9	2.7	2.7	32.4	10.8
	연극	(36)	22.2	41.7	8.3	2.8	25.0	0.0
	음악	(100)	7.0	49.0	7.0	9.0	23.0	5.0
	영화	(19)	52.6	15.8	0.0	0.0	26.3	5.3
	만화	(2)	10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60.0	10.0	0.0	2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6.9	17.2	13.8	20.7	13.8

2) 주요 예술활동 방식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주요 예술활동 방식과 관련해서는 주로 ‘개인 단독’(41.3%)으로 활동하거나 ‘다른 예술인과 팀·단체 형태로 주로 공동작업’(36.5%)하고 있었음
- 반면, ‘다른 예술인과 프로젝트 단위로 느슨한 협업’(10.7%), ‘스튜디오나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예술인(8.1%)들은 개인 단독이나 공동 작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임
- 한편,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 결과(2019)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활동방식은 ‘개인 단독’ 54.7%, ‘협업’ 40.0%, ‘공동 작업’ 34.4%, ‘회사 소속 활동’ 5.9% 등의 순이었음

(N=419)



〈그림 2-2〉 성남 예술인 예술활동 방식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활동방식을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주요 활동 직업과 활동분야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즉, 개인 단독으로 활동한다는 응답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70.9%) 층에서 매우 두터운 양상을 보였으며, 활동분야로는 미술(73.6%), 사진(72.7%), 영화(63.2%) 관련 예술인들에게서 높게 나타남
- 반면, 다른 예술인과 공동 작업을 한다는 응답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60.3%), 활동분야별로는 무용(62.2%), 연극(61.1%), 음악(53.0%), 국악(51.1%) 관련 예술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예술인 성별로는 여성은 개인 단독, 남성은 다른 예술인과 공동작업을 통해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표 2-2〉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방식

(단위: %)

구분		사례수	개인 단독으로 활동	다른 예술인과 팀·단체 형태로 주로 공동작업	다른 예술인과 프로젝트 단위로 느슨한 협업	회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어 활동	기타
전체		(419)	41.3	36.5	10.7	8.1	3.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70.9	13.5	10.6	3.5	1.4
	실연예술가	(121)	14.0	60.3	8.3	14.9	2.5
	예술기획/교육자	(157)	35.7	38.9	12.7	7.0	5.7
성별	여성	(225)	44.4	30.7	12.0	8.0	4.9
	남성	(194)	37.6	43.3	9.3	8.2	1.5
연령별	20대 이하	(43)	41.9	37.2	16.3	4.7	0.0
	30대	(103)	36.9	36.9	13.6	9.7	2.9
	40대	(152)	39.5	38.8	7.9	11.2	2.6
	50대	(86)	45.3	31.4	10.5	5.8	7.0
	60대 이상	(35)	51.4	37.1	8.6	0.0	2.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68.2	0.0	22.7	4.5	4.5
	사진	(11)	72.7	18.2	9.1	0.0	0.0
	미술	(106)	73.6	13.2	9.4	1.9	1.9
	국악	(47)	14.9	51.1	4.3	21.3	8.5
	무용	(37)	18.9	62.2	10.8	5.4	2.7
	연극	(36)	22.2	61.1	8.3	5.6	2.8
	음악	(100)	24.0	53.0	12.0	9.0	2.0
	영화	(19)	63.2	15.8	10.5	10.5	0.0
	만화	(2)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30.0	10.0	2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31.0	17.2	13.8	10.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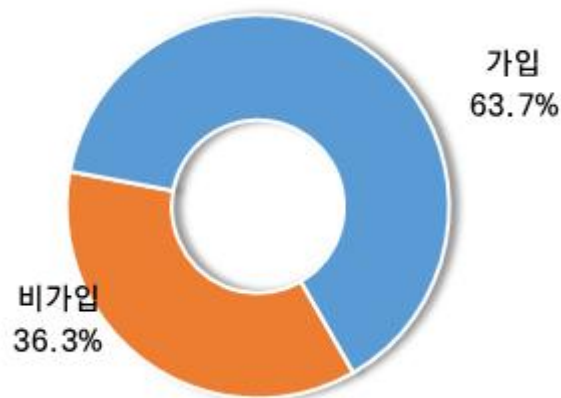
3) 예술인 협회/단체 활동 상황

(1) 예술인 협회/단체 가입 여부

가. 전체분석

- 소속된 예술인 협회·단체 소속 여부와 관련해서는 성남시 예술인들의 3명 중 2명 정도(63.7%)가 예술인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하지만 예술인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도 36.3%로 적지 않은 수준

(N=419)



〈그림 2-3〉 예술인 협회/단체 가입 여부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인 협회 및 단체에 소속된 경우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예술인 협회나 단체 소속 여부는 연령, 주요 활동 직업, 활동방식, 활동분야별로 상이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특정 협회나 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40대(71.1%), 50대(73.3%), 60대 이상(91.4%) 등 40대 이상 예술인들은 협회나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크게 높았으며,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74.4%), 예술활동 방식별로는 팀/단체 공동작업(82.4%), 활동분야별로는 무용(81.1%), 국악(78.7%), 문학/출판(77.3%) 관련 예술인에서 높게 나타남
 - 한편,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2-3〉 응답자특성별 예술인 협회/단체 가입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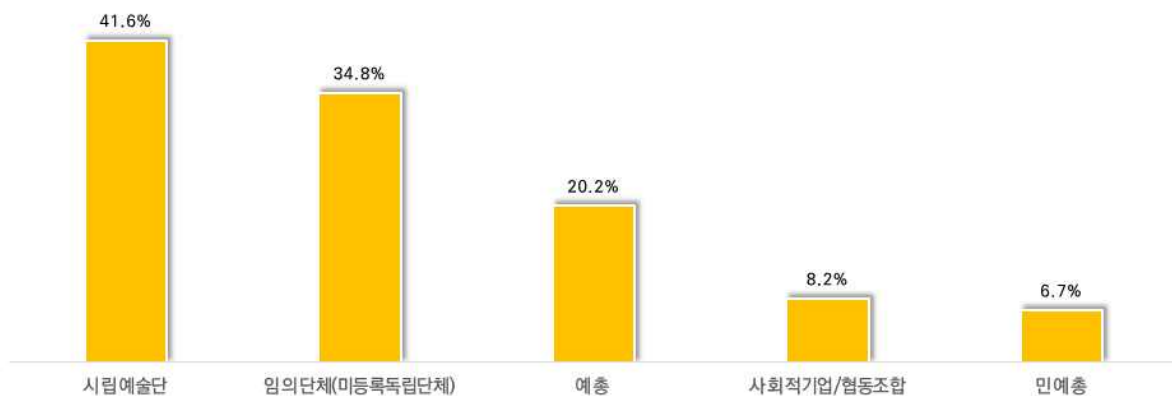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19)	63.7	36.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9.6	50.4
	실연예술가	(121)	74.4	25.6
	예술기획/교육자	(157)	68.2	31.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46.2	53.8
	팀/단체 공동작업	(153)	82.4	17.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0.0	40.0
	회사 소속 활동	(34)	67.6	32.4
성별	기타	(14)	78.6	21.4
	여성	(225)	65.8	34.2
	남성	(194)	61.3	38.7
연령별	20대 이하	(43)	34.9	65.1
	30대	(103)	47.6	52.4
	40대	(152)	71.1	28.9
	50대	(86)	73.3	26.7
	60대 이상	(35)	91.4	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77.3	22.7
	사진	(11)	36.4	63.6
	미술	(106)	43.4	56.6
	국악	(47)	78.7	21.3
	무용	(37)	81.1	18.9
	연극	(36)	69.4	30.6
	음악	(100)	76.0	24.0
	영화	(19)	47.4	52.6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5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2.1	37.9

(2) 가입 협회/단체 유형 및 활동 협회/단체 수

가. 전체분석

- 예술인 협회나 단체에 소속하고 있다는 예술인(N=267)들에게 어떤 협회나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시립예술단'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임의단체(미등록독립단체)' 가입률(34.8%)도 적지 않았음. 그 다음으로 가입하고 있는 예술인 협회나 단체는 예총(20.2%), 사회적기업/협동조합(8.2%), 민예총(6.7%) 순으로 나타남
- 한편, 성남시 예술인들은 약 2곳(2.05개) 정도의 협회나 단체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2019)에 의하면, 예술인들의 활동 협회나 단체 수는 1.9개 정도로 본 조사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음

(N=267)



〈그림 2-4〉 가입 예술인 협회/단체 유형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 협회나 단체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시립예술단’ 가입률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48.6%)나 실연예술가(47.8%) 계층,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60.9%)에게서 소속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이에 비해 임의단체(미등록독립단체) 가입률은 예술기획자나 교육자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 성별로는 남성 예술인의 경우 예총 가입률이 여성에 비해 높음

〈표 2-4〉 응답자특성별 가입 예술인 협회/단체 유형

(단위: %, 중복응답,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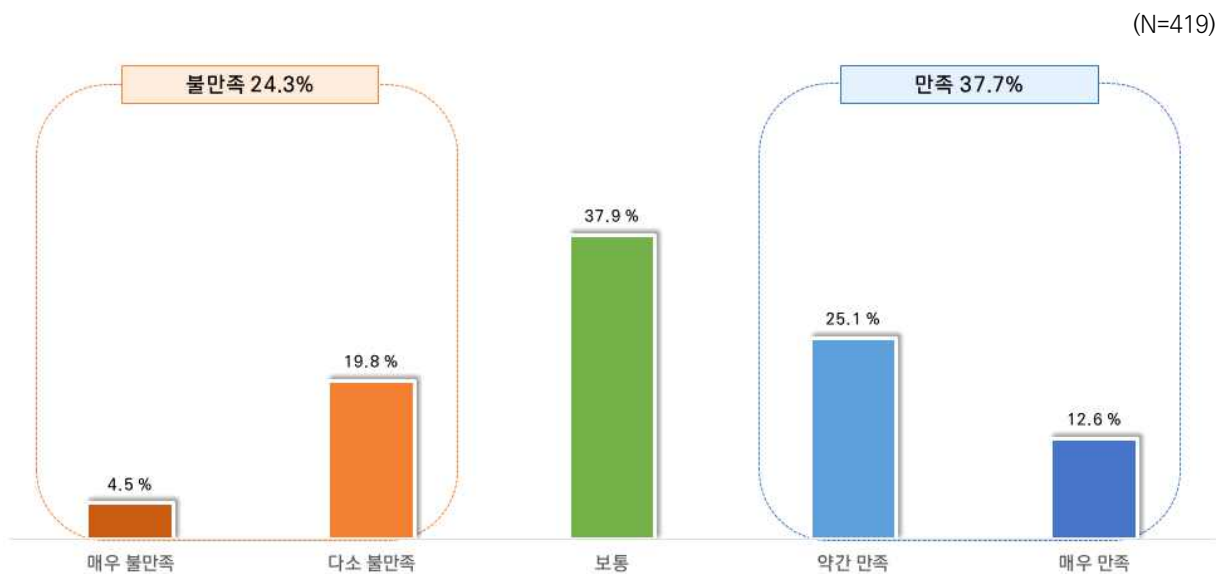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총	민예총	임의단체 (미등록독립 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립예술단	활동 협회/단체 수(개)
전체		(267)	20.2	6.7	34.8	8.2	41.6	2.0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70)	15.7	10.0	30.0	7.1	48.6	2.26
	실연예술가	(90)	25.6	6.7	28.9	5.6	47.8	1.93
	예술기획/교육자	(107)	18.7	4.7	43.0	11.2	31.8	2.01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80)	25.0	10.0	28.8	10.0	36.3	2.21
	팀/단체 공동작업	(126)	23.8	6.3	34.9	6.3	38.1	2.02
	프로젝트 단위 협업	(27)	7.4	7.4	44.4	11.1	40.7	1.89
	회사 소속 활동	(23)	4.3	0.0	34.8	8.7	60.9	1.87
	기타	(11)	9.1	0.0	54.5	9.1	81.8	1.91
성별	여성	(148)	16.9	3.4	37.8	9.5	43.9	2.07
	남성	(119)	24.4	10.9	31.1	6.7	38.7	2.02
연령별	20대 이하	(15)	6.7	6.7	66.7	0.0	26.7	1.13
	30대	(49)	10.2	4.1	40.8	10.2	46.9	1.88
	40대	(108)	15.7	4.6	30.6	12.0	44.4	2.00
	50대	(63)	30.2	7.9	30.2	4.8	44.4	2.16
	60대 이상	(32)	37.5	15.6	34.4	3.1	25.0	2.69
활동분야	문학(출판)	(17)	23.5	11.8	29.4	17.6	41.2	1.92
	사진	(4)	50.0	25.0	0.0	25.0	0.0	2.11
	미술	(46)	19.6	10.9	30.4	8.7	43.5	2.26
	국악	(37)	18.9	13.5	37.8	10.8	37.8	2.00
	무용	(30)	26.7	0.0	53.3	6.7	26.7	2.18
	연극	(25)	24.0	4.0	44.0	4.0	32.0	1.75
	음악	(76)	21.1	3.9	30.3	7.9	46.1	2.33
	영화	(9)	0.0	0.0	44.4	0.0	55.6	2.03
	연예(방송, 공연)	(5)	40.0	0.0	0.0	0.0	60.0	2.67
	기타(다원예술 등)	(18)	0.0	5.6	33.3	5.6	61.1	2.08

4) 예술활동/생활 만족도

(1) 예술활동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만족’ 37.7%, ‘(매우+다소) 불만족’ 24.3%로 현재 영위하고 있는 예술활동에 대해 만족하는 비율이 만족하지 못하는 비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보통’이라는 응답이 37.9%에 달해 예술활동과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그림 2-5〉 예술활동 전반적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만족도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회사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회사 소속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은 아마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입이 있기 때문으로 여겨짐
 - 예술인 성별 예술활동 만족도는 남성 예술인이나 여성 예술인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5〉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전반적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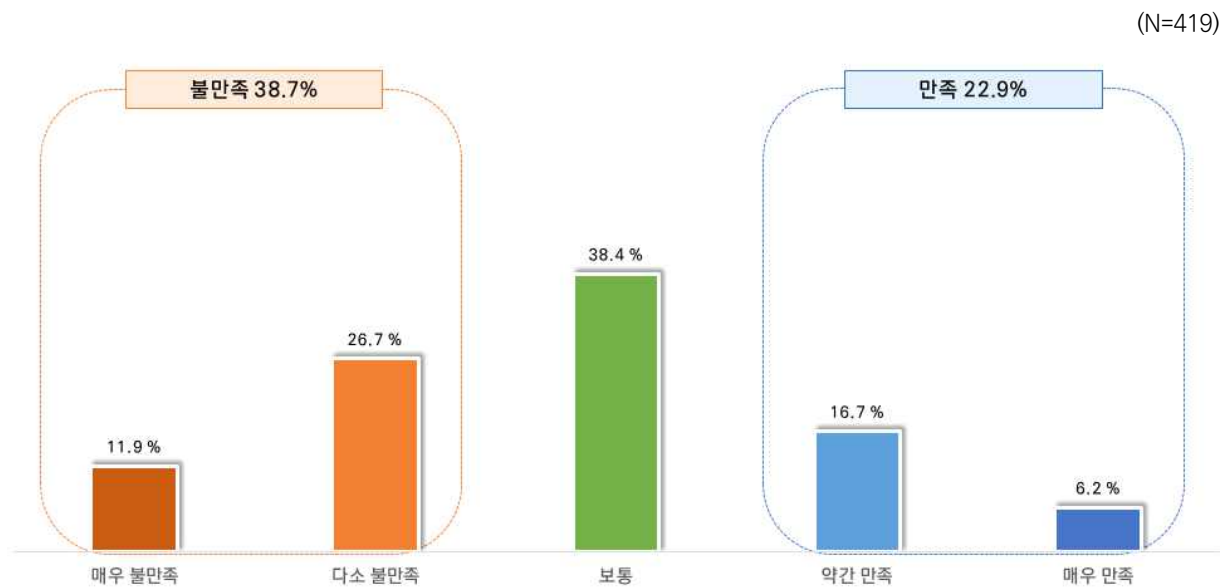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평균
전체		(419)	4.5	19.8	37.9	25.1	12.6	37.7	24.3	3.21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7	22.0	36.2	27.0	9.2	36.2	27.7	3.12
	실연예술가	(121)	3.3	21.5	37.2	24.8	13.2	38.0	24.8	3.23
	예술기획/교육자	(157)	4.5	16.6	40.1	23.6	15.3	38.9	21.0	3.29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6.4	22.0	41.0	23.1	7.5	30.6	28.3	3.03
	팀/단체 공동작업	(153)	4.6	16.3	40.5	21.6	17.0	38.6	20.9	3.3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0.0	28.9	24.4	35.6	11.1	46.7	28.9	3.29
	회사 소속 활동	(34)	2.9	14.7	32.4	32.4	17.6	50.0	17.6	3.47
	기타	(14)	0.0	14.3	28.6	35.7	21.4	57.1	14.3	3.64
성별	여성	(225)	5.8	21.3	35.6	24.4	12.9	37.3	27.1	3.17
	남성	(194)	3.1	18.0	40.7	25.8	12.4	38.1	21.1	3.26
연령별	20대 이하	(43)	2.3	18.6	46.5	20.9	11.6	32.6	20.9	3.21
	30대	(103)	2.9	22.3	34.0	30.1	10.7	40.8	25.2	3.23
	40대	(152)	6.6	22.4	39.5	21.7	9.9	31.6	28.9	3.06
	50대	(86)	3.5	15.1	38.4	24.4	18.6	43.0	18.6	3.40
	60대 이상	(35)	5.7	14.3	31.4	31.4	17.1	48.6	20.0	3.4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4.5	22.7	36.4	31.8	4.5	36.4	27.3	3.09
	사진	(11)	9.1	18.2	36.4	18.2	18.2	36.4	27.3	3.18
	미술	(106)	3.8	16.0	40.6	27.4	12.3	39.6	19.8	3.28
	국악	(47)	10.6	21.3	31.9	23.4	12.8	36.2	31.9	3.06
	무용	(37)	2.7	27.0	45.9	13.5	10.8	24.3	29.7	3.03
	연극	(36)	2.8	11.1	41.7	36.1	8.3	44.4	13.9	3.36
	음악	(100)	3.0	17.0	37.0	25.0	18.0	43.0	20.0	3.38
	영화	(19)	10.5	42.1	31.6	10.5	5.3	15.8	52.6	2.58
	만화	(2)	0.0	0.0	0.0	50.0	50.0	100.0	0.0	4.50
	연예(방송, 공연)	(10)	0.0	30.0	40.0	30.0	0.0	30.0	30.0	3.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24.1	34.5	24.1	13.8	37.9	27.6	3.21

(2) 생활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생활에 대한 만족도를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만족’ 22.9%, ‘(매우+다소) 불만족’ 38.7%로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불만족하는 예술인들이 만족하는 예술인들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됨
 - ‘보통’이라는 응답도 38.4%에 달해 생활과 관련한 전반적인 만족 수준은 크게 높지 않은 수준이라고 해석할 수 있음
- 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예술활동에 대한 만족도에 비해 높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는 점이 두드러짐
 - 이는 일정 부분 예술활동만으로 전반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됨



〈그림 2-6〉 생활수준 전반적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생활 만족도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방식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여 회사에 소속하여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들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응답자특성별 생활 만족도 또한 예술활동 만족도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예술인들의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왕성한 예술활동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하는 활동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음
- 예술인 성별 생활 만족도는 남성 예술인이나 여성 예술인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6〉 응답자특성별 생활수준 전반적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평균
전체		(419)	11.9	26.7	38.4	16.7	6.2	22.9	38.7	2.79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5.6	30.5	34.8	14.9	4.3	19.1	46.1	2.62
	실연예술가	(121)	12.4	25.6	43.8	14.9	3.3	18.2	38.0	2.71
	예술기획/교육자	(157)	8.3	24.2	37.6	19.7	10.2	29.9	32.5	2.99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6.2	24.3	36.4	17.3	5.8	23.1	40.5	2.72
	팀/단체 공동작업	(153)	10.5	24.8	44.4	14.4	5.9	20.3	35.3	2.8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7	44.4	35.6	8.9	4.4	13.3	51.1	2.60
	회사 소속 활동	(34)	5.9	17.6	35.3	29.4	11.8	41.2	23.5	3.24
	기타	(14)	7.1	42.9	14.3	28.6	7.1	35.7	50.0	2.86
성별	여성	(225)	11.6	25.8	36.9	18.7	7.1	25.8	37.3	2.84
	남성	(194)	12.4	27.8	40.2	14.4	5.2	19.6	40.2	2.72
연령별	20대 이하	(43)	9.3	25.6	51.2	9.3	4.7	14.0	34.9	2.74
	30대	(103)	10.7	29.1	35.9	17.5	6.8	24.3	39.8	2.81
	40대	(152)	12.5	28.3	34.2	19.1	5.9	25.0	40.8	2.78
	50대	(86)	15.1	24.4	40.7	14.0	5.8	19.8	39.5	2.71
	60대 이상	(35)	8.6	20.0	42.9	20.0	8.6	28.6	28.6	3.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31.8	36.4	9.1	4.5	13.6	50.0	2.50
	사진	(11)	18.2	45.5	27.3	9.1	0.0	9.1	63.6	2.27
	미술	(106)	9.4	28.3	35.8	17.9	8.5	26.4	37.7	2.88
	국악	(47)	12.8	31.9	34.0	19.1	2.1	21.3	44.7	2.66
	무용	(37)	13.5	27.0	45.9	5.4	8.1	13.5	40.5	2.68
	연극	(36)	8.3	25.0	44.4	19.4	2.8	22.2	33.3	2.83
	음악	(100)	10.0	18.0	45.0	21.0	6.0	27.0	28.0	2.95
	영화	(19)	31.6	42.1	15.8	10.5	0.0	10.5	73.7	2.05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 공연)	(10)	0.0	20.0	50.0	30.0	0.0	30.0	20.0	3.10
	기타(다원예술 등)	(29)	13.8	27.6	31.0	10.3	17.2	27.6	41.4	2.90

(3) 예술활동/생활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 성남시 예술인들의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따라 예술활동 및 생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의한 예술활동, 생활 만족도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7〉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예술활동/생활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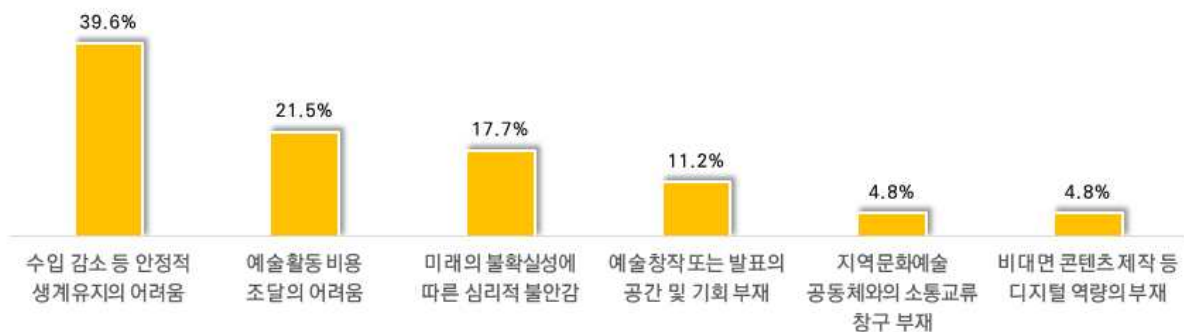
조사내용	구분	사례수	평균 (Mean)	표준편차 (SD)	<i>F</i>	<i>p-value</i>	사후 검증 결과 (Scheffe)
예술활동 만족도	성남 거주/성남 활동	125	3.328	1.046	.906	.438	
	성남 거주/성남 외 활동	165	3.133	1.015			
	성남 외 거주/성남 활동	53	3.264	1.163			
	성남 외 거주/성남 외 활동	67	3.171	1.025			
생활 만족도	성남 거주/성남 활동	125	2.848	1.040	.864	.460	
	성남 거주/성남 외 활동	165	2.685	1.011			
	성남 외 거주/성남 활동	53	2.811	1.194			
	성남 외 거주/성남 외 활동	67	2.882	1.083			

5) 예술활동 애로사항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이 체감하고 있는 예술활동과 관련한 애로사항으로는 ‘수입 감소 등 안정적 생계 유지의 어려움’을 가장 많이(39.6%) 지적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예술활동 비용 조달의 어려움’ 21.5%,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17.7%, ‘예술 창작 또는 발표 공간 및 기회 부재’ 11.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결과는 앞에서 예술활동이나 생활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라는 것과 결부시켜 볼 때 예술활동만으로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렵다는 현실의 문제를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N=419)



〈그림 2-7〉 예술활동 애로사항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을 둘러싼 애로사항을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모든 계층에서 안정적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음

○ 다만 활동방식에 따라서는 약간의 응답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 즉, 회사 소속 예술인이나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하는 예술인들은 안정적 생계유지만이 아니라 예술 활동 비용 조달, 불확실한 미래 등에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 안정적 생계유지가 어렵다는 응답은 남성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표 2-8〉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애로사항

(단위: %)

구분		사례수	수입 감소 등 안정적 생계유지의 어려움	예술활동 비용 조달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예술창작 또는 발표의 공간 및 기회 부재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와의 소통교류 창구 부재	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역량의부재	모름/무응답
전체		(419)	39.6	21.5	17.7	11.2	4.8	4.8	0.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37.6	25.5	12.8	15.6	2.8	4.3	1.4
	실연예술가	(121)	48.8	19.8	18.2	5.0	2.5	5.8	0.0
	예술기획/교육자	(157)	34.4	19.1	21.7	12.1	8.3	4.5	0.0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37.6	16.8	19.1	17.3	4.0	4.6	0.6
	팀/단체 공동작업	(153)	46.4	24.8	13.1	7.2	5.2	3.3	0.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31.1	26.7	28.9	4.4	2.2	6.7	0.0
	회사 소속 활동	(34)	29.4	23.5	20.6	8.8	5.9	8.8	2.9
기타		(14)	42.9	21.4	7.1	7.1	14.3	7.1	0.0
성별	여성	(225)	31.1	22.7	19.6	15.1	5.3	5.8	0.4
	남성	(194)	49.5	20.1	15.5	6.7	4.1	3.6	0.5
연령별	20대 이하	(43)	41.9	18.6	27.9	4.7	4.7	2.3	0.0
	30대	(103)	48.5	12.6	20.4	12.6	1.0	3.9	1.0
	40대	(152)	31.6	23.0	19.1	13.2	6.6	5.9	0.7
	50대	(86)	43.0	26.7	14.0	9.3	3.5	3.5	0.0
	60대 이상	(35)	37.1	31.4	0.0	11.4	11.4	8.6	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50.0	9.1	9.1	27.3	4.5	0.0	0.0
	사진	(11)	54.5	18.2	18.2	9.1	0.0	0.0	0.0
	미술	(106)	37.7	20.8	16.0	14.2	2.8	7.5	0.9
	국악	(47)	53.2	12.8	14.9	6.4	4.3	8.5	0.0
	무용	(37)	43.2	29.7	10.8	8.1	5.4	2.7	0.0
	연극	(36)	33.3	27.8	16.7	8.3	5.6	5.6	2.8
	음악	(100)	37.0	20.0	23.0	9.0	7.0	4.0	0.0
	영화	(19)	47.4	31.6	21.1	0.0	0.0	0.0	0.0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10.0	30.0	2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0.7	34.5	13.8	17.2	10.3	3.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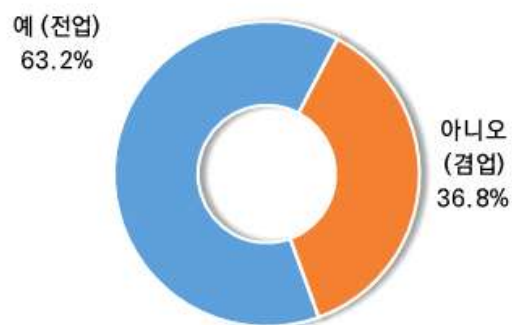
2. 예술노동 및 복지

1) 전업 예술활동 여부

가. 전체분석

- 2019년 기준 성남시 예술인들의 고용 정도를 파악한 결과, 응답자의 63.2%가 예술활동을 전업으로 하고 있었으며, 다른 직업을 하고 있는 비율은 36.8%로 조사됨
 - 5명 중 3명 이상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고 있음을 의미
 - 다만 예술활동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현실을 고려해볼 때 전업 예술인에 대한 대책 수립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전업 예술인의 비율은 본 조사의 경우 63.2%로, 이는 경기도 예술인실태조사의 47.0%, 전국 예술인 실태조사의 57.4%와 비교해볼 때 약간 높은 것으로 보임

(N=419)



〈그림 2-8〉 전업 예술활동 여부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고 있다는 응답은 예술 주요 활동 직업,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분야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보임

- 예술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전업 예술인들은 실연예술가(75.2%), 예술활동 방식별로는 회사 소속(85.3%), 활동분야별로는 국악(83.0%), 음악(75.0%), 무용(70.3%), 사진(63.6%) 등의 예술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 전업과 겸업 비중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9〉 응답자특성별 전업 예술활동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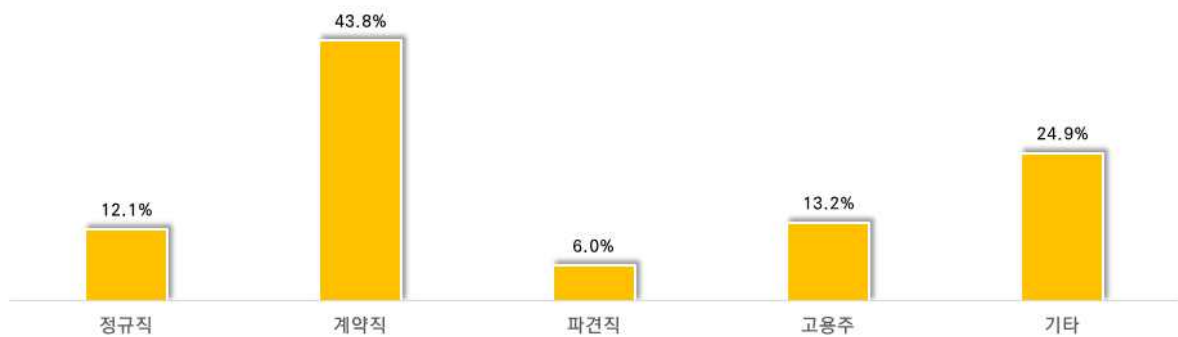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업	겸업
전체		(419)	63.2	36.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6.0	44.0
	실연예술가	(121)	75.2	24.8
	예술기획/교육자	(157)	60.5	39.5
	예술기타	(173)	57.8	42.2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7.8	42.2
	팀/단체 공동작업	(153)	67.3	32.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8.9	51.1
	회사 소속 활동	(34)	85.3	14.7
성별	기타	(14)	78.6	21.4
	여성	(225)	60.0	40.0
연령별	남성	(194)	67.0	33.0
	20대 이하	(43)	44.2	55.8
연령별	30대	(103)	65.0	35.0
	40대	(152)	67.8	32.2
	50대	(86)	59.3	40.7
	60대 이상	(35)	71.4	2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45.5	54.5
	사진	(11)	63.6	36.4
	미술	(106)	54.7	45.3
	국악	(47)	83.0	17.0
	무용	(37)	70.3	29.7
	연극	(36)	50.0	50.0
	음악	(100)	75.0	25.0
	영화	(19)	42.1	57.9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70.0	3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1.7	48.3

2) 고용형태

가. 전체분석

- 전업으로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예술인(N=265)들의 고용형태를 파악해본 결과,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비율이 43.8%로 가장 많았으며, 정규직(12.1%) 예술인은 많지 않았음
- 이러한 결과는 성남시 예술인의 전업 비율은 비교적 높은 편이나, 점업 양상이 정규직보다는 계약직이나 파견직 등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은 신분을 유지한 채 예술 외의 다른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N=265)



〈그림 2-9〉 고용형태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전업 예술인들의 고용형태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계약직은 창작예술가에 비해 실연예술가(51.6%)나 예술기획/교육자(47.4%) 계층에서, 활동방식별로는 프로젝트 단위 협업 예술인(68.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음
- 예술인 성별에 따른 고용형태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음

- 반면 회사 소속 활동 예술인들은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0〉 응답자특성별 고용형태

(단위: %)

구분		사례수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고용주	기타
전체		(265)	12.1	43.8	6.0	13.2	24.9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79)	3.8	30.4	6.3	12.7	46.8
	실연예술가	(91)	17.6	51.6	6.6	5.5	18.7
	예술기획/교육자	(95)	13.7	47.4	5.3	21.1	12.6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00)	3.0	38.0	8.0	15.0	36.0
	팀/단체 공동작업	(103)	17.5	44.7	4.9	13.6	19.4
	프로젝트 단위 협업	(22)	0.0	68.2	9.1	9.1	13.6
	회사 소속 활동	(29)	37.9	41.4	0.0	10.3	10.3
	기타	(11)	0.0	45.5	9.1	9.1	36.4
성별	여성	(135)	8.1	47.4	6.7	14.8	23.0
	남성	(130)	16.2	40.0	5.4	11.5	26.9
연령별	20대 이하	(19)	5.3	21.1	31.6	5.3	36.8
	30대	(67)	6.0	52.2	7.5	11.9	22.4
	40대	(103)	20.4	48.5	1.9	12.6	16.5
	50대	(51)	9.8	33.3	2.0	25.5	29.4
	60대 이상	(25)	4.0	40.0	8.0	0.0	48.0
활동분야	문학(출판)	(10)	0.0	50.0	20.0	0.0	30.0
	사진	(7)	0.0	42.9	14.3	14.3	28.6
	미술	(58)	3.4	32.8	5.2	12.1	46.6
	국악	(39)	17.9	61.5	7.7	2.6	10.3
	무용	(26)	7.7	61.5	0.0	19.2	11.5
	연극	(18)	11.1	16.7	16.7	33.3	22.2
	음악	(75)	20.0	45.3	2.7	12.0	20.0
	영화	(8)	0.0	62.5	12.5	12.5	12.5
	만화	(2)	0.0	50.0	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7)	0.0	28.6	14.3	28.6	28.6
	기타(다원예술 등)	(15)	26.7	26.7	0.0	20.0	2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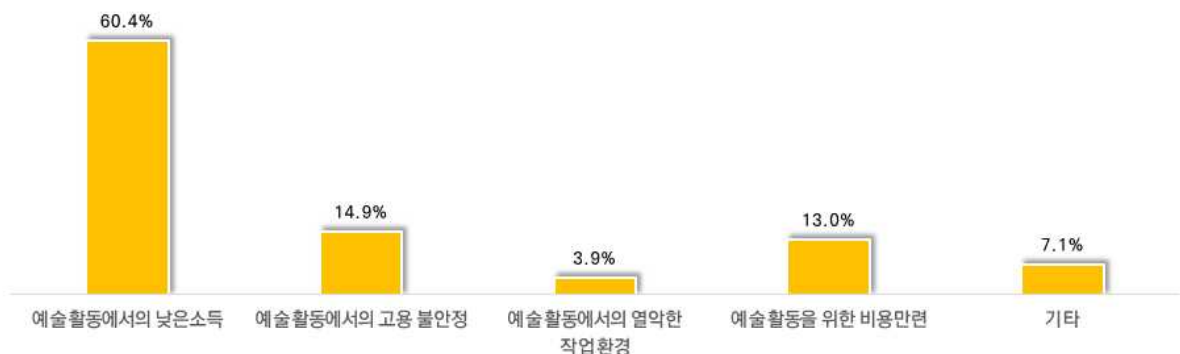
3) 겸업 예술활동 실태

(1) 겸업 이유

가. 전체분석

- 겸업을 하고 있는 예술인(N=154)들에게 예술만이 아닌 다른 활동도 병행하고 있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을 꼽고 있는 비율이 60.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14.9%,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13.0% 등의 순이었으나 그 정도는 많지 않음
 - 결국 예술활동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획득하기 어려우므로 다른 일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겸업으로 예술활동을 하게 되는 이유와 관련해서 ‘소득 문제’는 전국예술인실태조사나 경기도예술인 실태조사결과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주된 요인임
 - 전국예술인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겸업 예술인의 예술활동 외 직업 종사 이유로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46.5%),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27.1%)를 지적하고 있음
 -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2019)에서는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46.2%), ‘현재 예술활동에서의 불규칙한 소득’(33.1%)를 지적하고 있음

(N=154)



〈그림 2-10〉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계층에서 예술활동으로 인한 낮은 소득이 예술만이 아닌 다른 활동을 하게 되는 주된 사유로 지적하고 있음

-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 실연예술가(23.3%), 예술기획/교육자(19.4%) 계층에서 많이 꼽고 있음
- 예술인 성별로는 남성 예술인에게서 ‘예술활동의 낮은 소득’을 꼽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11〉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외 겸업 이유

(단위: %)

구분		사례수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기타	모름/무응답
전체		(154)	60.4	14.9	3.9	13.0	7.1	0.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2)	66.1	6.5	8.1	14.5	4.8	0.0
	실연예술가	(30)	60.0	23.3	0.0	6.7	6.7	3.3
	예술기획/교육자	(62)	54.8	19.4	1.6	14.5	9.7	0.0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73)	58.9	16.4	5.5	11.0	8.2	0.0
	팀/단체 공동작업	(50)	62.0	16.0	2.0	12.0	6.0	2.0
	프로젝트 단위 협업	(23)	69.6	8.7	4.3	13.0	4.3	0.0
	회사 소속 활동	(5)	40.0	0.0	0.0	60.0	0.0	0.0
	기타	(3)	33.3	33.3	0.0	0.0	33.3	0.0
성별	여성	(90)	56.7	16.7	3.3	14.4	7.8	1.1
	남성	(64)	65.6	12.5	4.7	10.9	6.3	0.0
연령별	20대 이하	(24)	62.5	12.5	4.2	12.5	8.3	0.0
	30대	(36)	61.1	8.3	5.6	13.9	8.3	2.8
	40대	(49)	57.1	18.4	2.0	16.3	6.1	0.0
	50대	(35)	60.0	22.9	0.0	11.4	5.7	0.0
	60대 이상	(10)	70.0	0.0	20.0	0.0	10.0	0.0
활동분야	문학(출판)	(12)	66.7	8.3	16.7	8.3	0.0	0.0
	사진	(4)	75.0	0.0	25.0	0.0	0.0	0.0
	미술	(48)	58.3	10.4	4.2	18.8	8.3	0.0
	국악	(8)	37.5	50.0	0.0	0.0	12.5	0.0
	무용	(11)	36.4	18.2	9.1	18.2	18.2	0.0
	연극	(18)	72.2	16.7	0.0	0.0	5.6	5.6
	음악	(25)	68.0	12.0	0.0	20.0	0.0	0.0
	영화	(11)	45.5	45.5	0.0	9.1	0.0	0.0
	연예(방송, 공연)	(3)	100.0	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14)	64.3	0.0	0.0	14.3	21.4	0.0

(2) 겸업 시 직종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과 다른 활동을 겸업하고 있는 성남시 예술인들이 어떤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예술활동 관련 직종 54.5%, 예술활동 무관 직종 45.5%로 예술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병행하고 있다는 비율이 예술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업무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거의 절반 정도의 예술인들이 예술활동과는 무관한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보임

(N=154)



〈그림 2-11〉 겸업 시 직종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과 무관한 직종의 업무를 하고 있다는 비율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66.7%)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로는 여성 예술인들에게서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된 직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비율이 높음

〈표 2-12〉 응답자특성별 검업 시 직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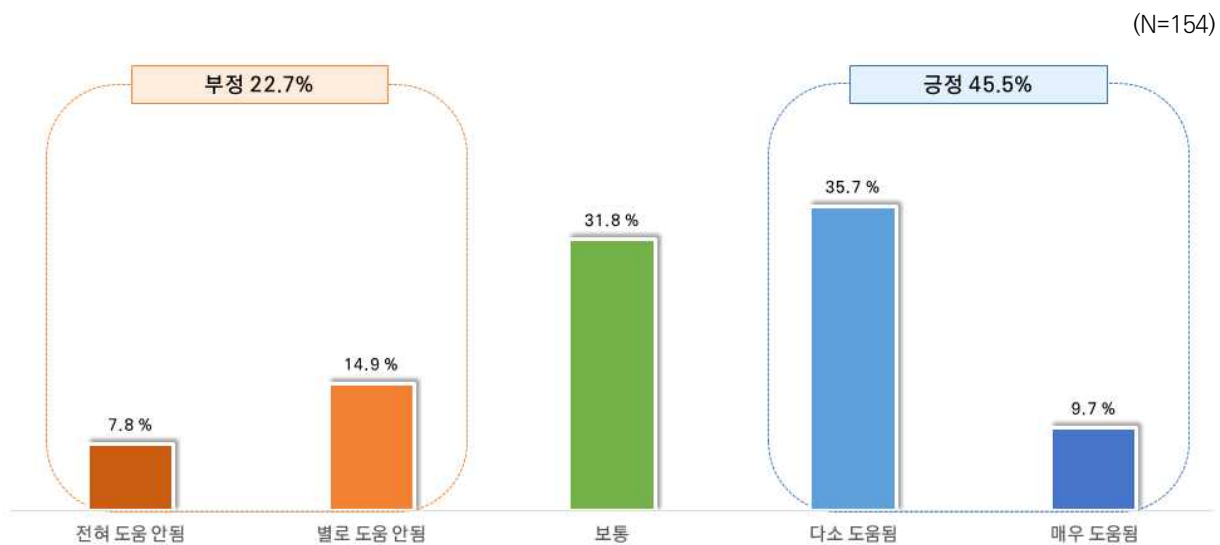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
전체		(154)	54.5	45.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2)	62.9	37.1
	실연예술가	(30)	33.3	66.7
	예술기획/교육자	(62)	56.5	43.5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73)	61.6	38.4
	팀/단체 공동작업	(50)	44.0	56.0
	프로젝트 단위 협업	(23)	52.2	47.8
	회사 소속 활동	(5)	80.0	20.0
	기타	(3)	33.3	66.7
성별	여성	(90)	60.0	40.0
	남성	(64)	46.9	53.1
연령별	20대 이하	(24)	41.7	58.3
	30대	(36)	52.8	47.2
	40대	(49)	59.2	40.8
	50대	(35)	60.0	40.0
	60대 이상	(10)	50.0	50.0
활동분야	문학(출판)	(12)	50.0	50.0
	사진	(4)	50.0	50.0
	미술	(48)	60.4	39.6
	국악	(8)	12.5	87.5
	무용	(11)	63.6	36.4
	연극	(18)	38.9	61.1
	음악	(25)	52.0	48.0
	영화	(11)	72.7	27.3
	연예(방송, 공연)	(3)	66.7	33.3
	기타(다원예술 등)	(14)	64.3	35.7

(3) 겸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외 겸업이 예술활동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다소) 도움이 되었다’ 45.5%,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22.7%로 다른 일을 병행함으로써 예술활동을 수행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음
- 하지만 ‘보통’이라는 응답도 31.8%로 겸업이 예술활동이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응답을 유보하는 비율도 적지 않음



〈그림 2-12〉 겸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검업으로 인한 예술활동 도움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검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와 관련해서는 예술인 성별로는 이렇다 할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2-13〉 응답자특성별 검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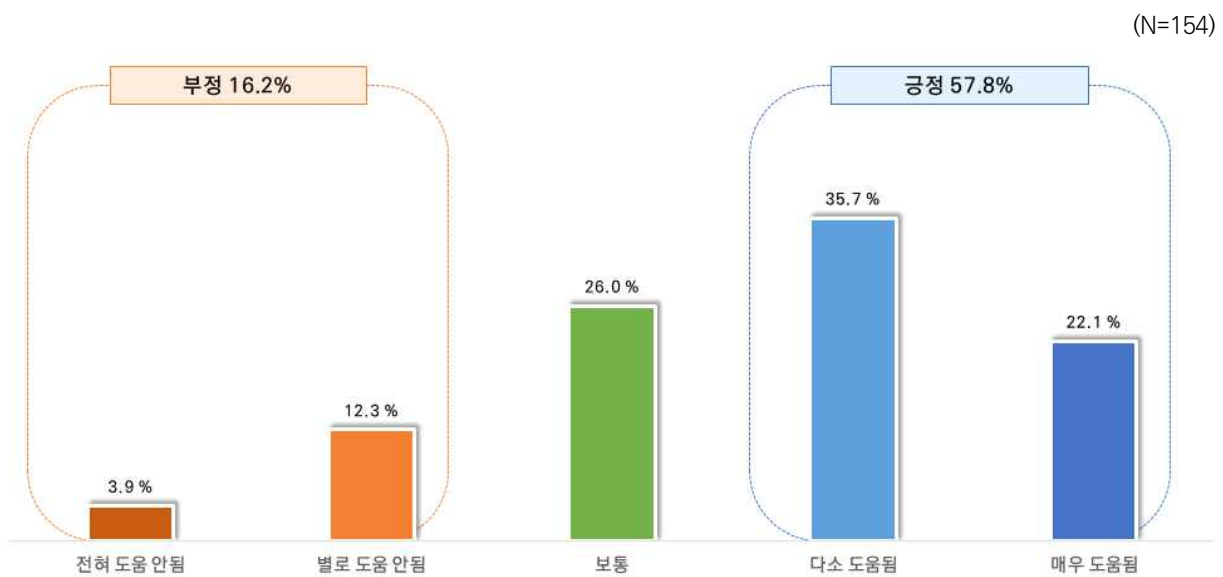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긍정	부정	평균
전체		(154)	7.8	14.9	31.8	35.7	9.7	45.5	22.7	3.2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2)	9.7	14.5	32.3	30.6	12.9	43.5	24.2	3.23
	실연예술가	(30)	13.3	16.7	23.3	46.7	0.0	46.7	30.0	3.03
	예술기획/교육자	(62)	3.2	14.5	35.5	35.5	11.3	46.8	17.7	3.37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73)	8.2	13.7	34.2	30.1	13.7	43.8	21.9	3.27
	팀/단체 공동작업	(50)	2.0	18.0	30.0	42.0	8.0	50.0	20.0	3.36
	프로젝트 단위 협업	(23)	17.4	13.0	34.8	34.8	0.0	34.8	30.4	2.87
	회사 소속 활동	(5)	0.0	20.0	20.0	40.0	20.0	60.0	20.0	3.60
	기타	(3)	33.3	0.0	0.0	66.7	0.0	66.7	33.3	3.00
성별	여성	(90)	6.7	14.4	30.0	38.9	10.0	48.9	21.1	3.31
	남성	(64)	9.4	15.6	34.4	31.3	9.4	40.6	25.0	3.16
연령별	20대 이하	(24)	20.8	20.8	29.2	29.2	0.0	29.2	41.7	2.67
	30대	(36)	11.1	19.4	16.7	44.4	8.3	52.8	30.6	3.19
	40대	(49)	2.0	10.2	38.8	38.8	10.2	49.0	12.2	3.45
	50대	(35)	2.9	11.4	37.1	28.6	20.0	48.6	14.3	3.51
	60대 이상	(10)	10.0	20.0	40.0	30.0	0.0	30.0	30.0	2.90
활동분야	문학(출판)	(12)	8.3	8.3	41.7	41.7	0.0	41.7	16.7	3.17
	사진	(4)	0.0	0.0	100.0	0.0	0.0	0.0	0.0	3.00
	미술	(48)	10.4	14.6	31.3	31.3	12.5	43.8	25.0	3.21
	국악	(8)	12.5	25.0	12.5	50.0	0.0	50.0	37.5	3.00
	무용	(11)	0.0	18.2	27.3	36.4	18.2	54.5	18.2	3.55
	연극	(18)	11.1	16.7	38.9	27.8	5.6	33.3	27.8	3.00
	음악	(25)	8.0	16.0	24.0	44.0	8.0	52.0	24.0	3.28
	영화	(11)	0.0	18.2	45.5	27.3	9.1	36.4	18.2	3.27
	연예(방송, 공연)	(3)	0.0	33.3	0.0	66.7	0.0	66.7	33.3	3.33
	기타(다원예술 등)	(14)	7.1	7.1	21.4	42.9	21.4	64.3	14.3	3.64

(4) 겸업의 생계 도움 정도

가. 전체분석

- 겸업의 예술활동 도움 정도에 이어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가를 질문한 결과, ‘(매우+다소) 도움이 되었다’ 57.8%, ‘(전혀+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16.2%로 생계와 관련해서는 겸업을 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이 부정적인 응답보다 크게 높음



〈그림 2-13〉 겸업의 생계 도움 정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검업으로 인한 생계 도움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평가를 상회하고 있음

- 예술인 성별 검업으로 인한 생계 도움 정도는 남성 예술인이나 여성 예술인 간에 차이가 발견되지 않음

〈표 2-14〉 응답자특성별 검업의 생계 도움 정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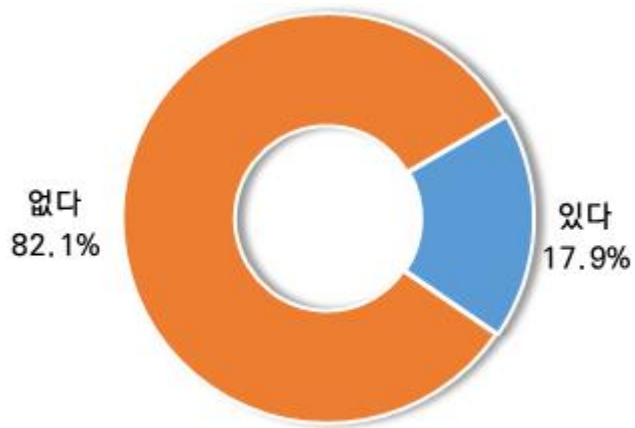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긍정	부정	평균
전체		(154)	3.9	12.3	26.0	35.7	22.1	57.8	16.2	3.60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2)	4.8	6.5	22.6	43.5	22.6	66.1	11.3	3.73
	실연예술가	(30)	3.3	16.7	30.0	36.7	13.3	50.0	20.0	3.40
	예술기획/교육자	(62)	3.2	16.1	27.4	27.4	25.8	53.2	19.4	3.5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73)	5.5	12.3	24.7	32.9	24.7	57.5	17.8	3.59
	팀/단체 공동작업	(50)	4.0	12.0	30.0	34.0	20.0	54.0	16.0	3.54
	프로젝트 단위 협업	(23)	0.0	8.7	21.7	47.8	21.7	69.6	8.7	3.83
	회사 소속 활동	(5)	0.0	0.0	40.0	40.0	20.0	60.0	0.0	3.80
기타		(3)	0.0	66.7	0.0	33.3	0.0	33.3	66.7	2.67
성별	여성	(90)	3.3	18.9	18.9	37.8	21.1	58.9	22.2	3.54
	남성	(64)	4.7	3.1	35.9	32.8	23.4	56.3	7.8	3.67
연령별	20대 이하	(24)	0.0	12.5	41.7	37.5	8.3	45.8	12.5	3.42
	30대	(36)	2.8	11.1	11.1	41.7	33.3	75.0	13.9	3.92
	40대	(49)	6.1	12.2	22.4	38.8	20.4	59.2	18.4	3.55
	50대	(35)	2.9	11.4	34.3	22.9	28.6	51.4	14.3	3.63
	60대 이상	(10)	10.0	20.0	30.0	40.0	0.0	40.0	30.0	3.00
활동분야	문학(출판)	(12)	0.0	25.0	16.7	41.7	16.7	58.3	25.0	3.50
	사진	(4)	25.0	0.0	0.0	25.0	50.0	75.0	25.0	3.75
	미술	(48)	2.1	6.3	29.2	33.3	29.2	62.5	8.3	3.81
	국악	(8)	0.0	12.5	25.0	62.5	0.0	62.5	12.5	3.50
	무용	(11)	18.2	9.1	18.2	36.4	18.2	54.5	27.3	3.27
	연극	(18)	5.6	22.2	22.2	33.3	16.7	50.0	27.8	3.33
	음악	(25)	0.0	20.0	28.0	40.0	12.0	52.0	20.0	3.44
	영화	(11)	9.1	9.1	45.5	27.3	9.1	36.4	18.2	3.18
	연예(방송, 공연)	(3)	0.0	0.0	66.7	0.0	33.3	33.3	0.0	3.67
	기타(다원예술 등)	(14)	0.0	7.1	14.3	35.7	42.9	78.6	7.1	4.14

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있다’ 17.9%, ‘없다’ 82.1%로 거의 대부분의 예술인들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14〉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자격증 보유층은 연령별로는 60대 이상(34.3%), 활동분야별로는 무용(48.6%), 국악(29.8%) 장르의 예술인들에게서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율은 여성 예술인(22.7%)이 남성 예술인(12.4%)에 비해 약간 높음

〈표 2-15〉 응답자특성별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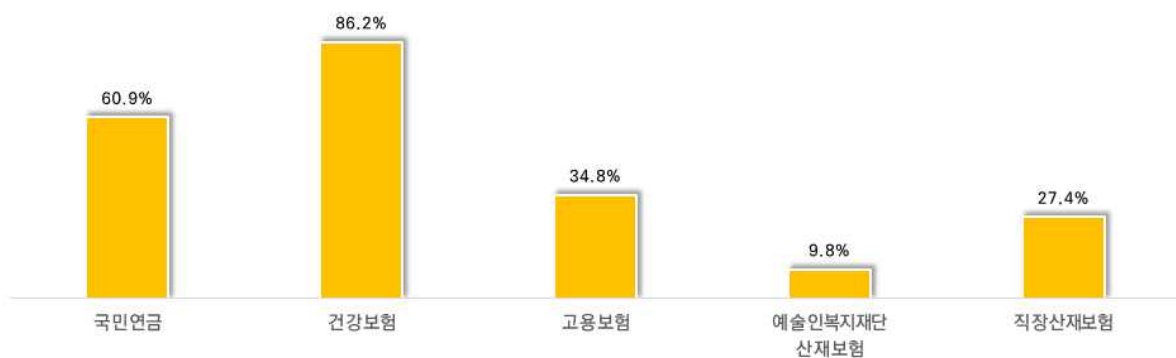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19)	17.9	82.1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2.8	87.2
	실연예술가	(121)	20.7	79.3
	예술기획/교육자	(157)	20.4	79.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6.2	83.8
	팀/단체 공동작업	(153)	19.6	80.4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22.2	77.8
	회사 소속 활동	(34)	11.8	88.2
	기타	(14)	21.4	78.6
성별	여성	(225)	22.7	77.3
	남성	(194)	12.4	87.6
연령별	20대 이하	(43)	9.3	90.7
	30대	(103)	16.5	83.5
	40대	(152)	16.4	83.6
	50대	(86)	19.8	80.2
	60대 이상	(35)	34.3	65.7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3.6	86.4
	사진	(11)	18.2	81.8
	미술	(106)	15.1	84.9
	국악	(47)	29.8	70.2
	무용	(37)	48.6	51.4
	연극	(36)	13.9	86.1
	음악	(100)	11.0	89.0
	영화	(19)	15.8	84.2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0.0	10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0.3	89.7

5) 4대 보험 가입률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파악해본 결과, ‘건강보험’은 거의 대부분(86.2%)의 예술인들이 가입하고 있었으며, ‘국민연금’의 가입률 또한 60.9%로 비교적 높은 수준
 - 반면 ‘고용보험’(34.8%)이나 ‘직장 산재보험’(27.4%),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9.8%) 가입률은 비교적 미미한 가입률을 보이고 있음
 - 이와 같은 결과는 성남시 예술인들의 신분 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결과로 해석됨
- 성남시 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 형태는 전국 예술인 및 경기도 예술인과 비슷한 분포를 보임
 - 다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다소 낮으며, 특히 산재보험의 경우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양상을 보임
 - 전국예술인실태조사(2018)에 따르면, 4대 보험 가입 형태는 ‘건강보험’ 93.5%, ‘국민연금’ 53.0%, ‘산재보험’ 27.0%, ‘고용보험’ 24.1%
 - 경기도예술인실태조사(2019)에 의하면, ‘건강보험’ 93.0%, ‘국민연금’ 58.2%, ‘산재보험’ 28.4%, ‘고용보험’ 25.5%

(N=419)



〈그림 2-15〉 4대 보험 가입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방식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예술인들이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모두에 가입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법적으로 특정 기업이나 기관에 적을 두고 있는 경우 의무 가입 사항이기 때문으로 풀이됨
 - 예술인 성별 4대 보험 가입률은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16〉 응답자특성별 4대 보험 가입률

(단위: %)

구분		사례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직장 산재보험
전체		(419)	60.9	86.2	34.8	9.8	27.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6.7	88.7	25.5	7.1	14.9
	실연예술가	(121)	58.7	85.1	36.4	15.7	33.1
	예술기획/교육자	(157)	66.2	84.7	42.0	7.6	34.4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5.5	89.0	30.6	2.9	19.7
	팀/단체 공동작업	(153)	63.4	86.9	35.3	17.0	30.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51.1	68.9	35.6	4.4	22.2
	회사 소속 활동	(34)	88.2	91.2	61.8	23.5	67.6
	기타	(14)	64.3	85.7	14.3	0.0	7.1
성별	여성	(225)	61.3	86.7	34.7	8.0	24.0
	남성	(194)	60.3	85.6	35.1	11.9	31.4
연령별	20대 이하	(43)	41.9	60.5	25.6	7.0	7.0
	30대	(103)	52.4	79.6	38.8	16.5	35.0
	40대	(152)	67.1	92.8	38.8	11.2	33.6
	50대	(86)	66.3	91.9	34.9	4.7	25.6
	60대 이상	(35)	68.6	94.3	17.1	0.0	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72.7	95.5	36.4	13.6	22.7
	사진	(11)	63.6	90.9	18.2	0.0	9.1
	미술	(106)	43.4	84.0	25.5	2.8	15.1
	국악	(47)	76.6	95.7	36.2	19.1	36.2
	무용	(37)	54.1	83.8	43.2	5.4	24.3
	연극	(36)	58.3	77.8	41.7	19.4	36.1
	음악	(100)	68.0	87.0	44.0	13.0	40.0
	영화	(19)	57.9	89.5	21.1	0.0	15.8
	만화	(2)	100.0	10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70.0	20.0	1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75.9	82.8	37.9	10.3	31.0

6) 예술활동증명 여부

(1)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에게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에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를 질문한 결과, ‘있다’ 48.2%, ‘없다’ 51.8%로 신청 경험자와 비경험자가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음



〈그림 2-16〉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증명 신청 경험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신청 경험자는 연령별로는 30대(56.3%) 및 40대(52.0%), 주요 활동 직업별로 창작예술가(57.4%), 예술활동 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활동(53.2%) 예술인이나 다른 예술인과 공동작업(48.4%)을 수행하는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 예술활동증명 신청률은 남성 예술인(52.6%)이 여성보다 높음

〈표 2-17〉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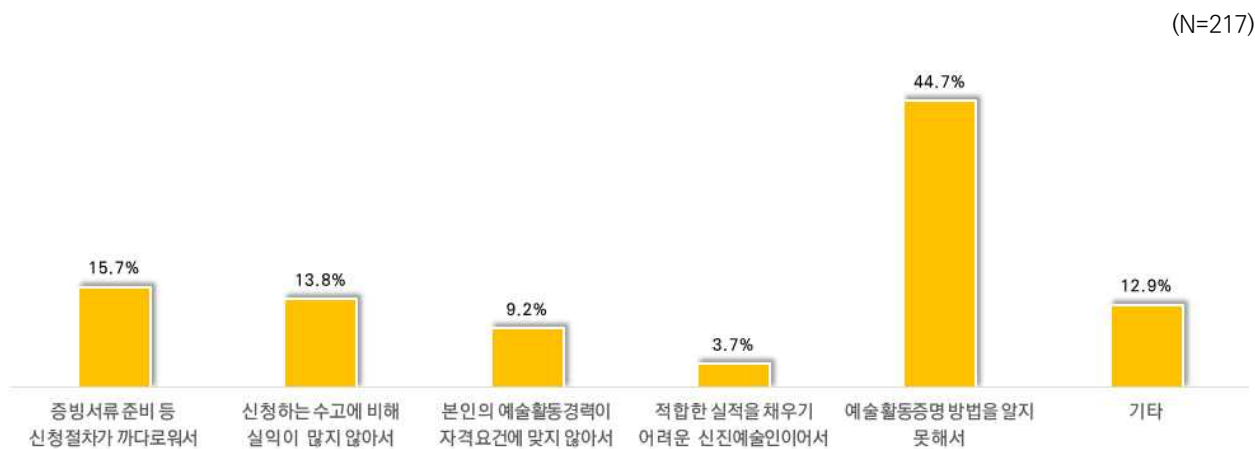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19)	48.2	51.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7.4	42.6
	실연예술가	(121)	46.3	53.7
	예술기획/교육자	(157)	41.4	58.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3.2	46.8
	팀/단체 공동작업	(153)	48.4	51.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37.8	62.2
	회사 소속 활동	(34)	35.3	64.7
	기타	(14)	50.0	50.0
성별	여성	(225)	44.4	55.6
	남성	(194)	52.6	47.4
연령별	20대 이하	(43)	48.8	51.2
	30대	(103)	56.3	43.7
	40대	(152)	52.0	48.0
	50대	(86)	39.5	60.5
	60대 이상	(35)	28.6	71.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40.9	59.1
	사진	(11)	63.6	36.4
	미술	(106)	51.9	48.1
	국악	(47)	53.2	46.8
	무용	(37)	59.5	40.5
	연극	(36)	61.1	38.9
	음악	(100)	31.0	69.0
	영화	(19)	57.9	42.1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6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8.3	51.7

(2)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예술인(N=217)에게 신청하지 않은 이유를 질문한 결과,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알지 못해서’가 4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15.7%), ‘신청하는 수고에 비해 실익이 많지 않아서’(13.8%), ‘본인의 예술활동 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9.2%), ‘적합한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신진예술인이어서’(3.7%)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17〉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사유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알지 못해서’를 지정한 비율은 무용(60.0%)이나 국악(59.1%) 장르 예술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음

- 예술인 성별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는 특별한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18〉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증명 비신청 이유

구분		사례수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수고에 비해 실익이 많지 않아서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적합한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신진예술인이어서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타
전체		(217)	15.7	13.8	9.2	3.7	44.7	12.9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0)	20.0	11.7	11.7	6.7	35.0	15.0
	실연예술가	(65)	15.4	15.4	4.6	3.1	47.7	13.8
	예술기획/교육자	(92)	13.0	14.1	10.9	2.2	48.9	10.9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81)	13.6	16.0	11.1	1.2	42.0	16.0
	팀/단체 공동작업	(79)	21.5	12.7	7.6	5.1	46.8	6.3
	프로젝트 단위 협업	(28)	14.3	10.7	10.7	10.7	42.9	10.7
	회사 소속 활동	(22)	9.1	18.2	9.1	0.0	50.0	13.6
기타		(7)	0.0	0.0	0.0	0.0	42.9	57.1
성별	여성	(125)	14.4	12.0	7.2	4.0	47.2	15.2
	남성	(92)	17.4	16.3	12.0	3.3	41.3	9.8
연령별	20대 이하	(22)	0.0	4.5	18.2	22.7	45.5	9.1
	30대	(45)	24.4	28.9	6.7	4.4	26.7	8.9
	40대	(73)	17.8	8.2	11.0	0.0	46.6	16.4
	50대	(52)	13.5	11.5	3.8	0.0	55.8	15.4
	60대 이상	(25)	12.0	16.0	12.0	4.0	48.0	8.0
활동분야	문학(출판)	(13)	23.1	15.4	0.0	7.7	46.2	7.7
	사진	(4)	50.0	25.0	0.0	0.0	25.0	0.0
	미술	(51)	17.6	15.7	5.9	9.8	37.3	13.7
	국악	(22)	9.1	4.5	4.5	0.0	59.1	22.7
	무용	(15)	6.7	20.0	6.7	6.7	60.0	0.0
	연극	(14)	21.4	0.0	42.9	0.0	21.4	14.3
	음악	(69)	15.9	15.9	5.8	1.4	47.8	13.0
	영화	(8)	25.0	0.0	25.0	0.0	37.5	12.5
	만화	(6)	16.7	16.7	0.0	0.0	66.7	0.0
	연예(방송, 공연)	(15)	0.0	20.0	20.0	0.0	4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13)	23.1	15.4	0.0	7.7	46.2	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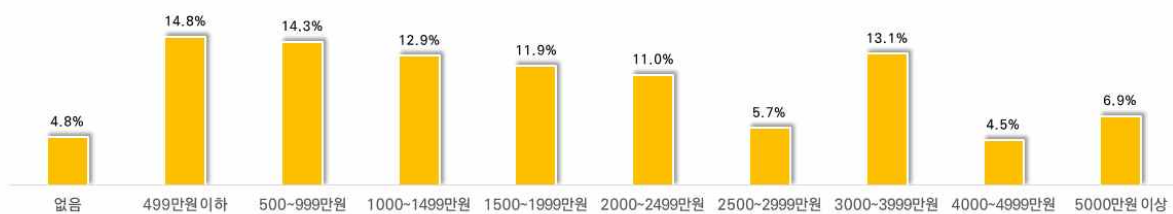
3. 예술활동 소득

1) 연평균 소득수준

가. 전체분석

- 최근 2019년 기준 연평균 소득을 물어본 결과, '499만원 이하'가 14.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500~999만원' 14.3%, '1,000~1,499만원' 12.9%, '1,500~1,999만원' 11.9% 등의 순임
- 보기로 제시된 소득수준의 중간값을 기준으로 성남시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을 환산해보면, 대략 1,965만원 정도의 소득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평균 가구 소득이 5,828만원인 것에 비해 약 1/3 정도에 불과한 수준임

(N=419)



〈그림 2-18〉 연평균 소득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연평균 소득을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3,044만원) 층에서만 3,000만원을 상회하고 있을 뿐, 그 외 모든 계층의 소득수준은 2,000만원 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연평균 소득은 남성 예술인이 여성 예술인보다 다소 높은 양상을 보임

〈표 2-19〉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

(단위: %, 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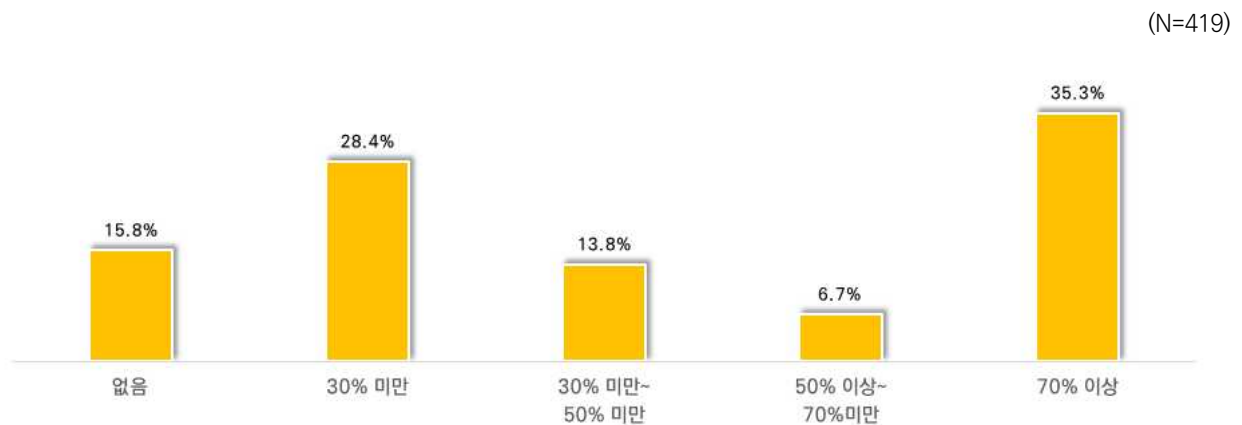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499만원 이하	500~999만원	1000~1499만원	1500~1999만원	2000~2499만원	2500만원 이상	평균
전체		(419)	4.8	14.8	14.3	12.9	11.9	11.0	30.3	1,96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6.4	15.6	20.6	11.3	9.9	11.3	24.8	1,734
	실연예술가	(121)	2.5	15.7	13.2	11.6	10.7	7.4	38.8	2,140
	예술기획/교육자	(157)	5.1	13.4	9.6	15.3	14.6	13.4	28.7	2,03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6.4	16.8	15.6	13.9	11.6	12.1	23.7	1,767
	팀/단체 공동작업	(153)	3.9	13.1	16.3	11.8	13.1	9.8	32.0	1,97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7	13.3	11.1	15.6	13.3	13.3	26.7	1,816
	회사 소속 활동	(34)	0.0	8.8	5.9	8.8	5.9	8.8	61.8	3,044
	기타	(14)	0.0	28.6	7.1	14.3	14.3	7.1	28.6	2,142
성별	여성	(225)	6.2	17.3	16.0	12.0	12.9	10.2	25.3	1,770
	남성	(194)	3.1	11.9	12.4	13.9	10.8	11.9	36.1	2,190
연령별	20대 이하	(43)	9.3	32.6	18.6	14.0	9.3	2.3	14.0	1,180
	30대	(103)	3.9	11.7	14.6	15.5	12.6	15.5	26.2	1,907
	40대	(152)	4.6	13.2	11.8	11.8	11.8	9.9	36.8	2,180
	50대	(86)	2.3	11.6	12.8	12.8	15.1	14.0	31.4	2,145
	60대 이상	(35)	8.6	17.1	22.9	8.6	5.7	5.7	31.4	1,721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9.1	27.3	13.6	4.5	4.5	9.1	31.8	1,693
	사진	(11)	0.0	9.1	18.2	27.3	27.3	0.0	18.2	1,704
	미술	(106)	9.4	17.9	17.9	17.0	10.4	12.3	15.1	1,469
	국악	(47)	6.4	12.8	8.5	10.6	14.9	10.6	36.2	2,117
	무용	(37)	2.7	18.9	16.2	8.1	16.2	10.8	27.0	1,878
	연극	(36)	2.8	22.2	16.7	11.1	11.1	8.3	27.8	1,861
	음악	(100)	1.0	9.0	12.0	10.0	11.0	11.0	46.0	2,467
	영화	(19)	5.3	15.8	21.1	26.3	5.3	5.3	21.1	1,552
	만화	(2)	0.0	0.0	0.0	0.0	0.0	0.0	100.0	3,875
	연예(방송, 공연)	(10)	0.0	0.0	0.0	10.0	20.0	40.0	30.0	2,725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10.3	13.8	13.8	13.8	10.3	34.5	2,224

2)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

가. 전체분석

○ 앞에서 성남시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이번에는 예술활동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해본 결과, '70% 이상'이 35.3%로 가장 많았으며, '30% 미만'이라는 응답도 2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남

- 한편,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도 15.8%에 달함



〈그림 2-19〉 예술활동 수입 비중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전체 소득에서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70% 이상'을 차지한다는 응답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48.8%),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55.9%), 활동분야별로는 음악(56.0%), 국악(55.3%) 관련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다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27.9%) 및 60세 이상(31.4%), 활동분야별로는 미술(27.4%), 문학(27.3%) 관련 예술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수입 비중은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20〉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수입 비중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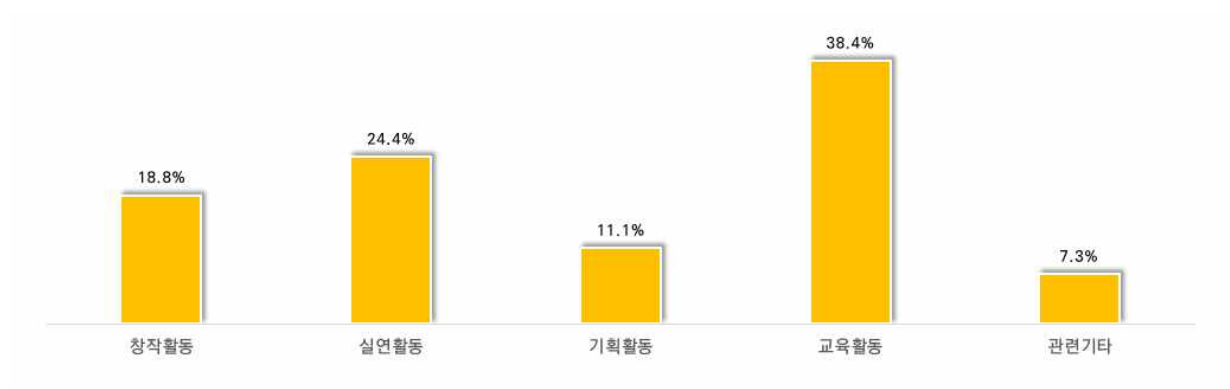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없음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70% 미만	70% 이상	[평균]
전체		(419)	15.8	28.4	13.8	6.7	35.3	42.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22.7	31.9	11.3	8.5	25.5	37.1
	실연예술가	(121)	9.9	22.3	14.0	5.0	48.8	49.4
	예술기획/교육자	(157)	14.0	29.9	15.9	6.4	33.8	42.8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22.5	29.5	13.3	6.9	27.7	37.7
	팀/단체 공동작업	(153)	12.4	26.1	13.1	7.2	41.2	46.2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3.3	26.7	22.2	4.4	33.3	42.9
	회사 소속 활동	(34)	5.9	23.5	11.8	2.9	55.9	52.6
	기타	(14)	0.0	57.1	7.1	14.3	21.4	43.6
성별	여성	(225)	19.1	26.2	15.1	8.0	31.6	40.8
	남성	(194)	11.9	30.9	12.4	5.2	39.7	45.1
연령별	20대 이하	(43)	27.9	30.2	16.3	4.7	20.9	33.0
	30대	(103)	7.8	29.1	16.5	6.8	39.8	47.3
	40대	(152)	14.5	26.3	11.8	7.2	40.1	45.1
	50대	(86)	15.1	27.9	16.3	8.1	32.6	42.6
	60대 이상	(35)	31.4	34.3	5.7	2.9	25.7	32.3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7.3	31.8	18.2	0.0	22.7	32.7
	사진	(11)	18.2	0.0	27.3	18.2	36.4	47.3
	미술	(106)	27.4	32.1	13.2	6.6	20.8	33.4
	국악	(47)	4.3	31.9	6.4	2.1	55.3	52.1
	무용	(37)	13.5	37.8	10.8	8.1	29.7	41.4
	연극	(36)	13.9	47.2	13.9	8.3	16.7	36.4
	음악	(100)	6.0	14.0	15.0	9.0	56.0	54.8
	영화	(19)	21.1	36.8	21.1	0.0	21.1	34.2
	만화	(2)	0.0	0.0	0.0	0.0	100.0	7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0.0	0.0	20.0	60.0	54.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37.9	20.7	3.4	20.7	36.2

3)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가. 전체분석

- 2019년 기준 예술활동을 통한 수입이 전혀 없는 예술인들을 제외하고 예술활동 수입 형태 구성비를 확인한 결과, ‘교육활동 수입’ 비중이 38.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 실연활동’ 24.4%, ‘예술 창작활동’ 18.8%, ‘예술 기획활동’ 11.1%, ‘예술 관련 기타 활동’ 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20〉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수입 형태 구성비는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 직업에 따라 두드러진 차이를 보임

- 창작예술가들은 창작활동(41.3%)과 교육활동(32.5%)을 통해, 실연예술가 집단의 경우 실연활동(55.9%), 예술기획/교육 관련 종사자들은 교육활동(51.3%)을 통한 수입 구성비가 높은 양상을 보임
- 성남시 예술인 성별로는 남성 예술인의 경우 창작활동을 통한 구성비가, 여성 예술인들은 교육활동 구성비가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임

〈표 2-21〉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수입 유형별 비중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작활동	실연활동	기획활동	교육활동	관련기타
전체		(419)	18.8	24.4	11.1	38.4	7.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1.3	7.4	7.5	32.5	11.3
	실연예술가	(121)	8.2	55.9	4.2	28.3	3.4
	예술기획/교육자	(157)	9.2	12.6	19.7	51.3	7.2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29.0	10.3	7.2	43.7	9.7
	팀/단체 공동작업	(153)	11.1	35.7	12.6	36.0	4.5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4.0	16.3	16.5	44.5	8.7
	회사 소속 활동	(34)	19.4	42.6	12.0	22.3	3.6
	기타	(14)	6.0	30.9	17.5	30.7	14.9
성별	여성	(225)	14.8	21.5	10.7	46.3	6.7
	남성	(194)	23.0	27.5	11.6	30.0	7.9
연령별	20대 이하	(43)	21.9	30.2	13.4	22.5	12.0
	30대	(103)	19.9	26.4	12.6	35.5	5.6
	40대	(152)	17.3	25.0	10.0	41.5	6.2
	50대	(86)	19.5	22.1	12.7	37.1	8.7
	60대 이상	(35)	16.7	12.1	4.0	57.9	9.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7.8	3.9	14.3	41.3	12.8
	사진	(11)	32.2	1.7	5.6	53.3	7.2
	미술	(106)	33.7	6.8	11.0	36.7	11.9
	국악	(47)	9.6	45.6	7.7	33.4	3.8
	무용	(37)	5.6	19.9	8.3	56.4	9.8
	연극	(36)	27.6	28.5	11.0	31.5	1.5
	음악	(100)	8.2	38.0	11.4	39.1	3.4
	영화	(19)	31.0	11.0	7.0	32.7	18.3
	만화	(2)	87.5	0.0	0.0	1.5	11.0
	연예(방송, 공연)	(10)	30.0	31.3	16.3	16.3	6.3
	기타(다원예술 등)	(29)	7.9	18.8	23.0	42.5	7.9

4)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가. 전체분석

- 창작활동 필요 예산 충당 방법의 경우 ‘자체 조달’ 64.0%, ‘공적 지원’ 28.2%, ‘기부/후원’ 4.5%, ‘크라우드 펀딩’ 0.2%, ‘기타’ 3.1% 등의 구성비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21〉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창작활동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는 방법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들의 경우 자체 조달(72.7%)이 단연 높았으며, 예술기획/교육자 집단의 자체 조달 비율도 높은 편임

- 이에 비해 실연예술가들은 자체 조달 비중이 가장 많기는 하지만 공적 지원을 통한 충당 비율(34.5%)도 적지 않은 수준으로 조사됨
- 예술인 성별 창작 예산 충당 방법은 이렇다 할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22〉 응답자특성별 예술창작활동 예산 충당 방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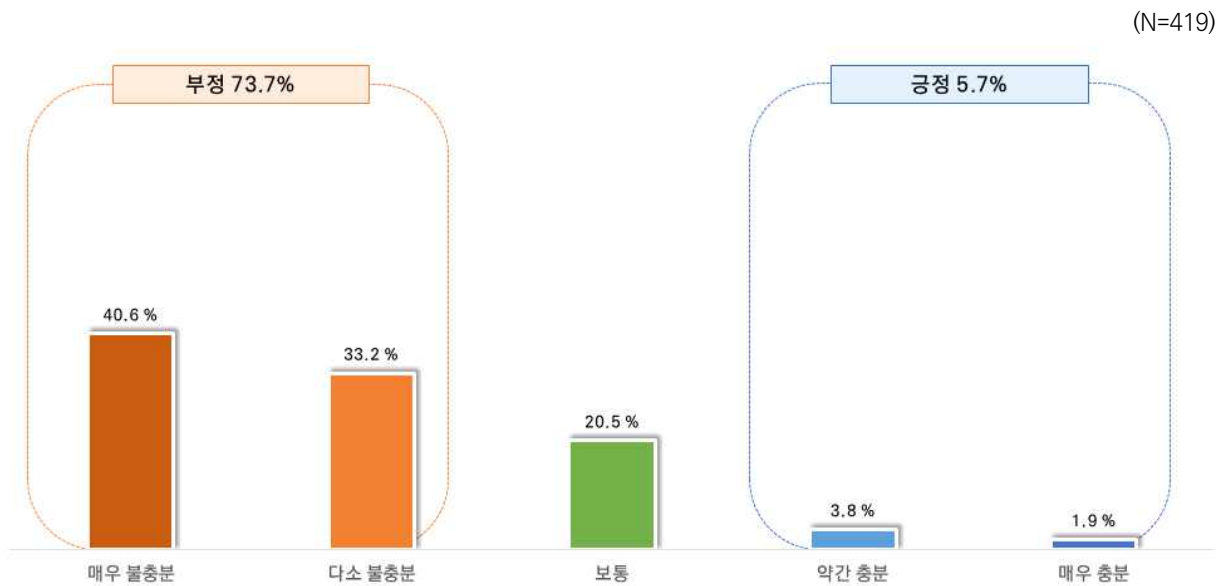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체조달	공적지원	기부/후원금	크라우드 펀딩	기타
전체		(419)	64.0	28.2	4.5	0.2	3.1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72.7	22.4	2.0	0.3	2.6
	실연예술가	(121)	54.0	34.5	7.7	0.1	3.7
	예술기획/교육자	(157)	63.9	28.5	4.2	0.2	3.1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75.6	18.6	2.5	0.3	3.0
	팀/단체 공동작업	(153)	50.1	39.4	6.7	0.1	3.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9.8	24.9	5.1	0.2	0.0
	회사 소속 활동	(34)	65.3	27.9	3.2	0.0	3.5
	기타	(14)	49.8	35.7	5.8	0.8	7.9
성별	여성	(225)	63.7	27.5	4.3	0.2	4.2
	남성	(194)	64.3	29.0	4.7	0.2	1.8
연령별	20대 이하	(43)	65.0	22.0	10.0	0.2	2.8
	30대	(103)	63.4	30.3	3.5	0.1	2.7
	40대	(152)	58.4	33.0	4.1	0.2	4.3
	50대	(86)	68.6	23.6	4.7	0.4	2.7
	60대 이상	(35)	77.7	20.1	1.4	0.0	0.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82.8	13.7	1.7	0.6	1.1
	사진	(11)	69.5	30.5	0.0	0.0	0.0
	미술	(106)	73.5	19.6	3.8	0.3	2.7
	국악	(47)	47.2	34.8	8.6	0.3	9.1
	무용	(37)	61.6	29.9	6.4	0.0	2.2
	연극	(36)	51.1	41.0	5.4	0.0	2.5
	음악	(100)	61.5	30.6	4.0	0.2	3.8
	영화	(19)	77.4	18.7	3.2	0.3	0.5
	만화	(2)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63.3	29.7	7.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6.6	40.3	2.8	0.0	0.3

5) 예술인으로서 연평균 소득 만족도

(1) 예술활동 측면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측면에서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충분하다’ 5.7%, ‘(매우+다소) 충분하지 않다’ 73.7%로 충분하지 않다고 절대 다수의 예술인들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그림 2-22〉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예술(창작)활동 측면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측면의 연평균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예술활동 측면 연평균 소득은 여성 예술인들에게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강도가 높음

〈표 2-23〉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예술(창작)활동 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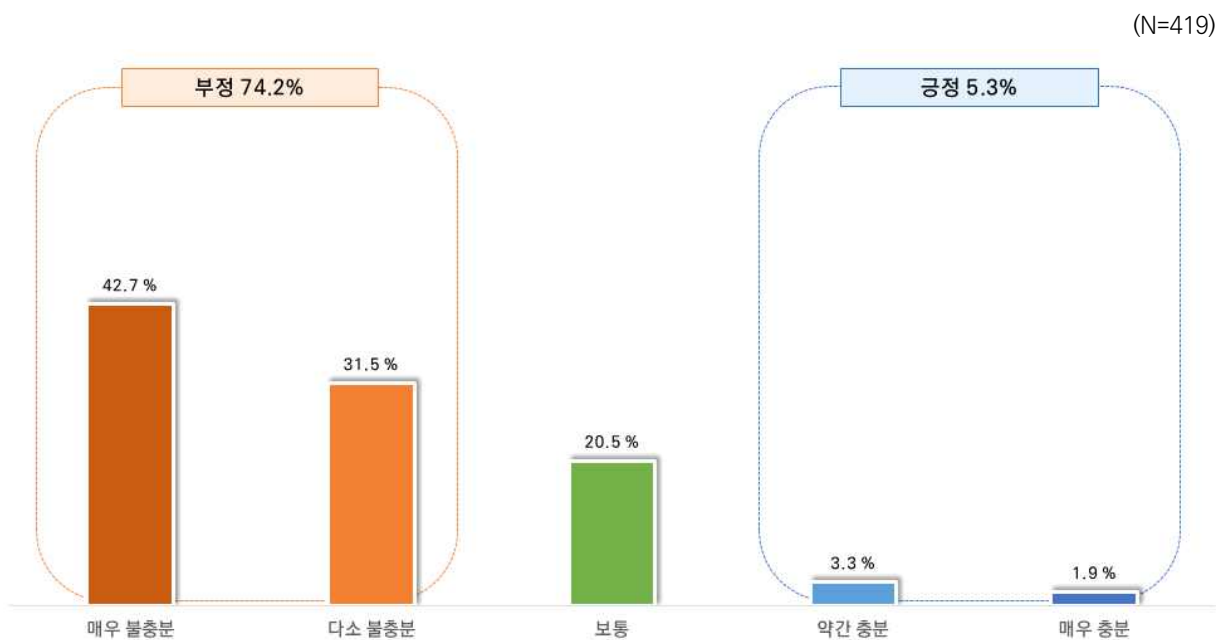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40.6	33.2	20.5	3.8	1.9	5.7	73.7	1.9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4.0	28.4	22.7	3.5	1.4	5.0	72.3	1.90
	실연예술가	(121)	39.7	35.5	19.8	4.1	.8	5.0	75.2	1.91
	예술기획/교육자	(157)	38.2	35.7	19.1	3.8	3.2	7.0	73.9	1.9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43.9	28.3	22.5	4.0	1.2	5.2	72.3	1.90
	팀/단체 공동작업	(153)	34.6	36.6	24.2	3.3	1.3	4.6	71.2	2.0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0.0	31.1	6.7	2.2	0.0	2.2	91.1	1.51
	회사 소속 활동	(34)	29.4	32.4	20.6	8.8	8.8	17.6	61.8	2.35
기타		(14)	28.6	64.3	0.0	0.0	7.1	7.1	92.9	1.93
성별	여성	(225)	45.8	28.9	18.7	4.4	2.2	6.7	74.7	1.88
	남성	(194)	34.5	38.1	22.7	3.1	1.5	4.6	72.7	1.99
연령별	20대 이하	(43)	27.9	44.2	23.3	4.7	0.0	4.7	72.1	2.05
	30대	(103)	38.8	30.1	24.3	4.9	1.9	6.8	68.9	2.01
	40대	(152)	44.7	32.2	15.8	5.3	2.0	7.2	77.0	1.88
	50대	(86)	43.0	32.6	20.9	0.0	3.5	3.5	75.6	1.88
	60대 이상	(35)	37.1	34.3	25.7	2.9	0.0	2.9	71.4	1.9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50.0	27.3	18.2	4.5	0.0	4.5	77.3	1.77
	사진	(11)	72.7	9.1	18.2	0.0	0.0	0.0	81.8	1.45
	미술	(106)	46.2	34.9	14.2	2.8	1.9	4.7	81.1	1.79
	국악	(47)	31.9	38.3	19.1	10.6	0.0	10.6	70.2	2.09
	무용	(37)	51.4	27.0	21.6	0.0	0.0	0.0	78.4	1.70
	연극	(36)	41.7	38.9	13.9	2.8	2.8	5.6	80.6	1.86
	음악	(100)	30.0	33.0	30.0	5.0	2.0	7.0	63.0	2.16
	영화	(19)	47.4	36.8	15.8	0.0	0.0	0.0	84.2	1.68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40.0	20.0	10.0	0.0	10.0	70.0	2.10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31.0	20.7	0.0	10.3	10.3	69.0	2.14

(2) 예술활동 측면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측면에 이어 생계 및 생활 측면에서 볼 때 연평균 소득이 얼마나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충분하다’ 5.3%, ‘(매우+다소) 충분하지 않다’ 74.2%로 예술활동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성남시 예술인들이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을 보임



〈그림 2-23〉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생계 및 생활 측면의 연평균 소득 수준과 관련해서는 모든 계층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인 것으로 조사됨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생계 및 생활 측면 연평균 소득은 여성 예술인들에게서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강도가 높음

〈표 2-24〉 응답자특성별 연평균 소득수준 평가: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42.7	31.5	20.5	3.3	1.9	5.3	74.2	1.90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6.1	29.8	17.7	5.7	0.7	6.4	75.9	1.85
	실연예술가	(121)	47.9	29.8	21.5	0.0	0.8	0.8	77.7	1.76
	예술기획/교육자	(157)	35.7	34.4	22.3	3.8	3.8	7.6	70.1	2.0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44.5	28.9	20.2	5.2	1.2	6.4	73.4	1.90
	팀/단체 공동작업	(153)	42.5	30.7	22.9	2.0	2.0	3.9	73.2	1.9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51.1	37.8	11.1	0.0	0.0	0.0	88.9	1.60
	회사 소속 활동	(34)	23.5	32.4	32.4	2.9	8.8	11.8	55.9	2.41
	기타	(14)	42.9	50.0	0.0	7.1	0.0	7.1	92.9	1.71
성별	여성	(225)	48.0	28.0	17.8	4.9	1.3	6.2	76.0	1.84
	남성	(194)	36.6	35.6	23.7	1.5	2.6	4.1	72.2	1.98
연령별	20대 이하	(43)	25.6	46.5	23.3	4.7	0.0	4.7	72.1	2.07
	30대	(103)	41.7	31.1	22.3	1.9	2.9	4.9	72.8	1.93
	40대	(152)	46.7	31.6	15.8	3.3	2.6	5.9	78.3	1.84
	50대	(86)	46.5	27.9	20.9	3.5	1.2	4.7	74.4	1.85
	60대 이상	(35)	40.0	22.9	31.4	5.7	0.0	5.7	62.9	2.03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50.0	22.7	22.7	4.5	0.0	4.5	72.7	1.82
	사진	(11)	72.7	0.0	18.2	9.1	0.0	9.1	72.7	1.64
	미술	(106)	41.5	35.8	17.9	3.8	0.9	4.7	77.4	1.87
	국악	(47)	40.4	31.9	23.4	4.3	0.0	4.3	72.3	1.91
	무용	(37)	54.1	24.3	18.9	2.7	0.0	2.7	78.4	1.70
	연극	(36)	58.3	19.4	19.4	0.0	2.8	2.8	77.8	1.69
	음악	(100)	33.0	37.0	25.0	2.0	3.0	5.0	70.0	2.05
	영화	(19)	42.1	47.4	10.5	0.0	0.0	0.0	89.5	1.68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40.0	20.0	30.0	10.0	0.0	10.0	60.0	2.10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31.0	13.8	6.9	10.3	17.2	69.0	2.21

(3) 소득수준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 성남시 예술인들의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따라 연 평균 소득수준에 대한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함
- 그 결과, 예술활동, 생계/생활 측면 등 모든 측면에서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의한 평균 소득수준 만족도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5〉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소득수준 만족도 평균 차이 비교

종속변수	구분	사례수	평균(Mean)	표준편차(SD)	F	p-value	사후 검증 결과(Scheffe)
예술활동 측면 만족도	성남 거주/성남 활동	125	1.968	0.983	.216	.886	
	성남 거주/성남 외 활동	165	1.921	0.963			
	성남 외 거주/성남 활동	53	1.849	1.045			
	성남 외 거주/성남 외 활동	67	1.961	0.901			
생계 및 생활 측면 만족도	성남 거주/성남 활동	125	1.896	0.957	.296	.828	
	성남 거주/성남 외 활동	165	1.903	0.989			
	성남 외 거주/성남 활동	53	1.811	0.982			
	성남 외 거주/성남 외 활동	67	1.974	0.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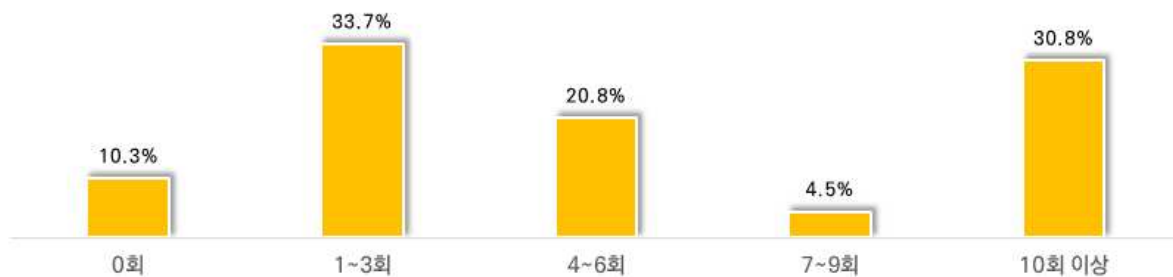
4. 예술활동 내용

1)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횟수

가. 전체분석

- 2019년 기준 연간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 횟수를 질문한 결과, '1회~3회' 33.7%, '4회~6회' 20.8%, '7회~9회' 4.5%, '10회 이상' 30.8% 등의 응답 분포를 보임
 - 이렇게 볼 때 성남시 예술인들은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과 비교적 적은 횟수로 활동을 하고 있는 계층 등으로 양분화되어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보기로 제시된 발표/참여 횟수의 중앙값(median)을 기준으로 평균 참여 횟수를 환산해보면 성남시 예술인들은 연간 평균적으로 약 5.2회 정도 예술작품을 발표하고 있었음

(N=419)



〈그림 2-24〉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작품 발표/참여 횟수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10회 이상’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 예술가(54.5%)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52.9%)이나 공동 작업(44.4%) 예술인들에게서 다작하는 비율이 높음. 활동분야별로는 음악(58.0%), 국악(53.2%) 관련 예술인들이 비교적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됨

○ 한편, 예술작품 발표 또는 참여횟수는 예술인들의 활동분야에 따라 편차가 비교적 크게 나타남

- 연간 단 한 번의 예술작품을 발표하지 않은 비율은 영화(31.6%) 관련 예술인에서 높음
- 예술인 성별로는 남성 예술인의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가 여성 예술인보다 많음

〈표 2-26〉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단위: %, 회)

구분		사례수	0회	1회~3회	4회~6회	7회~9회	10회 이상	[평균]
전체		(419)	10.3	33.7	20.8	4.5	30.8	5.1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9.9	48.9	19.9	4.3	17.0	4.01
	실연예술가	(121)	2.5	17.4	19.8	5.8	54.5	7.26
	예술기획/교육자	(157)	16.6	32.5	22.3	3.8	24.8	4.55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3.9	46.2	20.2	4.6	15.0	3.81
	팀/단체 공동작업	(153)	3.3	19.6	27.5	5.2	44.4	6.63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7.8	40.0	8.9	2.2	31.1	4.53
	회사 소속 활동	(34)	5.9	29.4	8.8	2.9	52.9	6.56
기타		(14)	28.6	21.4	21.4	7.1	21.4	4.21
성별	여성	(225)	9.3	39.1	20.9	3.6	27.1	4.82
	남성	(194)	11.3	27.3	20.6	5.7	35.1	5.54
연령별	20대 이하	(43)	7.0	60.5	14.0	4.7	14.0	3.67
	30대	(103)	8.7	33.0	21.4	1.9	35.0	5.38
	40대	(152)	12.5	29.6	20.4	6.6	30.9	5.23
	50대	(86)	12.8	27.9	24.4	3.5	31.4	5.20
	60대 이상	(35)	2.9	34.3	20.0	5.7	37.1	5.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4.5	63.6	18.2	0.0	13.6	3.55
	사진	(11)	27.3	54.5	9.1	9.1	0.0	2.27
	미술	(106)	8.5	49.1	24.5	4.7	13.2	3.91
	국악	(47)	6.4	17.0	17.0	6.4	53.2	7.02
	무용	(37)	5.4	29.7	32.4	10.8	21.6	5.24
	연극	(36)	16.7	36.1	22.2	2.8	22.2	4.28
	음악	(100)	5.0	17.0	17.0	3.0	58.0	7.23
	영화	(19)	31.6	42.1	15.8	0.0	10.5	2.68
	만화	(2)	0.0	100.0	0.0	0.0	0.0	2.00
	연예(방송, 공연)	(10)	0.0	10.0	20.0	0.0	70.0	8.2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31.0	20.7	6.9	13.8	3.59

다.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 평균 차이 비교

- 성남시 예술인들의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따라 예술작품 발표/참여횟수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 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함
 - 그 결과, 성남시 예술인들의 거주 지역과 활동 지역에 의한 예술활동 발표/참여횟수는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2-27〉 거주/활동지역에 따른 예술활동/참여횟수 평균 차이 비교

종속변수	구분	사례수	평균(Mean)	표준편차 (SD)	F	p-value	사후 검증 결과 (Scheffe)
예술활동 발표/참여횟 수	성남 거주/성남 활동	125	3.096	1.456	.614	.606	
	성남 거주/성남 외 활동	165	3.121	1.409			
	성남 외 거주/성남 활동	53	3.340	1.506			
	성남 외 거주/성남 외 활동	67	3.000	1.327			

- 한편, 평균 소득수준과 예술활동/참여횟수 간에 어떠한 관계를 보이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스피어맨 순위 상관계수(Spearman rank correlation coefficient)를 이용하여 상관관계를 실시
 - 그 결과, 예술활동 만족도가 높을수록 예술활동 발표/참여횟수도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었으나, 그 관계 정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생계 만족도와 예술활동 발표/참여횟수의 상관관계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음

〈표 2-28〉 순위 상관관계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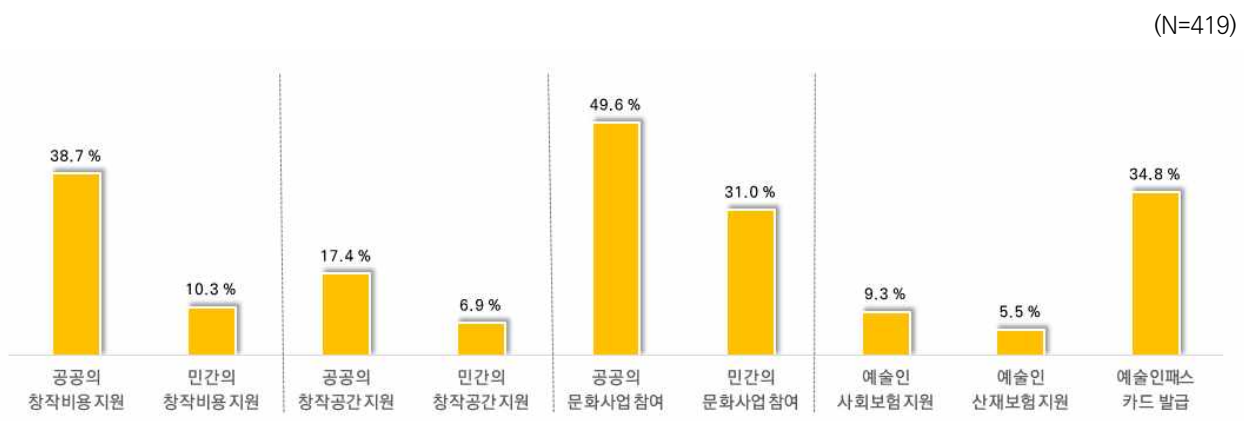
	예술활동 만족도	생계/생활 만족도	발표/참여횟수
예술활동 만족도	-		
생계/생활 만족도	.759***	-	
발표/참여횟수	.102*	.028	-

* $p < .05$, ** $p < .01$, *** $p < .001$

2) 지원사업 참여/수혜 경험

가. 전체분석

- 2019년 기준 지원 수혜 경험 또는 지원 수혜를 위한 참여 경험을 파악해본 결과, ‘공공의 문화사업’에 대한 참여율이 가장 높았으며(49.6%), 그 다음이 ‘공공 창작비용 지원’(38.7%), ‘예술인 패스카드 발급’(34.8%), ‘민간 문화사업’(31.0%) 등의 순임



〈그림 2-25〉 지원사업 수혜/참여율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지원 사업 참여율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주요 활동 직업, 활동방식, 활동분야에 따라 차이를 보임

- 즉, 주요 활동 직업별로 ‘공공 문화사업’은 실연예술가(58.7%)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70.6%), 프로젝트 단위 협업(60.0%), 다른 예술인과 공동작업(58.2%) 등 개인 단위 활동 예술가를 제외한 모든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활동분야별로는 국악(72.3%) 관련 예술인 층에서 참여율이 높게 나타남
- 수혜 지원사업은 예술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29〉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수혜/참여율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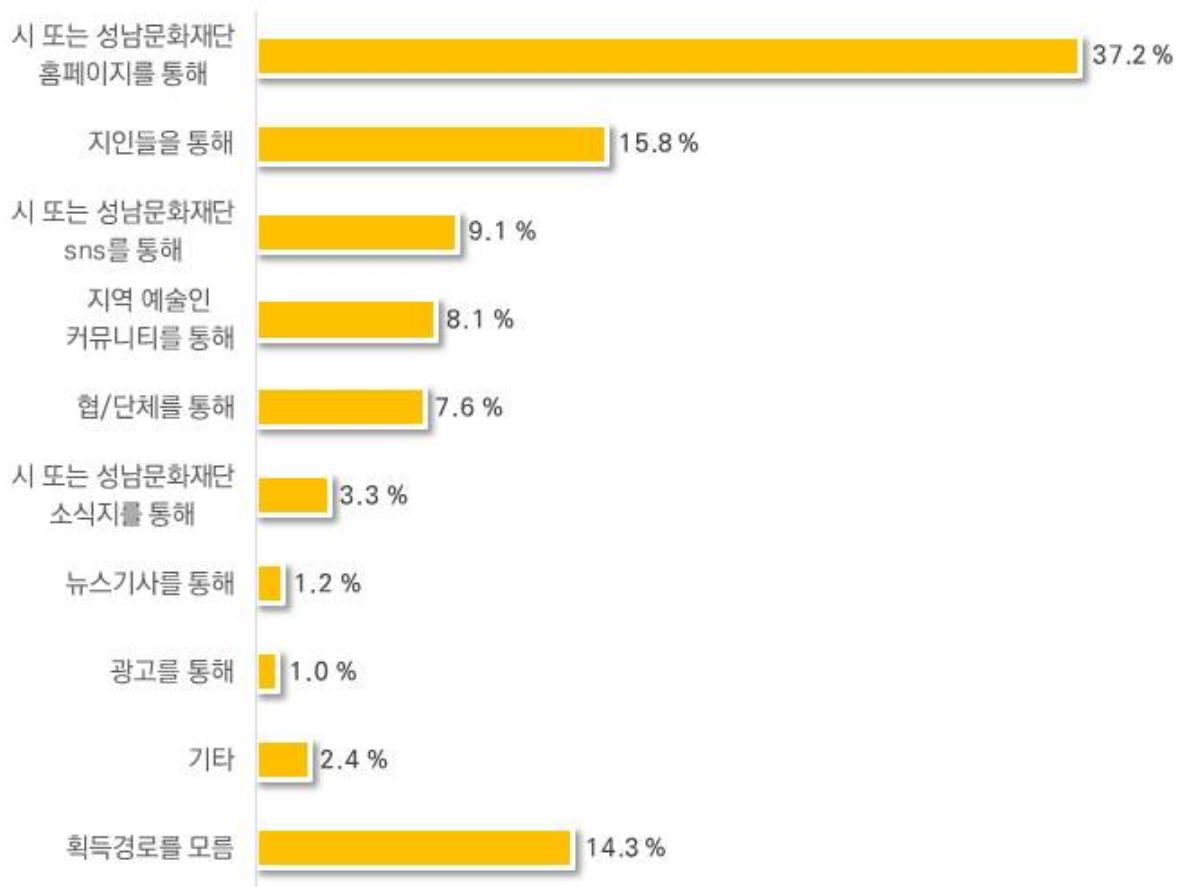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공 창작비용 지원	민간 창작비용 지원	공공 창작공간 지원	민간 창작공간 지원	공공 문화사업 지원	민간 문화사업 지원	예술인 사회보험	예술인 산재보험	예술인 패스 카드 발급
전체		(419)	38.7	10.3	17.4	6.9	49.6	31.0	9.3	5.5	34.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4.0	9.2	20.6	9.2	41.1	21.3	7.8	2.8	45.4
	실연예술가	(121)	33.1	10.7	14.9	3.3	58.7	44.6	11.6	9.9	27.3
	예술기획/교육자	(157)	38.2	10.8	16.6	7.6	50.3	29.3	8.9	4.5	31.2
	예술기획/교육자	(157)	38.2	10.8	16.6	7.6	50.3	29.3	8.9	4.5	31.2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위 활동	(173)	36.4	12.1	17.9	8.1	35.3	19.1	6.9	2.3	41.0
	팀/단체 공동작업	(153)	41.2	10.5	19.6	7.2	58.2	43.1	11.8	9.2	32.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2.2	6.7	22.2	4.4	60.0	31.1	8.9	6.7	31.1
	회사 소속 활동	(34)	32.4	5.9	5.9	2.9	70.6	32.4	11.8	5.9	20.6
	기타	(14)	42.9	7.1	0.0	7.1	50.0	42.9	7.1	0.0	35.7
성별	여성	(225)	36.9	9.8	20.4	8.0	46.2	28.9	10.7	3.6	36.4
	남성	(194)	40.7	10.8	13.9	5.7	53.6	33.5	7.7	7.7	33.0
연령별	20대 이하	(43)	48.8	10.0	32.6	14.0	41.9	32.6	11.6	4.7	37.2
	30대	(103)	43.7	10.0	15.5	8.7	49.5	29.1	9.7	9.7	44.7
	40대	(152)	32.9	12.2	15.8	4.6	48.0	29.6	7.2	2.6	36.2
	50대	(86)	39.5	12.5	12.8	5.8	57.0	31.4	12.8	8.1	25.6
	60대 이상	(35)	34.3	8.9	22.9	5.7	48.6	40.0	5.7	0.0	2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2.7	10.8	9.1	4.5	31.8	22.7	13.6	0.0	27.3
	사진	(11)	36.4	9.3	9.1	0.0	54.5	27.3	18.2	0.0	72.7
	미술	(106)	44.3	17.5	19.8	8.5	40.6	17.0	2.8	.9	44.3
	국악	(47)	38.3	9.2	8.5	4.3	72.3	51.1	17.0	10.6	34.0
	무용	(37)	35.1	7.0	18.9	16.2	54.1	56.8	8.1	2.7	32.4
	연극	(36)	47.2	2.9	11.1	2.8	44.4	30.6	11.1	8.3	38.9
	음악	(100)	33.0	6.2	21.0	7.0	58.0	34.0	13.0	11.0	22.0
	영화	(19)	47.4	15.9	21.1	5.3	26.3	10.5	0.0	0.0	47.4
	만화	(2)	0.0	12.8	0.0	0.0	0.0	0.0	100.0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0.0	10.0	0.0	50.0	60.0	0.0	1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4.8	0.0	27.6	6.9	48.3	20.7	3.4	3.4	27.6

3)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가. 전체분석

- 성남시/성남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 정보 획득 경로와 관련해서는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가 3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지인들을 통해’(15.8%),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SNS를 통해’(9.1%),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8.1%), ‘협/단체를 통해’(7.6%) 등의 순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26〉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한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다는 응답은 활동방식별로는 프로젝트 단위로 활동하는 예술인(48.9%) 계층에서, 연령별로는 20대(51.2%), 30대(44.7%), 활동분야별로는 무용(48.6%), 영화(47.4%) 관련 예술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지원 정보 획득 경로는 예술인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30〉 응답자특성별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 경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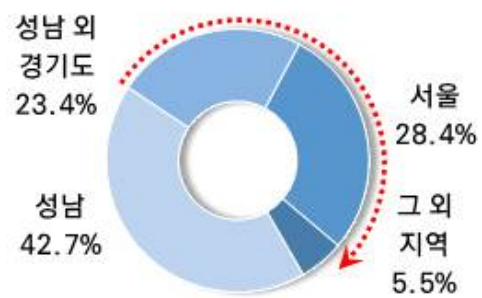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홈페이지를 통해	지인을 통해	SNS를 통해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협·단체를 통해	소식지 (뉴스레터)를 통해	뉴스 기사를 통해	광고를 통해	기타	획득 경로를 모름
전체		(419)	37.2	15.8	9.1	8.1	7.6	3.3	1.2	1.0	2.4	14.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36.9	14.9	6.4	7.8	6.4	4.3	0.7	0.0	5.7	17.0
	실연예술가	(121)	36.4	15.7	6.6	7.4	15.7	1.7	0.0	0.8	0.0	15.7
	예술기획/교육자	(157)	38.2	16.6	13.4	8.9	2.5	3.8	2.5	1.9	1.3	10.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32.9	15.6	12.7	7.5	5.2	4.0	2.3	1.7	3.5	14.5
	팀/단체 공동작업	(153)	39.9	16.3	7.8	6.5	11.8	3.3	0.7	0.0	1.3	12.4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8.9	15.6	0.0	13.3	4.4	0.0	0.0	0.0	2.2	15.6
	회사 소속 활동	(34)	32.4	17.6	5.9	5.9	8.8	5.9	0.0	2.9	0.0	20.6
성별	기타	(14)	35.7	7.1	14.3	21.4	0.0	0.0	0.0	0.0	7.1	14.3
	여성	(225)	40.4	16.4	9.8	5.8	5.3	2.7	1.3	1.3	2.7	14.2
	남성	(194)	33.5	14.9	8.2	10.8	10.3	4.1	1.0	0.5	2.1	14.4
연령별	20대 이하	(43)	51.2	18.6	4.7	4.7	2.3	0.0	2.3	4.7	0.0	11.6
	30대	(103)	44.7	16.5	6.8	5.8	2.9	5.8	0.0	1.0	1.9	14.6
	40대	(152)	35.5	15.1	11.8	9.2	8.6	0.7	0.7	0.7	2.0	15.8
	50대	(86)	25.6	15.1	11.6	11.6	10.5	2.3	3.5	0.0	3.5	16.3
	60대 이상	(35)	34.3	14.3	2.9	5.7	17.1	14.3	0.0	0.0	5.7	5.7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31.8	18.2	4.5	9.1	4.5	13.6	4.5	0.0	0.0	13.6
	사진	(11)	27.3	9.1	18.2	18.2	0.0	0.0	0.0	0.0	9.1	18.2
	미술	(106)	38.7	17.9	9.4	9.4	4.7	3.8	1.9	0.0	5.7	8.5
	국악	(47)	40.4	19.1	4.3	10.6	12.8	2.1	2.1	0.0	0.0	8.5
	무용	(37)	48.6	21.6	8.1	5.4	8.1	0.0	0.0	0.0	2.7	5.4
	연극	(36)	41.7	19.4	11.1	8.3	8.3	0.0	0.0	0.0	0.0	11.1
	음악	(100)	29.0	12.0	7.0	7.0	10.0	5.0	1.0	4.0	1.0	24.0
	영화	(19)	47.4	15.8	15.8	5.3	5.3	0.0	0.0	0.0	0.0	10.5
	만화	(2)	50.0	0.0	0.0	0.0	0.0	0.0	0.0	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20.0	10.0	10.0	10.0	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1.0	3.4	17.2	3.4	6.9	3.4	0.0	0.0	3.4	31.0

4) 활동 지역

가. 전체분석

- 최근 활동 지역으로는 성남이 42.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서울(28.4%), 성남 외 경기도(23.4%), 그 외 지역(5.5%) 순임

(N=419)



〈그림 2-27〉 활동 지역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의 활동 지역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성남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응답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48.8%)나 예술기획/교육자(45.9%),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예술인을 제외한 공동작업, 프로젝트 단위 협업, 회사 소속 활동 예술인 층에서, 활동분야별로는 무용(56.8%), 국악(48.9%), 음악(46.0%) 관련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은 양상을 보임
- 예술인 연령대에 따라서는 30대 연령층(31.1%)의 경우 성남 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로는 여성 예술인들의 성남 지역 활동 비율이 남성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

〈표 2-31〉 응답자특성별 활동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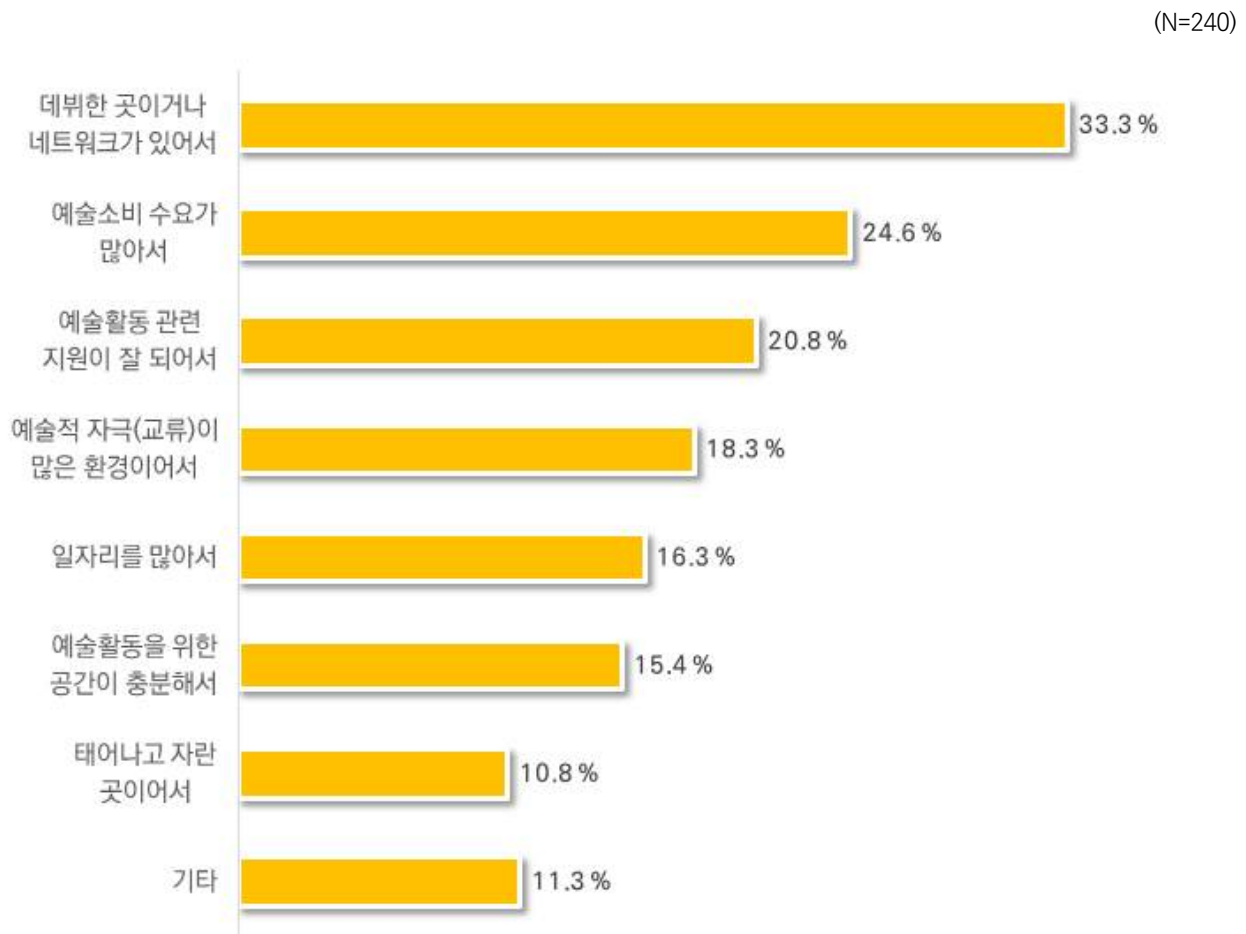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성남	성남 외 경기도	서울	그 외 지역
전체		(419)	42.7	23.4	28.4	5.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34.0	19.1	39.0	7.8
	실연예술가	(121)	48.8	23.1	19.8	8.3
	예술기획/교육자	(157)	45.9	27.4	25.5	1.3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34.1	22.5	39.9	3.5
	팀/단체 공동작업	(153)	48.4	24.8	19.6	7.2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51.1	22.2	24.4	2.2
	회사 소속 활동	(34)	52.9	17.6	23.5	5.9
	기타	(14)	35.7	35.7	7.1	21.4
성별	여성	(225)	46.7	20.0	29.3	4.0
	남성	(194)	38.1	27.3	27.3	7.2
연령별	20대 이하	(43)	46.5	18.6	25.6	9.3
	30대	(103)	31.1	28.2	35.9	4.9
	40대	(152)	46.1	20.4	28.3	5.3
	50대	(86)	46.5	23.3	25.6	4.7
	60대 이상	(35)	48.6	28.6	17.1	5.7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3.6	40.9	45.5	0.0
	사진	(11)	36.4	45.5	18.2	0.0
	미술	(106)	41.5	18.9	34.0	5.7
	국악	(47)	48.9	21.3	12.8	17.0
	무용	(37)	56.8	16.2	21.6	5.4
	연극	(36)	33.3	41.7	19.4	5.6
	음악	(100)	46.0	24.0	27.0	3.0
	영화	(19)	21.1	15.8	63.2	0.0
	만화	(2)	50.0	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10.0	3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17.2	24.1	0.0

5)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가. 전체분석

- 2019년 기준으로 성남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활동한 성남시 예술인(N=240)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성남시 외에서 활동하는 이유로는 ‘데뷔한 곳이거나 네트워크(학연/예술인공동체)가 있어서’가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24.6%),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20.8%), ‘예술적 자극(교류)이 많은 환경이어서’(18.3%), ‘일자리가 많아서’(16.3%),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15.4%),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2-28〉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이외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이유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실제 거주지에 따라 약간의 응답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음. 즉 서울 지역 거주 예술인들의 경우 ‘예술소비가 많아서’,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 ‘일자리가 많아서’ 등을 지적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이는 우리나라 지역에 따라 예술활동 관련 인프라 측면에서 불균형 구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됨
- 예술인 성별로는 여성 예술인 층에서 네트워크가 있어서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높음

〈표 2-32〉 응답자특성별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데뷔한 곳이거나 네트워크(학연/예술인 공동체)이 있어서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	예술적 자극(교류)이 많은 환경이어서
전체		(240)	33.3	24.6	20.8	18.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93)	34.4	26.9	21.5	23.7
	실연예술가	(62)	35.5	29.0	21.0	16.1
	예술기획/교육자	(85)	30.6	18.8	20.0	14.1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14)	30.7	24.6	16.7	18.4
	팀/단체 공동작업	(79)	29.1	21.5	29.1	13.9
	프로젝트 단위 협업	(22)	50.0	36.4	22.7	40.9
	회사 소속 활동	(16)	50.0	25.0	12.5	6.3
기타		(9)	33.3	22.2	11.1	22.2
성별	여성	(120)	39.2	24.2	24.2	22.5
	남성	(120)	27.5	25.0	17.5	14.2
연령별	20대 이하	(23)	30.4	39.1	26.1	8.7
	30대	(71)	22.5	32.4	36.6	18.3
	40대	(82)	41.5	18.3	17.1	22.0
	50대	(46)	32.6	21.7	8.7	17.4
	60대 이상	(18)	44.4	11.1	0.0	16.7
활동분야	문학(출판)	(19)	52.6	15.8	10.5	10.5
	사진	(7)	28.6	28.6	14.3	28.6
	미술	(62)	29.0	25.8	21.0	22.6
	국악	(24)	25.0	12.5	29.2	16.7
	무용	(16)	43.8	18.8	25.0	12.5
	연극	(24)	41.7	29.2	16.7	16.7
	음악	(54)	37.0	25.9	20.4	13.0
	영화	(15)	20.0	33.3	20.0	26.7
	만화	(1)	0.0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6)	0.0	66.7	16.7	33.3
	기타(다원예술 등)	(12)	33.3	16.7	25.0	25.0

〈표 2-32〉 응답자특성별 성남 외 지역 활동 이유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일자리가 많아서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기타
전체		(240)	16.3	15.4	10.8	11.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93)	12.9	17.2	4.3	11.8
	실연예술가	(62)	21.0	19.4	9.7	14.5
	예술기획/교육자	(85)	16.5	10.6	18.8	8.2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14)	16.7	19.3	9.6	11.4
	팀/단체 공동작업	(79)	15.2	17.7	13.9	11.4
	프로젝트 단위 협업	(22)	27.3	0.0	4.5	9.1
	회사 소속 활동	(16)	12.5	6.3	12.5	0.0
	기타	(9)	0.0	0.0	11.1	33.3
성별	여성	(120)	13.3	11.7	10.0	10.8
	남성	(120)	19.2	19.2	11.7	11.7
연령별	20대 이하	(23)	30.4	17.4	17.4	8.7
	30대	(71)	22.5	18.3	14.1	9.9
	40대	(82)	11.0	14.6	8.5	13.4
	50대	(46)	10.9	10.9	4.3	10.9
	60대 이상	(18)	11.1	16.7	16.7	11.1
활동분야	문학(출판)	(19)	5.3	5.3	5.3	5.3
	사진	(7)	0.0	0.0	14.3	0.0
	미술	(62)	6.5	17.7	9.7	17.7
	국악	(24)	8.3	12.5	25.0	12.5
	무용	(16)	18.8	6.3	12.5	6.3
	연극	(24)	25.0	8.3	8.3	12.5
	음악	(54)	20.4	22.2	9.3	11.1
	영화	(15)	40.0	33.3	6.7	0.0
	만화	(1)	100.0	0.0	0.0	100.0
	연예(방송, 공연)	(6)	16.7	16.7	16.7	0.0
	기타(다원예술 등)	(12)	33.3	8.3	8.3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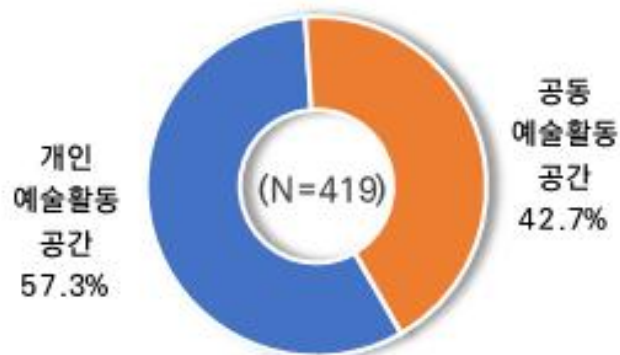
5. 예술활동 공간

1) 예술활동 공간 유형

가. 전체분석

- 성남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을 하는 장소/공간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한 결과, ‘개인 예술활동 공간’ 57.3%, ‘공동 예술활동 공간’ 42.7%로 개인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비율이 공동 공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됨

(N=419)



〈그림 2-29〉 예술활동 공간 유형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공간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개인 예술활동 공간’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 예술가(75.2%)나 예술기획/교육자(62.4%),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활동 예술인(79.2%) 계층, 활동분야별로는 문학, 미술, 영화 관련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높았음
- 반면, 공동 예술활동 공간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70.2%), 활동분야별로는 국악(70.2%), 음악(59.0%), 무용(54.1%) 예술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이용되고 있음
 - 예술활동 공간 유형은 예술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33〉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공간 유형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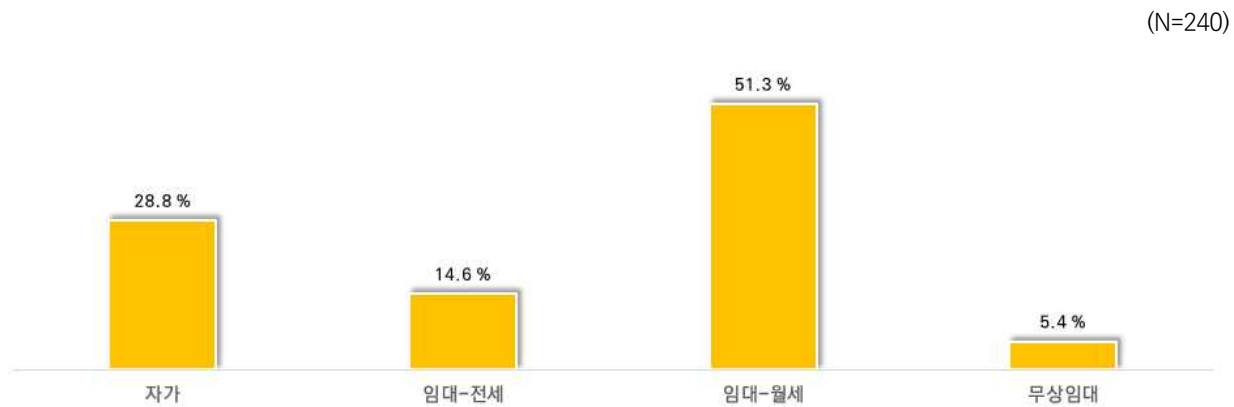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개인 예술활동 공간	공동 예술활동 공간
전체		(419)	57.3	42.7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75.2	24.8
	실연예술가	(121)	29.8	70.2
	예술기획/교육자	(157)	62.4	37.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79.2	20.8
	팀/단체 공동작업	(153)	35.3	64.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2.2	37.8
	회사 소속 활동	(34)	41.2	58.8
	기타	(14)	50.0	50.0
성별	여성	(225)	58.2	41.8
	남성	(194)	56.2	43.8
연령별	20대 이하	(43)	48.8	51.2
	30대	(103)	53.4	46.6
	40대	(152)	58.6	41.4
	50대	(86)	59.3	40.7
	60대 이상	(35)	68.6	31.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86.4	13.6
	사진	(11)	100.0	0.0
	미술	(106)	74.5	25.5
	국악	(47)	29.8	70.2
	무용	(37)	45.9	54.1
	연극	(36)	52.8	47.2
	음악	(100)	41.0	59.0
	영화	(19)	68.4	31.6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70.0	3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2.1	37.9

2)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1) 개인 예술활동

가. 전체분석

- 개인 예술활동 공간을 이용하는 예술인(N=240)들에게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 결과, 절반 정도(51.3%)가 ‘월세’ 형태의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자가’(28.8%), ‘전세’(14.6%) 등의 순임



〈그림 2-30〉 개인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개인 예술활동 공간의 소유형태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월세’는 50대 이하 연령대 예술인 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자가’ 이용은 연령별로는 60세 이상(50.0%), 활동분야별로는 문학(68.4%) 관련 예술인들의 이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는 ‘자가’ 이용은 여성 예술인(34.4%) 층에서, ‘월세’는 남성(59.6%) 예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음

〈표 2-34〉 응답자특성별 개인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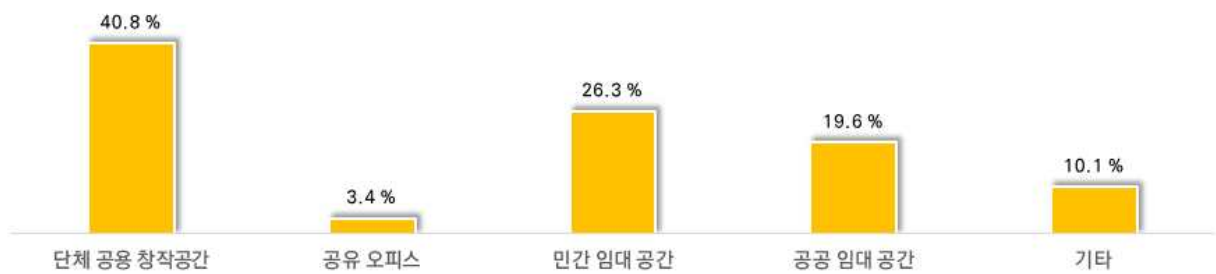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가	임대-전세	임대-월세	무상임대
전체		(240)	28.8	14.6	51.3	5.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32.1	15.1	47.2	5.7
	실연예술가	(121)	27.8	11.1	50.0	11.1
	예술기획/교육자	(157)	25.5	15.3	56.1	3.1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37)	33.6	13.1	48.9	4.4
	팀/단체 공동작업	(54)	20.4	18.5	51.9	9.3
	프로젝트 단위 협업	(28)	25.0	17.9	53.6	3.6
	회사 소속 활동	(14)	14.3	14.3	71.4	0.0
	기타	(7)	42.9	0.0	42.9	14.3
성별	여성	(131)	34.4	13.0	44.3	8.4
	남성	(109)	22.0	16.5	59.6	1.8
연령별	20대 이하	(21)	19.0	9.5	52.4	19.0
	30대	(55)	20.0	18.2	60.0	1.8
	40대	(89)	27.0	18.0	50.6	4.5
	50대	(51)	35.3	5.9	54.9	3.9
	60대 이상	(24)	50.0	16.7	25.0	8.3
활동분야	문학(출판)	(19)	68.4	21.1	10.5	0.0
	사진	(11)	27.3	27.3	45.5	0.0
	미술	(79)	26.6	13.9	54.4	5.1
	국악	(14)	14.3	14.3	64.3	7.1
	무용	(17)	17.6	11.8	58.8	11.8
	연극	(19)	21.1	10.5	57.9	10.5
	음악	(41)	31.7	12.2	53.7	2.4
	영화	(13)	30.8	15.4	46.2	7.7
	만화	(2)	0.0	0.0	50.0	50.0
	연예(방송, 공연)	(7)	14.3	14.3	71.4	0.0
	기타(다원예술 등)	(18)	27.8	16.7	50.0	5.6

(2) 공동 예술활동

가. 전체분석

○ 개인 예술활동 공간 이용형태에 이어 공동 예술활동 공간을 이용하는 예술인(N=179)들에게 소유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질문한 결과, ‘단체 공용 창작 공간’ 형태가 가장 많았으며(40.8%), 그 다음이 ‘민간 임대 공간’ 26.3%, ‘공공 임대 공간’ 19.6% 등의 순임

(N=179)



〈그림 2-31〉 공동 예술활동 공간 형태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공동 예술활동 공간의 소유형태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단체 공용 창작공간’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63.6%),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54.3%),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활동 예술인(52.8%) 계층에서 이용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소유형태는 남성 예술인의 경우 ‘민간 임대 공간’이 여성 예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음

〈표 2-35〉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형태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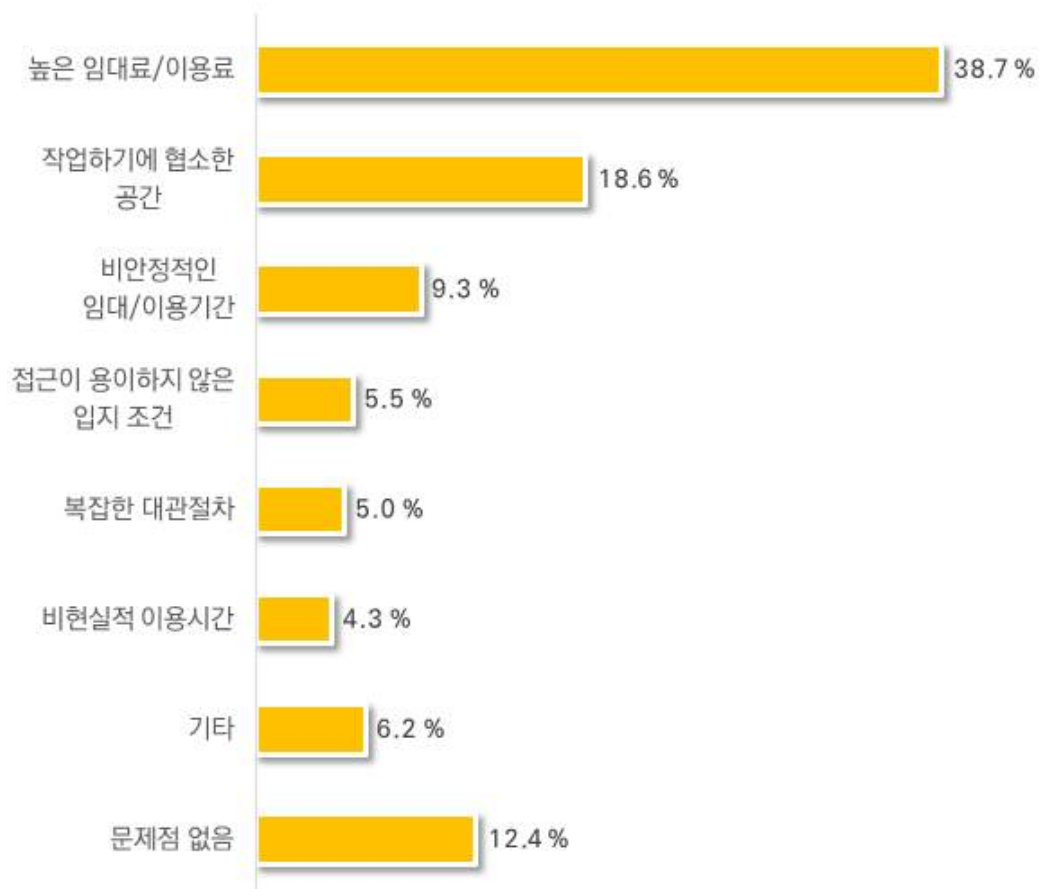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단체 공용 창작공간	공유 오피스	민간 임대 공간	공공 임대 공간	기타
전체		(179)	40.8	3.4	26.3	19.6	10.1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4.3	5.7	17.1	17.1	5.7
	실연예술가	(121)	40.0	1.2	25.9	22.4	10.6
	예술기획/교육자	(157)	33.9	5.1	32.2	16.9	11.9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36)	52.8	8.3	25.0	8.3	5.6
	팀/단체 공동작업	(99)	40.4	1.0	26.3	20.2	12.1
	프로젝트 단위 협업	(17)	41.2	0.0	29.4	23.5	5.9
	회사 소속 활동	(20)	35.0	10.0	20.0	30.0	5.0
	기타	(7)	0.0	0.0	42.9	28.6	28.6
성별	여성	(94)	40.4	5.3	21.3	22.3	10.6
	남성	(85)	41.2	1.2	31.8	16.5	9.4
연령별	20대 이하	(22)	63.6	0.0	22.7	13.6	0.0
	30대	(48)	43.8	4.2	25.0	14.6	12.5
	40대	(63)	38.1	3.2	30.2	17.5	11.1
	50대	(35)	25.7	5.7	25.7	31.4	11.4
	60대 이상	(11)	45.5	0.0	18.2	27.3	9.1
활동분야	문학(출판)	(3)	33.3	0.0	0.0	33.3	33.3
	사진	(27)	63.0	3.7	11.1	14.8	7.4
	미술	(33)	42.4	3.0	24.2	18.2	12.1
	국악	(20)	30.0	10.0	30.0	20.0	10.0
	무용	(17)	47.1	5.9	41.2	5.9	0.0
	연극	(59)	35.6	0.0	28.8	27.1	8.5
	음악	(6)	16.7	16.7	33.3	16.7	16.7
	영화	(3)	66.7	0.0	0.0	0.0	33.3
	만화	(11)	27.3	0.0	36.4	18.2	18.2
	연예(방송, 공연)	(10)	66.7	0.0	0.0	0.0	33.3
	기타(다원예술 등)	(29)	27.3	0.0	36.4	18.2	18.2

3)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공간 관련 문제점으로 성남시 예술인들은 ‘높은 임대료/이용료’를 가장 많이 지적하고 있었으며(38.7%), 그 다음이 ‘작업하기 협소한 공간’ 18.6%, ‘안정적이지 않은 임대/이용기간’ 9.3% 등의 순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32〉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공간과 관련된 문제점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높은 임대료’는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예술기획/교육자(44.6%), 창작예술가(40.4%)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었으며, ‘협소한 공간’에 대해서는 예술활동을 위해 공동보다는 개인 공간(22.5%)을 주로 이용하는 계층에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비율이 높음

- 예술인 성별 예술활동 공간의 주된 문제점으로 남성 예술인의 경우 ‘높은 임대료/이용료’를 지적하는 비율이 높음

〈표 2-36〉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단위: %)

구분		사례수	높은 임대료/이용료	작업하기에 협소한 공간	비안정적인 임대/이용기간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입지조건
주요 활동 직업	전체	(419)	38.7	18.6	9.3	5.5
	창작예술가	(141)	40.4	21.3	7.8	7.1
	실연예술가	(121)	28.9	21.5	8.3	3.3
	예술기획/교육자	(157)	44.6	14.0	11.5	5.7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38.2	19.7	7.5	8.1
	팀/단체 공동작업	(153)	39.9	16.3	10.5	2.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2.2	17.8	13.3	4.4
	회사 소속 활동	(34)	35.3	23.5	11.8	5.9
성별	기타	(14)	28.6	21.4	0.0	7.1
	여성	(225)	33.3	20.0	11.6	5.8
	남성	(194)	44.8	17.0	6.7	5.2
연령별	20대 이하	(43)	34.9	14.0	7.0	4.7
	30대	(103)	36.9	21.4	10.7	5.8
	40대	(152)	42.1	19.1	9.2	5.3
	50대	(86)	41.9	17.4	9.3	7.0
	60대 이상	(35)	25.7	17.1	8.6	2.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9.1	9.1	8.1
	사진	(11)	27.3	36.4	9.1	2.8
	미술	(106)	41.5	22.6	10.4	4.0
	국악	(47)	36.2	21.3	6.4	15.8
	무용	(37)	48.6	2.7	5.4	0.0
	연극	(36)	33.3	16.7	16.7	0.0
	음악	(100)	36.0	20.0	9.0	10.3
	영화	(19)	31.6	5.3	15.8	5.8
	만화	(2)	50.0	50.0	0.0	5.0
	연예(방송, 공연)	(10)	40.0	40.0	1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17.2	3.4	3.4
예술활동 공간	개인 예술활동 공간	(240)	38.3	22.5	8.8	8.8
	공동 예술활동 공간	(179)	39.1	13.4	10.1	10.1

〈표 2-36〉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공간 문제점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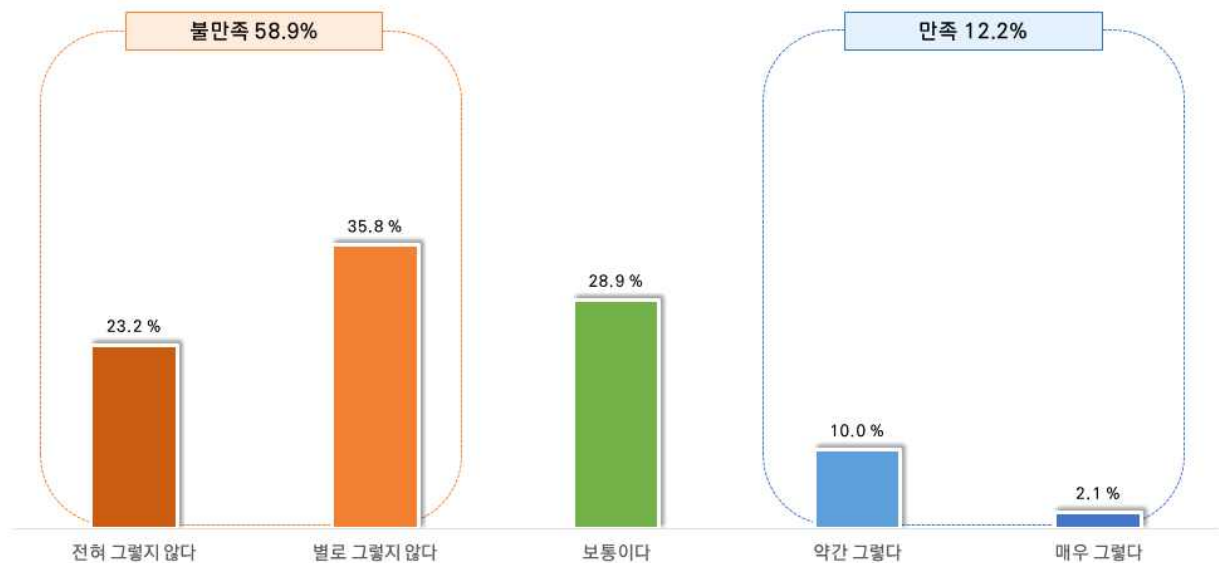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복잡한 대관절차	비현실적인 이용시간 (야간이용 불가 등)	기타	문제점 없음
전체		(419)	5.0	4.3	6.2	12.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0.7	2.1	5.7	14.9
	실연예술가	(121)	7.4	5.0	7.4	18.2
	예술기획/교육자	(157)	7.0	5.7	5.7	5.7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2.3	4.0	6.9	13.3
	팀/단체 공동작업	(153)	9.8	3.9	4.6	12.4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4	2.2	6.7	8.9
	회사 소속 활동	(34)	0.0	5.9	8.8	8.8
성별	기타	(14)	0.0	14.3	7.1	21.4
	여성	(225)	5.3	5.3	7.1	11.6
	남성	(194)	4.6	3.1	5.2	13.4
	연령별					
연령별	20대 이하	(43)	9.3	9.3	9.3	11.6
	30대	(103)	4.9	4.9	1.9	13.6
	40대	(152)	4.6	3.3	9.2	7.2
	50대	(86)	2.3	3.5	7.0	11.6
활동분야	60대 이상	(35)	8.6	2.9	0.0	34.3
	문학(출판)	(22)	4.5	9.1	13.6	12.4
	사진	(11)	0.0	0.0	0.0	9.3
	미술	(106)	2.8	1.9	7.5	15.4
예술활동 공간	국악	(47)	8.5	10.6	6.4	11.8
	무용	(37)	13.5	5.4	2.7	36.4
	연극	(36)	0.0	5.6	8.3	18.2
	음악	(100)	7.0	3.0	6.0	6.6
예술활동 공간	영화	(19)	0.0	5.3	10.5	8.5
	만화	(2)	0.0	0.0	0.0	13.5
	연예(방송, 공연)	(10)	0.0	10.0	0.0	16.7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0.0	0.0	15.0
예술활동 공간	개인 예술활동 공간	(240)	4.2	3.3	5.0	15.8
	공동 예술활동 공간	(179)	6.1	5.6	7.8	0.0

4)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성남시의 예술활동 공간의 구비 정도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갖추어져 있다’ 12.1%, ‘(전혀+별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 58.9%로 상당수의 성남시 예술인들이 성남시의 예술활동 공간과 관련된 인프라 시설에 대해 만족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33〉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의 예술활동 공간 구비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충분하다는 응답을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성남시 예술활동 공간 구비 정도에 대한 인식은 예술인 성별로는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37〉 응답자특성별 성남시 예술활동 공간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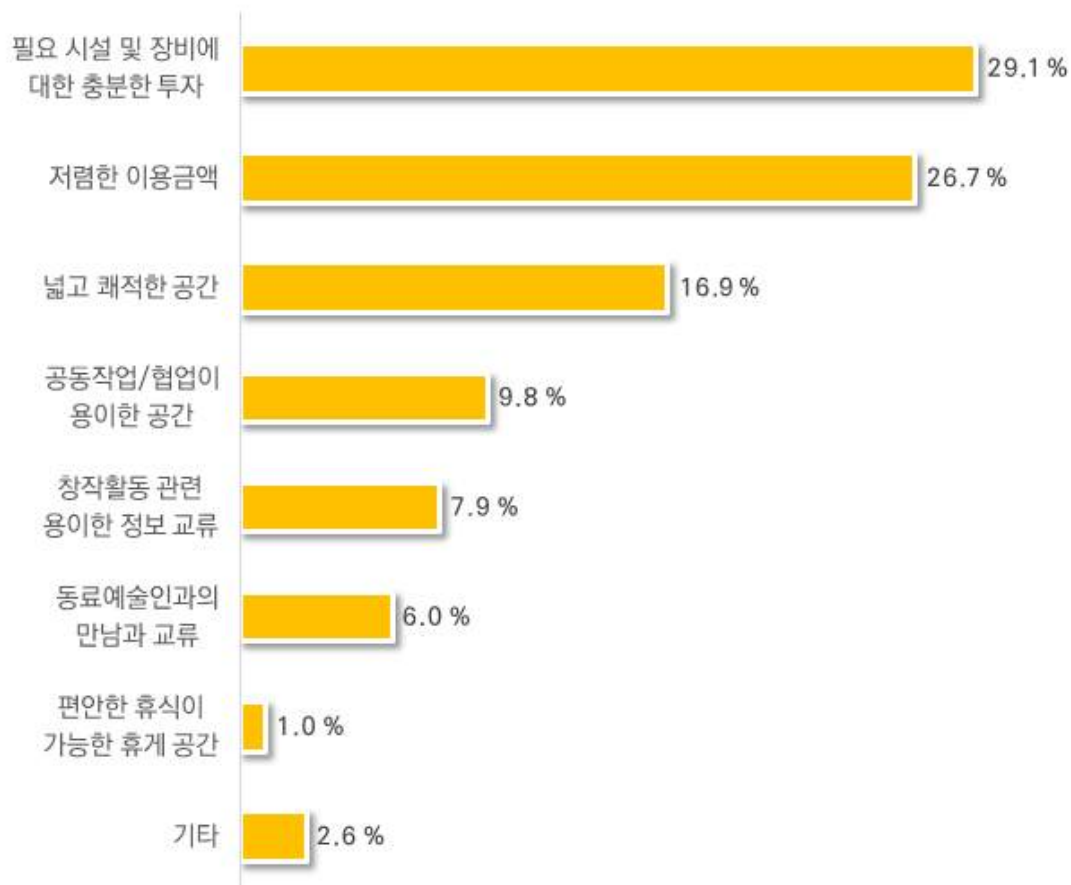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만족	불만족	평균
전체		(419)	23.2	35.8	28.9	10.0	2.1	12.2	58.9	2.32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26.2	40.4	27.0	3.5	2.8	6.4	66.7	2.16
	실연예술가	(121)	27.3	33.1	25.6	11.6	2.5	14.0	60.3	2.29
	예술기획/교육자	(157)	17.2	33.8	33.1	14.6	1.3	15.9	51.0	2.49
	예술기획/교육자	(157)	17.2	33.8	33.1	14.6	1.3	15.9	51.0	2.49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25.4	38.7	29.5	4.0	2.3	6.4	64.2	2.19
	팀/단체 공동작업	(153)	24.2	32.7	27.5	14.4	1.3	15.7	56.9	2.3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20.0	44.4	20.0	13.3	2.2	15.6	64.4	2.33
	회사 소속 활동	(34)	14.7	26.5	35.3	17.6	5.9	23.5	41.2	2.74
	기타	(14)	14.3	28.6	50.0	7.1	0.0	7.1	42.9	2.50
성별	여성	(225)	24.0	36.0	28.9	8.0	3.1	11.1	60.0	2.30
	남성	(194)	22.2	35.6	28.9	12.4	1.0	13.4	57.7	2.35
연령별	20대 이하	(43)	20.9	37.2	30.2	9.3	2.3	11.6	58.1	2.35
	30대	(103)	23.3	36.9	31.1	7.8	1.0	8.7	60.2	2.26
	40대	(152)	23.0	37.5	26.3	13.2	0.0	13.2	60.5	2.30
	50대	(86)	20.9	32.6	32.6	9.3	4.7	14.0	53.5	2.44
	60대 이상	(35)	31.4	31.4	22.9	5.7	8.6	14.3	62.9	2.2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2.7	40.9	18.2	13.6	4.5	18.2	63.6	2.36
	사진	(11)	9.1	54.5	36.4	0.0	0.0	0.0	63.6	2.27
	미술	(106)	28.3	38.7	26.4	4.7	1.9	6.6	67.0	2.13
	국악	(47)	23.4	34.0	27.7	8.5	6.4	14.9	57.4	2.40
	무용	(37)	27.0	48.6	18.9	5.4	0.0	5.4	75.7	2.03
	연극	(36)	33.3	25.0	22.2	16.7	2.8	19.4	58.3	2.31
	음악	(100)	15.0	31.0	37.0	15.0	2.0	17.0	46.0	2.58
	영화	(19)	21.1	36.8	26.3	15.8	0.0	15.8	57.9	2.37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4.1	20.7	41.4	13.8	0.0	13.8	44.8	2.45

5)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필요 요소

가. 전체분석

- 향후 성남시의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검토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본 결과,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29.1%, ‘저렴한 이용금액’ 26.7%, ‘넓고 쾌적한 공간’ 16.9%,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9.8% 등 보기로 제시된 항목에 대해 비교적 고른 응답 분포를 보이고 있음

(N=419)



〈그림 2-34〉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필요 요소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필요 요소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필요 시설/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는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38.2%) 층에서, 활동분야별로는 영화(36.8%), 음악(32.0%) 관련 예술 층에서, ‘저렴한 이용금액’은 주요 활동 직업에 따라서는 예술기획/교육(31.8%) 관련 집단, 활동방식으로는 개인 단독 활동(31.8%) 예술인들에게서 상대적으로 요구 정도가 높음
- 공동 예술활동 공간과 관련하여 예술인 성별로는 남성 예술인의 경우 ‘필요 시설이나 장비에 대한 투자’를 요구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표 2-38〉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필요 요소

(단위: %)

구분		사례수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저렴한 이용금액	넓고 쾌적한 공간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전체		(419)	29.1	26.7	16.9	9.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29.8	27.7	17.7	9.2
	실연예술가	(121)	31.4	19.0	21.5	9.9
	예술기획/교육자	(157)	26.8	31.8	12.7	10.2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27.7	31.8	17.9	7.5
	팀/단체 공동작업	(153)	28.8	20.9	17.0	14.4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33.3	24.4	17.8	4.4
	회사 소속 활동	(34)	38.2	23.5	17.6	2.9
	기타	(14)	14.3	42.9	0.0	21.4
성별	여성	(225)	25.3	28.0	17.8	12.0
	남성	(194)	33.5	25.3	16.0	7.2
연령별	20대 이하	(43)	23.3	30.2	16.3	7.0
	30대	(103)	37.9	20.4	20.4	5.8
	40대	(152)	26.3	27.6	19.7	9.9
	50대	(86)	25.6	32.6	10.5	15.1
	60대 이상	(35)	31.4	22.9	11.4	11.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31.8	18.2	9.1	13.6
	사진	(11)	18.2	36.4	0.0	18.2
	미술	(106)	27.4	27.4	21.7	12.3
	국악	(47)	27.7	25.5	23.4	10.6
	무용	(37)	18.9	24.3	27.0	5.4
	연극	(36)	25.0	25.0	11.1	11.1
	음악	(100)	32.0	29.0	18.0	7.0
	영화	(19)	36.8	36.8	0.0	5.3
	만화	(2)	0.0	5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10.0	2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24.1	3.4	13.8

〈표 2-38〉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필요 요소

(단위: %)

구분		사례수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과 교류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휴게공간	기타
전체		(419)	7.9	6.0	1.0	2.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7.1	4.3	0.7	3.5
	실연예술가	(121)	9.1	5.0	2.5	1.7
	예술기획/교육자	(157)	7.6	8.3	0.0	2.5
	개인 단독 활동	(173)	6.9	5.2	0.6	2.3
예술활동 방식	팀/단체 공동작업	(153)	9.2	5.9	1.3	2.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7	8.9	0.0	4.4
	회사 소속 활동	(34)	8.8	5.9	2.9	0.0
	기타	(14)	7.1	7.1	0.0	7.1
성별	여성	(225)	9.3	4.4	0.4	2.7
	남성	(194)	6.2	7.7	1.5	2.6
연령별	20대 이하	(43)	7.0	14.0	0.0	2.3
	30대	(103)	5.8	5.8	0.0	3.9
	40대	(152)	8.6	4.6	1.3	2.0
	50대	(86)	7.0	4.7	2.3	2.3
	60대 이상	(35)	14.3	5.7	0.0	2.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2.7	4.5	0.0	0.0
	사진	(11)	9.1	18.2	0.0	0.0
	미술	(106)	5.7	2.8	0.0	2.8
	국악	(47)	4.3	8.5	0.0	0.0
	무용	(37)	10.8	8.1	0.0	5.4
	연극	(36)	13.9	8.3	0.0	5.6
	음악	(100)	6.0	3.0	3.0	2.0
	영화	(19)	0.0	10.5	5.3	5.3
	만화	(2)	0.0	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13.8	0.0	0.0

6)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가. 전체분석

- 향후 성남시 공동 예술활동 공간 조성시 입주 의향을 파악한 결과, ‘있다’ 85.4%, ‘없다’ 14.6%로 거의 대부분의 성남시 예술인들이 예술활동 공간이 조성될 경우 입주해서 활동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N=419)



〈그림 2-35〉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입주 의사를 표명하고 있었음

- 예술인 성별에 따른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역시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39〉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입주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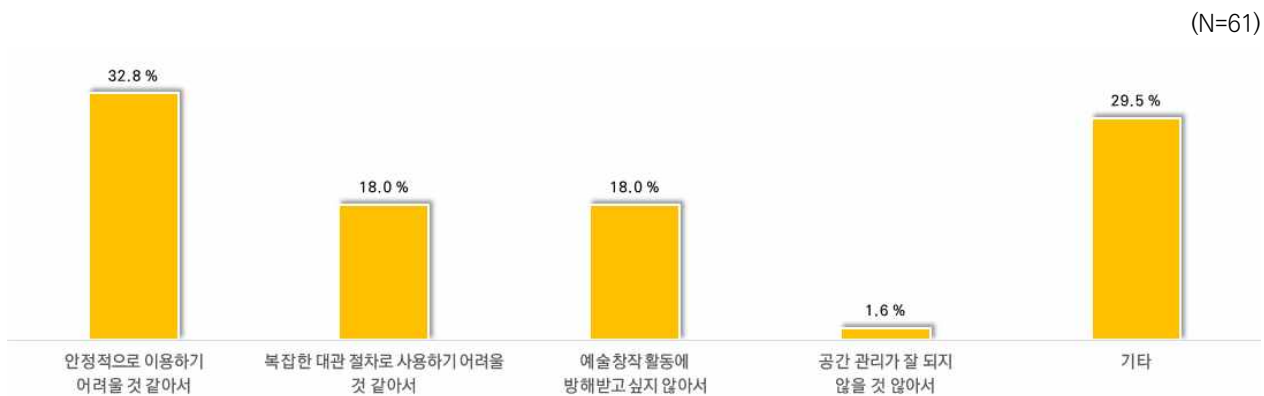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19)	85.4	14.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84.4	15.6
	실연예술가	(121)	84.3	15.7
	예술기획/교육자	(157)	87.3	12.7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85.5	14.5
	팀/단체 공동작업	(153)	85.0	15.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93.3	6.7
	회사 소속 활동	(34)	76.5	23.5
	기타	(14)	85.7	14.3
성별	여성	(225)	87.1	12.9
	남성	(194)	83.5	16.5
연령별	20대 이하	(43)	86.0	14.0
	30대	(103)	84.5	15.5
	40대	(152)	86.2	13.8
	50대	(86)	87.2	12.8
	60대 이상	(35)	80.0	2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72.7	27.3
	사진	(11)	100.0	0.0
	미술	(106)	88.7	11.3
	국악	(47)	91.5	8.5
	무용	(37)	91.9	8.1
	연극	(36)	77.8	22.2
	음악	(100)	81.0	19.0
	영화	(19)	84.2	15.8
	만화	(2)	5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9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86.2	13.8

7)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가. 전체분석

- 성남시 공공의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입주의향이 없는 예술인(N=61)들에게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를 가장 많이 지적(32.8%)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이 '복잡한 대관 절차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술창작활동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가 각각 18.0%를 꼽고 있음



〈그림 2-36〉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활동방식별로는 프로젝트 단위 활동 예술인 계층에서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음
- 예술인 성별에 따른 공동 예술활동 비입주 이유에 두드러진 인식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40〉 응답자특성별 공동 예술활동 공간 비입주 이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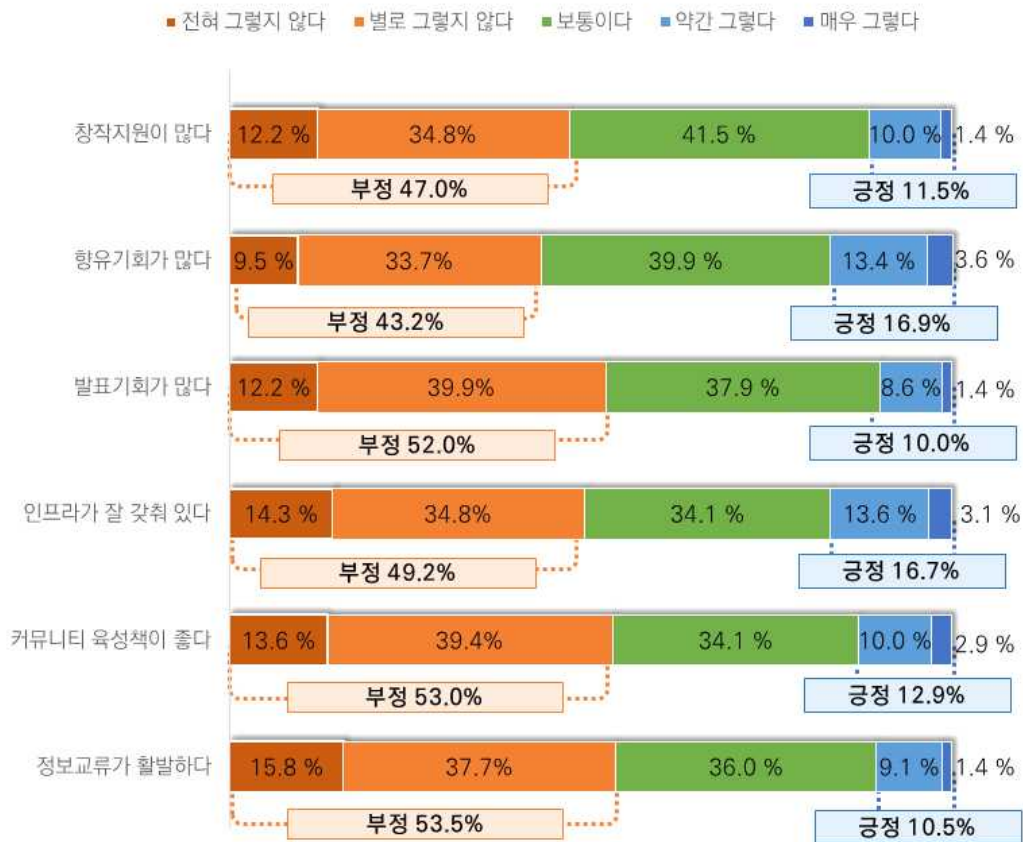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복잡한 대관 절차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술창작 활동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공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기타
전체		(61)	32.8	18.0	18.0	1.6	29.5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22)	27.3	13.6	27.3	0.0	31.8
	실연예술가	(19)	36.8	21.1	5.3	0.0	36.8
	예술기획/교육자	(20)	35.0	20.0	20.0	5.0	20.0
	예술기획/교육자	(20)	35.0	20.0	20.0	5.0	20.0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25)	24.0	8.0	32.0	4.0	32.0
	팀/단체 공동작업	(23)	39.1	21.7	8.7	0.0	30.4
	프로젝트 단위 협업	(3)	66.7	33.3	0.0	0.0	0.0
	회사 소속 활동	(8)	25.0	25.0	12.5	0.0	37.5
	기타	(2)	50.0	50.0	0.0	0.0	0.0
성별	여성	(29)	31.0	20.7	13.8	3.4	31.0
	남성	(32)	34.4	15.6	21.9	0.0	28.1
연령별	20대 이하	(6)	50.0	16.7	16.7	0.0	16.7
	30대	(16)	31.3	18.8	6.3	0.0	43.8
	40대	(21)	38.1	19.0	14.3	0.0	28.6
	50대	(11)	27.3	18.2	27.3	9.1	18.2
	60대 이상	(7)	14.3	14.3	42.9	0.0	28.6
활동분야	문학(출판)	(6)	16.7	0.0	33.3	0.0	50.0
	미술	(12)	25.0	25.0	41.7	0.0	8.3
	국악	(4)	75.0	25.0	0.0	0.0	0.0
	무용	(3)	33.3	33.3	0.0	0.0	33.3
	연극	(8)	37.5	25.0	25.0	0.0	12.5
	음악	(19)	31.6	15.8	0.0	5.3	47.4
	영화	(3)	33.3	0.0	33.3	0.0	33.3
	만화	(1)	0.0	0.0	0.0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	10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4)	25.0	25.0	25.0	0.0	25.0

6. 예술정책 및 지원

1)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 만족도

○ 성남시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와 관련하여 예술작품 창작기회, 예술작품 향유기회, 예술활동 발표 기회, 예술 인프라,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 예술활동 정보교류 등 6가지 차원에 대해 성남시가 얼마나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예술활동 정보교류’,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 ‘예술작품 발표 기회’ 등에 대해서는 절반 이상의 예술인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음

(N=419)



〈그림 2-37〉 성남시 예술정책/지원제도 부문별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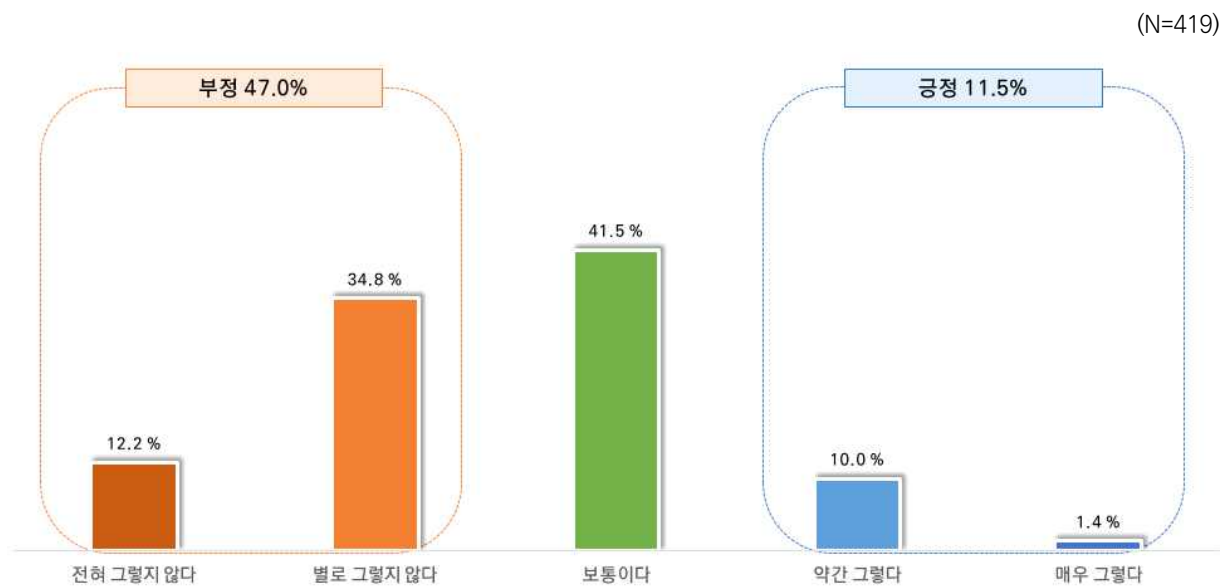
2)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 부문별 평가

(1)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작품 창작지원과 관련한 만족수준을 질문한 결과, ‘(매우+약간) 그렇다’ 11.5%,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47.0%로 창작지원 제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예술인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41.5%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38〉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예술작품 창작지원에 대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는 예술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41〉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창작지원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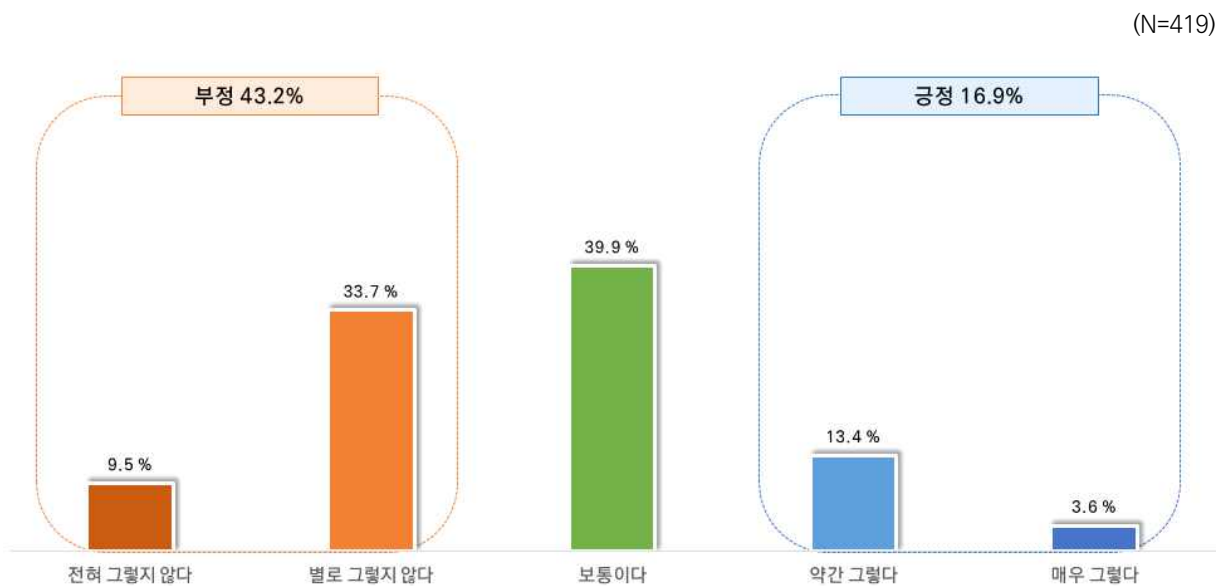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12.2	34.8	41.5	10.0	1.4	11.5	47.0	2.5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8.4	34.8	36.2	9.9	0.7	10.6	53.2	2.40
	실연예술가	(121)	8.3	39.7	45.5	6.6	0.0	6.6	47.9	2.50
	예술기획/교육자	(157)	9.6	31.2	43.3	12.7	3.2	15.9	40.8	2.69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2.7	34.7	43.4	8.1	1.2	9.2	47.4	2.50
	팀/단체 공동작업	(153)	12.4	35.3	43.1	8.5	0.7	9.2	47.7	2.5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8.9	33.3	37.8	17.8	2.2	20.0	42.2	2.71
	회사 소속 활동	(34)	17.6	29.4	41.2	8.8	2.9	11.8	47.1	2.50
기타		(14)	0.0	50.0	14.3	28.6	7.1	35.7	50.0	2.93
성별	여성	(225)	10.7	36.4	39.6	11.1	2.2	13.3	47.1	2.58
	남성	(194)	13.9	33.0	43.8	8.8	0.5	9.3	46.9	2.49
연령별	20대 이하	(43)	7.0	27.9	46.5	16.3	2.3	18.6	34.9	2.79
	30대	(103)	16.5	33.0	37.9	10.7	1.9	12.6	49.5	2.49
	40대	(152)	12.5	34.9	42.8	9.2	0.7	9.9	47.4	2.51
	50대	(86)	7.0	40.7	41.9	8.1	2.3	10.5	47.7	2.58
	60대 이상	(35)	17.1	34.3	40.0	8.6	0.0	8.6	51.4	2.4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7.3	31.8	40.9	0.0	0.0	0.0	59.1	2.14
	사진	(11)	9.1	36.4	45.5	9.1	0.0	9.1	45.5	2.55
	미술	(106)	14.2	30.2	37.7	16.0	1.9	17.9	44.3	2.61
	국악	(47)	8.5	40.4	40.4	10.6	0.0	10.6	48.9	2.53
	무용	(37)	13.5	37.8	40.5	5.4	2.7	8.1	51.4	2.46
	연극	(36)	19.4	36.1	38.9	5.6	0.0	5.6	55.6	2.31
	음악	(100)	11.0	30.0	50.0	7.0	2.0	9.0	41.0	2.59
	영화	(19)	0.0	47.4	36.8	15.8	0.0	15.8	47.4	2.68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0.0	70.0	30.0	0.0	0.0	0.0	70.0	2.3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34.5	37.9	17.2	3.4	20.7	41.4	2.76

(2)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작품 향유 기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렇다’ 16.9%,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43.2%로 예술작품을 향유할 기회에 대해서도 동의하지 않는 비율이 동의하는 예술인보다 많음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39.9%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39〉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다만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예술기획/교육 집단에서 예술작품 향유기회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표 2-42〉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향유기회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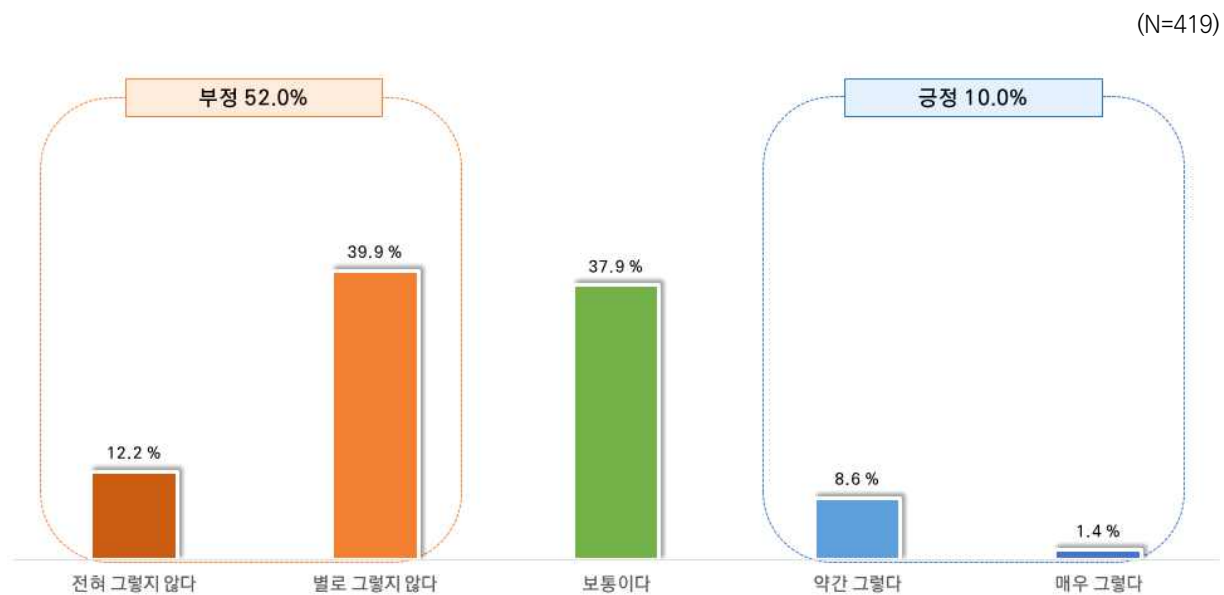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9.5	33.7	39.9	13.4	3.6	16.9	43.2	2.6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1.3	39.0	35.5	12.1	2.1	14.2	50.4	2.55
	실연예술가	(121)	9.1	37.2	42.1	10.7	0.8	11.6	46.3	2.57
	예술기획/교육자	(157)	8.3	26.1	42.0	16.6	7.0	23.6	34.4	2.8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0.4	35.8	40.5	11.0	2.3	13.3	46.2	2.59
	팀/단체 공동작업	(153)	9.8	34.6	42.5	11.8	1.3	13.1	44.4	2.6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4	28.9	37.8	17.8	11.1	28.9	33.3	3.02
	회사 소속 활동	(34)	14.7	23.5	35.3	17.6	8.8	26.5	38.2	2.82
	기타	(14)	0.0	35.7	21.4	35.7	7.1	42.9	35.7	3.14
성별	여성	(225)	9.8	34.7	34.7	16.0	4.9	20.9	44.4	2.72
	남성	(194)	9.3	32.5	45.9	10.3	2.1	12.4	41.8	2.63
연령별	20대 이하	(43)	11.6	30.2	39.5	14.0	4.7	18.6	41.9	2.70
	30대	(103)	11.7	35.9	34.0	13.6	4.9	18.4	47.6	2.64
	40대	(152)	10.5	32.9	39.5	15.1	2.0	17.1	43.4	2.65
	50대	(86)	4.7	30.2	48.8	11.6	4.7	16.3	34.9	2.81
	60대 이상	(35)	8.6	42.9	37.1	8.6	2.9	11.4	51.4	2.5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22.7	40.9	18.2	0.0	18.2	40.9	2.59
	사진	(11)	9.1	36.4	27.3	27.3	0.0	27.3	45.5	2.73
	미술	(106)	8.5	38.7	32.1	16.0	4.7	20.8	47.2	2.70
	국악	(47)	4.3	42.6	36.2	12.8	4.3	17.0	46.8	2.70
	무용	(37)	10.8	32.4	48.6	5.4	2.7	8.1	43.2	2.57
	연극	(36)	22.2	27.8	47.2	0.0	2.8	2.8	50.0	2.33
	음악	(100)	9.0	28.0	46.0	13.0	4.0	17.0	37.0	2.75
	영화	(19)	0.0	47.4	36.8	15.8	0.0	15.8	47.4	2.68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40.0	30.0	20.0	0.0	20.0	50.0	2.6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27.6	41.4	17.2	6.9	24.1	34.5	2.90

(3) 예술작품 발표기회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작품 발표 기회가 많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렇다’ 10.0%,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52.0%로 예술작품을 발표할 기회가 많다고 인식하는 예술인에 비해 발표 기회가 적다는 예술인의 비율이 5배 이상 많은 것으로 조사됨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37.9%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40〉 예술활동 발표기회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작품 발표기회가 많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예술작품 발표기회가 많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술작품 발표기회 만족도와 관련하여 예술인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43〉 응답자특성별 예술작품 발표기회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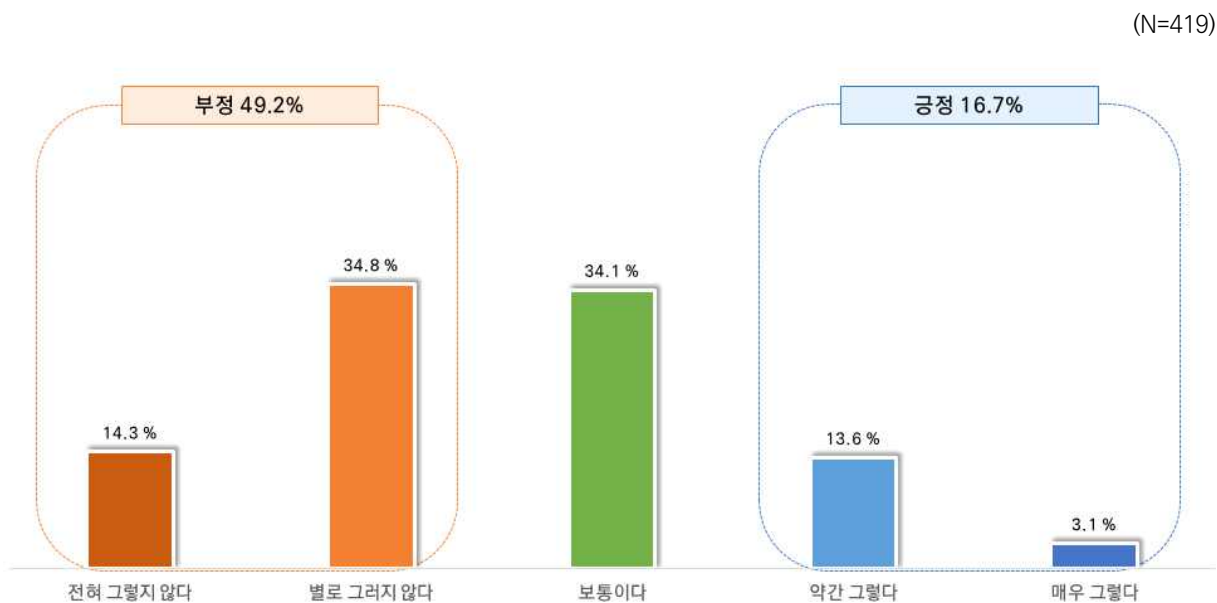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12.2	39.9	37.9	8.6	1.4	10.0	52.0	2.47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2.8	48.9	30.5	7.1	0.7	7.8	61.7	2.34
	실연예술가	(121)	11.6	39.7	41.3	6.6	0.8	7.4	51.2	2.45
	예술기획/교육자	(157)	12.1	31.8	42.0	11.5	2.5	14.0	43.9	2.61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2.7	42.8	38.2	5.2	1.2	6.4	55.5	2.39
	팀/단체 공동작업	(153)	13.1	37.9	39.9	7.8	1.3	9.2	51.0	2.4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6.7	48.9	26.7	17.8	0.0	17.8	55.6	2.56
	회사 소속 활동	(34)	14.7	23.5	50.0	8.8	2.9	11.8	38.2	2.62
기타		(14)	7.1	35.7	21.4	28.6	7.1	35.7	42.9	2.93
성별	여성	(225)	12.0	43.1	31.1	11.1	2.7	13.8	55.1	2.49
	남성	(194)	12.4	36.1	45.9	5.7	0.0	5.7	48.5	2.45
연령별	20대 이하	(43)	14.0	32.6	39.5	11.6	2.3	14.0	46.5	2.56
	30대	(103)	15.5	42.7	32.0	8.7	1.0	9.7	58.3	2.37
	40대	(152)	12.5	42.1	36.8	7.9	0.7	8.6	54.6	2.42
	50대	(86)	8.1	34.9	44.2	9.3	3.5	12.8	43.0	2.65
	60대 이상	(35)	8.6	42.9	42.9	5.7	0.0	5.7	51.4	2.4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45.5	36.4	0.0	0.0	0.0	63.6	2.18
	사진	(11)	18.2	36.4	45.5	0.0	0.0	0.0	54.5	2.27
	미술	(106)	9.4	44.3	34.0	10.4	1.9	12.3	53.8	2.51
	국악	(47)	6.4	42.6	36.2	14.9	0.0	14.9	48.9	2.60
	무용	(37)	18.9	43.2	32.4	5.4	0.0	5.4	62.2	2.24
	연극	(36)	22.2	41.7	36.1	0.0	0.0	0.0	63.9	2.14
	음악	(100)	13.0	26.0	49.0	10.0	2.0	12.0	39.0	2.62
	영화	(19)	5.3	57.9	26.3	10.5	0.0	10.5	63.2	2.42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50.0	40.0	0.0	0.0	0.0	60.0	2.3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41.4	31.0	13.8	6.9	20.7	48.3	2.72

(4) 예술 인프라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렇다’ 16.7%,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49.2%로 예술 인프라와 관련해서도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이 충분하다는 의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34.1%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41〉 예술 인프라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작품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현재 성남시의 예술 인프라가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술 인프라 만족도와 관련하여 예술인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44〉 응답자특성별 예술 인프라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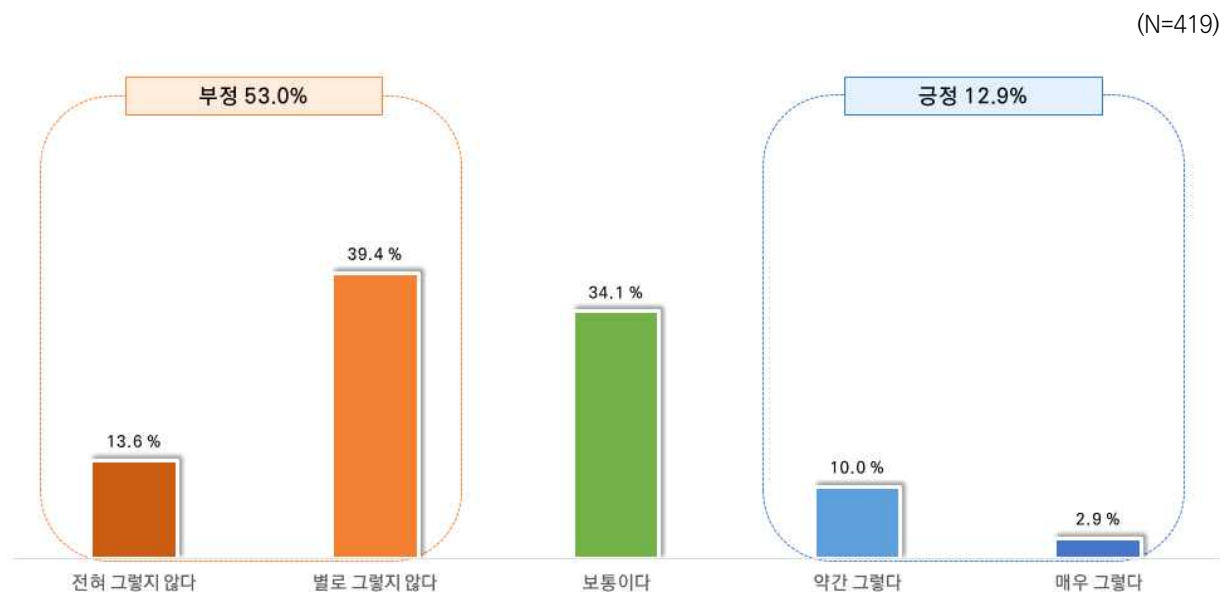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14.3	34.8	34.1	13.6	3.1	16.7	49.2	2.5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5.6	41.8	32.6	8.5	1.4	9.9	57.4	2.38
	실연예술가	(121)	11.6	36.4	32.2	16.5	3.3	19.8	47.9	2.64
	예술기획/교육자	(157)	15.3	27.4	36.9	15.9	4.5	20.4	42.7	2.67
	예술기획/교육자	(157)	15.3	27.4	36.9	15.9	4.5	20.4	42.7	2.67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3.9	43.4	31.8	8.7	2.3	11.0	57.2	2.42
	팀/단체 공동작업	(153)	15.7	31.4	35.3	14.4	3.3	17.6	47.1	2.58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8.9	33.3	35.6	20.0	2.2	22.2	42.2	2.73
	회사 소속 활동	(34)	20.6	8.8	41.2	23.5	5.9	29.4	29.4	2.85
	기타	(14)	7.1	35.7	28.6	21.4	7.1	28.6	42.9	2.86
성별	여성	(225)	12.9	36.9	32.9	14.2	3.1	17.3	49.8	2.58
	남성	(194)	16.0	32.5	35.6	12.9	3.1	16.0	48.5	2.55
연령별	20대 이하	(43)	9.3	39.5	37.2	14.0	0.0	14.0	48.8	2.56
	30대	(103)	19.4	35.9	28.2	14.6	1.9	16.5	55.3	2.44
	40대	(152)	14.5	33.6	33.6	15.1	3.3	18.4	48.0	2.59
	50대	(86)	12.8	29.1	39.5	12.8	5.8	18.6	41.9	2.70
	60대 이상	(35)	8.6	45.7	37.1	5.7	2.9	8.6	54.3	2.4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36.4	36.4	9.1	0.0	9.1	54.5	2.36
	사진	(11)	18.2	36.4	36.4	9.1	0.0	9.1	54.5	2.36
	미술	(106)	15.1	34.0	37.7	11.3	1.9	13.2	49.1	2.51
	국악	(47)	10.6	34.0	38.3	12.8	4.3	17.0	44.7	2.66
	무용	(37)	18.9	35.1	35.1	10.8	0.0	10.8	54.1	2.38
	연극	(36)	19.4	38.9	30.6	11.1	0.0	11.1	58.3	2.33
	음악	(100)	11.0	31.0	33.0	19.0	6.0	25.0	42.0	2.78
	영화	(19)	5.3	42.1	42.1	10.5	0.0	10.5	47.4	2.58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 공연)	(10)	30.0	30.0	10.0	30.0	0.0	30.0	60.0	2.40
	기타(다원예술 등)	(29)	13.8	44.8	20.7	10.3	10.3	20.7	58.6	2.59

(5)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이 좋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렇다’ 12.9%,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53.0%로 예술활동 커뮤니티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크게 앞서고 있음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34.1%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42〉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이 좋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반응보다 우세한 양상을 보임
-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와 관련하여 예술인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45〉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만족도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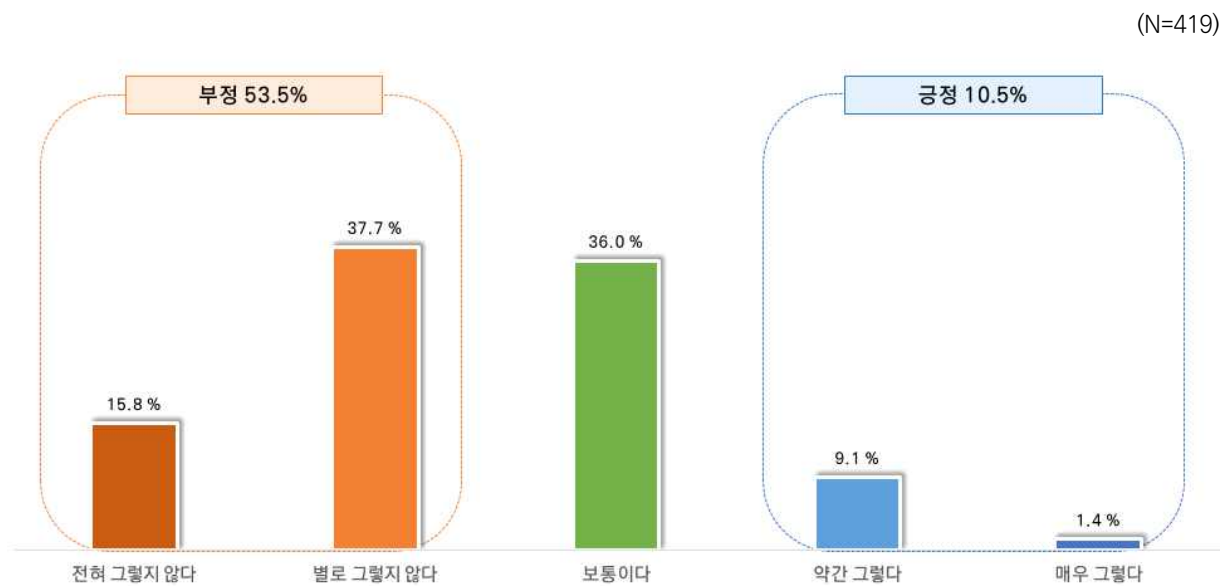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13.6	39.4	34.1	10.0	2.9	12.9	53.0	2.49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4.2	48.9	29.1	6.4	1.4	7.8	63.1	2.32
	실연예술가	(121)	12.4	44.6	33.1	8.3	1.7	9.9	57.0	2.42
	예술기획/교육자	(157)	14.0	26.8	39.5	14.6	5.1	19.7	40.8	2.70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4.5	45.1	34.1	4.6	1.7	6.4	59.5	2.34
	팀/단체 공동작업	(153)	15.7	35.3	34.0	13.1	2.0	15.0	51.0	2.5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1.1	33.3	28.9	20.0	6.7	26.7	44.4	2.78
	회사 소속 활동	(34)	8.8	32.4	47.1	5.9	5.9	11.8	41.2	2.68
성별	기타	(14)	0.0	50.0	21.4	21.4	7.1	28.6	50.0	2.86
	여성	(225)	12.4	42.7	30.7	9.8	4.4	14.2	55.1	2.51
	남성	(194)	14.9	35.6	38.1	10.3	1.0	11.3	50.5	2.47
	연령별									
연령별	20대 이하	(43)	14.0	30.2	46.5	7.0	2.3	9.3	44.2	2.53
	30대	(103)	15.5	35.0	32.0	14.6	2.9	17.5	50.5	2.54
	40대	(152)	15.8	42.8	29.6	9.9	2.0	11.8	58.6	2.39
	50대	(86)	8.1	44.2	34.9	7.0	5.8	12.8	52.3	2.58
활동분야	60대 이상	(35)	11.4	37.1	42.9	8.6	0.0	8.6	48.6	2.49
	문학(출판)	(22)	13.6	50.0	27.3	9.1	0.0	9.1	63.6	2.32
	사진	(11)	9.1	36.4	54.5	0.0	0.0	0.0	45.5	2.45
	미술	(106)	13.2	40.6	34.9	8.5	2.8	11.3	53.8	2.47
활동분야	국악	(47)	6.4	38.3	40.4	10.6	4.3	14.9	44.7	2.68
	무용	(37)	18.9	37.8	32.4	10.8	0.0	10.8	56.8	2.35
	연극	(36)	22.2	33.3	33.3	11.1	0.0	11.1	55.6	2.33
	음악	(100)	12.0	38.0	35.0	11.0	4.0	15.0	50.0	2.57
활동분야	영화	(19)	10.5	42.1	36.8	5.3	5.3	10.5	52.6	2.53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60.0	20.0	10.0	0.0	10.0	70.0	2.30
	기타(다원예술 등)	(29)	20.7	34.5	20.7	17.2	6.9	24.1	55.2	2.55

(6)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

가. 전체분석

○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하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매우+약간) 그렇다’ 10.5%, ‘(전혀+별로) 그렇지 않다’ 53.5%로 예술활동과 관련된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다는 의견이 활발하다는 의견에 비해 많음

○ 한편, ‘보통’으로 판단을 보류한 비율도 36.0%로 적지 않은 수준임



〈그림 2-43〉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하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와 관련하여 예술인 성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46〉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정보교류 만족도

(단위: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15.8	37.7	36.0	9.1	1.4	10.5	53.5	2.4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4.9	46.8	28.4	8.5	1.4	9.9	61.7	2.35
	실연예술가	(121)	16.5	38.8	38.0	5.8	0.8	6.6	55.4	2.36
	예술기획/교육자	(157)	15.9	28.7	41.4	12.1	1.9	14.0	44.6	2.55
	예술기획/교육자	(157)	15.9	28.7	41.4	12.1	1.9	14.0	44.6	2.55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5.0	44.5	33.5	5.2	1.7	6.9	59.5	2.34
	팀/단체 공동작업	(153)	20.3	30.7	39.2	9.2	0.7	9.8	51.0	2.39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8.9	35.6	33.3	20.0	2.2	22.2	44.4	2.71
	회사 소속 활동	(34)	11.8	32.4	47.1	5.9	2.9	8.8	44.1	2.56
	기타	(14)	7.1	50.0	14.3	28.6	0.0	28.6	57.1	2.64
성별	여성	(225)	13.8	43.1	30.2	10.7	2.2	12.9	56.9	2.44
	남성	(194)	18.0	31.4	42.8	7.2	.5	7.7	49.5	2.41
연령별	20대 이하	(43)	16.3	30.2	41.9	11.6	0.0	11.6	46.5	2.49
	30대	(103)	17.5	38.8	34.0	8.7	1.0	9.7	56.3	2.37
	40대	(152)	19.7	38.2	33.6	7.9	0.7	8.6	57.9	2.32
	50대	(86)	8.1	39.5	39.5	8.1	4.7	12.8	47.7	2.62
	60대 이상	(35)	11.4	37.1	37.1	14.3	0.0	14.3	48.6	2.54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9.1	45.5	22.7	22.7	0.0	22.7	54.5	2.59
	사진	(11)	18.2	36.4	45.5	0.0	0.0	0.0	54.5	2.27
	미술	(106)	14.2	39.6	34.0	11.3	0.9	12.3	53.8	2.45
	국악	(47)	6.4	38.3	44.7	10.6	0.0	10.6	44.7	2.60
	무용	(37)	18.9	40.5	35.1	5.4	0.0	5.4	59.5	2.27
	연극	(36)	25.0	30.6	38.9	2.8	2.8	5.6	55.6	2.28
	음악	(100)	16.0	35.0	40.0	7.0	2.0	9.0	51.0	2.44
	영화	(19)	15.8	36.8	36.8	5.3	5.3	10.5	52.6	2.47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4.1	34.5	20.7	17.2	3.4	20.7	58.6	2.41

3) 코로나 관련 지원 실태 및 정책사업 방향

(1) 코로나 관련 지원 수혜 경험

가. 전체분석

- 코로나 이후 공공 및 민간 지원 수혜 경험에 대해 질문한 결과, ‘있다’ 49.6%, ‘없다’ 50.4%로 지원을 받은 예술인과 받지 못한 예술인이 반분되고 있음

(N=419)



〈그림 2-44〉 코로나 피해 지원 수혜 경험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코로나 이후 공공 및 민간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 집단(64.7%)에서, 활동분야별로는 문학(81.8%), 음악(57.0%), 연극(55.6%) 관련 예술인들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 비율이 받았다는 응답보다 높음
- 공공 및 민간 지원 수혜 경험은 예술인 성별로 볼 때 여성(52.0%) 예술인이 남성(46.9%)에 비해 약간 높음

〈표 2-47〉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피해 지원 수혜 경험

구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체		(419)	49.6	50.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1.1	48.9
	실연예술가	(121)	51.2	48.8
	예술기획/교육자	(157)	47.1	52.9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46.8	53.2
	팀/단체 공동작업	(153)	54.2	45.8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48.9	51.1
	회사 소속 활동	(34)	35.3	64.7
	기타	(14)	71.4	28.6
성별	여성	(225)	52.0	48.0
	남성	(194)	46.9	53.1
연령별	20대 이하	(43)	51.2	48.8
	30대	(103)	51.5	48.5
	40대	(152)	47.4	52.6
	50대	(86)	50.0	50.0
	60대 이상	(35)	51.4	4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18.2	81.8
	사진	(11)	54.5	45.5
	미술	(106)	52.8	47.2
	국악	(47)	57.4	42.6
	무용	(37)	62.2	37.8
	연극	(36)	44.4	55.6
	음악	(100)	43.0	57.0
	영화	(19)	52.6	47.4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4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4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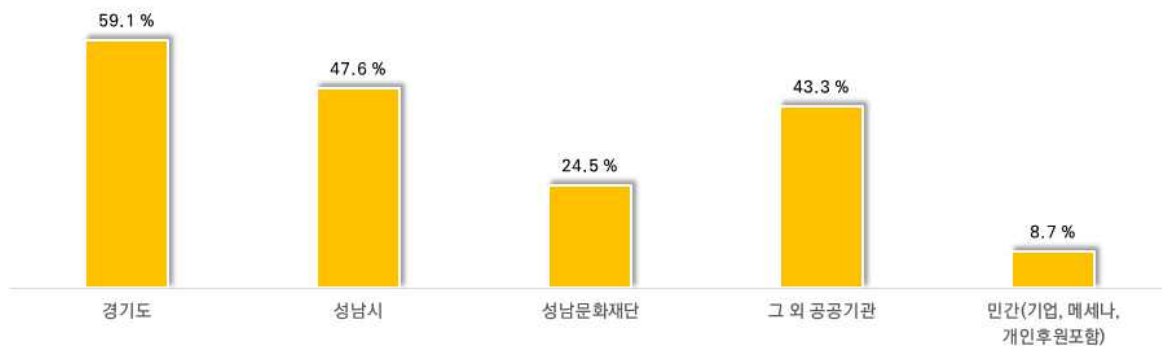
(2) 코로나 이후 공공 및 민간 지원 수혜 받은 기관

가. 전체분석

○ 코로나로 인한 공공 또는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N=208), 어느 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는지를 질문한 결과, 경기도가 가장 많았으며(59.1%), 그 다음이 성남시 47.6%, 기타 공공기관 43.3%, 성남문화재단 24.5% 등의 순이었음

○ 반면, 민간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은 8.7%에 그치고 있음

(N=208)



〈그림 2-45〉 코로나 피해 지원기관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코로나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공공/민간단체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 예술인들의 경우 경기도에서 받았다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프로젝트 단위로 협업을 하는 예술인들은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은 비율이 상대적으로 많음
- 수혜 기관과 관련해서는 예술인 성별에 따른 두드러진 차이는 발견할 수 없었음

〈표 2-48〉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피해 지원기관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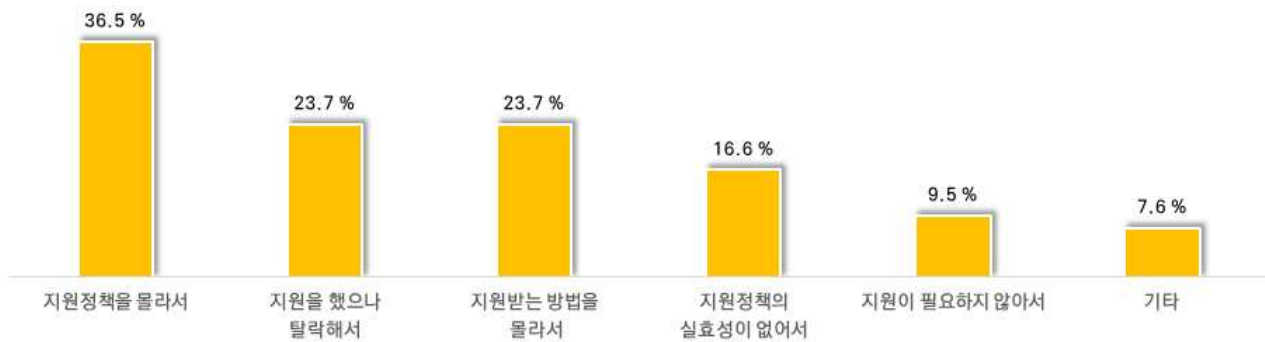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그 외 공공기관	민간 (기업, 메세나, 개인후원포함)
주요 활동 직업	전체	(208)	59.1	47.6	24.5	43.3	8.7
	창작예술가	(72)	58.3	40.3	23.6	50.0	6.9
	실연예술가	(62)	53.2	54.8	24.2	41.9	8.1
	예술기획/교육자	(74)	64.9	48.6	25.7	37.8	10.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81)	61.7	46.9	23.5	45.7	7.4
	팀/단체 공동작업	(83)	54.2	49.4	25.3	44.6	10.8
	프로젝트 단위 협업	(22)	54.5	63.6	27.3	22.7	4.5
	회사 소속 활동	(12)	83.3	33.3	16.7	50.0	0.0
	기타	(10)	60.0	20.0	30.0	50.0	20.0
성별	여성	(117)	56.4	49.6	25.6	43.6	9.4
	남성	(91)	62.6	45.1	23.1	42.9	7.7
연령별	20대 이하	(22)	63.6	63.6	27.3	45.5	9.1
	30대	(53)	64.2	37.7	24.5	54.7	5.7
	40대	(72)	54.2	50.0	25.0	47.2	13.9
	50대	(43)	69.8	41.9	18.6	25.6	7.0
	60대 이상	(18)	33.3	61.1	33.3	33.3	0.0
활동분야	문학(출판)	(4)	25.0	25.0	0.0	75.0	0.0
	사진	(6)	50.0	50.0	16.7	50.0	16.7
	미술	(56)	57.1	42.9	32.1	37.5	5.4
	국악	(27)	70.4	66.7	29.6	25.9	11.1
	무용	(23)	52.2	47.8	13.0	47.8	13.0
	연극	(16)	75.0	31.3	25.0	75.0	6.3
	음악	(43)	62.8	51.2	25.6	39.5	11.6
	영화	(10)	70.0	30.0	20.0	70.0	0.0
	연예(방송, 공연)	(6)	66.7	66.7	16.7	33.3	0.0
	기타(다원예술 등)	(17)	35.3	47.1	17.6	41.2	11.8

(3) 지원 미수혜 이유

가. 전체분석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외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예술인(N=211)들을 대상으로 그 이유를 질문한 결과, ‘지원정책을 몰라서’가 3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각 23.7%),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16.6%),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9.5%) 등의 순으로 나타남

(N=211)



〈그림 2-46〉 지원 미수혜 이유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코로나 관련 지원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이유와 관련하여 ‘지원정책을 몰라서’라는 응답은 연령별로는 20대 이하(47.6%) 및 60세 이상(47.1%),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예술인(44.6%)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지원 신청을 했으나 탈락해서’라는 응답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예술기획/교육 관련 집단(30.1%), 활동방식별로는 프로젝트 단위 활동 예술인(39.1%) 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비수혜 이유와 관련하여 남성 예술인들은 ‘지원정책을 몰라서’를, 여성 예술인들은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를 상대적으로 많이 지적하고 있음

〈표 2-49〉 응답자특성별 지원 미수혜 이유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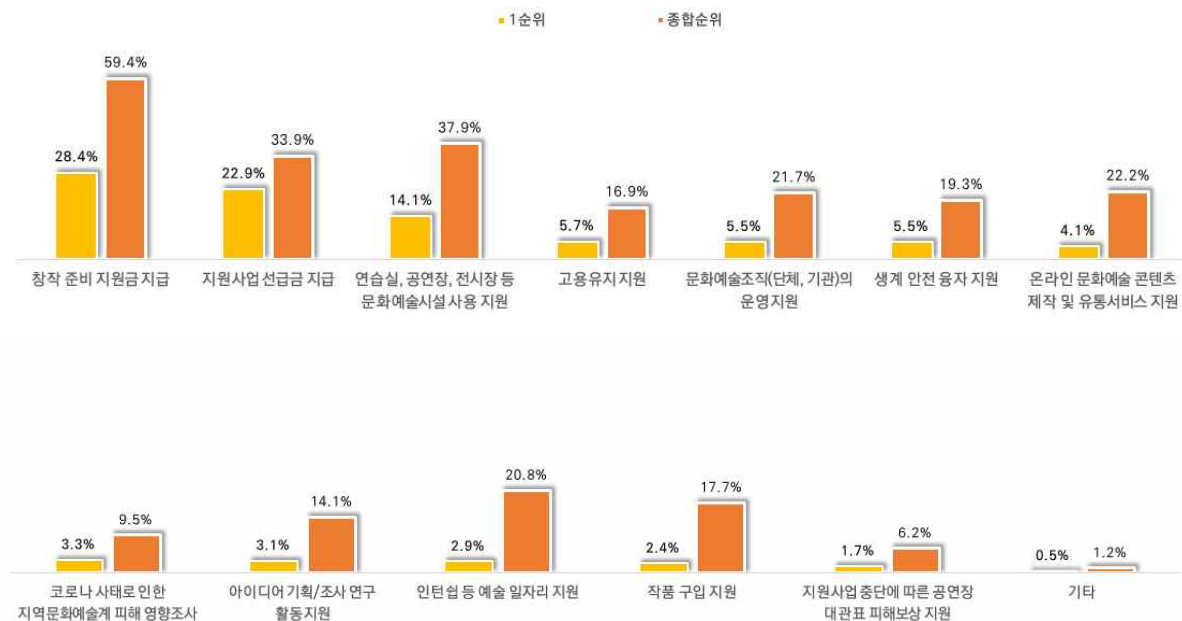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지원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전체		(211)	36.5	23.7	23.7	16.6	9.5	7.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69)	39.1	18.8	20.3	21.7	5.8	11.6
	실연예술가	(59)	30.5	20.3	28.8	8.5	20.3	8.5
	예술기획/교육자	(83)	38.6	30.1	22.9	18.1	4.8	3.6
	개인 단독 활동	(92)	44.6	19.6	21.7	20.7	4.3	8.7
예술활동 방식	팀/단체 공동작업	(70)	34.3	25.7	24.3	8.6	10.0	7.1
	프로젝트 단위 협업	(23)	17.4	39.1	26.1	34.8	4.3	13.0
	회사 소속 활동	(22)	22.7	22.7	22.7	9.1	36.4	0.0
	기타	(4)	75.0	0.0	50.0	0.0	0.0	0.0
성별	여성	(108)	42.6	18.5	25.9	16.7	9.3	6.5
	남성	(103)	30.1	29.1	21.4	16.5	9.7	8.7
연령별	20대 이하	(21)	47.6	23.8	23.8	19.0	4.8	14.3
	30대	(50)	26.0	30.0	24.0	22.0	4.0	6.0
	40대	(80)	37.5	22.5	25.0	16.3	8.8	8.8
	50대	(43)	37.2	23.3	20.9	7.0	23.3	4.7
	60대 이상	(17)	47.1	11.8	23.5	23.5	0.0	5.9
활동분야	문학(출판)	(18)	33.3	11.1	33.3	22.2	5.6	11.1
	사진	(5)	40.0	40.0	0.0	0.0	20.0	0.0
	미술	(50)	38.0	28.0	16.0	24.0	2.0	4.0
	국악	(20)	35.0	30.0	15.0	10.0	25.0	0.0
	무용	(14)	35.7	21.4	35.7	7.1	7.1	7.1
	연극	(20)	40.0	30.0	20.0	15.0	5.0	10.0
	음악	(57)	33.3	21.1	31.6	12.3	14.0	5.3
	영화	(9)	11.1	11.1	22.2	33.3	0.0	33.3
	만화	(2)	50.0	0.0	0.0	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4)	75.0	25.0	25.0	0.0	0.0	25.0
	기타(다원예술 등)	(12)	50.0	25.0	25.0	25.0	8.3	16.7

(4)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효과적인 정책사업

가. 전체분석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도입 희망 정책 사업을 질문한 결과,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 59.4%,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33.9% 등 직접적인 비용 지원에 대한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37.9%, ‘문화예술 조직 운영 지원’ 21.7%,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20.8% 등의 순임

(N=419)



〈그림 2-47〉 코로나 위기 극복 지원사업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 방안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82.3%),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예술인(69.9%), 활동분야별로는 미술(82.1%), 문학(81.8%), 영화(73.7%) 관련 예술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음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코로나 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 방안으로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50〉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사업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지원사업 선금금 지급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조직 (단체,기관)의 운영 지원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전체		(419)	59.4	37.9	33.9	22.2	21.7	20.8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82.3	28.4	33.3	22.0	9.9	19.9
	실연예술가	(121)	41.3	50.4	33.9	20.7	32.2	24.8
	예술기획/교육자	(157)	52.9	36.9	34.4	23.6	24.2	18.5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69.9	36.4	31.2	19.1	12.1	22.5
	팀/단체 공동작업	(153)	49.0	41.8	32.0	19.0	32.7	19.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55.6	26.7	33.3	35.6	20.0	26.7
	회사 소속 활동	(34)	58.8	55.9	52.9	26.5	14.7	11.8
	기타	(14)	57.1	7.1	42.9	42.9	42.9	21.4
성별	여성	(225)	56.9	41.3	28.4	21.3	20.4	27.6
	남성	(194)	62.4	34.0	40.2	23.2	23.2	12.9
연령별	20대 이하	(43)	55.8	32.6	37.2	27.9	11.6	48.8
	30대	(103)	72.8	33.0	39.8	18.4	15.5	19.4
	40대	(152)	53.3	42.1	34.9	24.3	21.7	13.8
	50대	(86)	60.5	31.4	26.7	24.4	30.2	22.1
	60대 이상	(35)	48.6	57.1	25.7	11.4	31.4	17.1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81.8	22.7	54.5	9.1	4.5	40.9
	사진	(11)	63.6	18.2	27.3	18.2	18.2	27.3
	미술	(106)	82.1	25.5	28.3	20.8	11.3	22.6
	국악	(47)	48.9	51.1	36.2	23.4	23.4	19.1
	무용	(37)	43.2	54.1	29.7	16.2	21.6	29.7
	연극	(36)	61.1	27.8	36.1	30.6	33.3	25.0
	음악	(100)	44.0	54.0	34.0	20.0	32.0	12.0
	영화	(19)	73.7	26.3	36.8	42.1	0.0	15.8
	만화	(2)	50.0	0.0	50.0	10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60.0	40.0	10.0	5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1.4	20.7	34.5	27.6	27.6	24.1

〈표 2-50〉 응답자특성별 코로나 위기 극복 정책사업

(단위: %, 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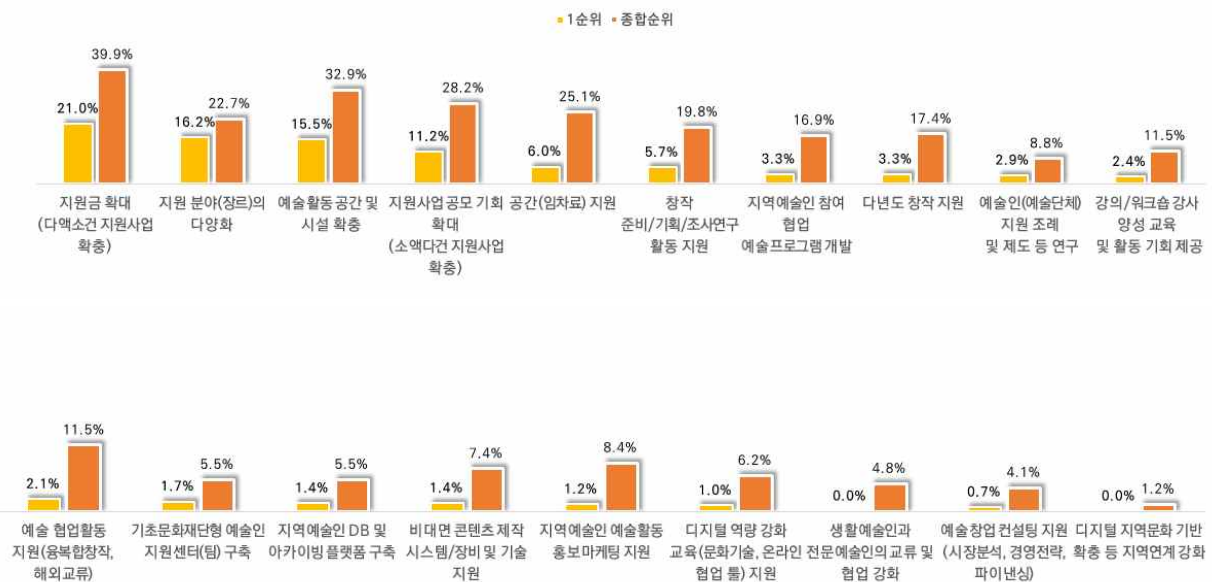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생계 안전 유자 지원	작품 구입 지원	고용유지 지원	아이디어 기획/ 조사연구 활동지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문화에 술게 피해 영향조사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기타
전체		(419)	19.3	17.7	16.9	14.1	9.5	6.2	1.2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5.6	39.7	9.9	12.1	4.3	6.4	0.7
	실연예술가	(121)	22.3	4.1	23.1	7.4	12.4	6.6	1.7
	예술기획/교육자	(157)	20.4	8.3	18.5	21.0	12.1	5.7	1.3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7.3	35.3	14.5	10.4	8.1	4.6	1.7
	팀/단체 공동작업	(153)	24.2	4.6	17.6	16.3	13.1	7.2	0.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7.8	8.9	20.0	26.7	6.7	6.7	0.0
	회사 소속 활동	(34)	8.8	2.9	26.5	2.9	5.9	8.8	0.0
	기타	(14)	21.4	7.1	7.1	21.4	7.1	7.1	7.1
성별	여성	(225)	16.4	17.8	19.6	16.4	10.2	4.0	1.3
	남성	(194)	22.7	17.5	13.9	11.3	8.8	8.8	1.0
연령별	20대 이하	(43)	16.3	14.0	16.3	11.6	14.0	0.0	0.0
	30대	(103)	21.4	18.4	11.7	13.6	11.7	11.7	0.0
	40대	(152)	19.7	16.4	17.8	17.8	8.6	5.9	2.6
	50대	(86)	20.9	17.4	22.1	11.6	8.1	4.7	1.2
	60대 이상	(35)	11.4	25.7	17.1	8.6	5.7	2.9	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2.7	18.2	9.1	13.6	0.0	4.5	0.0
	사진	(11)	18.2	63.6	0.0	9.1	0.0	0.0	0.0
	미술	(106)	10.4	49.1	9.4	13.2	7.5	4.7	0.9
	국악	(47)	14.9	0.0	25.5	6.4	12.8	10.6	2.1
	무용	(37)	18.9	5.4	21.6	13.5	10.8	5.4	0.0
	연극	(36)	27.8	0.0	16.7	16.7	16.7	0.0	0.0
	음악	(100)	23.0	4.0	20.0	14.0	11.0	8.0	2.0
	영화	(19)	36.8	0.0	10.5	31.6	15.8	0.0	0.0
	만화	(2)	50.0	0.0	0.0	0.0	5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20.0	30.0	0.0	0.0	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10.3	27.6	24.1	3.4	17.2	0.0

4)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 정책사업

가. 전체분석

- 지역예술인의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의 역할 강화와 관련해서는(중복응답 기준), ‘지원금 확대(다액 소건 지원사업 확충)’ 39.9%,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32.9%, ‘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소액 다건 지원사업 확충)’ 28.2%, ‘공간(임차료) 지원’ 25.1%, ‘지원 분야(장르)의 다양화’ 22.7% 등의 정책이 시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음

(N=419)



〈그림 2-48〉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 정책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서 강화해야 할 정책사업을 응답자특성별로 분석한 결과, ‘지원금 확대’는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47.9%), 활동방식별로는 회사 소속(47.1%) 예술가들을 중심으로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으며,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은 주요 활동 직업에 따라서는 창작예술가(41.1%), 활동방식별로는 개인 단독 예술인(37.0%)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남

- 예술인 성별에 따른 성남문화재단의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 관련 역할은 두드러진 차이는 찾아볼 수 없었음

〈표 2-51〉 응답자특성별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사업(종합순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지원금 확대 (다액소건 지원사업 확충)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소액다 건 지원사업 확충)	공간(임차료) 지원	지원 분야(장르)의 다양화	창작 준비/기획/ 조사연구 활동 지원	다년도 창작 지원
전체		(419)	39.9	32.9	28.2	25.1	22.7	19.8	17.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36.9	41.1	27.7	27.0	23.4	27.7	25.5
	실연예술가	(121)	47.9	30.6	27.3	24.8	19.0	16.5	10.7
	예술기획/교육자	(157)	36.3	27.4	29.3	23.6	24.8	15.3	15.3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35.3	37.0	25.4	26.6	24.9	20.8	18.5
	팀/단체 공동작업	(153)	43.1	29.4	29.4	24.2	19.0	17.6	19.0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37.8	33.3	37.8	24.4	24.4	22.2	13.3
	회사 소속 활동	(34)	47.1	32.4	20.6	23.5	23.5	20.6	11.8
	기타	(14)	50.0	21.4	35.7	21.4	28.6	21.4	14.3
성별	여성	(225)	39.6	36.4	30.7	23.1	21.8	21.8	15.6
	남성	(194)	40.2	28.9	25.3	27.3	23.7	17.5	19.6
연령별	20대 이하	(43)	48.8	41.9	46.5	25.6	23.3	14.0	7.0
	30대	(103)	47.6	30.1	27.2	27.2	21.4	28.2	22.3
	40대	(152)	30.3	36.8	25.7	27.0	19.7	19.7	17.8
	50대	(86)	45.3	27.9	26.7	24.4	26.7	15.1	16.3
	60대 이상	(35)	34.3	25.7	22.9	11.4	28.6	14.3	17.1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36.4	40.9	27.3	4.5	31.8	40.9	36.4
	사진	(11)	0.0	36.4	9.1	9.1	36.4	27.3	27.3
	미술	(106)	36.8	44.3	32.1	30.2	17.0	22.6	25.5
	국악	(47)	53.2	36.2	27.7	21.3	25.5	10.6	8.5
	무용	(37)	35.1	32.4	37.8	21.6	29.7	16.2	8.1
	연극	(36)	44.4	13.9	33.3	22.2	16.7	22.2	25.0
	음악	(100)	44.0	27.0	23.0	28.0	17.0	13.0	9.0
	영화	(19)	47.4	31.6	26.3	26.3	42.1	36.8	26.3
	만화	(2)	50.0	50.0	50.0	0.0	10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20.0	30.0	20.0	30.0	1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27.6	20.7	34.5	24.1	20.7	17.2

〈표 2-51〉 응답자특성별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사업(종합순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지역예술인 참여 협업 예술프로그 램 개발	인력 운영비 지원	예술 협업활동 지원(융복합 창작, 해외교류)	강의/워크숍 강사 양성 교육 및 활동 기회 제공	예술인 (예술단체) 지원 조례 및 제도 등 연구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홍보마케팅 지원	비대면 콘텐츠 제작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
전체		(419)	16.9	12.6	11.5	11.5	8.8	8.4	7.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12.8	6.4	12.8	8.5	3.5	7.1	5.0
	실연예술가	(121)	21.5	17.4	10.7	11.6	13.2	11.6	7.4
	예술기획/교육자	(157)	17.2	14.6	10.8	14.0	10.2	7.0	9.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16.8	5.8	11.0	15.6	6.4	11.0	6.9
	팀/단체 공동작업	(153)	18.3	20.9	10.5	7.8	10.5	6.5	6.5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15.6	6.7	13.3	11.1	13.3	6.7	6.7
	회사 소속 활동	(34)	8.8	20.6	14.7	8.8	8.8	5.9	17.6
	기타	(14)	28.6	7.1	14.3	7.1	7.1	7.1	0.0
성별	여성	(225)	17.8	10.2	16.0	11.1	8.9	4.4	7.1
	남성	(194)	16.0	15.5	6.2	11.9	8.8	12.9	7.7
연령별	20대 이하	(43)	23.3	16.3	4.7	4.7	7.0	4.7	7.0
	30대	(103)	8.7	14.6	14.6	9.7	9.7	8.7	3.9
	40대	(152)	20.4	7.9	11.2	11.8	9.9	8.6	9.9
	50대	(86)	14.0	16.3	14.0	12.8	7.0	7.0	8.1
	60대 이상	(35)	25.7	14.3	5.7	20.0	8.6	14.3	5.7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22.7	4.5	18.2	9.1	0.0	9.1	0.0
	사진	(11)	9.1	0.0	9.1	18.2	0.0	18.2	9.1
	미술	(106)	11.3	3.8	13.2	7.5	8.5	7.5	5.7
	국악	(47)	23.4	14.9	10.6	12.8	12.8	6.4	6.4
	무용	(37)	21.6	13.5	24.3	18.9	2.7	2.7	8.1
	연극	(36)	22.2	36.1	5.6	11.1	0.0	5.6	8.3
	음악	(100)	17.0	19.0	7.0	14.0	17.0	12.0	9.0
	영화	(19)	15.8	0.0	5.3	15.8	5.3	0.0	15.8
	만화	(2)	0.0	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0.0	10.0	0.0	20.0	3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0.3	13.8	13.8	6.9	3.4	6.9	10.3

〈표 2-51〉 응답자특성별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에 필요한 정책사업(종합순위)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 (문화기술, 온라인 협업 툴) 지원	지역예술인 DB 및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기초문화재 단형 예술인 지원센터(팀) 구축	생활 예술인과 전문예술인 의 교류 및 협업 강화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시장분석, 경영전략, 파이낸싱)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확충 등 지역연계 강화	무응답
전체		(419)	6.2	5.5	5.5	4.8	4.1	1.2	0.2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4.3	7.1	4.3	5.0	4.3	1.4	0.0
	실연예술가	(121)	4.1	4.1	3.3	7.4	1.7	0.0	0.8
	예술기획/교육자	(157)	9.6	5.1	8.3	2.5	5.7	1.9	0.0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6.9	5.2	5.2	6.4	5.2	0.0	0.0
	팀/단체 공동작업	(153)	6.5	2.0	7.8	4.6	2.6	1.3	0.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0.0	17.8	4.4	2.2	2.2	2.2	0.0
	회사 소속 활동	(34)	8.8	5.9	0.0	2.9	2.9	2.9	0.0
	기타	(14)	7.1	7.1	0.0	0.0	14.3	7.1	0.0
성별	여성	(225)	6.7	7.1	5.8	3.6	4.0	0.9	0.0
	남성	(194)	5.7	3.6	5.2	6.2	4.1	1.5	0.5
연령별	20대 이하	(43)	4.7	4.7	0.0	7.0	9.3	0.0	0.0
	30대	(103)	1.9	3.9	3.9	2.9	5.8	0.0	0.0
	40대	(152)	9.2	5.9	7.2	5.9	2.6	1.3	0.7
	50대	(86)	7.0	9.3	5.8	1.2	3.5	2.3	0.0
	60대 이상	(35)	5.7	0.0	8.6	11.4	0.0	2.9	0.0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0.0	9.1	0.0	4.5	0.0	0.0	0.0
	사진	(11)	18.2	9.1	9.1	18.2	0.0	0.0	0.0
	미술	(106)	2.8	7.5	7.5	3.8	3.8	0.9	0.0
	국악	(47)	2.1	2.1	6.4	4.3	4.3	0.0	0.0
	무용	(37)	5.4	5.4	0.0	0.0	2.7	0.0	0.0
	연극	(36)	8.3	2.8	11.1	5.6	0.0	0.0	0.0
	음악	(100)	9.0	5.0	5.0	8.0	3.0	3.0	1.0
	영화	(19)	0.0	5.3	0.0	0.0	0.0	0.0	0.0
	만화	(2)	0.0	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10.0	10.0	10.0	2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3.4	3.4	0.0	17.2	3.4	0.0

5) 성남시 문화정책 방향

(1) ICT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가. 전체분석

- 성남시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82.6%)의 예술인들이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N=419)



〈그림 2-49〉 ICT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을 수립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동의하는 비율이 크게 높은 양상을 보임

- ICT 지역특성을 고려한 문화정책 수립과 관련해서도 예술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52〉 응답자특성별 ICT 지역특성 활용 문화정책 수립 필요성 인식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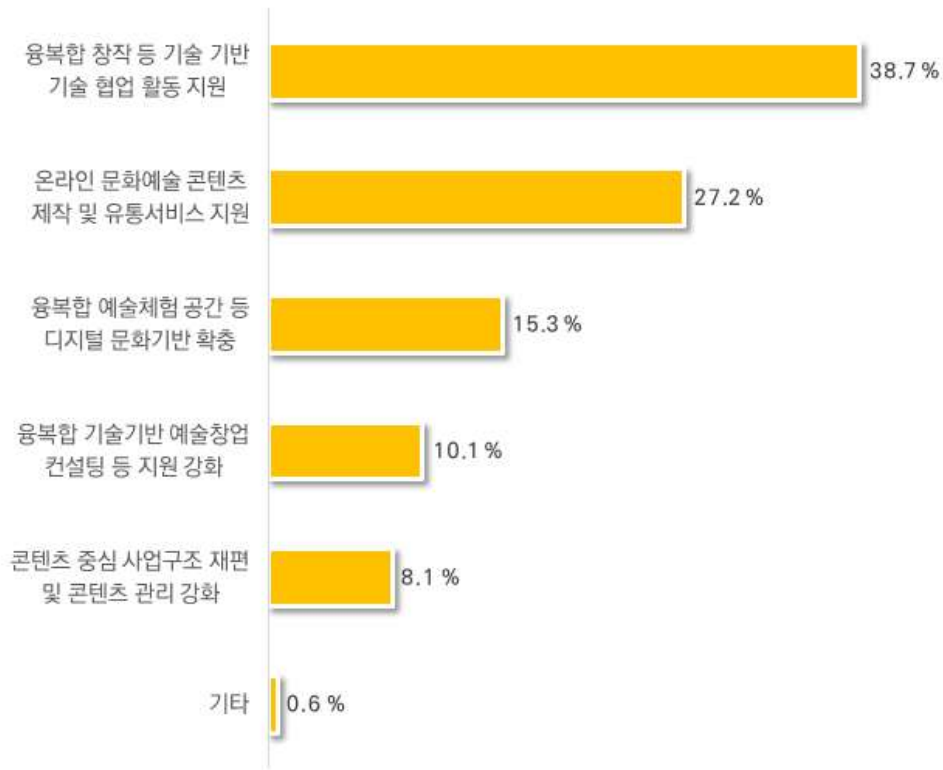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체		(419)	82.6	17.4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80.1	19.9
	실연예술가	(121)	84.3	15.7
	예술기획/교육자	(157)	83.4	16.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82.1	17.9
	팀/단체 공동작업	(153)	80.4	19.6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86.7	13.3
	회사 소속 활동	(34)	91.2	8.8
	기타	(14)	78.6	21.4
성별	여성	(225)	85.8	14.2
	남성	(194)	78.9	21.1
연령별	20대 이하	(43)	76.7	23.3
	30대	(103)	77.7	22.3
	40대	(152)	84.2	15.8
	50대	(86)	84.9	15.1
	60대 이상	(35)	91.4	8.6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95.5	4.5
	사진	(11)	81.8	18.2
	미술	(106)	76.4	23.6
	국악	(47)	80.9	19.1
	무용	(37)	89.2	10.8
	연극	(36)	75.0	25.0
	음악	(100)	85.0	15.0
	영화	(19)	84.2	15.8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9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86.2	13.8

(2) 성남시 문화정책 고려 순위

가. 전체분석

- 성남시만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수립에 공감하는 예술인들(N=346)에게 정책 고려 순위를 질문한 결과, 반드시 필요한 정책으로는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활동 지원’이 3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27.2%), ‘융복합 예술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15.3%),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등 지원강화’(10.1%), ‘콘텐츠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및 콘텐츠 관리 강화’(8.1%) 등의 순으로 나타남

(N=346)



〈그림 2-50〉 성남시 문화정책 우선 순위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성남시 문화정책 우선 순위를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기술 기반 예술 협업 활동 지원’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창작예술가(54.0%), 활동방식별로는 프로젝트 단위 예술인(48.7%) 계층에서, 활동분야별로는 미술(48.1%), 무용(45.5%) 관련 예술인에게서 상대적으로 많이 요구하고 있었으며,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 서비스 지원’은 활동방식별로 회사 소속 예술인(38.7%)들의 선호도가 높음

- 예술인 성별 문화정책 역시 이렇다 할 차이는 발견되지 않음

〈표 2-53〉 응답자특성별 성남시 문화정책 우선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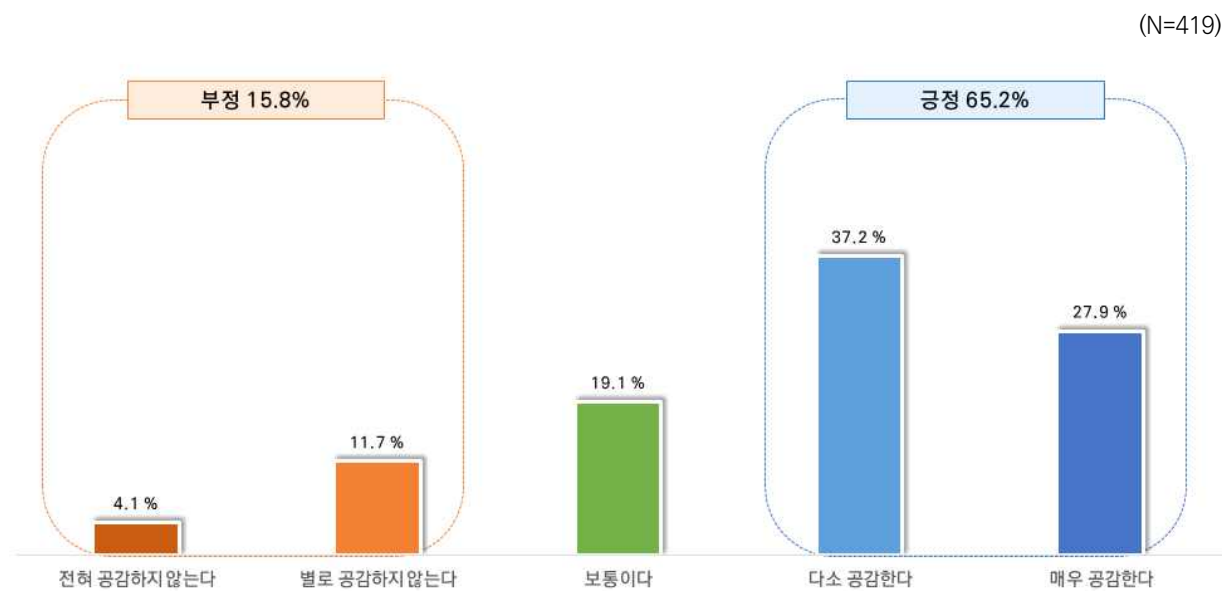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활동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융복합 예술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콘텐츠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및 콘텐츠 관리 강화	기타
전체		(346)	38.7	27.2	15.3	10.1	8.1	0.6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13)	54.0	22.1	9.7	8.8	4.4	0.9
	실연예술가	(102)	34.3	28.4	17.6	9.8	9.8	0.0
	예술기획/교육자	(131)	29.0	30.5	18.3	11.5	9.9	0.8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42)	43.0	26.8	12.7	9.2	8.5	0.0
	팀/단체 공동작업	(123)	35.8	26.0	21.1	9.8	6.5	0.8
	프로젝트 단위 협업	(39)	48.7	30.8	5.1	10.3	5.1	0.0
	회사 소속 활동	(31)	16.1	38.7	19.4	12.9	12.9	0.0
기타		(11)	45.5	0.0	9.1	18.2	18.2	9.1
성별	여성	(193)	42.0	24.4	14.0	10.4	8.8	0.5
	남성	(153)	34.6	30.7	17.0	9.8	7.2	0.7
연령별	20대 이하	(33)	36.4	30.3	24.2	0.0	9.1	0.0
	30대	(80)	43.8	23.8	12.5	12.5	6.3	1.3
	40대	(128)	35.2	28.9	14.1	11.7	10.2	0.0
	50대	(73)	41.1	21.9	16.4	11.0	9.6	0.0
	60대 이상	(32)	37.5	37.5	15.6	6.3	0.0	3.1
활동분야	문학(출판)	(21)	38.1	33.3	0.0	9.5	19.0	0.0
	사진	(9)	66.7	22.2	0.0	11.1	0.0	0.0
	미술	(81)	48.1	22.2	12.3	12.3	2.5	2.5
	국악	(38)	31.6	34.2	26.3	5.3	2.6	0.0
	무용	(33)	45.5	12.1	15.2	15.2	12.1	0.0
	연극	(27)	37.0	37.0	14.8	0.0	11.1	0.0
	음악	(85)	32.9	29.4	17.6	11.8	8.2	0.0
	영화	(16)	25.0	37.5	6.3	6.3	25.0	0.0
	만화	(2)	50.0	0.0	5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9)	11.1	44.4	11.1	22.2	11.1	0.0
	기타(다원예술 등)	(25)	40.0	20.0	24.0	8.0	8.0	0.0

6)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가. 전체분석

-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매우+다소) 공감한다’ 65.2%, ‘(전혀+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15.8%로 예술 분야 또한 디지털화 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3명 중 2명 정도의 성남시 예술인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2-51〉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모든 계층에서 예술의 디지털화에 대해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 하고 있음. 특히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활동방식별로 프로젝트 단위 활동의 예술인들이나 회사 소속 예술인들, 그리고 활동분야별로는 문학 관련 예술인들의 필요성 인식이 다른 계층에 비해 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예술인 성별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도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음

〈표 2-54〉 응답자특성별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성 인식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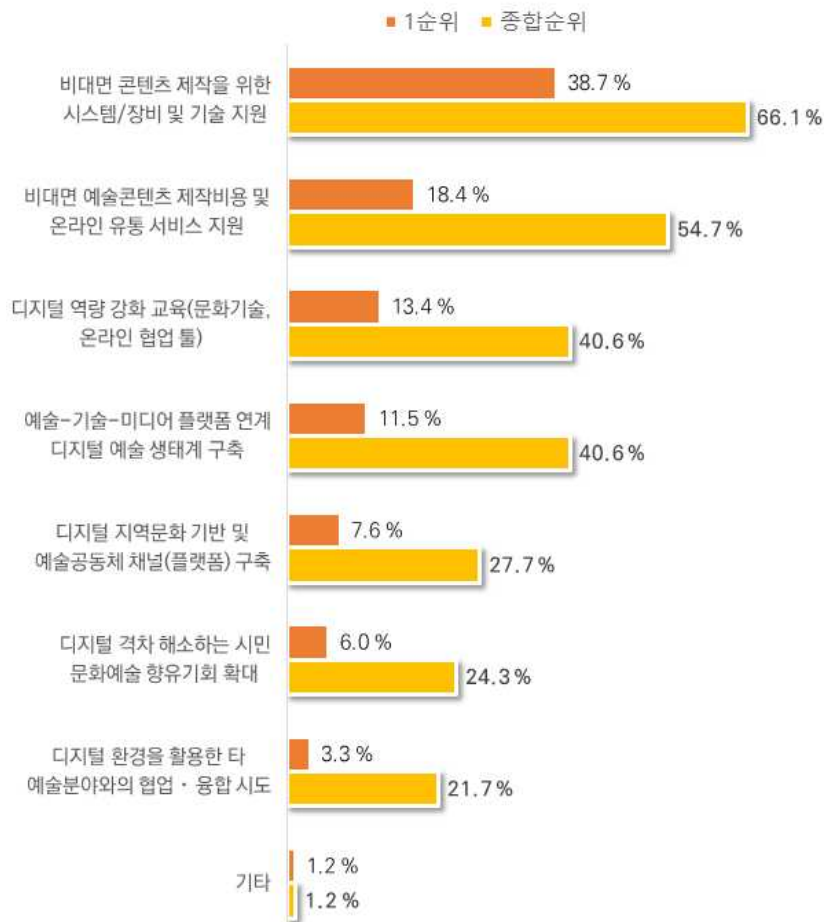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긍정	부정	평균
전체		(419)	4.1	11.7	19.1	37.2	27.9	65.2	15.8	3.73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2.8	12.1	19.1	36.9	29.1	66.0	14.9	3.77
	실연예술가	(121)	6.6	14.0	11.6	43.8	24.0	67.8	20.7	3.64
	예술기획/교육자	(157)	3.2	9.6	24.8	32.5	29.9	62.4	12.7	3.76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2	12.7	22.0	32.9	27.2	60.1	17.9	3.64
	팀/단체 공동작업	(153)	4.6	12.4	17.0	39.9	26.1	66.0	17.0	3.71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2.2	6.7	11.1	46.7	33.3	80.0	8.9	4.02
	회사 소속 활동	(34)	0.0	8.8	14.7	38.2	38.2	76.5	8.8	4.06
	기타	(14)	0.0	14.3	42.9	28.6	14.3	42.9	14.3	3.43
성별	여성	(225)	2.7	10.7	19.1	41.8	25.8	67.6	13.3	3.77
	남성	(194)	5.7	12.9	19.1	32.0	30.4	62.4	18.6	3.69
연령별	20대 이하	(43)	2.3	7.0	20.9	39.5	30.2	69.8	9.3	3.88
	30대	(103)	2.9	9.7	21.4	41.7	24.3	66.0	12.6	3.75
	40대	(152)	5.9	14.5	15.8	32.9	30.9	63.8	20.4	3.68
	50대	(86)	2.3	15.1	16.3	38.4	27.9	66.3	17.4	3.74
	60대 이상	(35)	5.7	2.9	31.4	37.1	22.9	60.0	8.6	3.6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0.0	0.0	22.7	40.9	36.4	77.3	0.0	4.14
	사진	(11)	0.0	9.1	18.2	45.5	27.3	72.7	9.1	3.91
	미술	(106)	3.8	12.3	25.5	35.8	22.6	58.5	16.0	3.61
	국악	(47)	8.5	12.8	21.3	34.0	23.4	57.4	21.3	3.51
	무용	(37)	5.4	18.9	16.2	35.1	24.3	59.5	24.3	3.54
	연극	(36)	5.6	11.1	8.3	44.4	30.6	75.0	16.7	3.83
	음악	(100)	4.0	13.0	17.0	36.0	30.0	66.0	17.0	3.75
	영화	(19)	0.0	5.3	26.3	36.8	31.6	68.4	5.3	3.95
	만화	(2)	0.0	0.0	0.0	50.0	50.0	100.0	0.0	4.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20.0	0.0	40.0	30.0	70.0	30.0	3.60
	기타(다원예술 등)	(29)	0.0	6.9	17.2	37.9	37.9	75.9	6.9	4.07

7)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주요 요소 우선순위

가. 전체분석

- 활동하고 있는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사항과 관련해서는(중복응답 기준)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6.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비대면 예술콘텐츠 제작비용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 지원’ 54.7%,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예술-기술-미디어 플랫폼 연계 디지털 예술 생태계 구축’ 각 40.6%, ‘디지털 지역 문화 기반 및 예술 공동체 채널(플랫폼) 구축’ 27.7%,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24.3% 등의 순으로 조사됨

(N=419)



〈그림 2-52〉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 요소

나. 응답자특성별 분석

-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기본 방향을 응답자특성별로 살펴본 결과, ‘비대면 콘텐츠 제작 지원’은 주요 활동 직업별로는 실연예술가(72.7%), 활동방식별로는 다른 예술인들과의 공동작업 예술인(75.2%), 활동분야별로는 무용(78.4%), 음악(76.0%), 국악(72.3%) 관련 예술인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요구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비대면 예술콘텐츠 제작 및 유통’은 활동분야에 따라 문학(63.6%), 영화(63.2%) 관련 예술인들에게서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기를 희망하는 정책의 우선 순위로 지적하고 있음
- 디지털 전환 관련 정책 우선 순위에 대해서도 예술인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음

〈표 2-55〉 응답자특성별 예술분야 디지털 전환 필요 요소

(단위: %, 중복응답)

구분	사례수	비대면 콘텐츠 기술 지원	비대면 콘텐츠 제작/유통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플랫폼 연계 디지털 생태계	디지털 예술공동체 채널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	타 예술분야와의 협업	기타
전체	(419)	66.1	54.7	40.6	40.6	27.7	24.3	21.7	1.2
주요 활동 직업	창작예술가	(141)	59.6	60.3	36.2	49.6	24.1	20.6	0.7
	실연예술가	(121)	72.7	58.7	33.9	35.5	30.6	23.1	1.7
	예술기획/교육자	(157)	66.9	46.5	49.7	36.3	28.7	21.7	1.3
	예술활동 방식								
예술활동 방식	개인 단독 활동	(173)	56.1	56.1	43.9	45.7	26.0	23.7	1.7
	팀/단체 공동작업	(153)	75.2	52.9	37.3	31.4	34.6	20.3	0.7
	프로젝트 단위 협업	(45)	57.8	46.7	48.9	48.9	28.9	35.6	0.0
	회사 소속 활동	(34)	79.4	58.8	29.4	47.1	8.8	32.4	5.9
성별	기타	(14)	85.7	71.4	35.7	35.7	14.3	21.4	21.4
	여성	(225)	64.9	57.3	43.6	40.4	25.8	24.0	20.9
	남성	(194)	67.5	51.5	37.1	40.7	29.9	24.7	22.7
	연령별								
연령별	20대 이하	(43)	67.4	53.5	39.5	39.5	27.9	30.2	25.6
	30대	(103)	66.0	52.4	32.0	41.7	26.2	30.1	26.2
	40대	(152)	63.2	52.6	43.4	45.4	28.3	22.4	19.1
	50대	(86)	68.6	59.3	41.9	39.5	29.1	18.6	18.6
	60대 이상	(35)	71.4	60.0	51.4	20.0	25.7	22.9	22.9
활동분야	문학(출판)	(22)	40.9	63.6	54.5	36.4	31.8	22.7	36.4
	사진	(11)	72.7	36.4	63.6	36.4	9.1	9.1	36.4
	미술	(106)	58.5	57.5	35.8	49.1	25.5	30.2	21.7
	국악	(47)	72.3	55.3	42.6	27.7	23.4	25.5	19.1
	무용	(37)	78.4	59.5	40.5	35.1	16.2	16.2	24.3
	연극	(36)	72.2	52.8	38.9	44.4	27.8	22.2	27.8
	음악	(100)	76.0	51.0	45.0	34.0	32.0	23.0	12.0
	영화	(19)	42.1	63.2	21.1	57.9	36.8	21.1	31.6
	만화	(2)	100.0	0.0	0.0	50.0	5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70.0	30.0	40.0	40.0	1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44.8	41.4	48.3	34.5	34.5	24.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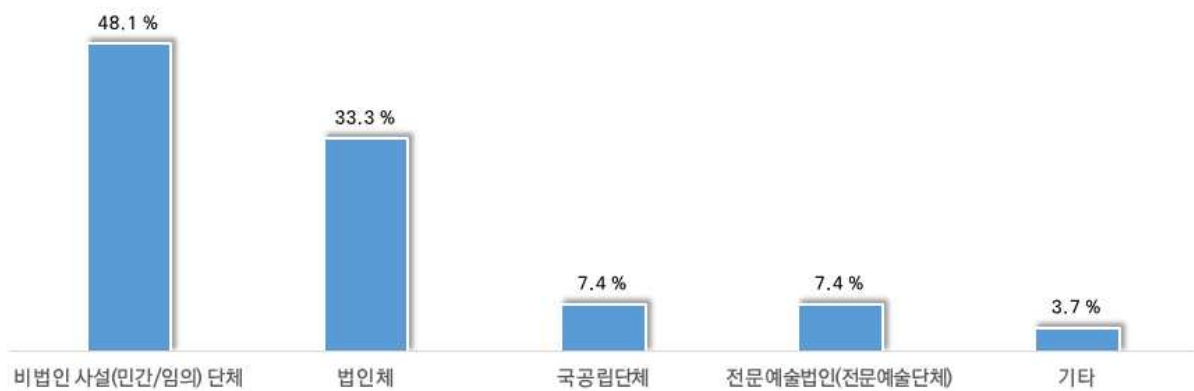
제2절 예술단체 실태조사

1. 일반 현황

1) 법적 형태

- 예술단체 법적 형태로는 ‘비법인 사설 단체’ 형태가 48.1%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법인체’(33.3%), ‘국공립단체’,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각 7.4%) 등의 순임

(N=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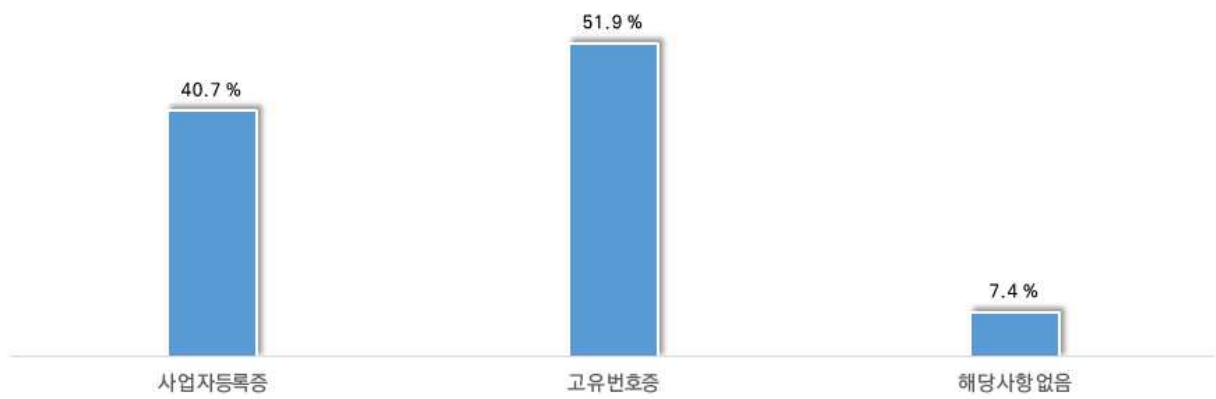


〈그림 2-53〉 예술단체 법적 형태

2)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 예술단체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과 관련해서는 ‘고유번호증’ 51.9%, ‘사업자등록증’ 40.7%로 영리법인보다는 비영리법인 형태로 등록한 비율이 많은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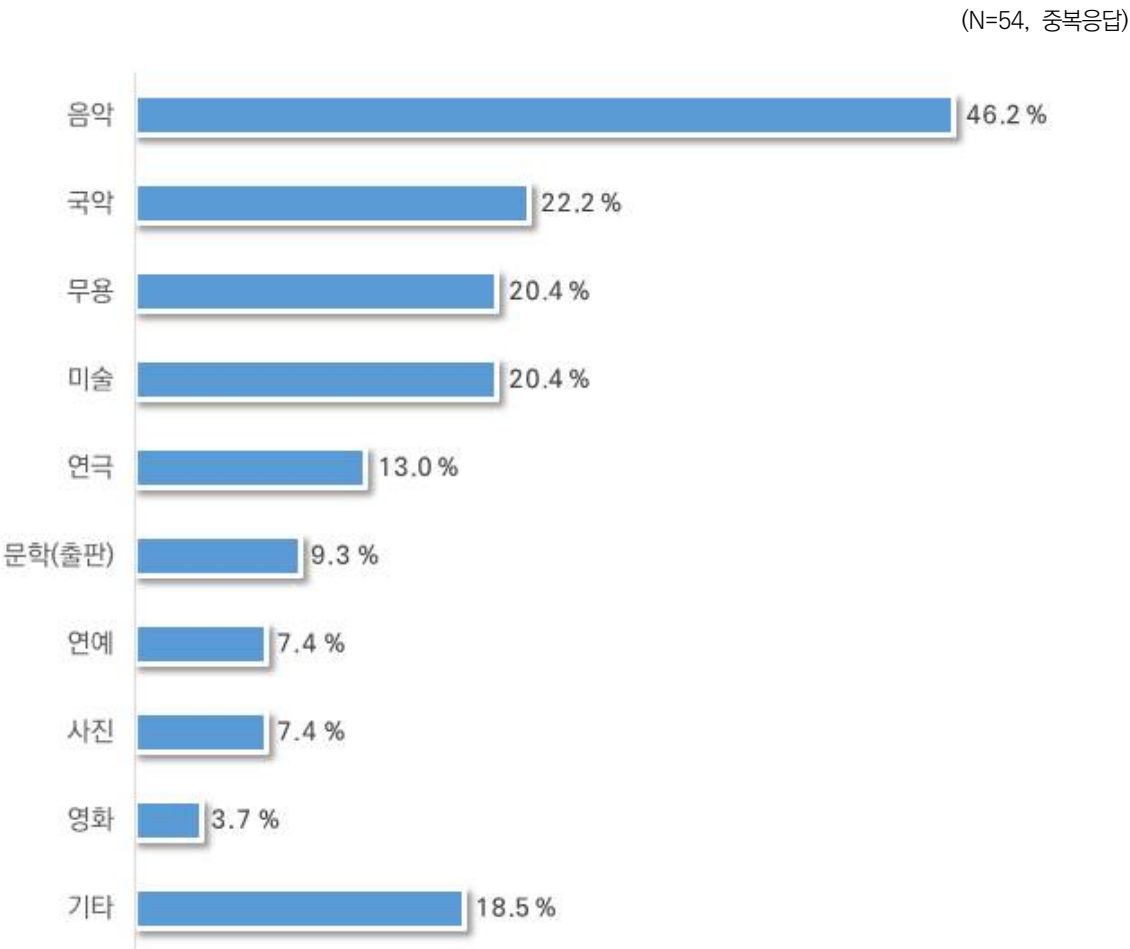
(N=54)



〈그림 2-54〉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3) 활동 분야

○ 예술단체 활동분야로는 ‘음악’(46.2%), ‘국악’(22.2%), ‘무용’, ‘미술’(각 20.4%), ‘연극’(13.0%) 등의 순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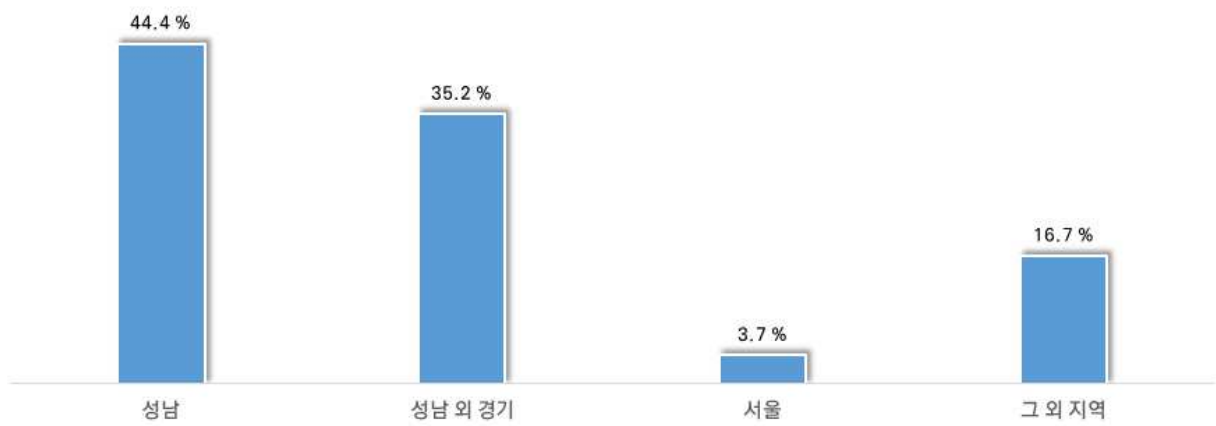


〈그림 2-55〉 성남 예술단체 활동분야

4) 활동 지역

- 예술단체 활동 지역은 성남 외 지역(55.6%)이 성남 지역(44.4%)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성남 외 활동 지역으로는 ‘성남 외 경기’ 지역에서 활동하는 비율이 35.2%로 가장 많음

(N=54)



〈그림 2-56〉 성남 예술단체 활동 지역

2. 운영 현황

1) 인력구성 현황

(1) 담당업무별 인력구성 현황

- 예술단체 인력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기획행정인력이 평균 2.4명, 기술기타인력 평균 9.0명, 전문예술인력 평균 44.9명으로 나타남
- 단체 간 규모에 따라 인력구성 현황 편차가 큰 편이므로 주의해야 함



〈그림 2-57〉 예술단체 인력구성 현황

〈표 2-56〉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인력구성 현황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총원	기획행정인력	기술기타인력	전문예술인력
전체		54	56.3	2.4	9.0	44.9
활동분야	창작	13	65.5	2.7	0.9	61.9
	실연/다원	41	53.4	2.3	11.5	39.5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5.3	0.9	0.7	3.7
	10명~50명 미만	20	19.3	2.1	1.0	16.3
	50명 이상	15	143.3	4.2	30.1	109.0
	무응답	4	106.5	3.3	0.5	102.8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51.5	2.3	1.0	48.3
	성남 외 경기	19	84.8	2.7	23.1	59.0
	서울	2	3.5	1.0	0.5	2.0
	그 외 지역	9	20.8	2.6	2.3	15.9

(2) 예술단체 회원 성별 현황

○ 예술단체 회원의 성별 분포를 알아본 결과, 남성이 평균 20.8명, 여성이 평균 33.7명으로 나타남

(N=54)



〈그림 2-58〉 예술단체 회원 성별 현황

〈표 2-57〉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회원 성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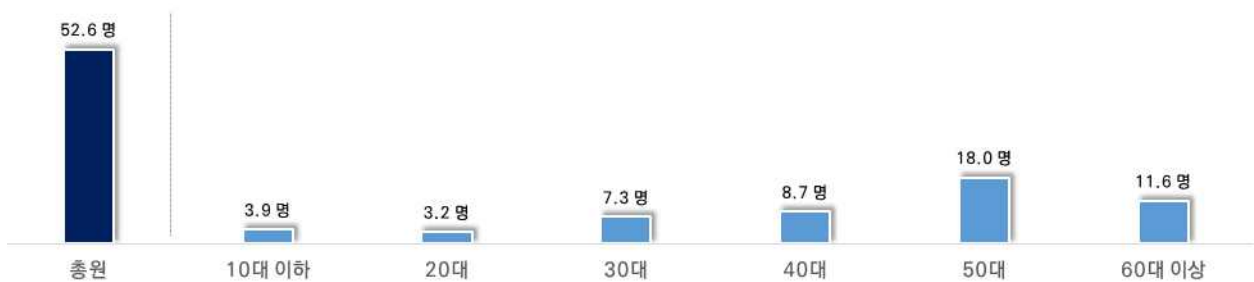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사례수	총원	남성	여성
전체		54	54.4	20.8	33.7
활동분야	창작	13	81.4	33.5	47.8
	실연/다원	41	46.8	17.2	29.7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4.5	2.3	2.2
	10명~50명 미만	20	22.6	8.1	14.7
	50명 이상	15	146.6	56.1	90.5
	무응답	4	0.0	0.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70.0	30.0	40.1
	성남 외 경기	19	58.5	16.9	41.5
	서울	2	3.5	0.5	3.0
	그 외 지역	9	19.8	9.8	10.0

(3) 예술단체 회원 연령대 현황

○ 예술단체 회원의 연령대 분포를 알아본 결과, 10대 이하가 평균 3.9명, 20대 평균 3.2명, 30대 평균 7.3명, 40대 평균 8.7명, 50대 평균 18.0명, 60대 이상 평균 11.6명으로 나타남

(N=54)



〈그림 2-59〉 예술단체 회원 연령대 현황

〈표 2-58〉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회원 연령대 현황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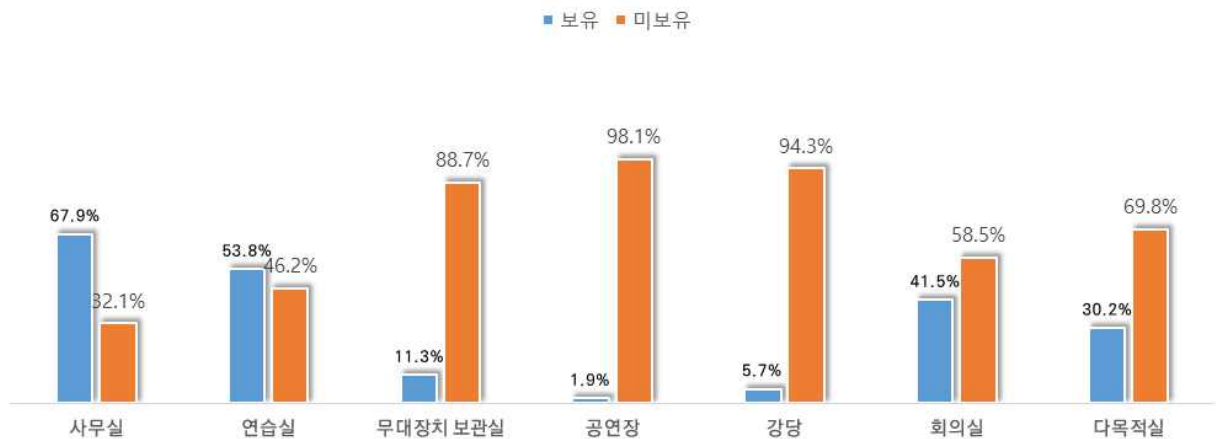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총원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전체		54	52.6	3.9	3.2	7.3	8.7	18.0	11.6
활동분야	창작	13	81.2	0.0	1.7	5.6	5.6	35.1	33.2
	실연/다원	41	44.8	4.9	3.6	7.7	9.5	13.3	5.8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4.5	0.0	0.7	1.4	1.1	1.4	0.0
	10명~50명 미만	20	22.6	3.8	0.9	3.8	5.1	5.7	3.4
	50명 이상	15	162.6	8.8	10.3	20.3	24.2	59.1	39.9
	무응답	4	0.0	0.0	0.0	0.0	0.0	0.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70.0	1.8	5.5	8.2	9.9	24.1	20.5
	성남 외 경기	19	54.1	9.5	1.3	9.4	10.4	19.7	3.9
	서울	2	3.5	0.0	1.0	2.0	0.5	0.0	0.0
	그 외 지역	9	14.1	0.0	1.0	2.0	4.1	2.4	4.6

2) 공간 보유 현황

○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을 알아본 결과, 과반수가 사무실과 연습실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무대장치 보관실, 공연장, 강당 등 규모가 큰 장소는 대부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N=54)



〈그림 2-60〉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

〈표 2-59〉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사무실		연습실		무대장치 보관실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전체		54	67.9	32.1	53.8	46.2	11.3	88.7
활동분야	창작	13	91.7	8.3	36.4	63.6	8.3	91.7
	실연/다원	41	61.0	39.0	58.5	41.5	12.2	87.8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66.7	33.3	64.3	35.7	6.7	93.3
	10명~50명 미만	20	75.0	25.0	60.0	40.0	10.0	90.0
	50명 이상	15	64.3	35.7	42.9	57.1	14.3	85.7
	무응답	4	50.0	50.0	25.0	75.0	25.0	75.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62.5	37.5	47.8	52.2	8.3	91.7
	성남 외 경기	19	72.2	27.8	50.0	50.0	5.6	94.4
	서울	2	50.0	50.0	100.0	0.0	50.0	50.0
	그 외 지역	9	77.8	22.2	66.7	33.3	22.2	77.8

〈표 2-59〉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공간 보유 현황

(단위: %)

구분		사례수	공연장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보유	미보유
전체		54	1.9	98.1	5.7	94.3	41.5	58.5	30.2	69.8
활동분야	창작	13	0.0	100.0	8.3	91.7	50.0	50.0	25.0	75.0
	실연/다원	41	2.4	97.6	4.9	95.1	39.0	61.0	31.7	68.3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6.7	93.3	6.7	93.3	53.3	46.7	26.7	73.3
	10명~50명 미만	20	0.0	100.0	5.0	95.0	35.0	65.0	40.0	60.0
	50명 이상	15	0.0	100.0	0.0	100.0	42.9	57.1	14.3	85.7
	무응답	4	0.0	100.0	25.0	75.0	25.0	75.0	50.0	5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0.0	100.0	4.2	95.8	41.7	58.3	37.5	62.5
	성남 외 경기	19	0.0	100.0	0.0	100.0	27.8	72.2	16.7	83.3
	서울	2	0.0	100.0	0.0	100.0	100.0	0.0	0.0	100.0
	그 외 지역	9	11.1	88.9	22.2	77.8	55.6	44.4	44.4	55.6

3) 재정 현황

(1) 예산조달 현황

○ 예술단체 예산조달 현황을 알아본 결과, 지원예산이 47.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자체 수익이 24.7%, 정기회비 18.1%, 기부/후원금 7.1%, 기타 2.5% 등의 순으로 나타남

(N=54)



〈그림 2-61〉 예술단체 예산 조달 현황

〈표 2-60〉 응답자특성별 예술단체 예산조달 현황(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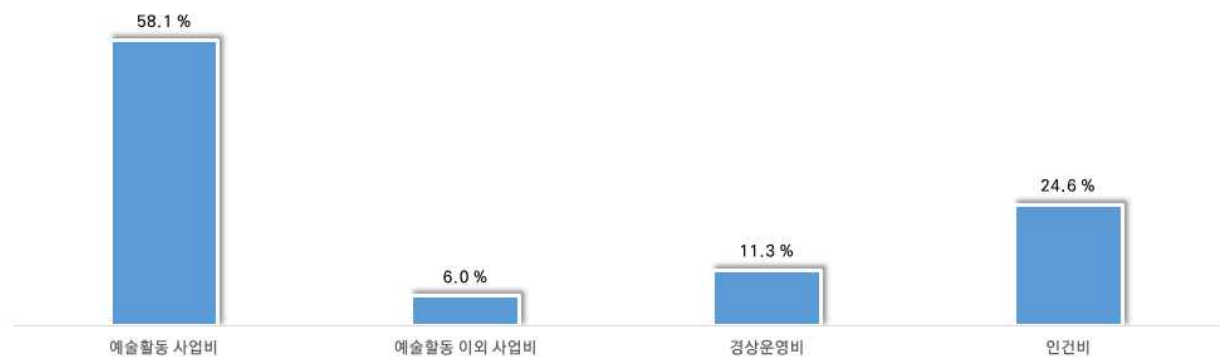
(단위: %)

구분		사례수	자체수익	정기회비	지원예산	기부/후원금	기타
전체		54	24.7	18.1	47.5	7.1	2.5
활동분야	창작	13	34.6	23.2	34.8	3.0	4.3
	실연/다원	41	21.6	16.5	51.5	8.4	2.0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55.7	1.3	36.0	3.7	3.3
	10명~50명 미만	20	15.0	21.5	50.6	12.0	1.0
	50명 이상	15	10.7	30.9	50.3	4.1	4.0
	무응답	4	10.0	16.8	64.5	7.3	1.5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12.7	21.5	56.4	7.3	2.1
	성남 외 경기	19	31.6	21.2	38.5	6.9	1.8
	서울	2	35.0	0.0	65.0	0.0	0.0
	그 외 지역	9	40.0	6.7	38.9	8.9	5.6

(2) 예술단체 예산 지출 비중

- 예술단체 예산 지출 비중을 살펴본 결과, 예술활동 사업비가 58.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인건비가 24.6%, 경상운영비 11.3%,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 6.0% 등의 순으로 나타남

(N=54)



〈그림 2-62〉 예술단체 예산 지출 비중 현황

〈표 2-61〉 응답자특성별 예산 지출 비중 현황(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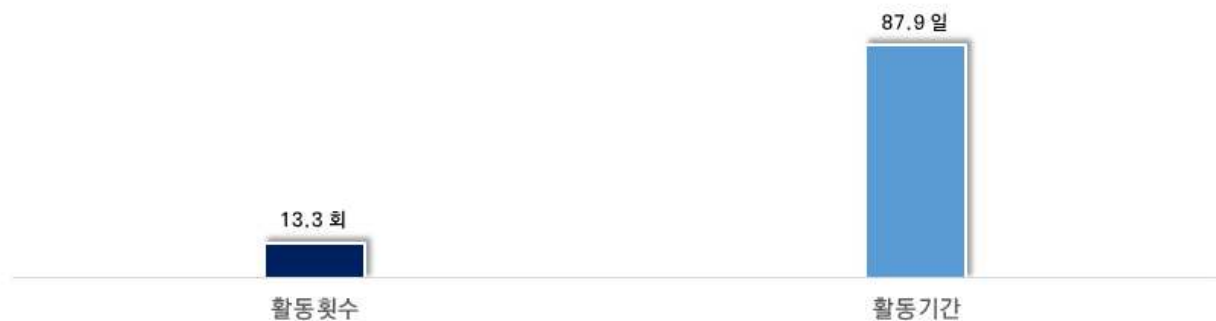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술활동 사업비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전체		54	58.1	6.0	11.3	24.6
활동분야	창작	13	54.8	14.0	11.0	20.2
	실연/다원	41	59.1	3.8	11.4	25.8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52.1	5.0	12.1	30.7
	10명~50명 미만	20	53.9	5.8	14.7	25.5
	50명 이상	15	75.2	0.0	6.2	18.6
	무응답	4	0.0	100.0	0.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52.7	2.8	13.0	31.6
	성남 외 경기	19	53.4	8.4	15.9	22.2
	서울	2	85.0	0.0	0.0	15.0
	그 외 지역	9	72.8	10.0	1.7	15.6

3. 예술활동 현황

1) 예술활동 실적

○ 예술단체 연간 예술활동 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2019년 기준 활동 횟수는 평균 13.3회, 활동기간은 평균 87.9일로 나타남

(N=54)



〈그림 2-63〉 예술단체 예술활동 실적(2019년)

〈표 2-62〉 응답자특성별 예술활동 실적(2019년)

(단위: 회, 일)

구분		사례수	활동 횟수	활동 기간
전체		54	13.3	87.9
활동분야	창작	13	14.8	131.5
	실연/다원	41	12.9	73.7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33.2	137.5
	10명~50명 미만	20	7.6	51.3
	50명 이상	15	6.7	109.6
	무응답	4	11.0	43.3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8.7	87.3
	성남 외 경기	19	6.4	29.8
	서울	2	4.0	4.0
	그 외 지역	9	38.8	208.1

2) 예술활동 내용

〈표 2-63〉 예술단체 예술활동 사례(2019년)

예술활동 내용	예술활동 횟수
교육사업	100
초청공연	80
문화예술교육	60
2019 성남학아카데미	32
2020 신나는 예술여행	30
지원사업공연	30
2019학년도 가천대 예술영재교육원 정규과정(음악,미술교육)	24
정기연주회	18
우리동네 프로젝트	15
오페라 사랑의묘약	12
탄천프로젝트	12
교양예능콘텐츠제작	11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술꿈나무 발굴사업 '꿈 이룸 아카데미' 운영기관	11
주민교육(농사생태)	10
클래식 음악공연	10
오페라 마술피리	7
지역 예술인 창작활동	7
학교에서 놀자	7
무예공연	6
성남문화재단 우리동네예술프로젝트 년버벌퍼포먼스	6
전시회	5
봉사활동	5
스타트업 대회	5
기획연주회	4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축제	4
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4
오페라이야기	4
클래식의 밤	4
지역축제공연	3
광주세계 김치축제(공연)	3
서울 김치축제(공연)	3
오픈 더 옥상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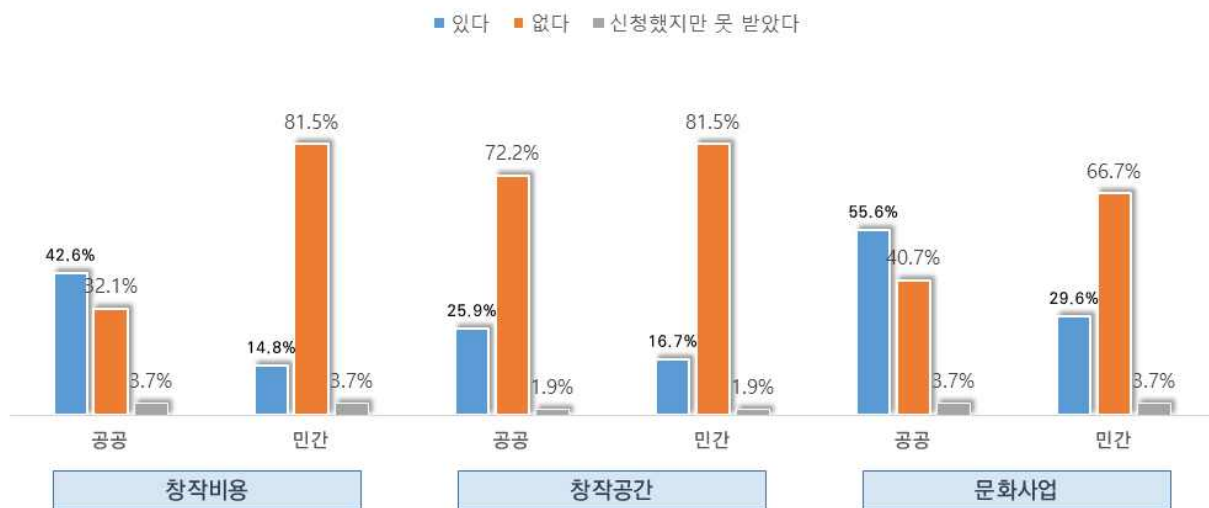
예술활동 내용	예술활동 횟수
음악회	3
청년예술창작소 팀 컨설팅	3
경기도찾아가는문화활동	2
단편영화제작	2
대한민국연극제경기예선참가	2
발표회	2
삼학사	2
성남연극인합동공연참여	2
성남창작무용제	2
21회 정기연주회	1
3.1운동 100주년, 성남 3.1만세운동 기념식	1
am양상불기획시리즈	1
Padaf	1
가을굿	1
경기 신인문학상	1
경기 향토 초대 작가전	1
경기도 문학상	1
경기민예총 콘서트 사람	1
경기백일장	1
고모산성기념사업	1
광주프린지페스티벌 초청공연	1
교과서해설음악회	1
국악제	1
그린마인드프로젝트	1
꿈의 무대	1
남한산성 꿈과 희망전	1
달집축제	1
바람개비 콘서트	1
보봐스병원위로공연	1
북정동 희희락락	1
분당구청연극회	1
사진 촬영 대회	1

예술활동 내용	예술활동 횟수
서울국제탱크페스티벌	1
성남 국제 청소년 월드페스티벌	1
성남 무용제	1
성남 문화예술제	1
성남 박태현 창작동요제	1
성남 사진 대전	1
성남 신춘 음악제	1
성남 전국사진 공모전	1
성남전국국악경연대회	1
시민가요제	1
아트페어	1
야생정원설치미술	1
영은미술관공연	1
영주선비축제	1
온라인 전시회	1
유럽투어공연	1
장수무대	1
장애인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음악회	1
전국가요제	1
정금란 무용제	1
정기공연 파티 투나잇	1
제14회 21C 한국음악프로젝트 축하공연	1
제4회 둔촌문화제	1
중앙공원연국회	1
춘천대회 연주공연	1
판소리큰잔치	1
판소리큰잔치 특별출연	1
한가위 국악 큰잔치	1
해맞이굿	1
향토예술인콘서트	1
협연음악회	1
회원전	1
학생국악경연대회	1

3) 지원사업 참여실적

○ 성남 예술단체의 2019년 지원사업 참여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공공의 문화사업 지원/참여가 55.6%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참여가 42.6%, 민간의 문화사업 지원/참여가 29.6%,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참여가 25.9%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참여가 16.7%,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참여가 14.8% 등의 순으로 나타남

(N=54)



〈그림 2-64〉 예술단체 지원사업 참여실적(2019)

〈표 2-64〉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참여실적: 창작비용(2019년)

(단위: %)

구분	사례수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전체	54	42.6	53.7	3.7	14.8	81.5	3.7
활동분야	창작	13	53.8	38.5	7.7	76.9	15.4
	실연/다원	41	39.0	58.5	2.4	82.9	0.0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33.3	66.7	0.0	13.3	80.0
	10명~50명 미만	20	30.0	65.0	5.0	10.0	85.0
	50명 이상	15	66.7	26.7	6.7	93.3	0.0
	무응답	4	50.0	50.0	0.0	75.0	25.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50.0	50.0	0.0	8.3	87.5
	성남 외 경기	19	31.6	57.9	10.5	21.1	73.7
	서울	2	50.0	50.0	0.0	0.0	100.0
	그 외 지역	9	44.4	55.6	0.0	22.2	77.8

〈표 2-64〉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참여실적: 창작공간(2019년)

(단위: %)

구분		사례수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전체		54	25.9	72.2	1.9	16.7	81.5	1.9
활동분야	창작	13	7.7	84.6	7.7	23.1	69.2	7.7
	실연/다원	41	31.7	68.3	0.0	14.6	85.4	0.0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20.0	80.0	0.0	6.7	93.3	0.0
	10명~50명 미만	20	20.0	75.0	5.0	15.0	80.0	5.0
	50명 이상	15	46.7	53.3	0.0	20.0	80.0	0.0
	무응답	4	0.0	100.0	0.0	50.0	50.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29.2	70.8	0.0	12.5	87.5	0.0
	성남 외 경기	19	21.1	73.7	5.3	26.3	68.4	5.3
	서울	2	0.0	100.0	0.0	0.0	100.0	0.0
	그 외 지역	9	33.3	66.7	0.0	11.1	88.9	0.0

〈표 2-64〉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참여실적: 문화사업(2019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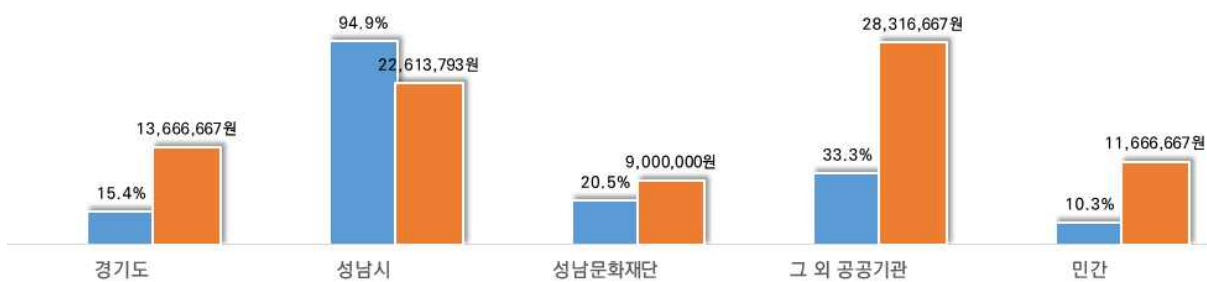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공공의 문화사업 지원			민간의 문화사업 지원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음
전체		54	55.6	40.7	3.7	29.6	66.7	3.7
활동분야	창작	13	46.2	46.2	7.7	23.1	61.5	15.4
	실연/다원	41	58.5	39.0	2.4	31.7	68.3	0.0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53.3	46.7	0.0	40.0	53.3	6.7
	10명~50명 미만	20	40.0	55.0	5.0	20.0	75.0	5.0
	50명 이상	15	73.3	20.0	6.7	33.3	66.7	0.0
	무응답	4	75.0	25.0	0.0	25.0	75.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45.8	50.0	4.2	16.7	79.2	4.2
	성남 외 경기	19	57.9	36.8	5.3	36.8	57.9	5.3
	서울	2	50.0	50.0	0.0	50.0	50.0	0.0
	그 외 지역	9	77.8	22.2	0.0	44.4	55.6	0.0

4) 지원사업 수혜실적

○ 예술단체 지원사업 수혜실적을 분석해본 결과, 성남시에서 금전적 지원을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94.9%), 지원 금액 총액에 대한 평균은 22,613,793원으로 나타남

* 지원받은 경험과 금액 응답 사례수에 차이가 있어 해석에 주의해야 함

(N=54)



〈그림 2-65〉 예술단체 지원사업 수혜실적(2019년)

〈표 2-65〉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수혜실적(2019년)

(단위: %, 중복응답, 원)

구분		사례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	금액	%	금액	%	금액
전체		39	15.4	13,666,667	94.9	22,613,793	20.5	9,000,000
활동분야	창작	11	9.1	40,000,000	81.8	24,675,000	9.1	5,000,000
	실연/다원	28	17.9	8,400,000	100.0	21,828,571	25.0	9,800,000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9	33.3	11,500,000	22.2	4,250,000	55.6	10,000,000
	10명~50명 미만	11	9.1	-	109.1	12,083,333	27.3	4,000,000
	50명 이상	15	13.3	10,000,000	133.3	36,711,111	0.0	0.0
	무응답	4	0.0	0.0	75.0	-	0.0	0.0
주요 활동 지역	성남	18	16.7	15,333,333	122.2	14,621,053	16.7	13,000,000
	성남 외 경기	13	7.7	10,000,000	76.9	41,222,222	7.7	5,000,000
	서울	1	0.0	0.0	0.0	0.0	100.0	5,000,000
	그 외 지역	7	28.6	13,000,000	71.4	7,000,000	42.9	10,000,000

〈표 2-65〉 응답자특성별 지원사업 수혜실적(2019년)

(단위: %, 원)

구분		사례수	그 외 공공기관		민간(기업, 메세나, 개인후원 포함)	
			%	금액	%	금액
전체		54	33.3	28,316,667	10.3	11,666,667
활동분야	창작	13	45.5	37,600,000	9.1	0.0
	실연/다원	41	28.6	21,685,714	10.7	11,666,667
단체 회원수	10명 미만	15	66.7	140,000,000	11.1	0.0
	10명~50명 미만	20	27.3	12,500,000	9.1	30,000,000
	50명 이상	15	0.0	0.0	6.7	0.0
	무응답	4	100.0	-	25.0	-
주요 활동 지역	성남	24	22.2	40,500,000	5.6	4,000,000
	성남 외 경기	19	15.4	1,000,000	23.1	15,500,000
	서울	2	100.0	26,000,000	0.0	0.0
	그 외 지역	9	85.7	25,133,333	0.0	0.0

제3절 시사점

1.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특성

1) 성남 예술인

- 성남 예술인들은 주로 성남시, 보다 구체적으로는 분당구에 많이 거주하는 있는 것으로 보임
 - 거주지: 성남(69.2%) > 성남시 외 경기지역(19.15%) > 서울(11.7%)
 - 성남 시내 거주 지역: 분당구(58.6%) > 수정구(22.1%) > 중원구(19.3%)
- 성남 예술인들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으로 살펴볼 때 성별로는 여성이 남성보다 약간 많았으나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0대에서 50대로 이루어진 양상을 보임
 - 연령: 40대(36.3%) > 30대(24.6%) > 50대(20.5%) > 20대 이하(10.3%) > 60대 이상(8.4%)
 - 성별: 여성(53.7%) > 남성(46.3%)
- 성남 예술인들은 성남만이 아니라 서울 및 경기권을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경력은 11년 이상 되는 예술인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
 - 주요 활동지역: 성남(42.5%) > 서울(27.9%) > 성남 외 경기(25.5%) > 그 외 지역(4.1%)
 - 예술활동 전체경력: 20년 이상(40.1%) > 11~20년(28.9%) > 6~10년(16.0%) > 3~5년(9.5%) > 3년 미만(5.5%)
- 성남 예술인들의 활동분야별로는 미술, 음악(국악 포함) 예술인이 주류를 형성함
 - 주요 활동분야: 미술(25.3%) > 음악(23.9%) > 국악(11.2%) > 무용(8.8%) > 연극(8.6%) > 문학(5.3%) > 영화(4.5%)
- 성남 예술인들은 예술활동만으로 소득 전체보다는 일부를 해결하고자 하며 대부분 예술 교육/강의 능력을 보유함
 - 소득 일부 해결(51.3%) > 소득 전체 해결(48.7%)
 - 예술 교육/강의 가능 여부: 가능(91.2%) > 불가능(8.8%)

* 무작위 표본 추출이 아닌 확보된 리스트 전수 조사라는 조사방식으로 인해 집단 전체의 성격을 추론하는 데 일정 부분 한계가 있음에 유의해야 함

○ 이와 같은 성남 예술인들의 특성을 고려해볼 때 검토되어야 할 요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주력 예술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젊은 예술인들을 유입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와 동시에 고령 예술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세분화된 예술인 계층을 고려한 정책 마련 필요
- 예술인 주요 활동분야 구성비를 반영한 현실적 지원책 등 예술인정책 수립
- 예술활동으로 부족한 소득을 해결할 수 있는 예술 관련 분야, 이를테면 예술교육 등 관련 활동기회 마련 필요

2) 성남 예술단체

○ 일반 현황

- 법적 형태: 비법인 사설 단체(48.1%) > '법인체'(33.3%), '국공립단체', '전문예술법인'(각 7.4%)
- 사업자등록 보유 현황: '고유번호증'(51.9%) > '사업자등록증' 40.7%
- 활동분야: '음악'(46.2%) > '국악'(22.2%) > '무용', '미술'(각 20.4%) > '연극'(13.0%)
- 활동 지역: 성남 외 지역(55.6%) > 성남 지역(44.4%)

○ 운영 현황

- 인력 현황(평균): 전문예술인력(44.9명) > 기타기술인력(9.0명) > 기획행정인력(2.4명)
- 회원 성별 분포: 남성(20.8명), 여성(33.7명)
- 회원 연령대 분포: 10대 이하(3.9명), 20대(3.2명), 30대(7.3명), 40대(8.7명), 50대(18.0명), 60대 이상(11.6명)
- 공간 보유 현황: 사무실(67.9%) > 연습실(53.8%) > 회의실(41.5%) > 다목적실(30.2%)
- 예산조달 현황: 지원예산(47.5%) > 자체수익(24.7%), 정기회비(18.1%), 기부/후원금(7.1%), 기타(2.5%)
- 재정현황: 예술활동 사업비(58.1) > 인건비(24.6%) > 경상운영비(11.3%) >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6.0%)

○ 활동 현황

- 활동 횟수: 평균 13.3회, 활동기간 평균 87.9일
- 지원사업 연간실적: 공공의 문화사업 지원/참여(55.6%) >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참여(42.6%) > 민

간의 문화사업 지원/참여(29.6%) >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참여(25.9%) >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참여(16.7%) >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참여(14.8%)

- 지원사업 세부실적: 거의 대부분(94.9%)이 성남시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었으며, 지원 금액은 약 2,261만원임

2.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 성남 예술인들의 주요 활동 직업과 관련해서는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들의 비중이 매우 높음

- 예술분야 주요 활동 직업: 창작 예술가(33.7%) > 실연 예술가(28.9%) > 예술 교육자(21.0%) > 예술 기획자(5.5%) = 문화 기획자(5.5%) = 기타(5.5%)

○ 성남 예술인들의 예술활동 방식으로는 개인 단독으로 활동하기보다는 어떤 형태든 다른 예술인들과 협업 활동이 보다 많이 나타남

- 주 예술활동 방식: 협업 전체(47.2%, 공동작업 36.5% + 느슨한 협업 10.7%) > 개인 단독으로 활동(41.3%) >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8.1%)

○ 성남 예술인들의 예술인 협회나 단체에 가입된 비율은 63.7%이며, 실제 활동하는 협·단체는 평균 2.05개에 달함

- 협·단체 소속 여부: 예(63.7%) > 아니오(36.3%)
- 실제 활동하는 협·단체 개수: 2개 이상(58.1%) > 1개(41.9 %) ※ 평균 개수: 2.05개

○ 성남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자체에 대한 자긍심이나 만족도는 높으나, 예술활동만으로 전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지는 않음. 이에 따른 생계 문제, 예술활동 비용 조달의 어려움 등 경제적인 부담감이 가장 큰 고민거리임

- 예술활동 중 가장 어려운 부분: 수입 감소 등 안정적 생계유지의 어려움(39.6%) > 예술활동(작품 제작비 등) 비용 조달의 어려움(21.5%) >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17.7%) > 예술창작 또는 발표의 공간 및 기회 부재(11.2%) >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와의 소통·교류 창구 부재=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역량의 부재(4.8%)

○ 예술활동 방식에 의한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많은 구성비를 차지하는 창작/실연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발표 공간 및 기회 확충 필요

- 융합 등 협업 중심 예술활동 패턴을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 간의 네트워킹 활성화 지원
- 예술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지키면서도 경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 탐색

3. 예술노동 및 복지 현황

- 성남 예술인은 겸업(36.8%)보다는 전업으로 예술활동(63.2%)을 하고 있으며, 전업 예술인의 고용형태는 계약직인 경우가 가장 많음
 - 전업 예술인(63.2%) > 겸업 예술인(36.8%)
 - 예술분야 고용형태: 계약직(43.8%) > 고용주(13.2%) > 정규직(12.1%) > 파견직(6.0%)
- 성남 예술인의 1/3 가량이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때문에 다른 일자리를 갖고 있는 겸업 예술인으로서 그중 과반수 이상이 예술활동 관련 직종에서 일을 하면서 예술활동과 특히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음
 - 겸업의 주 이유: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60.4%) >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14.9%) >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13.0%)
 - 겸업 시 직종: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54.5%) >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45.5%)
 - 겸업이 예술활동에 도움을 준 정도: 3.25점/5.0 만점
 - 겸업이 생계에 도움을 준 정도: 3.60점/5.0 만점
- 국민 보편적 복지(건강보험, 국민연금)는 비교적 잘 구현되고 있으나 노동자성 복지 구현은 미흡한 실정
 - 4대 보험 가입 여부: 건강보험(86.2%) > 국민연금(60.9%) > 고용보험(34.8%) > 직장 산재보험(27.4%) >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9.8%)
 - 한편, 4대 보험 어느 것에도 가입하고 있지 않은 예술인들도 10.3%에 달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들의 비율도 적지 않은 수준
- 성남 예술인의 약 절반 이상은 예술활동증명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은 약 20% 미만이 보유중임
 -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없다(51.8%) > 있다(48.2%)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보유 여부: 없다(82.1%) > 있다(17.9%)

- 예술 관련 노동 및 복지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예술인의 노동자성 인정을 위한 다방면의 개선 노력 필요
 - 예술인 복지 강화를 위해 예술활동증명 지원방안 마련 필요
 - 문화예술사자격증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논의 필요

4. 예술활동 소득 현황

- 2019년 기준 성남 예술인들의 연평균 소득은 약 2,000만 원 정도에 그치고 있음
 - 이는 우리나라 평균 가구소득이 약 5,828만 원인 것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임
- 이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은 약 43% 수준임
 - 개인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 평균 42.79%
 - ※ 2019년도 예술활동 수입액: 평균 840.8만원(1,964.9만원 X 42.79%)
- 예술활동 수입 중 가장 중요한 수입 원천은 예술교육활동 수입임
 - 예술활동 수입 비중: 예술 교육활동(38.43%) > 예술 실연활동(24.37%) > 예술 창작활동(18.80%) > 예술 기획활동(11.14%) > 예술관련 기타 활동(7.27%)
- 현재 연평균 소득은 예술인으로 활동하고 생활하는데 있어 많이 불충분한 수준으로 인식됨
 - 개인 연평균 소득의 예술(창작)활동 측면 충분성: 1.93점/5.0 만점
 - 개인 연평균 소득의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충분성: 1.90점/5.0 만점
- 창작에 필요한 예산의 대부분은 자체조달로 해결하고 있음
 - 창작에 필요한 예산 충당 방법: 자체조달(63.99%) > 공적지원(28.20%) > 기부/후원금(4.49%) > 크라우드 펀딩(0.20%)
- 예술활동 관련 소득 실태에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성남 예술인의 불충분한 연평균 소득 문제를 다소나마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재 예술활동 수입의 가장 중요한 원천인 예술교육활동 기회 확대가 적절하다고 판단됨

5. 예술활동 내용 및 지원사업 참여경험

- 성남 예술인들은 2019년 1년간 평균 약 5회 정도의 작품 발표와 같은 예술활동을 수행
 - 최근 1년간 예술작품 발표 및 참여 횟수: 평균 5.15회
 - 다만 예술활동 횟수는 활동분야에 따라 편차도 크고 활동이 많지 않은 예술인과 활동이 많은 예술인으로 양분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임

- 성남을 주 무대로 서울과 경기를 넘나들며 활동하고 있음
 - 주요 활동지역: 성남(42.7%) > 서울(28.4%) > 성남 외 경기도(23.4%) > 그 외 지역(5.5%)

- 성남 예술인들이 성남 외의 지역에서 주로 활동하고 있는 이유는 네트워크와 교류의 원활함, 수요/지원/일자리의 풍부함 때문임
 - 성남시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 데뷔한 곳이거나 네트워크(학연/예술인공동체)가 있어서(33.3%) >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24.6%) >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20.8%) > 예술적 자극(교류)이 많은 환경이어서(18.3%) > 일자리가 많아서(16.3%) >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15.4%) 등

- 성남 예술인들은 2019년 1년간 공공 문화사업 참여 지원을 가장 많이 경험했으며 창작 공간에 대한 지원이 가장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지원 수혜 또는 사업 참여 경험: 공공의 문화사업 참여(49.6%) >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38.7%) > 민간의 문화사업 참여(31.0%) >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17.4%) >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10.3%) >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6.9%)

-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의 주요 경로는 시 또는 재단의 홈페이지 및 SNS와 같은 온라인/모바일 루트가 대세임
 - 지원정보 획득의 주요 경로: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37.2%) > 지인을 통해(15.8%) >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SNS를 통해(9.1%) >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8.1%) > 협·단체를 통해(7.6%)

- 예술활동 실태 관련 정량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주요 발견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성남 예술인의 활동 무대를 성남으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원활한 네트워킹 기회의 제공, 교육 등 겸업 활동기회의 확대, 다양한 지원 제도의 제공 등이 요구됨

- 지원의 우선 순위로는 창작공간 지원을 꼽을 수 있음
- 지원 정보 전파를 위해서는 시/재단의 온라인/모바일 매체 활용이 효율적임

6. 예술활동 공간

- 성남 예술인들은 주로 개인 예술활동 공간을 이용해 활동하고 있으며, 높은 임대료를 가장 주된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음
 - 예술활동 공간: 개인 예술활동 공간(57.3%) > 공동 예술활동 공간(42.7%)
 - 예술활동 공간의 주된 문제점: 높은 임대료(38.7%) > 협소한 공간(18.6%) > 비 안정적 임대/이용 기간(9.3%)
- 성남 예술인은 성남시에 예술활동 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공동 예술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면 입주해서 활동할 의향이 매우 높음
 - 성남시에 예술공간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한 인식: 2.32점/5.0 만점
 -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면 입주의향이 있는 예술인들은 85.4%
- 성남 예술인들은 좋은 시설 및 장비를싼 값에 이용하기를 원하고 있음
 -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29.1%) > 저렴한 이용금액(26.7%) > 넓고 쾌적한 공간(16.9%) >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9.8%) >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7.9%) >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과 교류(6.0%)
- 공공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입주를 꺼리는 이유는 안정적 이용에 대한 우려 때문임
 - 성남시 공공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입주하고 싶지 않는 주된 이유: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32.8%) > 복잡한 대관 절차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 예술창작 활동에 방해 받고 싶지 않아서(18.0%)
- 예술활동 공간과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향후 성남 예술인을 위한 공동 예술활동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행보로 보이며 그 공간은 현재 예술인들의 가장 큰 고충인 높은 임대료를 해결 하고 좋은 시설과 장비를 갖추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함
 -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대한 안정적 이용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모색 필요

7. 예술정책

- 성남시의 예술 정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성남시 예술인들은 평가하고 있음
 - 성남시 예술정책 및 지원제도에 대한 평가: 향유기회(2.68점) > 예술 인프라(2.56점) > 창작지원(2.54점) >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2.49점) > 발표기회(2.47점) > 예술활동 정보교류(2.43점)
- 약 절반 정도의 성남 예술인이 코로나로 인한 지원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 중 성남(시 + 재단)으로부터 가장 많은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코로나 관련 지원 수혜 경험: 있다(49.6%) ≒ 없다(50.4%)
 - 지원 주체: 성남 전체(73.3%, 성남시 48.7% + 성남문화재단 24.6%) > 경기도(60.8%) > 그 외 공공기관(44.2%) > 민간(8.5%)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창작준비 지원금이나 지원사업 선급금과 같은 재정적 지원 정책을 선호하고 있음
 - 코로나 사태 극복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도입되면 효과적인 정책사업: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28.4%) >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22.9%) >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14.1%) > 고용유지 지원(5.7%) > 문화예술조직의 운영지원 = 생계안전 용자지원(5.5%)
- 지역예술인 활동 증진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정책 사업은 지원사업의 확대로 확인됨(1순위 응답 기준)
 -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보강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 지원사업 확대(32.2%, 지원금 확대(21.0%) + 공모기회 확대(11.2%)) > 지원 분야의 다양화(16.2%) >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15.5%)
- 성남시는 향후 ICT 산업 메카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 활동 지원이나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성남시가 ICT 산업 메카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하는지 동의 여부: 그렇다(82.6%) > 아니다(17.4%)
 - ICT 산업 강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 중 반드시 필요한 정책: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활동 지원(38.7%) >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27.2%) > 융복합 예술 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15.3%) >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등 지원 강화

(10.1%) > 콘텐츠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및 콘텐츠 관리 강화(8.1%)

○ 예술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장비 및 기술 지원, 비대면 예술 콘텐츠 제작비용 및 유통 서비스 지원 등을 우선적으로 원하고 있음(1순위 응답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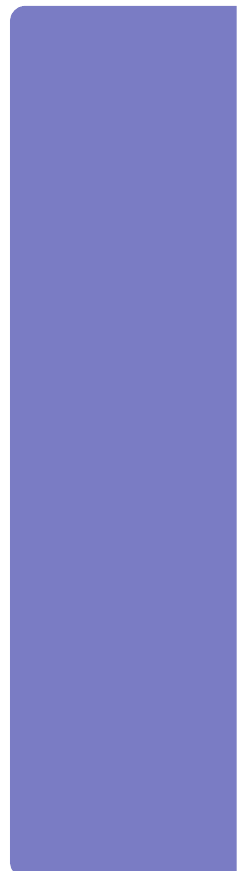
- 예술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 3.73점/5.0 만점
- 현재 활동하시는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것: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38.7%) > 비대면 예술콘텐츠 제작비용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 지원(18.4%)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문화기술, 온라인 협업 툴)(13.4%) > 예술-기술-미디어 플랫폼 연계 디지털 예술 생태계 구축(11.5%) >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및 예술 공동체 채널(플랫폼) 구축(7.6%)

○ 예술정책과 관련하여 나타난 주요 발견사항은 다음과 같음

- 성남 지역예술인 활동 증진을 위해서 현재 가장 필요한 정책 사업은 지원사업의 확대(지원금의 확대 + 공모기회의 확대)임. 지원사업의 방향성에서는 소액다건 지원에 대한 수요가 확인됨
-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지원금, 선급금 등 재정적 지원의 확대, 중장기적으로는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는 디지털 콘텐츠 제작용 장비 및 기술 지원 등이 우선과제로 추진되어야 함
- 성남시는 향후 ICT 산업 메카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 활동 지원이나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제3장

정성조사 결과



제3장 정성조사 결과

제1절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1. 조사 개요

- 정량조사 결과 전문예술인들의 경우 성, 연령, 거주 지역, 활동 지역 등 인구통계학적 특성보다는 활동하는 분야(장르)에 따른 인식 차이가 두드러짐
 - 이를 바탕으로 정성조사 또한 조사 참여 예술인들의 활동분야(장르)에 기초하여 문학, 미술, 사진 등 창작 성격의 집단, 무용, 연극, 음악 공연 등 실연 성격의 집단, 예술 기획이나 교육 등 지원 성격의 집단으로 구분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

1) 창작분야 그룹

일시/장소	대상	참석자	진행
2020년 12월 14일(월) 15:0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이사회회의실	문학, 미술 등 창작 예술인	창작예술인1_미술	외부 전문 모더레이터
		창작예술인2_문학	
		창작예술인3_미술	
		창작예술인4_미술	
		창작예술인5_사진	
		창작예술인6_미술	

2) 실연분야 그룹

일시/장소	대상	참석자	진행
2020년 12월 15일(화) 15:3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이사회회의실	무용, 연극 등 실연 예술인	실연예술인1_연극	외부 전문 모더레이터
		실연예술인2_무용	
		실연예술인3_음악	
		실연예술인4_무용	
		실연예술인5_국악	
		실연예술인6_연극	

3) 기획, 교육분야 그룹

일시/장소	대상	참석자	진행
2020년 12월 15일(화) 13:30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이사회의실	기획, 교육 등 지원 예술인	예술기획인1_음악	외부 전문 모더레이터
		예술기획인2_사진	
		예술기획인3_국악	
		예술기획인4_기타	
		예술기획인5_연예	

2. 조사 결과

1) 코로나19 영향과 예술인 실태조사 의의

- 현장을 기반으로 예술활동을 하는 실연예술인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아 많은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음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 (실연예술인3)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실연예술인5)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연예술인6)

- 이번 예술인 실태조사에 대하여도 이후 진행 상황에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임

예술인을 배려해 주시는 좋은 취지. (실연예술인3)

이게 이제 잘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실연예술인2)

2) 개인 및 단체 활동 현황

- 실연예술인이 가장 활발한 단체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오디션, 서류 준비 등 공연 기획이나 공모사업 자체가 많고 그로 인한 준비 등에 유리하기 때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남 지역 내 협업의 정도는 활발하지 않은데, 협업을 하게 되는 기회 자체가 많지 않음

저의 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실연예술인2)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음악 관련된 학회 같은 것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곳에서 기획을 해 주기 때문에 저는 연주에만 집중. (실연예술인3)

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단체로도 활동을 하는데, 단체로 하는 이유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실연예술인4)

단체를 이번에 만들게 된 계기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술창업컨설팅 지원을 받게 되어서 하게 되었고요. 공모사업에서 단체 위주가 많아서. (실연예술인5)

- 기획/교육 예술인도 단체 활동을 많이 하나 그 정도는 실연예술인과 같지는 않으며, 창작예술인은 주로 개인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음. 다만, 그 중에서도 세부 장르에 따라 그 편차는 존재함

개인적으로 합니다. (창작예술인2) 외 3명

비교적 작품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인팅이나 혼자 개인 작업으로 하는 분들은 비교적 협업이나 그런 것에서 떨어져 있는 편이고,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협업의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창작예술인6)

3) 성남의 문화예술 환경 위상

- 창작예술인은 성남시와 타 지역 간 예술 환경 상 차이를 크게 인식하고 있지 않음

성남시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보통은 이런 공공기관 지원 사업은 팀 위주로 있으나 저처럼 개별 작업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창작예술인3)

성남은 제가 살고 있고, 그리고 서울은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메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자주 가지만 전체적으로 비슷한 것 같은데요. 비슷해요. (창작예술인1)

요새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창작예술인6)

- 차이를 느끼는 경우도 활동 환경 상 차이보다는 예술 향유층의 크기 측면에서 차이를 느끼고 있음

전시를 보러 오거나 아니면 미술관계자 분들이 오기에 성남도 가까워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트맵이 아무래도 서울에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관객들이 더 많으니까. (창작예술인6)

- 실연예술인은 예술활동 측면에서 성남의 위상을 타 기관보다 비우호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평가 시 그 비교의 대상은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등 주로 광역단위의 문화재단이었으며 유사한 기초단위 문화재단과의 비교는 상대적으로 언급이 적어 현재까지 기초단위 문화재단 차원에서의 벤치마킹 사례는 아직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임. 한편, 지원사업의 종류, 생활예술 중심의 지원, 수혜 대상의 특장화 등 주로 기회 제한 측면에서 부정적 평가가 주를 이루었고, 막상 지원을 받게 되어도 자원의 제한으로 인한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타 지역 대비 부족한 상황으로 평가하고 있음

저는 단체든 개인이든 지원사업은 서울이 다양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에 경기문화재단 것을 많이 보고 있고, 수혜를 받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도 조금 다양화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에는 뭐가 있는지? 봤더니... 그렇게 다양화 되어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실연예술인2)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남에서 공연이 제일 없어요. 프로극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아마추어 동아리에 대한 소소한 지원들은 되게 많은데,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예를 들어 만약에 성남아트센터라고 하면 저희가 대관할 때 저희에게 할인 같은 거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었고... (실연예술인6)

대개 한 극단에 오래도록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으나 신생이나 아니면 좀 더 젊은 연출가 분들이나 젊은 실연연기자 분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실연예술인1)

성남에서 지원하는 소소한 금액의 지원료를 갖고는 창작을 할 수는 없고, 있는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관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데에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연예술인6)

- 특히, 일부 참석자는 공공재라고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특정 집단에 의해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어서 대상이 한정되는 폐쇄성과 선발 정보의 공개 여부, 그리고 선발 과정의 투명성 측면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음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뿌리 깊게 근거지를 갖고 계세요. 특혜 아닌 특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폐쇄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실연예술인4)

저는 성남에서는 이번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그 결을 보면 좀... 성남시의 홍보효과나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창작작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 (실연예술인5)

4) 예술인으로서의 애로사항

- 기획/교육예술인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의식이 가장 미약하며, 비즈니스 종사자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음. 따라서 예술 현상을 어느 정도 국외자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수용하고 있으나, 창작이나 실연 장르 출신으로 예술 기획 활동을 하는 경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음

저는 사실 예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비즈니스맨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음악과 관련된 거라고 생각. (예술기획인5)

예술 생태계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와 관련된 건데, 문화 생태계로 얘기하면 프로모팅이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관련된 종사자를 문화마케터 라고 얘기. (예술기획인4)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실은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특히 국악분야 같은 경우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점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예술기획인3)

저는 사진작가로서 정체성이 있고,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따로 있거든요. (예술기획인2)

- 성남 실연예술인의 경우, 예술인으로서의 애로사항을, 급격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하고, 확장된 역할의 수행이 버겁다는 측면으로 표현하고 있음. 결국 실연예술인들은 예술 그 자체보다, 예술의 지원적 활동 측면에서 결핍을 토로하고 있으며 이런 부분에서 외부와의 협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예술과 나의 삶을 병행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말고도 다른 외적인 것들이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연예술인1)

가르치기도 하고 실연도 하고 메이킹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되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실연예술인2)

현실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정말 필요하구나!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연예술인3)

- 창작예술인은 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생활예술과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구분되는 예술인 개념의 정립되고 이러한 정의 하에서 이를 지원하는 사회적 시스템의 부재를 애로사항으로 인식

예술인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프리랜서라는 개념이 붙어 버려요. 법적으로 전문인이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제도로 예술인을 서포트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창작예술인1)

내가 예술인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이 작업밖에 모르고 이 작업만 하는 사람들. (창작예술인3)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얻고, 재료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작 작업실에서 작업은 못 하고, 월세는 계속 벌어야 되고, (창작예술인4)

5)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제도 인식

- 창작예술인은 예술활동증명 제도를 잘 알고 있으며 대부분 등록도 하고 있음. 주로 이용하는 혜택은 창작지원금 관련. 다만, 등록 절차에 관해서 다소의 불편이 존재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

창작그룹

참가자 6명 모두 인지, 6명 중 5명 등록

등록 과정

쉽게 얘기해서 좀 불편해요. 간단한 건데,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창작예술인1)

수혜 현황

작년에 창작지원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았고요. (창작예술인5)

그 창작지원금 이라고 하는 것을, 작가가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해서 받은 것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창작예술인5)

저도 두 번 정도 창작지원금 혜택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한 번에 입금이 되고, 그 결과에 따른 부가적인 불편한 서류가 크게 없어요. 영수증 처리를 한다거나 내가 어디에 돈을 썼다는 것에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창작예술인4)

- 실연예술인은 가장 활발하게 예술인복지재단의 지원을 이용하고 있으며, 이용하는 혜택도 산재보험, 지원창작금, 창작지원금, 장소 대관, 사업 지원 등 다양함. 다만, 등록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자격 증명의 요건 등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정의 어려움 토로

실연 그룹

6명 모두 인지, 6명 중 5명 등록

수혜 현황

저희는 일단 예술인 산재. 그 다음에 지원창작금, 창작지원금도 받아서 해 봤고. (실연예술인6)

공모 지원에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 (실연예술인5)

문화예술사 관련된 게 있어서 취득을 했는데,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만한 것이 무용은 거의 없더라고요. 대관할 때 문화예술교육사가 있을 때는 몇 점 플러스, 지원할 때 소정의 점수, (실연예술인4)

성남문화재단에서 가르치는 강사로 갖고는 점수가 안 되는 상황. 공연을 통한 이윤을 증명해야지 받아 주는 제도라서 그 때 한 번 등록이 안 되고 나서는 묻고 있었던 상황. (실연예술인3)

강사로는 예술인 인증이 안 되고요. 이렇게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항상 생각. 그리고 무료공연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연극인 인 증은 되지 않더라고요. (실연예술인1)

- 예술인 의식이 가장 미약한 기획/지원 예술인은 일단, 자격 여부에 대한 의문, 과정에 대한 불확실한 이해로 인해 등록도, 일부 깊이 있는 예술 기획자의 경우를 제외하면 이용도 낮음

기획/교육 그룹

5명 중 2명 등록

해야지! 하다가... 왜냐하면 서류도 내야 되고 그런 귀찮은 과정들이 있으니까. (예술기획인3)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력이나 실적이거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예술기획인1)

저는 예술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지원사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그걸 받기 위한 과정, 받고 나서 수행하고 나중에 증빙 등 귀찮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그래서 아예 쳐다보지 않았습니 다. (예술기획인5)

수혜 현황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 (예술기획인2)

고용보험, 그 외에도 의료비 지원부터 해서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은 많이 있어요. (예술기획인4)

6) 예술인 지원사업 애로사항

- 참여한 모든 예술인들이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행정적 절차와 구비 서류의 준비에 대하여 어려움을 토로. 일부의 경우는 사업계획서의 인건비 규정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구체적 사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었음
- 특히, 정산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행정적 관점보다는 예술인 관점을 반영하여 보다 현실적 기준을 적용하고 및 간소화 해주기를 바람

창작 그룹

절차 자체가 자신을 객관화해서 서류를 써야 되는 건데, 너무 기획자처럼 변해 버리니까. 이게 문화재단 형식이랑 일반 대중적인 작가랑 점점 나뉘지는 거죠.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창작예술인1)

실연 그룹

그렇죠. 필요하고... 정산도 행정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심플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연예술인2)

기획/교육 그룹

사업계획서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예술기획인1)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아무래도 공식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술기획인5)

기획서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냐? 하셨는데, 같은 내용을 어떻게 멋있게 하냐 이런 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예술기획인3)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것. 정말 진짜 두꺼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통장 제와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예술기획인1)

계획서 자체도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신청하는데 우리 단체가 출연하면 안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비 지급은 안돼요. 그거는 굉장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예술기획인4)

7) 예술인 지원사업 비교 평가

(1) 중앙부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비교

- 창작예술인의 경우, 주로 경기문화재단과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혜택을 본 경우가 많았고, 이 때 전반적인 진행 측면에서 광역문화재단인 경기문화재단의 절차가 보다 예술인 관점에서 진행된다는 인식이 있었음.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은 실제 도움은 크게 되지 않는데 비해, 그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는 선정 심사나 정산 등 행정적 절차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수혜 대상이 중복되는 경향도 있는 듯하다는 의견. 다만, ‘집’이라는 주제의 전시 공모 창작지원금 지원은 그 진행의 신속성, 수행 내용의 중간 결과에 따른 유연한 변경 등 긍정적으로 평가한 의견도 있음

2020년도에 받은 게 다 코로나 관련된 거예요.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받았죠. 지원서 내서 받은 거죠. 백만원의 기적 그거 저도 했고. 그리고 지원서도 냈고 결과물 제출. (창작예술인2)

저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경기도랑 성남시랑 같이 하는 거. (창작예술인3)

저는 경기문화재단의 코로나 관련 프로젝트와 경기도와 성남시가 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했는데, 심사위원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뭔가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것을 성남에서 느껴졌어요.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이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창작예술인4)

씨드머니 개념으로 주면서 나중에 요청하는 정산작업이 거의 책 한 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듣다 보니까 한 번 지원 했다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지원도 안 하고...
받는 업체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공연에 대한 평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 받는 업체가 자주 받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창작예술인5)

성남문화재단에서 ‘집’이라는 주제로 전시 공모 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깔끔했어요. 계약서 쓰

고 바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샘플을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이 선생님 작업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전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당일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관행이 줄어드는 거죠. 그런 면이 굉장히 편했고. (창작예술인 1)

저는 주로 전시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받고 고양문화재단... 여기는 개인 전시고 그 쪽은 그룹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티스트 페이가 있지는 않았고, 도록이랑 전시 지원을 받았고. 제가 볼 때 공연은 큰 것 같은데, 전시지원은 약간 미흡하지 않나? 뭔가 아트센터는 큐브미술관보다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느낌이 커서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어요. (창작예술인6)

- 실연예술인은 경기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지원의 연속성을 고려한 체계, 지원사업의 다양성, 효과성 측면이나 선정과 시행의 신속성, 예술인 관점의 진행 등을 그 긍정적 측면으로 언급하였고, 서울문화재단도 유사한 흐름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비해 성남문화재단은 생활 예술인 중심 지원으로 전문예술인이 상대적으로 경시되고 있다고 평가

경기문화재단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꽤 잘 되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신작을 발표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켜서 좋은 성과도 내고, 상도 타고, 창작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1단계에서 성과가 좋으면 심사에 의해서 2단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를 높여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사업을 올해 안에 4개를 했어요.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임차료 지원은 많지는 않아요. 팀마다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게 그래도 고맙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마운 건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는 거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창작은 엄두도 못 할 일인데, 창작을 할 수 있게 창작지원금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실연예술인6)

경기문화재단에서 이번에 창작컨설팅, 예술창업컨설팅을 받았는데, 일단 6, 7회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시면서 경기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공유, 마지막에 결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갖게 해 주시고.

경기문화재단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성 지원은 안하고 연속지원으로 계속하는 쪽으로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실연예술인5)

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백만원의 행복, 찾아가는 문화활동, 계속 지원을 받았고요. 그런데 전통공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창작이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전통이 갖는 오리지널리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성남에서는 대중들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못 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연예술인4)

대표자들이 공연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엄청 쓰는데도 불구하고, 대표자에게는 사 레비가 원래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20년에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규정을 바꿨어요. 다만, 저도 이번에 경기문화재단 사업 2개를 지원 받기는 했지만,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결과 통보없이 무기한 발표를 안한다 고만 하다가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그 전에 창작지원 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듣고 지원서도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 신청을 하나 또 넣었는데 간소화 된 것을 느꼈어요.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책자를 받았는데, 예전에는 기획자 중심의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예술인 중심으로 예술인들의 언어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연예술인2)

- 기획/교육 예술인은 타 지역과 성남의 지원사업을 모두 겪는 경우가 드물고, 그로 인하여 환경이나 활동하는 것의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못함. 다만, 성남의 지원사업을 겪은 예술인들은 타 지역과 비교해 성남의 지원사업이 빈도나 다양성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적다고 인식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해 뒀고요. 그리고 그런 건 있죠. 큰 시장이라는 것. (예술기획인5)

부천은 전문 예술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사업을 주고자 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성남의 지원 사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술기획인3)

성남은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기회나 규모 면에 있어서는 타 지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예술기획인4)

(2) 성남 문화재단 지원사업 평가

- 창작예술인의 경우,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진입장벽이 존재하며, 예술인 관점에서 지원금의 규모도 적고, 지원이 공공미술, 공연, 음악 등 대외적 장르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음. 더불어 창작 레지던시 공간의 부재와 지원 선정의 결과 통보 지연 등을 아쉬운 측면으로 인식

지원금도 적고, 공고도 적고.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성남문화재단은 다른 문화재단과 달라요. (창작예술인3)

너무 제한된 인원만 뽑죠. 너무 많은 돈이 한 사람에게 가니까. (창작예술인5)

성남시는 오페라, 음악, 공연 위주잖아요. (창작예술인3)

성남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로 벽화사업을 왜 그렇게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창작예술인4)

성남은 비교적 작업실이 비싸잖아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되게 경쟁력이 있고, 좋은 작가들도 많이 지원을 할 거고. 그런데 성남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도 수원이 500만원씩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창작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재하고. (창작예술인6)

작가들은 다들 간절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아서 뭐를 해야 하는데 일절 통보가 없었어요. 계속 전화로 문의를 해서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찾아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했던 케이스이고. (창작예술인3)

- 실연예술인은 성남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을 인식하는 언어로, ‘예산부족’, ‘창작지원금이 풍족하지 않음’, ‘너무 금액이 낮아서 어려운 상황’이란 표현을 사용. 더불어 시민참여형 예술, 생활예술 중심의 사업 수행이어서 전문예술인들이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점을 아쉽게 평가. 전체적으로 긍정적 인식이 부족한 상황

경기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성남문화재단에서도 했는데요.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아! 예산이 부족하구나! 하는 거를 제일 많이 느꼈어요. (실연예술인1)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퀄리티가 낮은 형태의 행사 치르기밖에 안 됩니다. 지원금 금액이 너무 낮아서 어려운 상황입니다. (실연예술인4)

시민참여형 예술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전문예술 창작지원금이 그렇게 풍족하게 있지 않아요. 성남문화재단이 돈이 없는 곳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실연예술인2)

예술인을 기반으로 만든다기보다는 시민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자리 잡은 느낌이 들어요. 사랑 방문화클럽이라는 것을 성공사례로 갖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확장을 하는 형태로 늘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문 예술인들은 배제되어 있다 라는 느낌. (실연예술인5)

밖에서 봤을 때 되게 하이 퀄리티의 공연들을 많이 갖고 오고, 대형 뮤지컬이나 대학로에 있는 공연을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성남 안에도 여러 가지 극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실연할 수 있는 작품성이 있는 극단들이 많은데 왜 굳이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향유하지 못하는 서울

의 문화예술을 갖고 와서 이거를 보여 주겠다,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벽처럼 느껴졌어요. (실연예술인1)

- 기획/교육 예술인은 전문예술인들과의 접점, 지역 예술인 DB 등 현황에 대한 자료, 민간 거버넌스의 부재 등 기본적 인프라 측면의 결핍과 폐쇄성을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특징으로 평가

전문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서울이나 다른 성남 인근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자기가 인정을 받거든요. 그런데 성남에 있는 예술인들이 성남시나 문화재단에서 인정받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성남시 예술인들은 재단에 왔을 때 나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 예술인들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라도 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예술기획인4)

기본적으로 성남의 예술인으로 등록 내지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궁금. 예를 들어 성남, 경기 지역에 많은 재즈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남에서는 재즈 공연을 볼 수가 없죠. (예술기획인5)

성남에서는 문화예술 쪽으로 민간 거버넌스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아쉽죠. (예술기획인4)

(3) 성남 예술인 활동 공간 상황 평가

- 창작예술인은, 창작 작업의 특성 상, 레지던시 공간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고 또 필요로 하고 있음. 더불어 단순한 공간의 존재뿐만 아니라 성장 프로그램, 숙식, 비평가 매칭 등 공간을 운영하는 시스템이 적절하게 작동해야 그 효과가 최적화된다는 의견이며, 이에 대한 기대수준도 높음. 한편 이러한 시스템은 레지던시의 입지로 문화재단, 역주변, 판교 등 소통측면의 원활성, 폐교/구도심 등 활용성, 습기 등 작품에의 물리적 영향까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며, 더불어 현재 성남의 창작 공간 현황에 대한 아쉬움도 언급

그 공간이 중요하기 보다는 그 안에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줘야 되고, 그 안에서 비평가 매칭이라던가 창작공간 지원이라든지 숙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줘야 제일 좋은 거죠. (창작예술인1)

아예 그런 레지던스를 마련할 거면 요즘에 복합문화공간처럼 레지던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옆에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회의를 하거나 작

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에 많잖아요. (창작예술인3)

위치도 그렇지만, 습기... 그러니까 지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습기가 너무 많은 시대는 제습기를 아무리 돌려도 에어컨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니까 그런 제습 부분. (창작예술인6)

문화재단 근처면 더 좋죠. 여기 바로 뒤에. 레지던시 들어가서 작품 활동을 하면 관계자 분들에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의사전달 하기도 쉽고. (창작예술인3)

성남문화재단 근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창작예술인1)

역 주변, 폐교 괜찮아요. 성남시에 폐교가 많다고 들었어요. (창작예술인6)

구도심, 판교. (창작예술인1), (창작예술인3)

- 실연예술인은 단체로 활동하는 특성 상, 공연을 위한 연습과 장비의 보관을 위한 대규모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현재 성남에서는 그런 공간 혹은 그런 공간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실정이며 그런 공간지원에 대한 필요성도 높음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전무하다고 봅니다. 무용이어서 개인이 준비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운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실연예술인4)

서울 쪽은 지역 별로 나뉘져 있고, 입주하는 분들도 있고, 연습실도 작은 비용을 내고 장기적으로 대여해서 단체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간을 다양하게 장르 별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서울은 지역적으로 동네별로 구별로 되게 많이 있어요. 성남에는 일단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구축되어서 그 안에 예술인들이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실연예술인2)

공간 말씀 나와서 저희가 복정동에 지금 6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쓰고 있는데, 짐을 놓을 데가 없어서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성남에서도 찾아 봤어요. 마땅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아쉬운 게 연습실하고 보관. 무료는 바라지도 않고요. 임대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실연예술인6)

- 기획/교육예술인은 공간에 대한 관심도, 필요성이 가장 떨어짐. 창작, 연습, 보관의 관점보다는 행사나 전시의 관점에서 공간을 바라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신규 공간의 개발/마련보다는 기존 공간의 활용에 관한 시스템적 지원에 관심을 보이고 있음

극장 현황으로만 따지면 중원구에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는 설립 중에 있고 수정구에는 조금 더 있고 분당구는 훨씬 많이 있죠. (예술기획인4)

메이저급 행사나 아니면 큰 규모의 행사 외에는 사실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예술기획인4)

성남공단 같은 경우는 6시만 넘으면 유명도시처럼 되는 곳이에요. 재단에서 액션을 취해서 예술인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예술기획인4)

연습실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요즘에 워낙 협업을 좋아하니까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예술기획인3)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 (예술기획인2)

(4) 신진예술인 발굴 정책/제도

- 창작예술인은, 단발성 지원보다는 신진 예술인을 발굴하고 성장시키는 체계적 육성 시스템의 관점과 구축이 필요함과 더불어 신진작가뿐 아니라 원로 예술인에 대한 지원 체계의 고려도 동시에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활동은 하지만 자기 작업만 하고, 이런 시스템을 잘 모르는 청년들이 많아요. 이들에게 각종 지원 제도들의 존재를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리고 연령대가 높아도 경제형편이 좋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도 이것저것 하지만,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더 사각지대에요. (창작예술인3)

신진 작가가 전시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지원금 한 번 받는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에서 정말 신진작가 공모전을 잘 하고 싶으면 신진작가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나 멘토링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작가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창작예술인1)

정OO님이 1인으로 했을 때는 합격을 했는데, 성남문화재단에서 팀을 만들어 오라는 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성남문화재단에서 팀을 꾸려줘서 정OO님을 기점으로 해서 신진작가를 매칭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정OO님이 멘토고, 신진작가가 멘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지원도 되고 신진작가도 자연히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창작예술인2)

- 실연예술인은 단순히 신진 예술인에 시선이 머물지 않고, 신진, 중견, 원로 예술인을 아우르는 균형 잡

한 예술인 지원체계의 정립이 필요하나 현재는 신진 예술인 지원에 경도된 점을 지적함. 동시에 신진 예술인 지원은 기술과의 융복합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

서울에서 공연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모두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들이예요. 신진 예술인들을 위한 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졌고 나중에는 원로 지원사업들도 나왔으나, 중견 무용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가 이 밸런스는 잡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실연예술인2)

국악쪽은 최근 음악이 퓨전이 많이 되고 융복합 사업들이 많이 나오니까 영상 콘텐츠 지원사업도 당연히 있고. 거기에 많이 신진예술인들이 진입하는 것 같아요. 그러므로 40, 50대 중견 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실연예술인5)

- 기획/교육예술인은, 서울문화재단은 신진의 정의를 당사자가 하게 하는 특이한 제도를 도입하는 등 활발한 지원을 하고 있는 사례도 있다고 인식. 그에 반해 성남문화재단은 청년이나, 신진을 지원하는 사업이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나 신진예술인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신진예술인의 Needs를 청취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서울문화재단에서 작년부터 특이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작년에 연령구분을 없앴거든요. 당신이 신진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하라는 거, 그래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술기획인2)

성남문화재단은 신진이 활동하기는 어렵죠. 공연 하나 올리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관비며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성남이 그런 지원사업은 없어요. 성남문화재단은 청년지원도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술기획인3)

공모사업을 얘기해 보면, 신진예술인에게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평생 한 번입니다. 예술인 상담이든 지원센터든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술기획인4)

(5) 성남시 예술인 네트워크 및 예술인 플랫폼

- 실연예술인은, 예술인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정보 교환의 관점에서 인식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같이 연습을 하면서 단체를 운영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항상 그런 거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저예요. 야! 어디 들어가 봐라! 어디에서 뭐 나온다! 청춘마이크 뭐 그런 거 지원받는다더라! 너네 신청해 봐라!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역량으로 아이들에게 어디 들어가 봐라! 네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고

요. 아이들이 어디 대학교를 나와서 직접 사회적으로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그걸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성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실연예술인4)

- 기획/교육예술인은 네트워크 구축 이전에, 제반 문제들이나 정보들에 관한 의사소통 채널/창구가 선행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네트워크 구축의 목적/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구축된 네트워크를 원활히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는 의견

제가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보다, 예술인 상담이든 지원센터든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예술기획인4)

왜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고, 내가 저기에 명단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밝혀 주면 아무리 개인정보 갖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줄까요? (예술기획인5)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구축만 해 놓고... 결국에는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사업이 많고 내가 선정이 되어서 누구랑 같이 할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사업 자체가 이미 없다면 네트워크를 만들어봤자! 라고 생각해요. (예술기획인3)

- 한편, 성남의 전문 예술인들은 공모사업 정보 교환, 구인 구직, 역량강화, 사적인 교류 등의 목적을 가지고 온라인 홈페이지, 카톡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인 플랫폼(혹은 이에 준하는)을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향후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역 내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한 플랫폼을 추진한다면, 앞서의 목적들을 충족시키는 기능들을 어떻게 장치할 것인가의 검토가 심층적으로 선행되어야 함

실연 그룹

OTR. 여러 장르들의 오디션이 올라오죠. 연극이나 뮤지컬 포함해서. 저기는 매일 들어가요. (실연예술인1)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대중음악 분야를 볼 때 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서로 구인 구직도 나누고 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공모가 있다던가, 대회가 있다던가 하는 음악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연예술인3)

위아츠, 카톡방. 저기에 교류방이 있고 공고방이 따로 있는데 천명이 넘게 있어요. 모든 분야의 예술인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교류방에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공고방에서는 예술 공고를 띄워 주고, 사적인 얘기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플랫폼이니까 저는 거기에서도 흐름을 보기는 보거든요. (실연예술인2)

기획/교육 그룹

문화포털, 위아츠, 모모365

위아츠에서 큰 장점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모사업이 다 올라와요. 장르별로.

그리고 정책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콜라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예술기획인4)

8) 문화예술 환경 변화 인식

(1) 환경 변화 체감 여부 및 대비 현황

- 창작예술인은, 예술환경의 변화를 개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나, 실질적 체감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 준비는 실행하지 못하고 있음. 다만, 어떠한 형태로든 기본적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저는 전문 기술 협업팀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에게도 코딩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창작예술인3)

저는 솔직히 클래식은 영원할 것 같고요. 그래서 음악을 잘 하는 사람들과 영상을 잘 하는 사람들을 자꾸 매칭을 시켜 줘서 같이 일을 하며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창작예술인6)

정리하자면, 예술인과 테크니션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지금 현재 판교에 가면 창조혁신센터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더라고요. 거기서 예술인들이 무언가 하고 싶은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이게 교육도 필요한 거고, 안 되면 외주를 해서라도 테크니션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창작예술인1)

- 실연예술인의 경우 비대면 예술활동을 기존 공연 활동의 현장감과는 다른, 별개의 새로운 장르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해야 할 현실로 인식하고 실질적 준비도 실행하고 있음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아무리 무대를 살려서 영상으로 해도 이거는 무대공연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영상도 아니고 무대도 아니고 그냥 다른 장르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실연예술인6)

영상에 치중된 유튜브 특성상 장르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어느 정도라도 내 색깔을 장르적으로 곳곳이 밀고 나가는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실연예술인5)

무용하는 입장에서는 영상은 차선택이되,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차선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작업이 우리한테 편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연예술인4)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작사, 작곡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이 코로나 상황이 저의 예술의 범위를 더 넓게 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연예술인3)

디지털 기술 유입에 대해서 저는 일단은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연예술인2)

- 기획/교육예술인의 경우 오프라인의 현장감을 온라인에서 구현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혹은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아직 어렵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 한편, 온라인은 일정 수준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주체가 아직은 별로 없고, 이로 인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

온라인 공연 20분 이상 보실 수 있으세요? 공연장에 갔을 때 그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몸을 때리는 공기의 흐름이 온라인에서는 없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거를 보면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소리 조금만 올리면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나지, 이거 그렇게 해서는 공연 못 보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 희망이자 믿음인데, 제가 하는 공연이나 행사 쪽은 온라인 쪽으로는 일부는 가졌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온라인 공연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벌어지는 공연이 되요. 지금 BTS나 SM, YG, JYP 등을 빼고는 온라인으로 공연 못 합니다. 이럴 때 문화재단에서 비용을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몇 분이 보던지 기회를 주면 공연하지만. 예를 들어 제가 비대면 공연을 기획해요.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예술기획인5)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만약에 그걸 접목을 시킨다면 문화재단에서 해 줘야 될 역할. (예술기획인4)

예술인들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테크니션,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VR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그들의 몫이고, 재단이 하는 역할은 이것들을 연결을 해 주는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술기획인4)

(2) 환경변화에 따른 성남시 문화예술 정책 보강 필요 내용

- 창작예술인은, 예술환경의 변화에 따른 필요 정책이 무엇인지 성남문화재단의 실무진 차원에서는 파악을 마쳤으나 실행 단계에서의 정체에 대한 문제점을 언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인식 및 의사 결정

층에의 보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필요성을 언급

이미 실무진 선생님들은 타 지역 문화재단이나 레지던시 상황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결 상부에서 결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정권자들이 OK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예요. 레지던시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작년에 직원 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된 거고, 위에서 허락을 해 주지 않는 거예요. 아무래도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승인을 해 줘야 되므로.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과 그리고 창작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체감할 수 있게 지속적으로 보고를 해야 되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들여다보실 거예요. (창작예술인4)

저도 기억이 나는 게, 2017년도에 제가 문화재단하고 전시회를 했을 때 그 때도 야탑 근처에 레지던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벌써 3년이 지난 거죠. 작년도에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거고. (창작예술인5)

- 실연예술인의 경우 성남 예술인들이 작품을 표현할 수 있거나 성남 예술인을 영상, 사진 등 시각적으로 홍보 또는 소개하는 플랫폼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으며, 이러한 플랫폼의 선행단계로 예술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경우, 관련 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전화번호를 제외한 제반 정보 제공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힘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연 등을 올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실연예술인1)

경기문화재단은 '온에어'라고 해서 링크를 공유하는게 있어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저희가 성남 문화재단 치고 들어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확인을 해야 하는 거라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성남문화재단의 홈페이지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실연예술인5)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성남예술인자문위원이라던가 그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성남에 있는 예술인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더불어 아티스트를 선정하고 촬영해 주는 지원사업이 생겨서 그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그러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거잖아요. 예술인 온라인 소개하는 영상 작업을 해서 플랫폼에 올리는 거죠. 사진하고 영상으로 1분 정도면 충분해요. (실연예술인2)

저는 (다른 예술인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개 같은 거,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연예술인6)

전화번호까지 노출되면 부담스럽고요. 이메일까지나 홈페이지, 아니면 자기 SNS 계정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일도 아

나라고 생각해요. (실연예술인2)

9) 예술인 DB 및 플랫폼 구축 방향

- 창작예술인은, 예술의 장르별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는 별개의 플랫폼이 필요하나 현재의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는 그러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며, 설사 그러한 기능을 구축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타 플랫폼 사례처럼 전시적 측면이 아닌,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기능과의 매칭이 중요하다고 의견. 이러한 기능 구현의 한 예로 전시, 레지던시 지원과 연계한다면, 예술인들의 참여를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다만, 입력 정보의 형태로서 저작권과의 연계 검토는 반드시 고려해야 할 사항

성남문화재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플랫폼이 없어요. 더불어 성남문화재단의 시각예술 파트, 예술 파트,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야 되요. 그 홈페이지에 작가명단, 작품 리스트, 작품을 공개해 놓으면 각 시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 찾아 봐요. 그런데 지금 성남문화재단 들어가면 어? 공연 예매하는 데도 아니고, 달력 큰 거 하나 나오고 어! 뭐지? (창작예술인1)

K쉐어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 시성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창작예술인5)

레지던시 지원을 플랫폼과 연계할 때 등록이나 자료제출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 전시, 레지던시, 이런 것들을 타 지역 문화재단에서도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들이 당연히 정보 입력하고 가입을 해야 되니까. (창작예술인6)

회화는 민감한 거예요. 조각이나 미디어는 사진을 전달하더라도 캡션이기 때문에 영상 중에 한 장면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회화 하는 분들은 사진은 완전히 넘어가는 거죠. (창작예술인5)

- 실연예술인의 경우도 성남 예술인들을 연계하는 플랫폼의 효과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거나 이 경우에도 저작권 측면의 권리 침해에 대한 우려가 큼. 따라서 작품에 관한 시각적 자료 제출에 대해 수용적이거나 사전에 저작권 등 활용에 관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수적이라는 의견 제시

영상에 참여한 모든 창작자들에게 미리 저작권에 대한 기간이나 활용용도나 그런 것들을 합의한 상태에서는 그게 다른 재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로 자기 실적을 증빙하고 자기를 더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건 충분히 가능. (실연예술인5)

무대공연을 라이브로 촬영해서 그 전체 공연을 오픈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하이라이트 영상은 홍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실연예술인6)

- 기획/교육예술인은, 선 구축, 후 용도 고민보다, 먼저 플랫폼/DB 구축의 목적 또는 활용 용도를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효과나 지원 사업 등 혜택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예술인들의 참여나 지속적 운용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라는 의견임

왜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아! 내가 저기에 명단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밝혀 주면 성남문화재단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줄까요? (예술기획인5)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를 해줄게!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혜택이나 이런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게 같이 되어야, (예술기획인5)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구축만 해 놓고 사업 자체가 없다면 네트워크를 만들어봤자! 라고 생각해요. (예술기획인3)

제2절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1. 조사 개요

- 정량조사에 나타난 주요 발견 사항, 발견 사항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한 예술인 대상 집단심층인터뷰에 이어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집단심층인터뷰를 실시
 - 주요 내용은 지역문화재단의 역할과 정체성 확립, 향후 성남문화재단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청취

일시/장소	참석자	진행
2020년 12월17일(목) 14시:00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이사회회의실	전문가1(홍익대 교수) 예술경영지원센터 기관장 경력. 지원사업 노하우 보유	외부 전문 모더레이터
	전문가2(전 지역문화진흥원 부장) 지역문화재단 실무 전문가	
	전문가3(숙명여대 교수) 국내 문화정책 관련 전문가	

2. 조사 결과

1) 기초지역 문화재단의 역할 및 기능

- 중앙정부 혹은 광역 차원의 문화재단과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역할은 개념적으로 구분 가능하나 실질적 역할은 일정부분 중복(특히 기초문화재단이 부재한 경기도 북부의 경우, 경기문화재단이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수행),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수직적 전달체계로 정의하기보다는 수평적 협업체계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 그러한 수평적 협업체계의 구체적 방법론으로 다자간 협력구조의 구축이 제시됨
- 중앙정부나 광역 재단은 자원 혹은 예산 구조 상 영역별 사업이나 지원이 가능한 반면, 기초 문화재단은 포괄적 영역의 사업 수행이 불가피. 다만, 중앙이나 광역 차원보다는 지역민과 접촉의 빈도나 강도가 강한 특성이 있음

-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속성 상, 활동의 중심을 특정 사업보다는 지역민, 즉 지역예술인으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광역단위 재단보다 사업/프로젝트 지원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경쟁 우위를 갖기 어려움

광역기초 단위로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달체제가 개념/운영관리 측면에서는 명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상향식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향식이 필요하고, 명확하게 구분이 된 이분법적인 구분은 어렵다. 차라리 전달체제가 아니라 협업체제가 더 맞다
방법론으로는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더 구체적인 세부 방법론으로는 일종의 다자간 협력구조요. (전문가 2)

중앙정부 차원은 사실은 영역별 정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문화정책, 교육정책, 국방정책 등 다 있잖아요. 하지만 지자체에 내려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통합행정이라고 하는데요.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거거든요. 기초에서는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그런 부분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역주민들 정책을 펴면서도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3)

- 따라서,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기존 예술 지원이 사업/프로젝트 지원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예술인 지원 중심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볼 수 있음
- 즉, 중앙정부나 광역은 ‘사업/프로젝트 지원’이, 기초는 ‘예술인’, 또는 ‘예술활동 기반의 장기적 지원’이 활동의 중심이라 할 수 있음(그 한 예로 ‘예술인지원센터’를 기초 지역인 성남에서 실시)

기존의 지원이 프로젝트성 지원이었고,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술향유자를 위한 지원이 되잖아요. 이제는 기존의 프로젝트성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기초에서 맡으면 어떨까?
예술인지원센터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6개 정도 광역에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것들을 성남에서 먼저 이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중앙정부나 광역에서는 프로젝트 지원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이고요. (전문가 1)

2) 문화예술 환경 변화 및 성남의 도시 특성

(1)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 코로나 사태와 같은 환경의 변화

-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고도의 정보통신 기술 발달과 연계된 예술 환경의 변화에 예술인이 개인적으로 적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따라서 지역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적 관점에서는 “경험 → 교육 → 지원”의 단계로 이루어진 종합적 지원체제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기초단위 문화재단이 중점을 두어야 할 지역 예술인과의 점점 확대, 혹은 예술인 그 자체를 위한 지원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으로 고민,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신기술에 대해서 개인이 혼자 못 하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전문가 2)

- 더불어, 예술인을 위한 정보의 전달체계도 변화한 환경에 맞추어서 새롭게 구축할 필요성 있음. 2006년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의 정보획득 채널과 2020년 조사 결과에서는 예술인 정보획득 채널이 완전히 다름. 즉, 기존의 오프라인 채널인 인적 네트워크 중심에서 온라인 네트워크 중심으로 이동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의사소통 체계, 정보전달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성남 지역의 전문예술인과 온라인 상에서 소통할 수 있는 창구(플랫폼,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등)의 구축과 구축에서 끝나지 않는 지속적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응답예술인들의 51.8%가 예술인등록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하지 않은 제일 큰 이유가 온라인 상 등록하는 방법을 몰라서. 그러므로 성남문화재단이 그런 측면에서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그리고 다음은 지원정보라든지 지역 예술계에 대한 소식들이나 정보들에 대한 전달체계나 정보제공 채널을 여기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전문가 2)

- 현재의 코로나사태가 아니어도 기존의 예술 전달 패러다임은 이미 변화하고 있었다고 진단. 그런 맥락에서 기초단위 지역이지만 그 특성은 기초단위 지역을 넘어서는 도시 특성을 잘 활용하여, 이러한 변화들을 반영하는 인프라 측면의 체계적인 시스템, 예를 들어 ‘성남융복합예술지원센터(가칭)’ 같은 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선제적으로 시도하는 기회의 측면으로 현재의 상황을 해석할 필요도 있음

성남융복합예술지원센터’ 이런 것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 못 하죠. 성남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린

츠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이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것 뿐이잖아요. (전문가 1)

- 나아가, 기술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정보통신적 도시 이미지와 질 높은 공연 인프라를 갖춘 성남에게는 새로운 예술정책 모델 구축의 기회가 될 수 있음. 현재까지 판교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기업들과 성남 예술계와의 실질적 교류는 활발하지 않으나, 예술과 기술의 융복합 사례를 선도적으로 시작하여, 성남 문화예술 정책 방향성의 토대를 구축하는 기회로 활용 필요.

마포문화재단이 공연장에 관객이 안 오니까 일단 예술인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홍대 앞 등으로 먼저 다가가서 야외공연을 하더라고요. 반응도 좋은 것 같고. 또한 성남이 판교로 인하여 IT쪽에 강한 도시로 이미지가 있는데, 그건 기업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뭐를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AI 전시회나 AI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독보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판교 기업들이 참여하거나 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관심을 갖거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연계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좋지 않을까요? (전문가 3)

성남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실제로 구현하게 되면 기업들도 조금씩 참여가 있지 않을까?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성남아트센터가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공연을 갖고 오는 그런 공연장으로 브랜딩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전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전문가 1)

(2) 성남의 도시특성: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 도시로서의 성남은 그 외형적 행정 단위는 기초지역이나 전북 도청이 있는 전주시보다 인구 수가 많고 특례시 지정이 검토되는 등 실질적 측면에 있어서는 광역적 성격이 강한 특성을 띄고 있어, 도시의 행정 형식과 실질이 불일치하는 상황임. 즉, 행정 측면에서의 정책의 목적, 예산, 절차는 실제 도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큼

성남시는 세부 행정 구역인 3개 구간의 격차가 여러 측면에서 큰 상황임. 그러므로 문화예술적 측면에서, 구도심 지역인 2개 구와 신도심 지역인 분당구와의 격차를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하는 측면과 동시에 각 지역의 특성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주요한 화두로 대두.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자산이 아니에요. 기업 이해관계와 별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없어요. (전문가 2)

성남이 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구 별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 구 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 어떻게 잘 살려 갈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융화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특례시를 꿈꿀 만한 기초자치단체 라고 하는 특성, 규모나 재정규모나 그리고 IT같은 첨단 특성. (전문가 3)

기초지자체 중에서 예산도 제일 상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초지자체와 다른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술지원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만든다고 해서 다른 데서 그걸 따라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만의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3)

- 분당구를 중심으로, 예술 향유의 기대 수준은 광역시에 버금가고(또는 광역시적 특징을 갖고), 더불어 서울에 인접해 있어 그러한 성향은 더욱 강하나, 그에 비하여 그러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 자체적인 예술 공급 생태계는 미성숙한 상황임
 - 이에 따라 예술향유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예술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필연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만큼 지역 내 전문예술 생태계 혹은 지원 체계의 발달은 상대적으로 미발달하기 쉬운 상황. 따라서 예술활동의 정책적 지원도 결국에는 향유적 관점의 프로젝트성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고, 기초단위 지역으로서 중요한 지역 내 예술인과의 접점, 접촉의 강도 측면에서 결핍이 있을 수 있음.
- 한편, 판교의 정보통신 집적발달은 성남 도시 이미지 형성의 강력한 요소 중 하나이나, 지역 내 기업들의 이해와 성남시의 문화예술적 직접적 이해관계가 부재하여 성남시의 현재 자산으로 간주하기 어려움
 - 그러나 일반 대중적인 성남의 도시 이미지 형성에 판교의 정보통신 이미지가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며, 이를 예술과 기술의 성공적 융합 사례를 이용하여 실질적 관계로 설정할 수 있다면, 향후 판교의 산업계와 성남의 예술계가 활발히 상호작용할 수 있는 선행적 이미지 기반이라 할 수 있음

성남이 판교로 인해서 IT쪽에 강한 도시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그건 기업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지, 뭘을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미지는 일단 말이죠. 그래서 직접 기업들하고 함께 하거나 또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여건을 만드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그들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AI 전시회나 AI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성남에서 독보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판교테크노밸리가 거기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그러한 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판교 기업들이 참여하거나 이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관

심을 갖거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연계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전문가 3)

- 상기와 같은, 예술과 산업 혹은 기술의 융합을 시스템적 인프라로 구축하는 시도의 한 예로 '성남융복합 예술지원센터(가칭)'의 선제적 시도 검토 필요

저는 일 때문에 경기문화창조허브 거기에 자주 가거든요. 거기가 예술과 다른 거를 융합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가끔 예술 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뭐 속된 표현으로 쪽을 못 쓰는 편이에요. 창의성은 좋은데, 예술 하시는 분들은 예술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거기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 하면, 특히 아시아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판교 일대가 전부 다 그런 첨단기술하고 결합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유독 예술 분야는 적다고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융복합예술지원센터' 이런 곳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 못 하죠. 어려운데... 성남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링크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분당, 판교, 구도시, 이렇게...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될까? 저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첨단기술과 융합된 그런 예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고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탈바꿈이 필요. (전문가 1)

(3) 성남 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광역단위 같은 기초단위 문화재단

-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성은 이원화

- 그 첫 번째는 창작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의 틀을 유지하되, 예술인의 지원 절차별 혹은 단계별 선택 재량을 넓혀서 예술인의 실제 상황과 필요에 부응하는 지원체계나, 청년/중견/원로 등의 예술 생애별 연속 지원 시스템으로 유연한 지원체계를 갖추는 것임
- 두 번째는 예술인 개인이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시대적 전환점에서 예술인이 필요한 기술과 예술의 접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다음의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의 새로운 역할을 위한 준비 등을, 경험 → 교육 → 지원의 제반 단계로 이루어진 종합적 지원체계로 구축하는 것임
- 이는 지역 내 예술인과의 장기적 점점 강화를 위한 기획사업으로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음
- 다만, 두 번째 지원 체계의 경우, 속성 상 장기적 관점에서의 추진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성과 역시 장기적으로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 경우, 이런 저런 내외의 상황으로 추진 동력을 잃게 될 가능성 높아, 대외적 측면에서, 제도적 측면에서 추진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저는 이원화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예술영역에 대한 지원, 예술창작지원을 가되 지금처럼 A to Z 기획, 실연, 평가까지 다 이런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어떤 한 미술가가 자기 창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을 하되, 기획과 대관과 홍보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관

만 지원을 하던가, 홍보만 지원을 한다던가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분야를 크게 나눠 두고 블록식으로 선택하게 한다던가 해서 개인창작에 대한 예술인들의 지원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이라든지 예술의 전환점에서 필요한 기술과 예술의 접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 다음의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의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부터 기획사업으로 가자는 거죠. 이전 A to Z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공공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예술창작지원은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을 주된 목적으로 가고, 기획형 사업은 일단 성남시의 공유재라고 봐야 될까요? (전문가 2)

- 한편 예술인 지원사업의 이원화는 단순한 ‘지원금 지급’ 방식이 아니라 ‘예술인과 접점을 강화’하거나, ‘자체적인 계’를 이루어 하나의 생태계를 이루도록 지원하는 관점으로 검토하는 것도 가능. 성남은 기초단위 지역이지만, 인구, 예산, 지역 산업적 특성 등에서 충분한 자체 순환구조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자생적 ‘예술 생태계’를 이루는 것이 가능
- 반면, 경제적 측면에서의 자립성을 기초단위에서 획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성남이 예술적 관점에서 자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의견이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예술인 협동조합, 경기문화재단의 자립지원금 등과 같은 형태 거론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을 다양화 하면 어떨까? 지역 예술인들이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꼭 지원금 지급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죠. 지역주민들과 만나게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나름대로 생산된 것들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창작 작품이 유통, 소비,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 (전문가 3)

중요한 것은 자립성 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큰 측면에서 보면 예술시장,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예술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데... 우리도 그렇지만 공공지원에 의존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술시장에 그런 지역적 형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전문가 2)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전문가 1)

예를 들면 요즘에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기존에는 공방에 그쳤지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협동조합 형태가 된다던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원래 예술인복지재단처럼 복지에 써라! 라고 돈이 나왔는데, 그거를 자립지원금 이라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형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전문가 1)

- 지원의 성과가 직접적이고, 상대적으로 명확한 사업/프로그램 대상 지원보다 성과 확보가 장기적인 기반/역량 강화, 점점 확대 등의 지원 체계가 정립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외부에서 성공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지원 체계 모델의 확립이 필요.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한 기초지역 문화재단의 환경을 감안할 때, 장기적인 관점의 지원 체계 구축은 우호적인 외부 성과 확보가 관건임. 더불어 재단 내부적으로도 일관되고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얻기 위해서는 평가제도에의 반영 등 작동기제의 제도적 장치가 필요

전국적으로 어떻게 성공하는 모델 사례들이 있느냐? 이것들이 사실은 성과지표로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전문가 3)

기초지자체 중에서 예산도 제일 상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초지자체와 다른 위치에 있어요.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술지원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만든다고 해서 다른 데서 그걸 따라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만의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 3)

가치만 제시했을 때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구현이 안 되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 연말 연초 포상이나 시장님 상이나 그런 거 할 때 얼마만큼 예술인들의 교류, 협력에 노력을 했느냐?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전문가 2)

제 경험은, 외부성가로 풀었어요. 그래서 장관상 2개 따오고 국무총리상 1개 따 온 거예요. 성과라는 게 가시적 인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스피커들, 오늘 오신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좋은 선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모델. (전문가 2)

- 전반적으로 신진/청년 예술인에 대한 지원은 어느 정도 마련된 것으로 평가. 오히려 중견 이상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부족하다는 판단도 있음. 기계적인 연령 구분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지원의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에 따른 지원 대상 예술인을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보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특히 강남과 인접한 성남의 특성 상, 지가의 상승으로 인한 청년층의 전출로 인하여 초고령화 문제는 예견이 되며, 이에 대하여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성남지역에서 살고, 먹고, 활동하게 하는 대안, 즉, 비즈니스 모델이나 창업 지원과 같은 고민들이 있어야 하며, 이러한 형태로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지원 체계를 제시

그런데 신진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신진이냐? 예를 들면 30대도 신진이 될 수도 있고. 신진이

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예술인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사실은...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전문예술인이 결합될 수도 있고 생활예술인이 결합될 수도 있고 신진예술인이 결합될 수도 있고. (전문가 3)

제가 얼마 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할 제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진한테는 많이 되고 있는데, 중견 이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전문가 1)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성남은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못 와요. 여기는 초고령화가 진행될 곳이라 성남문화재단은 고령화정책을 고민해야 되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성남지역에서 살고 먹고 활동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게 창업도 공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 나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조금 세부적으로 오늘 관련된 논의로 가 보면, 예술창작, 생활문화, 이게 정책입장에서만 구분이 되는 것이지, 실제로 현장에서 잘 안 되니까 통합으로 가자! 그렇게 참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구 별로 아니면 동 별로 예술인, 주민, 기획자, 교육.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도 좋다는 생각입니다 (전문가 2)

- 앞서의 이원적 지원 체계, 통합적 지원 체계의 근원적 기반으로서 지역 내 예술인에 관한 지속적 조사를 통한 정보의 파악과 이를 외적으로 실현하는 플랫폼 역할이 문화재단만이 할 수 있는 차별적 역할임

그리고 세 번째는 재단의 역할이 플랫폼을 한다고 하면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성남문화재단 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오늘 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그러려면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연결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하는 지원사업 외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요구되는 재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가 2)

1.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 성남의 전문 예술인들은 활동하는 장르에 따라 인식과 행동에서 차이가 있음.
-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단위 예술활동의 크기가 크고, 복잡한 실연 예술인들이 가장 강한 반면, 예술활동을 후방에서 지원하는 지원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인으로서의 자아가 가장 낮게 형성되어 있음. 이로 인하여, 타 예술인/지역과의 협업의 강도, 성남에서의 활동 정도, 환경으로서의 성남에 대한 평가 등에서 차이가 존재
 - 이러한 차이는 예술인활동증명에의 등록, 이용의 정도에도 연계가 되어, 실연 예술인들은 가장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으나 지원분야 예술인들은 등록과 이용의 정도가 미미한 수준. 다만, 예술인 등록 자격에 관하여는 공히 현재의 기준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
- 한편, 최근 서울, 경기 등 일부 광역단위 문화재단의 지원사업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으며, 그 변화의 전개는, 행정적 절차 측면에서 예술인의 입장이나 시각을 반영하고, 지원의 실제 측면에서 지원의 체계성, 다양성, 실질적 효과, 시행의 신속함이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라는 의견. 그에 비해, 성남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광역단위 문화재단보다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 물론, 이러한 인식은 종사하는 장르에 따라서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실연예술인, 창작예술인, 지원예술인 순으로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부정적 인식을 갖고 있음
 -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첫 번째로, 생활예술 중시로 인하여 전문예술 지원사업이 후순위로 밀린다는 소외감이라 할 수 있으며, 두 번째는 그 나머지의 전문예술 지원사업의 전개도 폐쇄적이고, 집행이 경직적이라는 의견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다만, 예술인으로서의 정체성, 자의식이 가장 낮은 지원 예술인들은 지원사업 이전에 성남문화재단과의 소통에 가장 목말라 있음
- 참여 예술인 전체적으로, 신진예술인 발굴/육성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고 있으나, 동시에 현재 광역단위 지원 기관을 중심으로 신진예술인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충분히 구축되어 있기에 앞으로는 중견, 원로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체계의 구축에도 자원을 할당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 다만, 성남문화재단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지원체계가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이 부분에도 적용되어 신진예술인 육성 지원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

- 종사하는 예술 분야별로 필요로 하는 지원의 무게추가 다소 차이가 보였는데, 창작분야 예술인들의 경우 현재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레지던시 공간으로 집약할 수 있음. 다만 단순한 공간의 제공보다는 레지던시 공간 내에서의 운영 프로그램, 숙식, 비평가와의 매칭 등, 정교하고 체계적인 시스템적 레지던시 지원을 필요로 하였으며, 이에 비해 실연분야 예술인이나, 지원분야 예술인들은 연습, 보관 등 보조적 차원에서의 공간 지원 필요를 언급하였음
- 한편, 실연 분야 예술인과 지원 분야 예술인들은 창작 분야 예술인보다 첨단기술, 코로나19 사태 등 예술환경의 변화를 더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 변화를 수용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처하기 위한 새로운 역량의 강화, 예술활동의 새로운 기반-예를 들어 플랫폼-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더 강하게 체감하고 있음
 - 이러한 지원을 위한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해서도 정보 활용의 명확한 목적 제시, 저작권 등 몇 가지 관심사항의 해결을 전제로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임
- 전체적으로 창작 분야 예술인들은 레지던시 지원과 같은, 기존 창작활동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실연이나 지원 분야 예술인들은 예술환경 변화 대응에 필요한 인프라 또는 역량의 강화 등과 같은 장기적 지원의 필요성을 보다 중시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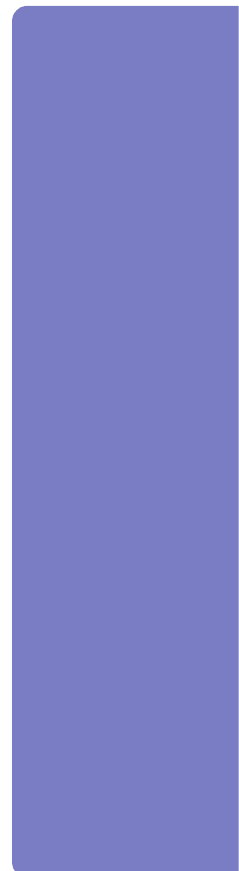
2.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 중앙이나 광역단위의 기관보다 지역민과의 접점이 강력한 기초단위 문화재단은 자원의 가용성 측면에서 광역단위 기관, 문화재단보다 사업지원·프로젝트 지원에서 경쟁적 우위를 갖기 어려움. 따라서 기초단위 문화재단의 지원은 기존 단위 사업, 프로젝트 중심의 지원에서, 예술인 지원 강화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함
- 이러한 인적 교감의 강화를 감안한다면,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향후 기본 방향은 다음과 같은 이원화로 요약할 수 있음
 - 첫째, 창작 지원 등 기존 지원사업의 틀도 일정 부분 유지하되, 예술인의 필요성에 따른 선택 재량을 확장하거나, 상대적으로 소외된 중견, 원로 지원을 보강하고, 둘째, 예술인 개인차원에서 대응이 곤란한, 환경 변화에 따른 장기적 역량/기반 강화 등과 같은 지원은 예술인들과 접점을 강화하는 방식의 기획지원 형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앞서의 기획지원을 고려해야 할 세부 요소 측면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고도의 기술발달로 인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의 강화를 경험 → 교육 → 지원의 체계적 단계로 제공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코로나19 사태가 아니어도 이미 예술 유통의 구조는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이러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 세 번째는 기존 성남의 이미지 상 강점인 정보통신 산업이 집적·발달된 도시라는 인식을 예술계와의 협업으로 현실화 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음
-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에 고려할 상기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현재 광역단위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술인지원센터를, 기초 지역인 성남문화재단에서 실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있음
 - 또한, 상기의 요소들이 새로운 기술에의 적응 또는 기술과 예술의 융복합 등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지역 특성 기반 예술인지원센터 유형으로서 (가칭)성남융복합예술지원센터 등을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임
- 다만, 그 결실이나 성과가 측정이 어렵고, 장기적인 속성을 띄는 기반/역량 강화 등의 지원 체계는 지속적 추진의 동력을 잃기가 쉬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외부로부터는 성공적인 지원체계라는 평가를 획득하고, 내부적으로는 추진 지속성 확보를 위한 경영 평가에의 반영을 선행할 필요성이 있음

제4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결론

1. 성남 예술인 DB의 체계적 관리 필요성

1) 예술인 DB 관리 필요성

- 문화예술 환경과 생태계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을 위해 지역 문화예술인에 대한 정확하고 구체적인 파악이 시급한 상황임
- 이러한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지역 문화예술인의 지속적인 정보 축적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관련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음
 - 지역 문화예술인 기초정보 및 문화예술 활동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기초 DB 구축을 통해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적에 기반한 공정한 사업진행의 지표로 활용 가능
 - 성남 문화예술 핵심자원인 문화예술인의 정보를 지속적으로 축적·관리함으로써 성남 문화예술자원 아카이브 구축의 기반 마련
 - 향후, 재단 문화예술사업에의 참여/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 니즈를 DB에 반영함으로써 성남 예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예술정책 수립 가능

2) 예술인 DB 추가 대상군

- 2020년 10월 기준 예술활동증명 완료 성남 전문예술인 중 희망자
 - 12개 분야(문학, 미술, 사진, 건축, 음악, 국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만화, 복수) 1,734명으로 전체 예술활동증명 완료자 총 94,500명 중 약 1.83%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관련 성남 전문예술인 중 희망자
 - 2019년 경기도 예술인 실태조사 응답자(n=2,000)의 거주지를 살펴보면, '고양'시가 8.4%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수원'(6.5%), '성남'(6.0%), '용인'(5.9%) 등의 순으로 많았음

○ 성남소재 예술인 단체 소속 전문예술인 중 희망자

- 성남예총 9개 지부 회원 총 1,900여명, 성남민예총 8개 위원회 540여명, 시립예술단 총 190여명, 성남문화예술공유네트워크 산하 42개 단체 소속 회원 580여명 등

○ 성남문화재단 사업 유관 전문예술인 중 희망자

-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 참여 전문예술인
- 성남문화재단 전시, 공연, 교육, 각종 활동 참여 전문예술인

○ 전문예술인과 경계에 있는 기타 예술인 중 희망자

- 향후 신진예술인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이 큰 성남소재 예술교육기관 학생, 경력단절 예술인, 기타 예술활동 경력이 오래된 지역 생활예술인 등과 연계 모색을 통한 외연 확장 필요

3) 국내 유사 DB 시스템 사례 분석

○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 「예술인복지법 제6조」¹⁾에 근거하여 마련
- 예술인의 포트폴리오 관리를 중심으로 예술 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입체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설계되었으며, 장기적으로는 사회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예술인 경력 증명 방안을 제도적·기술적으로 모색해 나가는 것을 미션으로 삼고 있음
- 예술인복지재단의 사업을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며, 예술인복지재단의 각종 사업 참여 기록을 이력으로 남겨 개인 포트폴리오로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한 구인·구직이 이루어질 수 있게 단계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공간 및 협회DB, 예술 현장의 목소리를 매개하는 콘텐츠 등 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 아카이빙 구축 사업도 진행²⁾

1) 제6조(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조치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술인이 고용,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받지 아니하도록 예술인의 경력 증명 등에 필요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2) 출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경력지원	복지지원	알림·상담	예술교류정보	뉴스레터	나의활동정보	온라인지원관리
예술활동증명 표준계약서	창작준비금지원 산재보험 사회보험료지원 예술인패스 의료비 지원 예술인생활안정자금	공지사항 성폭력 피해지원 상담·컨설팅 예술인 신문고 예술인 심리상담 자주하는 질문 1:1문의	예술활동공간 협화·조합 기타		내 정보 관리 내 이력 등록·수정 상담·신고 내역 내 1:1문의 답변 예술활동증명 진행확인	지원신청

출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그림 4-1〉 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 구성

○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의 서비스 항목

- 예술활동증명에서 예술인 복지 지원, 단체나 공간 지원 등과 같은 정보 제공
- 예술분야의 일자리 정보를 지원하는 ‘구인구직 정보 제공’과 ‘통합로그인’은 현재 개발 중

〈표 4-1〉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서비스 항목

메뉴	내용
포트폴리오 관리	-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지원을 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예술활동증명을 예술인 포트폴리오 구축 사업으로 연계 지원 - 예술활동증명을 위해 등록해야 하는 각종 이력을 개인 포트폴리오로 쌓아나갈 수 있으며 예술인이 직접 이력을 추가로 등록할 수도 있음
예술인 복지 원스톱 서비스	- 긴급지원, 산재, 의료, 저작권 상담, 불공정행위신고 등 예술인복지재단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1:1 문의 등을 통해 맞춤 지원
구인·구직 정보 제공 (개발 중)	- 노동부의 워크넷과 협력하여 예술적 재능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며, 향후 포트폴리오 공개 및 검색을 통해 구인·구직 활동이 자생적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계획 중
온라인 지원관리	- 예술활동증명 유효자를 대상으로 하여,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매년 진행하는 다양한 복지 사업에 지원신청이 가능
예술 활동 촉진 정보 아카이빙	- 예술 활동의 지속에 도움이 되는 협회와 협동조합 등의 단체 정보, 예술인 교류 및 전시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공간 정보 등을 지역과 예술 장르에 따라 색인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그 중 중요 정보를 심도 깊은 콘텐츠로 가공하여 기사화된 형태로 소개
국가문화예술지원 시스템과의 통합 로그인 제공 (개발 중)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등록한 개인 이력이나 사업 지원 이력 등을 사용자 동의하에 자동으로 끌어와 이중으로 등록 작업을 하지 않고도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게 지원 - 또한, 향후 통합 로그인 개발을 통해 동일한 아이디와 패스워드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출처: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kawfartist.kr)

○ 지자체별 유관기관들의 지역 예술인 DB구축

- 각 지자체 유관기관별로 지원사업 등 관리를 위해 지역 예술인/예술단체 기본 및 활동정보를 중심으로 DB를 구축하고 있음

〈표 4-2〉 지자체 운영 예술인 DB 사례

지자체	DB 운영 유관기관	지자체	DB 운영 유관기관
서울시 구로구	구로문화재단	강원도	강원문화재단
강원도 원주시	원주문화재단	충청남도	천안문화예술뱅크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전라남도	완주문화재단
경기도 화성시	화성시문화재단	경상남도	경남문화예술진흥재단
충청북도 청주시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강원도 강릉시	강릉문화재단
서울시 도봉구	도봉문화재단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문화예술재단
전라남도	전남문화예술재단	충청남도	공주문화재단

○ 예술인 DB 구축 목적에 따른 DB 메타데이터 요소의 차이

- 강원문화재단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아카이빙 메뉴로 DB를 제시하고 있으며, 강원 지역별 문화예술행사,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정보와 함께 문화예술인 정보를 구축하고 있음.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DB는 활동분야, 활동지역, 전문분야, 개인정보, 이력/활동사항 외에 해당 예술인과의 연락이 가능한 이메일과 연락처까지 제공



〈그림 4-2〉 강원문화재단의 문화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성 요소

출처: 강원문화재단홈페이지(www.gwcf.or.kr)

- 도봉구 도봉문화재단의 경우 별도 문화예술 DB 사이트를 구축하여 문화예술 인물, 단체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음. 문화예술인의 출생연도와 강의 및 행사 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까지 제시하고 있어 일자리와 자연스럽게 연동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이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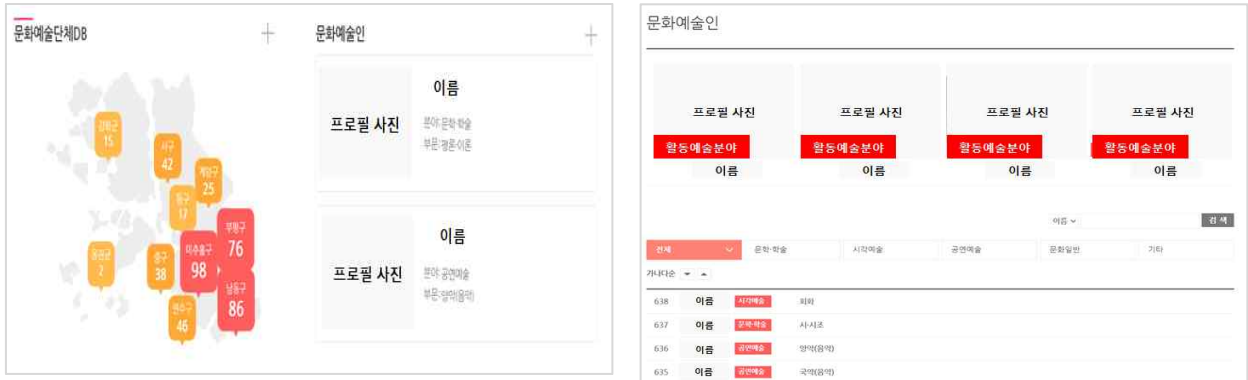
- 도봉문화재단 문화예술 DB 등록 단계는 1단계 기본 정보 및 활동증명 입력, 2단계 예술활동증명 내용의 내부 검토, 3단계 약 3~4주후 결과 공지(문자 및 이메일)의 총 3단계로 구성



〈그림 4-3〉 도봉구 문화예술DB 홈페이지

화면출처: 도봉문화재단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www.dobongdb.co.kr>)

- 인천문화재단은 인천문화예술 통합DB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각 기관별로 산재되어 있던 인천문화예술 정보를 연계하여 통합된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하위 항목 중 문화예술인 DB가 포함되어 있음
- 인천문화예술인 DB는 지역 예술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 중이며, 현재 인천에서 활동 중인 문화예술인 수(2021년 1월 기준 63명), 활동 부문, 예술 경력 등의 항목으로 구성됨
- 인천문화예술 통합DB시스템은 등록된 문화예술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기관에서 원하는 페이지에 노출시키기 위한 시스템으로 기관 정보뿐 아니라 기관별, 지역별, 주제별 정보들을 원하는 방식에 따라 쉽게 찾아볼 수 있음. 수집된 문화예술정보는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DB사이트 및 아이큐애플을 비롯하여 연계된 다양한 페이지에서도 검색이 가능함
- 일반 사용자도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DB사이트 및 아이큐애플을 통해 운영자 승인 후 문화예술정보를 등록이 가능하며, 권한을 부여받은 기관 담당자의 경우에는 별도 승인 없이 등록 가능



〈그림 4-4〉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DB 사이트 IQ와 문화예술인 DB

화면출처: 인천문화재단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http://www.ifac.or.kr>)

○ 예술인 DB 구축 목적에 따른 관리방안 차이

- 정보 수집·보존에 중점을 둘 것인지, 지역 문화예술계와의 연계를 위한 맞춤 정보 제공으로 확장할 것인지 등 DB 구축의 목적에 따라 DB의 관리 방안도 달라질 수 있음

○ 성남 문화예술인 DB 구축 시 시사점

- 문화예술분야는 범주가 광범위한 뿐만 아니라 장르별 고유한 특성이 중요하기 때문 성남의 지역적 특성과 함께 장르별 문화예술인 DB가 잘 반영되도록 해야 할 것임
- 중앙 및 광역, 그리고 타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DB 항목과 범주를 구성
- 이를 통해 지역의 DB에 머물지 않고 중앙(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의 예술인 지원 사업과의 연계 활성화가 가능하며, 성남 예술인의 안정적 예술활동과 육성에 바람직
- 타 지역 예술인 DB와 연동함으로써 지역 간 예술활동 교류를 위한 인적 자원 공유도 가능

4) 국내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사례

○ 주요 기관별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사례

- 기관별로 DB를 구축하는 목적에 따라 세부 항목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공통적으로 예술인 개인에 대한 기본정보와 예술 활동 관련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그 외 기관 및 지역의 특화 정보를 추가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남문화재단 DB 역시 같은 맥락에서 중앙과 타 지역과 연계 가능할 수 있도록 공통 DB의 기본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하고 향후 지역성을 반영하여 확장 메타데이터 요소 추가 가능

〈표 4-3〉 주요 기관별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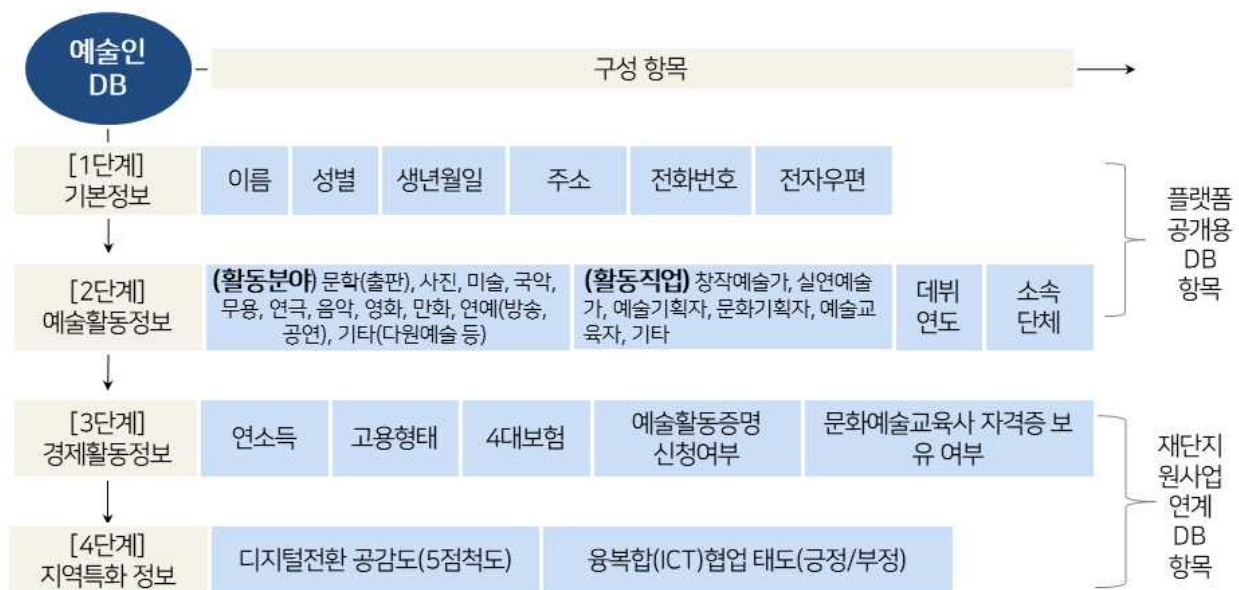
구분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예술활동증명 DB	인천문화재단 문화예술인DB	도봉문화재단 문화예술인 DB
기본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주민번호 국적 필명/예명 영문명 주소 전화번호(휴대번호) 전자우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프로필사진 이름 일반전화 홈페이지 주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 출생연도 일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 주소
예술활동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요 예술활동 분야 (사례: 연극 등 장르) 예술활동유형 (사례: 기술지원/기획 등) 주요 활동분야 (사례: 연극회사 운영 등) 데뷔년도 작품명 주요이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활동부문 자기소개 주요작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술활동분야(1차 분류와 2차 분류로 구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 분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시청각미디어, 디자인, 다원 및 기타 - 2차 분류: 1차 분류 항목별 하위 항목으로 구성 활동내역
기관 및 지역 특화 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자 역할(사례: 연극기획) 국가무형문화재 이수 여부 장애인여부 예술인패스 보유 여부 갱신주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천과의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가능여부 행사가능 여부

2. 성남 예술인 DB의 관리체계 제안

1) 성남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구조 설계(안)

- 중앙과의 연계를 고려한 예술 활동 분야와 직업에 따른 분류
 - 정책의 일관성이나 거시적인 정책지원에의 활용을 위해 중앙기관과의 연계를 고려 필요
- 문화예술인으로서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성남 지역성이 반영된 정보들을 축적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확장·관리할 경우 문화예술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 좀 더 효율적인 예술인 지원정책을 마련하기 위한 예술인 예술활동 정보를 축적할 수 있도록 관련 메타데이터 요소의 지속적 확장·관리가 필요함

-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중앙 및 타 지역 문화예술인 DB 사례를 기반으로 성남의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요소를 정보 유형에 따라 4단계로 구분하여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1단계: 기본정보) 이름, 성별, 연락처 등 지역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적인 기초 정보로 구성
 - (2단계: 예술활동정보) 활동분야, 활동직업, 소속단체 등 지역예술인의 기초 정보로 구성
 - (3단계: 경제활동정보) 문화예술활동 관련 경제활동과 사회안전망제도 이용 관련 정보로서 연소득, 고용형태, 4대 보험 가입 여부, 예술활동증명 신청 여부 등의 항목으로 구성
 - (4단계: 지역특화정보) ICT 융복합 기반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예술활동 정보를 수집해 문화예술인 DB 정보에 반영함으로써 향후 문화예술과 융복합 연계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
 - 1, 2단계는 문화예술인의 기초 활동정보에 해당되며 타 기관의 운영 사례와 같은 방식으로 문화예술인의 동의하에 플랫폼 공개 DB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3, 4단계는 성남문화재단지원 사업 설계 및 기획 시 내부 검토 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그림 4-5〉 단계별 성남 예술인 DB 메타데이터 설계(안)

2) 성남 예술인 DB 기반 플랫폼 구축

○ 추진배경

- 성남문화재단은 지역 전문예술인 지원의 출발점인 전문예술인 DB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체계화된 DB의 이용 확장, 전문예술인과의 접점 확대, 전문예술인 지원의 효율성 증대를 고려하여 전문예술인과 상호작용 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의 구축을 검토 중
- 예술인 및 예술단체 예술활동 정보를 개별 홈페이지를 찾아다니며 획득하는 것이 아닌 관련정보의

통합 플랫폼을 통해 편리하고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필요

○ 추진방향

- 웹서비스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동시에 구축하여 예술인 정보의 접근 편의성 제고
- Open API 서비스 개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공개 가능한 예술인 정보의 확산을 도모하고 이를 통한 유관정보의 확대·재생산 기반 환경을 구축
- 장기적으로는 예술인들이 스스로 문화예술 활동정보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추가하고 유관 정책사업을 연계함으로써 자발적인 예술인 정보 축적이 가능한 구조로의 전환 시도

○ 기대효과

- 문화예술인 DB 정보에 기반한 문화예술정책 수립으로 정책의 실효성 향상
- Open API 시스템 구축으로 공개 가능 유관정보 연계 통한 시너지 발생 가능
- 자체정보 등록시스템 구축 및 유관 정책사업 발굴로 자발적 예술인 참여 유도
- 재단 소식 등 등 주요 문화예술 정보의 공유 및 홍보채널로 기능 가능

○ 추진단계별 기간 및 비용

〈표 4-4〉 예술인 DB 추진단계별 기간 및 비용

단계별 기간	추진내용	추진비용
1단계 설계 (최소 5~6개월)	○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 서비스 모델 및 목표 기능 기획 - 서비스 업무 프로세스 표준 마련 - H/W 인프라 및 기반 S/W 규격/명세 마련 - S/W 서비스 기술표준 및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 향후 구축 정보시스템 관련 가이드라인 작성 - 홈페이지 등 내부 시스템과의 연계방안 마련 - DB 콘텐츠 메타데이터 정보 기본요건 마련 - 시스템 보안 규정 마련	ISP 수립 (4~5천만 원) 엔지니어 인건비 (월 최소 3백만 원)
2단계 구현 (최소 7~8개월)	○ 플랫폼 개발 - 장비와 인프라 도입 - UI/UX 설계(스토리보드 작성) - 운영 S/W 서비스 기능 정의 및 구축 - 어플리케이션(안드로이드/아이폰) 개발 - 기초 데이터 표준 정의 및 품질관리 - 홈페이지 연계	플랫폼 개발(1억) 어플리케이션 개발 (1억 4~5천만 원) 엔지니어 인건비(월 최소 3백만 원)
3단계 운영 (1~2년)	○ 플랫폼 유지보수 - 안정적 운영을 위한 H/W 인프라 보강 - 서비스 고도화(오픈API, 자체 DB 등록시스템) - 데이터 확대 생산 및 적용 - 이용자 서비스 보강 및 편의성 강화	오픈 API 개발(2~3천만 원) 등록시스템 개발(5~6천만 원) 엔지니어 인건비(월 최소 3백만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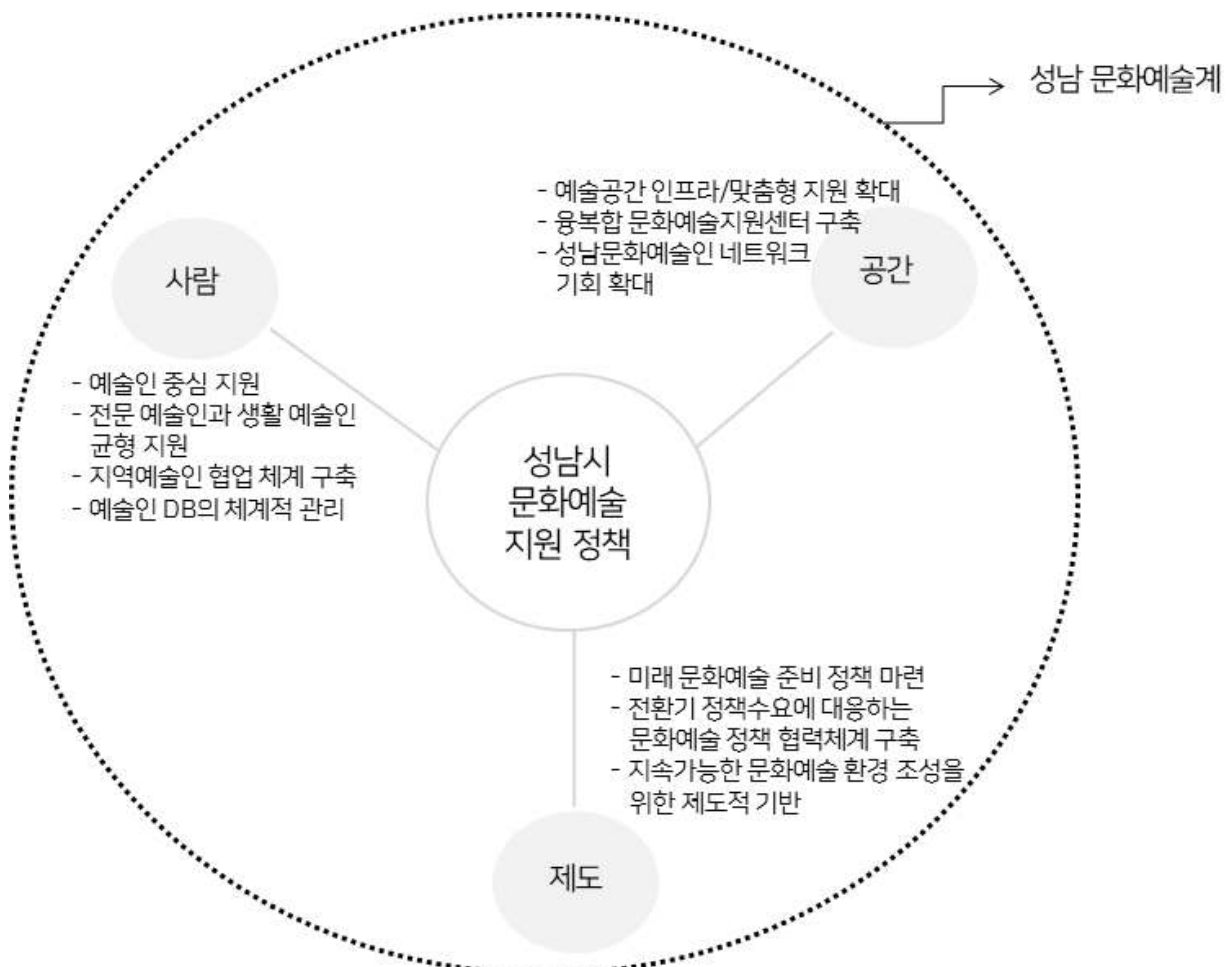
※ 인천문화재단의 플랫폼 구축사례를 참고하여 작성된 문화예술인 플랫폼 구축비용으로 총 3~4억 원이 소요되었고, 내부 전문가 부재 시 전담 인건비 최소 월 3백만 원 소요 예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플랫폼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운영인력 및 예산확보가 필수적임)

3) 성남 예술인 DB 향후 활용 방안

- 문화예술 분야 주요 기관의 정보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메타데이터 요소를 구성함으로써 중앙과 광역 단위 문화예술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기여
- 성남 지역 특화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활동 분야와 활동 직업, 경력 등에 맞춤형 성남 특화 융복합 문화 예술 프로젝트 등과의 연계 사업 기획이 가능함
- 성남 문화예술자원의 부분으로 공간, 행사 등 기타 문화예술정보와 연계하여 축적할 경우에는 성남시 통합 문화예술정보 포털의 주요 DB로 활용이 가능함

제2절 정책 제언

- 성남지역 예술인과 문화예술 분야 전문가 의견 등을 기반으로 정리한 성남 문화예술 발전정책 방향은 크게 ‘사람 - 공간 - 제도’ 차원에서 제안되었으며, 중장기적으로 성남 문화예술계라는 선순환적 생태계구축을 추구하고 있음
- 먼저 ‘사람’ 차원의 지원은 기존 프로젝트 중심 지원에서 예술인 중심 지원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며 지역예술인 협업체계 구축 등 거버넌스 환경 조성으로 연결됨
 - ‘공간’ 차원의 지원은 융복합예술지원센터나 레지던시 등의 물리적인 공간 지원뿐만 아니라 예술인 간 네트워크 연결 및 매개 부분 등에 대한 지원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임
 - ‘제도’ 차원의 지원은 대부분 중장기적 관점의 정책 과제 등과 관련된 내용으로 내·외부 문화예술 환경의 개선 및 지원사업 포함 정책사업 전반의 패러다임 전환과 관련된 내용임



〈그림 4-6〉 성남 문화예술 발전정책 방향

1. 사람: 생태계 구축을 위한 예술인 중심 정책으로의 전환

○ 예술인 중심 문화예술 정책으로의 전환

- 지역환경 변화와 문화예술 노동의 특수성을 반영해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활동이 가능하도록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예술인 생활주기에 기반한 지원제도 정비가 필요함
- 성남 문화예술 지원정책을 프로젝트 중심에서 예술인 중심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예술인의 자립이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 지원체계 마련 필요
-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고령 예술인 및 신진예술인을 배려한 문화예술정책 수립 및 관련 지역 문화예술 환경 보강이 필요함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의 균형적 지원

- 성남시의 문화예술정책은 그동안 생활예술인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온 경향이 크며, 실제로도 성남시의 생활예술 기반은 전국적으로 선도적이었으며 기반이 튼튼한 것으로 평가됨
- 반면에 전문예술인 대상 정책사업은 상대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전문예술인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타 지역(경기, 서울 등) 중심으로 활동을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성남 문화예술의 지역적 전통과 특성을 살려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이 상생하도록 양측 모두를 균형감 있게 지원하고 연계를 강화하는 허브로서의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함
- 전문예술인과 생활예술인 두 집단 니즈를 섬세하게 고려한 맞춤형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성남 지역 문화예술인 협업 지원체계 구축

- 지역 문화예술인 간의 협업 네트워크 구축으로 교류 활성화 및 협업체계 마련이 가능하며 지역 기술전문그룹과의 기술-예술 융합 R&D, 융합 프로젝트 개발 등으로의 확대도 가능함
- 다양한 분야 지역 문화예술인 연대를 통해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고 예술인 역할을 확장하여 지역사회 기반 공공예술 협업 프로젝트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환경 개선에 이바지
- 지역 문화예술인, 문화예술단체의 자생력과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발판으로의 협업 네트워크 활용 및 자생적인 유망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발굴, 육성 등 독려 지원

○ 성남 예술인 DB의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 정부의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기조에 따라 예술인 포함 지역 문화예술 자원의 DB의 구축은 지역 문화재단의 중요 과제가 되었으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
- 예술인 DB를 적극적으로 축적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인적, 물적 자원 투자가 필수적인 사항이므로 정책적 반영 필요

2. 인프라: 공간·네트워크 지원 문화예술행정기반 구축

○ 문화예술공간 인프라 및 맞춤형 지원 확대

- 설문조사와 집단심층인터뷰 공통 우선순위 지원 분야 중 하나는 예술활동 공간 지원이었음. 안정적 예술활동에 필수적인 예술활동 공간의 확보가 매우 어렵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아서 문화예술 생태계의 환경변화를 고려한 문화예술 활동공간 확대방안이 시급해 보임
- 안정적 예술활동 환경을 제공해줄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거주 가능 공간도 포함)의 존재는 단순히 예술활동을 지원하는 장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술활동과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도 발전이 가능함
- 재단 운영 공간을 예술인들이 다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이며 특히 성남아트센터의 지역 문화예술활동의 허브 공간으로 육성 필요성도 제기됨
- 지역 문화예술 활동공간별 특성에 맞춘 관리인력 양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노력 병행을 통해 공간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는 조직을 발굴하고 개발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창작과 교류 등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환경 조성 필요

○ 융복합문화예술지원센터 공간 구축

- 성남은 ICT 산업 기반 및 아시아실리콘밸리 성남 프로젝트 가동 등으로 이미 융복합 관련 인프라는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지역적 강점을 살린 지역예술인 연계 문화예술사업을 성공적으로 개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남. 지역 강점 기반 융복합 예술프로젝트를 지원/주도할 수 있는 '성남 융복합예술지원센터' 등 구축 검토 필요
- 관련해 지역예술인들을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기회들에 지속적으로 노출시켜 줌으로써 성남형 융복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개발 및 융복합 지원사업의 새로운 모델 제시 등도 가능함
- 궁극적으로는 시민과 전문예술인, 생활예술인, 지역 기업이 '융복합문화예술지원센터' 공간을 매개로 연결되는 새로운 기술기반 문화예술 생태계가 조성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성남 문화예술인 네트워크 기회 확대

- 지역 예술인 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영역이 지속적으로 지역현실에 맞는 교류의 “장(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더 나아가 정책수립 시 지역예술인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소통의 “장(場)”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정책 거버넌스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3. 제도: 문화예술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정책·제도 기반 마련

○ 성남의 미래 문화예술을 준비는 새로운 정책 마련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래 문화예술 생태계의 가치사슬 변화를 고려한 성남의 미래 문화예술 비전 및 사회적 가치 구현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정책 리더이자 지역 예술생태계의 주체로서의 재단의 지속적인 발전 및 역할 제고를 위해 미래 재단의 문화예술정책 핵심가치 및 정책 우선순위, 과제 등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변화를 고려해 미래의 문화예술을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포함하는 재단 정책사업 전반의 혁신 및 패러다임 전환 모색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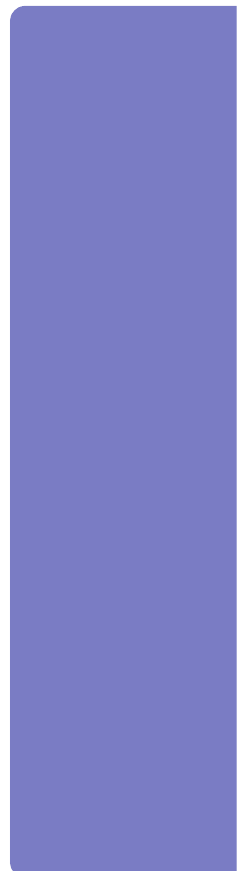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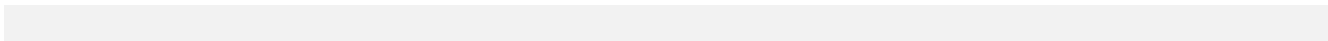
○ 전환기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문화예술 정책 협력체계 마련

- 미래 성남의 도시 위상에 어울리는 문화예술 비전 및 사회적 가치의 구현 방안 마련의 과정에서 재단의 고유 역할을 정부, 광역, 기초, 민간 등과 구분해 도출해내는 중장기적 협력구조 마련
- 사업 성격별로 유연한 운영형태 및 지원방식을 접목해 실효성 있는 정책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예술 생태계 주체들과의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한 정책논의 테이블 구조 마련 필요
- 재단 핵심가치로 '지역사회와의 협력, 교류'를 천명하고 이를 평가제도 등에 반영함으로써 구성원들과 지역사회의 좀 더 적극적인 소통을 재고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
- 문화예술과 디지털기술을 연계한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역 기술 주체들과의 융합 프로젝트 협력체계 마련 필요

○ 지속가능한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지역 문화예술인과 시민이 연결되어 성남의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속 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문화예술 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성남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 확산방안 마련
- 성남 문화예술생태계의 다양한 주체들이 지역사회의 삶 속에서 디지털 기술로 연결됨으로써 새로운 예술경험을 상상하고 실험할 수 있도록 성남형 문화예술 디지털 전환정책 마련 필요
- 지역의 강점을 살려 문화예술인들이 기술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발전할 수 있도록 성남의 사회적, 문화예술적 가치에 바탕을 둔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 개발 필요
- 디지털 환경 속 문화예술의 새로운 목적과 가치를 성남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릴 수 있는 디지털 기술 접목 문화예술 서비스 정책 마련 필요

부록



부록1 예술인 실태조사 설문지

ID				
----	--	--	--	--

2020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

안녕하십니까? 여론조사기관인 (주)비온드리서치입니다.

이번에 저희 기관에서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의뢰한 「성남 예술인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성남 예술인의 예술활동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조사를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는 성남 문화예술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고 통계법 제33조에 따라 개인적인 비밀은 철저히 보호됩니다.

2020년 10월
(재)성남문화재단

주관 기관	성남문화재단 미래전략부 과장 이경재(☎ 031-783-8134)	조사 기관	비온드리서치 부대표 차민주 (☎ 02-785-5100)
------------------	----------------------------------------	------------------	-----------------------------------

※ 응답자 선정 질문

SQ1 귀하의 거주지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성남 **SQ3로**
- ② 성남시 외 경기지역 **SQ2로**
- ③ 서울 **SQ2로**
- ④ 그밖의 지역 **SQ2로**

SQ2 그럼,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성남에서 예술활동을 한적이 있다 **SQ2-1로**
- ② 성남에서 예술활동을 한적이 없다 **응답종료**

SQ3 다음 중, 귀하는 어떤 경우에 해당하십니까?

- ① 필요한 소득 전체를 예술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 소득이 그만큼 발생하는가와 무관)
- ② 필요한 소득 일부를 예술활동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 소득이 그만큼 발생하는가와 무관)
- ③ 예술활동을 하는 목적은 소득과 관련이 없다 (취미로 예술활동을 하는데 소득/수입이 발생한 경우 포함) **응답종료**

SQ2-1 그러면 성남에서 예술활동을 한 시기는 어떻게 되시나요?

- ① 최근 3년 이전 **응답종료**
- ② 최근 3년 이내

※ 응답자 사전 기록 사항

성별	① 여성	② 남성			
연령	① 20대 이하	② 30대	③ 40대	④ 50대	⑤ 60대 이상
거주지	① 수정구	② 중원구	③ 분당구	※ (SQ1에서 ①성남이라고 응답한 경우만)	
주요 활동지역	① 성남	② 성남 외 경기	③ 서울	④ 그 외 지역	
주요 활동분야	① 문학(출판)	② 사진	③ 건축	④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등)	
	⑤ 국악	⑥ 무용	⑦ 연극	⑧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⑨ 영화	⑩ 만화	⑪ 연예(방송, 공연)	⑫ 기타(다원예술 등 _____)	
예술활동 전체경력	① 3년 미만	② 3~5년	③ 6~10년	④ 11~20년	⑤ 20년 이상
예술교육/강의 가능여부	① 가능	② 불가능			

I

예술활동 방식 및 만족도

1 현재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예술분야의 **주요 활동 직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창작예술가(작가, 화가, 작곡가, 공예가, 사진가, 감독 등) ② 실연예술가(배우, 무용가, 가수, 연주가, 모델 등)
 ③ 예술기획자(학예사, 공연/전시기획자 등) ④ 문화기획자(커뮤니티아트, 문화사업 기획자 등)
 ⑤ 예술교육자(예술관련 교육, 강의, 워크숍 등 참여) ⑥ 기타 ()

2 현재 귀하께서 활동하시는 **주 예술활동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하나만 응답)

- ① 개인 단독으로 활동 ② 다른 예술인과 팀·단체 형태로 주로 공동작업
 ③ 다른 예술인과 프로젝트 단위로 느슨한 협업 ④ 회사(스튜디오, 에이전시 등)에 소속되어 활동
 ⑤ 기타()

3 현재 귀하께서는 **소속된 예술인 협회·단체**가 있으십니까?

① 예 **문 3-1로**

3-1 **소속 협회·단체 유형**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예총 ② 민예총
 ③ 임의단체(미등록독립단체)
 ④ 사회적기업/협동조합
 ⑤ 기타 ()

② 아니오 **문 5로**

3-2 **실제 활동하는 협·단체**는 몇 개입니까? **문 4로**

실제 활동 중인 예술인 협회·단체 () 개

4 현재 귀하께서 **주로 활동하시는 협회·단체**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우선순위 2순위까지)

순위	협회·단체명	성남 소재여부
1순위		① 성남 ② 성남 외
2순위		① 성남 ② 성남 외

5 현재 귀하의 **예술활동 및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별 응답)

구분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1) 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2)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①	②	③	④	⑤

6 현재 귀하께서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아래 문항 중 선택해 주십시오. (하나만 응답)

- ① 수입 감소 등 안정적 생계유지의 어려움 ② 미래의 불확실성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③ 예술활동(작품 제작비 등) 비용 조달의 어려움 ④ 예술창작 또는 발표의 공간 및 기회 부재
 ⑤ 지역문화예술 공동체와의 소통·교류 창구 부재 ⑥ 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역량의 부재

II

예술노동 및 복지

7

최근 1년(2019.1.1. ~ 12.31.) 기준으로, 귀하는 예술 분야에서 전업으로 활동하셨습니다가?

① 예 (전업) ☞ 문 7-1로

7-1

예술 분야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 문 8로

- ① 정규직
- ② 계약직
- ③ 파견직
- ④ 고용주
- ⑤ 기타 (_____)

7-3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 ①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
- ②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

② 아니오 (겸업) ☞ 문 7-2, 7-3, 7-4로

7-2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예술활동에서의 낮은 소득
- ② 예술활동에서의 고용 불안정
- ③ 예술활동에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 ④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7-4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은 귀하의 예술활동과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구분	전혀 도움안됨	별로 도움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예술	①	②	③	④	⑤
생계	①	②	③	④	⑤

8

귀하는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 ① 예
- ② 아니오

9

귀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가입	미가입
1) 국민연금(직장, 지역,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①	②
2) 건강보험(직장 및 직장 피부양자, 지역 및 세대원, 의료급여 1~2종 등)		①	②
3) 고용보험		①	②
4) 산재보험	(1) 예술인복지재단 산재보험	①	②
	(2) 직장 산재보험	①	②

10

귀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습니다가?

① 예

② 아니오 ☞ 문10-1로

10-1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 ② 신청하는 수고에 비해 실익이 많지 않아서
- ③ 본인의 예술활동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 ④ 적합한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신진예술인이어서
- ⑤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알지 못해서
- ⑥ 기타 (_____)

III

예술활동 소득

11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 ① 없음 | ② 499만원 이하 | ③ 500~999만원 | ④ 1000~1499만원 |
| ⑤ 1500~1999만원 | ⑥ 2000~2499만원 | ⑦ 2500~2999만원 | ⑧ 3000~3999만원 |
| ⑨ 4000~4999만원 | ⑩ 5000만원 이상 | | |

12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의 개인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
| ① 없음 <small>☞ 문 14로</small> | ② 30% 미만 | ③ 30% 이상~50% 미만 | ④ 50% 이상~70% 미만 |
| ⑤ 70% 이상 | | | |

13 귀하의 전체 예술활동 수입을 구성하는 예술활동 유형별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 전체 100% 기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0" 기입,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 비중 기입)

항목	비중(%)
1) 예술 창작활동 수입 비중	
2) 예술 실연활동 수입 비중	
3) 예술 기획활동(문화기획 활동 포함) 수입 비중	
4) 예술 교육활동(강의, 교육, 레슨 등) 수입 비중	
5) 예술 관련 기타활동() 수입 비중	

14 귀하께서 예술활동 수행 시 특히 창작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의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 전체 100% 기준, 해당사항 없는 항목은 "0" 기입,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 비중 기입)

항목	비중(%)
1) 자체조달	
2) 공적지원	
3) 기부/후원금	
4) 크라우드 펀딩	
5) 기타	

15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1) 예술(창작)활동 측면	①	②	③	④	⑤
2)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①	②	③	④	⑤

IV

예술활동 내용

16

최근 1년간(2019.1.1. ~ 12.31.) 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와 참여횟수는 모두 얼마나 되십니까?

- ① 0회 ② 1~3회 ③ 4~6회 ④ 7회~9회 ⑤ 10회 이상

17

귀하는 최근 1년간(2019.1.1. ~ 12.31.)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항목		지원/참여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창작 비용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창작 공간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문화 사업	공공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민간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사회 복지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①	②	③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①	②	③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①	②	③

18

성남시/성남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의 주 경로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②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SNS를 통해
 ③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소식지(뉴스레터)를 통해 ④ 뉴스 기사를 통해
 ⑤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⑥ 지인들을 통해
 ⑦ 협·단체를 통해 ⑧ 광고를 통해
 ⑨ 기타 () ⑩ 획득경로를 모름

19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십니까?

- ① 성남 ② 성남 외 경기도 ☞ 문 19-1로 ③ 서울 ☞ 문 19-1로 ④ 그 외 지역 ☞ 문 19-1로

19-1

성남시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② 데뷔한 곳이거나 네트워크(학연/예술인공동체)이 있어서
 ③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 ④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⑤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⑥ 일자리가 많아서
 ⑦ 예술적 자극(교류)이 많은 환경이어서 ⑧ 기타(자세히:)

V

예술활동 공간

20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하십니까?

① 개인 예술활동 공간  문 20-1로② 공동 예술활동 공간  문 20-2으로

20-1

개인 예술활동 공간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② 임대-전세
 ③ 임대-월세
 ④ 무상임대 [제공자(기관): _____]

20-2

공동 예술활동 공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 ① 단체 공용 창작공간
 ② 공유 오피스
 ③ 민간 임대 공간
 ④ 공공 임대 공간 [제공자(기관): _____]
 ⑤ 기타 (구체적으로: _____)

21

귀하께서 현재 주로 이용하시는 예술활동 공간의 주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높은 임대료/이용료
 ② 작업하기에 협소한 공간
 ③ 복잡한 대관절차
 ④ 불안정적인 임대/이용 기간
 ⑤ 비현실적인 이용시간(야간이용 불가 등)
 ⑥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입지조건
 ⑦ 기타(_____)
 ⑧ 문제점 없음

22

귀하께서는 성남시에 예술활동 공간(창작/연습공간)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①	②	③	④	⑤

23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을 마련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저렴한 이용금액
 ②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③ 넓고 쾌적한 공간
 ④ 창작활동 관련 용이한 정보 교류
 ⑤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과 교류
 ⑥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⑦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휴게공간
 ⑧ 기타(_____)

24

귀하께서는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면 입주해서 활동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오  문 24-1로

24-1

성남시 공공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입주하고 싶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① 예술창작 활동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② 공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③ 복잡한 대관 절차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④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⑤ 저녁/야간시간대 및 주말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아서
 ⑥ 기타(_____)

VI

예술정책 및 지원

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별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예술작품 창작지원 이 많다	①	②	③	④	⑤
2) 예술작품 향유기회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3) 예술활동 발표기회 가 많다	①	②	③	④	⑤
4) 예술 인프라 가 잘 갖춰져 있다	①	②	③	④	⑤
5)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이 좋다	①	②	③	④	⑤
6) 예술활동 정보교류 가 활발하다	①	②	③	④	⑤

26

최근 코로나 사태 발생(2020. 1.) 이후, 이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① 있다  문 26-1로

26-1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디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V)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자	지원 경험 유무	
	있다	없다
1) 경기도	①	②
2) 성남시	①	②
3) 성남문화재단	①	②
4) 그 외 공공기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①	②
5) 민간(기업, 메세나, 개인후원 포함)	①	②

② 없다  문 26-2로

26-2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 ① 지원정책을 몰라서
- ②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 ③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 ④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 ⑤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 ⑥ 기타 ()

27

다음은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문화예술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된 타 문화재단의 정책사업 사례입니다.
아래 문항 중 기초문화재단인 성남문화재단에 도입되면 효과적인 것으로 보시는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①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 ②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 ③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 ④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문화예술계 피해 영향조사
- ⑤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
- ⑥ 생계 안전 용자 지원
- ⑦ 고용유지 지원
- ⑧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 ⑨ 아이디어 기획/조사연구 활동 지원
- ⑩ 작품 구입 지원
- ⑪ 문화예술조직(단체, 기관)의 운영 지원
- ⑫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 ⑬ 기타 ()

28

아래 문항 중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보강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지원 분야(장르)의 다양화 | ② 지원금 확대(다액소건 지원사업 확충) |
| ③ 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소액다건 지원사업 확충) | ④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
| ⑤ 공간(임차료) 지원 | ⑥ 인력 운영비 지원 |
| ⑦ 창작 준비/기획/조사연구 활동 지원 | ⑧ 다년도 창작 지원 |
| ⑨ 예술 협업활동 지원(융복합창작, 해외교류) | ⑩ 지역예술인 참여 협업 예술프로그램 개발 |
| ⑪ 비대면 콘텐츠 제작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 | ⑫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문화기술, 온라인 협업 툴) 지원 |
| ⑬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확충 등 지역연계 강화 | ⑭ 지역예술인 DB 및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
| ⑮ 기초문화재단형 예술인 지원센터(팀) 구축 | ⑯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시장분석, 경영전략, 파이낸싱) |
| ⑰ 예술인(예술단체) 지원 조례 및 제도 등 연구 | ⑱ 강의/워크숍 강사 양성 교육 및 활동 기회 제공 |
| ⑲ 생활예술인과 전문예술인의 교류 및 협업 강화 | ⑳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홍보마케팅 지원 |

29

귀하께서는 **성남시가 ICT 산업 메카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① 그렇다 **문29-1로**

② 아니다

29-1

ICT 산업 강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에는 다음 중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만 응답)

- | | |
|-----------------------------|------------------------------|
| ①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활동 지원 | ②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
| ③ 융복합 예술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 | ④ 콘텐츠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및 콘텐츠 관리 강화 |
| ⑤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등 지원 강화 | ⑥ 기타 (_____) |

30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시대 도래로 사회 전반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예술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전혀 공감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다소 공감한다	매우 공감한다
①	②	③	④	⑤

31

귀하께서 현재 활동하시는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①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 | ② 비대면 예술콘텐츠 제작비용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 지원 |
| ③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문화기술, 온라인 협업 툴) | ④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및 예술공동체 채널(플랫폼) 구축 |
| ⑤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⑥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타 예술분야와의 협업·융합 시도 |
| ⑦ 예술-기술-미디어 플랫폼 연계 디지털 예술 생태계 구축 | ⑧ 기타 (_____) |

♠ 오랜 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지역 예술인의 현실을 반영한 문화정책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응답자 기본 사항 [면접원이 기록]

응답자 성명			
연락처(핸드폰)		이메일	()@()
면접일시	____월 ____일 ____시		

부록2 예술단체 실태조사 설문지

2020 성남 예술단체 실태조사

예술단체 일반현황	법인(단체) 명		설립연월일 (창단 또는 개관일)	
	소재지(주소)	(전화:)		
	대표자 성명		대표자 전화번호	
	대표자 E-Mail		단체 홈페이지 주소	
	법적형태	① 국공립단체(도/시/구/군) ② 전문예술법인(전문예술단체) ③ 법인체(사단/재단/특수법인 등) ④ 비법인 사설(민간/임의)단체 ⑤ 사회적 협동조합/기업 ⑥ 기타(자세히: _____)		
	사업자 등록 (고유번호증) 보유 현황	① 사업자등록증 ② 고유번호증 ③ 해당사항 없음		
	활동 분야 (모두 응답)	① 문학(출판) ② 사진 ③ 건축 ④ 미술(미술일반, 디자인·공예 등) ⑤ 국악 ⑥ 무용 ⑦ 연극 ⑧ 음악(음악일반, 대중음악) ⑨ 영화 ⑩ 만화 ⑪ 연예(방송, 공연) ⑫ 기타(다원예술 등 _____)		
	활동 지역	① 성남 ② 성남 외 경기 ③ 서울 ④ 그 외 지역(자세히: _____)		

예술단체 운영현황	인력 현황	인력	총원	기획행정인력		기술기타인력			전문예술인력		
			명	명		명			명		
		회원 수	총원	성별		연령대					
	남성			여성	10대 이하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명	명	명	명	명	명	명	명	
	공간 보유 현황	구분	사무실	연습실	무대장치 보관실	공연장	강당	회의실	다목적실		
		보유	①	①	①	①	①	①	①		
		미보유	②	②	②	②	②	②	②		
	재정 현황	※ 지난 1년간(2019.01.01. ~ 2019.12.31.) 대략적인 운영예산 조달방법 비중									
		예산조달	자체수익	정기회비	지원예산	기부/후원금	기타	총계			
%			%	%	%	%	100.0%				
※ 지난 1년간(2019.01.01. ~ 2019.12.31.) 대략적인 지출예산 규모 비중											
예산규모	예술활동 사업비	예술활동 이외 사업비	경상운영비 (인건비 제외)	인건비	총계						
	%	%	%	%	100.0%						

예술 단체 활동현황	예술활동 연간실적	※ 지난 1년간(2019.01.01. ~ 2019.12.31.) 단체로서 활동한 내용				
		활동 내용		활동 횟수	활동 장소	활동 기간
				회		일
				회		일
				회		일
				회		일
	지원사업 연간실적	※ 지난 1년간(2019.01.01. ~ 2019.12.31.) 지원사업 참여 실적				
		항목 구분		지원/참여 경험 유무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창작 비용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①	②	③
		창작 공간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①	②	③
		문화 사업	공공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민간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①	②	③
		지원사업 세부실적	※ 지난 1년간(2019.01.01. ~ 2019.12.31.) 금전적 지원을 받은 기관에 대해 모두 기입			
지원기관 유형 (아래 선택항목 번호 택일)			상세 기관명		예산규모	
					원	
					원	
					원	
지원기관 유형 선택항목						
① 경기도 ② 성남시 ③ 성남문화재단 ④ 그 외 공공기관 (문화예술위원회, 예술인복지재단,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등) ⑤ 민간(기업, 메세나, 개인후원 포함)						

♠ 오랜 시간 조사에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응답자 기본 사항 [면접원이 기록]			
응답자 성명		직위	
연락처 (핸드폰)		이메일	()@()
면접일시	월 일 시		

부록3 예술단체 조사목록

분야	단체명	대표자	설립연도	주소	연락처
음악	디에프예술단	이지현	2019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
미술	아트뮤즈	김정선	2019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	.
음악	AM양상블	장덕진	2007	성남시 중원구 중앙동	.
기타	파크프로젝트	구래연	2018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
미술	찔금농부	염선아	2017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
연극	하다컴퍼니	이준호	2016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	031-753-0987
연극	극단동선	이주희	1982	성남시 분당구 장미로	031-756-8430
연극	시민극회 우리	정은란	2020	성남시 중원구	.
음악	성남민예총 음악위원회	손병휘	2019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
음악	성남민예총 굿갈래위원회	이종민	.	.	.
문학	문화예술공유플랫폼 이음 협동조합	이상호	2018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031-759-8481
음악	전문예술단체 문화뱅크	박상열	2000	성남시 수정남로	.
음악	경기청소년국악관현악단	정길선	1997	성남시 분당구 미금일로	031-716-5247
미술	가천대학교 예술영재교육원	박찬웅	2008	성남시 수정구성남대로	031-750-8895
문학	성남문화원	김대진	1978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031-756-1082
무용	춤공작소 move on	이윤주	2019	.	.
문학	동주	김정기	2018	성남시 분당구 야탑로	.
문학	알투스통합예술연구소	이계원	2010	성남시 분당구 황새울로	.
국악	놀이대장간 삿박소	정병인	2015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
미술	주식회사 위아츠	장영구	2018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
무용	정미래무용단	정미래	2020	성남시 중원구제일로	.
국악	한국국악협회 성남시지부	이향우	1982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031-722-0748
연예	(사)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성남지회	홍정민	1986	성남시 분당구 탄천로	031-731-5303
국악	(사)한국판소리보존회성남시지부	문효심	1998	성남시 분당구대왕판교로	02-566-9457
국악	민악숫대	김진형	1996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031-721-4858
연극	키맥	정수연	2020	성남시 산성동	.
음악	성남시립합창단	은수미	198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729-4807
음악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은수미	1996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729-4809
음악	성남시립교향악단	장영근	200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729-4809
음악	성남시립국악단	.	2005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031-729-4810
음악	성남청소년오케스트라	박용준	.	성남시 분당구 수정구	.
기타	한국서예협회성남지회	원은경	2002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
미술	한국전통공예협회	송철웅	2000	성남시 분당구 은행동	031-735-7734
국악	희망천사문화예술단	박연주	2007	성남시 수정구	.

분야	단체명	대표자	설립연도	주소	연락처
연극	극단청계	이덕근	1997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국악	다스름국악원	김호현	1993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031-265-3211
무용	로컬스프리	서우진	2019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음악	뮤젤밴드	배종환	2014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기타	쇼갱	정현진	2019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음악	아르케컬처	손다영	2013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무용	드림온	김서정	1997	성남시 분당구	
음악	아트컴퍼니 동행	정찬희	2017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기타	예술창작공간(사업자명: 창작공간인)	정은란	2020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미술	오픈스페이스블록스	김은영	2016	성남시 수정구 남문로	
음악	분당월드 오케스트라	임경춘	1994	성남시 수정구 법정동	
음악	음악친구 비블라모	허 양	1918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음악	코리아주니어빅밴드	이수정	2003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031-755-1774
기타	민족무예위원회	변규철	2003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031-729-2582
문학	문인협회	이예지	1975	수정구 수정로	031-744-5005
무용	무용협회	홍은주	1985	분당구 황새울로	031-753-1020
미술	미술협회	신미선	1983	분당구 벌말로	031-757-1050
음악	음악협회	이수정	1987	수정구 성남대로	031-753-1020
국악	국악협회	이향우	1980	분당구 이매로	031-722-0748
연극	연극협회	이주희	1985	분당구 장미로	031-756-8430
연예	연예예술인협회	홍정민	1986	분당구 탄천로	031-731-5303
사진	사진작가협회	김시묵	1988	분당구 판교로	031-753-1020
영화	영화인협회	정지희	1996	분당구 판교로	031-711-3668
음악	분당구 여성합창단	신인숙	1995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시각매체위원회	김성수		수정구 수정로	031-729-2582
	민족국위원회	이종민		수정구 탄리로	031-729-2582
	민족춤위원회	이지산		수정구 남문로	031-729-2582
음악	민족음악위원회	손병휘		수정구 수정로	031-729-2582
문학	문학위원회	권영옥		분당구 불곡북로	031-729-2582
	민족무예위원회	변규철		분당구 미금일로	031-729-2582
사진	사진위원회				031-729-2582
연극	민족극위원회	박종욱		수정구 수정로	031-729-2582

부록4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가이드라인

그룹 구성		진행일정	참석자 수	진행
그룹 #1	창작 예술가	12월 14일(월) 오후 15:00	6	
그룹 #3	기획자/교육자	12월 15일(화) 오후 13:30	5	
그룹 #2	실연예술가	12월 15일(화) 오후 15:30	6	

@ 도입(설명 및 소개)

시간: 5분

- 모임의 목적 소개
 - 4차산업기술환경과 코로나 환경으로의 전환시대에 예술창작활동이 성남시에서 갖는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각성시키는 성남시 생태계에서의 문화예술인 역할 재정립을 위한 예술인 정책 수립
- 진행방법 설명 및 주의사항
 - 정답 없음/서로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효율적인 진행을 위한 모더레이터 개입/휴대폰 소리 OFF
 - 녹음/녹화 양해, 전문가G: 말씀 중 중단 양해
- 진행자 및 참석자 소개(이름/활동 분야(주 분야)/경력 등)

Part A. 예술 환경

시간: 20분

- A1. 성남문화재단/성남아트센터에 얼마나 자주 들리시나요? 무슨 일로 방문한 적 있으세요?
이번에 예술인 실태 조사에 응답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2019년 경기문화재단 예술인 실태조사에 참여한 적은?
- A2. [창작/실연 G] 해당 예술 분야에서 주로 개인적으로 활동하나요? 아니면 단체(공동)로 활동 하나요?
: 단체로 활동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단체로 활동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다른 분야와 협업도 잘되는지요? 성남 지역 내의 협업은 어떤가요?
(성남지역에서의 협업적 성숙도와 그를 위한 토대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관찰)
- A3. 예술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성남시는 어떤 곳인가요?
(장르, 예술 주제, 최근의 트렌드 등의 측면)
: [타지역 활동자에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하면 성남은 어떻게 다른가요?
: 성남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은 다른 지역의 예술인과 예술 환경이 어떻게 다른가요?
- A4. '예술인'에 대한 생각은?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입니까?
(예술 그 자체 & 예술 외적인 범주)

Part B. 생활 및 복지

시간: 5분

B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온라인 사이트에 자주 들어가보니까?

주로 무엇을 이용합니까? 자주 이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술인파견지원제도, 창작준비지원금, 예술활동증명, 경력정보시스템 등)

Part C. 예술인 지원사업

시간: 40분

C0. 민간문화사업 참여경험이 있나요? 소개해주세요

C1. 최근 3년간 예술활동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지원한 적 있으신가요?

☞ 지원사업 경험자에게

C1-1. 중앙부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별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지원하는 과정은 어땠는지 말씀해주세요.

(지원과정 상 어려움과 안내 지원의 필요성 파악)

C1-2. (중앙부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지원사업)의 장점/좋은 점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단점/부족한 점은 어떤 것입니까?

: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타 지역에서 시행하고 있는 예술인 관련 정책 중

성남에서 시행되었으면 하는 지원 정책은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C1-3. 가장 좋았던 지원사업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C2. 지원사업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의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까?

C3. 성남시의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쭙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지원사업은 잘 되어 있나요? 개선되고 보완되어야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예술활동 정보교류 --> 발표기회-->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 --> 창작지원 --> 예술 인프라)

C4. [창작/실연/기획/교육G] 현재의 성남시의 예술인 활동을 위한 공간 상황에 대해서 만족/불만족합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혹시 선호하시는 성남 내 공간(아트센터 등)이 있으신가요?

: 신규 공동 예술공간이 성남 어느 지역에 생기면 좋겠습니까? 성남 어느 지역이 부족한가요?

본인 활동분야 특성을 고려하면 어떤 공간이 필요하고 어떤 지원제도가 필요할까요?

(공간성격, 공간/장비 공유플랫폼 운영운영방식 등)

C5. 해당 예술분야에 신진예술가 활동이 활발하나요? 어떻게 하면 신진 예술가를 발굴하고, 더 활발히

활동할 수 있게 있을까요? 신진예술가 활동 유치를 위한 정책/제도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성남시 소재 대학과의 연계한 신진예술가 육성 정책 아이디어 등 효과적 방법 제안 유도)

C6. 성남시 예술인 네트워크/거버넌스 현황에 만족/불만족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합니까?

향후 어떻게 예술인 네트워크를 지원 or 거버넌스를 형성해주면 지역 예술인 활동에 도움이 될까요?

: 혹시 이용하는 예술인 플랫폼이 있습니까? 주로 어떤 플랫폼을, 왜, 어떻게 이용합니까?

D.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대한 인식과 기대

시간: 25분

[최근 인공지능/가상현실과 같은 4차산업기술 환경과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대면 환경은 삶이나 예술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D1. 이러한 환경 변화를 체감하고 있습니까? 예술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혹시 개인/단체 입장에서 준비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준비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이런 변화된 환경에 따라 예술인으로서 새로운 유형의 문화예술활동 등을 시도하기 위해서 어떠한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혹은 어떠한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전이나 변화보다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려 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에 어떤 지원이나 정책이 있으면 좋겠습니까?

: [온라인 · 랜선 창작/실연/교육 경험자] 소비자/향유자의 소비/향유방식도 변한 것 같습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D2. 4차산업기술환경이나 비대면환경으로의 변화가 성남시(ICT메카인) 문화예술 정책에 반영되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D2-1. 코로나상황에 예술활동(공연, 전시, 창작 등)에 필요한 지원책은?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 활동 지원 -->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 융복합 예술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 -->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Part E. 성남시 온라인 플랫폼 및 DB 구축

시간: 15분

※ 성남문화재단은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 방안의 한 방법으로서 성남 예술인(예술자원) 데이터베이스 및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 및 가능성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E1. DB 구축을 위해 필요한 개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 참여해서 등록할 생각이 있는지요?

: 개인 정보를 성남문화재단에 제공하였을 때 가장 기대하는 요소는 무엇인가요? 그 이유는요?

: (창작)성남문화재단과 협업 프로젝트 진행 시, 합의하에 작품 이미지 등 제공할 의사가 있으십니까?

E2. DB 구축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진다면,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 플랫폼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면 좋겠는지요?

(정보제공서비스(공간/장비), 정보교류, 등)

: 문화예술분야 네트워크 증진을 위한 플랫폼 구축 시 반드시 고려해야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E3. 성남시가 벤치마킹할만한 국내외 디지털 문화예술 네트워크 사례를 알고 계시면 추천해 주세요.

- 추천해 주셨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추가 질문

- 추가적으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 종료 인사

- 전환시대, 예술창작활동이 성남시에서 갖는 사회적 의의와 가치를 각성시키는
성남시 생태계에서의 문화예술인 역할 재정립을 위한 예술인 정책 수립(2021년)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록5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어젠다

1. 광역단체 문화재단과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정체성/역할

- 예술인 좌담회 시, 벤치마킹/긍정적 비교 사례로서 서울/경기 등 광역 재단의 사례만 거론되어 기초 재단의 정체성 검토 필요

- 1) 역할의 점검
- 2) 기능 관점에서의 논의
- 3) 정책/지원의 방향성
- 4) 성과 측정의 지표(본질적, 평가적 관점)

2. 인공지능/가상현실 등 새로운 기술 환경과 코로나 사태와 같은 비대면 환경의 영향

- 창작, 실연, 기획/지원 등 장르의 현장 기반 정도에 따라 비대면 예술활동에 대한 평가가 다름(현재 활동의 대체로 보는 의견, 현재 활동과 별개의 새로운 활동으로 보는 의견 등)

- 1) 소비자/향유자의 소비/향유 방식
- 2) 공급자(예술인)의 예술행위 방식

3. 성남 문화재단의 정책 방향

- 광역단위 같은 기초단위(서울의 위성도시, 특례시 추진 등) 도시의 문화재단 방향성

- 1) 감안해야 할 도시특성
- 2) 생활예술(예술이 기호) vs. 전문예술(예술이 직업)
 - 신진 vs. 중견
 - 물적 기반 vs. 프로그램
- 3) 정책/지원의 방향성
- 4) 예술인과 대화/스킨십 증대 방안

부록6 예술인 집단심층인터뷰 녹취록

1. 창작분야 그룹

- 일 시: 2020년 12월 14일(월) 15:00
- 대 상: 정량조사 응답자 중 창작분야 6인
- 참 석 자: 1. 참석자(1)_미술
2. 참석자(2)_문학
3. 참석자(3)_미술
4. 참석자(4)_미술
5. 참석자(5)_사진
6. 참석자(6)_미술

사회자(M) 소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과 아무 관계가 없고, 보통 저희는 고객사에게 프로젝트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기억할 수 없고, 조사의 흔적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문지 응답해 주실 때도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는 것처럼, 오늘 녹음, 녹화는 하지만 이 보고서 작업이 끝나면 녹음, 녹화는 완전히 폐기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4차산업기술이니 코로나니 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나 예술인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그 변화,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성남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설문지 드렸던 것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에는 단순한 질문들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들의 생각과 느낌을 심도 깊게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예술인의 입장을 모아서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 제가 준비

한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각자 소개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주실 때 여러분들의 활동분야, 그리고 몇 년 정도 활동하셨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6)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예술에서 평면회화를 하고 있는 참석자 작가이고, 저는 2006년도에 데뷔를 해서 15년 좀 더 된 것 같은데, 중간에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에 성남문화재단 청년작가 지원 프로그램 때문에 다시 신작을 발표해서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그래서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참석자(5) 안녕하세요. 참석자입니다. 저도 역시 시각예술이고, 사진 분야입니다. 저는 2010년부터 활동을 시작했고요. 그 후에 10년 정도 지났는데, 저도 성남문화재단하고 2017년에 한 번 같이 일을 한 게 있어서 성남 얼굴전에 참여해서 작품을 했고요. 그 후에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저한테 있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참석자(4) 시각예술을 전공했고, 조각이랑 설치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2015년부터 시작을 했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성남문화재단이랑 지역 안에 있는 몇 군데 공공예술 관련해서 일을 해서 저도 성남문화재단 선생님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참가하게 됐습니다.

참석자(3) 안녕하세요. 저도 성남시에서 시각예술을 하고 있는 현대미술 작가고요. 저는 성남문화재단과 특별히 인연은 없어요. 감사한 것은 최근에 지원정책 아이디어 공모전에 공모가 되어서 지원금을 받았어요. 그거 감사하고요.

참석자(2) 안녕하십니까? 저는 참석자입니다. 저만 분야가 색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역사저술과 위인전을 주로 쓰고 있고요. 작품활동을 한 지는 28년 됐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지원을 한 푼도 안 받았습니다. 제가 32년 동안 교직에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지금 책을 쓸 게 사실 올해 작업물량과 다른 데에 특강 나갈 스케줄이 차 있어서 과감하게 교직을 명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명퇴 하고 나니까 쪽박을 찼습니다. (웃음) 요새는 조금... 명퇴한 것을 후회하고 있습니다.

참석자(1) 참석자 작가입니다. 2005년도부터 계속 작업을 해 왔어요. 회화설치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2017년도 2019년도에 성남시 주민이고 성남시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꼴이 있어서 두 번 정도 전시를 했고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자, 제가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아트센터에 자주 오시나요? 어때요? 오실 일은 있으신가요?

참석자(5) 자주 라고 하면 얼마나 자주를 말씀하시는지?

사회자(M) 뭐 그냥... 1년에 몇 번? 한 달에 몇 번? 그렇게 말씀을 나눠 볼까요?

참석자(5) 1년에 2,3번 옵니다.

사회자(M) 무슨 일로 오세요?

참석자(5) 주로 저는 전시를 보러 오고요.

참석자(2) 저는 1년에 1,2번 정도 오는데, 주로 대중가수 공연이나 아니면 밥 먹으러 옵니다.

사회자(M) 밥 먹으러 오시면 친근하실 것 같네요. 다른 분들은 별로 올 일이 없으셨나요?

.....

사회자(M) 알겠습니다. 이번 실태조사 설문지 응답을 최근에 하신 분들 중에서 오늘 오신 거거든요. 설문지에 응답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석자(6)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써야 한다, 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자(M) 개인정보에 대한 우려가 있으셨고?

참석자(6) 네.

참석자(3) 리서치 조사를 하면 쿠폰 준다고 했는데, 왜 안 주지?

사회자(M) 네. 좋습니다. 혹시 2019년에 경기도에서 경기문화재단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그 조사에 응답하신 분 계신가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지금 예술 분야 중에서도 창작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모이셨는데요. 그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활동하시는 데에 개인으로 활동하시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단체로 활동하시는지? 어떠세요?

참석자(2) 개인적으로 합니다.

참석자(3) 저도 개인이요.

참석자(1)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합니다.

참석자(5) 네.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그러면 혹시 다른 분야와 협업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없나요?

참석자(4) 저는 개인으로도 하는데, 지금 성남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신흥공공예술창작소의 팀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팀 활동도 하고, 그리고 성남 태평동에 오픈스페이스블록스 라고 해서 문화예술을 기획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대표님하고도 다른 지자체 끼고 하는 것도 많이 하고 있어요.

사회자(M) 일도 같이 하시고?

참석자(4) 네. 저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그 협업이 같이 하시는 일들이 잘 되고 있는 편인가요?

참석자(4) 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소셜 쓰시는 여자 작가분이 계세요. 그리고 시각예술 안에서 AI랑 AR, VR 다 하시는 작가 분이 계시는데 그 분이랑 성남시 소재 가천대학교 재학생들하고도 해서, 그래서 회화와 학부생들과도 진행을 하고요. 기존에 있는 광명이나 다른 서울이나 용인 쪽에 있는 작가들과도 협업이 계속 되는데, 그런데 무난하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M) 그런 협업이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잘 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참석자(4) 우선 팀원들끼리 소통이 잘 진행이 되요. 그리고 예상치 못 하게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서로 이해해 주고 양보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잘 되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아까 시각예술설치 분야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분야라서 협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다른 분들은 어때세요?

참석자(4) 그건 어디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각 팀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되게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좋은 분들을 만나서.

참석자(6) 그리고 비교적 작품 성향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페인팅이나 혼자 개인 작업으로 하는 분들은 비교적 협업이나 그런 것에서 떨어져 있는 편이고, 여러 단체나 기관이나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협업의 기회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어느 단체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참석자(6) 그것도 그렇지만 작업 성향때문에도 그렇고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설문지에 주로 활동하는 지역을 여쭙 봤었어요. 성남에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주로 활동하시죠?

참석자(6) 네.

사회자(M)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참석자(6) 전시를 보러 오거나 아니면 미술관계자 분들이 성남도 가까워서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아트맵이 아무래도 서울에 몇 군데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쪽 위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게 된다고 보다는 그 쪽으로 많이 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서울에 수요자가 더 많기 때문에?

참석자(6) 네. 관객들이 더 많으니까.

사회자(M) 서울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네요?

참석자(1) 네. 서울하고 성남, 부산, 다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사회자(M) 그 얘기를 더 자세하게 해 주시겠어요?

참석자(1) 성남은 제가 살고 있으니까 제가 성남의 도시풍경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자료가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고민하다 보니까 성남하고 계속 전시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서울은 아무래도 미술관이나 메인 행사가 많다 보니까 저도 지원도 하고 어플라이도 하고 그리고 다른 데서 전시를 보고 제 작품을 보고 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제 고향이 부산이다 보니까 내려가는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는 작가들이 거주지역, 활동지역, 출생지역, 그렇게 딱 세 군데로 나뉘거든요. 거주지역은 성남시, 활동지역은 수도권, 출생지역은 부산이고.

사회자(M) 왜 이게 그렇게 나뉘진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1) 그건 개인 별로 다 차이가 있죠. 서울에서 쪽 자랐으니까 서울만 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자(M) 대략 서울을 메인으로 두고, 출생지와 거주지는 기본으로 생각하시는 거군요?

참석자(1) 네. 이제는 미술관에서도 작가한테 경력이나 이력서를 받을 때도 거주지, 출생지, 활동지, 그렇게 표기법이 다 있어요.

사회자(M) 그런 분들에게 좀 더 혜택이 있으신가요?

참석자(1) 혜택보다는 이 작가의 역사를 알고 싶으니까 정확하게 표기를 해 달라는 거죠. 왜냐하면 성남시도 일단 초본상 여기에 있어야지 성남미술관에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런데 활동은 어디에서 하는지 모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자(M) 네. 그러면 성남, 부산, 서울, 그렇게 다양하게 하고 계신데, 비교를 해 보면 성남지역은 예술가로 활동하기 어떤 지역인가요?

참석자(1) 비슷한 것 같은데요. 얘기하기가... 질문이 어떠신 것 같아요? 라고 물어 보시니까 조금... 어려워요. 아직 단편적을 쪼개서 어느 재단이 낫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고.

사회자(M) 재단을 여쭙는 것은 아니고, 예술가로서 활동하는 지역으로 봤을 때.

참석자(1) 그건 다 비슷해요.

사회자(M) 어떠세요?

참석자(6) 요새는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온라인으로 전시를 쇼잉을 하거나 온라인으로 보여 주거나 아니면 SNS로 전시 홍보를 많이들 보니까 지역의 위치나 그런 거는 예전보다는 많이 덜 한 것 같지만, 비교적 그래도 이전에는 지역과 상관없이 좋은 전시를 해서 내가 가서 보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을 가게 되는 것 같고. 그런 지역이 어디에 더 많이 몰려 있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M) 그렇죠. 예전에는 수요자 중심으로 찾아 가셨다면, 지금은 온라인으로 네트워크가 많이 되어 있어서 지역이 조금 덜 중요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석자님도 주로 활동지역이 서울이네요? 어떠세요?

참석자(2) 네. 저는 주로 방송을 하고요. 그리고 인물을 연구하다 보니까 기업체에서 리더십 강의 요청이 와서 갑니다. 또 제가 교육계에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특히 요맘때 12월 달 아이들이 수능이나 또는 고입이 끝나면 특강이 많습니다.

사회자(M) 성남에서는 선생님을 안 찾으세요?

참석자(2) 네. 성남에서는 안 찾습니다. 제가 제일 멀리 가 본 것은 일본이고요. 일본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서울에 오셨다가 제 책을 보고 그 때부터 한글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분이 일본으로 정기적으로 초청을 하세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성남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는데, 성남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기 어떠세요?

참석자(5) 저는 성남에 거주한 지는 3년 정도 됐는데, 있으면 작업에만 집중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들 비슷한 상황일 수 있겠지만, 작업만 해서는 생활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것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품에만 집중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작품에만 집중하시는 분들보다는 작품 제작이나 발표나 그런 것들이 힘든 상황인데요. 다행히 이런 저런 지원이 있을 때 뽑히는 경우가 있고, 그 때 그걸 놓치지 않으려면 뽑힌 곳에 가서 해당되는 것을 해야 되는데 성남에서도 한 번 했었고, 그 후에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3년째 왔다 갔다 하면서.

사회자(M) 거기하고 작업하기는 어떠셨어요? 비교해 보면?

참석자(5) 강원도 원주는 토지문화관이라고 해서 토지문화재단에서 지원해 주시는 게 있어요. 거기 명칭은 예술인 창작실이고요.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레지던스인데 거기에서 두 달 방을 주시죠. 식사까지 책임을 져 주시거든요. 대신에...

사회자(M) 성남은 성남지역이니까 밥은 안 주나요?

참석자(5) 성남에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성남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으면 제가 알고 싶고요. 없다면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강원도 토지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문인과 예술인을 구분해서 지원하는데, 선발되어서 이용을 하게 되면 2년 후에 지원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2년에 한 번 지원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제한을 두는 것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런 기회가 많다고 하더라도 제한을 해야 또 새로운 분들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회자(M) 그렇죠.

참석자(5) 하시던 분들만 계속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사회자(M) 네. 좋습니다.

참석자(3) 지원정책에 관해서 말씀 드려도 되나요?

사회자(M) 지원정책은 제가 뒷부분에서 한꺼번에 여쭙 볼게요.

참석자(3) 성남시에서 작업하는 게 어떠냐는 말 자체가...

사회자(M) 성남시에서 예술인으로 활동하기가 어떠신지?

참석자(3) 성남시에서 태어나서 여기에서 작업을 하는데, 작업활동을 하면서 큰 의미가 없고요. 그리고 어느 작가분도 마찬가지로 텐데, 앞서 말씀하신 작가분들처럼 보통은 이런 공공기관 지원사업은 팀 위주로 있고요. 저처럼 개별작업 하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창작지원 공모사업이 홍수처럼 쏟아졌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이 코로나 시대랑 어떤 관계가 있지? 이전에도 그러지 않았나? 특별히 달라진 게 없다는 생각이 들고. 더불어서 뭐 아이디어 위주로만 공모를 한다면 또 다른 출세우기 밖에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예술인 하면 굉장히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또 생활하기가 힘들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예술인으로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 그리고 스스로 예술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얘기를 들어 보겠습니다.

참석자(4) 그런 내용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작업이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일용직 건설노동 일을 하다가 작업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런데 내가 예술가 라는 딱지가 붙는 것하고 그냥 일용직 근로자로 딱지가 붙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실 할 얘기가 많은데, 참석자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작업을 병행하는 게 사실상 쉽지가 않아요. 대다수의 작가들이 겪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고, 그것으로 인해 자기 정체성에 혼란이 오기도 해요. 내가 작가인가? 아니면 내가 편의점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내가 공장 노동자인가? 그러면 작업은 언제 하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작업실을 얻고, 재료비를 벌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어 버리는 거예요. 정작 작업실에서 작업은 못 하고, 월세는 계속 벌어야 되고, 그래서 이진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재단이나 어느 작가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당연히 어렵다는 얘기밖에는 사실상 나오지 않아요.

참석자(1) 저도 공감하고요. 사실 이 얘기가 제일 하고 싶었어요. 예술가 라는 직업이 법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편의점 얘기도 잠깐 하셨는데, 편의점에서 일하면 1시간에 페이가 정확하게 지불이 되잖아요. 법적으로. 그런데 예술가는 작업을 한다고 해서 그 작업에 걸리는 시간만큼 돈을 떠나서 인정을 못 받는 거예요. 하물며 은행이라든가 그런 곳에서도 그렇고, 예술가라고 뭐를 적어 낼 때 결국에는 어떤 개념이나 하면 프리랜서 라는 개념이 붙어 버려요. 법적으로 전문인이 아니라는 거죠. 프리랜서는 그냥 말 그대로 프리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법적인 제도로 예술가를 서포트 하는 시스템이 갖춰지면 좋겠어요.

사회자(M) 직업적인 면에서 국가적으로 인정이 되는?

참석자(1) 네네.

사회자(M) 예술인에 대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3) 그냥 개인적인 삶에 대해서는... 내가 예술인이 아니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정도로, 그냥 저 뿐만 아니라 다들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냥 이것 밖에 몰라요. 이 작업밖에 모르고 이 작업만 하는 사람들인데, 오늘 성남시의 예술인으로 모였으니까 성남시에 거주하는 예술인들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좀 더 광범위하게 실태조사를 해서 그 개인 예술인들이 자기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국가 문체부에서 하는 것 외에도 성남시 재량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도 좋고, 그리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술활동 이외에 편의점 알바나 건설현장도 가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혹시 내 전공과 관련된 교육활동으로 일을 혹시 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강사라던가.

참석자(3) 저는 작년 9월에 이력서를 내 봤는데, 저는 그 전에는 다른 분들처럼 꾸준히 아르바이트를 했었고요. 그걸로도 힘들다가, 우연히 사회복지관에서 수채 강사로 일을 했는데 되게 감사했던 게 그런 것으로 직업이 증명이 되더라고요. 한 달에 단 얼마를 벌더라도 한 달에 10만원 20만원을 벌더라도 내가 꾸준히 소속되어 있는 소속감 그게 증명이 되는 것 하나로 이번에 코로나19사태 때 고용노동 혜택을 받게 됐어요. 프리랜서들에게 주는 거 있잖아요. 저는 프리랜서 라는 직함이라도 감사해요. 그거라도 있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어요. 올해 오히려 편했어요. 다른 아르바이트나 투잡을 안 뛰어도 됐어요.

참석자(2) 지금 예술인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느낀 건데요. 제가 아는 작가분이 있어요. 역시 소설가인데, 그 분은 모기업에서 한 달에 지원금을 받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메세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성남시도 제가 알기로는 대기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기업들한테 성남시라던가 아니면 성남문화재단이라던가 그런 데서 거기를 두드리면 그런 메세나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올릴 수도 있어요.

사회자(M) 그렇죠.

참석자(2)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2번 참석자님은 직접 기업과 관련해서 강의도 하시고 그러신 거잖아요?

참석자(2) 네.

사회자(M) 혹시 다른 분도 이렇게 민간기업들에서 하는 문화사업에 참여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회자(M) 2번 참석자님은 주로 강의로 민간기업에 참여를 하셨나요?

참석자(2) 저는 주로 리더쉽 강의를 합니다. 아니면 사사편찬이라던가.

참석자(1) 개인적으로 지원받은 것도 있고.

사회자(M) 어디에서 어떻게 받으셨어요? 아는 사람이 있으셨나요?

참석자(1) 아뇨.

사회자(M) 실력이 있으셨나요?

참석자(1) 아뇨. 공모를 해서 절차를 밟아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받고, 창작지원금을 지원 받고, 도록 지원을 받았었어요. 다른 기업에서는 작업실을 제공 받았었어요. 레지던스 형식으로 2년 동안 지원을 받았었어요.

사회자(M) 그 지원을 받을 때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응모를 하셔서 받으셨던 거예요?

참석자(1) 네. 응모하고 그 쪽에서 오는 협의와 절차를 다 따라줬죠.

사회자(M) 다른 분야가 갖고 있지 않는 그런 민간기업의 참여가 있었는데,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냥 전문분야 때문인가요?

참석자(1) 비결보다는, 거기에서 원하는 양식을 예술가가 아니라 발표자 형식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죠.

사회자(M) 두 분은 기회가 되어서 민간기업에도 참여를 하셨군요.

참석자(2)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예술인들이 사실상 그 기업체에 직접 가서 말씀 드리기는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매개 역할을 성남시나 혹은 성남문화재단에서 매개 역할을 해서 예술인들을 도와 주는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네. 좋은 생각입니다. 혹시 또 교육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신가요?

참석자(5) 저요. 저는 대학에서 강의를 몇 번 했었고요. 했는데 지속적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지원하는 것도 할 때마다 힘들고. 그리고 저도 작년에 지원해서 됐었는데, 그 전에는 2년 넘게 못 하다가, 물론 지원했는데 안 됐었고 작년에 됐는데, 작년에 20~30군데를 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겨우 하나가 된 거였고.

사회자(M) 대학은 한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까 참석자님이 말씀해 주신 사회복지관 그런 데를 보면 강의를 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걸 떠나서, 교육활동으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게 있다는 것을 아세요?

사회자(M) 이런 자격증을 취득할 생각은 없으세요?

참석자(5) 없습니다.

참석자(1) 저도 없어요.

사회자(M) 왜 없으세요? 이런 게 있으면 기회가 좀 더 많지 않을까요?

참석자(1) 문화예술사 라는 게 해설사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5) 문화예술교육사.

참석자(1) 저는 직업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참석자(5) 문화예술교육사 라는 것은 저는 5, 6년 전에 알게 됐는데요. 2010년 전후로 해서 교육부에서 대학에서 예술을 전공한 학생들에게 기존에 교원자격증을 주는 식으로 특정한 수업을 들으면 그 자격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자격증을 받은 분들이 2010년 전후로 해서 예술강사 라는 것을 하고 계세요. 지금까지. 그거는 1년짜리 계약인데 1년 전체 계약도 아니고 그 짧은 계약을 하면서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일부가 하고 계신데, 매년 싸우는 거죠. 교육부인지? 어느 쪽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 쪽이랑 매년 싸우면서... 왜냐하면 이미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사회자(M) 포화상태 라고 알고 계세요?

참석자(5) 제가 알기로는 포화상태이고, 계속 졸업생들이 나오는데, 그 분들이 그 자리에 간다는 것은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또 들어가려고 하면 돈을 내고 공부를 해야 되요.

참석자(2)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사회자(M) 지금은 시간상 넘어 갈게요. 죄송합니다.

참석자(2) 예술인 선생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사회자(M) 네. 경력이 많으셔서 끝난 후에 더 시간을 가지셔도 좋을 거 같아요. 좋은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시간 관계상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입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시는 분?

사회자(M) 모두 알고 계시네요. 그 중에서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신지? 혹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으면 소개를 해 주세요.

참석자(5) 작년에 창작지원금에 선정이 되어서 지원금을 받았고요. 받은 것을 갖고 전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내년 정도에 전시를 하려고 준비중입니다.

사회자(M) 어떤 점 때문에 작가님에게 도움이 되고 좋았었나요? 지원금이야 다 좋겠지만...

참석자(5) 그 창작지원금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작품을 한다거나 전시를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할 만 하다, 라고 생각해서 지원에 선정해 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작가의 다음 단계로 넘어 가기 위해서 받은 거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요.

사회자(M) 말씀하신 다음 단계라는 것은 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석자(5) 현재 지원했을 당시에 했던 작업을 일단 한 번 마무리 하는 거죠.

사회자(M) 혹시 지원받으신 분이 또 계신가요?

참석자(4) 저도 두 번 정도 창작지원금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원금을 사용할 때 보통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되요. 영수증 처리를 한다거나. 그런데 예술인복지재단에서 지원을 해 주는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는 일시불로 한 번에 입금이 되고, 그 결과에 따른 부가적인 불편한 서류가 크게 없어요.

사회자(M) 그건 굉장히 좋은 거네요.

참석자(4) 네. 영수증 처리를 한다거나 내가 어디에 돈을 썼다는 것에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어서 그래서 작품 운송비나 아니면 근처 철물점에서 현금을 주고 구매를 해야 된다가나 그래서 간이영수증 같은 것을 처리하지 않아도 되어서 굉장히 그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재단이나 기업들 후원같은 경우에는 영수증 처리나 결과보고서 같은 게 되게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면 돈을 주고 쓰는 게 아니라, 예상내역을 작성해서 결재를 받아야 돈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는 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M) 또 다른 분 계세요? 이용한 지원제도라던가 혹은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도 좋습니다.

.....

사회자(M) 혹시 예술인파견지원제도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사회자(M) 이 제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고 계시는데 별로 이용하지 않은 건가요?

사회자(M)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참석자(1) 그냥 있다.

사회자(M) 있다는 것 정도로 알고 계세요?

참석자(1) 네.

사회자(M)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이런 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성남시에서도 이런 예술인파견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을 생각중이신 것 같아요.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참석자(1) 내용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알고 싶어요.

사회자(M) 성남에서 특정 기업이나 예술에 대한 수요가 있는 기관에 우리가 이런 pool을 갖고 있으니 까 그 쪽에 요청을 하면 그 쪽 기관에서 ok를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 들을 파견을 보내서 그 쪽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도록 할 수 있는 거라고 합니다.

참석자(5) 제가 알기로, 파견이라는 게... 예를 들어 성남시나 성남문화재단에서 특정 기업에 컨택을 해서 그런 파견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했을 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작가는 중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기업이 요청하는 사람을 시나 재단에서 이런 사람들 있어! 골라봐! 하는 거고. 골라진 사람이 가서 기업에서 생각하는 계획하고 있던 것을 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가장 좋은 상황은 작가가 작업하던 것을 이어가면서 파견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가장 좋죠. 그리고 그러면 더 성과도 좋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뭐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억지로 해야 되는 거를 해야 되는 거면 작가도 힘들고 기업의 입장에서도 별로 의미가 없고.

사회자(M) 분야마다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참석자(5)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런 거는 주로 회화, 조각, 미디어 그런 분야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진 쪽을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야 특성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M) 회화 전시처럼 사진도 전시할 수 있지 않나요?

참석자(5) 단순히 전시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를 내부 부서 사람들과 같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사회자(M) 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아이디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을 해 주셔도 좋거든요. 분야의 특성상 해당되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시지만, 우리 분야에서 기업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겠다, 라고 오히려 역으로 제안을 주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여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쭙 봤거든요. 기회가 되면 참여하시겠어요?

참석자(5) 사진 쪽에 사람을 뽑는다고 했을 때 지원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재단이나 시에서 연락이 오면 생각을 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런 거는 대부분 공고가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공평하게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시나 재단에서 pool을 모집을 해 놓은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pool을 모집을 하시면서 그런 사업이 있을 때 그 pool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불특정 다수에게 그냥 공고만 한다고 해서 그거 저희들이 들어가서 보는 게 아니거든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6) 기회가 되면 잘 맞는 성향의 기업과 연관이 되고 작업적으로 서로 막 고통스럽게 작업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려고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서로 하나의 아이디어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매칭이 잘 된다면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M) 제가 들었을 때는 못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참석자(6) 네. 그런데 자격요건도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사회자(M) 자격요건은 어떤 거를 말씀하시나요?

참석자(6) 그건 잘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이번에 오픈블록스 성남공공 뭐... 그게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4대 보험이 되는 작가는 돈을 못 벌어도... 그런데 아는 작가가 돈을 못 벌고 그랬는데, 어디 기업이란 연관이 되어 있었나 봐요. 실제로 보수가 없는데도 거기에 참여를 못 했거든요. 그런 요건들이 너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작가도 있거든요.

사회자(M) 자격요건을 완화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게 한다거나?

참석자(6) 맞는 작업끼리.

사회자(M) 그리고 파견지원제도에 역으로 아이디어를 주시면 얼마든지 참여하실 의향이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참석자(3) 그런 사업이 문화재단 측에서 준비를 해 주신다면 작가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고, 더 참여할 수 있는 작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대부분 저는 귀국해서 8년째 공모전만 도전해서 전시를 하고 있는 작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제한이 많더라고요. 나이 제한도 점점 있고, 지금 정부가 바뀌면서 조금 완화되기는 했지만 크게 다를 바가 없고, 지역은 그 지역 거주자에게 기회를 준다고 하면 대부분 팀이에요. 그러면 개별로 혼자 작업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그 팀을 모아서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아요.

사회자(M) 서로 연결해서 여기 재단쪽에서 팀을 만들어줘서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참석자(3)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전에도 문의를 드렸었는데, 알아서 만들어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1차는 개인으로 합격을 했는데, 팀을 만들어 오지 못 해서 떨어진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이 굉장히 피로하죠.

사회자(M) 공동으로 협업하는 그런 환경이 필요한 분야이기도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경력정보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예술활동증명신청을 하신 분?

사회자(M) 신청과정이 어땠어요? 쉬웠나요? 어떠셨어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이 있었나요?

참석자(1) 업로드를 한 번 해야 되더라고요. 업로드를 안 하면 그 쪽 시스템에 못 들어가게 되어 있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좀 불편해요.

사회자(M) UI가 불편하다?

참석자(1) 네. 굉장히 간단한 건데, 절차가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요.

사회자(M) 다른 분들은 별 문제없이 끝나셨나요?

참석자(5) (끄덕끄덕)

사회자(M) 참석자님은 왜 안 하셨어요?

참석자(2) 잘 몰랐습니다.

사회자(M) 워낙 기존에 많이 하고 계셔서 그러셨던 것 같네요. 지금은 이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쭙 보려고 해요. 앞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원받은 사업이 만족스러웠나요? 좋았던 점과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점을 수요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시면, 다음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나는 공공기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분?

참석자(3) 어느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공공기관의 사업금액을 받아서 작품을 전시했었냐고요?

사회자(M) 네. 그것도 일종의 지원이죠.

참석자(3) 사업이 많아서...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회자(M) 지원사업이 중앙부처, 그리고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이렇게 구분해서 여쭙 보려고 합니다.

참석자(3)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회자(M) 아뇨. 금액을 받을 수도 있고 다른 거를 받을 수도 있잖아요.

참석자(3) 교육 프로그램이나 그런 거는 많이 하고 있죠. 교육 프로그램이나, 작가들이 지금 달라진 시대에 맞춰서 공부해야 될 게 많잖아요. 여러 가지 회화 작가에게 필요로 하는 또 다른 기술 같은 것.

사회자(M) 역량 강화 그런 프로젝트?

참석자(3) 네.

사회자(M)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요. 지금은 지원사업에 응모해서 되어서 작품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참석자(3) 그러면 저도 받았어요.

사회자(M) 어떤 거 받으셨어요?

참석자(3) 아이디어 공모전이요.

사회자(M) 어디에서 받으신 거예요?

참석자(3) 성남문화재단.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 것부터 얘기를 해 볼게요. 어떤 점이 좋으셨어요? 지원하는 과정이 어땠는지? 지원 과정에서 불편점과 좋았던 점을 얘기해 주세요.

참석자(3)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 같은 얘기인데요. 지원하는 방식은 어렵지 않았고요. 일단 증명서

제출하고 이런 것들은 어렵지 않았고. 중요한 것은 공고 발표날이 한 달이나 지나서 났고요. 작가들은 다들 간절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지원금을 받아서 뭘 해야 하는데 일절 통보가 없었어요. 보통은 공고 발표 나는 날을 공공에서 지키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통보도 없이 한 달 넘게 계속 전화로 문의를 해서 계속 기다려라!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자꾸 찾아서 댔나 안 댔나 확인을 했던 케이스이고.

사회자(M) 실제로 다른 분들은 공고를 어디에서 보셨어요?

참석자(3) 문화재단 사이트를 들여다 보죠.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차는 개인으로 댔는데, 2차로 팀을 만들어 와라! 라고 해서 떨어진 케이스라서요.

사회자(M) 또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을 받으신 분?

참석자(1) 저요.

사회자(M) 어떤 거 받으셨고, 지원과정이 어땠는지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1) 성남문화재단에서 집이라는 주제로 전시 공모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원하게 됐고 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 깔끔했어요. 영수증 처리하고 그런 것들이 각 재단 별로 다 달라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에서 한 그거는 쉽게 딱 계약서 딱 쓰고 바로 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샘플을 딱 보여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작업이 선생님 작업으로 조금 더 확장되어서 전시가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게 시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 절차가 돈이 지급되고 계약서를 쓰고 시뮬레이션을 돌려 주는 것들이 당일날 다 끝났어요. 그리고 저는 석달 뒤에 작품만 딱 준비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관행이 줄어든 거죠. 그런 면이 굉장히 편했고.

사회자(M) 공고는 어디에서 보셨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참석자(1) 문화재단도 있고, 네오룩 그리고 아트허브, 그냥 인터넷 치면 서치 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참석자(3) 작가들은 플랫폼들을 찾죠.

참석자(1) 네.

사회자(M) 주로 자주 보시는 플랫폼이 있으세요?

참석자(1) 습관적으로 네오룩, 아트허브를 계속 보고 있어요.

사회자(M) 왜 거기를 선호하시는 편이세요?

참석자(5) 그것 밖에 없습니다.

참석자(1) 일단 유일해서 그런 것 같아요.

참석자(5) 저도 받았는데요.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성남문화재단에서 받았는데요. 선정되고 나서 지원금을 얼마를 받느냐를 갖고 한 번 더 미팅이 있었고, 그 후에 바로 금액이 결정됐고, 계약서를 쓰고 약속하신 날짜에 송금해 주시고, 미술관하고 협의된 날짜까지 작품을 제

작하는 거였고, 그 사이에 체크는 계속 해 주셨죠. 작품은 잘 되고 있는지? 전시 일정에 될 것 같은지?

사회자(M) 그렇게 체크해 주시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런 게 없는 게 좋은가요?

참석자(5) 체크해 주시는 게 좋죠. 왜냐하면 단순히 체크해 주시는 게 아니라, 제 경우는 한 번 스튜디오나 집에 오셔서 같이 체크하시고 그 후에 바뀐 일정 같은 거라던가... 아니면 저는 사진 전시였는데요. 작품을 애초에 계획했던 크기보다 4배 더 키우자! 라고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사회자(M) 그러면 비용도 늘어나나요?

참석자(5) 비용을 더 주실 수는 없기 때문에, 처음에 주셨던 비용으로 작품 제작하고 프레임 하고 운송비까지 생각했던 건데, 이렇게 변경하는 거니까 프레임 하지 말고 작품만 해서 전시장에 세팅하는 식으로 바꿔 주셨죠.

사회자(M) 크기가 달라지면 일정도 달라지지 않나요?

참석자(5) 그래서 작품 제작을 마치는 일이 조금 늦어졌죠. 작품을 좀 더 키워야 되기 때문에, 포토샵 상에서 조금 더 작업을 오래 해야 되어서.

사회자(M) 불만사항은 없으셨어요?

참석자(5) 네.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았기 때문에.

사회자(M) 네. 작품 아웃풋이 좋아서 작가님이 만족하시면서 해결된 것으로?

참석자(5) 네. 그렇게 하는 게 저에게도 더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하셨고, 전시장 레이아웃을 짜셨는데 그 때 키우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거죠.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6) 저는 주로 창작지원금보다 주로 전시지원을 받은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받고 고양문화재단... 여기는 개인전이고 그 쪽은 그룹전이었는데, 여기에서는 특별히 아티스트 페이가 있지는 않았고요. 저는 청년작가지원이었고. 그게 다른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전을 지원받아서 그 부분은 좋았으나 따로 아티스트 페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도록이랑 전시 지원을 받았고. 그런데 고양문화재단은 좀 이전에 한 것이긴 해도 중국에서 활동을 했었을 때 전시를 위해서 운송비를 다 지원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공연은 되게 큰 것 같은데, 전시지원은 약간 미흡하지 않나? 제가 시각예술 분야라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뭔가 아트센터는 큐브미술관보다는 오페라하우스 같은 느낌이 커서 좀 밸런스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는 있었어요.

사회자(M) 예술분야 특성상 그러기도 한 것 같은데요. 고양에서 하는 것은 좀 다르던가요?

참석자(6) 고양도 마찬가지로 아닌가요? 공연도 있지만 전시지원도 있고. 지금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 때 지원을 많이 받았으니까.

사회자(M) 개인으로 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조금 작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곳하고 비교했을 때.

참석자(6) 여기가 조금 작지 않나? 싫어요.

사회자(M) 다른 곳과 비교해서 얘기를 해 주시면 좋겠어요. 예술분야에서 개인으로 하는 것은 지원금이 적을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만약에 적다고 하는 말씀이 무엇을 기준으로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참석자(6) 페이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큐브미술관전시 말고...

사회자(M) 인건비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6) 그런데 요즘에는 대체적으로 전시 일수에 대해 아티스트 페이 지급이라는 것을 요즘에 거의 하고 있잖아요.

사회자(M)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참석자(6)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참석자(1) 요즘에는 문광부에서 전시지원사업을 따로 해요. 독립기획자들이 그 문광부의 지원을 받아서 작가를 섭외해서 그 돈으로 작가들에게 페이를 주는 거죠. 그리고 전시기간 동안 작품을 전시하고.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님은 어디에서 지원을 받았다고 하셨죠?

참석자(4) 저도 참석자 작가님처럼 청년작가전 했었거든요. 아마 같은 해에 했었나? 그럴 거예요. 얼굴은 오늘 처음 뵈는데요. 존재는 알고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도 저희 작업실에 다른 작가분들이 있는데, 집을 주제로 하셨던 그 전시에서 큐브미술관에서 했던 것은 아티스트 페이가 나오고, 청년작가전은 아티스트 페이가 안 나오는 대신에 나머지 제반사항을 다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전시 오픈이 왔을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조직위 선생님들께서.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름에 인천문화재단하고 뭐가 또 있었는데, 거기에서는 아티스트 페이도 주고, 운송만 제가 하고, 도록과 나머지 제반사항을 다 해 주셨거든요.

사회자(M) 운송하고 아트 페이가 빠져 있는 거네요? 여기에서는?

참석자(1) 그리고 전시장 작품 촬영. 전시 장소에서 작품을 볼 수 있게 촬영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전시 작품 촬영도 있지만 전시 공간 촬영도 중요한 거예요. 그걸 또 3D로 찍잖아요. 그래서 제한을 두잖아요. 어디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래서 3D로 들어가는 거랑 그런 촬영이 있죠.

사회자(M) 다른 재단에서도 이런 거를 해 주나요?

참석자(1) 전국에 있는 모든 재단을 다 이용해 본 게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지금 코로나 라는 특성 때문에 3D 촬영을 필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다른 지역의 재단하고 비교를 해서 말씀해 주셔도 좋고요.

참석자(4) 이해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이 문화재단도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지만 물론 기업에서 하는 것도 있지만, 시나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재단은 아무래도 국가예산을 갖고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 분야에 대한 그 쪽은 지원이 적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큐브미술관에서 하는 것은 입장료를 받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반달갤러리에서 하는 것은 청년작가전 같은 경우에는 입장료가 없어요. 소득이 발생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아티스트 페이가 제한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M) 이해하시죠?

참석자(6) 저는 도록도 해 주시고 감사하지만 굳이 아쉬운 부분을 말하라고 하니까 그렇다고 드린 말씀이에요.

참석자(4) 그리고 오페라나 다른 공연 같은 경우는 물론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것도 제작과정에 많이 들어가지만 소득이 발생하잖아요. 비용이 미술관보다는 꽤 비싸기도 하고. 그래서 더 그런 쪽으로 치중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또 성남시 혹은 경기도에서 지원받은 적이 있는 분?

1명(1번)

참석자(1) 예술인100선 이라고 해서, 올 초에 작품 구입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작품 구입에 선정이 되어서 했었는데, 성남문화재단과 비슷한 것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에도 그림이 한 점 들어갔었는데... 아무튼 코로나 이슈 때문에 계속 예술인들을 어떻게든 서포트 하려고 하는데, 서포트 하는 게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핏하게 다가오느냐? 체감 온도의 차이거든요.

사회자(M) 체감하고 계세요?

참석자(1) 체감하고는 있죠. 그런데 예술인100선이라고 했을 때 이게 왜 공고가 떴지? 일단 공고가 떴으니까 지원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작가로서. 그런 식으로 이해는 하는 거죠.

사회자(M) 어떠세요? 다른 분들도 체감하고 계시나요?

참석자(3) 저는 여기 지원받은 분들 말씀 들어 보니까... 이렇게 작가들을 지원해 주거나 공고가 뜨는 것을 작가가 일일이 문화재단을 들여다 봐야 되거든요. 사이트를 늘상. 그런데 사실 그게 굉장히 피곤해요. 그래서 이렇게 예술인증명이 된 작가에게 문자로 주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공고 제안. 놓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기간도 그렇고.

사회자(M) 플랫폼이 만들어져도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 플랫폼에 대한 아이디어는 뒤에서 또 여쭙 볼게요. 혹시 공공기관에서 지원받은 경험은 다 얘기하셨나요? 혹시 빠진 부분 있나요?

.....

사회자(M) 네. 넘어 가겠습니다. 참석자님은 아까 지원을 했다가 팀을 구성을 못 해서 떨어졌다고 하셨고. 혹시 지원했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가요?

참석자(3) 저는 되게 뒤늦은 나이에 미술 공부로 유학을 갔다 왔어요. 그래서 오자마자 벌써 나이부터 제한이 됐어요. 모든 공모에서 나이 제한이 있어서, 일단 서류부터 지원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그냥 정책상 정부가 바뀌면서 나이가 완화되면서 공모가 되어서 전시를 했어요. 저는 그 나이 제한을 두는 것에 대해서 항상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사회자(M) 그러니까요. 예술가들은 특히 나이가 들수록 성숙해지는데, 나이가 든 분들에게도 종류가 다른 지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나이가 어린 분들은 신진 작가로서 지원이 되고, 나이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서도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점도 애로사항인 것 같네요. 혹시 또 지원했다가 떨어지거나 마음에 안 들었던 점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5)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 조금 전에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것을 조금 더 얘기를 해 보면, 나이 때문에 지원을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지자체에서 주는 것은 혹은 국가에서 주는 것은 그런 거는 없어지는 게 좋을 거 같고요. 지금 정권에서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좀 됐으면 좋겠고. 그렇게 됐을 때 사회자 분께서 아까 얘기하신 게 신진은 신진, 중견은 중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나이가 조금 들어서 미술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른 일 하시다가 미술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면 어려서부터 했지만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저도 약간 그런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은 단순히 나이로 자르면 나이가 좀 됐는데도 신진일 수도 있고, 나이가 젊은데도 중견이라고 인정받을 만할 수도 있어요. 중견이라는 게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이미 개인전도 여러 번 했고 해외도 다녀 오고 그랬으면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저는 아직 신진에 머물러 있는 입장에서 그런 분들은 특정한 지원에서는 제한을 두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사업에 응모하려면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야 되잖아요. 그런 서류 작성에 대한 것은 별로 부담이 안 되시나요? 웬지 예술하시는 분들이 이 쪽으로 약할 것 같아서요.

참석자(3) 다 잘 해야 되요. 그것도 머리를 쥐어 짜서 잘 써야 되요. 그것도 한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은 서로 선후배도 있고 정보도 있고 논의도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스티디 때문에 그나마 공부를 해서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 저기 내는 것이지, 저 혼자만 계속 했었으면 그 동안의 공모는 다 떨어졌을 것 같아요.

사회자(M) 서류 작성에 대한 지원도 필요하세요?

참석자(3) 매우 필요하죠.

참석자(1)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절차 자체가 자신을 객관화 해서 서류를 써야 되는 건데, 예

술가는 진짜 말 그대로 예술가스러운 면이 있어야 되는데, 또 발표를 하면 할수록 발표자가 되니까, 그게 어떤 면에서는 맞는 건데, 작품의 주제의식이나 전시의 연계방식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만, 너무 기획자처럼 변해 버리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들어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화재단 형식이랑 일반 대중적인 작가랑 점점 나뉘지는 거죠. 정책적인 것 때문에. 그러니까 조금 더 정말 실질적으로 예술가들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들.

사회자(M) 사업계획서도 거기에 맞게?

참석자(1) 네. 단순화를 시키고, 진짜 필요한 것들만 할 수 있게 해서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그 부분은 다들 동의하시나 봐요. 넘어 가겠습니다. 성남시로 범위를 한정해서 질문을 드려 볼게요. 성남시예술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3) 성남시에서 하는 게 타 지역과 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적죠.

사회자(M) 지원금이 적은 거예요?

참석자(3) 지원금도 적고, 공고도 적고. 그리고 제가 들여다 본 공고들을 보면 이게 뭐지? 작가들에게 공고하는 사업인가? 도대체 공공미술은 왜 이렇게 큰 금액을 주고 단 한 팀에게만 주지? 좀 의구심이 드는 게 굉장히 많고. 일단 진입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성남문화재단은 다른 문화재단과 달라요.

사회자(M) 어떤 면에서 진입장벽이 높아요?

참석자(3) 방금 말씀 드린 그런 부분이에요.

사회자(M) 나이 그런 거?

참석자(3) 그건 어느 문화재단이나 다 있지만, 공모사업 자체가 적어요. 빈도 수도 적고.

참석자(5) 너무 제한된 인원만 뽑죠.

참석자(3) 네. 제한되어 있고.

참석자(5) 공공미술은 한 팀에게 몇 천만 원 이렇게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너무 많은 돈이 한 사람에게 가니까. 그렇게 하는 의도는 있겠지만.

참석자(3) 코로나19로 인해서 작가를 지원한다고 해서 공공미술 사업 등 다양한 아이디어 뭐 그런 공고를 해서 그 금액을 준다고는 하는데, 그게 직접적으로 작가에게 필요성을 느끼게 즉 수용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공고가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실태조사를 더 해서 성남시에 살고 있는 작가들은 분야 별로...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예술인 이라고 하면 통쳐서 한 분야를 얘기하거든요. 연극, 음악, 다 같이 해서 줘요. 분야를 나누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사회자(M) 쏠림현상이 있다는 거죠?

참석자(3) 당연히 나눠야 되지 않나?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시는 오페라, 음악, 공연 위주잖아요. 저도 그거를 많이 느끼고 있어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6) 예술지원사업 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예를 들어 전시지원인지? 아니면?

사회자(M) 전시지원도 들어가고, 창작공간 제공도 들어가고, 정보교류를 할 수 있도록 성남시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지? 발표기회가 많은 건지?

참석자(6) 저 같은 경우에 시각예술에 있어서 발표기회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입지도 서울이랑 되게 가까워서 초대했을 때도 동떨어져서 힘든 부분이 없으니까 굉장히 입지적으로 좋고 규모도 되게 큰데, 예를 들어 수원문화재단이 작년에 샘터창작스튜디오를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오산도 오산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있고, 청주도 청주 창작스튜디오가 있어요. 그런데 성남이 제일 가깝고, 또 성남 작가들은 성남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선생님들처럼 다양하게 협업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전시를 하고 그래서 다 경쟁력이 있는데, 다른 데에 가서 자꾸 지원해야 되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에이전시가 생겼으면 좋겠고.

사회자(M) 다른 데에 가서 지원하는 이유는?

참석자(6) 없어서요.

참석자(3) 없으니까.

참석자(6) 성남에 없고, 서울에 가던가 아니면 다른 데에 가야지 되니까. 그리고 성남은 비교적 작업실이 비싸잖아요. 오산, 수원보다는 월세가 비싸죠. 그런데 여기는 굳이... 그런 게 없나? 그런 시스템이 없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회자(M) 창작공간도 없어요?

참석자(6) 그렇죠.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생긴다면 되게 경쟁력이 있고, 좋은 작가들도 많이 지원을 할 거고.

사회자(M) 지금은 아예 없나요?

참석자(6) 성남은 아예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창작소가 있지만... 공공미술이 성향의 창작소죠?

참석자(4) 신흥에 하나 있고 태평에 하나 있는데, 둘 다 공공미술 성향을 띄고 있고, 또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성남문화재단에서 공공미술로 벽화사업을 왜 그렇게 치중하는지 모르겠어요.

참석자(6) 서울에 은평구, 동작구, 다 벽화에요. 도시재생.

참석자(4) 지금 창작소가 2기 작가들을 뽑아서 운영중인데, 태평은 1기때 아예 지원자격 요건에 벽화 공모사업을 1회 이상 진행한 것에 대해서 증명을 해야 되고, 그 결과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되게 불편한 점이 많아요. 저도 지금 신흥에 있기는 한데, 이게 내 작업이 아닌데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문화재단을 위해서 내가 내 역량을 써 가면서 쥐꼬리만한 돈을 받아 가면

서 이걸 하고 있는 게...

참석자(6) 여기는 레지던시 라고 하면 안 되요.

참석자(4) 네. 레지던시 라고 명칭하면 안 되요.

참석자(6) 왜냐하면 레지던시 라는 것은 순수 작가에게 창작공간을 제공하는 것이지.

참석자(4) 맞아요.

참석자(6) 지역연계 프로그램 연계를 해서 협업을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수원도 그렇고 오산도 그렇고 청주도 그래요. 일단 성남은 레지던시 자체가 부재하는 거고, 창작지원금 같은 경우도 수원이 500만원씩 줬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창작지원금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이 부재하고.

사회자(M) 지원금은 적고, 전시공간은 너무 좋고?

참석자(6) 그건 장점인 것 같아요. 전시공간이 너무 좋고, 선생님들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은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나머지 재단에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전시기획 선생님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참석자(1) 저는 공공기관에서도 있어 보고 사립기관에도 있어 봤거든요. 공공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고 사립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공공기관에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기존에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하신 거고요. 성남이라는 도시의 큰 특징들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면 기업연계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비어 있는 공간이 상상 외로 엄청 많아요. 그 공간을 작가들에게 매년 돌아가면서 제공을 한다든지 연계 프로그램으로 창작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그 분들은 그냥 회사만 알지, 창작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몰라요. 그래서 한 번 얘기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회자(M) 실제 성남시에서 신규로 공동예술공간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선호되는지 여쭙 보고 싶어요.

참석자(1) 저도 레지던시 돌면서 생각한 건데, 그 공간이 중요하기 보다는 그 안에 시스템이 중요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작가들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짜 줘야 되고, 그 안에서 비평가 매칭이라던가 창작공간 지원이라든지 숙소를 제공해 준다든지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것을 해 줘야 제일 좋은 거죠. 위치는 정말 도심쪽에 사람들 많이 다니는 곳에 있으면 좋죠.

사회자(M) 위치는 중요하지 않다? 시스템이 중요하다?

참석자(1) 아니, 위치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작가가 들어와서 작가가 왕성하게 활동할 수 있게, 주목 받는 작가로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죠.

사회자(M) 그 시스템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신다면?

참석자(1) 기존의 공공기관의 프로그램들은 다 비슷해요. 작업실 제공해 주고, 비평가 매칭해 주고 한 달에 얼마 창작지원금 지원해 주고, 그리고 숙소 제공해 주고, 다 비슷한데... 성남이라는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조명해 주고 지속적으로... 아까 나이 제한 얘기 하셨잖아요. 그 나이 제한이라는 게, 사람은 어차피 나이가 드는 거잖아요. 나이가 들면 나이가 든 그 지역의 작가들이 더 조명 받을 수 있도록 전시 섹션을 더 많이 만들어 준다던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달라는 거죠.

참석자(6) 플랫폼이 서울에 하나 더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동덕갤러리가 종로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플랫폼이 서울에 있으면 더 좋고. 그리고 위치도 그렇지만, 작년에 있었던 새로 신생했던 그런 재단의 레지던시들이 비가 많이 내려서 작품이 다 상한 걸로 알고 있어요. 밖에서 공공연하게 얘기를 안 했을 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작가들의 피해가 많으나 레지던시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또 그렇잖아요. 습기... 그러니까 지대가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습기가 너무 많은 지대는 제습기를 아무리 돌려도 에어컨을 아무리 돌려도 안 되니까 그런 제습 부분.

사회자(M) 네. 그런 거를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남에도 여러 지역들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구나 동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 되기를 원하는지도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3) 구체적으로 지역을 말씀해 달라고 하시면, 문화재단 근처면 더 좋죠. 여기 바로 뒤에.

사회자(M) 좀 더 멀리 더 넓은 지역으로 보시면요?

참석자(3) 더 넓은 지역 어디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사회자(M) 재단 근처가 특별히 더 좋은 이유는 뭔가요?

참석자(3) 만약에 레지던시 들어가서 작품활동을 하면 관계자 분들에게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고, 의사전달 하기도 쉽고.

2명 그렇죠.

참석자(6) 역 주변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참석자(3) 게다가 여기 미술관이 있으니까 더 어울리겠죠. 어디 뭐 숲 속 같은 곳에 나오기도 힘든 곳에 몰아넣지 마시고. 가까운 곳으로.

사회자(M) 창작활동이니까 숲 속을 원하지 않을까요?

참석자(3) 아닙니다. 교통이 편해야 되요.

참석자(1) 이 근방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박수근 미술관에서도 부지를 팔아요. 박수근 미술관에서 부지를 팔아서 각 전공 별로 작가를 한 명씩 끌어 모으고 있어요. 그러는 이유가 미술관에 왔다가 작가 숙소로 들어가라는 말이거든요.

사회자(M) 이 동네가 땅값이 비싸대요.

참석자(6) 맞아요.

사회자(M) 그러면 조금 떨어진 지역으로 어디를 추천하시겠어요?

참석자(6) 폐교 괜찮아요. 성남시에 폐교가 많다고 들었어요.

참석자(3) 성남시에 폐교가 어디 있나요?

참석자(4) 영성중학교 쪽?

참석자(6) 오히려 재생도 되고.

참석자(1) 구도심쪽.

사회자(M) 이 주변이 가장 좋고, 그 다음에 간다면 폐교?

참석자(3) 저는 판교도 좋습니다. 여러 기업과 작가들이 만날 수 있게 가까운 것 같아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지금 공간지원을 받고 계신 분은 참석자님 한 분 밖에 안 계신 거죠?

참석자(4) 성남시에서요.

사회자(M) 불편한 점 있으세요?

참석자(4) 주택가 안에 그게 완전... 그게 구도심 안에 있는 주택을 개조해서 리모델링을 해서 만든 공간이에요. 구도심에 있는 건물들이 면적이 다 일정하잖아요. 면적이 그렇게 넓지가 않아요. 말이 창작소이지, 거기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톱질을 할 수도 없고, 아마 유화작업도 거기에서 못 할 거예요. 태평도 그렇고 신흥도 그렇고, 주차공간도 없고. 그냥 내 돈 내고 보건소에 맨날 차를 대야 되요.

사회자(M) 그리고 아까 중요한 얘기로, 그 안에서 작가가 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정말 작품과 습기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요구사항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거기 안에 같이 플랫폼이 있어도 좋을까요?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참석자(3) 아예 그런 레지던스를 마련할 거면 요즘에 복합문화공간처럼 레지던스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크게 장소를 제공하고, 그 옆에 다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와서 함께 회의를 하거나 작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그런 거 요즘에 많잖아요. 바로 옆에 도서관이 있어도 좋고, 커피집이 있어도 되는 거고, 그 지역 시민이 이동하면서 쉴 수도 있고, 아! 여기 이런 작가들인 작업하는 것도 있네! 오픈해서 한 번씩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사회자(M) 네. 좋습니다.

참석자(1) 얼마 전에 부산에서 부산문화재단에서 하는 강의를 들었던 건데, 부산현대미술관 큐레이터들이 왔었어요. 큐레이터 분이 와서 실질적으로 부산현대미술관의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줬었어요. 작가들에게, 부산문화재단에서 공고를 하고 학예사님이 섭외를 해서 이런 주제가 있는데 참여해 달라고 해서 저도 레지던스 기간이라서 참여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행정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남

문화재단에는 이런 시스템이 있는데, 작가들이 한 번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자주 만나서?

참석자(1) 자주까지는 아니더라도 전반기 후반기 정도 해서 1년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작가분이 뭐를 쓰거나 그럴 때 유리하다, 이런 폼이나 양식이 좋다, 이런 샘플 같은 것도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이해도가 확 올라가더라고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성남시의 신진 예술가들 활동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요. 성남시의 신진 예술가들이 활동하기 어떤지? 오늘 여기에는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신진 예술가를 발굴할 수 있는 정책들이나 기회를 가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에서 여쭙 보는 거예요. 어떠세요? 발굴 안 해도 저절로 모여지나요?

참석자(3) 발굴해야죠.

사회자(M) 왜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면 발굴을 할 수 있을까요?

참석자(3) 당연히 활동을 하고 계실 거고요. 활동은 하지만 이런 시스템을 모르고 자기 작업만 하고, 이런 거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다른 분들처럼 너무 갑갑하다 보니까 여기 저기 찾아보다가 알게 된 케이스인 거고.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연령대가 아무리 있으시다고 해도 경제활동이 좋은 게 절대 아니거든요. 가까이에서 보고 있으면요. 저도 아까 공모사업 때 나이제한이 있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도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라도 할 수 있어서 이것저것 하지만, 60대 정도 되는 분들은 더 사각지대예요. 창작활동은 더 하고 싶은데 못 하니까. 그런 작가를 찾기 위해서는 성남문화재단이 머리를 써야 되겠죠. 성남시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M) 참석자님은 오래 동안 해 오셨잖아요. 경제적으로 안정도 되시고. 작가님처럼 비슷한 연령대의 예술인들이 많이 있나요? 어떤가요?

참석자(2) 신진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그 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형태의 대중역사서가 나오는 거거든요. 사실 제가 우리나라에서 대중역사서를 처음 썼거든요. 처음 써서 제가 쓴 이후에 많이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개설서 중심의 역사서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걸 써서 제 책이 모티브가 되어서 대중역사서가 많이 나왔죠. 그런 것들을 보면 제 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새로운 형태로, 설민석씨처럼 그런 형태로 또 새롭게 발전을 하는 거죠.

사회자(M) 네. 그렇죠.

참석자(2) 그러니까 많이 뒷바라지를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의 머리, 요즘에 젊은 분들의 머리는 저하고 생각하는 게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새로운 형태의 역사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

는 것이 필요하죠.

사회자(M) 그러니까 어떻게 지원을 해 드리면 그 분들이 열심히 활동할 수 있을까요?

참석자(2) 아무래도 그거는 성남시나 성남문화재단이나 그런 데서 뭔가... 사실 역사와 관련된 것을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사실은 자기 스스로 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일종의 제가 아는 지인을 제가 끌어 와서 제가 그 사람을 출판사에 소개를 시켜서 책을 쓰게끔 만들거든요.

사회자(M) 참석자 작가님을 만나는 분은 되게 운이 좋지만, 젊고 정보도 없고 잘 모르는 역사 분야에서 신진을 발굴해서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남문화재단이 역사쪽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참석자(2)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즘에 많이 하는 성남 독립운동가 100인 그런 것. 그것도 새로운 사람을 발굴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사실은 역사 저술가가 하는 게 아니라 웹툰이기 때문에 웹툰 작가가 하고 있거든요. 이야기 소재는 제공을 하겠지만요. 그러한 사업도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스팀이거든요.

사회자(M) 그러네요. 협업이 필요한 거네요.

참석자(2) 네. 스팀이에요.

사회자(M) 역사가와 웹툰 작가와 만난다거나.

참석자(2) 네. 그런 스팀이 앞으로 좀 더 활성화가 되는 게 필요하죠.

사회자(M) 역사도 얼마든지 그렇게 협업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을 것 같네요.

참석자(2) 네.

사회자(M) 또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참석자(3) 미디어도 있고, 같이 협업하는 것도 있고.

참석자(5)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신진작가들 물어 보셨잖아요. 신진작가들 중에 성남문화재단 같은 경우에 매년 혹은 2년마다 한 번씩 사업을 하시는 게 있는데, 그 사업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재단 안에서 기획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런 전시회를 할 겁니다. 관련해서 작업을 하셨거나 하실 의사가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 보세요~ 해서 그 분들 중에 선발이 되어서 작품을 하거나 아니면 개인전을 따로 지원을 하거나 해서 하는 건데요. 개인전이 아마 그런 걸 거예요. 개인전이 재단에서 계약한 것이 없이 작가가 지원해서 선발이 되어서 전시를 할 수 있는 것이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많아지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개인인 작가가 기획을 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작업을 알리려면 결국 전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 맞는 전시를 누가 기획을 해 주지는 않잖아요. 작가가 기획을 해서 수시로 넣을 수 있게 해 주고 위에서 검사를 해 주셔서... 물론 처음부터 전시를 할 만큼 만들어 오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 중에서 키울 만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

분들은 또 따로 인큐베이팅이나 그런 시스템을 통해서 큐레이터 선생님들이 계시니까 그 분들을 통해서든 아니면 외주를 통해서라도 그런 식으로라도 조금씩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공간 자체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사회자(M) 전시는 좀 명확하게 방법이 있네요.

참석자(5) 네.

사회자(M) 다른 분야는 어떤가요? 각자 분야에 대해서 신진 예술인 발굴에 대해 부분이요.

참석자(1) 저는 실제로 성남문화재단의 신진 작가 응모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거 같아요. 신진 작가가 전시를 한 번 한다고 해서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지원금 한 번 받는다고 절대 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에서 정말 신진작가 공모전을 잘 하고 싶으면 신진작가들을 키우는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나 멘토링 시스템으로 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1회적으로 이 신진 작가에게 얼마를 줬다? 아니! 신진작가가 중견작가가 되고, 중견작가가 원로작가가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 작가가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석자(2)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참석자님 말씀을 듣고 제가 많이 안타까웠는데요. 그게 뭐냐하면 협업작업 이라고 해서 그게 스팀 작업인데요. 거기에서 참석자님이 1인으로 했을 때는 합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것을 팀을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성남문화재단에서 팀을 꾸려줘서 그 팀을 만들 때 참석자님을 기점으로 해서 신진작가를 플러스 시켜 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참석자님이 멘토고, 신진작가가 멘티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면 신진작가도 자연히 키울 수가 있는 거고.

사회자(M)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이 좌담회의 목적이기도 한데요. 사실 요즘에 인공지능이니 가상현실이니 오늘 아침에 뉴스 보니까 건강관리나 인테리어도 가상현실 서비스로 뭐를 한다는 뉴스를 봤어요. 그런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이런 산업기술이 발달되고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까지 겹쳐서 우리 삶이나 산업환경이 너무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변화를 실제로 체감하고 계시죠?

3명 네.

사회자(M) 이런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활동에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차산업이니 가상현실이니 그런 것들과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시는지?

참석자(2) 제가 교직에 있을 때 학부모님들께... 제가 자꾸 라떼~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웃음) 학부모님들에게 특강을 하는데, 그럴 때 부모님들과 학생들과 함께 볼 영화 추천해 주는 영화 중에 꼭 뭐를 말하냐 하면 SF영화를 같이 보라고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몰랐을 때는 SF영화가 그냥 공상과학영화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보면 SF영화

에서 봤던 것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거든요.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모티브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거기에 발 맞춰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게, 요즘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시각적인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가령 예를 들자면 미국이나 일본에서는 1쇄 책이 보통 10,000권이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0권 밖에 안 되요. 그런데 그 1,000권 내는 책이 하루에 몇 권이 나오냐 하면 150권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50권 중에서 그 다음에 2,000권이 되는 책이 몇 권이냐? 15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작가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요즘에 사람들이 그렇게 책을 안 읽으니까 요즘에 많이 나오는 것이 뭐냐하면 오디오북이예요.

사회자(M) 네. 보니까 유튜브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역사가나 소설가 분들이 그런 쪽을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참석자(2) 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 계신 분들 포함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석자(3) 저는 시각예술을 하고 있잖아요. 현대미술을 하고 있는데, 저도 기술 미디어랑 협업을 해서 확장시키고 싶은 욕심이 아주 가득하죠. 뭐든지 작가들도 그런 식으로 확장을 시키고 싶은데, 전문 기술 협업팀을 만나는 것도 좋지만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 초등학교 얘기를 들어 보면 학교에서 코딩을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작가들도 그런 문화재단에서 작가들에게 코딩을 가르쳐 주는 그런 교육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미디어 쪽과 VR, AR도 하고 있지만, 미디어 파사드... 이 성남시에 있는 도시와 문화유산... 여기는 일단 구시가지도 재개발 하고 있지만 여기는 거의 아파트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간을 활용하는... 게다가 가까이에 판교가 있고, IT단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풍부하게 협업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사회자(M) 그런 환경이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석자(3)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사회자(M) 본인의 노력으로는 뭐를 하실 건가요? 교육을 받고 싶은 거예요?

참석자(3) 그렇죠. 그런 교육도 받고, 그런 관계자인 전문 기술인과 협업을 원합니다.

사회자(M) 전문 기술인과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거죠?

참석자(3) 네네.

사회자(M) 사실은 예술가들이 코딩 배워서 그거를 언제 하겠어요? 차라리 기술이 있는 엔지니어를 만나는 게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석자(3) 네.

사회자(M) 플랫폼이 시급한 것 같습니다.

참석자(3) 네.

참석자(6) 저는 솔직히 클래식은 영원할 것 같고요. AI가 아무리 그림을 그려도 감정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사라지는 많은 직업들이 있겠지만 저는 예술가는 자부심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서울 홍보? 한국 홍보? 관광에서 한 것 그것도 협업이잖아요. 그거를 매칭시켜 주고 홍보물을 제작하고 그런 것에 재능이 있는 작가들을 끌어다가 춤이 재미있는 그런 것, 그리고 음악을 잘 하는 사람들, 영상을 잘 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자꾸 매칭을 시켜 줘서 같이 일을 하면서 부가가치가 생성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자(M) 협업이 살 길인 것 같네요. 예술 장르도 서로 다른 분야가 만나고, 거기에 당연히 4차 산업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협업을 하는 작업환경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석자(3) 성남시가 무엇보다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요. 판교 IT단지가 있어서.

참석자(1) 정리하자면, 예술가와 테크니션들이 만나는 자리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테크니션들도 만나 보면 그 분들도 그런 거를 원하세요. 콘텐츠만 주면 우리가 어떻게 해 보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도 기술력은 있는데 콘텐츠가 없으시대요.

참석자(1) 지금 현재 판교에 가면 창조혁신센터 라고 있어요. 거기에서 저도 3D 프린트도 배우고, 매체가 계속 발전이 되고 있고, 거기에서 수업도 하더라고요. 실제로 정말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모여더라고요. 좋은데, 조금 더 예술가들을 위한 작업으로... 좀 더... 아까 속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예술가 라는 것은 결국 미래를 상상하고 굉장히 지식을 시각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하고 미래를 굉장히 상상할 수 있게 도와 줘야 되는 데 매체를 잘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 수용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시스템을 갖고 대학이나 뭐 그런 시스템은 안 되요.

사회자(M) 작가분들은 그 신기술에 대해서 잘 수용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1) 수용을 하고 싶는데, 정말 솔직하게 얘기하면 못 따라가는 거죠.

사회자(M) 그러면 교육도 필요하겠네요?

참석자(1) 네. 정말 이게 교육도 필요한 거고, 안 되면 외주를 써서라도 정말 테크니션들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회자(M) 플랫폼을 통해서 만나게 하는 자리는 당연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려면 여러분들 스스로도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가요?

참석자(4) 이미 다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참석자(3) 제가 알고 있기로, 아르코미술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내년에 그런 예술가들에게 기술을 가르치는 교육을 마련하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그게 내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성남시의 지역 작가를 위해서.

사회자(M) 알겠습니다. 성남시라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정리를 해 보면, 각자 다른 분야에서의

협업도 필요하지만 당연히 AI나 VR 기술을 갖고 있는 테크니션들, 엔지니어들을 만날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성남시에서 해 드려야 되는 것들이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온라인에서 실제 공연이나 발표를 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참석자(1) 아까 말씀 드린 거요. 3D 사진 촬영을 해서, 현재가 코로나 상태라서 관객이 못 오잖아요.

사회자(M) 3D 촬영을 해서 그걸 어디에 보여 주셨어요?

참석자(1) 링크를 저에게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니까 생각보다 훨씬 고차원적이더라고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높더라고요.

사회자(M) 그건 누가 보는 거예요? 일반 소비자들?

참석자(1) 네. 일반 소비자들도 보고, 그러니까 문화재단에서 관심 있는 장소를 선정해 주시면 이제는 일반 관객들도 얼마든지 봐요. 인스타나 그런 거 들어가는 게 너무 쉽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자(M) 소비자들도 그런 기술에 적응을 잘 하고 있나요? 어떤가요?

참석자(1)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약간 3D라고 하니까 그 큰 공간을 이 화면 안에서 본다는 것 자체가 와 닿지가 않는 거죠. 특별히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조금 더 같이 고민해 봐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어요.

사회자(M) 시간이 더 필요하겠네요?

참석자(1) 네. 정보 매체의 발달하는 것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수용을 하는가? 예술가는 예술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문화재단은 재단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그리고 시민들도 이런 상황에서 내가 예술을 감상하고 공유하고 위해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실질적인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회자(M) 알겠습니다. 4차산업기술 환경과 비대면 환경의 변화를 성남시가 ICT의 메카이기도 하잖아요. 문화예술정책에 반영을 한다면 어떤 것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지금 뭔가 판은 다 깔려 있다는 생각은 드네요. 문화예술정책에 어떻게 반영하거나 어떻게 지원을 해 주면 좋을까요?

참석자(4) 이미 창작지원부와 전시기획부 선생님들은 다른 타 지역 문화재단이나 레지던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실무에서 작가분들과 많이 만나기 때문에 니즈가 뭔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그걸 상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사실상.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들을 실무에 계신 분들은 다 알고는 계세요. 그런데 결정권자들이 OK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거예요. 레지던시가 만들어진다는 것도 작년에 이미 들었어요. 그래서 이 근처로 할까? 어떻게 할까? 직원분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된 거고, 위에서 허가를 해 주지 않는 거예요. 돈을 줄을 주고 있는 사람이 그걸 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는 다 알고 있어요. 그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자리를 많이 만들어서 이런 것들이 지역 주민들과 작가들과 그리고 창작자들이 많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위에서 체감할 수 있게 느끼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해야 되요. 그래야 관심을 갖고 들여다 보실 거예요.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 입장을 완전히 대변을 해 주셨네요.

참석자(5) 참석자님 말씀 듣고 저도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게, 2017년도에 제가 문화재단하고 작업하고 전시회를 했을 때 그 때도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성남 야탑 근처에 레지던시를 생각하고 있다고. 벌써 3년이 지난 거죠. 작년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아직도 안 된 거고.

참석자(6) 왜 안 될까요?

사회자(M) 지금 땅 부지는 거의 되어 있다고 하는 것 같기도 한데.

참석자(6) 사실 신진작가는 있는 작가가 한정적이고, 성남이 경쟁력이 있어야 자꾸 가고 싶어지거든요. 실제로 넘어 오기도 하고. 그렇다면 경쟁력이 있으려면 레지던시가 상당히 시급한 것 같기는 해요.

사회자(M) 네.

참석자(6) 산업도 중요하지만.

사회자(M) 산업이나 비대면 이런 것보다 말씀하신 그런 게 더 시급하다는 거네요.

참석자(3) 레지던스가 생기면 당연히 거기에서 협업이 이루어지죠.

사회자(M)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는 거죠?

참석자(2) 저는 여기 오기 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간담회 자리에 혹시 성남문화재단이나 성남시청의 문화 담당자가 여기에 오셔서 예술인 선생님들의 얘기를 직접 경청하는 자리인 줄 알았어요.

참석자(3) 저도 그런 자리인 줄 알고 왔어요.

참석자(2) 그래서 그걸 직접 듣고...

사회자(M) 제가 전달할게요.

참석자(2) 아뇨. 사회자 분이 보고서를 써서 전달하는 것하고 직접 대면해서 듣는 것하고 그 온도 차이가 완전히 달라요.

참석자(6) 그런데 제일 필요한 부분이 뭔지 아실 것 같아요.

참석자(2) 그게 왜 그러냐 하면요.

사회자(M) 실제 성남문화재단에서 앞으로 여러분들을 직접 많이 만나 뵙고 싶어해요. 이번 기회를 시작을 해서 아마 귀찮게 해 드릴 수도 있어요. 자주 전화해서 물어 보고 그럴 수도 있어요.

참석자(2)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보고서로 올라가서 접하는 거랑 대면보고 하는 거랑은 이견 완전히 다른 겁니다.

사회자(M) 네. 그렇죠.

참석자(2) 그래서 이런 자리가 있을 때 성남문화재단이나 시청의 문화 관계자가 여기 옆에서 여기 예술인들의 말씀을 직접 듣고.

사회자(M) 네. 앞으로 그런 자리가 더 많이 마련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진짜 너무나 환경들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성남문화재단도 너무 고민이 많거든요. 예술인 입장에서 수요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될까? 하는 고민이 많기 때문에 과거보다 훨씬 더 여러분들을 자주 찾아 뵈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까 레지던스 얘기도 3년 전에 들은 것 같다, 이런 회의적인 반응도 있으셨는데,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 지원금 같은 경우도 많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여기도 지원하고 저기도 지원하다 보니 까 내 차례가 조금 늦게 오지만 그래도 올 거고, 모든 흐름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별로 혜택을 못 받았으면 나중에 후배라도 꼭 혜택이 가게끔 조금씩 발전해 나간다고 생각해요. 하루 아침에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계속 소리를 내야죠.

참석자(2) 제가 관리자였기 때문에, 학생 문제가 일어났을 때 담임으로부터 듣는 것하고 학생한테 듣는 것하고 학부모한테 듣는 것하고 완전히 다 달라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결국에는 플랫폼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레지던스 같은 그런 공간에서 플랫폼도 필요하지만 온라인 플랫폼도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일단 온라인 플랫폼도 기획하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는 것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플랫폼을 하나 구축하게 되면 DB를 먼저 구축해야 되요. DB 구축을 위해서... 아까 설문조사 하면서 내 개인정보를 너무 많이 가져가는 것 같다! 그런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DB구축을 할 때 예술인들이 참여해서 직접 등록하실 생각이 있으신 건지? 궁금했어요. 아까 불편해 하신 것 같은데...

참석자(6) 아뇨. 불편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하고 이 자리에도 오게 된 건데요. 왜냐하면 좀 더 정직하게 하고 싶어서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은 정보를 입력하게 되더라고요. 어쨌든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데에 있어서 많은 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경로는 레지던시 지원을 거기에 할 때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 전시, 레지던시, 이것을 실질적으로 타 지역 시립에서도 문화재단에서도 한 페이지에 클릭하면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작가들이 당연히 정보 입력하고 가입을 해야지만 되니까.

사회자(M) 그것에 대한 저항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참석자(6) 네.

사회자(M) 혹시 성남문화재단과 협업을 할 때 작가님의 작품 이미지도 제공할 의사가 있나요? 다음의 지원사업을 위해서?

참석자(5) 이미지 제출이라는 게 어떤 거죠?

사회자(M) 내 작품인 거죠.

참석자(5) 어디에 사용하실 건가요?

사회자(M) 협업을 하는 데에. 썸네일처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요새 온라인 교육 때문에 영상같이 문화 교육센터가 생겼는데, 거기에 게시는 기획자 말씀을 들어 보니까 우리 지역 작가의 예술 아트웍을 갖고 예술교육을 하고 싶는데 도대체 누구를 접속해야 되는지 어떻게 이거를 협업해야 되는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이 게시면 그런 협업의 시작 단추를 끼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아요.

참석자(5)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물론 재단 자체에서 그런 DB를 구축하는 것도 좋은데, 작가분들이 뭐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저는 웹사이트를 갖고 있거든요. 돈 내고 사는 개인 웹사이트가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 뒀는데, 그런 거를 재단에 링크를 하나 전달하더라도 그것만 갖고 있어도 일단 그 링크만 확인하시면 제가 계속 업데이트 할 수 있는 웹사이트니까 바로 제 현황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따로 데이터베이스를 안 만드셔도.

사회자(M) 데이터를 소팅 하려면 여기 규격에 맞는 데이터가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참석자(5) 그런 거는 따로 요청을 하시면 할 수는 있지만, 그걸 하기 전 단계로 아! 이런 사람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빨리 보실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사회자(M) 네. 그것도 작가 분을 알리는 좋은 경로라고 생각을 하는데, DB 라는 것 자체가 뭔가 소팅이 되었을 때 그 조건에 맞는 사람을 뽑아내기 좋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마 등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쭙봤습니다. 아까 작품 이미지는 협업, 프로젝트 시작에서 요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1) 사실은 민감한 거죠.

참석자(5) 그거 같은 경우에는 평면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민감한 거예요. 전달되면 바로 다 작품이 공개되는 거고, 조각이나 미디어는 사진을 전달하더라도 캡션이기 때문에 영상 중에 한 장면이라서 크게 상관이 없지만, 평면하시는 분들한테는 완전히 사진은 다 넘어가는 거죠.

참석자(6) 저는 그래도 동의하는 부분이, K쉐어링 이라고 해서 그렇게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고 자기 작품과 프로필을 올리기는 하는데, 기피하는 작가들도 많아요.

사회자(M) 네. 분야에 따라 좀 다르네요. DB구축을 통해서 온라인 플랫폼이 만들어지면 어떤 기대가 있으세요? 아까 얘기도 하셨어요. 온라인에 다양한 분야 사람들도 모일 수 있고, 엔지니어 뿐만 아니라 소비할 수 있는 사람까지 모이는 그런 것이 구축될 수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면 좋을까요?

참석자(3) 지금 참석자님 말씀처럼 K쉐어링에서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사이트를 구축해서 하고 있고, 거기에서 화랑과 기업과 작가를 매칭시키는 것을 하고 있거든요. 서울문화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죠. 제가 관계자 분과 통화를 하면서 여쭙 봤는데요. 과연 여기에서 작가들이

다양한 작품을 올리고 그러면 매칭이 얼마나 되고 있나요? 과연 되고 있나요? 라고 여쭙 봤는데...

참석자(6) 거의 없어요.

참석자(3) 거기에서 대답이 뭐였냐 하면, 거기는 이미 그 사이트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고요. 일단은 올렸다가 거기 등록되어 있는 화랑에다가 이메일을 쏘 봤어요. 그렇게 제가 거꾸로 거기에 있는 화랑을 찾아서 공모가 된 케이스였고, 매칭이 되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에서 한다고 한들 혹은 작가 파악도 해야 될 뿐더러 그 매칭을 어떻게 알리느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자(M) 그런 게 있는데, 왜 활성화가 안 되는 걸까요?

참석자(3) 문화예술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한국사람들은. 특별히 관심이 없고. 저도 오래 하고 있지만, 주변에 일단 작업환경이 힘드니까 손을 놓는 작가들도 많고. 허다해요.

사회자(M) 제가 궁금한 것은 이 플랫폼이 있는데도 왜 활성화가 안 될까? 그게 궁금해요.

참석자(3) 일단 홍보를 어떻게 하나의 차이도 있겠죠.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참석자(5) 제가 생각하기에 K쉐어링 같은 경우는, 방금 전에 운영이 잘 안 된다고 하셨는데, 안 되는 이유가 결국에는 전시성으로 만든 것이 아닌가? 예술인들 위해서 이번에 뭐 좀 해 줘야 되겠네! 예술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표를 위해서 하는 건데. 한 번은 했는데 그 후부터는 그거를 뭐 담당했던 사람들이 바뀌거나 그러면 처음에 했던 사람만큼 파악하지 못 하는 거죠. 그러다가 안 하는 거고. 하더라도 연락을 했는데 저 쪽에서 반응이 와야 진행이 되는 건데, 이 쪽에서만 K쉐어링 쪽에서만 뭐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그런 거를 만들되, 그런 사업을 정기적으로 뭔가 추진한다고 하면 이번에 어떤 어떤 화랑하고 연결을 하는데, 어떤 어떤 화랑한테 이 쪽 작가들의 정보를 다 넘겨줄 필요는 없고, 작가들에게 어떤 화랑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라는 정보를 주면 작가들이 직접 연락을 해 보는. 그 작가들이 화랑에 연락을 한다는 것은 재단쪽에서 아! 참석자 작가님은 이 쪽 화랑에 연락을 해 보는 게 좋겠어요. 저 쪽에서 이런 사람을 찾는다고 하는데 선생님이 좀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을 해 주면 가서 얘기할 때 이렇게 추천받아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실제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겠죠.

사회자(M) 온라인인데, 결국 오프라인 느낌을 받고 있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1) 어떤 기관에서 어떤 전문적인 것을 보여 줄 수 있느냐? 이거 같아요. 성남문화재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하게 플랫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남문화재단에 있는 플랫폼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 것에 대해 제안을 해 드리자면, 성남문화재단의 시각예술 파트, 예수 파트, 홈페이지가 따로 있어야 되요.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작가들을 짝 정리해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신진작가를 찾아갈 수도 있는 거고. 작가명단, 작품 리스트, 작품을 공

개해 놓으면 우리 문화재단에 이런 작가들이 있으니까 서로서로 그렇게... 그러면 누가 보게 되냐 하면, 각 시에 있는 관계자들은 다 찾아 봐요. 성남시에 있는 이 작가가 어떤 작업을 했고 어떤 연계성을 갖고 어떤 역사를 갖고 어떤 작업을 하게 됐는지 다 찾아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성남문화재단 들어가면 어? 공연 예매하는 데도 아니고, 어! 뭐지? 달력 큰 거 하나 나오고 어! 뭐지?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에서 플랫폼을 만들면 완전히 독립적인 것이 되겠죠.

참석자(1) 독립적인 사이트가 개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회자(M) 그렇죠.

참석자(1) 부산문화재단과 하고 싶어도 이게 독립적으로 나오는 게 굉장히 절차적으로 어렵대요. 홈페이지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부산문화재단 안에 귀속을 시켜야 되나? 독립적으로 하려면 예산 문제도 있고 관리도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니까.

사회자(M) 아무튼 독립이 된다면 분야 별로 홈페이지가 있어야 교류가 더 잘 된다?

참석자(1) 네.

사회자(M) 잘 정리해서 전달하겠습니다. 긴 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실연분야 그룹

-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5:30
- 대 상: 정량조사 응답자 중 실연분야 6인
- 참 석 자: 1. 참석자(1)_연극
2. 참석자(2)_무용
3. 참석자(3)_음악
4. 참석자(4)_무용
5. 참석자(5)_국악
6. 참석자(6)_연극

사회자(M) 오늘 자리는 심층적으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신 자리입니다. 정답이나 오답은 없으니까 편하게 평소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과 아무 관계가 없고, 보통 저희는 고객사에게 프로젝트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기억할 수 없고, 조사의 흔적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문지 응답해 주실 때도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는 것처럼, 오늘 녹음, 녹화는 하지만 이 보고서 작업이 끝나면 녹음, 녹화는 완전히 폐기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 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4차산업기술이니 코로나니 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나 예술인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그 변화,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성남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설문지 드렸던 것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에는 단순한 질문들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심도 깊게 들여보는 자리입니다. 예술인의 입장을 모아서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각자 소개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의 활동분야, 그리고 몇 년 정도 활동하셨는지 함께 소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1) 저는 연기 전공을 하는 참석자이고, 학교 강사 및 개인 프리랜서 연기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7년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석자(2) 저는 무용을 하고 있고, 저는 창작작업을 꽤 오래 했었고, 지금은 전통 쪽도 같이 하고 있고요. 춤을 춘 것은 오래 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창작도 하시고 기획도 하시고?

참석자(2) 창작도 하고 안무도 하고, 요즘에는 댄스 필름 작업도 하고 있고, 제가 전통을 4년 전부터 다시 이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전통 쪽도 같이 해 보고 싶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3) 저는 음악가 첼로 연주가로 활동하고 있는 참석자 입니다. 성남아트센터 내에 있는 아카데미에서 첼로 강사로 일 한지 8년 정도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올 2월부터는 수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도 창작작업도 하고 싶은 의욕을 갖고 있고, 작사, 작곡도 같이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4) 저는 참석자춤예술원 원장 참석자이고, 저는 한국무용을 전공했고, 성남이 맡아있을 때부터 태어나서 지금까지 3대째 정금란 선생님의 조카로 가업을 이어 가고 있는 한국 무용가입니다. 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97호 살풀이춤 이수자로서 계속적으로 올해 20년 정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5) 안녕하세요. 저는 전통예술 전공했고, 대금연주자예요. 공연 경력은 15년 정도 프리랜서 공연을 하면서 예술 교육쪽에서 12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이번에 단체를 만들어서 올해부터 활동을 시작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콘텐츠 작업을 하고 있고요.

사회자(M) 선생님이 직접 단체를 만든 거예요?

참석자(5) 네.

참석자(6)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루비나레 대표를 맡고 있는 참석자이고, 저는 연출을 주로 하고 있고, 저희 극단은 1997년에 성남에서 창단된 극단이고요. 꽤 오래 성남에 있었어요. 그리고 무대 인형극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도 그런 것처럼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회자(M) 네.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모셨고요. 중간 중간에 코로나 얘기를 하셨는데, 오늘 사실 모인 진짜 이유는 그거예요. 몇 년 전에 4차 산업기술이니 뭐니 해서 이게 뭔가? 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가 오면서 우리 산업환경, 생활환경을 너무 변화시킨 것 같아요. 사실 예술인도 활동하는 환경이 많이 달라진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준비한 질문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좋았던 점, 힘들었던 점을 얘기해 주시고, 이런 코로나 상황이나 4차 산업기술 환경변화에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변화를 가지셨는지? 어

편 준비를 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아! 이렇게 생각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정리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지원정책이라던가 혹은 어떻게 하면 여러 분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 조사의 목적이니까 편한하게 다 말씀해 주 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여기 성남문화재단이나 성남아트센터에 들르실 일이 있으신 가요? 자주 오시나요? 오신다면 무슨 일로 오세요? 나는 좀 올 일이 있다 하는 분?

사회자(M) 강사분이시고, 공연하러 오시고, 그리고?

참석자(1) 저는 작년쯤에 여기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프로그램 들었습니다.

참석자(2) 저는 원래 성남에 살다가 지금 수지로 이사를 가기는 했는데, 몇 년 전에 여기 대표님이 계 셴어서 그러다 보니까 공연장 때문에 여기를 많이 왔었죠.

사회자(M) 이번에 예술인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설문지에 답을 하셨는데,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참석자(3) 활동하는 모든 예술인을 배려해 주시는 좋은 취지가 느껴졌습니다.

참석자(2) 실태조사 하는 것은 너무 좋죠. 그런데 이제 이제 잘 반영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게 조사에서 끝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자리도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사회자(M) 혹시 이런 조사를 2019년에 경기도에서도 하셨다고 들었는데, 혹시 그 설문조사에도 응답 을 하셨던 분 계신가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하는 각 분야에서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시나요? 아니면 단체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참석자(1) 저는 개인으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번 연도부터 단체에 들어 갔습니다.

사회자(M) 어떻게 해서 단체에 들어가셨어요?

참석자(1) 대학교 졸업하고 2년 정도 극단에 있다가, 옆에 경기도 광주에 있는 지역 극단에 있다가, 그 다음에 개인으로 활동을 프리랜서로 광고나 매체쪽으로 하고, 학교 강사도 따로 하고 그 러다가.

사회자(M) 어떤 필요성에 의해서 단체로 하게 되셨어요?

참석자(1) 저는 연기 전공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작품에 대한 갈증을 느끼다 보니까 오디션이나 서류 같은 것도 우선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혹시 불터라도 그게 사이트 같은 경우는 연극이나 그런 사이트는 뭐 OTR 그런 것 밖에 없으니까.

사회자(M) 아무튼 개인으로 활동하는 것보다 단체로 활동하는 게 더 기회가 많다는 건가요?

참석자(1) 좀 더 안정적이고, 제 개인적으로 저는 좀 더 발전을 하고 싶어서 들어간 것도 있고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2) 저는 원래 오랫동안 공연단체에서 대표까지 하고 독립을 해서 프로젝트로 융복합을 많이 했 어서 거의 단체로 활동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지금 만든 단체에서도 융복합을 하고 있 고요. 그 전에는 공연단체였고요.

사회자(M) 네. 이따가 융복합 얘기를 뒷부분에서 더 자세하게 해 주세요.

참석자(2) 네.

참석자(3) 저는 개인 연주자로 첼로 연주를 솔로로 할 때는 제 이름을 걸고 콘서트를 열어서 제가 직접 기획도 하고 연주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체에서는 이 곳에서 여러분들에게 많이 알려 드리는 역할도 하면서, 또 제가 연주자로서 큰 단체에 소속감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음악 관련된 학회 같은 것도 가입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단체로 활동을 하게 되면 소속감 외에 또 좋은 점이 뭐가 있나요?

참석자(3) 그 곳에서 기획을 해 주기 때문에 연주자로서 많은 역할을 다 감당하기 어려울 때 따로 기획자가 해 주시면 좋죠. 저는 연주에만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참석자(4) 저는 개인으로도 활동을 하고 단체로도 활동을 하는데, 지역사회에서 정금란 춤 전승보존회 활동을 하고 있고, 개인으로는 참석자춤예술원 단체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자격으로 서울에서 그리고 경기도권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워낙 알려지신 분이어서 개인으로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단체로 하시면 어떤 이점이 있으세요?

참석자(4) 제가 단체로 하는 이유는 그 단체마다 목적성이 다른데요. 정금란 춤 전승보존회는 성남에서 유서 깊고 초대 무용가셨기 때문에 그 성남 지역에 있는 무용가들이 다 모여서 그 선생님에 대한 작품에 대한 복원 및 학술대회 뭐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지역적으로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단체에서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또 제 작품활동이나 그런 부분은 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석자(5) 저도 개인 연주자로 활동을 오래 했고요. 단체를 이번에 만들게 된 계기가 경기문화재단에서 예술창업컨설팅 지원사업을 수행을 받게 되어서 거기에서 컨설팅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하게 되었고요. 공모사업에서 단체 위주의 그런 게 많고, 특히 소속된 지역에서의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회자(M) 필요에 의해서?

참석자(5) 네. 그래서 단체를 만들게 되기도 했고, 그리고 저는 통합예술이기 때문에 다른 장르와의 융복합 기획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그거를 진행을 한 것도 있습니다.

참석자(6) 저는 극단을 운영하는 대표이기 때문에 당연히 단체 위주의 활동을 하고 있고요. 가끔 객원 연출을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다른 단체와의 협업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그룹으로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저희 극단에서 저희 팀원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단체로 활동하는 것은 괜찮은가요? 성남에서 단체로 활동 하기에 괜찮으세요? 꼭 성남이 아니어도 좋고요.

참석자(4) 별 제약은 없었던 것 같고요. 단체로 모였을 때 그 단체의 회원들 간의 역량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런 것에 따라서 어떤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많이 달라질 것 같고요.

사회자(M) 성남 지역 내에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참석자(4) 성남 지역 내에서 활동하기에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사회자(M) 협업도 잘 되시고?

참석자(4) 네.

사회자(M) 참석자님은 어떠세요?

참석자(2) 저는 사실은 서울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했었어요.

사회자(M) 활동 지역이 주로 서울인가요?

참석자(2) 이전에 성남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못 했었어요. 정보가 제가 뭔가 찾기 전에는 없었고요. 그런데 연이 닿은 이후부터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요. 경기 문화재단 꺼는 저도 하고 있는데, 성남문화재단은 제가 수행을 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내년쯤에는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자(M) 어때요? 지금 성남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고,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떠세요? 비교를 하실 수 있을까요?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것과 성남에서 활동하시는 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참석자(2) 비교를 한다기 보다는, 서울 쪽은 일단 문화재단 사업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많았던 것 같고. 제가 성남문화재단 것도 2020년에 많이 봤는데, 있긴 있지만 작품활동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은 되게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원하고 신청할 수 있는 것이 개인이든 단체든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 성남은 조금 국한이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서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타이틀이 뭔가 많았어요.

사회자(M)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많았다?

참석자(2) 네. 다양화 되어 있고, 융복합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장르별로 다 세분화 되어서 체계화가 되어 있다고 보면, 성남문화재단에도 분명히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일단 규모가 작았고요. 그리고 세분화 되어 있기 보다는 단체 위주로 되어 있는 느낌도 있었고.

사회자(M) 단체로 활동하기에 서울이 더 좋으신 건가요?

참석자(2) 저는 단체든 개인이든 지원사업은 서울이 다양화 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요즘에 경기문화재단 꺼를 많이 보고 있고, 지금도 수혜를 받고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경기문화재단도 조금 다양화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성남문화재단에는 뭐가 있는지? 봤더니... 그렇게 다양화 되어 있지 않고, 한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1) 저는 여기에서 원래 태어나서 원래 여기에서 활동을 계속 하다가 저는 아예 서울로 넘어갔어요.

사회자(M) 왜 그러셨어요?

참석자(1) 거의 실연 연기자들한테는 기회가 없죠.

사회자(M) 기회가 없다는 얘기는?

참석자(1) 관련된 사업 자체가 없죠.

사회자(M) 순전히 사업 때문에 옮겨 가신 거예요? 아니면 향유자가 적어서 그런 건가요?

참석자(1) 국한되기도 하고, 아까 참석자님도 극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지만, 지역 내에서 아는 극단에 서만 활동을 하게 되죠. 정보화가 많이 확장되어 있지 않죠.

사회자(M) 그 안에서 정보가 별로 없고?

참석자(1) 네.

참석자(6) 저는 국한되어 있지는 않고, 저희는 팀원이 7,8명 되는데, 함께 스케줄을 만들어서 저희는 오롯이 이 공연을 갖고 생업을 하고 있는 팀이라서 저는 지역에 국한하지 않아요. 제주도에 서도 하고.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자면 성남에서가 공연이 제일 없어요.

참석자(1) 맞아요.

사회자(M) 왜 성남이 제일 없는 거예요?

참석자(6) 할 기회가 없고, 예를 들면 다른 문화재단에서는 저희에게 초청도 오고,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많이 있어서 골고루 찾아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성남은... 제가 진짜 성남에서 하고 싶은데, 제가 여기에서 1997년도에 창단해서 계속 성남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제가 10년 전에 성남에서 뭐를 해 보고 싶다, 그래도 뿌리를 성남에 갖고 있는데, 뭔가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좀 기웃기웃 해 봤어요. 예충에도 가 보고, 여기에서 연말에 모여서 뭐 하시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거 할 때도 가 봤는데, 프로극단에 대한 배려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오히려 아마추어 동아리에 대한 소소한 지원들은 되게 많은데, 예술 창작을 위한 지원들은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고.

사회자(M) 그 배려라는 것은 지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참석자(6) 지원도 그렇고, 예를 들어 만약에 성남아트센터 라고 하면 저희가 대관을 할 때 저희에게 할인 같은 거를 해 줄 수도 있잖아요. 대관료 할인에 대한 그런 게 없었고.

참석자(1) 네.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해요. 같은 분야이기도 하고, 제가 이 지역 내에서 본토배기인데, 저는 청소년 극단부터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대개 한 극단에 오래도록 지원을 하는 경우는 많고. 그런데 좀 더 확장시킬 수 있고 신생이나 아니면 좀 더 젊은 연출가 분들이나 젊은 실연연기자 분들에게 기회를 주거나 그런 거를 잘 안 하는 편이죠.

사회자(M) 특혜는 아니고, 계속 혜택을 보는 극단은 있지만.

참석자(1) 그렇죠.

사회자(M) 그런데 신진이나 그런 분들에게는 기회가 적다?

참석자(1) 네.

참석자(6) 그 분들이 훌륭해서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창작에 대한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성남에서 지원하는 소소한 금액의 지원료를 갖고는 창작을 할 수는 없고, 작은 금액으로는 있는 작품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대관료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창작을 하는 데에는 진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세 분은 주로 활동지역이 성남이신데, 성남에서 예술가로 활동하시기에 어떤가요?

참석자(3) 저는 음악공연이고 연주자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항상 무대가 필요한데요. 무대 라는 곳이 이름이 알려진 곳이 있고, 덜 알려진 곳도 있고 하다 보니까, 서울에서는 주로 연주자들이 서는 메이저 무대가 예술의 전당, 세종문화회관, 최근에는 연세대 안에 있는 금호아트홀까지 그렇게 세 군데 정도로 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에 성남에서는 성남아트센터 밖에 없죠. 무대가 한정되어 있죠.

참석자(4) 저도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예총 얘기가 나와서 저도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예총의 무용지부에 저희 고모님이 성남시민회관 지을 때부터 그 조명기를 저희 고모님이 돈을 300만원을 대서서 초반에 했던 상황이고, 저는 활동을 굉장히 오래 했는데, 그 동안에 중간에 활동을 하지 못 하게 되는 이유가 기존에 계신 분들이 너무 뿌리깊게 근거지를 갖고 계세요. 저도 뿌리가 여기지만 그런 걸로 인해서 특혜 아닌 특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오픈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그 많은 지원금이... 많다고 하기도 그렇지만... 작은 지원들이 그 안에 있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서 막아지는 경우도 경험했고요. 며칠 전에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이 아트센터와 연계가 되어 있다던지 공지사항에 뭐 같이 올려 주신다던지 그런 게 아니고, 공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유화 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좀 그런 데서... 저도 성남에서도 하고 서울에서도 많이 활동을 하거든요. 아트센터에서도 하고 다 하는데, 정말 성남에서 그런 활동을 하기가 매우...

사회자(M) 쉽지 않네요.

참석자(4) 네. 폐쇄적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남에 있다가도 또 서울에서 활동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런 부분들은 사실 공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투명성이 요구되는데, 좀 많이 안타까운 지점입니다.

참석자(5) 저는 연주자다 보니까 저도 다른 단체에서 할 때 프로젝트 성으로 공연을 많이 하기도 했는

데, 그 베이스가 거의 서울이었고. 성남에서는 이번에 지역예술인 창작지원금 지원을 받으면서 처음으로 운영을 해 봤는데, 어차피 이게 공연장에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공연 콘텐츠로 대체를 했는데, 그게 어떤... 그거를 처음에 선정이 되었을 때 그 결을 보면 좀... 성남시의 홍보효과나 그런 부분에 집중되어 있는 부분이 더 많지, 창작작업 자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느끼기에는 좀... 부족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으로서 성남에서 활동하는 데에 크게 좋은 점이나 그런 것은 딱히 없나요? 비교해서 어떠신지? 말씀 들어 보면 지원도 적고, 특혜 가는 사람에게는 가고.

참석자(3) 저는 전문예술인이 아닌 분들을 여기에서 티칭을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역할을 제가 책임감을 갖고 활동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 곳에서 음악인이 아닌 대중들에게 예술교육을 많이 열어 두는 부분이 굉장히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대중들에게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열어 주는 것?

참석자(3) 네. 직접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가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에.

사회자(M) 그런데 성남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좀 더 잘 되고 있다고 보세요?

참석자(3) 네. 굉장히 잘 운영되고 있는 아카데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참석자(6) 저는 못 느끼겠고요.

사회자(M) 네. 분야마다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참석자(6) 지금 참석자님 말씀은 예술인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시민들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시민들에게는 어떤 혜택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소소하게 작은 모임들을 지원도 해 주고 축제도 했었던 것 같고 그래요. 연말에 그런 것도 하고. 그런 면에서는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성남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뭔가 성남에 애착을 갖고 있고, 내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뭔가 좀 의지를 하면서 자라날 수 있는... 저는 혼자 20년 동안 사느라고 힘들었어요. (웃음) 그런 뒷받침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M) 네. 말씀하신 부분은 뒷부분에서 아이디어를 좀 더 여쭙 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술인들이 활동하기에 좋은 활동 배경이 될 수 있는지 좀 더 여쭙기로 하고요. 예술인으로서 굉장히 힘들게... 사실 예술인 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스스로는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를 여쭙 보고 싶어요. 예술인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회자(M) 질문이 너무 넓은가요?

참석자(1) 네.

사회자(M) 예술인으로서 내가 자부심을 가질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참 살기 힘들다! 그럴 수도 있고요.

참석자(1) 참 재주가 많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사회자(M) 예술인은 재주가 많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참석자(1) 더 많아야 되겠구나! 예술과 나의 삶을 평행시키기 위해서는 예술 말고도 다른 외적인 것들이나 부수적인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끊임없이 배우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M)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이 드셨어요?

참석자(1) 지금 이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만 봐서도... 예술강사로 나가서 아이들과 만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콘텐츠를 위해서 콘텐츠화를 위해서 또 다른 거를 배워서 다른 방식으로 또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자(M) 그렇죠.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 내야 되니까.

참석자(1) 그것도 그렇고, 이런 저런 일도 많이 해야 되고.

사회자(M) 네. 장르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다양하게 의견 주세요.

참석자(2) 지금 이거는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 하셨지만, 이 지역의 문제만은 아닐 것 같기는 한데요. 예술가들은 한 개만 해서 자기 플레이만 한다고 되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나이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다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실은 예술하는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준비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아졌구나! 저도 가르치기도 하고 실연도 하고 메이킹도 하고 다 하지만, 그 모든 게 다 되어야 살아 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3) 변화된 현실에 정말 잘 적응할 수 있는 순발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회자(M) 환경 변화를 다 체감하고 계신 것 같네요. 알겠습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사회자(M) 그 사이트를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요? 어떠세요?

참석자(6) 저희는 일단 예술인 산재에 다 들어 있고요. 저희 팀원들은 이번에 예술인 산재 정책이 새로 생겨서 그 산재를 다 들었고, 조건이 잘 되어 있고, 요즘에는 다른 사업들을 할 때 보험을 드는 게 필수예요. 그거를 그 예술인산재보험으로 들어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원창작금 같은 제도도 있어서 저희 팀원들도 한 번씩 다 창작지원금도 받아서 해 봤고.

사회자(M) 네. 다른 분은 또 어떤 거를 이용해 보셨나요?

참석자(5) 저는 예술인복지재단에 예술인활동증명을 해 놓으면 공모, 지원에 그거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술인으로 활동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통로인 것 같아요. 거기. 그래서 그걸로 이용을 했고, 저는 창작지원금은 아직도 받아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산재보험은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서 아직 하고 있지는 않지만 여기 사업규모가 조금 커지고 있고, 사업들이 다양화 되는 게 보여서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참석자(4) 저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그래서 초기부터 예술지원사 따면서 문화예술사 관련된 게 있어서 그 때 취득을 했는데, 성남에서든 어디서든 이거를 활동을 해서 직업으로 할 수 있는 만한 일이 저는 무용인데, 그런데 거의 없더라고요.

사회자(M) 자격증을 얻을 수는 있는데, 활동할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죠?

참석자(4) 네. 그걸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대관할 때 문화예술사가 있을 때는 몇 점 플러스가 된 다라든지, 지원할 때 소정의 점수를 준다는지, 그런 혜택은 제가 받아 봤고요. 그리고 그 외에 것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도 관심있게 보고 있는데, 그리고 39세 이하 그런 게 많고. 벌써 청년이 아닌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원을 받기도 전체 채 나이를 먹어 버렸더라고요. 참 너무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3) 저는 방금 전에 기억이 안 났었는데, 지금 기억이 났는데요. 예술인활동증명 그거를 제가 몇 년 전에 한 번 시도를 했는데, 이 곳에서 가르치는 강사로 갖고는 접수가 안 되는 상황 이더라고요. 공연을 통한 이윤을 증명을 해야지 그래야 받아 주는 제도라서 그 때 한 번 등록이 안 되고 나서는 묻고 있었던 상황이었습시다.

참석자(1) 저도 같은 얘기인데요. 강사로는 예술인 인증이 안 되고요. 그리고 무료공연을 아무리 많이 해도 그게 연극인 인증은 되지 않더라고요. 조건이 되게 까다로워요. 그래서 뭐 매체와 같이 했다고 하면 그러니까 매체와 연극공연은 또 별개 라고 국한되어 있어요.

사회자(M) 예술활동증명이 안 되면 그 뒤로는 이 사이트에 별로 들어갈 일이 없어지겠네요?

참석자(1) 네. 그리고 정말로 답답한 부분은 대부분 다 강사 활동들을 한 번씩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인정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예술인인가? 교육자인가? 그러면 예술인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예술인으로 인정을 해 주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드는 생각이 이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참석자(2) 저도 사실은 이 복지재단을 당연히 알고 있는데, 예술인활동증명을 한 것은 얼마 전이예요. 저는 계속 활동을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은 하고 자료 내고 좀 기다렸다가 바로 받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활동증명을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메시지가 와서 그 때마다 보는 것이지... 아직은 저도 그냥 활동증명 까지 정도만 했어요.

사회자(M) 네. 활동증명을 해야 좀 더 자주 들어갈 수 있는 이미지를 갖고 계신가 봐요. 자, 다음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얼마나 지원을 한 적이 있고? 얼마나 수행을 해 봤는지? 여쭙고 싶어요. 보니까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그 외 공공기관 이라고 해서 공공기관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지원받는 것이 공모 나올 때부터 시작해서 그 과정 그리고 끝날 때까지 중에서 불편했던 점들이나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이 지원사업 중에 장점, 단점, 불편한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 주세요. 우선 경기

도 지원사업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들어 볼게요. 참석자님, 참석자님, 참석자님, 참석자님은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시네요.

참석자(6) 경기문화재단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자(M) 네.

참석자(6)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찾아가는 문화활동 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뜨는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은 경기도청에서 하는 거라서 그거를 받아 봤고, 그건 소소한 거고요. 경기문화재단은 창작자를 위한 지원사업이 꽤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문화재단을 통해서 신작을 발표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켜서 좋은 성과도 내고, 상도 타고 뭐 그런 경험 이 있어요.

사회자(M)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나요?

참석자(6) 네. 단계가 있어요. 창작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런 식으로 나눠서 1단계에서 성과가 좋으면 심사에 의해서 2단계를 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완성도를 높여 주는 이런 시스템을 갖고 있고, 창작지원사업인 경우에 그런 게 있고. 이번에 코로나에도 굉장히 빠르게 대처를 하셔서 저희가 감사하게도 사업을 올해 안에 4개를 했어요. 경기문화재단 덕분에 일을 했다고 생각할 정도로, 영상 콘텐츠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었고, 그리고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회자(M) 어떤 게 가장 마음에 드셨어요? 다 마음에 드셨어요?

참석자(6) 그럼요. (웃음) 임차료는 많지는 않아요. 팀마다 3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건데, 그게 그래도 고맙죠. 이런 상황에서 얼마나 고마운 건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는 거를 내가 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들이 들고. 그리고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창작은 엄두도 못 할 일인데, 창작을 할 수 있게 창작지원금에 대한 것도 있었습니다.

참석자(5) 저는 이번에 창작컨설팅, 예술창업컨설팅을 받았는데, 일단 6,7회차 무료로 컨설팅을 해 주시면서 경기문화재단의 전반적인 공모사업에 대한 공유랑 마지막에 결과 공유를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발전시킬지에 대한 그런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라운드 테이블을 통해서 네트워크도 갖게 해 주시고.

사회자(M)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 주시나요?

참석자(5) 거기에서 같이 선정된 사람들끼리 함께 운영했을 때 부분들을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창업을 이제 막 시작한 분들이니까 사실 그 분들에게 앞으로 공모 어떤 거를 하면 좋을 것이다, 그리고 그거를 설계했던 분이 오셔서 경기문화재단이 잘 되어 있고, 굉장히 촘촘하게 설계가 되어 있지만 앞으로는 프로젝트성 지원은 안 하고 연속지원으로 계속 인큐베이팅을 하는 쪽으로 계속 가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사회자(M) 단타로가 아니라 연속적으로 되도록?

참석자(5) 네. 맞아요.

사회자(M) 같은 맥락인 것 같네요.

참석자(5) 네.

참석자(4) 저는 성남시하고 경기도에서 하는 백만원의 행복, 찾아가는 문화활동, 그런 거는 계속 지원을 받았고요. 예총에서 성남무용제에 대한 공모가 뜨거든요. 그래서 정금란 무용제라든지, 성남 무용제 이런 데를 공모하면 되기도 하고 제외되기도 하고 그러지만, 그렇게 해서 활동을 했고요. 그런데 전통을 제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공연에 대한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전통공연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요.

사회자(M) 경기도도 그런가요?

참석자(4) 전반적으로 그렇고요. 창작이면 그래도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전통도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뭐 조금의 돈을 주면서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된 공연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리고 요즘에 범 내려온다, 이날치, 이런 사람들이 유행을 하지만, 점점 가면서 오리지널리티가 중요한 시대가 올 텐데 너무 전통에 대한 것을 등한시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정금란 춤 전승보존회 에서도 전통에 대한 그런 연구를 더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 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창작에 대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전통이 갖는 오리지널리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원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는 문화재청에서 받아서 이수자 지원금을 받아서 성남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아트센터에 돈 낼 게 많더라고요. 지원은 하나도 안 되고. 그래서 빚만 엄청 졌어요. 왜냐하면 생음악으로 연주를 하고 그러다 보면 악사도 불러야 되고, 전통공연이라는 게 굉장히 퀄리티를 유지하려면 제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는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극장에서 제가 이렇게 오래 대를 이어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에게 돌아가는 혜택보다도 못 한... 그래서 어떤 때는 예술가로서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의 대접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상실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정금란 선생님이 저희 고모시거든요. 그 때보다도 지금 성남의 예산은 더 많은데, 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도 소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지원받아서 공연하셨는데, 빚만 늘었다고 해서 안타깝네요.

참석자(4) (웃음)

참석자(2) 사실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게 무용계의 예술계의 현실일 거예요. 돈을 지원을 받아도 사실 저희 주머니에서 돈이 안 나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원사업 자체가... 저 도 작은 융복합을 하고 있지만, 대표자에게는 사례비가 원래 지원이 안 됐었는데 2020년에

조금 바꿨어요.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이 바꿨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대표자들이 공연을 통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대표자들이 돈을 엄청 쓰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강의를 한다거나 다른 것으로 충당을 하지, 공연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고. 그리고 저도 이번에 경기문화재단 사업 2개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이전에 사실은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다른 지원사업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저는 이거는 경기문화재단의 오류 라고 생각하는데, 제대로 된 피드백이 없이 무기한 발표를 안 한다고만 하고 갑자기 다른 사업으로 다 전환이 됐어요. 저희가 그 전에 창작사업들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설명회도 듣고 지원서도 냈는데.

사회자(M) 비대면으로 대체하라는 거였나요?

참석자(2) 대체하라도 아니었고, 한 마디로 사업 선정을 아무도 안 한 거죠. 그 전에 원래 했던 창작사업들에 대해서. 저희는 지원을 넣었는데, 그거는 발표가 무기한으로 딜레이가 되겠다 라는 메일만 하나 딱 오고.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온라인 지원사업을 한다고 해서, 뭐지? 왜 발표는 안 하고 온라인 지원사업을 하지? 그래서 냈더니, 저는 연속으로 두 개가 다 되어서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그런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피드백이 있고 나서, 무기한 연장이 라고 하면 그걸 낸 사람들을 뽑아 놓고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다른 사업들이 막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과도기라서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자부담 부분은 늘 단체인임들이 큰 단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부담이 되실 거고, 그런 것도 꼭 필수가 아닌 부분으로 점차 변화는 되고 있어요.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고 경기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리고 e나라도움 시스템이 사실은 기획자 분들이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하거든요. 저는 이번에 e나라도움을 처음 만져 봤더니 조금 어렵기는 하더라고요. 예술가들이 그거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저는 그 전에는 다른 친구가 해 줘서 맡겼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알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해 봤더니 그런 시스템적인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더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번에 서울문화재단에 신청을 하나 또 넣었는데 간소화 된 것을 느꼈어요.

사회자(M) 어떻게요?

참석자(2) 예전에는 국가지원 예술지원에 모든 것을 다 입력을 했어야 됐는데, 트랙마다 다르겠지만 앞에 기본정보만 넣고 중간 끼는 다 빼고, 첨부파일만 딱 넣게 해 놔더라고요. 그러면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하죠. 저는 지원사업 공모에 대해 책자를 받았는데, 거기에 그렇게 써 놔더라고요. 예전에는 기획자 중심의 그런 거였다면, 이제는 예술가 중심으로 예술가들의 언어로 바꾸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게 어필이 됐어요. 서울문화재단에서 하는 그런 것들이 서로 서로 공유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경기문화재단 사업을 받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부터 경기도에서 활동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받은 것들을 베이스로 해서 내년에도 서울과 경기도를 병행해서 지원을 계속 하려고요.

사회자(M) 지역적으로 이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알고 싶거든요.

참석자(2) 일단은 서울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다양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트랙도 더 많이 남았어요. A B C. 그리고 자격 조건도 사실은 조금은 애매모호 하기는 했는데, 제가 전화 해서 다 물어 봤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무용을 굉장히 오래 했고, 공부도 다 했고, 활동도 오래 했는데, 전통 쪽은 이수를 얼마 전에 받아서... 그 전에도 계속 전통은 했지만, 제가 이수를 받아서 전통쪽으로 지원을 했어요. 하면서 물어 봤더니 무용은 오래 했지만 전통으로 다시 했을 때 그 이유가 명확하면 트랙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일단은 서울문화재단은 확실하게 간소화가 되었어요. 경기문화재단은 e나라도움을 하는 게... 그 게 차이가 뭐라고 들었냐 하면 나라에서 주는 돈은 e나라도움으로 하고, 재단 자체에서 하면 국가지원 시스템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범위에 따라서 저희가 하는 게 다르니까. 어쨌든 예술가들이 지금 대표자의 경우에 기획부터 모든 것을 다 실연까지 하셔야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에 아무튼 서울문화재단의 취지는 좋은 것 같아요. 앞으로 기획자들의 언어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언어로 쓸 수 있게 하겠다, 그걸 명시를 하셨어요. 자기들이 노력을 하겠다.

사회자(M) 사실 예술가들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오히려 간소화를 하든지, 혹은 지원할 때 안내나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인가요?

참석자(2) 그렇죠. 필요하고... 사실은 아마 힘들어도 다 하고 계셨을 거예요. 저희가 스스로. 실연하면서 기획까지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M)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서 작성에 대해 지원을 해 주든지, 간소화를 해 주든지.

참석자(2) 네. 정산도 투명하게 하는 것은 100%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 되고, 단, 정산 과정도 좀 더 심플하게. 그러니까 행정하시는 분들의 시선이 아니라 수혜 받는 사람 즉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조금만 심플하게 하고 투명하게 하는 과정이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님은 전혀 지원받은 경험이 없으신가요?

참석자(3) 네.

사회자(M) 분야 때문에 그런가요? 의견을 한 번 말씀 해 주세요.

참석자(3) 제가 가입이 되어 있고 활동하고 있는 팀이나 단체 이름으로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제 개인으로는 직접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코로나 이전 상황도 그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기대 차제를 안 했던 실정이기도 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프리랜서 지원금이라든지 이런저런 기회가 있는 듯 해 보여서 굉장히 힘들게 한 10가지 서류를 준비해서 각 사이트마다 뭐 설치해야 되고 인증해야 되고 많은 과정을 거쳐서 몇 가지를

준비해서 한 번에 제출하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역시 또 탈락이었거든요.

사회자(M) 열 군에 정도 하신 적이 있어요?

참석자(3) 아뇨. 열 군데가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프리랜서 지원금을 신청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회자(M) 개인이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참석자(3) 네. 그런 점이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시도는 하시는데, 쉽지 않고 기회가 많지 않다는 거죠?

참석자(3) 네. 그래서 개인으로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것을 느낀 후에는 또 안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하지만 또 제가 가입되어 있고 활동하는 팀들은 지원을 받는 것을 봐서는 그 팀에 대한 이익이 있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합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님은 공공기관 이외의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소개를 해 주세요.

참석자(1) 저는 예전에 극단에서 활동했을 때 찾아가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지원받은 적이 있고요. 경기 문화재단에서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를 거기에서 들었어요. 그게 지원을 받지는 못 했어요. 제가 중간에 다른 개인적인 일 때문에 마무리를 못 짓고 나왔어요. 여기 성남문화재단에서도 지원을 받았었고요.

사회자(M) 성남에서는 뭐를 받았었어요?

참석자(1) 같은 거요.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요. 그런데 저도 사이트를 엄청 많이 찾아 보는 편이지만 방법이 없어요. 개인으로 음악을 하는 분도 힘든 실정이지만, 개인 실연자는 더 없어요. 실연자는 훨씬 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교육사 역량강화 이거라도 지원을 받자! 해서 그래서 문화예술교육사를 탄 것도 있죠.

사회자(M) 문화예술자격증 그거 탄 후에 어디 쓰신 적 있으세요?

참석자(1) 저는 계속 쓰고 있어요. 관련해서 지금도 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원격으로 재택근무도 하고.

사회자(M) 강의 같은 거를 하는 건가요?

참석자(1) 아뇨. 자원문화예술조사 라고 해서 그거 하고 있고요.

사회자(M) 자격증을 따서 열심히 쓰고 계시네요?

참석자(1) 저는 악착같이 쓸 수 있는 데는 다 쓰고 있어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성남시나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받았던 경험을 들어 볼게요. 좋았던 점 안 좋았던 점, 개선점도 말씀해 주세요. 받은 경험이 있는 분?

참석자(1)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도 하고 여기에서도 했잖아요. 제일 많이 느꼈던 것은 아! 여기는 돈이 많이 없구나! 하는 거를 제일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똑 같은 플랜에 똑 같은 사업이지만...

사회자(M) 지원금은 적고. 그리고 또? 비교를 해 주신다면?

참석자(2) 창작지원금이 그렇게 풍족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을 거고, 저도 성남시에서 성남문화재단에서 했던 공연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제야음악회 할 때도 공연을 했었고, 8.15광복 때도 식전무용을 했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밸런스를 잡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민에 대한 시민참여형 예술에 대한 지원은 많은데, 성남문화재단이 돈이 없는 곳이라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서울문화재단이 돈이 더 많으면 많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만 정보에 의하면. 그런데 그게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아쉬움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어느 쪽으로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참석자(2) 그건 잘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성남하면 오페라 쪽이 많이 크게 했었다고 들었고. 그러니까 그 때 그 때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성남문화재단이 재단 자체가 굉장히 탄탄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가 다 알 수는 없죠. 탄탄하다고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술지원 관련해서는 창작지원이 많아지면 굉장히 여기도 지금 보면 선생님도 그렇고 좋은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예전에 저도 이런 좌담회를 했었어요. 오늘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성남문화재단에서 몇 년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때도 뭔가 네트워킹을 할 것처럼 했는데 다 무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냥... 쇼잉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실태조사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좌담회를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이렇게 한 것이 피드백이 되어서 내년에는 변화되는 것을 보면 아마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회자(M) 네.

참석자(4) 지금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왔는데, 저희 예술가들은 정말 살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촬영도 해야 되고, 극장도 만들어야 되고, 공연도 해야 되고, 영상편집을 해서 올려야 되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사실 제일 빨라야 되는 게 성남문화재단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공공성을 갖고 있고, 장소가 성남시민을 위한하고 성남 예술인을 위한 거라면 이 많은 장소 중에 한 군데를 왜 영상작업을 빨리 올해 초부터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예술가들에게 제공을 할 수 없는지... 제가 왜 외부에서 다 개인적으로 빌려서 카메라를 세대 씩 장착을 해서 그걸 편집을 하는 것을 왜 제가 배워야 되는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이거는 좌담회도 좋은데, 좌담회 해서 언제 저희에게 적용이 되냐는 거죠. 그냥 이거는 아트센터에서 조금만 생각하면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너무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예술가들이 춤추고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개인들이 다 부담을 하고 있거든요.

사회자(M) 아트센터는 공간이 안 되나요?

참석자(4) 공간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수진동쪽인가 어디에서 예술학교를 뭔가를 바꿔서 했다는 그런 것도 이게 통합적인 어떤 정

보나 시스템이 성남문화재단에서 연계가 되어서 저희가 정보를 제공받아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저희가 다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찾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왜 예술가들이 다 해야 되냐는 거죠. 너무 발 빠르게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만 너무 발 빠른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그런 부분이 큰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도 저희한테 너무나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아주 빠르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자(M) 덧붙여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평가를 해 주세요.

참석자(4)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퀄리티가 낮은 형태의 행사 치르기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원되는 것을 보면 찾아가는 문화 그거 성남에서 하는 것도 200만원인가 240만원인가 주죠. 뭐 백만원의 기적? 죄송하지만 저도 백만원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싶었으나, 사실은 뭔가 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그런 모델조차도 굉장히 배고파 하는 예술가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시민들에게 뭔가 나눠 주려면 물론 많이 참여해서 그 분들이 이미 하향평준화가 됐다고 하면 지금 그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20년 동안. 그거를 했다고 하면 하향평준화가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 날치가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나왔을 때 먹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의 고유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성남이 뭐가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좀 구축이 되어져 있으면 저희가 충분히 그에 못지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사실은 그런 역할들을 그냥 서울에서만 할 수 있다! 라고만 생각을 해 온 것이 아닌지? 좀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참여할 수 있도록 재단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의 바람이구요. 지원금에 대해서 너무 금액이 너무 낮아서 돈이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사회자(M) 빛을 지고 있는 상황이다?

참석자(4) 네.

사회자(M) 성남이나 성남문화재단에서 지원받은 경험 또 있으신가요?

참석자(5) 성남시에서 창작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저도 자부담이 10%를 해서 정말 빠듯하게 운영을 해도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사회자(M) 금액이 작다?

참석자(5) 네. 제가 지원사업들을 지켜 보면 여기는 소액이고 다수선정이 원칙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서 또 이 지역 커뮤니티를 융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술가를 기반으로 그거를 만든다기 보다는 시민을 기반으로 만드는 게 자리잡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 봤더니, 여기에 사랑방문화클럽 이라는 것을 늘 성공사례로 갖고 있고, 거기에서 뭔가 확장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표면적으로는 바텀업을 추구를 하기는 하지만 그 바텀업의 어떤 부분에서는 예술가들은 배제되어 있다, 라는 느낌이 조금 드는 것 같고요.

사회자(M) 지원금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예요?

참석자(5) 그거는 여기 정책이나 운영을 보면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여기는 하드웨어에 더 많이 편중되어 있다. 소프트웨어 보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성남문화재단에서 생활문화를 밀어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전문 예술가가 공공의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줄 것인지?

사회자(M) 사실은 전문 예술인에 더 관심이 있으세요. 전문 예술인에게 어떻게 지원을 하면 좋을까요?

참석자(5) 지금 제가 입주작가로 있는 데가 위례 스토리박스 라고, 거기에 입주예술가로 있어요. 거기 가 마을공동체면서 취향공동체 두 개를 블렌딩 한 형식으로 컨셉을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혜택은 무상임대 밖에 없고, 그 안에서 일어나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다 시민들에게 가 있어요. 시민 프로그램에 집중이 되어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예술가로서 여기에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아서 저희가 완전히 해야 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밀어 주는 힘이 아예 없어요.

사회자(M) 그러면 그런 스토리박스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해야 예술인이 좀 더 활동하기 좋아질 수 있을까요?

참석자(5) 고민을 좀 해 보고 입주자들끼리도 회의를해 보니까 그 취향공동체에 접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취미를 조금 전문화 시켜서 그거를 예술가의 영역 언저리로 해 보는 게 목적인 분들인데요.

사회자(M) 그러면 전문 예술인이 아니라는 말씀인가요?

참석자(5) 그렇죠. 아니죠. 그 분들은 취향을 중심으로 모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랑방문화클럽과 똑 같은 형태를 지역에다가 컨셉을 잡은 거거든요. 그걸로 시민참여형 프로젝트를 계속 양산해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자(M) 예술인들을 위해서 그런 공간에서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참석자(5) 저는 일단 예술인들이 기획자로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공의 예술 영역에서 기여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사회자(M) 역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고?

참석자(5) 네. 맞습니다.

사회자(M) 지금 공간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번 여쭙 볼게요. 예술인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나요?

참석자(4) 전무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디를 쓰고 있냐 하면 성남교육청에 있는 거 뭐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거기에 있는 전시실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전시실을 무용 연습실로 대여를 해서.

사회자(M) 개인이 대여해서?

참석자(4) 아뇨. 정금란 춤 전승보존회에서요. 그래서 대여해서 셋방살이처럼 하고 있는데, 전시가 있으면 나와야 되고, 코로나 때문에 전혀 사용할 수가 없고. 그런데 저희는 작은 공간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무용이다 보니까 연습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 그래서 개인이 준비하기에 많이 부담스러운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M) 분야마다 필요한 공간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공간을 원하시는지를 여쭙 볼게요.

참석자(2) 공간이 대두된 것은 몇 년 되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계속 서울이랑 비교를 할 수 밖에 없어요.

사회자(M) 네. 비교를 해 주시면 더 좋아요.

참석자(2) 서울 쪽은 서교에도 있고, 서울무용창작센터, 잠실, 그렇게 지역 별로 나눠져 있고, 거기에 입주하는 분들도 있고, 연습실도 되게 작은 비용을 내고 쓸 수 있게 장기적으로 대여해서 단체들이 들어가서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공간을 되게 다양하게 장르 별로 많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무용이나 연극 같은 경우에 막 움직이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음악은 잘은 모르겠으나 협주나 오케스트라 할 때는 또 크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일단 큰 공간이 있어야 그 안에서 연습을 하고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공간들이 서울은 지역적으로 동네별로 구별로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으로 가서 대여를 해서 빌려서 쓰고 연습을 하고. 물론 자가로 장기임대 해서 쓰시는 분도 있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실 상황에서는요. 성남에는 일단 빌려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공간이 구축되어서 그 안에 예술가들이 함께 모여서 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도 보면 A B C D 그렇게 나눠져 있어서 A홀 빌리는 기관과 대관금액 그게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마디로 극장 대관하듯이 뽑아요. 저희가 신청을 해요. 그런데 서울 쪽은 머니까... 그런데 굳이 그렇게 쓰시는 분들은 또 쓰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좀 분야마다 어느 정도 대표되는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요. 요즘에 스튜디오 공연도 많기 때문에 그것들이 같이 공유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기면 즉 센터 같은 공간들이 생기면... 예를 들어 성남예술센터나 이런 게 생기면, 이런 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극장이나 그런 것 이외에. 예술가들이 정말 똑같이 하는 얘기가, 제가 성남에서 추구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관심은 되게 많아요. 시민참여형이 크기 때문에. 그런데 예술가들의 퀄리티가 올라가야 거기에서 멈췄던 시민들의 만족도가 올라가는데, 성남에서의 방향성은 아직까지 다수의 만족도에만 치중이 됐었다면 앞으로는 예술가들이 작업할 수 있는 퀄리티나 환경적인 것들 혹은 공간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들이 높아지면 예술가들이 힘을 얻잖아요. 그러면 더 열정적으로 더 많은 크리에이티브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예술가들이 힘이 빠져 있으니까 그냥 살아 남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 사업들 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에

요. 그러니까 자꾸 성남의 좋은 예술가들이 밖으로 빠져 나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지금 성남에 그래도 오랫동안 살았고 이사를 갔지만 그래도 사업자는 여기에 있거든요. 활동도 여기에서 하고 싶은데, 사실은 참석자님도 처음 뵈고, 무용하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분야별 네트워킹이 전혀 없어요. 그게 꼭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서도 분파가 나뉘지기 보다는... 정말 서로가... 뭐 그런 에너지로 모이겠죠. 이렇게 만난 분들하고도 협업을 해서, 저는 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대금도. 저는 다양한 분야의 분들과 협업을 많이 했던 사람이라서 그런 게 많아서...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많잖아요.

사회자(M) 아이디어가 막 솟을 수도 있겠네요.

참석자(2) 엄청 많죠. 저는 지금 기술하고 협업하는 것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런 것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같이 하고 싶은데, 사실은 네트워크도 없고, 예술인을 위한 공간도 없고, 모일 수도 없어요. 오늘 이게 거의 처음일 거예요. 그런데 저는 또 아쉬운 게 이렇게 하고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6) 공간 말씀 나와서... 앞에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인형극이다 보니까 큰 작품인 경우에는 트럭이 두 대가 나가는 소품으로 운영해요. 그래서 저희가 복정동에 지금 6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쓰고 있는데, 짐을 놓을 데가 없어서 움직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아파트 지하의 공간에서 보관을 따로 하고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데, 연습공간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씀 하셨는데, 저희도 작은 작품을 할 때는 저희 공간 안에서 해결이 되는데 협업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국악이랑 같이 할 때도 있는데, 가야금 들어 오고 이러면 소음 문제도 있고, 그런 것들이 되게 어렵거든요. 이 연습실을 찾아서 서울로 나가야 되요. 서울에 가서 하는데, 제가 성남에서도 찾아 봤어요. 아트센터도 찾아 보고 혹시 뭐 없나? 찾아 봤는데 마땅히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센터 그런 게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고, 또 저희가 협업을 할 때 공간 뿐만 아니라 저희가 같이 할 예술가들을 찾을 때 무용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음악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가까운 지역에서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네트워킹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같이 모이는 공간이 있으면 그게 될 것 같은데 안 되어 있으니까 저희는 다른 데서 같이 하는 분들이 알았던 곳이나 서울지역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공간에 대한 그런 거랑. 그래서 저희는 제일 아쉬운 게 연습실하고 보관. 성남에서 시유지 같은 곳도 괜찮아요. 되게 한적해도 괜찮아요. 어디 뭐 산 쪽이어도 괜찮아요. 그런 곳에다가 창고형 건물이 있어서 싸게 뭐 해준다거나. 제가 무료는 바라지도 않고요. 임대를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주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회자(M) 연극은 보관하기 위한 창고도 필요하고 연습장은 기본이고 공연장도 마찬가지고.

참석자(6) 네. 저희 분야에서는 공간이 되게 절실해요.

사회자(M) 성남시에서 예술인 간에 네트워크가 전혀 안 되어 있나요?

참석자(4) 제가 성남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성남 예충이 그래도 예전에는 그런 형태가 유지가 되었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구 시가지였을 때부터 해 왔던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역할이 충분히 그 시대에는 제가 어렸을 때는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예술가에 대한 대우도 그 때가 훨씬 더 좋았어요. 그런데 신 시가지가 들어 오고 아트센터가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 좀 구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트센터에서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필요한 극장에 하나 더 만들어진 것 같은 그런 개념이 너무 많고. 그래서 이게 누구를 타하거나, 뭐 구 시가지에 있던 것을 뭐 신 시가지로...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새로운 형태의 도시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되었는데, 그 구 시가지에 있던 형태를 그대로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고, 많이 소통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그 역할을 못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두드리고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도 바깥으로 오히려 튕겨져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꼭 필요한 이유가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1) 공감하는 부분이, 저는 성남문화재단에서 그런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역량강화 프로그램 통해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되게 하이 퀄리티의 공연들을 많이 갖고 오고, 대형 뮤지컬이나 뭐 보시면 만원의 프로젝트 라고 해서 대학로에 있는 공연을 많이 갖고 온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실연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 성남 안에도 여러 가지 극단들이 있고 여러 가지 실연할 수 있는 작품성이 있는 극단들이 많은데 왜 굳이 시민들에게 당신들이 향유하지 못 하는 서울의 문화예술을 갖고 와서 이것을 보여 주겠다, 라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되게 큰 벽처럼 느껴졌어요.

사회자(M) 아트센터가 지역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좀 못 되고 있다는 이미지네요.

참석자(1) 네.

사회자(M) 성남 예술인을 위한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하고요.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각 분야에서 신진 예술가들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나요? 사실 신진 예술가들이 계속 나와야 되잖아요. 이들을 발굴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실 것 같기도 한데요. 발굴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과, 그리고 어떻게 발굴하시는지?

참석자(2) 서울에서 공연인력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다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들이에요. 사실은 오히려 지금 가장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신진 예술가들을 위한 사업이 생각보다 많아졌어요. 굉장히. 그리고 오히려 대표자인 저는 4대보험도 안 되고 월급도 없지만, 그 친구들은 4대보험도 되고 월급도 받아요. 몇 개월이라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 신진이라고 해서 39세 이하 이렇게 나이로 잘라요. 그래서 나

중에 나온 게 원로지원사업들이 나왔고. 그런데 중견 무용가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있거든요. 예술가들이. 저는 무용이니까 무용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밸런스를 잡아가는 시기인 것 같기는 한데, 생각보다 신진들에 대한 것이 찾아 보면... 예술인들이 있는 방이 또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 그 친구들이 굉장히 활발해요. 저도 아직도 어리고 싶지만... 그런데 그 친구들을 위한 사업들은 굉장히 많아요.

사회자(M) 그 방이라는 말씀이 동호회인가요?

참석자(2) 아뇨. 그런 건 아니고, 예술교류방 같은 것들이 있고, 공고방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참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성남만 있는 게 아니라 전국구인데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저도 이제는 조금씩 그 신진이라는 나이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몇 세 이상 그렇게 딱 끊는 것 때문에 중간에 낀 세대들이 더... 지금은... 뭐지? 이런 상황이에요. 원로 지원사업도 있고 신진을 위한 사업도 있는데, 중간은 또 없어요.

사회자(M) 신진 예술가들에게는 기회가 오히려 있다?

참석자(2) 생각보다 기회가 많고, 대표자들은 받지 못 해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그걸 잘 활용해서 본인들이 하고 싶은 것을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렇지만 너무 어린 친구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가 이 밸런스는 잡아 가야 될 것 같아요.

사회자(M) 국악 쪽의 신진 예술가들은 활동이 좀 어떤가요? 왕성한가요?

참석자(5) 국악쪽에서는 일단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이라는 곳이 있고, 거기에서는 최근에 음악이 너무 퓨전이 많이 되고 융복합 사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서양음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서양음악을 배우는 그런 것도 요즘에 지원사업이 생겼고. 그리고 영상 콘텐츠 지원사업도 당연히 있고. 그런데 거기에서 많이 신진 예술가들이 진입하는 것 같아요.

사회자(M) 신진 예술가들이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찾아 보면 많이 있다는 말씀인가요?

참석자(5) 네.

참석자(2)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사회자(M) 오히려 중견이 어렵다?

참석자(2) 네.

참석자(5) 예술교육에서 사실 요즘에 조명되고 있는 것이 신중년 이라고 해서 40,50대 그런 역차별처럼 소외된 대상을 타겟으로 하는 것이 많은 것처럼, 사실 여기도 중견 예술가에 대한 지원이 단체 뿐만 아니라 개인에게도 트랙이 만들어져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자(M) 참석자님 그 쪽은 신진 예술가들 부분은 좀 어떤가요?

참석자(6) 아까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문화재단의 시스템을 많이 사용해서 많이 작품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지원사업에 기대서 하는 경우가 있고, 극단에 소속되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사회자(M) 선생님은 극단에서 신진을 어떻게 구하시나요?

참석자(6) 저희는 신진을 구하지 않습니다. (웃음)

사회자(M) 그래도 좀 구해 주셔야 신진들이 무럭무럭 자랄 텐데요.

참석자(6) 저희는 지금 같이 공연을 하고 있는 팀원들 중에 제일 짧은 기간인 사람이 10년 정도인데, 그래서 저희 그 멤버가 같이 오래 가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 따라서 외부 인력을 쓰기도 합니다.

사회자(M) 외부 인력은 어떻게 구하시는 거예요? 사이트가 있나요?

참석자(6) 아뇨. 그렇지는 않아요. 소개를 한다거나 계속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이 있죠.

사회자(M) 성남시에 있는 예술인들이 교류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사회자(M) 모두 동의를 하시네요.

참석자(4) 저 같은 경우는 저희 제자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제가 전통을 하니까 같이 연습을 하면서 단체를 운영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항상 그런 거를 전달해 주는 것은 저예요. 야! 어디 들어가 봐라! 어디에서 뭐 나온다! 청춘마이크 뭐 그런 거 지원받는다더라! 너네 신청해 봐라!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개인적인 역량으로 아이들에게 어디 들어가 봐라! 니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고요. 아이들이 직접 사회적으로 뭐 어디 대학교를 나와서 무슨 활동을 하려고 할 때 사실 그걸 찾아 보기가 전무해요. 그래서 성남에서 예술인들을 위한 네트워크가 결성되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죄송하지만 저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왜 청춘하고 아니고를 왜 그런 거를 나누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외국에 해외공연을 가 봐도 엄청 큰 스타디움에 맥주 갖다 놓고 0세부터 80,90세까지 다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19세 이상 들어갈 수 있는 부스는 따로 만들고 그런 형태로 해서 모든 전 연령대가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예술을 지향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꼭 연령대를 나누고... 나이가 중요한가 봐요. (웃음)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물론 세분화 해서 지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굳이 나누다기 보다는 어떤 그런 것들이 따로 지원을 받더라도 어떤 한 장소에서 같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구축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말씀 드립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주제를 살짝 바꿔서 비대면 공연이나 VR 공연 등 디지털 기술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체험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변화에 대해서 예술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까 배울 게 많아졌다는 말씀도 해 주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6) 이게 그대로 갈 수는 없는 문제이고, 저희가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대면공연을 10개월

만에 한 것 같아요. 그 사이에는 영상작업을 계속 했었고, 콘텐츠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렸었고. 처음에 너무 낯설고... 저희는 무대 공연을 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이걸 만들었어요. 되게 멋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이들 대상으로 뭔가 하나 만들었는데 제가 그걸 볼 때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이게 무대공연의 그게 아닌 거예요. 이걸 무슨... 그냥 방송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숙제가 기술적인 문제나 그런 것보다는... 저희가 음향감독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해결을 했는데, 음... 콘텐츠 내용에 대한 고민이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이 무대를 어떻게 영상으로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사회자(M) 그래서 요즘에 VR이나 그런 것도 있던데요.

참석자(6)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무리 무대를 살려서 영상으로 해도 이거는 무대공연이 아니에요. 이걸 그냥 다른 장르의 예술인 거예요. 영상도 아니고 무대도 아니고 그냥 다른 장르 라고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의 고민은 이거를 어떻게 무대를 같이 하는 사람들과 같이 고민도 해 보고 경험도 나눠 보고 그래도... 그런 자리는 종종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무대를 버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요.

참석자(5) 저도 이번에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시각 분야가 정말 노 냈구나! 약간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영상과 시각디자인 하는 분들의 작업들이 정말 바쁜 거를 보고, 저는 그거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콘텐츠 내용이 제일 고민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고민을 하다가 그걸 영상으로 했을 때 가장 정서를 잘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했고. 하지만 그렇게 영상에 치중되어진 유튜브 콘텐츠 특성상 장르 특성이 사라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내 창작작업의 커리어를 계속 유지하려면 그 안에 어느 정도라도 내 색깔을 담고 내 색깔을 장르적으로 곳곳이 밀고 나가는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거를 제 커리어로 남기는 것에 있어서 어떤 플랫폼을 선택할지도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제가 또 한 가지 성남문화재단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는 아카이빙에 대한 개념이 너무 약하셔서 제가 이 영상을 성남문화재단에 어떤 플랫폼에 등록을 해도 되겠느냐? 라고 했을 때 그냥 태그만 달아 주세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아카이빙이 계속 일관성을 갖고 구축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인데, 어떤 지원사업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생각을 하셔서 구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회자(M) 작품 콘텐츠를 올리고 싶으신 거잖아요?

참석자(5) 그렇죠.

사회자(M) 그러면 저작권에 대한 고민은 없으신 건가요?

참석자(5) 저작권 문제에 대한 고민은 당연히 있고요. 그거에 대한 계약서도 사실 이번에 다 제작을 해서 공연을 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공부도 많이 했거든요. 그게 서로 합의된 내용에서는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재단쪽에서도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셔서 그 플랫폼에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어떻게 어떤 형태로 공유할 지에 대한 고민을 반드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자(M) 공유 기간까지?

참석자(5) 그럼요. 네.

사회자(M) 참석자님은 아까 상당히 돈을 들여서 제작하셨다고 하셨죠?

참석자(4) 네. 영상작업은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저희한테 차선택이 될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무용공연이라는 것은 뭐 다른 공연도 마찬가지로, 라이브로 현장성이 중요한데 그걸 영상에다가 가둬 놓고 퀄리티를 유지한다? 거기에다가 카메라를 한 대 놓고 한다? 그건 말이 안 되고요. TV 방송국 수준의 그런 게 있어도 사실은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그래서 사실은 저는 무용하는 입장에서는 영상은 차선택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버린 거예요. 현재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이니깐. 그래서 차선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그 영상작업이 우리한테 편리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사회자(M) 어떤 것들이 지원이 되거나 혹은 어떻게 되면 좋을까요?

참석자(4) 아까 제가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렸다고 저희는 공연장이 필요한데 공연장을 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소규모의 공연장이라도 빌려 주시면 영상팀이라도 데리고 가자! 할 텐데... 극장도 만들어야죠. 영상팀도 만들어야죠. 그래서 제작, 편집까지 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분장해야죠. 의상 준비하고 다리고 가르치고...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다 같이 공감하시겠지만. 그리고 아까 아카이브 얘기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유튜브에 올린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공연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자(M) 유튜브에 올리면 사람들이 더 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참석자(4) 어떻게 보면 유튜브가 플랫폼이죠. 그런데 만약에 성남아트센터에 플랫폼이 있다고 하면 유튜브에 할 이유가 없잖아요. 물론 유튜브가 전 세계적이기 때문에 해야 되기는 하지만, 그런 플랫폼이 좀 중요하지 않냐?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찾아 보고 싶어도 유튜브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미 플랫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회자(M) 그래서 개인이 올리는 것보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어떤 하나의 플랫폼이 있어서 거기에 올리는 것이 어느 정도 힘이 실릴 거 같다는 생각이라는 거죠?

참석자(4) 네. 저작권 문제도 있고, 저희의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대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3) 저 같은 경우도 연주자로서 활동을 하고 싶은 의욕은 굉장히 앞서지만, 연주가 잡혀 있는 며칠을 앞두고 연주가 캔슬되고 하는 일이 올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현실은 애기가 있기 때문에 집에서 연습을 하려고 하면 애기가 매달리고 하면서... 그렇다고 외부공간을 렌트비를 내면서 쓰기에는 지출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의치 못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예술활동이 뭐가 있을까를 저도 많이 고민을 하면서 있었던 시기였는데, 그러면서 컴퓨터로 작업할 수 있는 작사, 작곡을 택하게 되더라고요.

사회자(M) 업종이 살짝 바뀌어 가는 건가요?

참석자(3) 네.

사회자(M) 코로나 상황에 대응하다 보니까?

참석자(3) 네. 예전부터 관심도 있었지만, 이 코로나 상황이 저의 예술의 범위를 더 넓게 해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2) 저는 이번에 디지털 기술회사와 협업에서 워크샵을 진행했거든요. 저는 적극적으로 맞서는 편이라서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 기술을 배우는 워크샵을 진행하면서 그 안에서 결과물을 만들고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어차피 무대예술을 영상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결과물 뽑아 보고 모션캡처까지 다 해서 가상으로 해서 그것도 다 했어요. 그런데 그것과 저희 댄서들이 춤을 추는 거랑은 다르죠. 감정이 전달이 안 되고. 어쨌든 기술은 금액에 따라서 사실 엄청나게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가 작품하기가 힘든데, 어쨌든 아까 물어 보신 게 디지털 기술 유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어 보셨잖아요. 저는 일단은 받아 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 이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적극적으로 그런 회사랑 컨택을 해서 워크샵을 합시다! 라고 해서 그 쪽과 진행을 해서, 이번에 했던 결과물로 내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하는 온라인 사업들이 많잖아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부딪혀서...

사회자(M) 지금 준비를 되게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고, 프로젝트도 실제 진행을 하셨어요?

참석자(2)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지금 결과물까지 나왔는데, 아직 다 올리거나 하지는 않았고요.

사회자(M) 그건 VR처럼 보는 건가요?

참석자(2) 아닙니다. 저희 단체랑 게임회사랑 같이... 제가 게임엔진을 활용하는 문화콘텐츠의 가능성 이런 걸로 워크샵을 진행하고, 5회 정도 워크샵을 진행해서 아티스트들이 다 배운 거예요. 그 프로그램을. 앞에서 강연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다 해 봤어요. 가상의 공간 안에 무대를 만들고 사람을 넣고 했는데, 사실 되게 어렵고. 그런데 저희가 남자친구 2명이 있는데 그 친구들이 너무 잘 하더라고요. 저나 컴퓨터를 잘 못 하는 사람들은... 저는 컴퓨터를 좋아하기는 하지만 저랑 비슷한 선생님들은 좀 못 따라 가시더라고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쩔 수 없다! 그냥 하자! 그리고 그 친구들도 어린다고 뭐 그렇게 어린

것도 아니거든요. 기댈 수 없다,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된다.

사회자(M) 예술인도 멀티 플레이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참석자(2) 저희가 할 줄 알아야 같이 공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기술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들은 기술을 하는 것뿐이다. 그들은 기술을 쓸 수 있을 뿐이지, 콘텐츠는 많이 없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적극적으로 전화를 드려서 조언을 구하고 워크숍을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의아해 하셨지만 지금은 굉장히 지지해 주고 계시고 사업을 앞으로 계속 같이 진행하기로 협업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부딪혀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4) 질문이 있는데요. 협업하셨다는 게 결과물로 나왔나요?

참석자(2) 네. 나왔습니다.

참석자(4) 예를 들어 유튜브는 조회 수로 평가를 한다고 하잖아요.

참석자(2) 저희는 아직 올리지는 않았어요. 사실 유튜브는 그냥 아카이빙으로 생각하고 있지, 그 조회 수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지금은.

참석자(4) 그러니까 그게 평가되는 게... 제가 조회수를 신경 쓴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다가 결과물로 제출을 할 때 그 조회수를 같이 내면서 몇 명 봤다던가.

참석자(2) 그런 걸로 평가한다고 하지는 않으셨어요.

참석자(4) 그런 기준이 없대요?

참석자(2) 네.

사회자(M) 참석자님은 유튜브에 올리신 거잖아요?

참석자(4) 저도 마찬가지로 공부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른 형태의 영상도 올리기는 하는데, 그 영상을 영화처럼 제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무용을 다른 형태로 가공해서 올려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도 올리고는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쭙 보고 싶었던 것은 예를 들어 지원하는 단체에 뭐를 냈으면 그 성과물에 대한 것이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여쭙 보고 싶었거든요.

참석자(2) 그냥 저희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만 증명하면 되요.

사회자(M) 유튜브에 참석자님도 올리셨나요?

참석자(6) 네.

사회자(M) 올리셨을 때 향유자들의 반응은 어떤 것 같아요? 적응을 하시는 것 같나요? 어떠세요?

참석자(6) 초창기 유튜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재미있어하고, 그런데 사실은 지금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관객이라고 얘기할게요. 그 관객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영상에 대해서 피로감을 느끼세요. 그리고 어떤 단체나 찾아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조차도 저희가 이번에 이런 사업으로 직접 못 가니까 이 영상을 드릴게요! 라고 했더니, 하아~(한숨) 또 영상~ 저희 영상

많이 봤어요! 그러세요. 아이들을 앉혀서 보여주는 것도 힘들다는 거예요.

사회자(M) 참석자님은 올리셨다고 하셨는데, 반응이 어떠셨어요?

참석자(4) 저도 마찬가지로 영상을 제작해서 기관에 보냈거든요. 그런 정도의 반응은 아니었지만, 플랫폼이 노인복지회관이 조금 큰 데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곳도 계셨고, 자체적으로 내가 올려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자기 홈페이지에. 그런 경우에는 올려 줄 수가 없다, 그래픽이 너무 작아서 올려 드릴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나중에 상황이 되면 사람들을 모아서 상영을 하는 걸로 하겠다, 이러니까 사실은 제가 제작은 했지만 좀.. 유명무실한 상황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사회자(M)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도 유통 경로에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런 것처럼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환경이나 4차 산업기술 환경에서 이런 상황들이 성남시가 추구하는 예술정책에 뭔가 연결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좀 운영이 되면 좋을까요? 이 시대적인 전환시기에 어떻게 되었으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차원에서 의견을 주신다면?

참석자(4) 예술가를 엉뚱하다고 생각하셔도 괜찮고요. 잘은 모르겠는데, 명품 매장에 구찌였는지 뭔지 잘 모르겠는데, 똑 같은 주제로 젊은 분들을 이 쪽에서 회의를 하게 하고, 원래 본사에서 하고, 그래서 원래 그 본인들의 명품 스타일 그대로 오리지널리티를 갖고 갈 거냐? 이 쪽에서 청년들이 회의를 해서 나중에 이런 형태로 콜라보를 해서 어떤 형태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젊은 사람한테 들어라! 그런 건 아니고, 성남아트센터에서 원래 하시던 부분은 진행을 하시되, 예술가들을 어떻게 좀 모이게 해서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서 저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술가들이 나이 불문하고... 저는 나이는 불문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젊은 친구들과 저희도 여러 가지 협업을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서로 많이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야에 상관없이 어떤 그런 회의자리를 만들어서 또 그런 부분이 실시간으로 반영되는 상황이 되지 않으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살아 남을 수 있을까?

사회자(M) 그게 온라인이 되겠죠?

참석자(4)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상관없이 저희가 이 말하는 정책이 바로 반영되는 상황이 필요하다는 거죠. 코로나 예방접종 다 맞고 괜찮아진 다음에 정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성남시다운 씬박함으로 공격적인 정책이 펼쳐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참석자(1) 저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던 건데, 지금 연극이나 다른 장르들도 다 플랫폼을 이용해서 하잖아요. 유튜브가 가진 좋은 점은 항상 뭐를 틀어도 뭐가 나온다는 거잖아요. 성남문화재단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상시 어떤 공연이든 올려줄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M) 그런 아이디어 좋습니다.

참석자(5) 제가 플랫폼 말씀을 드렸던 것 중 하나가, 경기문화재단이 온에어 라고 해서 어쨌든 링크를 공유하는 거예요. 유튜브랑 똑같아요. 그런데 그걸 아카이빙 해서 경기문화재단에 어떤 연관성이 있는 모든 콘텐츠들을 다 모아서 그 링크만 걸어주기만 해도 사실 이거는 얻어 걸리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참석자(1) 그렇죠.

사회자(M) 결국 그 콘텐츠를 유통해 줄 수 있는 경로가 확실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참석자(5) 그렇죠. 플랫폼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 이번에 제가 공연 촬영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저는 성남에 자연 명소에서 공연하는 것을 뮤직비디오처럼 촬영하는 거였고, 그걸 하는데, 성남시민 분들이 다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하는 거를. 마치 버스킹 공연처럼. 그러면서 저희가 하는 것을 너무 잘 봤다고 하시고, 같이 사진 찍자고 하시는데, 그래서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는데 저희가 성남문화재단 치고 들어가 보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게 확인이 안 되는 거라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매개자거든요. 시민 들하고 재단의 매개자 라고 생각을 하시면 저희가 여기 이름을 많이 언급하면 언급할수록 시민들은 그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술가들이 같이 이 안에서 뭔가 하고 있구나! 하는 것만 알아도 사실은 재단이 뭐를 하는 곳인지 인식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사회자(M) 플랫폼은 이 시대에 필수적인 경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참석자(5) 하나 더 말씀 드리자면 성남문화재단의 홈페이지는 가독성이 너무 떨어집니다.

참석자(2) 아마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서로가 다 공감하실 것 같고, 아이디어를 말씀드리자면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성남예술가자문위원이라던가 그런 게 생기면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성남에 있는 예술가들을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이 생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한 명씩 소개하는 걸로. 예를 들어 참석자 선생님이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참석자 선생님이 누군지?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아티스트를 다 촬영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티스트를 선정하시고 그 아티스트를 촬영해 주는 지원사업이 생겨서 그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어떤 거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분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다 볼 거잖아요. 그래서 성남의 예술가들이 힘을 받을 수 있게, 예술가들은 다른 게 힘이 아니라 그런 에너지가 힘이거든요. 그 힘이 생기면 아마 이 안에서 분명히 자생적인 움직임이 생기고 교류가 생기고. 저희도 몰랐잖아요. 참석자 선생님도 몰랐고. 저는 무용을 같이 하지만 참석자 선생님도 몰랐어요. 죄송해요. 선생님도 저를 몰랐을 거고. 각자의 분야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한 번쯤은 봤을지 몰라도. 그러니까 시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예술가를 위해서도 그렇고, 예술가 온라인 소개하는 플랫폼 그거를 영상 작업을 해서 올리는 거죠. 사진하고 영상으로. 사진하고 분야 그냥 이게 아니라 영상이 재미있잖아요.

1분 정도면 충분해요. 1분 30초.

사회자(M) 성남의 예술가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장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고.

참석자(1) 라이브적인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요.

사회자(M) 그러니까 영상으로 라이브적인 모습을 보여 주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1) 네.

참석자(6) 그런 것도 좋고, 저는 어떤 활동을 하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따로 찍기가 힘들고 그러면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서 지금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개 같은 거, 요즘에는 많이들 갖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도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회자(M) 말씀을 들어 보니까 여러분들이 콘텐츠는 다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잘 갖춰질 수 있는 그런 지원도 필요하고, 여러분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필요로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플랫폼 이전에 성남문화재단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단 예술인들 데이터베이스를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거기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을 한다고 하면 기꺼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내 개인 정보는 주기 싫다, 그런 생각도 드실까요?

참석자(2) 그 데이터베이스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데이터베이스인가요?

사회자(M) 이름, 전화번호, 활동영역, 경력, 그런 것들이죠. 예술인에 대한 개인정보죠.

참석자(2) 그런데 전화번호까지 완전히 노출되면 그건 부담스럽고요. 이메일까지나 홈페이지, 아니면 자기 SNS 계정으로 하는 활동, 그리고 무슨 활동을 했는지 정도는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일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사회자(M) 개인정보를 내가 줄 때는 뭔가 잘 될 거라는 기대를 하잖아요.

참석자(2) 그런데 그걸 받아서 그냥 올리고 끝나면 그건 의미는 없죠.

사회자(M) 받아서 뭐를 해 주는 게 좋겠는지? 그 기대를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2) 영상으로 그 중에서 작가들을 뽑아서 이 달의 무용 분야 선정작가 그런 식으로 해서 올려서 한 달이나 2주 동안 그 작가를 띄워 주는 거죠. 그건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겠죠. 저도 회사를 해 봤었어요. 교육회사를 해 봤었는데, 거기에서도 예를 들어 잘 하는 그 안에서 뛰어난 선생님들을 띄워서 플랫폼에 올려 주면 자극을 받잖아요. 그렇게 그런 식으로 뭔가 그래도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그게 편중이 되면 안 되겠지만 그걸 성남문화재단에서 공정하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과 예술인과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보면 합의 하에 여러분들의 작품 영상이 될 수도 있고, 작품 이미지도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건가요? 어떤가요?

참석자(5) 저작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있어야죠.

사회자(M)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는?

참석자(2) 서약서를 쓰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5) 어쨌든 영상에 참여한 모든 창작자들에게 미리 다 저작권에 대한 기간이나 활용 용도나 그런 것들을 다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그게 어떤 공공기관 제출용 그런 식으로는 합의가 된 경우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용도에서는 어쨌든 이걸로 다른 재창작을 하는 게 아니라면 이걸로 자기 실적을 증빙하고 자기를 더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건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참석자(6) 그게 약간 상황에 따라서 다른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있고요. 영상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얼마든지 공유를 해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무대공연을 라이브로 촬영해서 그 전체 공연을 오픈할 때는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사회자(M) 조금 짧은 영상은 괜찮나요?

참석자(6) 하이라이트 영상은 괜찮죠. 홍보이기 때문에 괜찮은데요.

참석자(2) 성남시에서 그런 라이징 아티스트들이 계속 나오면 성남시도 홍보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서로가 계속 해서, 그리고 이 분들이 꼭 성남에서 활동한 것이 아니라서 다 연계가 되거든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는 서울이 다인 줄 알았어요. 경기도에 살았어도. 그런데 지역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또 지역 안에서 굉장히 탄탄하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는 사실 몰랐어요. 다들 아시죠?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웬지 어떤 선을 긋는 게 아니라 서로 활동영역을 넓히고 교류하면 서로가 힘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혹시 예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플랫폼이 있으신가요?

참석자(1) OTR.

사회자(M) 거기는 어떤 곳인가요?

참석자(1) 여러 장르들의 오디션이 올라 오죠. 연극이나 뮤지컬 포함해서요.

사회자(M) 거기에 자주 들어가나요? 모든 게 모아져 있나요?

참석자(1) 거기는 매일 들어가요.

참석자(3) 클래식 쪽은 사실 개인 플레이 성향이 굉장히 강해서 연합되어 있는 사이트를 찾기도 쉽지 않은 실정인데, 제가 최근에 관심을 갖게 된 대중음악 분야를 볼 때는 물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곳에서 많은 대중음악인들이 서로 많은 구인 구직도 나누고 또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올라오는 사이트입니다.

사회자(M) 관련 정보로는 어떤 게 올라 오나요?

참석자(3) 공모가 있다던가, 대회가 있다던가 하는 음악 관련해서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회자(M)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겠네요?

참석자(3) 네.

참석자(2) 위아츠 다 아시나요?

참석자(2) 위아츠는 그냥 카톡방이에요. 저는 사실은 너무 말이 너무 많아서... 거기에 교류방이 있고 공고방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천명이 넘게 있어요. 거기는 모든 분야의 예술가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보통 교류방에서는 젊은 층들이 많이 얘기를 나누는 것 같아요. 공고방에서는 예술 공고를 띄워 주고 교류방에서는 다양한 얘기들이 있어요. 사적인 얘기부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의 카톡방 안에서 플랫폼이니까 저는 거기에서도 흐름을 보기는 보거든요. 저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회자(M) 트렌드도 좀 보시나 봐요?

참석자(2) 네. 거기는 완전 어린 그런 친구부터 해서 다 있어요.

사회자(M) 그들의 관심사는 뭔가요?

참석자(2) 지금 너무 많아요. 관심사가 항상 다양하고, 저는 항상 다 읽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200~300개씩 올라오기 때문에. 읽지는 않는데, 가끔 읽게 되면... 제가 얼마 전에 본 것 중에 기억에 남는 게 길거리에서 공연을 하는데, 어떤 분이 거기에 있는 분에게 폭행을 당하셨더라고요. 관계자분한테. 그게 이슈화가 됐었어요. 왜냐하면 허락을 받고 공연을 했는데... 뭐 그런 것부터 해서.

사회자(M) 사건 사고부터 해서?

참석자(2) 사건 사고가 아니라 예술가들의 그런 사소한 권익부터 해서.

사회자(M) 권리나 부당한 경우를 접하게 되는 경우나.

참석자(2)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일부고요. 아주 다양하게 때문에 제가 설명을 다 못 드리겠어요.

참석자(1) 교류방이 있는데 작품도 많이 올려요.

참석자(2) 유튜브도 많이 올려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도 꼭 하고 싶은데 못 한 말씀 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참석자(6) 성남문화재단을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 하나는 지켜졌으면 좋겠어요. 문화예술 지원사업 공고가 언제 나는지? 사실은 지원사업이 많은 것도 아니면서, 매일 볼 수는 없잖아요. 1년에 사업이 몇 번 안 나오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들여다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홈페이지가 이상하잖아요.

참석자(1) 네.

참석자(6) 그래서 이걸 찾아보기가 너무 힘들어서, 계속 찾아보기는 하는데, 무슨 알림 같은 거 없을까? 이거를 매일 볼 수는 없는 거니까 제발 이런 거를 알려 주면 좋겠다! 싶어요. 공고 시기. 사실은 중간에도 공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어! 이런 게 있었나?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다음 공고가 언제 나나요? 그랬더니,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매일 들어와 봐야 되나요? 그랬더니, 네! 들어와 보시면~ 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참석자(5) 최근에 광역 단위의 지역 재단에서 기초 단위로 재편이 되는 과정이라고 알고 있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역의 예술인 기반으로 이걸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한 번이라도 공모지원을 낸 곳에서 지역재단에서 최근에 메일을 제가 받았어요. 실태조사를 직접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그 구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아카이빙 문제나 홈페이지 개편 문제나 그런 부분들, 사실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사실 지금 어쩔 수 없이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니까 그 부분을 가장 시급하게 개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참석자(4) 저는 오늘 만나 뵈게 되어서 너무 반가웠고요. 이런 기회가 저희에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가 앞으로도 자주 있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또 빨리 코로나가 회복되기를 바라고요.

사회자(M) 재단에서 지원을 할 때 많은 분들에게 소액으로 지원하는 것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분들에게 금액을 크게 해서 지원하는 것하고, 어느 것을 더 선호하시는지? 그리고 이유가 뭔지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석자(4) 사실은 소액으로 한 게 청년시절이거든요. 23,24살 됐을 때 지원을 받아서 27,28세까지 했어요. 그게 150만원이었나? 200만원이었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지원을 받아서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경험적인 것은 그게 끝인 것 같아요. 한 두번 정도. 우리가 예술가로서 성장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도 지금 40대 중반인데도 같은 형태의 것을 하고 있다는 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소액으로 해야 된다, 많이 줘야 된다, 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최초라든지 청년 젊은 친구들이 공연을 했다 그러면 그게 경험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두 번째는 장소를 아트센터를 뭐 빌려줘서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렇게 다른 형태의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는 중견 예술가가 이미 되어 버렸는데, 전혀 변한 게 없이 저는 많은 사람에게 많은 혜택이 간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형태의 지원이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가 또 그 다음에 퀄리티가 좋은 형태로 넘어갈 수가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5) 저는 소액지원이 어떻게 보면 창작활동에 쉽게 접근하는 데에는 적합할 수 있으나, 저는 한 번도 페이를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으면서 충분하게 준다는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것밖에 못 드려서 어떻게 해요? 라는 말로 항상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사회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 늘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리고 창작이라는 게 아웃풋이 완전히 제조업처럼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다가 결국에는 답

는 마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 소액지원에서 쪼개고 쪼개고 기획비도 없고 그리고 출연료에서 8.8%를 떼고 그리고 이런 어떤 제약들... 자부담 뭐 이런 거 다 생각하다 보면 사실상 이거를 참여하는 사람이 열정이 자꾸...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원서를 선별할 때 조금 집중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 적은 수를 하더라도 이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충분한 사업인지를 평가판을 하시고, 그리고 연속지원에 대한 형태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소액, 다수, 많은 액수를 적게, 뭐 그런 이분법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 지원에 대한 다양성은 사실 지금 광역단체에서 먼저 생각했고 먼저 시도를 했고 그것에 대한 케이스가 벌써 결과치가 다 나와 있고. 그거를 벤치마킹을 하셔서 접근해도 충분히 원하는, 진짜 예술가들의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지원정책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6) 소액을 여러 사람에게 혜택을 받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조금 큰 금액을 작은 범위에서 지원할 것이냐? 저도 이 분 말씀과 비슷해요. 액수 그런 것보다도 시스템의 문제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저도 신청을 해서 예술활동창작지원금인가? 300만원 나오는 거 그거를 해 봤어요. 저는 20년이 성남에 있으면서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체에서 뭔가 기획을 해서 하기에는 역부족인 부분도 있고 해서 지원사업으로 같이 가고 싶은데... 그래서 금액이 그렇지만 지원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하긴 하는데, 그게 소액이 되는 이유가 저희 같은 프로단체랑 아마추어단체들이 다 섞여 있어요. 동호회도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다 비슷하게 나눠 주세요. 되게 많이 한 장(지원받은 곳의 리스트) 넘어가게 해주셨어요. 좋아요. 일반적인 분들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좋은데, 그것과 같이 병행해야 될 것인 전문 예술가들을 위한 창작지원, 그건 이름을 창작활동지원금이라고 이름을 붙였지만, 사실은 창작활동지원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게 좀 나눠져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3) 이번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예술인으로서 코로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지를 같이 지혜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감사했습니다. 저희가 나눈 대화들이 시작이 되어서 오히려 더 나아가는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석자(2) 저도 오늘 되게 값진 시간이었고, 여기에서 얘기를 하자면 밤을 샜 정도일 거예요. 다들 공감하실 거고, 어쨌든 서울문화재단의 그런 지원사업 정책이 분화되어 있는 것을 좀 더 참고해서 벤치마킹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대표님이 질문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기에 답이 약간 있거든요. 그리고 이 자리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잘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1) 저는 개인으로 활동하고 나서, 지금은 다시 극단에 들어 갔어요. 이유는 안정적이지 못 한

이유도 있고, 개인 실연자들을 위한 지원 자체가 전무할 정도이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해서 그래서 여기에 와서 얘기해도 되나? 그런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들 정말 힘드시고 다들 열심히 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제가 원하는 것은 그거인 것 같아요. 서울로 이사를 가기 전에 좀 더 이런 플랫폼들이 좀 더 이런 모임들이 많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남네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3. 기획, 교육분야 그룹

- 일 시: 2020년 12월 15일(화) 13:30
- 대 상: 정량조사 응답자 중 기획, 교육분야 5인
- 참 석 자: 1. 참석자_음악
2. 참석자_사진
3. 참석자_국악
4. 참석자_기타
5. 참석자_연예

사회자(M) 소개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성남문화재단과 아무 관계가 없고, 보통 저희는 고객사에게 프로젝트를 받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리서치 회사입니다. 이번에 성남문화재단으로부터 예술인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했고, 이어서 이런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은 여러분들이 의견을 모아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성남문화재단에 보고하는 일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전부 기억할 수 없고, 조사의 흔적으로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 목적 외에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설문지 응답해 주실 때도 통계 이외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는 것처럼, 오늘 녹음, 녹화는 하지만 이 보고서 작업이 끝나면 녹음, 녹화는 완전히 폐기합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립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즘 4차산업기술이니 코로나니 해서 우리 삶의 환경이나 예술인의 환경도 많이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변화된 환경에서 예술인으로서 느끼는 그 변화, 그리고 어떻게 적응하고 계시는지, 성남문화재단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좀 더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맥락에서.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성남문화재단에서는 예술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를 구축하는 전략을 세우는 데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입니다. 오늘의 질문은 설문지 드렸던 것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설문에는 단순한 질문들이었다면, 오늘은 여러분의 생각과 느낌을 심도 깊게 들어보는 자리입니다. 예술인의 입장을 모아서 불만족을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가는 데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다르실 수도 있으니까 명확히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역할은 오늘 제가 준비한 질문을 드리면서 진행을 하는 역할입니다. 각자 소개를 나누고 시작하겠습니다. 소개해 주실 때 여러분의 활동분야, 그리고 몇 년 정도 활동하셨는지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자(1) 저는 2015년 2016년에 성남문화재단에 사랑방문화클럽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했습니다. 240

여개 클럽에 4000명 정도 회원이 있었고요. 임기는 1년인데 2번을 했습니다. 이 사랑방클럽활동을 2012년부터 해서 올해 사랑방클럽이 14년째 됩니다. 지금은 명예위원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는 조이색소폰 이라고 하는 동호회에서 활동하고 있고, 또한 한국다문화가족연구소 라고 하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 결혼이주여성들에 대한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있어요. 매주 토요일 하고 있는데, 11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어떤 종류를 지원하고 계신가요?

참석자(1) 제가 사회복지학 박사를 받고, 제가 다문화를 전공했는데, 제가 중학교부터 음악활동을 하고 쪽 거쳐 오면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도 하면서 그리고 또 전국에 다니면서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행정안전부의 지원을 통해서 3일 정도 교육을 전국 시.군.구 단위로 합니다.

사회자(M) 주로 교육 부분에서 하고 계시네요.

참석자(1) 그러면서 성남 지역에서도 사회의 심리적응과 부적응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했기 때문에.

사회자(M) 상담도 하시고?

참석자(1) 네. 어떤 것보다도 문화예술적인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11년 전부터 공공기관에서 다양한 문화예술활동을 했는데, 그 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게 노래교실이라든가 합창이라든가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애니메이션 동화라든지 댄스도 하고요. 그리고 탐방도 하고 캠프도 하고 그랬습니다. 최근에는 우쿨렐레와 오카리나 등의 활동을 엄마들과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올해도 베노바 라는 악기를 통해서, 그제 색소폰이나 클라리넷 비슷하고 생겼는데, 그런 거를 통해서 엄마들도 아이들도 음악에 대한 지속적인 것들을 가르쳐 줘서 우리가 생활문화 활동을 할 때 그들도 같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래서 자존감도 키워 나가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2) 사진교육을 하는 사람이고, 처음 시작한 것은 2011년도에 미디어센터에서 수업을 시작했구요. 지금도 성남미디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로 40,50대 성인 위주로 대부분 해 왔구요. 학교 청소년들 대상으로도 해 본 적이 있고, 그리고 복지관에 계신 어르신과도 해 봤고.

사회자(M) 개인적으로 강의를 하시는 건가요?

참석자(2) 개인으로 하죠.

사회자(M) 어디 단체에 소속되어 있지는 않으시고?

참석자(2) 네. 그런데 주로 성인 대상이 제일 많고. 성인들과 함께 뭔가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주로 사진을 매체로 1년 단위의 클래스를 짜서 교육을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는 그 분들 대상으로 전시를 기획하는 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3) 저는 국악 분야이고, 저는 해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고, 교육 쪽도 학교나 여기 성남아트 센터에서 해금 강좌가 있고, 성남에서 활동하는 국악팀이 있어요. 그 팀에서도 연주활동을 하고 지원사업 같은 것도 지원을 해 봤고요.

사회자(M) 그 지원사업은 개인이 하신 거예요? 아니면 어디 단체로서 하신 건가요?

참석자(3) 단체랑 같이 하는 거죠. 공고가 뜨면 보고 넣는 거고,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시작한 것은 아니었지만, 코로나 전에 2019년 가을쯤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촬영이나... 음악적으로 그런 영상으로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전달해야 되겠다는 것도 많이 배우게 되었고, 계속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회자(M) 유튜브 운영은 얼마나 되셨어요?

참석자(3) 1년 3개월.

사회자(M) 코로나 이전에 시작을 하신 거네요?

참석자(3) 네. 그런데 어떻게 맞물려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도 많이 보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4) 저는 지역에 있는 예술단 일을 98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2003년쯤에 성남예총 사무국장을 하고, 그리고 인간문화재 프로모팅에 관련된 일을 하다가 해외에서 저는 영국에서 석사를 하면서 6년 정도 국제행사를 하면서 국제적인 행사를 보고 우리나라 전통문화와 관련된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여기에 와서는 지금 전문예술단체들이 모여 있는 단체가 있어요. 문화예술공연네트워크 라는 단체가 있는데, 일단 예술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 위주로 모여 있는 단체인데, 전문예술인들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출범은 시작은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제가 해외에 갔다 온 뒤로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되어서 지금은 42개 단체가 있고 580명 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사회자(M) 기획 분야는 전통음악만 하시는 거예요?

참석자(4) 그건 아니고요.

사회자(M) 다 하시는 거예요?

참석자(4) 네. 대부분 모든 장르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예술인들에게 부족한 부분이 정보와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 공모사업 관련이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도 있겠지만 지문원도 있고 한문위, 한문연, 뭐 여러 군데가 있어요. 그런 정보와 관련된 것들을 제공해 드리면서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구심점을 갖고 있는 그런 단체입니다.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그 단체는 온라인으로도 운영하시는 건가요?

참석자(4) 네. 지금 플랫폼이 있어서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어쨌든 비대면으로 하고 있어요.

사회자(M) 플랫폼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참석자(4) 문화예술공연네트워크입니다.

사회자(M) 네.

참석자(5) 저는 공연 행사 기획사 유앤아이커뮤니케이션즈 라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의 시작은 2013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만 8년 정도 됐고요. 원래는 학교 졸업하고 나서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 쪽 워낙 엔터테인먼트 쪽에 관심이 많아서 소니뮤직, EMI, 등 외국계 음반사에서 마케팅 홍보 일을 쪽 담당하고, 그러다가 2000년 초반에 가족을 데리고 캐나다로 이민을 갔다가 2012년 말에 다시 역이민을 와서 2013년부터 공연 기획을 하고 있고요. 주로 공연 기획은 해외 아티스트 공연 기획을 많이 했고, 재즈 공연을 많이 했고요. 아까 색소폰 얘기하셨는데, 아마 네브코지나 워렌 힐을 잘 아실 겁니다. 그 국내 공연을 다 제가 했고.

사회자(M) 그러면 해외에 나가는 공연도 준비하시나요?

참석자(5) 아닙니다. 해외로 나가는 공연은 또 다른 그림이기 때문에 그건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행사 기획으로는 현재는 공연 기획보다 행사 기획 쪽의 매출이 더 많은데, 학교나 ROTC 단체들, 그리고 하나은행이나 그런 쪽으로 해서 하고, 작년까지는 3년 정도 실용음악학과의 겸임교수로 해서 뮤직 비즈니스에 대해서 강의를 했었고요.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네. 반갑습니다. 다섯 분 모두 다양한 경험과 경력들이 있으셔서 오늘 기대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설문지로 실태조사에 응답을 해 주셨는데요. 2019년에도 이와 비슷한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혹시 그 조사에 응답을 하셨던 분 계신가요?

참석자(4) 어디에서 한 건가요?

사회자(M) 2019년도에 경기문화재단이요. 기억에 없으시면 안 하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요. 자,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응답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참석자(4) 저는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처음이었고요. 성남에서 하는 이런 실태조사... 사실 예술인들이 리스트업이 안 되어 있는 게, 이게 굉장히 기초적인 부분인데 사실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그래도 재단에서 이런 사업이 진행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사회자(M) 예술인들의 권익보호 일을 하다 보니까 더 체감을 하시는 것 같아요.

참석자(4) 네. 그럼요. 이거는 사실은 얘기가 나온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재단 내부 상황은 잘 모르니까요. 그런 게 일단 긍정적이었고. 두 번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여쭙 봤는데요. 이 실태조사의 목적이 뭘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사회자(M) 4차 산업기술에 의한 AR, VR 뭐 그런 환경변화와 그리고 코로나 상황이 오면서 이런 변화

에 대해서 예술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주 수요자들의 생각을 알아 보고, 설문지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내용을 여쭙고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요자 입장에서 지원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원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알고 싶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참석자(4) 그런데 설문지를 하는 내용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사회자(M) 설문지를 분석해 주시기보다는 지금은 제 질문에 조금 따라와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석자(4) 설문지 관련된 내용을 지금 말하려고요.

사회자(M) 네. 제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얘기를 나눠 볼게요.

참석자(4) 네. 그러면 질문할 때 그 때 하겠습니다.

사회자(M) 네. 죄송합니다. 예술인으로서 성남시에 계시는 거잖아요. 예술인으로서 성남에서도 활동하시고 서울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경기도나 서울에 가서 하시는 활동도 있을 텐데, 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과 성남에서 활동하는 것을 비교해서 말씀해 주세요. 먼저 주로 서울에서 활동하시는 분께 여쭙 볼게요.

참석자(5)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처음 사업자 등록을 낼 때 별도 사무실을 갖고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는 당연히 공연 위주로 행사를 시작했고, 굳이 어떤 사무실을 갖고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저희 일의 특성상. 그래서 저희 집에다가 사업자 등록증을 해 뒀고요. 그러면서 사실 직장에 다닐 때도 집이 분당일 뿐이지 직장은 서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이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건 있죠. 큰 시장이라는 것. 그리고 사실 성남에서 공연을 처음 한 것은 지난 10월 31일 성남아트센터에서 우리나라 재즈 올스타 공연 그거를 한 게 성남에서 한 처음이죠.

사회자(M) 경기도와 성남으로 적어 주셨어요.

참석자(3) 저는 여기에서도 공연을 하고, 또 다른 팀을 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부천에서 해요. 조금 차이점이 느꼈던 것은 이런 지원사업들이 부천은 최근에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어서 예산도 좀 크고 그래서 지원사업이 많이 나오기도 했어요. 성남과 부천의 차이는 뭐였냐 하면 전문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사업을 주고자 하는 게 보였거든요. 제가 성남의 지원사업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전문인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성남, 경기 라고 하셨네요.

참석자(2) 저는 주로 고양시나 성남시에서 교육을 하는데요. 성남시에서 지원사업을 받아 본 적은 없어요.

사회자(M) 고양시에는 우연히 가서 교육을 하시게 된 건가요? 비교를 해 보시면 예술인으로 활동하시기에 어떤가요? 두 도시를 비교를 해 주신다면 어떤가요? 비슷한가요?

- 참석자(2) 저는 아마추어 분들을 데리고 교육을 하는 일을 주로 했는데, 경기도문화재단에서 작가로서 지원을 받은 적은 있는데요. 그거랑 제가 교육자로서 하는 거랑은 또 다른 것 같아요.
- 사회자(M) 교육자로서는 지역 간의 차이를 못 느낄 수도 있어요. 그냥 느끼신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 참석자(2)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참석하는 분들의 태도가 약간 다른 것 같아요.
- 사회자(M) 어떻게 다른가요? 어떤가요?
- 참석자(2) 아! 지역이라기 보다는… 교육 시간에 영향을 받은 것 같네요.
- 사회자(M) 활동지역이 성남, 경기에서 활동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술인으로 활동하기에 지역적인 차이를 느끼시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 참석자(1) 저는 개인으로 하기 보다는 사랑방문화클럽을 대상으로 해서 성남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통해서 5월달부터 10월달까지 매년 활동을 지원해 왔었어요. 그것은 성남문화재단을 통해서 사랑방문화클럽을 해 왔고. 그걸 그만두고 나서 제가 1,2년 뒤에는 실제적으로 사업계획서를 올려서 생활문화 200만원 짜리라던가 경기도에서 나오는 공모사업 등 그런 것을 수행했었죠. 오래 전부터.
- 사회자(M) 그러면 경기도가 더 좋은가요? 성남시가 더 잘 되어 있나요? 아니면 비슷한가요?
- 참석자(1) 경기도나 성남이나… 예산사업을 따서 하는 거니까요.
- 사회자(M) 지원사업과 관련해서는 뒷부분에서 좀 더 심층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예술인으로서 성남에서 활동하시기에 어떠신지? 지역적인 차이를 별로 못 느끼실 수도 있지만, 부천은 지원이 더 많은 것 같고 예술인을 더 위해 준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쭙 보고 싶었어요. 정선생님은 성남에서 활동하기가 어떠세요?
- 참석자(4) 일단 저희 단체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많고요. 성남은 사실 지원사업에 대한 규모가 크지 않은 게 사실이거든요. 요즘 들어서 조금 달라진 부분이 있기는 한데, 코로나 때문에 다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있는데, 기회나 규모 면에 있어서는 타 지역이 더 많은 것은 사실이죠.
- 사회자(M) 지원 외적인 부분은 어떤 것 같나요? 도시마다 소비자들이 향유하는 수준이나 관심도가 다르다고 느끼시는지? 사실 그 분들의 수요가 있어야 예술인들이 많이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요.
- 참석자(2) 성남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제가 어디에서 오냐고 여쭙 보면 서울에서 오시는 분들이 좀 많았어요. 특히 고양시에서는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 사회자(M) 그러면 성남의 어떤 그런 이미지가 있는 건가요?
- 참석자(2)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고양이나 성남이나 미디어센터에서 둘 다 홍보를 잘 하시는 것은 아닌데, 성남에서 교육을 할 때는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꽤 있었어요.

사회자(M) 어떠신가요?

참석자(1) 저는 전문인은 아니고, 생활예술 이라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성남시가 다른 생활문화 도시보다 성남시가 앞서 왔거든요. 14년 전에 성남문화재단에서 생활실태조사를 해서 생활문화가 어떻게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전에 그런 조사를 했고, 그 이후에 2,3년 3,4년 태동기를 거치면서 그 이후에 성남시 의회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는 형태로 만들어졌었어요. 그래서 그 때부터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성남에서 해 온 거죠. 생활문화 클럽들이 100~130개 이렇게 되면서 그 활동들이 개인으로 받는 게 아니라 문화재단을 통해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각 팀 별로 공연팀, 전시팀, 그렇게 팀을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내가 프로포즈를 안 하더라도 팀에 소속이 되면 5~10개 팀이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장소, 음향, 포스터, 이런 것들의 인프라를. 그리고 공연자들은 생활문화 동호인들이니까 가서 아무것도 받는 것은 없지만... 그런 것들을 해 왔고. 그리고 2005년도에 이것을 모티브로 해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자기들이 전국생활문화축제를 하겠다고 해서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어요. 6회 정도.

사회자(M) 선배님의 이런 활동이 발판이 되어서 젊은 예술인들이 좀 더 활동하기 좋아졌다는 느낌이 드네요.

참석자(1) 전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사회자(M) 단체공연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술인이라는 것이 굉장히 멋진 직업이잖아요. 자, 여러분들 스스로는 예술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 보고 싶어요.

참석자(5) 자기 자부심이라기보다... 자기만족이 없으면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사회자(M) 캐나다에 가셨다가 다시 오신 이유도 예술을 하러 오신 건가요?

참석자(5) 아닙니다. 저는 여기에서 다 못 하고 간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고. 공연 기획도 하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것은 솔직히 아니고요. 제가 그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저한테 공연기획이 유일한 선택지였고, 해외 아티스트 네브코지 라는 친구가 마침 일본에 오길래, 한국에서 공연을 기획해서 시작한 게 계기가 된 거죠.

사회자(M) 예술인으로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은가요?

참석자(5) 저는 사실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을 했던 게, 예술인이라는 범주를 어떻게 보시는지가 궁금했는데, 저는 사실 예술인 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비즈니스맨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문화와 관련된 음악과 관련된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질문하셨던 것 중에... 성남에서 예술인들에게 해 주는 지원이 있나요? 그게 있나

요?

사회자(M) 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뒤에서 더 말씀을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석자(5) 네.

참석자(3) 말로는 멋있어 보이기는 하는데, 그냥 내가 돈만 벌자! 생각하면 교육을 하든 레슨을 하든 그렇게 벌 수는 있는데요. 말 그대로 예술을 하겠다고 내가 음악도 만들어 보고 공연을 기획하고 하는 게 실은 나 혼자서 하기는 굉장히 힘들어요. 기획자가 있어서 해 주지 않는 이상. 그런데 보통 음악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어디에서 기획자를 만나서 하지는 않거든요. 내가 일단 커졌을 때 기획자가 붙는 거고, 그거를 홍보해 주고 그러는 것이지. 그래서 지원 사업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실은 쉽지만은 않아요. 특히 국악분야 같은 경우에 대중들이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니까. 그런 점이 조금 어렵기는 하죠.

사회자(M)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개인으로 성장해야만 기획자를 만날 수 있다. 자, 참석자님은 어떠세요? 교육 파트인데요.

참석자(2) 말씀하시는 예술인의 범주가 약간 넓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진을 전공하고 작가로서 정체성이 있고, 그리고 또한 가르치는 교육자로서의 정체성은 따로 있거든요. 이게 생각보다 별 관계는 없어요. 도움은 되는데...

사회자(M)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4) 물어보는 질문의 취지는 제가 정확히 이해는 못 하지만, 제가 나름대로 이해하기는 원래 생태계를 따지면 예술 생태계와 문화 생태계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술 생태계는 말 그대로 아티스트와 관련된 건데, 문화 생태계로 얘기하면 참석자님 같은 기획자라든가 프로모팅이나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나 디지털 관련된 종사자를 예술하고 관련된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다 문화 마케터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마을에 관련된 개발 및 문화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있어서 사실 모듈의 범주를 문화예술 범주 안에 넣는 것이 요즘 추세이기는 한데요. 예술 관련된 것은 사실은...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회자(M) 구분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참석자(4)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다 보니까 예술에 대한 정의도 따로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가 궁금했구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참석자(4) 네.

사회자(M) 거기에 혹시 등록도 되어 있나요?

참석자(4) 네.

사회자(M) 나는 거기에 예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 하는 분?

사회자(M) 좀 들어가 보시는 편이세요? 어떤 거를 주로 이용해 보셨어요?

참석자(2) 지원사업에 계속 참여를 하고 있어요.

사회자(M) 어떤 지원사업인가요?

참석자(2) 올해 이름이 바뀌었어요. 예술로 사업으로 바뀌었는데요. 파견지원사업이 있어요. 창작지원금 사업도 있고.

사회자(M) 지원사업을 확인하려고 들어가는 편이시고?

참석자(2)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석자(4) 예술인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말 그대로 예술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설립이 된 거고, 예술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설립이 되었는데, 지금 문정부에서 얘기하는 2030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거기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12월 10일에 이슈가 되었던 고용보험 관련된 부분은 정부에서 얘기한 부분을 거기에서 충분히 해 주고 있고, 그 외에도 의료비 지원부터 해서 관련된 혜택을 주는 것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제가 예술인들에게 알려 주죠. 저는 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술인들에게 알려 주는 역할.

사회자(M) 알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모르고 계셨나요? 어떠세요?

참석자(3) 복지재단... 음... 정확히 잘 알지는 못 하지만, 예술인들이 가입할 수 있는 데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가... 왜냐하면 서류도 내야 되고 그런 귀찮은 과정들이 있으니까.

사회자(M) 서류가 복잡한가요?

참석자(3)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활동내역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당장 뭐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 뭐 필요할 때 하지! 뭐! 그런 거죠. 예술인패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야지! 이려고 있는 거죠.

사회자(M) 알고 계시는데 왜 이용은 안 하세요?

참석자(1) 저도 들어가서 가입하려고 했더니 자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력이나 실적이나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단지 생활문화예술이라고 해서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그런 게 차츰 늘어나잖아요. 전문예술인이 아닌 사람들이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그래서 쪽 보다 보니까 저도 프로포절을 해서 기획, 감독, 그렇게 해서 내 이름을 쓰기도 해요. 이제는. 그런데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포절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아마 자격이...

사회자(M) 네. 알고 계시는데 자격 때문에 안 되시는 것 같고요.

참석자(1) 네.

참석자(5) 저는 두 가지 이유였는데요. 하나는 제가 예술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예 쳐다보지 않은 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나 지역에서 하는 지원사업이 있

다는 것은 알고는 있었는데, 나오는 그걸 받기 위한 과정, 받고 나서 수행하고 나중에 그거를 또 영수증을 증빙을 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참석자(4) 귀찮죠.

참석자(5) 네. 귀찮은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심지어 가라 영수증을 해서 해야 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업을 시작했던 초반부터 들어서, 저는 지금 그런 거를 해 줄 스텝도 없고, 그래서 아예 그런 거는 쳐다 보지를 않았습시다.

사회자(M) 네.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고요. 자, 오늘 다섯 분 중에서 참석자님만 지원받은 경험이 있으시고 다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으세요. 저도 그 부분을 자세히 듣고 싶어서 오늘 모셨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 볼게요. 보니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각각 중앙부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이렇게 여쭙 보려고 해요. 보니까 중앙부처는 없으신 것 같고요. 경기도 지원사업을 받으신 분?

사회자(M) 받아보신 분들은 그 경험을 얘기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었고? 지원하는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이나, 혹은 공고문 확인부터 해서 그 과정을 짚 설명해 주세요. 좋았던 점과 불편했던 점 모두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1) 경기도에서 올해 코로나 때문에 생긴 거예요. 그 프로젝트가. 코로나 극복의지 백신 프로젝트라고 해서, 다른 거는 뭐 콘텐츠도 있고 그러길래 몇 번 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백만원의 기적이라고 해서 백만원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 증빙서류 없이 백만원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이기 때문에 다 움츠리고 있을 때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비대면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사업을 진행한 적이 있어요.

사회자(M) 코로나 이전에는 없으셨나요?

참석자(1) 없었어요.

사회자(M) 다른 선생님은 어떠세요?

참석자(2) 올해 2020년도에 받은 게 다 코로나 관련된 거예요. 서울시, 경기도, 고양시, 이렇게 받았죠.

사회자(M) 현금으로 지급된 거?

참석자(2) 네. 지원서 내서 받는 거죠

사회자(M) 지원서도 내셨나요?

참석자(2) 네. 그럼요. 선생님이 말씀하신 백만원의 기적 그거 저도 했고. 그리고 지원서도 냈고 결과물 제출도 다 했거든요.

사회자(M) 그런 지원 과정에서 별로 어려운 점은 없으셨나요?

참석자(2) 글썄요.

사회자(M) 그건 영수증 첨부 없으셨죠?

참석자(2) 네.

참석자(3) 저희는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해 봤는데요. 이거는 경기도랑 성남시랑 같이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경기도 전체로 하는 거라서 부천에서도 해 봤고 여기에서도 해 봤고. 딱히 뭐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데... 항상 불만은 그런 거죠. 공연을 할 기회나 횟수가 너무 적고. 보통 여러 단체를 하다 보니까 1회, 2회 이 정도를 하는데, 솔직히 굉장히 부족하죠. 그리고 저희가 가는 곳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가는데, 당연히 작은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열악한 시설이기도 하고, 음향시설이 없는 데도 있고, 뭐 그런 거는 저희가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따로 대여를 하기도 하고, 실은 그런 수고에 비해서 지원되는 돈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한 공연을 위해서 기획을 하고 그러거든요. 따로 아동극도 해 봤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쏟는 그 에너지에 비하면 그러면 공연 횟수를 많이 주던지, 그냥 1회성으로 끝이 나니까 또 그 다음으로 연결을 하려니까 힘들고.

사회자(M) 네. 1회 공연으로 끝내지 말고, 그게 좀 지속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지요?

참석자(3) 네.

참석자(4) 저는 경기문화재단에서 했던 코로나 관련 프로젝트도 했고, 지금 경기도와 성남시가 했던 찾아가는 문화활동도 했는데, 내용은 다 비슷한 내용이에요.

사회자(M) 그러면 혹시 코로나 이전에 받았던 지원사업은 없으셨나요?

참석자(4) 사업은 있었는데, 대부분 사업은 다 똑같은데, 여기 코로나 프로젝트는 무정산 행사였고, 감사했었어요.

사회자(M) 코로나 이전 상황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그 이전에 사업들은 어땠나요?

참석자(4) 일단 공모사업은 내용이나 절차는 다 똑같아요. 행정적인 것도 거의 다 똑같은데요.

사회자(M) 어떤 분들은 공고문 확인도 어려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참석자(4) 경기문화재단에서 나오는 공고문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회자(M) 문제 없으셨나요? 아까 얘기가 나온 영수증 첨부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셨어요?

참석자(4) 공모사업은 그냥 다 똑같아요. 제가 만약에 굳이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한다면, 공모사업 할 때 심사가 있어요. 심사하는 과정 중에서... 사실 심사를 하는 목적은 10개 중에 3개를 고른다거나, 사실 고르기 위한 과정인데, 심사를 하는 사람과 심사를 받는 사람이 갑과 을 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걸 느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심사위원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뭔가 예술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행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제가 경기도에서 느낀 게 아니라 성남에서 느꼈어요. 경기도에서 했을 때는 심사위원들에게 느낀 것은, 그 분들이 예술인들을 존중하는 게 느껴졌어요.

사회자(M) 네. 이런 말씀 좋습니다. 다른 지역 혹은 다른 기관과 비교해서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습니

다. 그리고 사실은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을 얘기해 주시면 더 좋죠. 그게 개선점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참석자님은 그 동안 왜 안 하셨어요? 모르셨나요?

참석자(5) 아뇨. 한국알코인가? 이런 식으로 몇 개 방방곡곡 이라든가 그런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초반에는 설명회도 갔었어요. 그리고 한 번 어플라이 했다가 안 됐는데, 그 이후로 어플라이도 안 하고, 그리고 그 이후로 어플라이도 안 하고, 그리고 어떤 분은 진짜 약간 씨드머니 개념으로 주면서 나중에 요청하는 정산작업이 거의 책 한 권이다, 이런 식의 표현을 듣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받는 업체가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그런 사업들이 어떤 성격일 경우에... 예를 들어 공연장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이루어질 때 관객들이 만족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 극장에서 공연에 대한 평점 같은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류의 공연들이 자주 올라가는 것 같아요.

사회자(M) 그런 것들이 오히려 분배가 되었으면 좋겠냐?

참석자(5) 네. 오히려 창의성이 있는 작품들보다 아무래도 대중적인 것을 찾다 보니까 받는 업체가 자주 받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사회자(M) 네. 심사 기준에 대중성도 중요하지만, 창의성에도 비중을 두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자, 성남시,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받은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볼까요? 성남시 지원에 대해서는 세 분 정도 받으신 것 같은데,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에서 받은 것을 같이 얘기를 해 주세요.

참석자(1) 제가 2015년도에 운영위원장을 하면서 문화재단의 이사장님하고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 생활문화인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능들을 각 마을에 가서 하자! 봉사활동, 재능 나눔을 좀 하자! 어른들도 일을 갖자! 그래서, 제가 그래서 노인종합복지관을 세 군데 찾아 가면서 봉사를 하겠다 해서 그 때부터 봉사를 했던 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그건 재능 나눔이에요. 5,6개 팀들이 10분씩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번 할 때마다 신청자를 받든지 우리가 선정을 해서 하든지, 그렇게 해서 해요. 그것 외에는 저희들이 프로포절을 통해서 사업계획서가 나오면 1년에 한 번 하는 찾아가는 문화 활동도 있고, 그리고 지역예술인활동지원도 상반기 하반기 한 번만 할 수 있고. 그런 정도죠.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오는 그런 거를 수행을 받아서 하는 거고.

사회자(M) 수행하는 과정에서 별로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마음에 안 들었던 점이나 개선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도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1) 일단 저희들이 받는 입장에서는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면 정산하는 것이 굉장히 신경 쓰는 일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주민등록증도 필요하고 통장계좌 사본도 넣어야 되고 또 영수증

을 만들어서 넣어야 되고 그리고 계약서까지도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정말 진짜 두꺼운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돈을 줬으면 통장 계좌 정도로 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사회자(M) 알겠습니다. 지원사업 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잖아요. 혹시 이런 사업계획서 작성하거나 하실 때 서류작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가요?

참석자(1) 사업계획서가... 전문가들도 그것을 습득하지 못 하면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저는 사회복지 쪽에 강의도 하고 사업계획서처럼 프로그램 개발도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아! 사업이 목적하는 바가 적합하다 그러면 그런 내용을 해서 올리면 되는데, 일단 그렇게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하기에는 이게 굉장히 까다롭다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나 이런 거를 다 채우기도. 그게 품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거를 다 채워야 되요. 할 때마다.

참석자(5) 그리고 경험이 없는 상황에서 말씀드리자면, 굉장히 한정된 것이기는 하지만, 항목들이 현실성이... 아무래도 공식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겠지만 현실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획사들이 대부분 인력이 몇 명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인건비가 얼마가 드느냐? 사실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적은 스텝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를 잘라야 되요. 기획 뭐뭐뭐 그런 식으로 하지 않으면.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 그들이 보여주는 바에 의하면 직원에 대한 어떤 항목들, 급여 항목, 그런 게 비현실적인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참석자(4) 저도 비슷한 게 생각이 났는데요. 일단 지방보조금 즉 시청에서 받는 거랑 출연금을 받는 거는 다른 거예요. 일단 시청에 있는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보조금 받는 사업에는 단체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출연비 지급이 안 되요. 굉장히 이상한 행정의 규율이 생겨서. 그래서 계획서 자체도 예를 들어 우리 단체가 신청하는데 우리 단체가 출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을 하더라도 출연을 할 수는 있지만, 출연비 지급은 안 되요. 그거는 굉장히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얘기한 보조금은 시청에 있으니까 시청의 행정에 의해서 그 룰에 의해서 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받는 출연금은 보조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기부금인데, 재단의 행정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재단에서 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에서 출연금을 받으면 예술인들한테 원래 행정의 10가지를 갖춰야 된다면, 출연금은 재단에서 쉽게 얘기하면 그걸 보증처럼 해서 5개로 줄이고 4개로 줄이고 3개로 줄이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재단에서 시의 행정논리에 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중복 투쟁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재단이 시에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되어 버리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지만, 조직 안에서 힘든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더 해 주실 말씀 있으세요? 3번 참석자님은 성남문화재단 지원을 받으신 적이 있으세요?

참석자(3) 아뇨. 문화재단 지원은 받은 적은 없는데, 아까 기획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냐? 하셨는데, 저희는 팀이지만 기획서는 어차피 한 명이 쓸 수 밖에 없거든요. 제가 기획서를 쓰게 되는데, 방방곡곡도 있고, 보면 아! 이 사람이 무슨 공연을 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가 있어요. 이 사람이 왜 뽑혔지? 하는 것도 있어요. 그건 기획서를 잘 썼겠죠. 같은 내용을 어떻게 멋있게 하나에 따라서, 멋있게 고급진 단어로 표현을 할까? 이런 게 솔직히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런 것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좋기야 하겠죠.

사회자(M) 알겠습니다. 성남시에 국한해서 대화를 나눠 보겠습니다. 성남시의 예술인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4) 재단도 포함해서요?

사회자(M) 네.

참석자(4) 제가 느끼는 것은 성남시에서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 예술인들에게 지원하는 이유가 뭐냐?를 잠깐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술활동을 하기 위한 마중물 정도의 그런 차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술이 사실 공공재 역할도 해 줘야 되고, 그리고 그걸 하는 예술인들의 활동이 있는데, 이게 제가 느낄 때는 성남에서는 사실은 그런 생태계 구축이 많이 흐트러져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춤추는 사람을 생각하면 성남시와 문화재단에서는 춤추기 위한 무대를 마련해 주면 되고, 조명을 마련해 주면 되고, 음향을 마련해 주면 되요. 그런데 사실은 재단에서 그 플레이어 역할을 재단에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굉장히 많다 보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런 플레이어 역할을 재단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 참석자님 이런 분들은 지역에 대한 문화기획에 대한 전문가인데 이런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재단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술인들의 생태계는 사실은 해야 될 사람들이 다른 데로 눈을 돌리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전문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들이 뭐냐하며 서울이나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는 자기가 인정을 받거든. 그런데 우리가 성남에 있는 예술인들이 성남에서 인정을 받느냐? 그 인정을 시에서 하느냐? 시에서는 인정하지 않아요. 시는 그냥 행정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저희가 문화재단에서라도 인정을 받고 싶은데, 문화재단에서 인정받냐? 사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회자(M) 어떤 식으로 인정을 받기를 원하세요?

참석자(4)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하면 원래 예술인 복지법 4조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예술인들의 권익보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

에 있어서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결국 따지고 보면 재단에서 그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맞거든요.

사회자(M) 그러면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뭐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참석자(4) 지금 성남에 대해서는 조금 아시나요?

사회자(M) 잘 몰라서요.

참석자(4) 예를 들어 성남시 예술인들은 재단에 왔을 때 나 알아 주는 사람이니까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보여지는 지표로 얘기하면, 여기 생활예술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로 사랑방클럽도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그런 데에 대해서 하소연 할 데가 없다는 거죠. 나 지금 뭐가 답답해! 그런데 사실 재단에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는 건 알거든요. 그런데 사실 예술인들이 그런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얘기라도 들어주면 너무 좋겠다! 하는 곳이 없다는 거죠.

사회자(M) 네. 오히려 저희가 생각한 것은 발표기회에 대해서 만족하시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고 여쭙았는데, 오히려 기본적인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이해했습니다.

참석자(5) 기본적으로 성남의 예술인으로 등록 내지는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그런 자료가 있는지 저도 일단 그런 게 궁금하고요. 왜냐하면 제가 사업과는 별개로 사단법인 한국재즈 협회 사무총장을 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재즈협회를 이 쪽 성남으로 옮겼습니다. 주소지를요. 그 이유는 성남쪽에 판교로 대표되는 IT 관련된 상징적인 비즈니스가 있고, 성남을 대표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과 얘기가 되어서 그러면 성남을 재즈의 도시로 만들어 보자! 라는 것으로 해서 지금 주소지 옮기는 작업이 거의 완료가 되었는데, 문제는 그걸 하면서 이 쪽 성남, 경기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재즈 관련된 분들이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성남에서는 재즈 공연을 볼 수가 없죠. 심지어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는 파크콘서트에도 재즈 공연은 없습니다. 김건모는 부를지언정 재즈 공연은 없죠.

사회자(M) 전문가 그룹에서 네트워크가 전혀 구성되어 있지 않나 봐요?

참석자(5)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게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돌아오자마자 파크콘서트에 뭔가 하나 넣고 싶어서 알아 봤는데, 방법이 없더라고요.

사회자(M) 지금 얘기하셨는데, 성남시 예술인 네트워크 현황, 거버넌스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로 안 되어 있나요?

참석자(4) 저는 얘기했어요.

참석자(5) 저는 잘 모르는데, 없는 것 같아요.

참석자(1) 성남시 지원과 단체가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성남시에서 문화예술과가 있잖아요. 그 안에 보면 담당하는 곳이 있죠. 성남문화재단, 문화원, 예술팀, 생활예술, 이런 것을 담당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지원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성남 예충이나, 예충에서도 뭐 전체적인 것을 지원해 주기도 하죠. 해마다. 그건 없어지지 않는 거죠. 거기서 사무국장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받아서 진행을 하겠죠. 그리고 문화재 관리라던가 향토문화재 관련해서는 문화원이나 시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지원해 주는 게 우리 생활문화인들에게 할 때마다 지원을 해 주는데... 3년 이상을 할 수가 없어요. 3년을 하고 나서는 1년을 쉬었다 하던가.

사회자(M) 다른 단체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참석자(1)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죠. 지속성이라는 것은 프로포절을 안 올리면 끝나는 거니까. 네트워크 라는 것 자체도 성남에 사랑방 문화클럽 외에도 활동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게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그렇고 작년에도 AI때문에 그렇고 한 3년 정도를 보면 예산이 성남문화재단으로 나온 것을 사랑방문화클럽 축제를 해서 10월 달에 시청 근처에서 한다던가 퍼레이드를 한다거나 공연을 해 왔는데, 이게 벌써 2년째 못 했죠.

사회자(M) 사랑방클럽에는 주로 예술인들이 모이나요?

참석자(1) 생활문화 예술인이죠. 공연과 전시.

사회자(M) 정보도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예술인들끼리는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생기지 않나요?

참석자(1) 장르별로 위원회가 있고.

사회자(M) 장르별로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참석자(1) 그렇게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 시간을 내서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하러 나오는 거고. 그것을 모아서 지금 하기에는... 거의 그것은 아니고...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 진행되면서 올해는 거의 하나의 그룹으로만 하지.

사회자(M) 있기는 있는데 활동이 왕성한 것은 아니네요?

참석자(1) 각 팀마다 자발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못 했죠.

사회자(M) 활동이 되지 않은 것이 코로나 때문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참석자(1) 그것도 있지만, 이 체계가... 거기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같이 지원에 따른 프로포절을 받아서 지원해 주는 거죠.

참석자(3) 예술인들의 네트워크가 다른 도시보다 잘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생각했을 때 성남 예충이나 음악 예충 같은 데에 젊은 층이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사회자(M) 왜 그럴까요?

참석자(3) 이거를 비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 전문가 분들이 계시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게 있어요. 줌. 그래서 뭔가 끼기가 좀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예산을 주죠. 예충이 이만큼 가져 가고, 저기 이만큼 가져 가고, 그러면 그런

예총에서 행사를 하면 공고를 안 내죠. 당연히. 너 좀 해! 그렇게 나눠주겠죠. 그러면 저희는 길 자리는 없고, 그런데 어딘가에 가서 해야 되는데 할 수는 없고. 그런 힘든 점들이 있죠.

참석자(4) 거버넌스는 무슨 거버넌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회자(M) 일종의 네트워크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참석자(4) 민간 거버넌스 라고 생각하는 건가요?

사회자(M) 민간도 들어갈 수도 있고, 공공기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참석자(4) 민간 거버넌스를 얘기하면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형식상 있는 데가 있을 수 있지만, 민간 거버넌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표현이... 예를 들어 재단이라고 하면 시라고 하면 시에서 생각하는 것과 민간에서 생각하는 거버넌스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성남에서는 그런 문화예술 쪽으로 그런 민간 거버넌스는 없습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인데, 좀 아쉽죠.

사회자(M)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시는 거잖아요?

참석자(4) 그럼요.

사회자(M)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까요? 아이디어를 주실 수 있으신가요?

참석자(4) 아까 참석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민간 거버넌스를 하려면 사실 어떤 사업이든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당연히 시에서 갖고 있고 재단에서 갖고 있죠. 돈이 없는 사람이 모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그건 그냥 자기네들 불만만 얘기하는 거예요. 뭐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사회자(M) 예술인 활동을 위해서 레지던시 같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성남시 예술인들이?

참석자(2) 성남시에서 그런 제도가 있나요?

참석자(4) (웃음)

사회자(M) 없나요?

참석자(2) 네. 성남시는 못 들어 봤어요.

사회자(M) 레지던시가 아니더라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즉 성남아트센터 같은 곳을 포함해서 얘기를 해 주신다면 어떠세요?

.....

사회자(M) 공연하는 분들에게는 아트센터 라는 공간도 내가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 되니까요.

참석자(4) 그건 사실은 메이저급 행사나 아니면 큰 규모의 행사 외에는 사실 아트센터에서 행사를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기회가 많지는 않고요.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 사회자(M) 신진작가들이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준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 참석자(4)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은 제가 볼 때는 사실 만족도를 따진다면 불만족인 사람이 훨씬 많은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재단에서 장소가 있는데도 안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서로간에 상황적인 그런 만족과 불만족이 있는 거죠.
- 사회자(M) 불만족은 주로 메이저 단체에게 혜택이 많이 간다는 거죠?
- 참석자(4) 그건 맞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그건 맞습니다.
- 참석자(1) 공간에 대해서 큐브미술관 그 쪽에 미디어센터 옆에 거기 연습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양상블 씨어터에 2층에 연습실이 있고, 그래서 그것은...
- 사회자(M) 아트센터 정도만 있는데...
- 참석자(1) 연습실을 대여를 해서 사용을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고. 신청을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또 많더라고요.
- 사회자(M)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규로 공동예술공간이 생긴다면 좋으시겠죠? 레지던스도 되고.
- 참석자(4) 공간이 생기면 좋죠.
- 사회자(M) 성남에 어떤 지역이 좋을까요? 예를 들어 예술인들을 위해서 숲 속에 조용한 곳이 될 수도 있고. 도심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으로 구를 얘기해 주셔도 되고.
- 참석자(4) 극장 현황으로만 따지면 중원구에는 1개 밖에 없습니다. 지금 하나는 설립중에 있고 수정구에는 조금 더 있고 분당구는 훨씬 많이 있죠. 비율로만 따지면 중원구가 제일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 사회자(M) 어떠세요? 지역적인 얘기를 해 주셔도 좋고요. 조용한 곳일 수도 있고.
- 참석자(4) 성남에는 조용한 곳은 없습니다. 다 시끄럽습니다.
- 사회자(M) 그런가요? (웃음)
- 참석자(1) 학교를 리모델링 해서...
- 사회자(M) 폐교요?
- 참석자(1) 아니, 올해 10월에...
- 참석자(4) 지금 개관했습니다. 영성중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 참석자(1) 네. 거기에 하나 있는데, 그걸 생활예술지원센터인가?
- 참석자(4) 교육지원센터.
- 참석자(1) 네. 가 보지는 않았지만 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요.
- 사회자(M) 생활예술인 보다는 전문예술인으로 초점을 조금 맞춰 볼게요. 전문예술인을 대상으로 공간이 제공된다면 어떤 식의 공간으로 레지던스나 순수하게 전시 공간이라든가 다양한 얘기들을 주세요.
- 참석자(4) 공간적인 면에서 의견을 내자면, 사실 레지던스와 관련해서는 태평동이나 신흥동이나 뭐 몇

군데 안 되잖아요. 예술인들이 사실 연습하는 공간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부족한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은 사실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판교쪽에는 사실은 6시 이후에 굉장히 비어 있는 공간이 많지만, 거기는 대여하기는 어렵지만 성남공단 같은 경우는 거기도 4200개 정도 기업이 있거든요. 거기도 6시만 넘으면 유명도시처럼 되는 곳이에요. 그런 부분은 재단에서 액션을 취해서 예술인들에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든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을 준다면 많은 부분이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참석자(3) 연습실 이런 거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같은 음악 뿐 아니라, 요즘에 워낙 협업을 좋아하니까. 성남에 어떤 작가가 있고, 어떤 예술인들이 있고, 그런 것에 대해서 미술쪽이든 무용쪽이든 알게 되면 같이 협업해서 공연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죠.

사회자(M) 그래서 공간에 여러 장르의 예술인들이 모이면 협업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요. 또 의견 주신다면요?

참석자(2) 원론적인 얘기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회자(M)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그 아이디어까지 주시면 더욱 좋습니다.

참석자(2) 지금 문화재단 안에서는... 저는 시각예술 쪽인데, 외부에서 대관할 수 있는 게 808갤러리랑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미디어센터 옆 사랑방갤러리 조그만 작은 데가 있어요. 제가 교육을 할 때 실은 여기에서 하고 싶었는데, 대여할 곳이 없어서 외부 갤러리를 알아 보니까 너무 비싸고.

사회자(M) 일단 전시공간이 부족하네요.

참석자(2) 시에서 운영하면서 꼭 큐브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꼭 뭔가 역세권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닌데. 작아도 되니까 그런 공간들이 좀 지역 곳곳에 있으면 좋겠어요. 진입장벽이 높지 않은, 그렇다고 너무 아마추어는 아닌 그런 분들이 하기가 애매해요.

사회자(M) 구체적으로 선호하시는 지역이 있나요?

참석자(2) 제가 지리는 잘 모르겠어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참석자(4) 얘기하시니까... 지금 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사업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거를 몇 개로 규정을 짓지 말고 가능한 공간이면 예술인들을 위한 운영으로 뭐 예술인협동조합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공간에 대해서 위탁을 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사회자(M) 최근에 4차 산업기술이나 코로나 상황인 이런 비대면 환경에서 우리 일반인이나 예술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이런 환경을 다 체감하고 계시는 거죠?

참석자(2) 네.

사회자(M) 그래서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시고?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했는데 잘 맞아 떨어져서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참석자(5) 준비 별로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 쪽은 600명 모이는 행사를 인원을 줄여서 200명 100명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가능하고. 기본적으로 티켓을 판매하는 공연들은 자리 띄우기 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거 해 봐야 프로핏이 나오지 않으니까 설 수 밖에 없고, 저는 그냥 제 희망이자 믿음인데, 온라인 공연 20분 이상 보실 수 있으세요?

참석자(4) 아뇨.

참석자(5) 네. 못 보죠. 기본적으로... 특히 논문 쓰시는 분들이 특히 작년에...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조용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굉장히 많은 요청을 받았어요. 비대면 공연부터 해서... 그런데 저는 관심이 없고. 그리고 그거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 이유가, 일단 공연장에 갔을 때 그 대형 스피커에서 울려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 몸을 때리는 공기의 흐름이 온라인에서는 없고. 그리고 저도 온라인으로 팬텀 오브 오페라 같은 거를 보면 집사람이 옆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지, 소리 조금만 올리면 밑에 집에서 난리가 나니까 소리 줄이지, 이거 그렇게 해서는 공연 못 보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념식이나 그런 행사들은 온라인으로 더 유지가 되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공연이나 행사 쪽은 온라인 쪽으로는 일부는 가겠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요즘 비대면 온라인 공연을 굉장히 많이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실제 기획하는 분들은 그런 생각이 없으신가 봐요? 그러면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석자(5) 지금 말씀하신 온라인 공연은 그야말로 부익부 빈익빈이 더 벌어지는 공연이 돼요. 지금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게 BTS나 SM, YG, JYP 등을 빼고는 지금 온라인으로 공연 못 합니다. 공연 해 봐야 내가 지금 놀면 뭐 해? 하니까 정말 그걸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럴 때 문화재단에서 비용을 서포트 해 주고, 그렇게 해서 몇 분이 보던지 기회를 주면.

사회자(M) 그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주는 건가요?

참석자(5) 아뇨 연주자들에게. 연주자들에게 그리고 작은 비대면 공연이라도 기획하는 사람들에게 무료대관이나 갖고 있는 장비를 무료로 이용하게 해 준다든지 혹은 무대 위에 올라가서 연주하는 연주자들에게 기본적인 개런티나 그런 거를 준다면, 그렇게 서포트를 해 주면 올라 가지만. 예를 들어 제가 비대면 공연을 기획해요. 몇 명이나 보겠습니까?

사회자(M) 그런데 말씀 들어 보니까 소비자들이 별로 안 즐길 것 같으면 그것도 의미 없지 않나요?

참석자(5) 그래서 저는 그런 판단 하에 안 하는 거죠.

사회자(M)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코로나 이 변화에?

참석자(5) 저는 시장이 있다고 봅니다.

사회자(M) 어떤 부분이 있다고 보시나요?

참석자(5) 제가 잘 하면.

사회자(M) 굳이 비대면이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기획자로서 비즈니스 모델이 있으시다는 건가요?

참석자(5) 그러니까 공연 기획자들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 같아요.

참석자(4) 아니, 대부분 이 분처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다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사회자(M) 그러니까 페이만 조금 나오면 비대면 공연을 할 수는 있지만, 비즈니스 모델로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참석자(5) 네.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참석자(4) 온라인 공연은 문광부에서도 자료를 발표했는데 20분이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20분 이상 집중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BTS를 얘기하고 다른 거를 얘기하는 것은 그거는 OTT 시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넷플릭스에 가 보면 영화나 드라마는 어떤 기본 마인드 관련된 것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획 하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일반 예술인들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100% 불가능한 겁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것 자체가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사실은 오히려 디지털에 관련된 예술인들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자면 콘텐츠 관련된 기획자 양성이라든지, 스토리에 관련된 그런 쪽으로 잘 풀어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우리가 여지껏 그렇게 살아 왔는데 디지털 쪽으로 우리가 뭔가 전환을 해야 된다?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평생을 이렇게 살아 왔는데. 그걸 누가 해야 되냐?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걸 접목을 시킨다면 문화재단에서 해 줘야 될 역할은 우리는 그냥 아티스트로만 역할을 하는 거죠. 영상, 조명, 편집, 무대 등등 모든 기획과 관련된 것은... 우리는 기본 소스만 제공을 하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전문가들이 달려 들어야 되요. 그걸 우리가 일반 예술인들에게 모여라! 한다고 해서 모이겠습니까? 절대 안 모이죠. 제가 얘기한 거랑 다들 비슷하게 생각할 겁니다.

사회자(M) 공감하세요?

참석자(5) 네.

사회자(M) 어떻게 보면 전통적인 연주 방식에 대해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보시기도 하나요?

참석자(5) 전통적인 공연, 아웃도어, 당연히 대면 공연이 재미도 있고, 당연히 옆에서 같이 신나게 춤도 추고 소리도 지르고 노래도 해야지 좋죠. 거실에 앉아서 TV 쳐다 보는 게 재미가 있나요? 그게 설령 나중에 비주얼 그런 VR이 되더라도... 인간 본성에는 사회적으로 모여야 되는 그런 본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사회자(M) 그래서 온라인보다 대면쪽을 믿고 계시는 거고?

참석자(5) 네.

사회자(M) 선생님 말씀은 예술가들은 그냥 콘텐츠를 제공할 테니까 테크니션, 기술자, 엔지니어들이 VR을 만들거나 하는 것들은 다 그들의 몫이고, 재단이 하는 역할은 연결을 해 주는 그런 거를 기대하시는 거죠?

참석자(4) 그런 생태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사회자(M) 네.

참석자(5) 그게 경제적인 지원이죠. 재단이나 그런 데서 해 줘야 되는 일이죠.

사회자(M) 네. 중요한 역할인 듯합니다. 유튜브를 개인적으로 준비를 하신 건가요?

참석자(3) 유튜브 시장이 좋을 것 같은 게 보이니까요. 그리고 해금 콘텐츠 자체가 많지는 않거든요. 올라온 거를 보고 별 거 없네! 나도 한 번 해 보자!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커버곡을 올리고 레슨도 해요. 해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사람들이 뭐가 불만이고 어떻게 좀 고쳐 봐라! 하는 이런 것에 대해 교육 영상, 그렇게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올리는데요. 실제 대면공연을 비대면으로 보는 것이 재미가 없는 것은 맞고요. 찝찝하게 3,4분 짜리 그렇게 올리기로는 딱 좋은 것 같아요.

사회자(M) 교육도?

참석자(3) 교육은 10분 이상은 올리는데요. 그런데 생각보다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 가서 배울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저는 제가 촬영하고 제가 편집을 다 하는데, 제가 가르치니까 어떤 게 중요하고 어디를 짚어서 찍어야 할지, 이 사람들이 뭐를 봐야 할지, 그런 거를 아니까요.

사회자(M) 그걸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경험으로?

참석자(3) 기획자들을 이렇게 붙여 주면 좋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제가 독학했거든요. 요즘 세상이 다 유튜브로 배우잖아요. 간단한 거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영상 찍는 기술이나 편집 기술이나 그런 거를 예술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 홍보거든요. 유튜브 라는 것 자체는 내 홍보를 하는 역할이라서 그래서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더 배우고 싶다고. 그래서 붙여 주는 것도 좋지만, 예술가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사회자(M) 실제로 구독자들하고 대면으로 만나기도 하나요? 그렇게 대면과 혹은 비대면으로 만나는 분들이 좀 차이가 있나요?

참석자(3) 구독자였는데 저한테 오는 사람이에요?

사회자(M) 학습효과를 더 바라시고.

참석자(3) 그런 건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배우다가 더 배우고 싶으면 오는 거죠.

그런데 다 올 수는 없죠. 지방에 있는 분도 있고, 해외에 있는 분도 있고. 그래도 만족스러워 하세요. 뒤편 했더니 소리가 바꼈네요. 이런 댓글을 막 달아 주시거든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참석자(2) 시각예술 분야는 주변에서 작가를 보면 특별히 비대면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거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못 오시는 사람들을 위해서 전시된 장면을 영상으로 찍어서 한다든지. 작가들은 전시공간에 설치를 하고 계속 기간 동안 두는 거니까요. 그런데 상황이 이래서 작가들이 뭔가 다른 거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제 생각에는 기획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사회자(M) 같은 의견인 것 같아요. 작가는 작가의 작업을 하고. 기획자 분들이 협업처럼 이루어져서.

참석자(2) 그렇죠.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를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기획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네. 이런 상황에서 어떤 지원이나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1) 올해 비대면이 있으리라고는 작년에 생각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연이 다 비대면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비대면을 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어쩔 수 없이 하는 거거든요. 작년에 지원받았던 사업이 올해 시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안 하면 돈을 돌려 줘야 되는 거죠. 지원을 받았던 공연예술인들은 그렇죠. 그것을 대면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비를 돌려 주지는 못 하고 비대면으로 전환을 한다 해서 다 비대면으로 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정산하는 거죠. 그래서 올해 어쩔 수 없이 했는데요. 저도 그래서 참... 아쉬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전에 활동하던 것들을 영상으로 남겨 두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노력을 더 하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유튜브로 공연하는 것을 계속 올리거든요. 색소폰 뿐만 아니라 한국무용이라든지 민요라든지 가수라든지 활동했던 것들을 보통 3분 단위로 해서 아니면 많으면 2,3곡 정도 해서.

사회자(M) 선생님만의 유튜브로?

참석자(1) 네. 유튜브죠. 우리가 활동했던 거를 올리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가 만들어진 거예요.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몇 년만 좀 빨리 했더라면 좀 더...

사회자(M) 하시는 과정에서 어려운 점이나 지원이 필요했던 점은 없으세요?

참석자(1) 그거를 제가 지금은 제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비용을 주고 사진촬영팀을 붙여서 거기에서 찍어주면 내 이름의 유튜브로 올리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했었어요. 내가 직접 공연을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조금 더 유튜버로서 내가 하고 있는 연주라던가 그런 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어요.

사회자(M)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1) 그렇죠.

사회자(M) 어떤 부분을 배우고 싶으세요?

참석자(1) 문화예술 기획자, 교육자, 미디어, 특히 미디어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 서... 저도 미디어 센터에서 영화촬영을 짧게 해서 편집하는 것을 한 번 했었는데 다 잊어버렸죠. 어쨌든 역량강화를 위해서 예술인들이나 주도를 하는 교육자, 기획자 이런 분들은...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매년 해 왔었어요. 예술문화기획 같은 것들을 지속적으로 몇 개월 정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많이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또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사회자(M) 산업 환경이 변하면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교육이 우선 먼저 필요하고, 두 번째는 엔지니어를 만날 수 있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는 통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혹시 또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 무엇이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우리가 융합 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잖아요. 이러한 융합도 예술 분야와 디지털 기술이 같이 융합되는 거고, 또 전혀 다른 분야와 융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이 시대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평소 아이디어나 바라시는 점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참석자(1) 제가 올해 전국생활문화축제를 순천에서 했거든요. 거기는 참가하는 사람은 참가하고 나머지는 각 문화재단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문화예술인들이 동영상 올렸어요. 제가 2015년도에 사회를 봤어요. 1,2,3회. 그런데 그 영상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든 생각이 뭐냐하면, 제주도 팀인데 다듬이? 빨래판? 그거를 하면서 해금을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나오면서 바로 탭댄스를 하는 그런 융합된 것이 나오면서 참 좋다!

사회자(M) 기획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참석자(1) 그러면서 그런 게 하나 만들어졌단 말이죠. 또 다른 여러 가지도 있었지만. 우리도 색소폰을 한다고 하면 색소폰으로 음악만 연주하는 게 끝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앞에서 춤을 춘다던가 한국무용을 한다던가 그럴 수도 있고. 제가 그에게 야! 이럴 바에야 우리가 직접 영상을 갖고 다니면서 골목 상권을 살리는, 그래서 연주도 보통 3분이잖아요. 트롯 같은 경우에는. 이거 연주하면서 가게도 소개시켜 주고, 아니면 공예 도자기 판매하고 그럴 때 거기에서 연주도 하면서 도자도 소개시켜 주고 작품도 설명해 주고.

사회자(M) 성남에서는 어떤 것이 가장 소개하기 좋은 콘텐츠인가요?

참석자(1)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맛집, 골목상권, 그런 것들이 어렵잖아요. 그런 데에 찾아 다니면서 간략하게 3,4분 많으면 20,30분 정도 해서 영상을 올려서 그 사람들도 좋고 우리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융복합을 잘 되려면 기획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참석자님은 자기 분야가 확실하게 있지만 어떤 기획을 하려면 여러 장르를 융복합을 한다고 하면 일할 수 있는 발판이 있어야 그게 가능한가요? 융복합 콘텐츠를 만들어 내는 데에 어떤 백그라운

드가 있어야 가능할까요?

참석자(5) 글썄요. 기획자에 대한 것은 크게 예체능은 기획쪽도 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체능 부분은 타고난 개인의... 흔히 축이 좋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상당 부분 아니면 그런 축을 갖고 있는 직원을 데리고 있는다던가,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정선생님이 말씀하셨던 색소폰을 갖고 상권을 올린다거나 이런 것도 하나의... 색소폰을 부는 사람 중에서 그런 걸 생각을 못 하는 사람이 있고, 그 부분까지 생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결국 그건 개인의 어떤 큰 차이 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건 어떤 1인 기획자로서 요즘 보면 온라인을 통한 홍보, 마케팅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한 교육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기획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은 일단 본인이 갖고 있거나 경험을 했거나 훈련을 했거나, 기관을 통한 훈련이 아니라 갖고 생활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쌓여진 경험치와 판단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회자(M) 선생님은 다양한 예술인들과 네트워크를 갖고 계시잖아요. 융복합 시대에 이렇게 다른 장르끼리 협업을 시킬 수 있게 한다면 어떤 게 기반이 되어야 될까요? 네트워크 외에 또 어떤 게 필요할까요?

참석자(4)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요. 크로스오버 하는 이런 콜라보 형식의 공연들은 기본적으로 소스가 당연히 좋아야 되겠죠. 그런데 그 소스가 좋은 사람들이 예를 들어 최근에 이날치 밴드는 거기에 앰비규어스 댄스하고 같이 했지만 조회수만 따지면 2억뷰 이상 나왔다고 해요. 콘텐츠와 관련된 게. 그런데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상업성을 갖고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적중시키기 위해서 문광부 담당자를 만난 거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첫 번째는 콘텐츠 소스를 갖고 있는 예술인들이 다양하게 있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기획적인 거죠. 기획적인 부분에 대한 자금이 충분히 어느 정도 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이거는 콜라보는 저도 여러 번 해 봤지만 계속 가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일시적인 이벤트 성으로 끝나는 것이 많은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확산이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어야지 룽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M) 지금 각자 일하시는 분야에서 신진 예술가들 활동이 활발한지? 어떤가요?

참석자(2) 성남에 국한해서요?

사회자(M) 성남에 국한하시면 좋고요.

참석자(2) 제가 지원은 받지 못 했지만, 다양하게 지원은 해 봤어요. 서울문화재단, 성남문화재단 다 지원해 봤었거든요. 서울문화재단에서 작년부터 특이한 제도를 만들었는데, 대부분 다 청년 예술 신진을 지원하는 걸로 35세 제한이 있고, 그리고 중견 그리고 원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에서 작년에 그걸 없앴거든요.

사회자(M) 왜 없었나요?

참석자(2) 뭔가 이름이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당신이 신진인지 아닌지는 당신이 정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는 데뷔 연도로부터 플러스 5년이면 신진으로 봐도 됩니다 라는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보통은 다 나이로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그렇게 해 봤어요.

사회자(M) 기준이 달라진 거네요?

참석자(2) 네. 특이하죠. 그래서 지원할 때 생년월일을 안 적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올해까지 그렇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그런 거죠. 뒤늦게 뭔가 배워서 하시는 분도 있을 거잖아요. 뭔가 어릴 때부터 어린 친구를 잘 썩을 발견해서 우리가 오디션 보는 것처럼 키워서 성장하고 그런 게 기존의 마인드였다면, 이거는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어느 단체에 가입하기도 좀 그렇다고 하셨잖아요. 신진은 아니신 것 같은데요.

참석자(3) 성남문화재단은 신진이 활동하기는 어렵죠. 내가 신진으로 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결국 내 음악으로 활동하겠다는 거거든요. 커버곡이나 기존 곡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음악을 하겠다, 펼쳐 보겠다는 건데, 그건 결국 내 돈 들여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뭔가 지원사업이 있어야지, 공연 하나 올리는 데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대관비며 뭐 돈이 엄청 들어가는데, 성남이 좀 그런 지원사업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예 창작비로, 너는 창작을 해! 그렇게... 서울문화재단은 그런 용도거든요. 지금 이런 게. 그리고 성남문화재단은 청년지원도 그렇게 크게 뭐 없는 것 같아요.

사회자(M) 그러면 지원책이 더 있어야 되나요?

참석자(3) 신진으로서 뭔가 내 이름을 내고 싶은데, 나는 돈이 없고 음악은 하고 싶고, 그런데 나이는 먹고,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이 이렇게 해 주는 게 좋은 거는 맞죠. 음악을 어려서부터 했는데 내가 나이만 먹고 언제 이렇게 하지? 그런데 나는 청년은 지났고.

사회자(M) 알겠습니다. 신진 예술가들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이디어가 있으신가요? 사실 신진 예술가들이 계속 등단을 해야 되잖아요.

참석자(4) 발굴은... 일단 지금 공모사업을 얘기하니까 먼저 공모사업을 얘기해 보면, 신진 예술가에게 지원하는 공모사업은 예술인복지재단에서 300만원 주는 게 있고, 경기문화재단에서도 300만원 주는 게 있어요. 평생 한 번입니다. 그런 공모사업을 이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저는 기본적으로 생태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어디를 가야 되냐? 어디에서 누구랑 아는 척을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에 대해서 생태계가 구축되는 게 필요하죠.

사회자(M) 한 번 신진으로 했는데, 그 다음으로 갈 방향에 대한 가이드가 안 보이는 거네요?

참석자(4) 그렇죠. 그런 거를... 예를 들어 제가 전공을 해서 대학을 졸업했어요. 예를 들어 피아노를 전공해서 졸업을 했다, 그런데 나는 성남에서 활동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서 누구한테 물어 봐야 되느냐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런 게 없다는 거죠.

사회자(M) 결국은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는데,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참석자(4) 제가 사실 제안하고 싶은 것은 네트워크보다, 제가 시에 제안을 했고 문화재단에서도 토스가 되었는데 아마 부장님이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예술인 지원에 관련된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고 주민참여 예산에 선정이 되어서 시에서 문화재단으로 토스를 했죠. 문화재단에서는 지금 실태조사를 끝내고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한다고는 저한테 얘기는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술인들이 어디 가서 얘기하냐는 것에 대한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술인 상담이든 지원센터든 그런 창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사회자(M) 오히려 네트워크 이전에 상담할 수 있는 지원센터나 그런 창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참석자(4) 그렇죠. 뭐 기본 정보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예술인들의 성격이 그렇게 외향적이지 않거든요. 어디 가서 뭐 아는 척 하고, 나 어디 단체에 들어갈래! 이러는 예술인들 많지 않아요.

사회자(M)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성남문화재단에서 예술인 네트워크 구축을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그리고 거기에 연결해서 플랫폼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과정인 것 같은데요. 이런 DB 구축을 위해서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참여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만약에 네트워크 베이스에 내가 참여하게 된다면 어떤 기대가 있는지?

참석자(2) 설명을 더 해 주세요.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에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참석자(4) 방금 얘기한 그 네트워크가 조금 더 이름만 모아 놓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사회자(M)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면 그게 연동이 되어서 플랫폼이 만들어 질 수 있어요. 플랫폼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참석자(4) 누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건가요?

사회자(M) 고민하고 있어서 여쭙 보는 거예요. 성남문화재단에서 고민중입니다.

참석자(2) 단순히 그냥 모으겠다는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사회자(M) 내가 성남문화재단에게 내 개인정보를 줬다면, 어떤 기대가 있으신지? 무엇을 해 줬으면 좋겠는지?

참석자(4) 개인정보를 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사회자(M) 요즘에 사람들이 개인정보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전화번호, 주소, 경력, 예술 장르, 이런 것들이죠.

참석자(2) 혹시 말씀하시는 게, 예술인복지재단에서 먼저 예술인 등록을 하게 하잖아요. 등록을 하게 되면 그 다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단계를 한다는 것인지?

사회자(M) 그러니까 등록을 했을 때 여기 성남문화재단에서 무엇을 해 주면 좋겠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지원사업을 얘기하셔도 되고요.

참석자(4) 설명이 모호하긴 한데요.

사회자(M) 예술인 명단을 일단 1차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죠. 아까도 얘기하셨잖아요. 재즈를 하려고 하는데, 도대체 누가 뭐를 하는지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더라! 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참석자(5) 그런 게 가장 기본적인 첫 발자국 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왜 우리들의 개인정보가 필요한지 설명을 해 주고,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아! 내가 저기에 명단에 들어갔을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구체적이지 않아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아니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 밝혀 주면 굳이 아무리 개인정보 갖고 이상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성남문화재단에서 그거를 하겠다고 하는데 안 줄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 같아요.

사회자(M) 제가 궁금한 것은 내가 등록을 했을 때 나한테 연주할 기회가 많아지면 등록할거야! 이런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참석자(3)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구축만 해 놓고... 결국에는 돈을 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원사업이 많고 뭐가 떠나 내가 선정이 되어서 누구랑 같이 할래! 이런 생각이 드는 건데, 이런 사업 자체가 이미 없다면 네트워크를 만들어봤자! 라고 생각해요.

사회자(M)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면 그들을 통해 지원사업도 활발하게 있어야 된다?

참석자(3) 네.

참석자(5) 제가 생각하기에 선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만들어진 다음에 뭐를 해 줄 게!가 아니라, 동시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입할 경우에는 이런 이런 베네핏이 이런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라는 게 같이 되어야지, 그거를 알고 해야지 되는 것이지. 벌써 많은 분들이... 여기도 지금 5명 중에 2명이면 40%인데, 아니 60%가 말씀 드리잖아요. 이름만 걸면 뭐 하나? 라고 부정적인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만큼 그런 게 없는 거죠.

사회자(M)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생산자와 소비자가 보여지는 예술인은 위한 플랫폼이 있나요?

참석자(4) 그거는 일단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문화포털이 그런 비슷한 개념인데요. 그리고 민간으로 되어져 있는 것은 몇 개 있기는 합니다.

사회자(M) 혹시 추천할 만한 플랫폼이 있나요? 뭐가 잘 되어 있는지 보고 싶어서요.

참석자(4)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 곳은 위아츠가 그래도 예술인들 중심으로 가장 크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모모365도 괜찮은 것 같고. 기본적으로 문화 포털은 다 있죠. 경기도 있고.

사회자(M) 성남에서도 그런 거를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벤치마킹을 하려고 해요. 그래

서 각자 장점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애네는 뭐를 잘 하고 있다! 그런 거를 얘기해 주세요.

참석자(4) 위아츠에서 큰 장점은 일단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모사업이 다 올라와요. 장르별로. 그래서 모인 것에 대한 목적이 사람들에게 있겠지만, 저희 전문예술 하는 사람들에게 모인 목적을 물어 보면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공모사업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 많고요. 그리고 정책 사업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고요. 그리고 콜라보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예술인 역량 강화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저희가 모든 것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정보만 제공해 줘도 어느 정도 해소되는 게 많은데, 지금 만약에 성남에 그런 게 만들어진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요. 매우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동의는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참석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였을 때 어떤 것을 할 거다! 그리고 누가 할 거냐?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것이 이루어지면 사실 이거는 민간 거버넌스에 관련된 중간에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단에서 그렇게 방향을 혹시라도 잡는다면 저는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사회자(M)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혹시 이런 플랫폼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모일 거다! 그런 얘기를 더 해 주세요.

.....

사회자(M) 요즘에 외국 같은 경우도 VR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소비자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추천할 만한 해외 사례도 같이 소개를 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해외 플랫폼도 좋고, 이런 데는 이런 거를 잘 하더라! 하고 소개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참석자(4) 제가 정확히 생각은 안 나는데, 최근에 네델란드에 있었던 건데 스튜디오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기본적으로 모든 전시회 관련된 것을 AR로 구현해서 스캔해서 올리고요.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그것과 관련된 작품을 동선을 시민들이 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가자!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주제를 정하고. 그래서 1,000개 정도 작품이 있다면, 시민들이 그 1,000개 안에서 자기가 전시관을 차리는 거예요. 그걸 올려놓고 시민들한테 몇 개를 하게 하고, 그래서 시민들이 그걸 해 놓으면 또 일반 관객들이 거기에 투표를 하게 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획자들이 참여를 하고,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온라인으로 해서 AR 전시관을 차려서, 그것도 굉장히 호응을 많이 얻었다고 알고 있고요. 지금 디지털 교육과 관련된 것은 사실은 디지털 격차에 대해서는 예술인들도... 예술인들은 성향상 자기 것만 하는 성향이 있어요. 3번 참석자님 같은 경우는 드문 케이스입니다. 이 분 같은 경우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한 교육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13년부터 테이트모던에

서 관객들을 대상으로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한 거예요. 그래서 시민들도 사실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 중장기적인 계획인데, 오래 걸리는 일이지는 하죠.

사회자(M) 알겠습니다. 정말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 저희가 정리를 잘 해 보겠습니다. 한 말씀씩 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참석자(4) 재단 직원분이세요?

사회자(M) 아닙니다. 리서치 회사 소속입니다. 제가 말씀 들으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요즘은 원체 협업을 좋아하니까,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판단은 안 하셨어요. 그게 긍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지? 부정적인 뉘앙스로 말씀하신 건지? 듣고 싶어요.

참석자(3) 추세인 것 같아요. 공공기관이나 한 때는 그냥 음악 장르만 했었는데, 요새는 꼭 융복합을 하라! 이런 것도 단서가 있기는 해요. 그런 공연을 해라! 그리고 정말 음악적으로만 할래! 그러면 응? 재미없는데~ 이런 경향도 좀 있고. 약간 추세인 것 같아요.

사회자(M) 조금 긍정적으로 평가하신 뉘앙스였나요? 아니면?

참석자(3) 긍정일 수도 부정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도 하고 싶은데, 너무 관객의 니즈를 따라 가라! 이거잖아요. 나만의 뭐라고 하고 싶은데, 그래도 관객을 생각해서 뭐를 더 해 봐! 뭐를 더 추가해 봐!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회자(M) 그런 협업적인 예술활동이 조금 그래도 괜찮게 이루어지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그게 시일 수도 있고 군일 수도 있고.

참석자(3) 제일 많은 곳은 서울일 테고, 원체 서울은 다양한 장르의 공연들이 엄청 많고, 글썄요... 저는 부천에서도 많이 같이 하는 팀들이 있어서 협업을 스트리트 댄서들과도 해 봤고, 그리고 최근에 교육적인 경험인데 도예가와도 했어요. 훈 이라는 우리나라 악기를 만들고 교육적으로 애들에게 불게 하기도 하고, 실제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어찌 보면 그런 게 좋은 콘텐츠이지는 하죠. 그런 협업들이.

참석자(4) 정서는 이분법적인 게 아니고 취향인 거예요.

사회자(M) 네. 선생님은 굉장히 다양한 기관이나 단체를 많이 겪어 보셨을 것 같은데요. 각 지역 별로 공적이 문화기관들마다 컬러가 다른가요? 아니면 일률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참석자(4) 매우 다르죠.

사회자(M) 그러면 그 다르게 된 게 왜 다른지?

참석자(4) 제가 기초문화재단만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에 기초문화재단이 우리나라에 1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재단이 설립된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아무튼 현재 시점만 보면 지금은 문화 민주화에서 문화 민주주의로 바뀌는 형태인데, 지금처럼 이렇게 플랫폼을 구축하고 이런 거를 한다, 이게 문화 민주주의의 시발점이거든요.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런데 이것을 하면

쉽게 얘기하면 귀찮습니다. 사람을 모아 놓으면 귀찮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재단이 얼마큼 끌어갈 만한 마음을 갖고 있냐에 따라 색깔이 매우 달라져요. 결론만 얘기하면 그래서 매우 색깔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에 따라서 모아지니까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국악쪽으로 강세를 보여요. 어떤 지역은 음악쪽으로 강세를 보여요. 그거를 재단에서 국악을 시키니까 다양한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런 스펙트럼이 그렇게 생긴 거죠.

사회자(M) 성남문화재단은 어떤 색깔을 갖게 되면 좋을까요? 뭐가 가장 어울린다고 생각하세요?

참석자(4) 성남은 사실은 지금 이번에 지방자치법 났잖아요. 그래서 특례시 얘기하는데, 백만 도시로 되어 있는 데는 몇 군데 안 됩니다. 지금 세 군데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될 수는 있죠. 어쨌든... 그런데 여기에서는 굉장히 다양한 색깔이 있는데요. 이 다양한 색깔을 다 모으는 게 그게 일단... 그 색깔이 어떻게 번질지는 저도 모르죠.

사회자(M)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참석자(4)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게 큰 강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술인들은 그런 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회자(M)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이유는, 서울문화재단에서 신진작가 얘기 아까 하다가 당신이 정하라! 라는 사업이 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유연성, 탄력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랄까? 그런 거를 참석자님께 질문을 드려서 거꾸로 대답을 얻으려고 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문화재단의 유연함, 수용성 그런 것들은 어디에서 기인했다고 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석자(4) 서울문화재단하고 저희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것은, 거기서 광역문화재단이고요. 여기는 기초문화재단이에요. 광역문화재단은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생긴 거고, 그게 설립 근거이고, 저희는 지역문화진흥법으로 생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지역문화가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색깔이 그게 스페셜티가 장점이라는 거죠. 그런데 서울문화재단은 각 25개 자치구에 있는 분들을 지원하는 곳이에요. 아예 다른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저희가 갖고 있는 색깔을 빨리 꼬집어 내는 것이 우리의 경쟁력이 되는 거죠.

사회자(M) 알겠습니다.

사회자(M) 오늘 전문가 그룹이라서 하실 말씀도 많고 지금 아쉬운 부분도 많으실 거예요. 앞으로 기회가 되면 자주 뵈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인사 하시면서 끝내겠습니다.

참석자(5) 이런 앙케이트 조사 다음에 그걸 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이런 모임이 그 전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성남문화재단에서 요청해서 이런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 전에 있었나요?

참석자(4) 없었습니다.

참석자(5) 그러면 이것 자체가 그들이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참석자(4) 저도 그렇게 봐요. 긍정적이에요.

참석자(5) 그래서 이 예술인들은 정말 관에 많은 지원이 필요해요. 워낙 자기의 끼를 갖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고, 비즈니스를 해 나가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기 때문에 관의 지원이 필요한 거고, 이게 좋은 첫 발자국 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석자(4) 일단 너무 감사하고요. 이 행사 끝나고 정리가 된 회의록이 있을 텐데, 그 회의록이 어떻게 정리가 되었는지 저희들에게 공개를 해 줬으면 좋겠고, 프로세스도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3) 이런 자리에 모여서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 생각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참석자(2) 아까 못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다양한 문화재단 사업을 참여하거나 경험한 것은 아닌데 쪽 지켜 봤을 때 시각예술 파트에서 다른 데서 하는 것보다 성남에서 하는 사업들이 수준이 높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전시나 기획하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또 하나, 융합에 대해서인데요. 융합은 기존의 장르는 그대로 융합은 융합대로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석자(1)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지만, 성남문화재단에서 전문가와 생활문화 예술인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했던 전문가들, 기획자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는 문화재단이나 체계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사회자(M) 네. 문화재단 측에서 고민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7 전문가 집단심층인터뷰 녹취록

- 일 시: 2020년 12월 17일(목) 15:00
- 참석자: 1. 참석자(1)_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교수
2. 참석자(2)_전 지역문화진흥원 부장
3. 참석자(3)_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

사회자(M)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잠시 소개를 드리자면, 홍익대 문화예술경영대학원의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지역문화진흥원 부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숙명여대 문화관광학부 교수님 참석해 주셨고요. 그리고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비욘드리서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진행방법 설명) 먼저 나눠 드렸던 내용은 오늘 전문가 분들에게 여쭙 보고 싶은 내용들입니다. 저희가 오늘 진행을 하기에 앞서 성남예술인 실태조사 진행과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성남예술인 실태조사가 과거에도 한 번 진행이 되었었는데, 10년 이상 시간이 경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2020년에 그 동안에 제반사항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취지에서 성남예술인들 450명 그리고 예술단체는 50개, 이런 성남예술 생태계 구성원들의 현실, 현황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해서 성남예술계의 전반적인 현재를 파악을 하고, 성남문화재단이 향후 어떻게 정책 혹은 지원의 방향성을 설정할 것인지 파악해 보자! 라는 것이 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방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남지역에서 생활예술인이 아닌 전문예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450명 조사결과를 과장님께 보내 드렸었고요. 그리고 이번 월요일과 화요일에 설문조사에 참석해 주셨던 예술가 분들을 크게 창작집단, 실연집단, 기획교육 집단 그렇게 나눠서 정성조사를 진행을 했는데, 오늘하고 시간적인 간격이 짧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을 정리해서 드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진행과정이 궁금하셔서 의견을 구하시면 저희가 메모했던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진행을 하는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젠다를 먼저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가 광역단체문화재단, 기초단체문화재단의 차이를 중심으로 해서 각각의 정체성 역할을 살펴 보는 것이 첫 번째 의제이고, 그걸 다시 세부적으로 이왕 우리가 알고 계셨던 역할들을 쭉 재검점 하는 차원이고,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세부적인 기능관점 그 다음에 정책이나 지원의 큰 방향성 측면에서,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과연 성과는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근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아무래도 기관이다 보니까 평가라고 하는 차원도 무시할 수가 없어서 이런 평가적인 차원에서 따져 보면 어떨까? 하는 것들을 첫 번째 의제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환경적인 측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술적인 변화, 인공지능, 가상현실 이런 것들하고 지금 당장도 겪고 있는 코로나 사태 같은 큰 변화가 과연 예술 생태계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영향을 줄 것인가를 예술을 향유하는 집단과 예술을 실제로 구현하는 집단하고 나눠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세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정체성 측면, 환경 측면 등을 감안해서 성남문화재단의 정책 방향성 등을 따지고 싶은데, 그 과정에서 성남이라고 하는 지역의 도시적인 특성을 한 번 재점검 하고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생활예술인, 신진예술인, 중견예술인, 물적 기반, 무형적인 프로그램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한 번 따져 보고, 그리고 정책이나 지원의 방향성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예술인하고의 대화 채널, 스킨십 증대, 이런 것들을 한 번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이런 것들을 구성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광역단체 문화재단하고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정체성과 역할, 이것을 왜 저희와 재단의 실무자 분들께서 첫 번째 의제로 정리를 했냐 하면 예술인 좌담회를 진행하는 데에 여러 가지 벤치마킹 즉 긍정적인 사례로서 꼭 말씀하시는 것들이 광역문화재단에서 실시하셨던 지원사업이나 지원정책을 거론하시고, 성남과 같은 단위의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사례는 언급을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해 보는데, 아직까지 기초단체 문화재단의 차별적인 위상이나 포지셔닝이나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쭙습니다. 이렇게 놓고 보면 문화재단의 역할, 그리고 그 중에서 광역, 기초 이렇게 굳이 한 번 나눠서 역할을 점검적으로 논의를 시작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워낙 기초는 지원액수가 작다 보니까.. 워낙 잘 아시겠지만... 그 액수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하고, 특히 근원적인 복지 부분의 이슈나 여러 가지 예술단체 쪽에서 광역이 아닌 중앙부처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을 다 얘기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재단이 갖고 있는 자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혼동이 되어서 말씀을 하시더라도 재단은 그걸 여과해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상의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데, 그 운신의 폭을 돈만 갖고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한계가 있어서, 아까 대표님이 스킨십 얘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 끝까지 성남 출신의 예술인들을 우리가 케어한다는 그런 느낌이 많이 부족했고, 다른 쪽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들이 시스템화 되어서 가다 보니까 그런 게 보였다, 조금씩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 같더라! 라는 말들을 어제 그저께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재단 입장에서는 너무나 크고 멋있는 정책을 해도 좋지만, 일단은 재단이 가능한 것을 해야 거짓말을 안 하고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들이 아무래도 그 분들에게 와 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이해해 주시고, 편안하게 말씀을 두서없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석자(1)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광역하고 기초하고 어떻게 역할분담을 할 것인가? 아직까지는 이론적으로나 아니면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나뉘어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

다 보니까 아까 부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예술인지원센터가 경기도를 포함해서 6개 정도 광역에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아! 오히려 이런 쪽은 기초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제 의견인데요. 요즘 특히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예술가가 생존하지 못 하면 예술도 없다! 라는 개념은 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기존에 지원이 프로젝트성 지원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사실은 프로젝트 지원이라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예술향유자를 위한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예술에 대한 지원을 늘려 왔습시다만 거기에 특별한 어떤 과실이 별로 없지 않은가? 싶어서요. 이제는 기존의 프로젝트성 지원에서 예술가 지원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고, 그 부분을 기초에서 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조금 해 보고 있어요. 마침 불러 주셔서 왔는데, 아까 좋은 말씀도 해 주셨는데, 사실은 성남에 계신 분들은 성남에서 나는 뭘 해 줄래? 그런 예술가 중심의 케어로 상당히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성남에서 이렇게 예술인실태조사를 하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의미있는 자원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이를 태면 예술인지원센터나 그런 것들을 성남에서 먼저 이런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사회자(M)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2) 일단 제 생각은, 광역이란 기초라는 틀 안에서 소위 프레임 안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실태조사 내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조사한 거를 보면 활동지역이 성남이 42.7% 서울이 28.4% 경기가 23.4%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도 성남의 예술가들을 만나보고 그러는데 만나서 이 분과 정체성 얘기를 해 보면 성남예술가가 경기도예술가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광역기초 단위로 예술가들의 어떤 활동지역으로 정체성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조사한 거를 합치면 76.1%입니다. 경기라고 광역으로 묶어 버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일단 구체적인 방안은 제가 좀 힘에 부치고, 현재 논의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현재 광역과 기초가 같이 연결이 되는데, 이 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게 전달체계 정비에 많이 언급이 되거든요. 전달체계 정비가 정부, 광역, 기초, 민간, 이렇게 계층적으로 유기 구조로 쪽 내려 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또 실무를 해 봐도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봐도 이게 전달체계가 그렇게 전달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 정부, 광역, 기초, 민간 이렇게 계층적으로 나눈다고 해도 정부가 직접 민간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부가 기초를 직접 지원하고, 또 정부가 광역을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요. 광역도 기초를 지원하기도 하고 민간을 지원하기도 하고. 이게 굉장히 전달체계가 관리운영 측면에서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되게 명

확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전달체계가 작동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도 현업을 하면서도 많이 느꼈던 게 전달체계 라기보다는 협력체제로 해서, 반드시 하향식, 상향식 그런 게 어떤 경우에는 상향식이 필요하고 어떤 경우에는 하향식이 필요하고,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이 된 이분법적인 구분은 어렵다, 저는 차라리 전달체계가 아니라 협업체계가 더 맞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많이 언급이 되고 있는데, 거버넌스 거버넌스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만약에 거버넌스 개념으로 요즘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하면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각각의 기본적으로는 저는 분업체계가 아니다, 목적을 딱 정해 놓고 각각의 역할구분을 하는 그런 체계는 이제는 좀 아닌 것 같고. 각각의 고유적 역할의 특성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공동의 이해관계로 발전하는 쉼어하는 협업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맞다. 광역과 기초의 관계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어요. 다시 말씀 드리자면, 방법론으로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네트워크, 그리고 거기에 더 구체적인 세부방법론으로는 거버넌스 측면에서 협력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일종의 다자간 협력구조죠. 그래서 이게 예산이나 그런 측면에서 살펴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또 말씀을 드리자면, 광역문화재단이 사실은 기초문화재단과 사이가 안 좋아요.

참석자(2) 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말씀 드린 전달체계 프레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보통 기초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원만 해라, 정부도 마찬가지로 지원만해라, 그런데 광역은 직접 사업을 하잖아요. 특히 경기권에서 보면 경기가 35개 자치구조. 31개인가요? 그리고 경기권에는 문화재단이 없는 곳이 있어요. 그러면 경기문화재단이 직접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곳이 있어요. 특히 경기북부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경기 남부와 서부는 문화재단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초단위와 광역단위의 역할범위가 있는데, 문화재단이 없는 곳은 경기문화재단이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기초에서 요구하는 것은 광역은 직접 사업을 하지 말고 지원만 해라, 그런데 그 얘기도 맞지 않는 거죠. 광역도 직접 사업을 할 필요가 있기도 한 거죠. 그런 것들이 되게 막 혼란한 상황이기는 한데, 소위 말하는 정비가 필요한데, 그 프레임을 그렇게 잡을 수 있고, 그래서 저는 광역이... 저도 여전히 광역에게 지원만 하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진부한 주장일 수 있겠습니다만 조정자 역할, 네트워크를 잘 관리하고 네트워크가 잘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 주는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특히 경기권에서는 조정자 역할이 광역의 역할인 것 같고. 기초문화재단은 사실 실무를 뛰어야 되잖아요. 현장에서. 굉장히 전사적으로 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과 예술가들의 접점이 기초인데, 여기에서는 조정자 역할보다는 실질적인 지원역할이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자(M)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하향식으로 혹시 기초에서 올려서 전달체계가 바뀌지는 않더라도 그걸 경기나 광역에서 받아서 정책상으로 자율권을 주거나 예산을 주거나 그렇게

했던 사례가 있었나요?

참석자(2) 바램이니까... 아까 말씀 드린 거버넌스 그런 얘기가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모범사례 라고 할 수 있는 사례는 많이 못 본 거 같아요. 여전히 위에서 내려오는 형식이 많고.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역할이라기보다는... 워낙 자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렇게...

사회자(M) 광역 쪽은 돈이 너무 많아 힘들다고 하던데요.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라고요.

참석자(2)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언제나 예산은 부족하죠. 다만 그런 체계를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한국문화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를 들어 보면, 그게 현장은 소위 말하는 포괄예산제 같은 자기네가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직접 기획하고 쓸 수 있게, 분야를 나누지 않고 꼬리표 없는 사업을 원해요. 그런데 기재부는 그런 거 허가해 주지 않잖아요. 예산 규정상. 그런데 사실 그런 게 부딪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문화도시사업에 다 올린 하는 거죠. 문화도시는 자기네가 기획한 사업을 할 수 있게 예산을 받으니까...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일단 현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자(M) 네. 감사합니다.

참석자(3)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되는 내용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광역, 기초 그런 위계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광역이 이거 하고 기초가 이거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광역도 자치단체이고 기초도 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하는 것이지, 어떤 광역은 이거를 맡고 기초는 이거를 맡고 그런 게 그림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다, 앞으로 정책적으로 얼마나 힘을 실어 주고 분담해 주냐에 따라 다르기는 하겠지만 쉽게 되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 차원은 사실은 영역별 정책이 가능하죠. 다시 말하면 중앙정부는 문화정책, 교육정책, 국방정책 등 다 있잖아요. 하지만 지자체에 내려오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저는 그걸 통합행정 이라고 하는데요. 다 하나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자치단체의 성격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기초는 자치단체라고 할 때 해야 되는 것들은... 사실은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지역주민들을 직접 대면한다는 거거든요. 광역자치단체도 자기네가 하는 부분이 없잖아요. 다 기초가 있는 것을 자기네가 아우르는 것이지. 중앙정부도 없죠. 그러니까 자기네는 그냥 분야별 정책을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초자치단체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로 문화도 제공하고 교육도 제공하고 복지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분야별 정책을 별도로 세우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초자치단체의 가장 큰 특징은 주민과의 관련성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이렇게 봐야 될 거 같고요. 사실 그러면 광역이나 기초나 큰 차이가 없는데, 광역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의 역할 구분이라는 게 없는데, 그러면 어떤 것을 광역이 하고 어떤 것을 기초가 하느냐? 할 때 사실은 중요한 것들이 기초자치단체 문화재단은 주민을 중심으로 둘 수 밖에 없어요. 그런데 광역

자치단체는 주민이 없잖아요. 경기도 전체 다가 주민이니까. 그러니까 자기네는 영역 별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역 별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구상해 볼 수 있고 주제 별로 나눌 수도 있지만, 기초는 주민 중심으로 갈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에 예산을 배분할 때 사실은 광역이 더 크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죠. 주민은 딱히 자기네가 한정된 건데, 광역은 많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기획한 영역쪽으로 예산을 분배해서 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기초는 주민이 있기 때문에 주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한정된 예산을 분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은 중앙이나 광역 같은 경우에 예술인정책들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예술정책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중앙도 그렇고 광역도 예술인을 지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죠. 그런데 기초는 예산은 굉장히 작은데, 여기에서 예술인 지원정책으로 예산을 따 오셔도, 또 따 오자고 할 수조차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수준 차이, 기초냐 지방이냐 광역이냐 중앙이냐, 이런 차이들을 잘 감안해서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 거기에서 재단의 역할이나 방향성이 설정될 수밖에 없다, 이게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저는 결국은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렇다면 기초 자치단체에서 예술인 정책은 없을 거냐? 그렇지는 않죠. 그런데 이 예술인에 대한 지원정책은 사실은 예술인복지재단이나 예술인지원센터나 그렇게 예술인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예산 영역을 갖고 정책을 펴는 데들이 주로 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기초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술인들과 지역 주민들과의 접점을 만들어 가는 작업들을 해야 되죠. 사실은 보면 저도 지난 번에 안양 예술인 실태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지역예술인들은 사실 애매해요. 예술인이 다 지역에 거주하고 있지만... 그런데 중앙무대를 중심으로 향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 지역 차원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편의상 지역예술인 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예술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신들의 어떤 작업이... 물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더 주민들을 만나고 싶어 하는 욕구도 굉장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관객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일 수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자 하는... 그리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술인 정책은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 어쨌든 지역문화재단은 지역주민도 하는 거니까, 지역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무엇이나? 그런 부분에 한정된 예산을 갖고 지역주민들 정책을 펴면서도 지역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정책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정책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석자(1)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아까 예술인 지원으로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이 그런 거거든요. 사실은 예술인 지원이라고 하면 사회보장부터 해서 그거를 얘기하는데, 그거는 이미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잖아요.

사회자(M) 네. 맞습니다.

참석자(1)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술인들을 결국 지원한다고 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중앙정부나 광역에서는 프로젝트 지원을 했었다고 하면, 이제는 예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그런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주민과의 접점은 단순히 네트워킹이나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업화도 되는 것이고, 그럼으로써 지역의 예술가들이 그 지역에 뿌리 내리고 생활하고, 자생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참석자(3)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술인들을 위해서 지자체가 하는 역할들 중에 예술인이 거주하기 좋은 지역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사회자(M) 네네.

참석자(3)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굉장히... 그런 것은 중앙정부 보다는 지자체에서 계획해서 예술인들이 조금 더 그 지역에 잘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게 지자체에서 해야죠.

참석자(2) 교수님께 여쭙 봐야 될 것 같은데, 자생성, 자립성 얘기를 하면... 참석자 교수님이 예전에 예술인지원센터장을 하실 때 예술시장제도에 많이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자립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큰 측면에서 보면 예술시장,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예술시장이 형성되기 어려운데... 우리도 그렇지만 공공지원에 의존해 갈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 예술시장에 그런 지역적 형성,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 5년 동안 관찰을 다 하셨으니까, 제가 궁금합니다.

참석자(1)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할 때마다 혼납니다. 맞는 말씀이죠.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이 되면 될수록 사실은 예술가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 물론 지원해 드리되 다만 그게 독이 안 되게끔, 사실 그거는 예술가 분들도 많이 고백을 하는 부분이고, 또 우리가 그토록 벤치마킹 했던 프랑스나 영국 사례를 보면 이제 점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공식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투자의 개념으로 바꾸겠다고. 꽤 됐습니다. 물론 그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의미는 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시장을 만들어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아까 제가 참석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데에 제가 덧붙인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요즘에 협동조합에 대한 논의도 많이 되고 있잖아요.

사회자(M) 임의단체들?

참석자(1)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거기에서 자꾸 어떤 미술품이나 작품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쉽게 얘기하면 공방놀이 같은 데에서 작품을 팔 수 있도록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 형태로,

기존에는 공방에 그쳤지만 이제 조금 더 발전해서 협동조합 형태가 된다던가, 그게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그게 요즘 문화도시 얘기 많이 하시는데, 결국 문화도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또 가장 비판 받고 있는 게 특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전국을 뭐 어떤 문화도시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획일화 시키려고 하느냐? 라는 비판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역에서 그렇게 하나 하나 만들어 가다 보면 그런 거를 좀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자면, 경기도에서 원래 제가 알기로는...

사회자(M) 경기문화재단에서요?

참석자(1) 네. 경기문화재단에서 원래 자금이 나온 게 그게 예술인복지재단처럼 복지에 써라! 라고 돈이 나왔는데, 그거를 자립지원금 이라는 것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형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게 기존의 프로젝트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이 됐든 간에 사업을 해 보세요. 사업모델을 갖고 와 보세요. 그래서 그 사업모델이 합당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겠소, 약간 경계선 상에 있기는 한데.

참석자(1) 네. 그런 거를 지역에서 하면 어떨까? 생각인 거죠.

사회자(M) 진행상 말씀하셨던 지역 예술시장 가능성은 이따가 세 번째 꼭지로 붙여서 성남으로 다시 논의를 하시고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을 제가 이해를 하자면 참석자 교수님께서서는 프로그램 하고 예술가, 이렇게 정리를 하신 것 같고, 부장님께서서는 그 두 개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협력체계, 그리고 참석자 교수님께서서는 분야, 그리고 사람, 이렇게 기초 쪽은 분야나 장르나 프로그램 그런 것보다는 사람, 예술가, 그 다음에 소통, 체계, 이런 쪽으로 키워드를 잡아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개념적인 것에서 조금 관심을 돌려서 구체적으로 기능이라고 하는 표현을 빌어서 좀 더 세밀하게 쪽 말씀해 주셨던 역할, 방향, 그런 개념들을... 그러면 기초문화재단이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조금 더 말씀해 주셨던 그런 역할들을 구체화 할 수 있겠는지,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해 주세요.

사회자(M) 사례도 괜찮고, 현재의 조직체계가 뻗어나니까, 지원이면 지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벗어나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창업 부분도 될 수 있고, 확장되어야 될 방향성에 대한 얘기를 편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제가 첨언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FGI를 하다 보니까 예술인들만 FGI를 한 것은 사실 처음이다시피 하는데요. 예상 외로 생활문화로 유명한 성남이다 보니까 예술인분들이 박탈감이 있더라고요. 전문예술인들이 홀대를 당한다, 또는 이런 자리가 처음이었다, 자기들도 하고는 싶지만 예술인 자체에 대한 고려가 상대적으로 생활예술 쪽 부분하고 밍글이 되다 보니까 자신들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여를 해야 되고, 생태계에서 어떻게 자기 자리를 맞아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들을 주로 많이 토로하시더라고요. 이게

성남의 굉장히 큰 자부심인데, 전문예술인들은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것을 감안하시고, 성남의 여러 특성을 고려해서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참석자(1) 제가 사실 성남문화재단에서 저를 부르시길래 저랑 결이 안 맞는데 왜 부르셨을까? 했는데요. 생활문화로 상당히 각광을 받던 곳이고, 지금도 아주 잘 하고 계시잖아요. 모범사례로.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보면 아까 참석자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생활문화를 하되, 그거를 한 가지 좀 아쉽다면, 그게 아까 거버넌스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그렇게 문화재단에서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주는 게 중요하고 그런 측면에서 그 중심을 예술가들에게 할애하는... 그렇게 한다면 일단 첫 번째로는 제가 아까도 말씀 드린 게 예술인 중심의 지원이거든요.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뭐야? 일단 지원해 줄게! 일단 해 보세요! 그리고 나서 평가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타이틀을 우리가 딱 하고, 거기에 지원해 보세요!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이 와서 되지도 않게 심사를 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이 많으시고. 또 생활문화를 강조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하신 그런 예술가들의 박탈감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술가 분들에게 그런 역할을 주면 생활문화도 같이 이어가면서 예술가 분들에게 박탈감도 없앨 수 있고, 또 나아가서 그들에게 어떤 사업화의 기회도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요?

참석자(2) 그 얘기부터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성남문화재단 중장기발전계획 3단계 7개년 계획이 15년짜리 계획이거든요. 굉장히 선례가 없는 그런 사례인데요. 굉장히 독특한 사례인데... 거기에서 보면 어떻게 구조화를 시켰냐 하면 지자체, 중간지원조직인 문화재단,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어떻게 했냐 하면 제도나 재원 확보는 성남시가 하고, 일상의 이런 문화교육, 창작,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들과 접점에 있는 문화활동에 대한 것들은 문화의 집, 평생교육시설 같은 소위 말하는 기초문화기반시설에서 이루어지고, 문화재단은 말 그대로 중간지원조직 이라고 한다고 하면 제도나 재원들이 현장에 갈 수 있게 해 주는 역할,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각각 분야 별로 되어 있는 것들을 묶어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에서 수요도 만들어 내고, 또는 필요한 사람과...

사회자(M) 플랫폼 역할인거죠.

참석자(2) 네네. 그런 거죠. 그런 구조 속에서 보면 이견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얘기 나누는 전반적인 문화정책이 아니라 예술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개인적으로는 저는 요즘은 통합지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저는 이원화 시키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예술영역에 대한 지원, 두 번째는 제가 드리는 것은 논쟁이 될 수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예술창작지원을 가되 지금처럼 A to Z 기획, 실연, 평가까지 다 이런 게 아니고, 한 축은 예술가들의 개인 창작 있지 않습니까? 그 때는 디커플링 이라는 개념도 갖고 오는데, 홍보

만 필요하면 소액다건 하자는 거예요. 개인이나 개인단체에 대한 지원은. 예를 들어 어떤 한 미술가가 자기 창작을 하고 싶다고 하면 지원사업을 하는데, 거기에서 다 기획과 대관과 홍보까지 다 하는 게 아니라, 대관만 지원을 하던가, 홍보만 지원을 한다던가.

사회자(M) 분야별로 뽑아서 할 수 있게?

참석자(2) 그렇죠. 본인이 하게 하는 거죠. 아니면 저도 한 번 했었는데, 분야를 크게 나눠 두고 묶음 형으로 해서 블록식으로.

사회자(M) 조립하게?

참석자(2) 네. 선택하게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개인 창작에 대한 예술가들의 지원을 그렇게 하고. 또 하나는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예술이라든지 예술의 전환점에서 필요한, 두 번째 얘기가 기술과 예술의 접목이라든지 아니면 코로나 시대 다음의 새로운 사회변화에 따른 예술의 새로운 역할이 주어졌을 때부터 기획사업으로 가자는 거죠. 이건 A to Z로 가야 되지 않느냐?

사회자(M) 중점사업에 해당하는?

참석자(2) 네네. 그래서 개인이 혼자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공공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이원화를 시켜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존에 해 왔던 예술창작지원은 개인의 역량이나 경험을 주된 목적으로 가고, 기획형 사업은 일단 성남시의 공유재 라고 봐야 될까요?

사회자(M) 공공적 특성이네요.

참석자(2) 네. 공공 프로젝트라고 해서 단순히 벽화 그리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예술의 새로운 형식이라던가 양식이라던가 가치라던가 그런 것들에 대한 탐구, 모색을 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건 개인이 하기 어려우니까. 이게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석자(3)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할 때 지금도 성남시에서 예술인 지원을 하죠?

사회자(M) 네. 일정 정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참석자(3) 공모해서 지원해서 하시죠? 그 동안에 예술인지원정책은 사실 보면 창작지원금, 활동지원금,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술인을 지원하는 것을 다양화 하면 어떨까? 결국은 예술인 지원은 지원비를 더 많이 달라던가 그런 것들이니까.

사회자(M) 네. 지원공간도 있고요.

참석자(3) 그건 기존에 있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 주는 쪽으로 가야죠. 금액을 더 하는 것도 쉽지는 않고. 그런데 아까 말씀 드린 지역 예술인들이 사실은 지역에서 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꼭 지원금 지급 그 방식은 아닐 수도 있겠죠. 지역주민들과 만나게 하는 방식일 수도 있겠고. 또 하나는 제가 볼 때는 예술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창작자는 창작을 하지만 우리가 예술계 라는 개념을 도입하면 사실은 그게 사회

적으로 생산되고 유통, 소비된다는 말을 하잖아요.

사회자(M) 밸류체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3) 밸류체인이라기 보다는... 다이아몬드 모델을 하면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예술 창작 그 자체를 돕는 것도 방법일 수 있지만, 예술이 다양한 방식으로 이 사회에서 하나의 생태계 속에서 나름대로 생산된 것들이 유통되고 소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것을 여기에서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사회자(M) 네.

참석자(3) 그러니까 그것을 단순히 예술작품을 판매하는 문제가 아니라, 예술작품은 창작되고, 또 매개되어서 향유될 수도 있는 거고.

사회자(M) 써클레이션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참석자(3) 네. 그런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방식들이 도입될 수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하나의 그것들을 통해서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것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지금 지원하는 형태와는 다르게, 다양화 할 수 있고 그 다양화 하는 방식은 예술계를 강화시켜 주는 것이고, 그래서 예술인들이 그 안에서 자기의 창작 작품이 유통, 소비, 향유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점들을 찾아서 해 주면 좋겠다, 사실은 성남시가 백만인가요?

사회자(M) 거의 육박합니다. 조금 모자랍니다.

참석자(3) 94만인가? 거의 백만인데요. 특례시 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

사회자(M) 네. 시에서 욕심을 좀 냈었죠.

참석자(3) 네. 특례시 얘기가 나오고 하는 데잖아요. 그리고 기초지자체 중에서 예산도 제일 상위에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다른 기초지자체와 다른 위치에 있어요.

사회자(M) 네.

참석자(3) 그리고 자타공인 하는 것이 생활문화 활동을 갖고 사랑방 그런 거를 갖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모델이 되기도 했는데, 사실은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의 예술지원 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만든다고 해서 다른 데서 그걸 따라 가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여기만의 특별한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자(M) 네.

참석자(3) 그러면 생태계를 지역 차원에서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들에 대한 다양한 모델, 그 속에서 예술인지원정책 이라고 하는 것을 모색해 주는 것, 그게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하나의 모델 사례를 만들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사회자(M) 지금 말씀하셨던 예술계라고 하는 하나의 그 계가 작동하려면 수요라는 것도 중요한데요. 성남이 기초단위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자생적인 계가 성립될 만한 수

요도 충분히 있는 건가요?

참석자(3) 그 예술계라는 개념은 생산해서 판매해서 소비가 되는 그거를 예술계라고 보셔서 그러는데, 그런 산업적 관점이 아니어도 예술계라는 개념을 적용할 수 있겠죠. 비산업적인 관점에서 예를 들면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 지려고 하면 그 만들어지는 것이 예술가 개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이 만들었지만 널리 퍼져야 되고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자면 그런 예술계를 여기에서 어떻게 형성해 줄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 드렸던 어떻게 모델을 만들어 줄 것이냐?와 관련된 것이다. 이게 시장이 형성 가능하냐? 이런 접근으로 갈 수도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예술가들에게 어떻게 연결을 시켜줄 것이냐? 경영 이런 것들을 어떻게 연결을 시켜 줄 것이냐?

사회자(M) 경기도가 그런 식으로 요즘 많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참석자(3)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서 그러면 우리는 기초 차원에서 어떻게 세틀다운 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하는 모델을 한 번 만들어 보겠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고, 뭐 또 다른 방식도 가능할 수 있겠죠.

사회자(M) 그게 성남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지? 아니면 그게 일반화 할 수 있는 기초단위 자체가...

참석자(3) 일반화는 시키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회자(M) 기초단위 자체가 그런 자생적인 계를 이루기는 어려운데, 성남은 가능할 수 있다는 말씀이 시죠?

참석자(3) 네. 성남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재정적인 측면이나 인구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서울과 인접한 것이나 여러 가지로.

참석자(2) 저도 일단 참석자 교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대표님 맥락으로 보면 시장의 잠재적 가능성은 있다, 말씀하신 예산 구조, 예산 규모, 인구, 교육 수준, 그런 것들을 보면 잠재적 시장은 있는데, 이게 실험이 사실은 잘 되지 않았다고 봐요. 그걸 어떻게 봐야 되냐 하면 성남이 70년대에 만들어지고 80년대에 분당 만들어지고 판교 들어오고 벌써 30년 동안 그런 잠재적인 수요가 있는 사람들이 유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게 항상 문제였었죠. 그런데 이 경우가 다른 지역도 해당이 되느냐? 이걸 성남만의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고요.

사회자(M) 독특하게 성남만 시장 형성이 안 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참석자(2) 시장이 형성이 안 된 것은 보편적인 현상인 거고, 잠재적 시장으로 보면 성남이 잠재성이 높은 곳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잘 안 되죠.

참석자(3) 그런데 지역 예술인들의 예술시장이 형성된 곳이 있느냐?

사회자(M) 많지는 않죠.

사회자(M) 기초 단체에 그런 데가 있어요?

참석자(3) 없죠.

참석자(2) 시장 개념으로는 홍대 뭐 이런 데는 있지만 그건 꼭 지역으로 보기는 어렵고요.

참석자(3)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사회자(M) 저는 꼭 산업적인 측면을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비산업적 측면에 있어서 근원적인 수요, 꼭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요.

참석자(2) 그러니까요. 그런 게 뭐가 가능할 것인지?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 보면 아트센터에서 여기 예술인 아트마켓 같은 것도 했잖아요. 작품 20만원짜리 팔기도 하고 30만원짜리 팔기도 하고.

참석자(2) 많이 팔리지는 않았어요.

참석자(3) 안 팔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안에 성남문화재단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아트센터가 있으니까 이걸 갖고 했는데, 아마 그렇게 이게 수익구조의 예술 생태계로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대신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지역 예술인 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기가 예술작품을 만들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차원에서만 있어요.

사회자(M) 네. 공유를 못 하고 있어요.

참석자(3) 전혀 공유가 안 되고 있고.

사회자(M) 맞습니다.

참석자(3) 나눔도... 사실은 여기도 보면 미술관에서 지역 전시회를 해도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 같지는 않던데.

사회자(M) 조금 그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워낙 많이 공유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에요.

참석자(3) 그러니까 그런 생태계를 여기에서 구축해 줄 수 있느냐? 그런 거죠. 제가 보는 예술계는. 아마 거기에서 소비나 향유를 바꾸기는 해야 되는데... 생산, 유통, 소비 라고 하면 창작, 매개, 향유 이 예술계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을까?를 전환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꼭 자기 혼자만 갖고 있고, 자기 혼자만 작품활동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사회자(M) 예를 들면 예술가 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시냐 하면, 융복합이 대세니까 기술을 써서가 아니라 성남에 있는 타 장르 분들과 교류를 하고 싶고 융복합을 하고 싶은데 어디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서 나는 그걸 못 했다, 그것만 만들어줘도 참 재미있을 텐데... 그런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도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참석자(3) 거기에서 바로 여러 가지 사업 아이디어가 나올 수도 있고, 자기가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아이디어도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정착해야죠.

사회자(M) 그런 비유형적인 목표, 지표, 그런 것들이 성과로 측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현재의 성과측정 지표로는 사실은 이게 아니지만, 그걸 저희가 주장하거나 뭔가 이 부분을 정책적으로 밀거나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을 하셔서 반영도 시키고 우리가 이렇다! 라고 주장도 하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으로 느껴지는데요. 혹시 제가 잘 못 이해했으면 말씀을 더 해 주세요.

참석자(3) 맞습니다. 저는 충분히... 예를 들면 사랑방문화클럽이라는 생활문화 그것도 사실은... 지금 전국에서 보면 어떻게 성공하는 모델 사례들이 있느냐? 이것들이 사실은 성과지표로 점수가 높으냐? 낮으냐? 보다는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활문화 활동이 상당히 알려졌던 것도 모델 사례로 알려지면서 많이 활성화가 되었다, 그게 뭐 성과지표로 해서 만족도가 높았다, 이런 걸로 알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참석자(2) 대표님 말씀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재단 안에 직원평가 아니면 경영평가 그 안에 아니면 또 대표님이나 조직적으로 핵심가치를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성남문화재단의 핵심가치가 협력, 교류, 소통 이라고 하면 직원들이나 구성원들이 얼마만큼 지역 시민과 예술가들과 협력, 교류하려고 했느냐? 아니면 상호간 소통이나 협력을 잘 시켰느냐? 이게 핵심가치나 성과지표로 들어가야 되겠죠. 직원들의 평가를 그런 측면으로 해서 독려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경영평거나 그런 데에 넣어서 혁신성과지표로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사실은 가치만 제시했을 때 동의는 하지만 실제로 구현이 안 되니 제도적인 측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기제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인 거죠. 예를 들면 문화재단 직원들의 연말이나 연초에 하고 있는 직원들 포상이나 시장님 상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얼마만큼 예술가들의 교류, 협력에 노력을 했느냐? 그랬을 때 상을 시상할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감사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들을 해 주셨고, 시간도 제법 흘러서 두 번째 환경에 대한 부분들,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아시아실리콘밸리 프로젝트 라고 들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지금 현재 저희 시장님께서 민선7기 오면서 핵심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거는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판교나 기타 ICT 기반의, 그게 사람냄새가 없는 것들을 지향하시는 것은 아니고, 인간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문화적인 것들이 모든 사업 속에 넣을 수 있게 하라고 하는 사업을 론칭을 해서 지금 단위사업만 해도 50개 이상 론칭되어서 시에서 굴러가고 있습니다. 이게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시장님의 가치는 그래서 저희 재단 쪽에 제가 추진단에 들어가서 지원적인 위치에서 간사 노릇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문화쪽 교수님이 네 분 계시고, 나머지는 대부분 건설, 도시쪽 재생이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와 계셔서 거기에서 성남은 넓고, 여기가 워낙 신도시라 부니까 노후화 되는 것들이나 저

쪽에 산업화 되어서 낙후된 도심같은 경우는 저녁이면 어두워서 거기에 새로운 문화시설을 만들려고 하는데 못 한 곳도 있고, 분당이나 판교도 있고, 이렇게 각각 다른 세 구역에 각자 다른 식의 ICT 기반의 사업들이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입혀서 뭔가 예술 쪽과 하다 보면 분명히... 왜냐하면 ICT가 문화적인 아무런 색깔 없이 간다면 얼마나 무미건조하고 재미없는 것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입히고 싶어 하는데, 이걸 지역 예술인들과 매칭하는 방법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심각하고, 가장 대표적인 것은 판교 콘텐츠 거리 라고 해서 네이버부터 있는 판교 쪽의 있는 모든 게임사에 판교 콘텐츠 거리가 내년엔 조성이 됩니다. 그런데 거기가 이름이 콘텐츠 거리인데, 사실 핵심 테마는 게임이고요. 게임 쪽을 여기에 지원을 붙여 주거나 그런 것들도 현재 아주 불가능한 그림은 아니고, 저 쪽에 노후화된 하이테크밸리 쪽도 문화복합타운처럼 건물이 들어설 건데, 거기도 공장에 근무하는 분들이나 지역 예술인들이나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너무나 문화 시설에 대한 니즈가 많아서 거기도 예술인들이 조인트가 되어서 레지던스까지는 아니더라도 문화적으로 여건 조성이 많이 된 상황이라서, 예를 들어 게임으로 유명한 도시 라고 하면 게임아트 라든지 게임쪽으로 뭔가 크리에이티브를 붙여서 융합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략하게 배경만 말씀드릴 겁니다.

참석자(2)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판교를 뚫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사회자(M) 쉽지 않은데.

참석자(2) 그런데 어떤 관계냐 하면... 제 표현입니다. 판교 테크노밸리는 성남 꺼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성남 자산이 아니에요.

사회자(M) 그렇군요.

참석자(2) 남녀가 연애를 하려면 눈이 맞아야 되는데, 지금 일방적 구애예요. 성남시, 재단의 일방적 구애. 기업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회자(M) 네.

참석자(2) 일방적 구애라서... 기업의 이해관계와 맞아야 되는데, 그 동안 노력들을 많이 했습니다만, 기업이 계산을 하겠죠. 그런데 자기네한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별로 크게 관심이 없어요. 주목하지 않아요.

사회자(M) 지금 제가 말씀 드린 것은 시에서.

참석자(2) 시도 마찬가지로이고, 재단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판교 테크노밸리를 뚫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게 되지 않았어요. 제 결론은 그거였어요. 이거는 기업 이해관계와 별로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은 관심이 없어요.

사회자(M) 네. 기업은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2) 성남에서 축제를 하려고 보면 예를 들어 테크노 관련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성남문화재단이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오스트리아 린츠 페스티벌도 갔다 오고, 재단이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기업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게 없어요. 기업의 이해관계와 부합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죠. 이건 제도적인 문제 이기는 한데, 이거는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애경기업이 미용제품을 많이 하잖아요. 샴푸용기를 예술가들이 한 번 들어가서 디자인 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좀 좀 히트를 쳤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작가가 아니었고 호주작가 였는데, 만약에 그런 것처럼 성남에 제조만 하고 있는 데서 성남 작가가 포장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식으로 기업과 이해관계로 엮이지 않으면 기업은 별로... 되게 어렵습니다.

사회자(M) 네. 기업 얘기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고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성남시에서 이미 돈을 들여서 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에 저희 재단이 들어가서 이미 일을 하게 구조가 만들어진 것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기업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반응이 없기는 하더라고요.

참석자(3) 제가 잘 모르겠어서 여쭙 보는 것은, 지금 2번 보면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에 대해 말씀 나누는 거잖아요?

사회자(M) 맞습니다.

참석자(3) 성남에서는 판교 밸리도 있고, 아시아실리콘밸리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ICT 기업들이 들어와 있는 아까 게임거리 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데를 어떻게 문화예술과 연결시켜서 할 수 있느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건가요?

사회자(M) 그건 조금 있다가... 이번 주제는 그거 이전에 한정적인 측면, 그러니까 저희가 좌담회를 진행해 봤더니 최근에 첨단기술 4차산업혁명 등 뭐 이런 식으로 일컬어지는 급격한 기술변화가 예술행위의 변화를 어떻게 가져올까? 하는 것을 여쭙는 건데요. 그 배경은 예술가 분들의 장르에 따라서, 창작 위주의 분들은 이런 기술변화에 대해서 둔감하신 것 같고, 현장에 기반에서 예술활동을 하시는 실연 장르의 분들은 굉장히 민감하시고,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술가 라고 하는 그룹 전체로 이런 현상들을 보면 과연 이런 첨단기술의 발달이 예술행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여쭙는 건데요. 수요 측면에서 향유 측면에서도 무슨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여쭙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기술이 발달하고 하는 것이 예술가 분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이 분들의 반응이 다양해서 헛갈립니다.

참석자(3) 주로 어떤 반응이었나요?

사회자(M) 창작자 분들은 그럴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들과 관련성이 떨어지게 인지하셨고, 기

획자 분들은 반반 정도로 좀 유보하는 태도를 보이셨고, 실연 분들은 당연히 현장을 기반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의 예술행위를 대체할 거다! 라는 의견도 있었고, 아니다! 이게 본질적으로 우리가 현장에서 하고 있는 예술하고는 별개의 또 다른 장르의 실연 예술인 것 같다,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참석자(3) 그거하고 우리 문화재단하고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되나요?

사회자(M) 첨언을 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떤 의견이 있었냐 하면, 이렇게 빨리 변하는데 우리는 공연 준비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면 온라인 부스라도 재단이 빨리 마련을 해서 우리가 그런 거를 고민하지 않고 와서 공연이든 뭐든 조금 짝어서 할 수 있게 그런 지원을 올려라고 빨리 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판교를 꼭 팔아서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재단은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이런 거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지원이 느리기도 하고 안 보이니까 우리가 할 것을 어떻게 도와줄 것인지에 대해서 비대면 환경을 포함해서 고민을 같이 해 달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보여 달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면이 우리의 모든 것을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지만 다양한 장르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고민은 이렇고 이렇게 조금조금씩 변해 가고 있는데, 그래서 지원도 필요한데 교육하고 뭐 그런 여러 인프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은 필요하다, 이 정도입니다.

참석자(3) 네. 이제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비대면 상황이 되고 그리고 공연도 못 하고 온라인으로 보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거는 사실은 가상현실의 발전 이런 것과 관계없이... 코로나 상황에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회자(M) 맞습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참석자(3)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은 말씀하신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는 하거든요. 인공지능, 그리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새로운 예술형태가 나오고.

사회자(M) 융복합.

참석자(3) 네. 그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는 건지 몰라서 그런 건데,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은 후자고.

사회자(M) 네. 후자죠.

참석자(3) 참석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하셔서, 그 두 가지가 섞여 있다?

사회자(M) 사실은 참석자 교수님이 말씀하신 예술인 지원, 부장님이 말씀하신 협력체계 거버넌스, 그리고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사람, 계, 이런 것들을 풀어 나가야 되는데, 결국에는 성남이라고 하는 도시 특성을 감안해서 풀어 나가면 좋지 않겠냐? 하는 거고. 성남의 도시 특성이... 저

는 아까 많이 곤혹스러웠는데, 판교는 성남의 자산이 아니다! 라고 부장님이 말씀하셔서 굉장히 당황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한 일반적인 이미지는, 성남의 이미지적인 자산이라도 있다 보니까 그런 특성을 살려서 구체적으로 이런 환경 변화를 감안한, 앞에서 쪽 말씀하셨던 것을 정책이나 실행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실마리를 이렇게 잡아 갈 수 있을까? 또 그래야만 할 정도로 큰 변화가 예상이 될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서민적이라고 해도 예술인들을 지원을 하더라고요. 성남은 그런 부분이 강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야 된다. 의도가 전달이 되었나, 모르겠습니다.

참석자(2)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술이... 아트가 원래 테크네 라는... 아트가 원래 테크네에서 출발하잖아요. 예술과 기술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예술은 기술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사회자(M) 맞습니다.

참석자(2) 왜냐하면 기술변화가 계속 예술변화와 같이 바뀌어 왔는데, 지금 시점에서 예술가 분들이 기존의 자기 예술분야만을 고집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죠. 제가 볼 때는, 기술변화와 함께 적극적인 기술변화에 대한 적용도입, 사고, 인식, 교육,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예를 들어 보면 이거는 논쟁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말하는 클래식, 모짜르트나 그런 거요. 200년 전에는 그게 대중예술이었거든요. 그런데 200년 후에는 요즘 히트치는 트로트가 순수예술이 될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원칙적으로는 예술계가 기술의 변화, 새로운 기술에 대한 관심, 더 나아가서 도입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재단이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측면에서는 당연히 경험하게 해 줘야 되겠죠. 신기술에 대해서 개인이 혼자 못 하니까요. 새로운 기술이나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해 줘야 되고, 두 번째는 교육을 시켜야 되고, 세 번째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원 그런 종합적인 지원정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더 큰 측면으로 보면 이미 서구는 70년대에 지식정보산업으로 변화가 되었고, 우리도 이미 산업적으로는 지식정보산업이 되었는데, 사회적인 구조나 사회적인 인식은 아직도 기술과 산업인 것 같아요. 아직도 지식정보산업으로 간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예술쪽은요. 앞으로 지식정보산업은 더 심화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인간적인 가치나 본연의 가치를 잃으면 안 되기는 합니다만, 인간이 인간 중심으로 어떻게 도구를 잘 활용할 것이냐? 인간의 본래적인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그 고민은 당연히 해야 되겠습니다만, 점점 더 지식정보산업으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술 영역만 폐쇄적으로 거기만 보존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면 문화재단도 비단 이것은 꼭 전국 뿐만 아니라 특히 성남 지역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도 고민을 해야 된다. 신기술에 대한 경험.

사회자(M) 디지털 리터러시에 가까운 거죠?

참석자(2) 맞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리터러시가 기술적으로 되면 안 되고요. 소위 말해서 디지털 리터러시는 사회적 문화적 가치에 있어야 됩니다. 기술적으로만 되면 안 되고요. 성남에 있는 게 성남의 지역사회, 시민사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만나야 디지털 리터러시도 올바른... 아까 말씀 드린 잃지 말아야 되는 본연적인 가치가 구현이 되는 것이지, 그랬을 때는 다시 정리해 보면 디지털 리터러시와 소위 말하는 사회적 리터러시, 사회적 문예력과 서로 떨어져서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사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세 번째는 이진 참석자님께서 잘 아실 텐데요. 시장 구조가 예전에는 오프라인 공연예술 같은 경우에 이미 대중적인 문화와 예술, 더 나아가서 대중산업에 그런 산업적 구조는 에프엑스 같은 것처럼 이미 온라인으로 넘어 갔어요. 저는 이걸 다시 뒤 뒤로 BACK시키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환경이 변하면 적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살펴 가면서, 이런 문화예술의 매체들이 변화가 있으니 거기에 대한 흐름에 대한 파악, 대비책, 어떻게 성남에 있는 지역 예술가들이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는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죠.

참석자(1) 린츠 갔다 오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가끔 일 때문에 경기문화창조 거기에 자주 가거든요. 갈 때마다 답답하죠. 거기에 가끔 예술하시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뭐 속된 표현으로 쪽을 못 쓰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창의성은 되게 좋은데, 예술하시는 분들은 주로 어떤 평가를 받냐 하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고려를 안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주로 상품을 만드는 쪽으로 하는데, 예술과 다른 거를 융합해서 상품을 만드는데, 아이디어는 참 좋은데 이것을 어떻게 팔지? 소비자들은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많이 떨어지고. 저는 그것과 상관없이 그 쪽은 아무래도 콘텐츠 쪽이니까 예술하고 결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거기를 갈 때마다 느낀 게 뭐냐하면 왜 우리는 이런 게 없을까? 예술분야는. 특히 아까 뭐 아시아실리콘밸리도 그렇고 판교 일대가 전부 다 그런 첨단기술하고 결합된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인데, 유독 예술 분야는 적다고 생각했어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성남융복합예술지원센터 이런 곳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다른 지자체는 이런 거 못 하죠. 어려운데... 성남은 인구 규모나 경제 규모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우리도 린츠 같은 것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까 새로운 예술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런 거를 한 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비대면 관련해서 유사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는 요새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게, 우리가 그 동안 우리끼리 좋아했던 시각예술, 공연예술을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불행한 사태지만... 좋은 기회를 맞았는데 우리는 정작 그 기회를 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저도 가끔 메시지를 보내 줘요. URL을 보내 줘요. 공연하니까 보세요~ 라고.

사회자(M) 공연 영상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1) 네. 그런데 들어가 보면 솔직히 말씀 드리면 우리에게 익숙한 영상하고 많이 다른 거죠..

사회자(M) 앵글도 그렇고.

참석자(1) 수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동안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인프라도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급격하게 닥친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일각에서는 중앙정부도 그렇고 예술의 전당하고 국립극장에서는 이것 때문에 온라인 부스 그런 거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런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공연은 공연인 건데, 그 공연장 객석이 없이 만든다는 건가요?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가 몇몇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매년 보는 비엔나 필 같은 것, 신년음악회 같은 것 그거 좁은 데서 다 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전용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노하우와 기자재와 기술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러면 이거를 단지 코로나 시대에만 될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제는. 아까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미 패러다임이 많이 바뀌고, 온라인 중심으로 바뀌고 있는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것 뿐이잖아요.

사회자(M) 맞습니다.

참석자(1)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 우리가 갖출 필요가 있겠다. 지금이라도. 그래서 제대로 된 공연을 해야죠. 예를 들어 무용이나 동작을 보면 정말 예쁘게 찍으면 정말 아름다울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용수 동작을 보는 거잖아요. 그거를 영상을 찍으면 어느 연기자의 연기보다도 더 멋있을 수 있다, 그걸 우리가 못 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물론 조명 기술의 문제고 여러 가지 뭐 음향도 그렇고 그런 쪽으로 성남 문화재단에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예요.

사회자(M) 너무 좋은 말씀인데, 잠깐 여쭙 보면, 스마트 공연장 얘기를 하시는 걸로 판단이 되는데요.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무관중이 되고 모여드는 환경이 100%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저희가 투자를 하게 되면 시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받고 사업구조에 대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가 적합할까?

참석자(1) 저는 솔직히 말씀 드리면 반대한다는 거죠. 그걸 왜 만드냐? 이거죠. 일단 첫 번째로는 공연은 공연장에서 이루어지는 게 공연이죠. 관객이 없더라도.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다양보해서 사실은 사콘 스크린이나 그런 거 보면 관객없이 찍지 않습니까. OK 좋은데. 그러면 설령 그런 스마트 공연장을 만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걸 과연 유지 관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제가 방송국에 조금 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압니다. 방송국이 제일 고민하는 게 기자재가 수시로 바뀌어요. 업그레이드가 2,3년 마다 한 번씩 바뀌는데, 그 엄청난 장비를 다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그것도 좀... 지금 공연장 유지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아닌 것 같고. 특히 보다 본질적으로는 그게 전 세계적으로 그

런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스마트 공연장 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그러려면 우리가 강의시간에도 맨날 얘기하는 건데, TV 드라마가 연극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스튜디오로 가서 완전히 현장하고 단절되어서 완전히 다른 장르로 갔잖아요. 그 때 사례를 우리가 뼈저리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오히려 또 다른 하나의 장르를 만들어서 기존에 있었던 연극배우 분들이나 뮤지컬배우 분들을 또 소외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공연을 하는 거죠. 그러면 공연장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지, 공연장에서 촬영하기 어렵다고 스마트 공연장을 별도로 만들어서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 아닌가? 왜 그런 발상을 하는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참석자(3) 저는 용산에 있는데, 마포문화재단 영역이라서 저 아는 분이 계시는데, 예술가들이 공연장에 관객이 안 오니까 홍대 앞이나 그런 지역에 가서 야외공연을 하더라고요.

사회자(M) 버스킹 말씀하시는 거죠?

참석자(3) 버스킹 하면 보통 기타치고 부르고 하는데, 그런 것 말고 피아노, 바이올린을 다 갖다 놓고. 제가 전에 영국에 있다 보니까 록다운 되면서 맹인남자...

참석자(2) 보첼리요?

참석자(3) 그 사람이 이탈리아 성당 앞에서 코로나 국민을 위로한다고 공연을 한 것을 찍어서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마포문화재단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게, 반응들을 보니까 지역에서 본 사람들이 너무 멋있어요.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거를 할 줄 몰랐어요. 그런 식의 반응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예술가들과 지역주민들을 만나게 하는, 또 지역에 대한 홍보, 저기 내가 맨날 가던 곳인데! 하는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런 형태의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좋은 아이디어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반응도 좋은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기술하고 예술하고 융합되는 시점에서 보면 몇 가지 예들이 있는 것 같은데, AI가 소설을 쓰고 AI가 그림을 그리고 AI가 음악을 하고 그게 또 팔리고 전시회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이 판교와 이렇게 해서 IT쪽에 강한 도시로 이미지가 되어 있는데, 아까 참석자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건 기업이 거기에 존재한다는 것이지, 어떻게 뭘 같이 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직접 기업들하고...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여건도 만들어야 될 텐데, 그런 거를 하는 매개가 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지역 예술인들에게 기술과 예술이 융합되는 모습을 보여 줌으로서 그들이 계속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런 것도 여기에서 해 볼 수 있겠다. 예를 들면 AI 전시회나 AI 음악회라든가 이런 것을 여기에서 독보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성남에서. 그러면 판교, 테크노밸리가 거기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일반 사람들은 어? 성남? 저런 게 있으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도. 그런데 그렇게 되면 향후에 점점 관심이 많아지면서 그런 이미지하고 판교 기업들이 참여하

거나 이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 관심을 갖거나 주민들이 우리 지역에서 이렇게 예술과 과학이 연계되고 있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사업화해도 좋지 않을까요?

참석자(1) 좋은 말씀이신데요. 원래 성남아트센터가 처음에 개관했을 때 엄청 각광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결이 다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성남의 특성을 살려서, 사실 성남에서도 가끔 이런 거 하잖아요. 이벤트 성으로 하고 있잖아요. 저도 직접은 못 봤지만.

사회자(M) 옛날에 한 번 조인해 전시를 한 적이 있다고 들은 것 같습니다.

참석자(1) 네. 공연도 한 번 하지 않았나요?

사회자(M) 정확히는 모르겠고... 공연인가 전시인가 했었던 것 같습니다.

참석자(1) 네. 피아노 같이 치는 것도 봤어요. 그런 것에 좀 특화된 포지셔닝도 괜찮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남이라는 좋은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을 실제로 구현하게 되면 기업들도 조금씩 참여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들의 기술이나 브랜드를 홍보해야 되잖아요. 요즘 사실은 벌어지는 대부분의 기술융합 예술들이 사실은 홍보성, 아직까지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정착이 될 거다! 라는 데에는 점점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여기에서... 성남아트센터가 예전에는 세계 최고의 공연을 갖고 오는 그런 공연장으로 브랜딩을 했다면, 이제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시대에 맞춰서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전국에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공연장이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사회자(M) 대전은 조금 하고 있더라고요. AI 전시회.

참석자(1) 네. 대전은 수도권이 아니라서.

사회자(M) 아무래도 차이가 좀 있겠죠.

참석자(1) 네. 그런 포지셔닝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자(M) 결과적으로 이런 기술 등의 변화가 예술도 변화시키는 게 대세 라는 말씀이시죠? 전제는?

참석자(2) 제가 하나 여쭙볼 게 있는데요. 주신 자료를 보니까 예술인들의 애로사항에, 생계가 40%, 예술활동 비용조달이 21%, 미래불확실 18%, 발표공간 부족이 11%가 나오거든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새로운 기술에 대한 자기 예술 창작기법 방식에 대한 애로사항은 안 나왔는데, 이거는 안 물어 본 건가요? FGI에서만 나왔던 건가요? 재단의 필요성에 의해서 물어본 건가요? 왜냐하면 읽어 보면 예술가들은 필요성이나 인식이 전혀 없는 상태잖아요.

사회자(M) 그렇습니다. 저희가 좌담회 할 때 의도적으로 물어 본 거고요. 제 생각에는 사실 기초단체 예술가 전체로 확대해 보면 지금 당장은 그런 건 나중에 문제고요.

참석자(3) 안 나오죠.

사회자(M) 그 분들 평균 소득 보셨잖아요.

참석자(1) 제가 보내 주신 자료를 보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이, 아마 리서치 회사 입장에서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전국 단위로 광역 단위가 아니라 기초잖아요. 그러면 기초에서 기대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촘촘한, 예술가들에 대한 실태를 밝힌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장르가 회화다, 그러면 어떤 회화를 하는지? 세부 장르를 안 물어 보신 것 같은데요.

사회자(M) 네. 그것까지 못 물어 봤습니다.

참석자(1) 사실은 기초에서 기대하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지금 1700명이잖아요. 1734명. 맞습니까?

사회자(M) 네.

참석자(1) 그런 쪽은 자세한... 광역이나 중앙에서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지 못 하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캐치하면 좋겠다, 그렇습니다.

사회자(M)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실태 설문문답식 조사 말고 데이터베이스를 재단에서 기획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그야말로 조금 더 관내 예술인들의 정체성, 상황,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파악하기 위한 DB를 마련하고 계시는데, 그것하고 설문조사하고는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제한된 부분만 답을 수 있었고요.

참석자(2)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기술환경, 저희가 디지털만 얘기를 하는데, 기후생태 관련된 기술도 있어요. 디지털만 새로운 기술환경이 아니고, 지금 기후변화, 생태변화가 되고 있잖아요. 생태기술 환경도 새로운 기술환경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제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좀 있는데, 정책적 측면에서도 이것을 고려해야 되는 시점인 것 같고. 디지털 기술 뿐만 아니라 생태기술에 대한 것도 같이 고민해야 되거든요.

사회자(M)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런 변화가 예술에도 변화를 가져 와서 예술인 분들에게 준비를 시켜 드리는 게 예술인 분들을 소외시키는 게 아니죠? 격차 등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

참석자(3)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기존에 지원하는 것을 완전히 대체하거나 전환한다? 이렇게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기존에 지원하는 방식들은 항상 가야 되고요. 그런데 새로운 시도들을 한다는 거고. 새로운 시도들을 할 때 지역 예술인들이 그런 거를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죠. 사실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이 지원으로만 간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사회자(M)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아까 쪽 말씀하셨던 사람, 예술과 지원, 협업 이라고 하는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일환으로 말씀들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기초문화재단의 역할이나 기능 그런 것들과 환경문화 그런 것들을 쪽 전반

적으로 감안했을 때 성남문화재단이 앞으로 어떻게 지향점을 설정해야 될지? 거기에는 감안해야 될 도시 특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잠깐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세요. 반드시 감안해야 될 성남의 특별한 특성,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유롭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석자(2) 대표님, 실태조사 내용을 보니까 애로사항에 보면 예술활동 증명신청을 안 한 이유,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회자(M) 있습니다.

참석자(2) 51.8%가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응답하신 분들의.

사회자(M)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2) 제일 안 한 이유가 방법을 몰라서.

사회자(M) 맞습니다.

참석자(2) 그러면 성남문화재단이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거네요. 이 실태조사 내용으로 보면요.

사회자(M) 네. 그러네요.

참석자(2) 정보부족이고 모르니까 알려 주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고. 이걸 주신 자료 갖고만 본 겁니다. 그리고 다음은 뭐냐하면 이게 되게 재미있었는데, 2006년도에 예술인 실태조사에서 나온 지원사업 관련된 정보들을 어떻게? 그러니까 정보전달 체계, 정보습득, 확보 방법이 뭐였냐 하면 첫 번째가 2006년에 주위, 동료, 후배에게 들어서 한 거고. 인적 네트워크죠. 두 번째가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가 재미있었어요. 지역신문과 케이블. 그 다음에 전문잡지. 기타. 이게 지원정보를 받는 정보채널인데,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것은 첫 번째가 성남문화재단과 성남시 홈페이지, 두 번째가 지인, 세 번째가 모름, 네 번째가 재단 SNS, 예술인 커뮤니티, 그리고 다섯 번째가 협단체 예총이나 민예총, 이렇게 나왔어요. 뭐냐하면 그러면 이런 거를 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보면 지원정보라든지 지역 예술계에 대한 소식들이나 정보들에 대한 전달체계나 정보제공 채널을 여기에 맞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냐는 거죠.

사회자(M) 홈페이지를 빨리 리뉴얼을 해서 손을 봐야 된다는 말씀이 어제 많으셨어요.

참석자(2) 네. 특히 SNS가 새로 나왔잖아요. 홈페이지는 사실 요즘에 컴퓨터도 잘 안 보는데...

사회자(M) 요즘에는 모바일을 통해서 다들 보죠?

참석자(2) 네. 그러면 정보전달체계도 좀 바뀌야 되는 거죠.

사회자(M) 네.

참석자(2) 일단 실태조사에서 나온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사회자(M) 네. 그렇습니다.

참석자(3) 제가 생각할 때는 다 언급되었던 것들인데요. 여기가 성남이 3개 지역구가 있잖아요. 구 별

로 굉장히 차이가 있다. 구 별로 차이가 있는 부분들을... 사실은 차이가 있는 그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꼭 차이가 없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지는 않고요. 이 차이들을 어떻게 잘 살려 갈 것이냐? 그 안에서 어떻게 융화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그 3개의 지역의 특성들이 하나의 성남을 이루게 하는, 그게 도시특성에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특례시를 꿈꿀 만한 기초자치단체 라고 하는 특성, 규모나 재정규모나 그리고 IT같은 첨단 이런 거라던가 아무튼 그런 것들이 갖고 있는 성남시만의 특성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특성.

사회자(M) 제가 분절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결국에 괄호 2번에 생활예술과 전문예술과의 밸런스 문제, 그리고 신진 예술인, 중견 예술인 문제, 그리고 물적인 기반 중심이나 아니면 무형의 프로그램 뭐 그런 것들을 다 섞어서 결과적으로 한 번에 말씀하시는 게 흐름상 더 자연스러울 것 같네요. 특히 신진 쪽이 고민이 많이 있는데요. 지금 오신 분들이 FGI에서도 그렇고 대부분 중견 이상이 많이 오셨는데, 이번에 실태조사를 할 때 생각보다 신진들이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신진들이 생각보다 많이 모집단에 들어오지 못 했어요. 그건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성남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큰 메리트 못 느끼거나 실망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나눠 드렸던 것을 보시면 포션은 20% 이상이 등록은 했는데 재단은 10%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10%들은... 이 20% 이상이 사실은 성남에 있는데, 이 성남에서 활동을 하거나 이런 응답을 주는 것조차 반응이 없다는 것은 고민이 많이 되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제가 현 상태만 갖고... 특히나 ICT를 활용하거나 기술을 활용할 때는 특히나 젊은 층들을 많이 개입시키고 그런 부분을 잘 섞이게, 물론 치밀하게 섞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이를 갖고 굳이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잘 융합되면서 들어오고 또 같이 묶이고 그래야 되는데, 젊은 층들이 참 같이 활동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뭔가 허들이 있는 재단? 사실 여러 가지 고민이 있는 부분입니다.

참석자(3) 신진예술가 지원문제는 항상 예술정책을 할 때 새롭게 예술정책을 구상하거나 할 때 얘기가 많이 되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차원에서도 신진예술가 파트를 만들기도 하고. 지금도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서울문화재단도 그렇고. 그런데 신진 이라고 하면 어디부터 신진이나? 예를 들면 40대도 신진이 될 수도 있고.

사회자(M) 맞습니다. 나이와 상관이 없습니다.

참석자(3) 그래서 신진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청년이라는 말을 쓰자! 그래서 청년예술가 지원정책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은 청년예술가 지원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굉장히 많이 있기는 해요. 보면 경기도 차원에서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신진이나 청년을 어떻게 우리가 끌어안을 것이냐?에 기초해서 이렇게 문제를 풀어 가기보다는,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IT와 관련한 어떤 사업들을 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젊은 청년, 신진,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겠다, 라고 하면 그걸 하는 데에 신진이 결부되는 것이지.

사회자(M) 성격상.

참석자(3) 그렇죠. 신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예술가 지원정책을 별도로 마련하는 게 사실은... 제가 아까 여쭙 보려고 했는데, 여기 문화예술정책 중에 시민에게 쓰는 것 말고 예술인지원정책으로 쓸 만한 예산의 포션이...

사회자(M) 많이 없습니다.

참석자(3) 네. 많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것을 다 포괄해서 가야 된다, 그런 것보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서 전문예술가가 결합될 수도 있고 생활예술가가 결합될 수도 있고 신진 예술가가 결합될 수도 있고.

사회자(M) 경계를 두지 말고?

참석자(3) 네. 그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회자(M) 네.

참석자(1) 그런데 10% 적게 나왔다는 게 그게 지원에서 써야 된다 그런 느낌인가요? 그건 아닌가요?

사회자(M) 네. 그건 아니고, 그냥 차이가 좀 나길래요. 젊은 분들에게도 좀 많이 알 수 있게 두루 알리려고 했는데 차이가 좀 나서, 눈으로 보기에 차이가 나서. 그러면 이 분들은 어디 가서 하시는 걸까?

참석자(1) 네. 그런 거죠? 제가 얼마 전에 경기문화재단에서 연구할 게 있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신진한테는 많이 되고 있는데, 중견 이상이 안 되어 있다고 해서.

참석자(3) 네. 오히려 거기가 안 되고 있죠.

참석자(1) 네. 생애 주기별로... 그래서 제가 약간... 저는 여기 말씀 나온 김에 답을 드리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물론 분당, 판교, 구도시, 이렇게... 분명히 고려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아우를 수 있는 것이 뭘까? 저는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첨단기술과 융합된 그런 예술을 우리가 지원하고 인큐베이팅 하고 여기에서 뭔가 만들어 내는, 약간 탈바꿈?

사회자(M)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라는 거죠?

참석자(1) 네. 그런 게 필요하겠다. 그리고 유행에 벗어난 얘기일 수는 있는데요. 요즘에 생활예술이 많이 강조되고 있고, 또 성남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반면에 전문예술인은 상대적으로 소외된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조금 같이 밸런싱을 해 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겠다, 그런데 저는 늘 얘기하는 게 제가 밤마다 TV를 보거든요. 손흥민 보거든요. 저처럼 손흥민을 봐야지 또 아침에 조기축구를 하러 가는 거거든요. 손흥민이 없으면 제가 조기축구 하고 싶겠습니까? 그래서 생활예술 중요하고 이제까지도 잘 해 오셨으니까 잘 살리되, 예술가들, 실력있는 예술가들, 의미있는 예술가들이 인큐베이팅 되는 곳이

다, 창조인력이 모이는 곳이다, 그런 이미지 개선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네 번째 관련해서는 예술인 대화, 스킨십 이거는 요즘에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문화도시 하면서 전국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저도 어느 도시... 성남은 문화도시 신청 안 했나 봐요?

사회자(M) 안 했습니다.

참석자(1) 네. 그런데 혹시 하시게 될 때를 대비해서 제가 어느 도시 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거기는 신청을 했는데, 거기에서 필요한 게 가이드가 그거잖아요. 거버넌스 얼마나 했냐? 그런 거잖아요.

사회자(M) 제일 중요하죠.

참석자(1) 네. 안 한 거예요.

사회자(M) 일단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석자(1) 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나중에 혹시 하시든 안 하시든 그런 거... 그리고 또 상당히 예술가 분들이 그거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막상 안 해 줘도 자꾸 대화하고 이렇게 하면 그 문화재단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평가를 하더라고요. 일단은 뭐 수시로, 그것이 뭐 예술 인타운 미팅이 됐든 어떤 미팅이 됐든 그런 것들을 수시로 하시면 지금보다 훨씬 좀 더 그런 소외감을 잠식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네.

참석자(2) 저는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면, 2040을 고민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 개인적인 성남에 대한 이해는, 저는 인과측면을 살펴보면, 성남은 인구가 감소될 거다, 왜냐하면 부동산이 너무 비싸서 젊은 사람들이 못 와요. 여기는 초고령화가 진행될 곳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사회자(M) 정확하세요.

참석자(2) 그래서 여기는 문화재단을 전반적으로 보면, 예술정책과 별도로 여기 성남문화재단은 고령화정책을 고민해야 되요. 인생학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아마 너무 비싸서 청년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떠날 거예요. 분당 뿐만 아니라 원도심도 자꾸 아파트 짓고 강남과 가깝기 때문에 은행동 이런 데는 벌써 다 아파트 올라가고 엄청 비싸잖아요. 거기가 강남이랑 접근권이기에 때문에 엄청 비싸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공공주택이 건립되지 않으면. 성남공항 근처에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었다가 추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고령화가 굉장히 진행될 거다, 고령화에 대한 문화정책을 어떻게 대비할지도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그림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이 필요하다, 그런데 청년정책이 어렵기는 한데,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성남지역에서 살고 먹고 활동하게 자기 삶을 살아가게 하느냐? 이걸 되게 어려운 문제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제 짧은 소견

으로는 분명히 일본이 우리한테는 교과서는 아니지만 참고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일본 도쿄 주변에 신도시들이 지금 막 비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똑같이... 엄청 경기 좋을 때 만들었는데, 신도시가 지금은 텅텅 비어서. 예를 들어 아파트 한 동에 2,3가구만 있는데도 있어요. 이게 뭐냐하면 2040을 고민한다고 하셨는데, 성남시에 분명히 비는 공간이 생길 거다, 도시유희공간들. 저는 좀 다른 맥락이긴 한데, 일본은 고이즈미 총리 때 벌써 20년 전에 도시재생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소개되지는 않았는데, 실패로 결론이 나서, 지방 청 색으로 바뀌었어요.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의 실패로. 물론 정권이 바뀌어서 아베 정권이 다른 맥락이었습시다만, 일본 내에서는 도시재생정책은 실패했다고 결론내리고 있거든요. 저는 도시재생측면이 아니라, 지속측면인 거죠. 도시 삶의. 도시유희공간이 많이 생길 거다.

사회자(M) 전환도시 개념에 오히려 더 가까운 건가요?

참석자(2) 그런 거는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공유도시도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런 개념적인 측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시 인프라 유지가 되게 어려울 거다, 많이 비고. 물론 성남은 분당은 조금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부동산 자산이 있는 곳은 여러 가지 그런 비는 공간이 있을 거다. 도시 인프라 같은 경우에. 그걸 어떻게 새로운 예술의 실험적 공간으로 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공간, 기술, 사람, 청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고, 공공성 이라고 해도 무조건 공적 가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창업도 공적인 가치가 있을 수 있잖아요. 사회적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사회적 기업이 아니더라도 민간영리를 취하더라도 거기에서 이익을 취한 것을 공공에 투자를 할 수 있으면 저는 사회적 경제라고 보거든요.

사회자(M) 지속가능만 하면 되죠.

참석자(2) 네. 꼭 사회적 기업이 아니어도. 그러면 비즈니스 모델이나 창업을 어떻게 지원할 거냐? 그런 고민들이 전체적으로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건 되게 먼 얘기이고. 조금 세부적으로 오늘 관련된 논의로 가 보면, 문화재단의 방향은 아까 교수님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데, 지금은 꼬리표를 넣어서 주잖아요. 예술창작, 생활문화,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기초에서는 이게 다 하나로 뭉뚱그려서 이게 문화예술 교육인지 생활문화인지 창작인지 이게 안 되니까, 정책입장에서만 구분이 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는 잘 안 되니까 통합으로 가자! 그렇게 참여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포괄해서. 구 별로 아니면 동 별로 예술가, 주민, 기획자, 교육. 그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기획 프로그램에 대해서 활동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주민참여예산제로 가도 좋다, 이거는 2020 그 안에서도 제안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아까 말씀 드린 건데, 예술지원을 이원화 시키자. 소액다건, 개인창작, 개인그룹창작, 새로운 예술, 융복합도 기획지원으로 가자. 그리고 세 번째는 재단의 역할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의 역할도 있겠고 교육도 시켜야 되겠습니다만, 중요한 역할은 지금 요구받는 것은 매개자도 있습니다만 플랫폼을 한

다고 하면 플랫폼을 정의하면 플랫폼 개념이 외부생산자와 외부소비자가 상호작용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고, 그걸 교환하는 것은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 이러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플랫폼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우버는 자기 소유의 자동차가 없는 세계 최대의 택시회사, 에어비앤비는 자기 소유의 부동산이 없는 세계 최대의 숙박업체, 유튜브는 자기 소유의 콘텐츠가 없는 세계 최대의 콘텐츠 업체거든요. 그런 게 다 뭐냐하면 연결이에요. 커넥팅. 그래서 문화재단이 플랫폼 역할을 한다고 하면 공간과 사람과의 연결, 자원과 정보의 연결, 그렇게 정보, 자원, 사람, 공간, 이런 것들을 서로 연결시킬 수 있을지, 물론 지원체계가 그 목적에 맞겠습니까만, 기본적으로는 이거는 성남문화재단 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충분히 오늘 한 것처럼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보 현황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요. 올 6월 달에 어떤 법이 통과되었냐 하면,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 라는 법이.

사회자(M) 이게 데이터3법은 아니죠?

참석자(2) 그 중에 하나 들어갑니다. 빅데이터... 이게 뭐냐하면 그만큼 데이터 통계에 대한 책임성이 생긴 거예요. 공공영역에서.

사회자(M) 마이데이터사업 같은 건가요?

참석자(2) 맞습니다.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도... 사실은 이거는 투자거든요. 연구조사는 예산을 잘 안 잡아 줘요. 그런데 앞으로는 기본적인 현황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 통계, 정보가 있어야 이런 플랫폼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사회자(M) 네.

참석자(2) 그러려면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 연결 역할을 문화재단이 해야 되지 않을까? 직접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하는 지원사업 외에 이런 것들이 미래에 요구되는 재단의 역할이지 않을까? 아까 말씀 드린 기후생태 문제도 앞으로는 또 다시 한 번 문화재단의 중요한 과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M) 하나 여쭙 보고 싶은 게 있어요. 약간 사족이기는 한데요. 다른 어떤 재단은 아트센터 같은 것을 운영하지 않고 재단 고유의 사업만 하는 데도 있는데, 저는 사실 두 가지 다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저희가 지역 내부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플랫폼이 됐건 뭐가 됐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아요.

참석자(2) 같이 하셔야죠.

사회자(M) 네. 그런 부분이 사실 굉장히... 비전 수립 시에도 분명히 녹여낼 부분인데, 이 재단 분리나 사업과 분리에 대해서 대표님이 고민이 많으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해 주실 만한 말씀 없을까요?

참석자(2) 그건 대표님이 잘 알고 계시기는 한데,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사실은 분리하지 않는 게 그때 방침이었고, 문화재단이 맡은 아트센터가 큰 장점이기 때문에.

사회자(M) 일단 오늘 준비했던 주제에 대해서는 다 여쭙 본 것 같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세요?

사회자(M) 아까 일본 사례를 말씀하셔서요. 오히려 더 도시 인구들이 정말 도시 중심으로만 모이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외부가 비는 현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 성남도 영성여중 같은 경우가 아마 최초일 거예요. 3개 학교가 합쳐져서 영성여중이라는 곳이 문체부 지원을 받아서 꿈꾸는 예술터가 지금 오픈되었어요. 거기에서 많은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데, 고령화 대비해서 청년들을 더 지원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참석자(2) 참고로 말씀 드리자면, 문화재단이 신경을 써야 될 것이 도시폐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되요. 학령인구가 줄다 보니까 성남에서 나타났잖아요. 영성여고. 농산어촌만 폐교가 생기는 게 아니라 도시에서도 폐교가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폐교를 어떻게 지역의 중요한 공유자원으로 쓸 거냐? 문화나 예술장으로 쓸 거냐? 이거는 성남에서 모델이 하나 나왔으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고민해 줘야 될 것이 성남문화재단의 과제죠. 도시폐교요. 영성여중이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만들어 졌는데, 취학 학생이 없어서요.

사회자(M) 알겠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기초문화재단은 3단계 검토라고 할까? 의사결정을 거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광역, 중앙으로 갈수록 단계별 루트가 줄어든다고 하시는데, 그런데 오늘 전문가 분들께서 언급하신 내용들을 보면 성과가 상대적으로 잘 표현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그런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비정형적인 접촉, 스किन쉽, 그런 쪽으로 기초의 역할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제반 재단의 환경을 보면 그런 쪽으로 역할을 포지셔닝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좀 어떨까요?

참석자(2) 제 경험은, 외부성과로 풀었어요. 초창기에 생활문화 했을 때 성남시나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얘기 들으면서 했었어요. 공동체의 공 자도 얘기 못 꺼내졌어요. 그래서 되게 어려웠습니다. 추진이. 사실은 초반기 설계도 참석자 교수님이 참여를 하셨었는데 저희가 인정을 못 받다 보니까 저희가 소위 말해서 전략을 짰 거예요. 외부인정을 받아서 역으로 외부인정을 받아서 내부인정을 받자! 그래서 장관상 2개 따오고 국무총리상 1개 따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제야 아! 재단에... 뭐 할 때마다 맨날 팔려 다니는 게 사랑방 팔려 다니고 그랬죠. 표현은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이 필요한 거죠. 성과는 게 가시적 성과라고 한다면 인정이 제일 중요한 건데, 그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시민사회나 시의 성과도 있겠지만, 실질적 내용적 형식적 성과나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적 모델이라는 게 뭐냐하면 처음에 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외부 스피커들 오늘 오신 참석자 교수님이나 참석자 교수님들 이런 분들에게 날리고 좋은 선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게 선도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주시면.

사회자(M) 창의도시 네트워크 하려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의미에서 크게 저희가 돈이나 자원을 들이지 않고 갖고 있는 것들을 패키지 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참석자(2) 그거 10년 된 얘기잖아요.

사회자(M) 그런데 이제 와서 성남이 문화도시를 추진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가 생겼고. 그러다 보니 까.

참석자(2) 유네스코 창의도시 안 한다고 한 것은 이미 10년 이상 됐어요.

사회자(M) 그랬나요? 알겠습니다.

사회자(M) 네. 오늘 모임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록8 통계표

문1. 현재 귀하께서 종사하고 계신 예술분야의 주요 활동 직업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작예술가	실연예술가	예술기획자	문화기획자	예술교육자	기타
전 체		(419)	33.7	28.9	5.5	5.5	21.0	5.5
거주지 1	성남	(290)	34.8	28.6	5.9	3.8	21.4	5.5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1.3	28.8	6.3	7.5	22.5	3.8
	서울	(49)	30.6	30.6	2.0	12.2	16.3	8.2
거주지 2	수정구	(64)	32.8	29.7	7.8	4.7	23.4	1.6
	중원구	(56)	30.4	37.5	0.0	1.8	17.9	12.5
	분당구	(170)	37.1	25.3	7.1	4.1	21.8	4.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29.9	36.8	6.9	3.9	17.2	5.4
	겸업	(215)	37.2	21.4	4.2	7.0	24.7	5.6
성별	여성	(225)	34.7	24.4	4.9	4.0	26.7	5.3
	남성	(194)	32.5	34.0	6.2	7.2	14.4	5.7
연령	20대 이하	(43)	34.9	34.9	0.0	9.3	11.6	9.3
	30대	(103)	33.0	32.0	5.8	6.8	18.4	3.9
	40대	(152)	28.9	32.2	7.2	3.9	21.7	5.9
	50대	(86)	34.9	19.8	7.0	5.8	27.9	4.7
	60대 이상	(35)	51.4	20.0	0.0	2.9	20.0	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5.8	34.3	6.7	6.7	20.2	6.2
	성남 외 경기	(107)	28.0	29.0	5.6	7.5	27.1	2.8
	서울	(117)	47.0	19.7	4.3	2.6	19.7	6.8
	그 외 지역	(17)	58.8	35.3	0.0	0.0	0.0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77.3	0.0	0.0	4.5	13.6	4.5
	사진	(11)	63.6	0.0	0.0	0.0	36.4	0.0
	미술	(106)	71.7	0.0	3.8	5.7	14.2	4.7
	국악	(47)	6.4	61.7	4.3	2.1	19.1	6.4
	무용	(37)	5.4	45.9	2.7	2.7	32.4	10.8
	연극	(36)	22.2	41.7	8.3	2.8	25.0	0.0
	음악	(100)	7.0	49.0	7.0	9.0	23.0	5.0
	영화	(19)	52.6	15.8	0.0	0.0	26.3	5.3
	만화	(2)	10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60.0	10.0	0.0	2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6.9	17.2	13.8	20.7	13.8
	3년 미만	(23)	39.1	4.3	4.3	17.4	21.7	13.0
예술활동 전체경력	3~5년	(40)	40.0	27.5	12.5	5.0	10.0	5.0
	6~10년	(67)	40.3	32.8	4.5	1.5	17.9	3.0
	11~20년	(121)	31.4	24.0	5.8	8.3	23.1	7.4
	20년 이상	(168)	30.4	34.5	4.2	3.6	23.2	4.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3.8	28.5	5.5	4.5	22.8	5.0
	불가능	(37)	32.4	32.4	5.4	16.2	2.7	10.8

문2. 현재 귀하께서 활동하시는 주 예술활동 방식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 단독으로 활동	다른 예술인과 공동작업	다른 예술인과 프로젝트 협업	회사에 소속되어 활동	기타
전 체		(419)	41.3	36.5	10.7	8.1	3.3
거주지 1	성남	(290)	43.4	34.1	11.4	7.2	3.8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6.3	42.5	7.5	10.0	3.8
	서울	(49)	36.7	40.8	12.2	10.2	0.0
거주지 2	수정구	(64)	32.8	40.6	15.6	6.3	4.7
	중원구	(56)	39.3	46.4	8.9	3.6	1.8
	분당구	(170)	48.8	27.6	10.6	8.8	4.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0.2	41.2	9.3	6.9	2.5
	겸업	(215)	42.3	32.1	12.1	9.3	4.2
성별	여성	(225)	44.4	30.7	12.0	8.0	4.9
	남성	(194)	37.6	43.3	9.3	8.2	1.5
연령	20대 이하	(43)	41.9	37.2	16.3	4.7	0.0
	30대	(103)	36.9	36.9	13.6	9.7	2.9
	40대	(152)	39.5	38.8	7.9	11.2	2.6
	50대	(86)	45.3	31.4	10.5	5.8	7.0
	60대 이상	(35)	51.4	37.1	8.6	0.0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2.6	41.0	12.4	10.7	3.4
	성남 외 경기	(107)	42.1	43.0	7.5	4.7	2.8
	서울	(117)	54.7	23.9	11.1	7.7	2.6
	그 외 지역	(17)	35.3	35.3	11.8	5.9	11.8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68.2	0.0	22.7	4.5	4.5
	사진	(11)	72.7	18.2	9.1	0.0	0.0
	미술	(106)	73.6	13.2	9.4	1.9	1.9
	국악	(47)	14.9	51.1	4.3	21.3	8.5
	무용	(37)	18.9	62.2	10.8	5.4	2.7
	연극	(36)	22.2	61.1	8.3	5.6	2.8
	음악	(100)	24.0	53.0	12.0	9.0	2.0
	영화	(19)	63.2	15.8	10.5	10.5	0.0
	만화	(2)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30.0	10.0	2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31.0	17.2	13.8	10.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39.1	34.8	13.0	8.7	4.3
	3~5년	(40)	42.5	35.0	17.5	5.0	0.0
	6~10년	(67)	50.7	32.8	10.4	6.0	0.0
	11~20년	(121)	38.8	36.4	11.6	9.9	3.3
	20년 이상	(168)	39.3	38.7	8.3	8.3	5.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41.4	35.9	11.0	8.1	3.7
	불가능	(37)	40.5	43.2	8.1	8.1	0.0

문3. 현재 귀하께서는 소속된 예술인 협회·단체가 있으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19)	63.7	36.3
거주지 1	성남	(290)	62.8	37.2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0.0	30.0
	서울	(49)	59.2	40.8
거주지 2	수정구	(64)	59.4	40.6
	중원구	(56)	60.7	39.3
	분당구	(170)	64.7	35.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65.7	34.3
	겸업	(215)	61.9	38.1
성별	여성	(225)	65.8	34.2
	남성	(194)	61.3	38.7
연령	20대 이하	(43)	34.9	65.1
	30대	(103)	47.6	52.4
	40대	(152)	71.1	28.9
	50대	(86)	73.3	26.7
	60대 이상	(35)	91.4	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70.2	29.8
	성남 외 경기	(107)	69.2	30.8
	서울	(117)	49.6	50.4
	그 외 지역	(17)	58.8	41.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77.3	22.7
	사진	(11)	36.4	63.6
	미술	(106)	43.4	56.6
	국악	(47)	78.7	21.3
	무용	(37)	81.1	18.9
	연극	(36)	69.4	30.6
	음악	(100)	76.0	24.0
	영화	(19)	47.4	52.6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5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2.1	37.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5	56.5
	3~5년	(40)	35.0	65.0
	6~10년	(67)	49.3	50.7
	11~20년	(121)	60.3	39.7
	20년 이상	(168)	81.5	18.5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5.2	34.8
	불가능	(37)	48.6	51.4

문3-1. 소속 협회·단체 유형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총	민예총	암의단체 (미등록독립단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시립예술단
전 체		(267)	20.2	6.7	34.8	8.2	41.6
거주지 1	성남	(182)	23.6	6.6	35.7	8.2	41.2
	성남시 외 경기지역	(56)	16.1	5.4	32.1	7.1	42.9
	서울	(29)	6.9	10.3	34.5	10.3	41.4
거주지 2	수정구	(38)	18.4	10.5	44.7	5.3	39.5
	중원구	(34)	38.2	11.8	26.5	5.9	35.3
	분당구	(110)	20.9	3.6	35.5	10.0	43.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34)	20.1	8.2	32.1	7.5	43.3
	겸업	(133)	20.3	5.3	37.6	9.0	39.8
성별	여성	(148)	16.9	3.4	37.8	9.5	43.9
	남성	(119)	24.4	10.9	31.1	6.7	38.7
연령	20대 이하	(15)	6.7	6.7	66.7	0.0	26.7
	30대	(49)	10.2	4.1	40.8	10.2	46.9
	40대	(108)	15.7	4.6	30.6	12.0	44.4
	50대	(63)	30.2	7.9	30.2	4.8	44.4
	60대 이상	(32)	37.5	15.6	34.4	3.1	25.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25)	20.8	8.8	25.6	7.2	46.4
	성남 외 경기	(74)	27.0	5.4	39.2	8.1	35.1
	서울	(58)	12.1	3.4	50.0	10.3	34.5
	그 외 지역	(10)	10.0	10.0	30.0	10.0	7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7)	23.5	11.8	29.4	17.6	41.2
	사진	(4)	50.0	25.0	0.0	25.0	0.0
	미술	(46)	19.6	10.9	30.4	8.7	43.5
	국악	(37)	18.9	13.5	37.8	10.8	37.8
	무용	(30)	26.7	0.0	53.3	6.7	26.7
	연극	(25)	24.0	4.0	44.0	4.0	32.0
	음악	(76)	21.1	3.9	30.3	7.9	46.1
	영화	(9)	0.0	0.0	44.4	0.0	55.6
	만화	(5)	40.0	0.0	0.0	0.0	60.0
	연예(방송, 공연)	(18)	0.0	5.6	33.3	5.6	61.1
	기타(다원예술 등)	(10)	10.0	0.0	60.0	0.0	3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4)	7.1	7.1	35.7	7.1	50.0
	3~5년	(33)	15.2	9.1	45.5	12.1	30.3
	6~10년	(73)	12.3	4.1	38.4	11.0	42.5
	11~20년	(137)	27.7	8.0	28.5	6.6	43.8
	20년 이상	(249)	20.1	6.8	34.5	8.8	41.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8)	22.2	5.6	38.9	0.0	38.9
	불가능	(37)	40.5	43.2	8.1	8.1	0.0

문3-2 실제 활동하는 협·단체는 몇 개입니까?

(단위 : %, 개)

구 분		사례수	1개	2개	3개	4개	5개 이상	평균
전 체		(267)	41.9	27.7	21.3	4.1	4.9	2.05
거주지 1	성남	(182)	39.6	29.7	20.9	3.8	6.0	2.10
	성남시 외 경기지역	(56)	50.0	19.6	23.2	3.6	3.6	1.95
	서울	(29)	41.4	31.0	20.7	6.9	0.0	1.93
거주지 2	수정구	(38)	36.8	31.6	23.7	7.9	0.0	2.03
	중원구	(34)	44.1	26.5	26.5	0.0	2.9	1.91
	분당구	(110)	39.1	30.0	18.2	3.6	9.1	2.1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34)	40.3	26.1	23.1	6.0	4.5	2.11
	겸업	(133)	43.6	29.3	19.5	2.3	5.3	1.98
성별	여성	(148)	41.9	27.7	21.6	2.0	6.8	2.07
	남성	(119)	42.0	27.7	21.0	6.7	2.5	2.02
연령	20대 이하	(15)	86.7	13.3	0.0	0.0	0.0	1.13
	30대	(49)	49.0	22.4	22.4	4.1	2.0	1.88
	40대	(108)	46.3	24.1	20.4	4.6	4.6	2.00
	50대	(63)	33.3	36.5	19.0	6.3	4.8	2.16
	60대 이상	(32)	12.5	37.5	37.5	0.0	12.5	2.6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25)	48.0	26.4	16.8	5.6	3.2	1.92
	성남 외 경기	(74)	40.5	24.3	27.0	2.7	5.4	2.11
	서울	(58)	32.8	32.8	22.4	3.4	8.6	2.26
	그 외 지역	(10)	30.0	40.0	30.0	0.0	0.0	2.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7)	41.2	17.6	35.3	0.0	5.9	2.18
	사진	(4)	50.0	25.0	25.0	0.0	0.0	1.75
	미술	(46)	34.8	32.6	17.4	2.2	13.0	2.33
	국악	(37)	37.8	27.0	29.7	5.4	0.0	2.03
	무용	(30)	23.3	26.7	26.7	13.3	10.0	2.67
	연극	(25)	52.0	12.0	24.0	4.0	8.0	2.08
	음악	(76)	44.7	31.6	19.7	3.9	0.0	1.83
	영화	(9)	55.6	33.3	11.1	0.0	0.0	1.56
	만화	(5)	60.0	20.0	0.0	0.0	20.0	2.00
	연예(방송, 공연)	(18)	61.1	33.3	5.6	0.0	0.0	1.44
	기타(다원예술 등)	(10)	70.0	20.0	10.0	0.0	0.0	1.4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4)	71.4	14.3	7.1	0.0	7.1	1.57
	3~5년	(33)	48.5	33.3	15.2	0.0	3.0	1.79
	6~10년	(73)	49.3	20.5	21.9	5.5	2.7	1.92
	11~20년	(137)	31.4	32.1	24.8	5.1	6.6	2.28
	20년 이상	(249)	39.8	28.5	22.1	4.4	5.2	2.1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8)	72.2	16.7	11.1	0.0	0.0	1.39
	불가능	(37)	40.5	43.2	8.1	8.1		0.0

문5. 현재 귀하의 예술활동 및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예술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4.5	19.8	37.9	25.1	12.6	37.7	24.3	3.21
거주지 1	성남	(290)	3.8	20.7	37.9	25.2	12.4	37.6	24.5	3.22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5	12.5	37.5	27.5	15.0	42.5	20.0	3.30
	서울	(49)	4.1	26.5	38.8	20.4	10.2	30.6	30.6	3.06
거주지 2	수정구	(64)	4.7	18.8	23.4	40.6	12.5	53.1	23.4	3.38
	중원구	(56)	3.6	21.4	50.0	12.5	12.5	25.0	25.0	3.09
	분당구	(170)	3.5	21.2	39.4	23.5	12.4	35.9	24.7	3.2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4	19.1	35.3	26.0	14.2	40.2	24.5	3.25
	겸업	(215)	3.7	20.5	40.5	24.2	11.2	35.3	24.2	3.19
성별	여성	(225)	5.8	21.3	35.6	24.4	12.9	37.3	27.1	3.17
	남성	(194)	3.1	18.0	40.7	25.8	12.4	38.1	21.1	3.26
연령	20대 이하	(43)	2.3	18.6	46.5	20.9	11.6	32.6	20.9	3.21
	30대	(103)	2.9	22.3	34.0	30.1	10.7	40.8	25.2	3.23
	40대	(152)	6.6	22.4	39.5	21.7	9.9	31.6	28.9	3.06
	50대	(86)	3.5	15.1	38.4	24.4	18.6	43.0	18.6	3.40
	60대 이상	(35)	5.7	14.3	31.4	31.4	17.1	48.6	20.0	3.4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4	19.7	37.1	22.5	17.4	39.9	23.0	3.31
	성남 외 경기	(107)	8.4	15.0	36.4	32.7	7.5	40.2	23.4	3.16
	서울	(117)	3.4	23.9	43.6	21.4	7.7	29.1	27.4	3.06
	그 외 지역	(17)	0.0	23.5	17.6	29.4	29.4	58.8	23.5	3.6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5	22.7	36.4	31.8	4.5	36.4	27.3	3.09
	사진	(11)	9.1	18.2	36.4	18.2	18.2	36.4	27.3	3.18
	미술	(106)	3.8	16.0	40.6	27.4	12.3	39.6	19.8	3.28
	국악	(47)	10.6	21.3	31.9	23.4	12.8	36.2	31.9	3.06
	무용	(37)	2.7	27.0	45.9	13.5	10.8	24.3	29.7	3.03
	연극	(36)	2.8	11.1	41.7	36.1	8.3	44.4	13.9	3.36
	음악	(100)	3.0	17.0	37.0	25.0	18.0	43.0	20.0	3.38
	영화	(19)	10.5	42.1	31.6	10.5	5.3	15.8	52.6	2.58
	만화	(2)	0.0	0.0	0.0	50.0	50.0	100.0	0.0	4.50
	연예(방송, 공연)	(10)	0.0	30.0	40.0	30.0	0.0	30.0	30.0	3.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24.1	34.5	24.1	13.8	37.9	27.6	3.21
	3년 미만	(23)	0.0	34.8	34.8	17.4	13.0	30.4	34.8	3.09
	3~5년	(40)	0.0	20.0	45.0	25.0	10.0	35.0	20.0	3.25
	6~10년	(67)	6.0	17.9	41.8	28.4	6.0	34.3	23.9	3.10
	11~20년	(121)	5.0	19.0	34.7	28.1	13.2	41.3	24.0	3.2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5.4	19.0	37.5	22.6	15.5	38.1	24.4	3.24
	가능	(382)	4.7	19.9	37.2	24.9	13.4	38.2	24.6	3.22
	불가능	(37)	2.7	18.9	45.9	27.0	5.4	32.4	21.6	3.14

문5. 현재 귀하의 예술활동 및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 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만족	다소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매우 만족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1.9	26.7	38.4	16.7	6.2	22.9	38.7	2.79
거주지 1	성남	(290)	10.3	30.7	37.9	15.2	5.9	21.0	41.0	2.7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0.0	16.3	35.0	23.8	5.0	28.8	36.3	2.78
	서울	(49)	8.2	20.4	46.9	14.3	10.2	24.5	28.6	2.98
거주지 2	수정구	(64)	6.3	32.8	39.1	17.2	4.7	21.9	39.1	2.81
	중원구	(56)	16.1	28.6	39.3	8.9	7.1	16.1	44.6	2.63
	분당구	(170)	10.0	30.6	37.1	16.5	5.9	22.4	40.6	2.7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6.2	27.5	36.3	17.2	2.9	20.1	43.6	2.63
	겸업	(215)	7.9	26.0	40.5	16.3	9.3	25.6	34.0	2.93
성별	여성	(225)	11.6	25.8	36.9	18.7	7.1	25.8	37.3	2.84
	남성	(194)	12.4	27.8	40.2	14.4	5.2	19.6	40.2	2.72
연령	20대 이하	(43)	9.3	25.6	51.2	9.3	4.7	14.0	34.9	2.74
	30대	(103)	10.7	29.1	35.9	17.5	6.8	24.3	39.8	2.81
	40대	(152)	12.5	28.3	34.2	19.1	5.9	25.0	40.8	2.78
	50대	(86)	15.1	24.4	40.7	14.0	5.8	19.8	39.5	2.71
	60대 이상	(35)	8.6	20.0	42.9	20.0	8.6	28.6	28.6	3.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1.2	26.4	37.6	16.9	7.9	24.7	37.6	2.84
	성남 외 경기	(107)	12.1	25.2	41.1	17.8	3.7	21.5	37.4	2.76
	서울	(117)	14.5	29.1	38.5	13.7	4.3	17.9	43.6	2.64
	그 외 지역	(17)	0.0	23.5	29.4	29.4	17.6	47.1	23.5	3.41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31.8	36.4	9.1	4.5	13.6	50.0	2.50
	사진	(11)	18.2	45.5	27.3	9.1	0.0	9.1	63.6	2.27
	미술	(106)	9.4	28.3	35.8	17.9	8.5	26.4	37.7	2.88
	국악	(47)	12.8	31.9	34.0	19.1	2.1	21.3	44.7	2.66
	무용	(37)	13.5	27.0	45.9	5.4	8.1	13.5	40.5	2.68
	연극	(36)	8.3	25.0	44.4	19.4	2.8	22.2	33.3	2.83
	음악	(100)	10.0	18.0	45.0	21.0	6.0	27.0	28.0	2.95
	영화	(19)	31.6	42.1	15.8	10.5	0.0	10.5	73.7	2.05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 공연)	(10)	0.0	20.0	50.0	30.0	0.0	30.0	20.0	3.1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13.8	27.6	31.0	10.3	17.2	27.6	41.4	2.90
	3년 미만	(23)	0.0	34.8	47.8	4.3	13.0	17.4	34.8	2.96
	3~5년	(40)	12.5	25.0	42.5	15.0	5.0	20.0	37.5	2.75
	6~10년	(67)	11.9	37.3	37.3	9.0	4.5	13.4	49.3	2.57
	11~20년	(121)	11.6	25.6	33.9	20.7	8.3	28.9	37.2	2.8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13.7	22.6	39.9	19.0	4.8	23.8	36.3	2.79
	가능	(382)	12.0	27.0	38.2	16.8	6.0	22.8	39.0	2.78
	불가능	(37)	10.8	24.3	40.5	16.2	8.1	24.3	35.1	2.86

문6. 현재 귀하께서 예술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아래 문항 중 선택해 주십시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수입 감소 등 안정적 생계유지 의 어려움	예술활동 비용 조달의 어려움	미래의 불확실성 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	예술창작 또는 발표의 공간 및 기회 부재	지역문화 예술 공동체와 의 소통교류 창구부재	비대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역량의 부재	무응답
전 체		(419)	39.6	21.5	17.7	11.2	4.8	4.8	0.5
거주지 1	성남	(290)	39.0	23.1	16.6	11.0	5.5	4.1	0.7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0.0	16.3	16.3	8.8	2.5	6.3	0.0
	서울	(49)	26.5	20.4	26.5	16.3	4.1	6.1	0.0
거주지 2	수정구	(64)	50.0	26.6	10.9	1.6	3.1	4.7	3.1
	중원구	(56)	41.1	28.6	16.1	10.7	1.8	1.8	0.0
	분당구	(170)	34.1	20.0	18.8	14.7	7.6	4.7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0.0	20.1	19.1	3.4	1.5	4.9	1.0
	겸업	(215)	29.8	22.8	16.3	18.6	7.9	4.7	0.0
성별	여성	(225)	31.1	22.7	19.6	15.1	5.3	5.8	0.4
	남성	(194)	49.5	20.1	15.5	6.7	4.1	3.6	0.5
연령	20대 이하	(43)	41.9	18.6	27.9	4.7	4.7	2.3	0.0
	30대	(103)	48.5	12.6	20.4	12.6	1.0	3.9	1.0
	40대	(152)	31.6	23.0	19.1	13.2	6.6	5.9	0.7
	50대	(86)	43.0	26.7	14.0	9.3	3.5	3.5	0.0
	60대 이상	(35)	37.1	31.4	0.0	11.4	11.4	8.6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0.4	20.8	16.3	10.7	4.5	7.3	0.0
	성남 외 경기	(107)	45.8	22.4	11.2	12.1	4.7	3.7	0.0
	서울	(117)	31.6	23.1	27.4	12.0	3.4	1.7	0.9
	그 외 지역	(17)	47.1	11.8	5.9	5.9	17.6	5.9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50.0	9.1	9.1	27.3	4.5	0.0	0.0
	사진	(11)	54.5	18.2	18.2	9.1	0.0	0.0	0.0
	미술	(106)	37.7	20.8	16.0	14.2	2.8	7.5	0.9
	국악	(47)	53.2	12.8	14.9	6.4	4.3	8.5	0.0
	무용	(37)	43.2	29.7	10.8	8.1	5.4	2.7	0.0
	연극	(36)	33.3	27.8	16.7	8.3	5.6	5.6	2.8
	음악	(100)	37.0	20.0	23.0	9.0	7.0	4.0	0.0
	영화	(19)	47.4	31.6	21.1	0.0	0.0	0.0	0.0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10.0	30.0	2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0.7	34.5	13.8	17.2	10.3	3.4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26.1	26.1	26.1	4.3	13.0	4.3	0.0
	3~5년	(40)	50.0	17.5	17.5	15.0	0.0	0.0	0.0
	6~10년	(67)	41.8	11.9	28.4	13.4	1.5	1.5	1.5
	11~20년	(121)	34.7	25.6	15.7	13.2	5.0	5.0	0.8
	20년 이상	(168)	41.7	22.6	13.7	8.9	6.0	7.1	0.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9.0	22.0	17.3	11.5	4.7	5.0	0.5
	불가능	(37)	45.9	16.2	21.6	8.1	5.4	2.7	0.0

문7. 최근 1년간(2019.1.1.~12.31) 기준으로 귀하는 예술 분야에서 전업으로 활동하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19)	63.2	36.8
거주지 1	성남	(290)	63.4	36.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67.5	32.5
	서울	(49)	55.1	44.9
거주지 2	수정구	(64)	70.3	29.7
	중원구	(56)	60.7	39.3
	분당구	(170)	61.8	38.2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81.9	18.1
	겸업	(215)	45.6	54.4
성별	여성	(225)	60.0	40.0
	남성	(194)	67.0	33.0
연령	20대 이하	(43)	44.2	55.8
	30대	(103)	65.0	35.0
	40대	(152)	67.8	32.2
	50대	(86)	59.3	40.7
	60대 이상	(35)	71.4	2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6.9	33.1
	성남 외 경기	(107)	60.7	39.3
	서울	(117)	58.1	41.9
	그 외 지역	(17)	76.5	23.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5.5	54.5
	사진	(11)	63.6	36.4
	미술	(106)	54.7	45.3
	국악	(47)	83.0	17.0
	무용	(37)	70.3	29.7
	연극	(36)	50.0	50.0
	음악	(100)	75.0	25.0
	영화	(19)	42.1	57.9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70.0	3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1.7	48.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26.1	73.9
	3~5년	(40)	42.5	57.5
	6~10년	(67)	59.7	40.3
	11~20년	(121)	65.3	34.7
	20년 이상	(168)	73.2	26.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5.4	34.6
	불가능	(37)	40.5	59.5

문7-1. 예술 분야 고용형태는 어떻습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고용주	기타
전 체		(265)	12.1	43.8	6.0	13.2	24.9
거주지 1	성남	(184)	6.0	46.2	5.4	15.8	26.6
	성남시 외 경기지역	(54)	27.8	35.2	9.3	5.6	22.2
	서울	(27)	22.2	44.4	3.7	11.1	18.5
거주지 2	수정구	(45)	4.4	37.8	17.8	8.9	31.1
	중원구	(34)	5.9	50.0	0.0	20.6	23.5
	분당구	(105)	6.7	48.6	1.9	17.1	25.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67)	13.2	39.5	7.2	12.6	27.5
	겸업	(98)	10.2	51.0	4.1	14.3	20.4
성별	여성	(135)	8.1	47.4	6.7	14.8	23.0
	남성	(130)	16.2	40.0	5.4	11.5	26.9
연령	20대 이하	(19)	5.3	21.1	31.6	5.3	36.8
	30대	(67)	6.0	52.2	7.5	11.9	22.4
	40대	(103)	20.4	48.5	1.9	12.6	16.5
	50대	(51)	9.8	33.3	2.0	25.5	29.4
	60대 이상	(25)	4.0	40.0	8.0	0.0	48.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19)	16.0	47.9	2.5	14.3	19.3
	성남 외 경기	(65)	7.7	35.4	15.4	10.8	30.8
	서울	(68)	8.8	47.1	1.5	13.2	29.4
	그 외 지역	(13)	15.4	30.8	15.4	15.4	23.1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0)	0.0	50.0	20.0	0.0	30.0
	사진	(7)	0.0	42.9	14.3	14.3	28.6
	미술	(58)	3.4	32.8	5.2	12.1	46.6
	국악	(39)	17.9	61.5	7.7	2.6	10.3
	무용	(26)	7.7	61.5	0.0	19.2	11.5
	연극	(18)	11.1	16.7	16.7	33.3	22.2
	음악	(75)	20.0	45.3	2.7	12.0	20.0
	영화	(8)	0.0	62.5	12.5	12.5	12.5
	만화	(2)	0.0	50.0	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7)	0.0	28.6	14.3	28.6	28.6
	기타(다원예술 등)	(15)	26.7	26.7	0.0	20.0	26.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6)	33.3	33.3	16.7	0.0	16.7
	3~5년	(17)	11.8	23.5	17.6	11.8	35.3
	6~10년	(40)	5.0	40.0	12.5	12.5	30.0
	11~20년	(79)	11.4	46.8	3.8	11.4	26.6
	20년 이상	(123)	13.8	46.3	3.3	15.4	21.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250)	10.8	44.0	6.4	14.0	24.8
	불가능	(15)	33.3	40.0	0.0	0.0	26.7

문7-2. 예술활동 외 다른 일자리를 갖게 된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술활동에 서의 낮은 소득	예술활동에 서의 고용 불안정	예술활동에 서의 열악한 작업환경	예술활동을 위한 비용 마련	기타	무응답
전 체		(154)	60.4	14.9	3.9	13.0	7.1	0.6
거주지 1	성남	(106)	67.0	13.2	4.7	9.4	5.7	0.0
	성남시 외 경기지역	(26)	57.7	15.4	3.8	19.2	3.8	0.0
	서울	(22)	31.8	22.7	0.0	22.7	18.2	4.5
거주지 2	수정구	(19)	78.9	15.8	0.0	0.0	5.3	0.0
	중원구	(22)	77.3	9.1	4.5	9.1	0.0	0.0
	분당구	(65)	60.0	13.8	6.2	12.3	7.7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37)	56.8	18.9	0.0	13.5	8.1	2.7
	겸업	(117)	61.5	13.7	5.1	12.8	6.8	0.0
성별	여성	(90)	56.7	16.7	3.3	14.4	7.8	1.1
	남성	(64)	65.6	12.5	4.7	10.9	6.3	0.0
연령	20대 이하	(24)	62.5	12.5	4.2	12.5	8.3	0.0
	30대	(36)	61.1	8.3	5.6	13.9	8.3	2.8
	40대	(49)	57.1	18.4	2.0	16.3	6.1	0.0
	50대	(35)	60.0	22.9	0.0	11.4	5.7	0.0
	60대 이상	(10)	70.0	0.0	20.0	0.0	10.0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59)	72.9	6.8	1.7	10.2	8.5	0.0
	성남 외 경기	(42)	61.9	23.8	2.4	9.5	2.4	0.0
	서울	(49)	44.9	16.3	6.1	20.4	10.2	2.0
	그 외 지역	(4)	50.0	25.0	25.0	0.0	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2)	66.7	8.3	16.7	8.3	0.0	0.0
	사진	(4)	75.0	0.0	25.0	0.0	0.0	0.0
	미술	(48)	58.3	10.4	4.2	18.8	8.3	0.0
	국악	(8)	37.5	50.0	0.0	0.0	12.5	0.0
	무용	(11)	36.4	18.2	9.1	18.2	18.2	0.0
	연극	(18)	72.2	16.7	0.0	0.0	5.6	5.6
	음악	(25)	68.0	12.0	0.0	20.0	0.0	0.0
	영화	(11)	45.5	45.5	0.0	9.1	0.0	0.0
	연예(방송,공연)	(3)	100.0	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14)	64.3	0.0	0.0	14.3	21.4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7)	58.8	11.8	0.0	17.6	11.8	0.0
	3~5년	(23)	65.2	8.7	4.3	17.4	4.3	0.0
	6~10년	(27)	59.3	11.1	7.4	11.1	7.4	3.7
	11~20년	(42)	71.4	11.9	2.4	7.1	7.1	0.0
	20년 이상	(45)	48.9	24.4	4.4	15.6	6.7	0.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32)	60.6	15.9	3.8	12.1	6.8	0.8
	불가능	(22)	59.1	9.1	4.5	18.2	9.1	0.0

문7-3. 예술활동 외 다른 일을 한 적이 있다면, 그 일은 어떤 일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본인의 예술활동과 관련 직종	본인의 예술활동과 무관 직종
전 체		(154)	54.5	45.5
거주지 1	성남	(106)	55.7	44.3
	성남시 외 경기지역	(26)	50.0	50.0
	서울	(22)	54.5	45.5
	수정구	(19)	52.6	47.4
거주지 2	중원구	(22)	40.9	59.1
	분당구	(65)	61.5	38.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37)	45.9	54.1
	겸업	(117)	57.3	42.7
성별	여성	(90)	60.0	40.0
	남성	(64)	46.9	53.1
연령	20대 이하	(24)	41.7	58.3
	30대	(36)	52.8	47.2
	40대	(49)	59.2	40.8
	50대	(35)	60.0	40.0
	60대 이상	(10)	50.0	5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59)	42.4	57.6
	성남 외 경기	(42)	57.1	42.9
	서울	(49)	69.4	30.6
	그 외 지역	(4)	25.0	75.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2)	50.0	50.0
	사진	(4)	50.0	50.0
	미술	(48)	60.4	39.6
	국악	(8)	12.5	87.5
	무용	(11)	63.6	36.4
	연극	(18)	38.9	61.1
	음악	(25)	52.0	48.0
	영화	(11)	72.7	27.3
	연예(방송, 공연)	(3)	66.7	33.3
	기타(다원예술 등)	(14)	64.3	35.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7)	35.3	64.7
	3~5년	(23)	39.1	60.9
	6~10년	(27)	63.0	37.0
	11~20년	(42)	57.1	42.9
	20년 이상	(45)	62.2	37.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32)	59.1	40.9
	불가능	(22)	27.3	72.7

문7-4. 예술활동 외 다른일은 귀하의 예술활동과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예술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154)	7.8	14.9	31.8	35.7	9.7	45.5	22.7	3.25
거주지 1	성남	(106)	7.5	15.1	29.2	35.8	12.3	48.1	22.6	3.30
	성남시 외 경기지역	(26)	11.5	15.4	42.3	30.8	0.0	30.8	26.9	2.92
	서울	(22)	4.5	13.6	31.8	40.9	9.1	50.0	18.2	3.36
	수정구	(19)	5.3	10.5	42.1	26.3	15.8	42.1	15.8	3.37
거주지 2	중원구	(22)	13.6	18.2	22.7	40.9	4.5	45.5	31.8	3.05
	분당구	(65)	6.2	15.4	27.7	36.9	13.8	50.8	21.5	3.3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37)	21.6	13.5	37.8	16.2	10.8	27.0	35.1	2.81
	겸업	(117)	3.4	15.4	29.9	41.9	9.4	51.3	18.8	3.38
성별	여성	(90)	6.7	14.4	30.0	38.9	10.0	48.9	21.1	3.31
	남성	(64)	9.4	15.6	34.4	31.3	9.4	40.6	25.0	3.16
연령	20대 이하	(24)	20.8	20.8	29.2	29.2	0.0	29.2	41.7	2.67
	30대	(36)	11.1	19.4	16.7	44.4	8.3	52.8	30.6	3.19
	40대	(49)	2.0	10.2	38.8	38.8	10.2	49.0	12.2	3.45
	50대	(35)	2.9	11.4	37.1	28.6	20.0	48.6	14.3	3.51
	60대 이상	(10)	10.0	20.0	40.0	30.0	0.0	30.0	30.0	2.90
주요활동 지역	성남	(59)	8.5	20.3	23.7	35.6	11.9	47.5	28.8	3.22
	성남 외 경기	(42)	7.1	11.9	33.3	40.5	7.1	47.6	19.0	3.29
	서울	(49)	6.1	12.2	40.8	32.7	8.2	40.8	18.4	3.24
	그 외 지역	(4)	25.0	0.0	25.0	25.0	25.0	50.0	25.0	3.2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2)	8.3	8.3	41.7	41.7	0.0	41.7	16.7	3.17
	사진	(4)	0.0	0.0	100.0	0.0	0.0	0.0	0.0	3.00
	미술	(48)	10.4	14.6	31.3	31.3	12.5	43.8	25.0	3.21
	국악	(8)	12.5	25.0	12.5	50.0	0.0	50.0	37.5	3.00
	무용	(11)	0.0	18.2	27.3	36.4	18.2	54.5	18.2	3.55
	연극	(18)	11.1	16.7	38.9	27.8	5.6	33.3	27.8	3.00
	음악	(25)	8.0	16.0	24.0	44.0	8.0	52.0	24.0	3.28
	영화	(11)	0.0	18.2	45.5	27.3	9.1	36.4	18.2	3.27
	연예(방송,공연)	(3)	0.0	33.3	0.0	66.7	0.0	66.7	33.3	3.33
	기타(다원예술 등)	(14)	7.1	7.1	21.4	42.9	21.4	64.3	14.3	3.6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7)	11.8	29.4	35.3	23.5	0.0	23.5	41.2	2.71
	3~5년	(23)	17.4	13.0	21.7	34.8	13.0	47.8	30.4	3.13
	6~10년	(27)	11.1	14.8	33.3	40.7	0.0	40.7	25.9	3.04
	11~20년	(42)	4.8	16.7	28.6	35.7	14.3	50.0	21.4	3.38
	20년 이상	(45)	2.2	8.9	37.8	37.8	13.3	51.1	11.1	3.5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32)	7.6	12.1	31.1	38.6	10.6	49.2	19.7	3.33
	불가능	(22)	9.1	31.8	36.4	18.2	4.5	22.7	40.9	2.77

문7-4. 예술활동 외 다른일은 귀하의 예술활동과 생계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생계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다소 도움됨	매우 도움됨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154)	3.9	12.3	26.0	35.7	22.1	57.8	16.2	3.60
거주지 1	성남	(106)	3.8	12.3	24.5	37.7	21.7	59.4	16.0	3.61
	성남시 외 경기지역	(26)	7.7	11.5	26.9	30.8	23.1	53.8	19.2	3.50
	서울	(22)	0.0	13.6	31.8	31.8	22.7	54.5	13.6	3.64
	수정구	(19)	0.0	21.1	31.6	36.8	10.5	47.4	21.1	3.37
거주지 2	중원구	(22)	0.0	13.6	27.3	36.4	22.7	59.1	13.6	3.68
	분당구	(65)	6.2	9.2	21.5	38.5	24.6	63.1	15.4	3.6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37)	5.4	21.6	27.0	29.7	16.2	45.9	27.0	3.30
	겸업	(117)	3.4	9.4	25.6	37.6	23.9	61.5	12.8	3.69
성별	여성	(90)	3.3	18.9	18.9	37.8	21.1	58.9	22.2	3.54
	남성	(64)	4.7	3.1	35.9	32.8	23.4	56.3	7.8	3.67
연령	20대 이하	(24)	0.0	12.5	41.7	37.5	8.3	45.8	12.5	3.42
	30대	(36)	2.8	11.1	11.1	41.7	33.3	75.0	13.9	3.92
	40대	(49)	6.1	12.2	22.4	38.8	20.4	59.2	18.4	3.55
	50대	(35)	2.9	11.4	34.3	22.9	28.6	51.4	14.3	3.63
	60대 이상	(10)	10.0	20.0	30.0	40.0	0.0	40.0	30.0	3.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59)	3.4	13.6	25.4	33.9	23.7	57.6	16.9	3.61
	성남 외 경기	(42)	4.8	16.7	28.6	33.3	16.7	50.0	21.4	3.40
	서울	(49)	4.1	8.2	24.5	38.8	24.5	63.3	12.2	3.71
	그 외 지역	(4)	0.0	0.0	25.0	50.0	25.0	75.0	0.0	4.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2)	0.0	25.0	16.7	41.7	16.7	58.3	25.0	3.50
	사진	(4)	25.0	0.0	0.0	25.0	50.0	75.0	25.0	3.75
	미술	(48)	2.1	6.3	29.2	33.3	29.2	62.5	8.3	3.81
	국악	(8)	0.0	12.5	25.0	62.5	0.0	62.5	12.5	3.50
	무용	(11)	18.2	9.1	18.2	36.4	18.2	54.5	27.3	3.27
	연극	(18)	5.6	22.2	22.2	33.3	16.7	50.0	27.8	3.33
	음악	(25)	0.0	20.0	28.0	40.0	12.0	52.0	20.0	3.44
	영화	(11)	9.1	9.1	45.5	27.3	9.1	36.4	18.2	3.18
	연예(방송, 공연)	(3)	0.0	0.0	66.7	0.0	33.3	33.3	0.0	3.67
	기타(다원예술 등)	(14)	0.0	7.1	14.3	35.7	42.9	78.6	7.1	4.1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7)	0.0	17.6	41.2	35.3	5.9	41.2	17.6	3.29
	3~5년	(23)	0.0	8.7	21.7	43.5	26.1	69.6	8.7	3.87
	6~10년	(27)	3.7	25.9	7.4	33.3	29.6	63.0	29.6	3.59
	11~20년	(42)	7.1	4.8	14.3	47.6	26.2	73.8	11.9	3.81
	20년 이상	(45)	4.4	11.1	44.4	22.2	17.8	40.0	15.6	3.3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32)	4.5	12.1	22.7	37.1	23.5	60.6	16.7	3.63
	불가능	(22)	0.0	13.6	45.5	27.3	13.6	40.9	13.6	3.41

문8. 귀하는 국가공인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19)	17.9	82.1
거주지 1	성남	(290)	19.3	80.7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0.0	90.0
	서울	(49)	22.4	77.6
거주지 2	수정구	(64)	15.6	84.4
	중원구	(56)	21.4	78.6
	분당구	(170)	20.0	8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6.2	83.8
	겸업	(215)	19.5	80.5
성별	여성	(225)	22.7	77.3
	남성	(194)	12.4	87.6
연령	20대 이하	(43)	9.3	90.7
	30대	(103)	16.5	83.5
	40대	(152)	16.4	83.6
	50대	(86)	19.8	80.2
	60대 이상	(35)	34.3	6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8.0	82.0
	성남 외 경기	(107)	21.5	78.5
	서울	(117)	13.7	86.3
	그 외 지역	(17)	23.5	76.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3.6	86.4
	사진	(11)	18.2	81.8
	미술	(106)	15.1	84.9
	국악	(47)	29.8	70.2
	무용	(37)	48.6	51.4
	연극	(36)	13.9	86.1
	음악	(100)	11.0	89.0
	영화	(19)	15.8	84.2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0.0	10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0.3	89.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	95.7
	3~5년	(40)	12.5	87.5
	6~10년	(67)	13.4	86.6
	11~20년	(121)	20.7	79.3
	20년 이상	(168)	20.8	79.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9.6	80.4
	불가능	(37)	0.0	100.0

문9. 귀하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각 해당 항목에 빠짐없이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

구 분		사례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예술인 복지재단 산재보험	직장 산재보험
전 체		(419)	60.9	86.2	34.8	9.8	27.4
거주지 1	성남	(290)	59.0	84.8	33.4	9.3	24.5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66.3	90.0	40.0	11.3	36.3
	서울	(49)	63.3	87.8	34.7	10.2	30.6
거주지 2	수정구	(64)	59.4	78.1	37.5	12.5	26.6
	중원구	(56)	50.0	83.9	28.6	7.1	21.4
	분당구	(170)	61.8	87.6	33.5	8.8	24.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6.9	83.8	32.8	9.3	26.5
	겸업	(215)	64.7	88.4	36.7	10.2	28.4
성별	여성	(225)	61.3	86.7	34.7	8.0	24.0
	남성	(194)	60.3	85.6	35.1	11.9	31.4
연령	20대 이하	(43)	41.9	60.5	25.6	7.0	7.0
	30대	(103)	52.4	79.6	38.8	16.5	35.0
	40대	(152)	67.1	92.8	38.8	11.2	33.6
	50대	(86)	66.3	91.9	34.9	4.7	25.6
	60대 이상	(35)	68.6	94.3	17.1	0.0	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2.9	83.1	34.3	7.9	30.9
	성남 외 경기	(107)	61.7	87.9	34.6	14.0	24.3
	서울	(117)	56.4	88.9	35.9	7.7	24.8
	그 외 지역	(17)	64.7	88.2	35.3	17.6	29.4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72.7	95.5	36.4	13.6	22.7
	사진	(11)	63.6	90.9	18.2	0.0	9.1
	미술	(106)	43.4	84.0	25.5	2.8	15.1
	국악	(47)	76.6	95.7	36.2	19.1	36.2
	무용	(37)	54.1	83.8	43.2	5.4	24.3
	연극	(36)	58.3	77.8	41.7	19.4	36.1
	음악	(100)	68.0	87.0	44.0	13.0	40.0
	영화	(19)	57.9	89.5	21.1	0.0	15.8
	만화	(2)	100.0	10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70.0	20.0	1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75.9	82.8	37.9	10.3	31.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39.1	65.2	21.7	13.0	17.4
	3~5년	(40)	60.0	77.5	40.0	12.5	27.5
	6~10년	(67)	49.3	80.6	20.9	13.4	14.9
	11~20년	(121)	57.0	84.3	42.1	9.1	33.9
	20년 이상	(168)	71.4	94.6	35.7	7.7	29.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2.0	87.7	35.6	9.4	27.5
	불가능	(37)	48.6	70.3	27.0	13.5	27.0

문10. 귀하는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에서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셨습니다가?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19)	48.2	51.8
거주지 1	성남	(290)	53.4	46.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5.0	65.0
	서울	(49)	38.8	61.2
거주지 2	수정구	(64)	62.5	37.5
	중원구	(56)	62.5	37.5
	분당구	(170)	47.1	52.9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6.9	43.1
	겸업	(215)	40.0	60.0
성별	여성	(225)	44.4	55.6
	남성	(194)	52.6	47.4
연령	20대 이하	(43)	48.8	51.2
	30대	(103)	56.3	43.7
	40대	(152)	52.0	48.0
	50대	(86)	39.5	60.5
	60대 이상	(35)	28.6	71.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6.0	64.0
	성남 외 경기	(107)	52.3	47.7
	서울	(117)	59.8	40.2
	그 외 지역	(17)	70.6	29.4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0.9	59.1
	사진	(11)	63.6	36.4
	미술	(106)	51.9	48.1
	국악	(47)	53.2	46.8
	무용	(37)	59.5	40.5
	연극	(36)	61.1	38.9
	음악	(100)	31.0	69.0
	영화	(19)	57.9	42.1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6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8.3	51.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8.7	91.3
	3~5년	(40)	55.0	45.0
	6~10년	(67)	59.7	40.3
	11~20년	(121)	57.0	43.0
	20년 이상	(168)	41.1	58.9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50.0	50.0
	불가능	(37)	29.7	70.3

문10-1. 예술활동증명을 신청하지 않으신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증빙서류 준비 등 신청절차가 까다로워서	신청하는 수고에비해 실익이 많지 않아서	본인의 예술활동 경력이 자격요건에 맞지 않아서	적합한 실적을 채우기 어려운 신진예술인 이어서	예술활동증명 방법을 알지 못해서	기타
전 체		(217)	15.7	13.8	9.2	3.7	44.7	12.9
거주지 1	성남	(135)	13.3	13.3	8.9	3.7	46.7	14.1
	성남시 외 경기지역	(52)	21.2	13.5	13.5	0.0	36.5	15.4
	서울	(30)	16.7	16.7	3.3	10.0	50.0	3.3
거주지 2	수정구	(24)	16.7	0.0	8.3	12.5	50.0	12.5
	중원구	(21)	19.0	9.5	19.0	4.8	47.6	0.0
	분당구	(90)	11.1	17.8	6.7	1.1	45.6	17.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88)	20.5	8.0	10.2	0.0	44.3	17.0
	겸업	(129)	12.4	17.8	8.5	6.2	45.0	10.1
성별	여성	(125)	14.4	12.0	7.2	4.0	47.2	15.2
	남성	(92)	17.4	16.3	12.0	3.3	41.3	9.8
연령	20대 이하	(22)	0.0	4.5	18.2	22.7	45.5	9.1
	30대	(45)	24.4	28.9	6.7	4.4	26.7	8.9
	40대	(73)	17.8	8.2	11.0	0.0	46.6	16.4
	50대	(52)	13.5	11.5	3.8	0.0	55.8	15.4
	60대 이상	(25)	12.0	16.0	12.0	4.0	48.0	8.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14)	9.6	9.6	7.9	5.3	50.9	16.7
	성남 외 경기	(51)	23.5	23.5	11.8	2.0	31.4	7.8
	서울	(47)	17.0	14.9	8.5	2.1	46.8	10.6
	그 외 지역	(5)	60.0	0.0	20.0	0.0	2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3)	23.1	15.4	0.0	7.7	46.2	7.7
	사진	(4)	50.0	25.0	0.0	0.0	25.0	0.0
	미술	(51)	17.6	15.7	5.9	9.8	37.3	13.7
	국악	(22)	9.1	4.5	4.5	0.0	59.1	22.7
	무용	(15)	6.7	20.0	6.7	6.7	60.0	0.0
	연극	(14)	21.4	0.0	42.9	0.0	21.4	14.3
	음악	(69)	15.9	15.9	5.8	1.4	47.8	13.0
	영화	(8)	25.0	0.0	25.0	0.0	37.5	12.5
	연예(방송, 공연)	(6)	16.7	16.7	0.0	0.0	66.7	0.0
	기타(다원예술 등)	(15)	0.0	20.0	20.0	0.0	40.0	2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1)	4.8	0.0	19.0	19.0	52.4	4.8
	3~5년	(18)	5.6	33.3	16.7	5.6	22.2	16.7
	6~10년	(27)	33.3	11.1	7.4	3.7	33.3	11.1
	11~20년	(52)	17.3	11.5	15.4	1.9	42.3	11.5
	20년 이상	(99)	14.1	15.2	3.0	1.0	51.5	15.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91)	16.2	14.1	7.9	1.6	46.6	13.6
	불가능	(26)	11.5	11.5	19.2	19.2	30.8	7.7

문11.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 개인의 연평균 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없음	499 만원 이하	500 ~ 999 만원	1000 ~ 1499 만원	1500 ~ 1999 만원	2000 ~ 2499 만원	2500 ~ 2999 만원	3000 ~ 3999 만원	4000 ~ 4999 만원	5000 만원 이상
전 체		(419)	4.8	14.8	14.3	12.9	11.9	11.0	5.7	13.1	4.5	6.9
거주지 1	성남	(290)	4.8	17.2	14.1	14.8	11.4	12.1	5.9	10.0	3.4	6.2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5	8.8	15.0	5.0	11.3	8.8	5.0	25.0	6.3	7.5
	서울	(49)	0.0	10.2	14.3	14.3	16.3	8.2	6.1	12.2	8.2	10.2
거주지 2	수정구	(64)	4.7	18.8	14.1	17.2	9.4	14.1	9.4	7.8	3.1	1.6
	중원구	(56)	7.1	14.3	12.5	16.1	19.6	7.1	5.4	5.4	7.1	5.4
	분당구	(170)	4.1	17.6	14.7	13.5	9.4	12.9	4.7	12.4	2.4	8.2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3.9	14.7	14.2	16.2	11.3	10.8	5.9	13.2	4.4	5.4
	겸업	(215)	5.6	14.9	14.4	9.8	12.6	11.2	5.6	13.0	4.7	8.4
성별	여성	(225)	6.2	17.3	16.0	12.0	12.9	10.2	5.8	10.7	3.6	5.3
	남성	(194)	3.1	11.9	12.4	13.9	10.8	11.9	5.7	16.0	5.7	8.8
연령	20대 이하	(43)	9.3	32.6	18.6	14.0	9.3	2.3	4.7	7.0	0.0	2.3
	30대	(103)	3.9	11.7	14.6	15.5	12.6	15.5	5.8	12.6	2.9	4.9
	40대	(152)	4.6	13.2	11.8	11.8	11.8	9.9	4.6	17.1	6.6	8.6
	50대	(86)	2.3	11.6	12.8	12.8	15.1	14.0	5.8	10.5	5.8	9.3
	60대 이상	(35)	8.6	17.1	22.9	8.6	5.7	5.7	11.4	11.4	2.9	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5.6	18.0	15.2	9.0	10.7	7.3	6.7	14.6	5.1	7.9
	성남 외 경기	(107)	3.7	15.9	17.8	15.0	16.8	10.3	3.7	8.4	2.8	5.6
	서울	(117)	4.3	9.4	12.0	17.1	10.3	15.4	5.1	15.4	4.3	6.8
	그 외 지역	(17)	5.9	11.8	0.0	11.8	5.9	23.5	11.8	11.8	11.8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9.1	27.3	13.6	4.5	4.5	9.1	9.1	18.2	0.0	4.5
	사진	(11)	0.0	9.1	18.2	27.3	27.3	0.0	9.1	0.0	0.0	9.1
	미술	(106)	9.4	17.9	17.9	17.0	10.4	12.3	3.8	5.7	1.9	3.8
	국악	(47)	6.4	12.8	8.5	10.6	14.9	10.6	10.6	10.6	10.6	4.3
	무용	(37)	2.7	18.9	16.2	8.1	16.2	10.8	2.7	16.2	2.7	5.4
	연극	(36)	2.8	22.2	16.7	11.1	11.1	8.3	2.8	11.1	11.1	2.8
	음악	(100)	1.0	9.0	12.0	10.0	11.0	11.0	7.0	23.0	6.0	10.0
	영화	(19)	5.3	15.8	21.1	26.3	5.3	5.3	5.3	10.5	0.0	5.3
	만화	(2)	0.0	0.0	0.0	0.0	0.0	0.0	50.0	0.0	0.0	50.0
	연예(방송,공연)	(10)	0.0	0.0	0.0	10.0	20.0	40.0	0.0	10.0	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10.3	13.8	13.8	13.8	10.3	3.4	13.8	3.4	13.8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26.1	30.4	13.0	13.0	8.7	4.3	0.0	4.3	0.0	0.0
	3~5년	(40)	2.5	15.0	20.0	15.0	10.0	12.5	7.5	7.5	5.0	5.0
	6~10년	(67)	4.5	17.9	20.9	16.4	11.9	10.4	4.5	6.0	1.5	6.0
	11~20년	(121)	6.6	12.4	12.4	11.6	12.4	13.2	5.8	15.7	5.0	5.0
	20년 이상	(168)	1.2	13.1	11.9	11.9	12.5	10.1	6.5	16.7	6.0	10.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9	14.1	14.7	12.8	12.3	11.3	5.8	13.6	4.2	7.3
	불가능	(37)	13.5	21.6	10.8	13.5	8.1	8.1	5.4	8.1	8.1	2.7

문12.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의 개인의 연평균 소득 중 예술활동 수입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없음	30% 미만	30% 이상~50% 미만	50% 이상~70% 미만	70% 이상
전 체		(419)	15.8	28.4	13.8	6.7	35.3
거주지 1	성남	(290)	15.2	28.3	16.9	6.6	33.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7.5	27.5	8.8	6.3	40.0
	서울	(49)	16.3	30.6	4.1	8.2	40.8
거주지 2	수정구	(64)	10.9	34.4	9.4	6.3	39.1
	중원구	(56)	23.2	23.2	19.6	7.1	26.8
	분당구	(170)	14.1	27.6	18.8	6.5	32.9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7.4	18.1	13.2	8.8	52.5
	겸업	(215)	23.7	38.1	14.4	4.7	19.1
성별	여성	(225)	19.1	26.2	15.1	8.0	31.6
	남성	(194)	11.9	30.9	12.4	5.2	39.7
연령	20대 이하	(43)	27.9	30.2	16.3	4.7	20.9
	30대	(103)	7.8	29.1	16.5	6.8	39.8
	40대	(152)	14.5	26.3	11.8	7.2	40.1
	50대	(86)	15.1	27.9	16.3	8.1	32.6
	60대 이상	(35)	31.4	34.3	5.7	2.9	2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0.2	22.5	12.4	3.9	41.0
	성남 외 경기	(107)	14.0	37.4	16.8	5.6	26.2
	서울	(117)	11.1	30.8	13.7	10.3	34.2
	그 외 지역	(17)	11.8	17.6	11.8	17.6	41.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7.3	31.8	18.2	0.0	22.7
	사진	(11)	18.2	0.0	27.3	18.2	36.4
	미술	(106)	27.4	32.1	13.2	6.6	20.8
	국악	(47)	4.3	31.9	6.4	2.1	55.3
	무용	(37)	13.5	37.8	10.8	8.1	29.7
	연극	(36)	13.9	47.2	13.9	8.3	16.7
	음악	(100)	6.0	14.0	15.0	9.0	56.0
	영화	(19)	21.1	36.8	21.1	0.0	21.1
	만화	(2)	0.0	0.0	0.0	0.0	100.0
	연예(방송,공연)	(10)	20.0	0.0	0.0	20.0	6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37.9	20.7	3.4	20.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60.9	30.4	4.3	0.0	4.3
	3~5년	(40)	10.0	32.5	22.5	0.0	35.0
	6~10년	(67)	14.9	28.4	19.4	9.0	28.4
	11~20년	(121)	15.7	27.3	13.2	7.4	36.4
	20년 이상	(168)	11.3	28.0	11.3	7.7	41.7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3.6	28.8	14.4	7.3	35.9
	불가능	(37)	37.8	24.3	8.1	0.0	29.7

문13. 귀하의 전체 예술활동 수입을 구성하는 예술활동 유형별 비중에 대한 질문입니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술 창작활동 수입 비중	예술 실연활동 수입 비중	예술 기획활동(문화 기획 활동 포함) 수입 비중	예술 교육활동(강의 , 교육, 레슨 등) 수입 비중	예술 관련 기타활동
전 체		(419)	18.8	24.4	11.1	38.4	7.3
거주지 1	성남	(290)	19.3	23.6	11.1	36.9	9.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6.9	27.3	11.5	40.4	3.8
	서울	(49)	18.8	24.4	11.0	44.1	1.7
	수정구	(64)	24.5	23.5	15.4	29.3	7.4
거주지 2	중원구	(56)	19.0	25.3	9.7	34.4	11.6
	분당구	(170)	17.4	23.1	9.8	40.7	9.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21.9	29.4	10.6	32.7	5.4
	겸업	(215)	15.2	18.6	11.8	45.0	9.4
성별	여성	(225)	14.8	21.5	10.7	46.3	6.7
	남성	(194)	23.0	27.5	11.6	30.0	7.9
연령	20대 이하	(43)	21.9	30.2	13.4	22.5	12.0
	30대	(103)	19.9	26.4	12.6	35.5	5.6
	40대	(152)	17.3	25.0	10.0	41.5	6.2
	50대	(86)	19.5	22.1	12.7	37.1	8.7
	60대 이상	(35)	16.7	12.1	4.0	57.9	9.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5.4	28.7	12.4	38.0	5.5
	성남 외 경기	(107)	12.2	23.9	13.8	43.7	6.3
	서울	(117)	26.2	18.5	8.0	37.0	10.4
	그 외 지역	(17)	40.3	26.7	4.3	20.7	8.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7.8	3.9	14.3	41.3	12.8
	사진	(11)	32.2	1.7	5.6	53.3	7.2
	미술	(106)	33.7	6.8	11.0	36.7	11.9
	국악	(47)	9.6	45.6	7.7	33.4	3.8
	무용	(37)	5.6	19.9	8.3	56.4	9.8
	연극	(36)	27.6	28.5	11.0	31.5	1.5
	음악	(100)	8.2	38.0	11.4	39.1	3.4
	영화	(19)	31.0	11.0	7.0	32.7	18.3
	만화	(2)	87.5	0.0	0.0	1.5	11.0
	연예(방송, 공연)	(10)	30.0	31.3	16.3	16.3	6.3
	기타(다원예술 등)	(29)	7.9	18.8	23.0	42.5	7.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10.6	5.0	39.4	21.1	23.9
	3~5년	(40)	21.6	22.5	20.9	23.4	11.6
	6~10년	(67)	25.2	24.3	8.0	38.1	4.5
	11~20년	(121)	20.5	22.2	10.7	42.4	4.3
	20년 이상	(168)	15.0	27.5	8.6	40.5	8.3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8.1	24.0	10.4	40.6	6.9
	불가능	(37)	28.6	29.7	21.5	7.0	13.3

문14. 귀하께서 예술활동 수행 시 특히 창작에 필요한 예산을 충당하는 방법의 비중을 기입해 주십시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체조달	공적지원	기부/후원금	크라우드 펀딩	기타
전 체		(419)	64.0	28.2	4.5	0.2	3.1
거주지 1	성남	(290)	66.0	26.9	4.3	0.2	2.5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7.5	32.7	4.1	0.3	5.4
	서울	(49)	62.6	28.2	6.4	0.0	2.9
거주지 2	수정구	(64)	63.4	27.8	5.3	0.2	3.3
	중원구	(56)	62.6	35.0	1.4	0.2	0.7
	분당구	(170)	68.1	24.0	4.8	0.2	2.9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61.1	31.3	5.0	0.1	2.5
	겸업	(215)	66.7	25.3	4.0	0.3	3.8
성별	여성	(225)	63.7	27.5	4.3	0.2	4.2
	남성	(194)	64.3	29.0	4.7	0.2	1.8
연령	20대 이하	(43)	65.0	22.0	10.0	0.2	2.8
	30대	(103)	63.4	30.3	3.5	0.1	2.7
	40대	(152)	58.4	33.0	4.1	0.2	4.3
	50대	(86)	68.6	23.6	4.7	0.4	2.7
	60대 이상	(35)	77.7	20.1	1.4	0.0	0.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3.1	28.7	4.3	0.1	3.8
	성남 외 경기	(107)	59.2	32.9	6.2	0.5	1.1
	서울	(117)	69.1	24.3	3.4	0.1	3.1
	그 외 지역	(17)	68.5	19.4	2.9	0.0	9.1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82.8	13.7	1.7	0.6	1.1
	사진	(11)	69.5	30.5	0.0	0.0	0.0
	미술	(106)	73.5	19.6	3.8	0.3	2.7
	국악	(47)	47.2	34.8	8.6	0.3	9.1
	무용	(37)	61.6	29.9	6.4	0.0	2.2
	연극	(36)	51.1	41.0	5.4	0.0	2.5
	음악	(100)	61.5	30.6	4.0	0.2	3.8
	영화	(19)	77.4	18.7	3.2	0.3	0.5
	만화	(2)	10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63.3	29.7	7.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6.6	40.3	2.8	0.0	0.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69.3	18.9	9.1	0.2	2.4
	3~5년	(40)	57.1	35.4	5.5	0.3	1.8
	6~10년	(67)	72.5	23.4	3.6	0.1	0.3
	11~20년	(121)	63.6	29.4	3.0	0.1	3.8
	20년 이상	(168)	61.7	28.8	5.1	0.3	4.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3.1	29.4	4.0	0.2	3.3
	불가능	(37)	72.7	15.9	9.5	0.4	1.5

문15.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1) 예술(창작)활동 측면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40.6	33.2	20.5	3.8	1.9	5.7	73.7	1.93
거주지 1	성남	(290)	40.3	33.1	20.3	4.5	1.7	6.2	73.4	1.94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41.3	37.5	18.8	1.3	1.3	2.5	78.8	1.84
	서울	(49)	40.8	26.5	24.5	4.1	4.1	8.2	67.3	2.04
거주지 2	수정구	(64)	32.8	42.2	18.8	4.7	1.6	6.3	75.0	2.00
	중원구	(56)	37.5	39.3	19.6	1.8	1.8	3.6	76.8	1.91
	분당구	(170)	44.1	27.6	21.2	5.3	1.8	7.1	71.8	1.9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5.1	29.9	20.6	2.9	1.5	4.4	75.0	1.86
	겸업	(215)	36.3	36.3	20.5	4.7	2.3	7.0	72.6	2.00
성별	여성	(225)	45.8	28.9	18.7	4.4	2.2	6.7	74.7	1.88
	남성	(194)	34.5	38.1	22.7	3.1	1.5	4.6	72.7	1.99
연령	20대 이하	(43)	27.9	44.2	23.3	4.7	0.0	4.7	72.1	2.05
	30대	(103)	38.8	30.1	24.3	4.9	1.9	6.8	68.9	2.01
	40대	(152)	44.7	32.2	15.8	5.3	2.0	7.2	77.0	1.88
	50대	(86)	43.0	32.6	20.9	0.0	3.5	3.5	75.6	1.88
	60대 이상	(35)	37.1	34.3	25.7	2.9	0.0	2.9	71.4	1.9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2.1	30.9	21.3	2.8	2.8	5.6	73.0	1.93
	성남 외 경기	(107)	44.9	34.6	18.7	0.9	0.9	1.9	79.4	1.79
	서울	(117)	40.2	32.5	19.7	6.0	1.7	7.7	72.6	1.97
	그 외 지역	(17)	0.0	52.9	29.4	17.6	0.0	17.6	52.9	2.6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50.0	27.3	18.2	4.5	0.0	4.5	77.3	1.77
	사진	(11)	72.7	9.1	18.2	0.0	0.0	0.0	81.8	1.45
	미술	(106)	46.2	34.9	14.2	2.8	1.9	4.7	81.1	1.79
	국악	(47)	31.9	38.3	19.1	10.6	0.0	10.6	70.2	2.09
	무용	(37)	51.4	27.0	21.6	0.0	0.0	0.0	78.4	1.70
	연극	(36)	41.7	38.9	13.9	2.8	2.8	5.6	80.6	1.86
	음악	(100)	30.0	33.0	30.0	5.0	2.0	7.0	63.0	2.16
	영화	(19)	47.4	36.8	15.8	0.0	0.0	0.0	84.2	1.68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40.0	20.0	10.0	0.0	10.0	70.0	2.10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31.0	20.7	0.0	10.3	10.3	69.0	2.1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5	34.8	21.7	0.0	0.0	0.0	78.3	1.78
	3~5년	(40)	42.5	27.5	25.0	2.5	2.5	5.0	70.0	1.95
	6~10년	(67)	43.3	31.3	22.4	0.0	3.0	3.0	74.6	1.88
	11~20년	(121)	39.7	35.5	15.7	8.3	0.8	9.1	75.2	1.95
	20년 이상	(168)	39.3	33.3	22.0	3.0	2.4	5.4	72.6	1.9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41.9	31.4	20.7	4.2	1.8	6.0	73.3	1.93
	불가능	(37)	27.0	51.4	18.9	0.0	2.7	2.7	78.4	2.00

문15. 귀하의 연평균 소득은 예술가로 활동하고 생활하시는데 있어서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2) 생계 및 생활(경제) 측면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매우 불충분	다소 불충분	보통	약간 충분	매우 충분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42.7	31.5	20.5	3.3	1.9	5.3	74.2	1.90
거주지 1	성남	(290)	43.8	30.0	20.0	4.8	1.4	6.2	73.8	1.9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1.3	30.0	16.3	0.0	2.5	2.5	81.3	1.73
	서울	(49)	22.4	42.9	30.6	0.0	4.1	4.1	65.3	2.20
거주지 2	수정구	(64)	37.5	34.4	23.4	3.1	1.6	4.7	71.9	1.97
	중원구	(56)	51.8	30.4	12.5	3.6	1.8	5.4	82.1	1.73
	분당구	(170)	43.5	28.2	21.2	5.9	1.2	7.1	71.8	1.9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8.5	29.4	17.6	2.9	1.5	4.4	77.9	1.79
	겸업	(215)	37.2	33.5	23.3	3.7	2.3	6.0	70.7	2.00
성별	여성	(225)	48.0	28.0	17.8	4.9	1.3	6.2	76.0	1.84
	남성	(194)	36.6	35.6	23.7	1.5	2.6	4.1	72.2	1.98
연령	20대 이하	(43)	25.6	46.5	23.3	4.7	0.0	4.7	72.1	2.07
	30대	(103)	41.7	31.1	22.3	1.9	2.9	4.9	72.8	1.93
	40대	(152)	46.7	31.6	15.8	3.3	2.6	5.9	78.3	1.84
	50대	(86)	46.5	27.9	20.9	3.5	1.2	4.7	74.4	1.85
	60대 이상	(35)	40.0	22.9	31.4	5.7	0.0	5.7	62.9	2.03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4.9	29.2	21.9	1.7	2.2	3.9	74.2	1.87
	성남 외 경기	(107)	47.7	30.8	17.8	2.8	0.9	3.7	78.5	1.79
	서울	(117)	35.9	37.6	19.7	5.1	1.7	6.8	73.5	1.99
	그 외 지역	(17)	35.3	17.6	29.4	11.8	5.9	17.6	52.9	2.3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50.0	22.7	22.7	4.5	0.0	4.5	72.7	1.82
	사진	(11)	72.7	0.0	18.2	9.1	0.0	9.1	72.7	1.64
	미술	(106)	41.5	35.8	17.9	3.8	0.9	4.7	77.4	1.87
	국악	(47)	40.4	31.9	23.4	4.3	0.0	4.3	72.3	1.91
	무용	(37)	54.1	24.3	18.9	2.7	0.0	2.7	78.4	1.70
	연극	(36)	58.3	19.4	19.4	0.0	2.8	2.8	77.8	1.69
	음악	(100)	33.0	37.0	25.0	2.0	3.0	5.0	70.0	2.05
	영화	(19)	42.1	47.4	10.5	0.0	0.0	0.0	89.5	1.68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40.0	20.0	30.0	10.0	0.0	10.0	60.0	2.1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31.0	13.8	6.9	10.3	17.2	69.0	2.21
	3년 미만	(23)	26.1	47.8	26.1	0.0	0.0	0.0	73.9	2.00
	3~5년	(40)	42.5	32.5	20.0	2.5	2.5	5.0	75.0	1.90
	6~10년	(67)	41.8	28.4	25.4	0.0	4.5	4.5	70.1	1.97
	11~20년	(121)	43.8	32.2	17.4	5.0	1.7	6.6	76.0	1.8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44.6	29.8	20.2	4.2	1.2	5.4	74.4	1.88
	가능	(382)	44.8	29.8	19.9	3.7	1.8	5.5	74.6	1.88
	불가능	(37)	21.6	48.6	27.0	0.0	2.7	2.7	70.3	2.14

문16. 최근 1년간(2019.1.1. ~ 12.31.) 주 활동 분야의 예술작품 발표와 참여횟수는 모두 얼마나 되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0회	1회~3회	4회~6회	7회~9회	10회 이상
전 체		(419)	10.3	33.7	20.8	4.5	30.8
거주지 1	성남	(290)	10.3	34.5	20.0	4.1	31.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1.3	33.8	23.8	3.8	27.5
	서울	(49)	8.2	28.6	20.4	8.2	34.7
거주지 2	수정구	(64)	6.3	29.7	21.9	1.6	40.6
	중원구	(56)	8.9	39.3	17.9	3.6	30.4
	분당구	(170)	12.4	34.7	20.0	5.3	27.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7.4	27.0	18.1	5.9	41.7
	겸업	(215)	13.0	40.0	23.3	3.3	20.5
성별	여성	(225)	9.3	39.1	20.9	3.6	27.1
	남성	(194)	11.3	27.3	20.6	5.7	35.1
연령	20대 이하	(43)	7.0	60.5	14.0	4.7	14.0
	30대	(103)	8.7	33.0	21.4	1.9	35.0
	40대	(152)	12.5	29.6	20.4	6.6	30.9
	50대	(86)	12.8	27.9	24.4	3.5	31.4
	60대 이상	(35)	2.9	34.3	20.0	5.7	37.1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1.8	31.5	18.5	4.5	33.7
	성남 외 경기	(107)	6.5	33.6	22.4	5.6	31.8
	서울	(117)	11.1	39.3	23.9	4.3	21.4
	그 외 지역	(17)	11.8	17.6	11.8	0.0	58.8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5	63.6	18.2	0.0	13.6
	사진	(11)	27.3	54.5	9.1	9.1	0.0
	미술	(106)	8.5	49.1	24.5	4.7	13.2
	국악	(47)	6.4	17.0	17.0	6.4	53.2
	무용	(37)	5.4	29.7	32.4	10.8	21.6
	연극	(36)	16.7	36.1	22.2	2.8	22.2
	음악	(100)	5.0	17.0	17.0	3.0	58.0
	영화	(19)	31.6	42.1	15.8	0.0	10.5
	만화	(2)	0.0	10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0.0	10.0	20.0	0.0	7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31.0	20.7	6.9	13.8
	3년 미만	(23)	26.1	60.9	13.0	0.0	0.0
	3~5년	(40)	7.5	47.5	12.5	5.0	27.5
	6~10년	(67)	9.0	41.8	17.9	1.5	29.9
	11~20년	(121)	13.2	31.4	22.3	2.5	30.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7.1	25.0	23.8	7.7	36.3
	가능	(382)	9.9	32.2	21.7	5.0	31.2
	불가능	(37)	13.5	48.6	10.8	0.0	27.0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창작비용: 공공의 창작비용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38.7	48.7	12.6
거주지 1	성남	(290)	42.8	44.5	12.8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2.5	55.0	12.5
	서울	(49)	24.5	63.3	12.2
거주지 2	수정구	(64)	54.7	35.9	9.4
	중원구	(56)	46.4	39.3	14.3
	분당구	(170)	37.1	49.4	13.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37.7	49.0	13.2
	겸업	(215)	39.5	48.4	12.1
성별	여성	(225)	36.9	49.8	13.3
	남성	(194)	40.7	47.4	11.9
연령	20대 이하	(43)	48.8	44.2	7.0
	30대	(103)	43.7	39.8	16.5
	40대	(152)	32.9	52.6	14.5
	50대	(86)	39.5	52.3	8.1
	60대 이상	(35)	34.3	54.3	11.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8.8	51.1	10.1
	성남 외 경기	(107)	41.1	46.7	12.1
	서울	(117)	35.0	47.0	17.9
	그 외 지역	(17)	47.1	47.1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63.6	13.6
	사진	(11)	36.4	45.5	18.2
	미술	(106)	44.3	41.5	14.2
	국악	(47)	38.3	53.2	8.5
	무용	(37)	35.1	45.9	18.9
	연극	(36)	47.2	47.2	5.6
	음악	(100)	33.0	54.0	13.0
	영화	(19)	47.4	42.1	10.5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6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4.8	41.4	13.8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30.4	65.2	4.3
	3~5년	(40)	47.5	42.5	10.0
	6~10년	(67)	38.8	44.8	16.4
	11~20년	(121)	41.3	42.1	16.5
	20년 이상	(168)	35.7	54.2	10.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8.5	48.2	13.4
	불가능	(37)	40.5	54.1	5.4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창작비용: 민간의 창작비용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10.3	83.1	6.7
거주지 1	성남	(290)	10.0	82.1	7.9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0.0	85.0	5.0
	서울	(49)	12.2	85.7	2.0
거주지 2	수정구	(64)	12.5	84.4	3.1
	중원구	(56)	8.9	83.9	7.1
	분당구	(170)	9.4	80.6	1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0.3	83.8	5.9
	겸업	(215)	10.2	82.3	7.4
성별	여성	(225)	9.8	82.2	8.0
	남성	(194)	10.8	84.0	5.2
연령	20대 이하	(43)	9.3	79.1	11.6
	30대	(103)	17.5	76.7	5.8
	40대	(152)	9.2	84.2	6.6
	50대	(86)	7.0	88.4	4.7
	60대 이상	(35)	2.9	88.6	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2	88.2	5.6
	성남 외 경기	(107)	15.9	76.6	7.5
	서울	(117)	12.8	78.6	8.5
	그 외 지역	(17)	0.0	10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0.0	86.4	13.6
	사진	(11)	0.0	100.0	0.0
	미술	(106)	10.4	85.8	3.8
	국악	(47)	8.5	83.0	8.5
	무용	(37)	16.2	73.0	10.8
	연극	(36)	11.1	83.3	5.6
	음악	(100)	11.0	83.0	6.0
	영화	(19)	10.5	78.9	10.5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7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0.3	82.8	6.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8.7	87.0	4.3
	3~5년	(40)	5.0	85.0	10.0
	6~10년	(67)	13.4	79.1	7.5
	11~20년	(121)	12.4	79.3	8.3
	20년 이상	(168)	8.9	86.3	4.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0.7	83.2	6.0
	불가능	(37)	5.4	81.1	13.5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창작공간: 공공의 창작공간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17.4	74.5	8.1
거주지 1	성남	(290)	17.9	73.1	9.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8.8	72.5	8.8
	서울	(49)	12.2	85.7	2.0
거주지 2	수정구	(64)	31.3	65.6	3.1
	중원구	(56)	16.1	71.4	12.5
	분당구	(170)	13.5	76.5	1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7.2	76.5	6.4
	겸업	(215)	17.7	72.6	9.8
성별	여성	(225)	20.4	71.1	8.4
	남성	(194)	13.9	78.4	7.7
연령	20대 이하	(43)	32.6	60.5	7.0
	30대	(103)	15.5	76.7	7.8
	40대	(152)	15.8	73.7	10.5
	50대	(86)	12.8	80.2	7.0
	60대 이상	(35)	22.9	74.3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2.5	71.3	6.2
	성남 외 경기	(107)	16.8	72.9	10.3
	서울	(117)	11.1	78.6	10.3
	그 외 지역	(17)	11.8	88.2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9.1	81.8	9.1
	사진	(11)	9.1	72.7	18.2
	미술	(106)	19.8	74.5	5.7
	국악	(47)	8.5	83.0	8.5
	무용	(37)	18.9	64.9	16.2
	연극	(36)	11.1	80.6	8.3
	음악	(100)	21.0	73.0	6.0
	영화	(19)	21.1	68.4	10.5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8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65.5	6.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30.4	60.9	8.7
	3~5년	(40)	20.0	75.0	5.0
	6~10년	(67)	14.9	76.1	9.0
	11~20년	(121)	15.7	74.4	9.9
	20년 이상	(168)	17.3	75.6	7.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7.8	74.3	7.9
	불가능	(37)	13.5	75.7	10.8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창작공간: 민간의 창작공간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6.9	87.6	5.5
거주지 1	성남	(290)	7.2	86.2	6.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6.3	88.8	5.0
	서울	(49)	6.1	93.9	0.0
거주지 2	수정구	(64)	10.9	87.5	1.6
	중원구	(56)	7.1	85.7	7.1
	분당구	(170)	5.9	85.9	8.2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6.4	87.7	5.9
	겸업	(215)	7.4	87.4	5.1
성별	여성	(225)	8.0	85.3	6.7
	남성	(194)	5.7	90.2	4.1
연령	20대 이하	(43)	14.0	76.7	9.3
	30대	(103)	8.7	87.4	3.9
	40대	(152)	4.6	88.2	7.2
	50대	(86)	5.8	90.7	3.5
	60대 이상	(35)	5.7	91.4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5.1	90.4	4.5
	성남 외 경기	(107)	9.3	83.2	7.5
	서울	(117)	8.5	85.5	6.0
	그 외 지역	(17)	0.0	10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5	90.9	4.5
	사진	(11)	0.0	100.0	0.0
	미술	(106)	8.5	90.6	0.9
	국악	(47)	4.3	87.2	8.5
	무용	(37)	16.2	73.0	10.8
	연극	(36)	2.8	91.7	5.6
	음악	(100)	7.0	87.0	6.0
	영화	(19)	5.3	84.2	10.5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0.0	80.0	2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89.7	3.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8.7	87.0	4.3
	3~5년	(40)	2.5	90.0	7.5
	6~10년	(67)	10.4	86.6	3.0
	11~20년	(121)	6.6	86.8	6.6
	20년 이상	(168)	6.5	88.1	5.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7.3	87.4	5.2
	불가능	(37)	2.7	89.2	8.1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문화사업 공공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49.6	45.8	4.5
거주지 1	성남	(290)	50.3	45.9	3.8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1.3	42.5	6.3
	서울	(49)	42.9	51.0	6.1
거주지 2	수정구	(64)	60.9	35.9	3.1
	중원구	(56)	51.8	44.6	3.6
	분당구	(170)	45.9	50.0	4.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2.0	42.2	5.9
	겸업	(215)	47.4	49.3	3.3
성별	여성	(225)	46.2	48.0	5.8
	남성	(194)	53.6	43.3	3.1
연령	20대 이하	(43)	41.9	55.8	2.3
	30대	(103)	49.5	43.7	6.8
	40대	(152)	48.0	46.7	5.3
	50대	(86)	57.0	40.7	2.3
	60대 이상	(35)	48.6	48.6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55.6	41.6	2.8
	성남 외 경기	(107)	58.9	36.4	4.7
	서울	(117)	29.9	62.4	7.7
	그 외 지역	(17)	64.7	35.3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31.8	63.6	4.5
	사진	(11)	54.5	45.5	0.0
	미술	(106)	40.6	58.5	.9
	국악	(47)	72.3	25.5	2.1
	무용	(37)	54.1	40.5	5.4
	연극	(36)	44.4	47.2	8.3
	음악	(100)	58.0	35.0	7.0
	영화	(19)	26.3	63.2	10.5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4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8.3	48.3	3.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26.1	73.9	0.0
	3~5년	(40)	50.0	45.0	5.0
	6~10년	(67)	41.8	50.7	7.5
	11~20년	(121)	47.9	46.3	5.8
	20년 이상	(168)	57.1	39.9	3.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51.3	44.2	4.5
	불가능	(37)	32.4	62.2	5.4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문화사업(민간의 문화사업(축제, 공공예술 등) 참여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31.0	66.1	2.9
거주지 1	성남	(290)	32.1	65.9	2.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5.0	61.3	3.8
	서울	(49)	18.4	75.5	6.1
거주지 2	수정구	(64)	31.3	68.8	0.0
	중원구	(56)	28.6	66.1	5.4
	분당구	(170)	33.5	64.7	1.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34.8	63.7	1.5
	겸업	(215)	27.4	68.4	4.2
성별	여성	(225)	28.9	68.0	3.1
	남성	(194)	33.5	63.9	2.6
연령	20대 이하	(43)	32.6	62.8	4.7
	30대	(103)	29.1	68.0	2.9
	40대	(152)	29.6	67.1	3.3
	50대	(86)	31.4	66.3	2.3
	60대 이상	(35)	40.0	60.0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0.3	67.4	2.2
	성남 외 경기	(107)	41.1	55.1	3.7
	서울	(117)	23.9	72.6	3.4
	그 외 지역	(17)	23.5	76.5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72.7	4.5
	사진	(11)	27.3	72.7	0.0
	미술	(106)	17.0	80.2	2.8
	국악	(47)	51.1	46.8	2.1
	무용	(37)	56.8	40.5	2.7
	연극	(36)	30.6	66.7	2.8
	음악	(100)	34.0	63.0	3.0
	영화	(19)	10.5	89.5	0.0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3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0.7	75.9	3.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13.0	82.6	4.3
	3~5년	(40)	27.5	70.0	2.5
	6~10년	(67)	26.9	73.1	0.0
	11~20년	(121)	27.3	67.8	5.0
	20년 이상	(168)	38.7	58.9	2.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2.2	65.2	2.6
	불가능	(37)	18.9	75.7	5.4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사회복자: 예술인 사회보험(국민연금, 고용보험)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9.3	87.8	2.9
거주지 1	성남	(290)	9.7	88.3	2.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0.0	83.8	6.3
	서울	(49)	6.1	91.8	2.0
거주지 2	수정구	(64)	10.9	89.1	0.0
	중원구	(56)	8.9	87.5	3.6
	분당구	(170)	9.4	88.2	2.4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0.8	86.3	2.9
	겸업	(215)	7.9	89.3	2.8
성별	여성	(225)	10.7	87.6	1.8
	남성	(194)	7.7	88.1	4.1
연령	20대 이하	(43)	11.6	83.7	4.7
	30대	(103)	9.7	89.3	1.0
	40대	(152)	7.2	90.1	2.6
	50대	(86)	12.8	82.6	4.7
	60대 이상	(35)	5.7	91.4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9.6	88.2	2.2
	성남 외 경기	(107)	13.1	83.2	3.7
	서울	(117)	6.8	89.7	3.4
	그 외 지역	(17)	0.0	10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3.6	81.8	4.5
	사진	(11)	18.2	81.8	0.0
	미술	(106)	2.8	96.2	0.9
	국악	(47)	17.0	83.0	0.0
	무용	(37)	8.1	89.2	2.7
	연극	(36)	11.1	86.1	2.8
	음악	(100)	13.0	82.0	5.0
	영화	(19)	0.0	100.0	0.0
	만화	(2)	10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0.0	9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89.7	6.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0.0	100.0	0.0
	3~5년	(40)	12.5	80.0	7.5
	6~10년	(67)	7.5	92.5	0.0
	11~20년	(121)	9.9	86.0	4.1
	20년 이상	(168)	10.1	87.5	2.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9.7	87.4	2.9
	불가능	(37)	5.4	91.9	2.7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사회복지: 예술인 산재보험 지원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5.5	92.6	1.9
거주지 1	성남	(290)	4.5	94.5	1.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8	85.0	6.3
	서울	(49)	6.1	93.9	0.0
거주지 2	수정구	(64)	9.4	90.6	0.0
	중원구	(56)	0.0	100.0	0.0
	분당구	(170)	4.1	94.1	1.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8.3	90.2	1.5
	겸업	(215)	2.8	94.9	2.3
성별	여성	(225)	3.6	95.6	0.9
	남성	(194)	7.7	89.2	3.1
연령	20대 이하	(43)	4.7	93.0	2.3
	30대	(103)	9.7	89.3	1.0
	40대	(152)	2.6	95.4	2.0
	50대	(86)	8.1	89.5	2.3
	60대 이상	(35)	0.0	97.1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5	94.4	1.1
	성남 외 경기	(107)	8.4	88.8	2.8
	서울	(117)	4.3	93.2	2.6
	그 외 지역	(17)	5.9	94.1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0.0	95.5	4.5
	사진	(11)	0.0	100.0	0.0
	미술	(106)	0.9	98.1	0.9
	국악	(47)	10.6	89.4	0.0
	무용	(37)	2.7	97.3	0.0
	연극	(36)	8.3	91.7	0.0
	음악	(100)	11.0	86.0	3.0
	영화	(19)	0.0	100.0	0.0
	만화	(2)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8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3.4	89.7	6.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0.0	100.0	0.0
	3~5년	(40)	7.5	87.5	5.0
	6~10년	(67)	4.5	95.5	0.0
	11~20년	(121)	5.0	90.9	4.1
	20년 이상	(168)	6.5	92.9	0.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5.8	92.4	1.8
	불가능	(37)	2.7	94.6	2.7

문17. 최근 1년간(2019.1.1. ~ 12.31.) 지원을 받거나 사업에 참여 경험 - 사회복지: 예술인패스 카드 발급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신청했지만 못 받았다
전 체		(419)	34.8	62.5	2.6
거주지 1	성남	(290)	39.0	59.7	1.4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7.5	66.3	6.3
	서울	(49)	22.4	73.5	4.1
거주지 2	수정구	(64)	45.3	54.7	0.0
	중원구	(56)	41.1	57.1	1.8
	분당구	(170)	35.9	62.4	1.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0.2	57.8	2.0
	겸업	(215)	29.8	67.0	3.3
성별	여성	(225)	36.4	61.3	2.2
	남성	(194)	33.0	63.9	3.1
연령	20대 이하	(43)	37.2	60.5	2.3
	30대	(103)	44.7	55.3	0.0
	40대	(152)	36.2	57.9	5.9
	50대	(86)	25.6	74.4	0.0
	60대 이상	(35)	20.0	77.1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6.4	70.8	2.8
	성남 외 경기	(107)	36.4	61.7	1.9
	서울	(117)	43.6	53.0	3.4
	그 외 지역	(17)	52.9	47.1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7.3	72.7	0.0
	사진	(11)	72.7	27.3	0.0
	미술	(106)	44.3	53.8	1.9
	국악	(47)	34.0	63.8	2.1
	무용	(37)	32.4	62.2	5.4
	연극	(36)	38.9	61.1	0.0
	음악	(100)	22.0	74.0	4.0
	영화	(19)	47.4	52.6	0.0
	만화	(2)	100.0	0.0	0.0
	연예(방송,공연)	(10)	20.0	8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65.5	6.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	95.7	0.0
	3~5년	(40)	52.5	45.0	2.5
	6~10년	(67)	49.3	49.3	1.5
	11~20년	(121)	37.2	57.9	5.0
	20년 이상	(168)	27.4	70.8	1.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6.9	60.5	2.6
	불가능	(37)	13.5	83.8	2.7

문18. 성남시/성남문화재단의 예술인 지원정보 획득의 주 경로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지인들을 통해	획득경로를 모름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SNS를 통해	지역 예술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전 체		(419)	37.2	15.8	14.3	9.1	8.1
거주지 1	성남	(290)	44.5	13.4	12.8	7.2	10.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0.0	21.3	12.5	13.8	5.0
	서울	(49)	22.4	20.4	26.5	12.2	2.0
거주지 2	수정구	(64)	45.3	18.8	9.4	12.5	6.3
	중원구	(56)	51.8	10.7	8.9	7.1	14.3
	분당구	(170)	41.8	12.4	15.3	5.3	1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37.7	16.7	13.7	9.3	7.8
	겸업	(215)	36.7	14.9	14.9	8.8	8.4
성별	여성	(225)	40.4	16.4	14.2	9.8	5.8
	남성	(194)	33.5	14.9	14.4	8.2	10.8
연령	20대 이하	(43)	51.2	18.6	11.6	4.7	4.7
	30대	(103)	44.7	16.5	14.6	6.8	5.8
	40대	(152)	35.5	15.1	15.8	11.8	9.2
	50대	(86)	25.6	15.1	16.3	11.6	11.6
	60대 이상	(35)	34.3	14.3	5.7	2.9	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8.8	14.0	12.9	8.4	7.9
	성남 외 경기	(107)	39.3	17.8	9.3	12.1	7.5
	서울	(117)	30.8	17.9	20.5	6.8	9.4
	그 외 지역	(17)	52.9	5.9	17.6	11.8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31.8	18.2	13.6	4.5	9.1
	사진	(11)	27.3	9.1	18.2	18.2	18.2
	미술	(106)	38.7	17.9	8.5	9.4	9.4
	국악	(47)	40.4	19.1	8.5	4.3	10.6
	무용	(37)	48.6	21.6	5.4	8.1	5.4
	연극	(36)	41.7	19.4	11.1	11.1	8.3
	음악	(100)	29.0	12.0	24.0	7.0	7.0
	영화	(19)	47.4	15.8	10.5	15.8	5.3
	만화	(2)	50.0	0.0	5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20.0	0.0	10.0	1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31.0	3.4	31.0	17.2	3.4
	3년 미만	(23)	26.1	30.4	13.0	4.3	8.7
	3~5년	(40)	52.5	12.5	7.5	12.5	2.5
	6~10년	(67)	43.3	19.4	19.4	7.5	4.5
	11~20년	(121)	41.3	16.5	13.2	6.6	5.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29.8	12.5	14.9	11.3	13.1
	가능	(382)	37.4	14.7	14.7	8.6	8.6
	불가능	(37)	35.1	27.0	10.8	13.5	2.7

구 분		사례수	협·단체를 통해	시 또는 성남문화재단 소식지(뉴스레 터)를 통해	기타	뉴스기사를 통해	광고를 통해
전 체		(419)	7.6	3.3	2.4	1.2	1.0
거주지 1	성남	(290)	4.8	1.7	3.1	1.0	1.4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7.5	8.8	0.0	1.3	0.0
	서울	(49)	8.2	4.1	2.0	2.0	0.0
거주지 2	수정구	(64)	4.7	1.6	0.0	0.0	1.6
	중원구	(56)	5.4	0.0	0.0	0.0	1.8
	분당구	(170)	4.7	2.4	5.3	1.8	1.2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8.3	3.4	1.5	1.0	0.5
	겸업	(215)	7.0	3.3	3.3	1.4	1.4
성별	여성	(225)	5.3	2.7	2.7	1.3	1.3
	남성	(194)	10.3	4.1	2.1	1.0	0.5
연령	20대 이하	(43)	2.3	0.0	0.0	2.3	4.7
	30대	(103)	2.9	5.8	1.9	0.0	1.0
	40대	(152)	8.6	0.7	2.0	0.7	0.7
	50대	(86)	10.5	2.3	3.5	3.5	0.0
	60대 이상	(35)	17.1	14.3	5.7	0.0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0.7	3.4	2.2	0.6	1.1
	성남 외 경기	(107)	8.4	5.6	0.0	0.0	0.0
	서울	(117)	2.6	1.7	5.1	3.4	1.7
	그 외 지역	(17)	5.9	0.0	0.0	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5	13.6	0.0	4.5	0.0
	사진	(11)	0.0	0.0	9.1	0.0	0.0
	미술	(106)	4.7	3.8	5.7	1.9	0.0
	국악	(47)	12.8	2.1	0.0	2.1	0.0
	무용	(37)	8.1	0.0	2.7	0.0	0.0
	연극	(36)	8.3	0.0	0.0	0.0	0.0
	음악	(100)	10.0	5.0	1.0	1.0	4.0
	영화	(19)	5.3	0.0	0.0	0.0	0.0
	만화	(2)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3.4	3.4	0.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	8.7	0.0	0.0	4.3
	3~5년	(40)	2.5	5.0	5.0	0.0	0.0
	6~10년	(67)	3.0	1.5	0.0	0.0	1.5
	11~20년	(121)	9.1	1.7	4.1	1.7	0.8
	20년 이상	(168)	10.1	4.2	1.8	1.8	0.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7.9	3.1	2.6	1.3	1.0
	불가능	(37)	5.4	5.4	0.0	0.0	0.0

문19. 최근 1년간(2019.1.1. ~ 12.31.) 귀하는 주로 어느 지역에서 활동하셨습니다?

(단위 : %)

구 분		사례수	성남	성남 외 경기도	서울	그 외 지역
전 체		(419)	42.7	23.4	28.4	5.5
거주지 1	성남	(290)	43.8	21.4	29.0	5.9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6.3	38.8	18.8	6.3
	서울	(49)	46.9	10.2	40.8	2.0
거주지 2	수정구	(64)	42.2	26.6	21.9	9.4
	중원구	(56)	53.6	25.0	21.4	0.0
	분당구	(170)	41.2	18.2	34.1	6.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1.7	25.5	25.5	7.4
	겸업	(215)	43.7	21.4	31.2	3.7
성별	여성	(225)	46.7	20.0	29.3	4.0
	남성	(194)	38.1	27.3	27.3	7.2
연령	20대 이하	(43)	46.5	18.6	25.6	9.3
	30대	(103)	31.1	28.2	35.9	4.9
	40대	(152)	46.1	20.4	28.3	5.3
	50대	(86)	46.5	23.3	25.6	4.7
	60대 이상	(35)	48.6	28.6	17.1	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78.7	10.1	9.0	2.2
	성남 외 경기	(107)	21.5	64.5	8.4	5.6
	서울	(117)	9.4	8.5	77.8	4.3
	그 외 지역	(17)	29.4	5.9	17.6	47.1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3.6	40.9	45.5	0.0
	사진	(11)	36.4	45.5	18.2	0.0
	미술	(106)	41.5	18.9	34.0	5.7
	국악	(47)	48.9	21.3	12.8	17.0
	무용	(37)	56.8	16.2	21.6	5.4
	연극	(36)	33.3	41.7	19.4	5.6
	음악	(100)	46.0	24.0	27.0	3.0
	영화	(19)	21.1	15.8	63.2	0.0
	만화	(2)	50.0	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10.0	30.0	2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17.2	24.1	0.0
	3년 미만	(23)	56.5	13.0	30.4	0.0
	3~5년	(40)	32.5	35.0	22.5	10.0
	6~10년	(67)	28.4	17.9	44.8	9.0
	11~20년	(121)	44.6	24.8	26.4	4.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47.6	23.2	24.4	4.8
	가능	(382)	42.7	24.1	27.7	5.5
	불가능	(37)	43.2	16.2	35.1	5.4

문19-1. 성남시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데뷔한 곳이거나 네트워크 (학연/예술인공동체) 이 있어서	예술소비 수요가 많아서	예술활동 관련 지원이 잘 되어서	예술적 자극(교류)이 많은 환경이어서
전 체		(240)	33.3	24.6	20.8	18.3
거주지 1	성남	(163)	33.7	28.2	19.6	19.6
	성남시 외 경기지역	(51)	35.3	9.8	19.6	11.8
	서울	(26)	26.9	30.8	30.8	23.1
거주지 2	수정구	(37)	32.4	37.8	21.6	18.9
	중원구	(26)	23.1	19.2	19.2	15.4
	분당구	(100)	37.0	27.0	19.0	21.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19)	29.4	30.3	18.5	19.3
	겸업	(121)	37.2	19.0	23.1	17.4
성별	여성	(120)	39.2	24.2	24.2	22.5
	남성	(120)	27.5	25.0	17.5	14.2
연령	20대 이하	(23)	30.4	39.1	26.1	8.7
	30대	(71)	22.5	32.4	36.6	18.3
	40대	(82)	41.5	18.3	17.1	22.0
	50대	(46)	32.6	21.7	8.7	17.4
	60대 이상	(18)	44.4	11.1	0.0	16.7
주요활동 지역	성남	(38)	28.9	15.8	7.9	5.3
	성남 외 경기	(84)	40.5	10.7	17.9	14.3
	서울	(106)	30.2	37.7	27.4	26.4
	그 외 지역	(12)	25.0	33.3	25.0	16.7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9)	52.6	15.8	10.5	10.5
	사진	(7)	28.6	28.6	14.3	28.6
	미술	(62)	29.0	25.8	21.0	22.6
	국악	(24)	25.0	12.5	29.2	16.7
	무용	(16)	43.8	18.8	25.0	12.5
	연극	(24)	41.7	29.2	16.7	16.7
	음악	(54)	37.0	25.9	20.4	13.0
	영화	(15)	20.0	33.3	20.0	26.7
	만화	(1)	0.0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6)	0.0	66.7	16.7	33.3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12)	33.3	16.7	25.0	25.0
	3년 미만	(10)	30.0	20.0	10.0	0.0
	3~5년	(27)	25.9	22.2	37.0	11.1
	6~10년	(48)	27.1	37.5	33.3	25.0
	11~20년	(67)	37.3	26.9	19.4	17.9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88)	36.4	17.0	11.4	19.3
	가능	(219)	34.7	25.1	21.5	20.1
	불가능	(21)	19.0	19.0	14.3	0.0

구 분		사례수	일자리가 많아서	예술활동을 위한 공간이 충분해서	기타	태어나고 자란 곳이어서
전 체		(240)	16.3	15.4	11.3	10.8
거주지 1	성남	(163)	15.3	17.8	9.8	9.8
	성남시 외 경기지역	(51)	11.8	11.8	15.7	13.7
	서울	(26)	30.8	7.7	11.5	11.5
거주지 2	수정구	(37)	21.6	16.2	10.8	13.5
	중원구	(26)	15.4	23.1	7.7	11.5
	분당구	(100)	13.0	17.0	10.0	8.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19)	16.8	15.1	14.3	10.9
	겸업	(121)	15.7	15.7	8.3	10.7
성별	여성	(120)	13.3	11.7	10.8	10.0
	남성	(120)	19.2	19.2	11.7	11.7
연령	20대 이하	(23)	30.4	17.4	8.7	17.4
	30대	(71)	22.5	18.3	9.9	14.1
	40대	(82)	11.0	14.6	13.4	8.5
	50대	(46)	10.9	10.9	10.9	4.3
	60대 이상	(18)	11.1	16.7	11.1	16.7
주요활동 지역	성남	(38)	18.4	10.5	15.8	21.1
	성남 외 경기	(84)	8.3	9.5	16.7	11.9
	서울	(106)	20.8	21.7	6.6	6.6
	그 외 지역	(12)	25.0	16.7	0.0	8.3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9)	5.3	5.3	5.3	5.3
	사진	(7)	0.0	0.0	0.0	14.3
	미술	(62)	6.5	17.7	17.7	9.7
	국악	(24)	8.3	12.5	12.5	25.0
	무용	(16)	18.8	6.3	6.3	12.5
	연극	(24)	25.0	8.3	12.5	8.3
	음악	(54)	20.4	22.2	11.1	9.3
	영화	(15)	40.0	33.3	0.0	6.7
	만화	(1)	100.0	0.0	100.0	0.0
	연예(방송, 공연)	(6)	16.7	16.7	0.0	16.7
	기타(다원예술 등)	(12)	33.3	8.3	8.3	8.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0)	20.0	10.0	10.0	30.0
	3~5년	(27)	22.2	11.1	22.2	7.4
	6~10년	(48)	27.1	20.8	6.3	4.2
	11~20년	(67)	13.4	16.4	11.9	13.4
	20년 이상	(88)	10.2	13.6	10.2	11.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219)	13.2	15.1	11.4	11.0
	불가능	(21)	47.6	19.0	9.5	9.5

문20. 귀하께서는 주로 어떤 공간에서 예술활동을 하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개인 예술활동 공간	공동 예술활동 공간
전 체		(419)	57.3	42.7
거주지 1	성남	(290)	59.0	41.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5.0	45.0
	서울	(49)	51.0	49.0
거주지 2	수정구	(64)	48.4	51.6
	중원구	(56)	53.6	46.4
	분당구	(170)	64.7	35.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8.3	41.7
	겸업	(215)	56.3	43.7
성별	여성	(225)	58.2	41.8
	남성	(194)	56.2	43.8
연령	20대 이하	(43)	48.8	51.2
	30대	(103)	53.4	46.6
	40대	(152)	58.6	41.4
	50대	(86)	59.3	40.7
	60대 이상	(35)	68.6	31.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50.0	50.0
	성남 외 경기	(107)	56.1	43.9
	서울	(117)	69.2	30.8
	그 외 지역	(17)	58.8	41.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86.4	13.6
	사진	(11)	100.0	0.0
	미술	(106)	74.5	25.5
	국악	(47)	29.8	70.2
	무용	(37)	45.9	54.1
	연극	(36)	52.8	47.2
	음악	(100)	41.0	59.0
	영화	(19)	68.4	31.6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70.0	3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2.1	37.9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7.8	52.2
	3~5년	(40)	52.5	47.5
	6~10년	(67)	68.7	31.3
	11~20년	(121)	58.7	41.3
	20년 이상	(168)	54.2	45.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58.4	41.6
	불가능	(37)	45.9	54.1

문20-1. 개인 예술활동 공간의 소유형태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자가	임대-전세	임대-월세	무상임대
전 체		(240)	28.8	14.6	51.3	5.4
거주지 1	성남	(163)	24.6	14.0	55.6	5.8
	성남시 외 경기지역	(51)	45.5	15.9	34.1	4.5
	서울	(26)	28.0	16.0	52.0	4.0
거주지 2	수정구	(37)	32.3	19.4	41.9	6.5
	중원구	(26)	20.0	20.0	53.3	6.7
	분당구	(100)	23.6	10.9	60.0	5.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19)	28.6	12.6	53.8	5.0
	겸업	(121)	28.9	16.5	48.8	5.8
성별	여성	(120)	34.4	13.0	44.3	8.4
	남성	(120)	22.0	16.5	59.6	1.8
연령	20대 이하	(23)	19.0	9.5	52.4	19.0
	30대	(71)	20.0	18.2	60.0	1.8
	40대	(82)	27.0	18.0	50.6	4.5
	50대	(46)	35.3	5.9	54.9	3.9
	60대 이상	(18)	50.0	16.7	25.0	8.3
주요활동 지역	성남	(38)	27.0	14.6	51.7	6.7
	성남 외 경기	(84)	28.3	16.7	51.7	3.3
	서울	(106)	28.4	13.6	53.1	4.9
	그 외 지역	(12)	50.0	10.0	30.0	1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9)	68.4	21.1	10.5	0.0
	사진	(7)	27.3	27.3	45.5	0.0
	미술	(62)	26.6	13.9	54.4	5.1
	국악	(24)	14.3	14.3	64.3	7.1
	무용	(16)	17.6	11.8	58.8	11.8
	연극	(24)	21.1	10.5	57.9	10.5
	음악	(54)	31.7	12.2	53.7	2.4
	영화	(15)	30.8	15.4	46.2	7.7
	만화	(1)	0.0	0.0	50.0	50.0
	연예(방송, 공연)	(6)	14.3	14.3	71.4	0.0
	기타(다원예술 등)	(12)	27.8	16.7	50.0	5.6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0)	27.3	0.0	72.7	0.0
	3~5년	(27)	28.6	14.3	42.9	14.3
	6~10년	(48)	23.9	19.6	52.2	4.3
	11~20년	(67)	18.3	18.3	57.7	5.6
	20년 이상	(88)	39.6	11.0	45.1	4.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219)	29.6	15.2	49.3	5.8
	불가능	(21)	17.6	5.9	76.5	0.0

문20-2. 공동 예술활동 공간의 유형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단체 공용 창작공간	공유 오피스	민간 임대 공간	공공 임대 공간	기타
전 체		(179)	40.8	3.4	26.3	19.6	10.1
거주지 1	성남	(119)	41.2	4.2	26.9	17.6	10.1
	성남시 외 경기지역	(36)	33.3	2.8	27.8	25.0	11.1
	서울	(24)	50.0	0.0	20.8	20.8	8.3
거주지 2	수정구	(33)	42.4	3.0	18.2	30.3	6.1
	중원구	(26)	42.3	0.0	30.8	15.4	11.5
	분당구	(60)	40.0	6.7	30.0	11.7	11.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85)	36.5	7.1	23.5	20.0	12.9
	겸업	(94)	44.7	0.0	28.7	19.1	7.4
성별	여성	(94)	40.4	5.3	21.3	22.3	10.6
	남성	(85)	41.2	1.2	31.8	16.5	9.4
연령	20대 이하	(22)	63.6	0.0	22.7	13.6	0.0
	30대	(48)	43.8	4.2	25.0	14.6	12.5
	40대	(63)	38.1	3.2	30.2	17.5	11.1
	50대	(35)	25.7	5.7	25.7	31.4	11.4
	60대 이상	(11)	45.5	0.0	18.2	27.3	9.1
주요활동 지역	성남	(89)	39.3	2.2	24.7	22.5	11.2
	성남 외 경기	(47)	46.8	0.0	23.4	21.3	8.5
	서울	(36)	38.9	11.1	27.8	11.1	11.1
	그 외 지역	(7)	28.6	0.0	57.1	14.3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3)	33.3	0.0	0.0	33.3	33.3
	미술	(27)	63.0	3.7	11.1	14.8	7.4
	국악	(33)	42.4	3.0	24.2	18.2	12.1
	무용	(20)	30.0	10.0	30.0	20.0	10.0
	연극	(17)	47.1	5.9	41.2	5.9	0.0
	음악	(59)	35.6	0.0	28.8	27.1	8.5
	영화	(6)	16.7	16.7	33.3	16.7	16.7
	연예(방송, 공연)	(3)	66.7	0.0	0.0	0.0	33.3
	기타(다원예술 등)	(11)	27.3	0.0	36.4	18.2	18.2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2)	66.7	0.0	8.3	8.3	16.7
	3~5년	(19)	47.4	5.3	31.6	10.5	5.3
	6~10년	(21)	42.9	4.8	28.6	14.3	9.5
	11~20년	(50)	48.0	2.0	30.0	12.0	8.0
	20년 이상	(77)	29.9	3.9	24.7	29.9	11.7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59)	39.6	3.8	25.8	20.8	10.1
	불가능	(20)	50.0	0.0	30.0	10.0	10.0

문21. 귀하께서 현재 주로 이용하시는 예술활동 공간의 주된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높은 임대료/이용료	작업하기에 협소한 공간	문제점 없음	비안정적인 임대/이용기간
전 체		(419)	38.7	18.6	12.4	9.3
거주지 1	성남	(290)	42.4	14.5	12.4	10.3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2.5	25.0	10.0	7.5
	서울	(49)	26.5	32.7	16.3	6.1
	수정구	(64)	42.2	10.9	14.1	10.9
거주지 2	중원구	(56)	32.1	25.0	14.3	7.1
	분당구	(170)	45.9	12.4	11.2	11.2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39.7	21.1	12.3	7.8
	겸업	(215)	37.7	16.3	12.6	10.7
성별	여성	(225)	33.3	20.0	11.6	11.6
	남성	(194)	44.8	17.0	13.4	6.7
연령	20대 이하	(43)	34.9	14.0	11.6	7.0
	30대	(103)	36.9	21.4	13.6	10.7
	40대	(152)	42.1	19.1	7.2	9.2
	50대	(86)	41.9	17.4	11.6	9.3
	60대 이상	(35)	25.7	17.1	34.3	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4.8	21.9	12.4	10.1
	성남 외 경기	(107)	43.0	15.9	9.3	8.4
	서울	(117)	40.2	15.4	15.4	10.3
	그 외 지역	(17)	41.2	23.5	11.8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9.1	36.4	9.1
	미술	(11)	27.3	36.4	18.2	9.1
	국악	(106)	41.5	22.6	6.6	10.4
	무용	(47)	36.2	21.3	8.5	6.4
	연극	(37)	48.6	2.7	13.5	5.4
	음악	(36)	33.3	16.7	16.7	16.7
	영화	(100)	36.0	20.0	15.0	9.0
	연예(방송, 공연)	(19)	31.6	5.3	15.8	15.8
	기타(다원예술 등)	(2)	50.0	50.0	0.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0)	40.0	40.0	0.0	10.0
	3~5년	(29)	58.6	17.2	6.9	3.4
	6~10년	(23)	30.4	17.4	4.3	8.7
	11~20년	(40)	45.0	12.5	10.0	7.5
	20년 이상	(67)	28.4	25.4	14.9	10.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21)	46.3	19.0	10.7	9.9
	불가능	(168)	36.9	17.3	14.3	8.9

구 분		사례수	기타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입지조건	복잡한 대관절차	비현실적인 이용시간 (야간이용 불가등)
전 체		(419)	6.2	5.5	5.0	4.3
거주지 1	성남	(290)	6.2	4.8	4.5	4.8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5	7.5	5.0	5.0
	서울	(49)	4.1	6.1	8.2	0.0
거주지 2	수정구	(64)	4.7	7.8	3.1	6.3
	중원구	(56)	5.4	5.4	3.6	7.1
	분당구	(170)	7.1	3.5	5.3	3.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9	6.4	4.9	2.9
	겸업	(215)	7.4	4.7	5.1	5.6
성별	여성	(225)	7.1	5.8	5.3	5.3
	남성	(194)	5.2	5.2	4.6	3.1
연령	20대 이하	(43)	9.3	4.7	9.3	9.3
	30대	(103)	1.9	5.8	4.9	4.9
	40대	(152)	9.2	5.3	4.6	3.3
	50대	(86)	7.0	7.0	2.3	3.5
	60대 이상	(35)	0.0	2.9	8.6	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7	3.9	5.6	4.5
	성남 외 경기	(107)	6.5	3.7	8.4	4.7
	서울	(117)	4.3	10.3	.9	3.4
	그 외 지역	(17)	11.8	0.0	5.9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3.6	0.0	4.5	9.1
	미술	(11)	0.0	9.1	0.0	0.0
	국악	(106)	7.5	6.6	2.8	1.9
	무용	(47)	6.4	2.1	8.5	10.6
	연극	(37)	2.7	8.1	13.5	5.4
	음악	(36)	8.3	2.8	0.0	5.6
	영화	(100)	6.0	4.0	7.0	3.0
	연예(방송, 공연)	(19)	10.5	15.8	0.0	5.3
	기타(다원예술 등)	(2)	0.0	0.0	0.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0)	0.0	0.0	0.0	10.0
	3~5년	(29)	0.0	10.3	3.4	0.0
	6~10년	(23)	8.7	8.7	13.0	8.7
	11~20년	(40)	7.5	2.5	5.0	10.0
	20년 이상	(67)	7.5	7.5	4.5	1.5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21)	3.3	5.0	3.3	2.5
	불가능	(168)	7.1	5.4	5.4	4.8

문22. 귀하께서는 성남시에 예술활동 공간(창작/연습공간)이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23.2	35.8	28.9	10.0	2.1	12.2	58.9	2.32
거주지 1	성남	(290)	27.6	36.6	26.6	7.6	1.7	9.3	64.1	2.19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5.0	35.0	32.5	15.0	2.5	17.5	50.0	2.55
	서울	(49)	10.2	32.7	36.7	16.3	4.1	20.4	42.9	2.71
거주지 2	수정구	(64)	29.7	28.1	31.3	9.4	1.6	10.9	57.8	2.25
	중원구	(56)	32.1	42.9	17.9	5.4	1.8	7.1	75.0	2.02
	분당구	(170)	25.3	37.6	27.6	7.6	1.8	9.4	62.9	2.2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24.5	32.4	31.4	9.3	2.5	11.8	56.9	2.33
	겸업	(215)	21.9	39.1	26.5	10.7	1.9	12.6	60.9	2.32
성별	여성	(225)	24.0	36.0	28.9	8.0	3.1	11.1	60.0	2.30
	남성	(194)	22.2	35.6	28.9	12.4	1.0	13.4	57.7	2.35
연령	20대 이하	(43)	20.9	37.2	30.2	9.3	2.3	11.6	58.1	2.35
	30대	(103)	23.3	36.9	31.1	7.8	1.0	8.7	60.2	2.26
	40대	(152)	23.0	37.5	26.3	13.2	0.0	13.2	60.5	2.30
	50대	(86)	20.9	32.6	32.6	9.3	4.7	14.0	53.5	2.44
	60대 이상	(35)	31.4	31.4	22.9	5.7	8.6	14.3	62.9	2.2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2.5	36.0	30.9	7.9	2.8	10.7	58.4	2.33
	성남 외 경기	(107)	26.2	31.8	22.4	16.8	2.8	19.6	57.9	2.38
	서울	(117)	22.2	39.3	30.8	6.8	.9	7.7	61.5	2.25
	그 외 지역	(17)	17.6	35.3	35.3	11.8	0.0	11.8	52.9	2.41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40.9	18.2	13.6	4.5	18.2	63.6	2.36
	사진	(11)	9.1	54.5	36.4	0.0	0.0	0.0	63.6	2.27
	미술	(106)	28.3	38.7	26.4	4.7	1.9	6.6	67.0	2.13
	국악	(47)	23.4	34.0	27.7	8.5	6.4	14.9	57.4	2.40
	무용	(37)	27.0	48.6	18.9	5.4	0.0	5.4	75.7	2.03
	연극	(36)	33.3	25.0	22.2	16.7	2.8	19.4	58.3	2.31
	음악	(100)	15.0	31.0	37.0	15.0	2.0	17.0	46.0	2.58
	영화	(19)	21.1	36.8	26.3	15.8	0.0	15.8	57.9	2.37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 공연)	(1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24.1	20.7	41.4	13.8	0.0	13.8	44.8	2.45
	3년 미만	(23)	4.3	52.2	26.1	17.4	0.0	17.4	56.5	2.57
	3~5년	(40)	30.0	35.0	32.5	2.5	0.0	2.5	65.0	2.08
	6~10년	(67)	25.4	37.3	29.9	4.5	3.0	7.5	62.7	2.22
	11~20년	(121)	27.3	31.4	27.3	13.2	.8	14.0	58.7	2.29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20.2	36.3	29.2	10.7	3.6	14.3	56.5	2.41
	가능	(382)	23.3	36.4	28.8	9.4	2.1	11.5	59.7	2.31
	불가능	(37)	21.6	29.7	29.7	16.2	2.7	18.9	51.4	2.49

문23.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을 마련된다면 꼭 필요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필요 시설 및 장비에 대한 충분한 투자	저렴한 이용금액	넓고 쾌적한 공간	공동작업/협업이 용이한 공간
전 체		(419)	29.1	26.7	16.9	9.8
거주지 1	성남	(290)	25.9	29.3	16.9	10.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37.5	21.3	20.0	5.0
	서울	(49)	34.7	20.4	12.2	16.3
거주지 2	수정구	(64)	23.4	25.0	17.2	14.1
	중원구	(56)	32.1	26.8	8.9	12.5
	분당구	(170)	24.7	31.8	19.4	7.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26.0	27.0	20.1	10.8
	겸업	(215)	32.1	26.5	14.0	8.8
성별	여성	(225)	25.3	28.0	17.8	12.0
	남성	(194)	33.5	25.3	16.0	7.2
연령	20대 이하	(43)	23.3	30.2	16.3	7.0
	30대	(103)	37.9	20.4	20.4	5.8
	40대	(152)	26.3	27.6	19.7	9.9
	50대	(86)	25.6	32.6	10.5	15.1
	60대 이상	(35)	31.4	22.9	11.4	11.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3.0	30.9	14.6	14.6
	성남 외 경기	(107)	30.8	26.2	17.8	7.5
	서울	(117)	35.9	21.4	20.5	5.1
	그 외 지역	(17)	35.3	23.5	11.8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31.8	18.2	9.1	13.6
	사진	(11)	18.2	36.4	0.0	18.2
	미술	(106)	27.4	27.4	21.7	12.3
	국악	(47)	27.7	25.5	23.4	10.6
	무용	(37)	18.9	24.3	27.0	5.4
	연극	(36)	25.0	25.0	11.1	11.1
	음악	(100)	32.0	29.0	18.0	7.0
	영화	(19)	36.8	36.8	0.0	5.3
	만화	(2)	0.0	5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50.0	10.0	20.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37.9	24.1	3.4	13.8
	3년 미만	(23)	21.7	26.1	13.0	4.3
	3~5년	(40)	27.5	30.0	22.5	12.5
	6~10년	(67)	23.9	29.9	20.9	6.0
	11~20년	(121)	38.0	18.2	14.0	8.3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26.2	31.0	16.7	12.5
	가능	(382)	30.1	25.9	17.0	9.7
	불가능	(37)	18.9	35.1	16.2	10.8

구 분		사례수	창작활동 관련 응이한 정보 교류	동료 예술인과의 만남과 교류	기타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휴게공간
전 체		(419)	7.9	6.0	2.6	1.0
거주지 1	성남	(290)	7.6	6.9	3.1	0.3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5	5.0	1.3	2.5
	서울	(49)	10.2	2.0	2.0	2.0
	수정구	(64)	6.3	7.8	6.3	0.0
거주지 2	중원구	(56)	8.9	7.1	1.8	1.8
	분당구	(170)	7.6	6.5	2.4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6.4	4.4	3.4	2.0
	겸업	(215)	9.3	7.4	1.9	0.0
성별	여성	(225)	9.3	4.4	2.7	0.4
	남성	(194)	6.2	7.7	2.6	1.5
연령	20대 이하	(43)	7.0	14.0	2.3	0.0
	30대	(103)	5.8	5.8	3.9	0.0
	40대	(152)	8.6	4.6	2.0	1.3
	50대	(86)	7.0	4.7	2.3	2.3
	60대 이상	(35)	14.3	5.7	2.9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2	5.6	3.4	1.7
	성남 외 경기	(107)	8.4	7.5	1.9	0.0
	서울	(117)	9.4	4.3	2.6	0.9
	그 외 지역	(17)	11.8	11.8	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4.5	0.0	0.0
	사진	(11)	9.1	18.2	0.0	0.0
	미술	(106)	5.7	2.8	2.8	0.0
	국악	(47)	4.3	8.5	0.0	0.0
	무용	(37)	10.8	8.1	5.4	0.0
	연극	(36)	13.9	8.3	5.6	0.0
	음악	(100)	6.0	3.0	2.0	3.0
	영화	(19)	0.0	10.5	5.3	5.3
	만화	(2)	0.0	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13.8	0.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13.0	17.4	4.3	0.0
	3~5년	(40)	2.5	2.5	2.5	0.0
	6~10년	(67)	11.9	4.5	3.0	0.0
	11~20년	(121)	9.1	8.3	2.5	1.7
	20년 이상	(168)	6.0	4.2	2.4	1.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7.9	6.0	2.4	1.0
	불가능	(37)	8.1	5.4	5.4	0.0

문24. 귀하께서는 향후 성남시에 공동 예술활동 공간이 마련된다면 입주해서 활동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419)	85.4	14.6
거주지 1	성남	(290)	88.3	11.7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0.0	20.0
	서울	(49)	77.6	22.4
	수정구	(64)	82.8	17.2
거주지 2	중원구	(56)	91.1	8.9
	분당구	(170)	89.4	10.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87.3	12.7
	겸업	(215)	83.7	16.3
성별	여성	(225)	87.1	12.9
	남성	(194)	83.5	16.5
연령	20대 이하	(43)	86.0	14.0
	30대	(103)	84.5	15.5
	40대	(152)	86.2	13.8
	50대	(86)	87.2	12.8
	60대 이상	(35)	80.0	2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85.4	14.6
	성남 외 경기	(107)	89.7	10.3
	서울	(117)	82.9	17.1
	그 외 지역	(17)	76.5	23.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72.7	27.3
	사진	(11)	100.0	0.0
	미술	(106)	88.7	11.3
	국악	(47)	91.5	8.5
	무용	(37)	91.9	8.1
	연극	(36)	77.8	22.2
	음악	(100)	81.0	19.0
	영화	(19)	84.2	15.8
	만화	(2)	50.0	50.0
	연예(방송,공연)	(10)	9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86.2	13.8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82.6	17.4
	3~5년	(40)	87.5	12.5
	6~10년	(67)	86.6	13.4
	11~20년	(121)	85.1	14.9
	20년 이상	(168)	85.1	14.9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86.6	13.4
	불가능	(37)	73.0	27.0

문24-1. 성남시 공공 공동 예술활동 공간에 입주하고 싶지 않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안정적으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기타	복잡한 대관 절차로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예술창작 활동에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공간 관리가 잘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전 체		(61)	32.8	29.5	18.0	18.0	1.6
거주지 1	성남	(34)	26.5	32.4	20.6	17.6	2.9
	성남시 외 경기지역	(16)	37.5	12.5	25.0	25.0	0.0
	서울	(11)	45.5	45.5	0.0	9.1	0.0
	수정구	(11)	18.2	54.5	18.2	9.1	0.0
거주지 2	중원구	(5)	40.0	20.0	40.0	0.0	0.0
	분당구	(18)	27.8	22.2	16.7	27.8	5.6
	필요소득 해결방법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6)	26.9	46.2	15.4	11.5	0.0
	겸업	(35)	37.1	17.1	20.0	22.9	2.9
성별	여성	(29)	31.0	31.0	20.7	13.8	3.4
	남성	(32)	34.4	28.1	15.6	21.9	0.0
연령	20대 이하	(6)	50.0	16.7	16.7	16.7	0.0
	30대	(16)	31.3	43.8	18.8	6.3	0.0
	40대	(21)	38.1	28.6	19.0	14.3	0.0
	50대	(11)	27.3	18.2	18.2	27.3	9.1
	60대 이상	(7)	14.3	28.6	14.3	42.9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26)	42.3	26.9	11.5	15.4	3.8
	성남 외 경기	(11)	27.3	18.2	18.2	36.4	0.0
	서울	(20)	15.0	45.0	25.0	15.0	0.0
	그 외 지역	(4)	75.0	0.0	25.0	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6)	16.7	50.0	0.0	33.3	0.0
	미술	(12)	25.0	8.3	25.0	41.7	0.0
	국악	(4)	75.0	0.0	25.0	0.0	0.0
	무용	(3)	33.3	33.3	33.3	0.0	0.0
	연극	(8)	37.5	12.5	25.0	25.0	0.0
	음악	(19)	31.6	47.4	15.8	0.0	5.3
	영화	(3)	33.3	33.3	0.0	33.3	0.0
	만화	(1)	0.0	10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	100.0	0.0	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4)	25.0	25.0	25.0	25.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4)	50.0	0.0	50.0	0.0	0.0
	3~5년	(5)	40.0	40.0	0.0	20.0	0.0
	6~10년	(9)	33.3	33.3	22.2	11.1	0.0
	11~20년	(18)	33.3	38.9	16.7	11.1	0.0
	20년 이상	(25)	28.0	24.0	16.0	28.0	4.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51)	35.3	29.4	17.6	15.7	2.0
	불가능	(10)	20.0	30.0	20.0	30.0	0.0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예술작품 창작지원이 많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2.2	34.8	41.5	10.0	1.4	11.5	47.0	2.54
거주지 1	성남	(290)	13.4	37.2	38.3	10.0	1.0	11.0	50.7	2.48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8	32.5	47.5	10.0	1.3	11.3	41.3	2.63
	서울	(49)	10.2	24.5	51.0	10.2	4.1	14.3	34.7	2.73
거주지 2	수정구	(64)	12.5	40.6	32.8	12.5	1.6	14.1	53.1	2.50
	중원구	(56)	10.7	42.9	44.6	1.8	0.0	1.8	53.6	2.38
	분당구	(170)	14.7	34.1	38.2	11.8	1.2	12.9	48.8	2.5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3.7	36.3	40.2	8.8	1.0	9.8	50.0	2.47
	겸업	(215)	10.7	33.5	42.8	11.2	1.9	13.0	44.2	2.60
성별	여성	(225)	10.7	36.4	39.6	11.1	2.2	13.3	47.1	2.58
	남성	(194)	13.9	33.0	43.8	8.8	0.5	9.3	46.9	2.49
연령	20대 이하	(43)	7.0	27.9	46.5	16.3	2.3	18.6	34.9	2.79
	30대	(103)	16.5	33.0	37.9	10.7	1.9	12.6	49.5	2.49
	40대	(152)	12.5	34.9	42.8	9.2	0.7	9.9	47.4	2.51
	50대	(86)	7.0	40.7	41.9	8.1	2.3	10.5	47.7	2.58
	60대 이상	(35)	17.1	34.3	40.0	8.6	0.0	8.6	51.4	2.4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0.1	31.5	44.4	12.4	1.7	14.0	41.6	2.64
	성남 외 경기	(107)	16.8	39.3	32.7	10.3	0.9	11.2	56.1	2.39
	서울	(117)	12.8	35.0	42.7	7.7	1.7	9.4	47.9	2.50
	그 외 지역	(17)	0.0	41.2	58.8	0.0	0.0	0.0	41.2	2.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7.3	31.8	40.9	0.0	0.0	0.0	59.1	2.14
	사진	(11)	9.1	36.4	45.5	9.1	0.0	9.1	45.5	2.55
	미술	(106)	14.2	30.2	37.7	16.0	1.9	17.9	44.3	2.61
	국악	(47)	8.5	40.4	40.4	10.6	0.0	10.6	48.9	2.53
	무용	(37)	13.5	37.8	40.5	5.4	2.7	8.1	51.4	2.46
	연극	(36)	19.4	36.1	38.9	5.6	0.0	5.6	55.6	2.31
	음악	(100)	11.0	30.0	50.0	7.0	2.0	9.0	41.0	2.59
	영화	(19)	0.0	47.4	36.8	15.8	0.0	15.8	47.4	2.68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공연)	(10)	0.0	70.0	30.0	0.0	0.0	0.0	70.0	2.3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34.5	37.9	17.2	3.4	20.7	41.4	2.76
	3년 미만	(23)	0.0	30.4	43.5	21.7	4.3	26.1	30.4	3.00
	3~5년	(40)	22.5	22.5	37.5	17.5	0.0	17.5	45.0	2.50
	6~10년	(67)	10.4	32.8	47.8	7.5	1.5	9.0	43.3	2.57
	11~20년	(121)	14.9	34.7	36.4	11.6	2.5	14.0	49.6	2.5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10.1	39.3	43.5	6.5	.6	7.1	49.4	2.48
	가능	(382)	12.8	35.1	41.1	9.7	1.3	11.0	47.9	2.52
	불가능	(37)	5.4	32.4	45.9	13.5	2.7	16.2	37.8	2.76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2) 예술작품 향유기회가 많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9.5	33.7	39.9	13.4	3.6	16.9	43.2	2.68
거주지 1	성남	(290)	12.4	35.9	35.2	13.8	2.8	16.6	48.3	2.59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5	27.5	55.0	11.3	3.8	15.0	30.0	2.86
	서울	(49)	4.1	30.6	42.9	14.3	8.2	22.4	34.7	2.92
거주지 2	수정구	(64)	6.3	40.6	39.1	10.9	3.1	14.1	46.9	2.64
	중원구	(56)	14.3	42.9	33.9	7.1	1.8	8.9	57.1	2.39
	분당구	(170)	14.1	31.8	34.1	17.1	2.9	20.0	45.9	2.6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9.3	35.3	40.7	12.3	2.5	14.7	44.6	2.63
	겸업	(215)	9.8	32.1	39.1	14.4	4.7	19.1	41.9	2.72
성별	여성	(225)	9.8	34.7	34.7	16.0	4.9	20.9	44.4	2.72
	남성	(194)	9.3	32.5	45.9	10.3	2.1	12.4	41.8	2.63
연령	20대 이하	(43)	11.6	30.2	39.5	14.0	4.7	18.6	41.9	2.70
	30대	(103)	11.7	35.9	34.0	13.6	4.9	18.4	47.6	2.64
	40대	(152)	10.5	32.9	39.5	15.1	2.0	17.1	43.4	2.65
	50대	(86)	4.7	30.2	48.8	11.6	4.7	16.3	34.9	2.81
	60대 이상	(35)	8.6	42.9	37.1	8.6	2.9	11.4	51.4	2.5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7.9	29.2	43.3	16.9	2.8	19.7	37.1	2.78
	성남 외 경기	(107)	15.0	38.3	34.6	7.5	4.7	12.1	53.3	2.49
	서울	(117)	8.5	35.9	38.5	12.8	4.3	17.1	44.4	2.68
	그 외 지역	(17)	0.0	35.3	47.1	17.6	0.0	17.6	35.3	2.8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22.7	40.9	18.2	0.0	18.2	40.9	2.59
	사진	(11)	9.1	36.4	27.3	27.3	0.0	27.3	45.5	2.73
	미술	(106)	8.5	38.7	32.1	16.0	4.7	20.8	47.2	2.70
	국악	(47)	4.3	42.6	36.2	12.8	4.3	17.0	46.8	2.70
	무용	(37)	10.8	32.4	48.6	5.4	2.7	8.1	43.2	2.57
	연극	(36)	22.2	27.8	47.2	0.0	2.8	2.8	50.0	2.33
	음악	(100)	9.0	28.0	46.0	13.0	4.0	17.0	37.0	2.75
	영화	(19)	0.0	47.4	36.8	15.8	0.0	15.8	47.4	2.68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40.0	30.0	20.0	0.0	20.0	50.0	2.6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27.6	41.4	17.2	6.9	24.1	34.5	2.90
	3년 미만	(23)	0.0	30.4	43.5	21.7	4.3	26.1	30.4	3.00
	3~5년	(40)	22.5	25.0	30.0	15.0	7.5	22.5	47.5	2.60
	6~10년	(67)	10.4	43.3	29.9	11.9	4.5	16.4	53.7	2.57
	11~20년	(121)	12.4	30.6	38.8	14.0	4.1	18.2	43.0	2.67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5.4	34.5	46.4	11.9	1.8	13.7	39.9	2.70
	가능	(382)	9.7	33.8	40.3	12.6	3.7	16.2	43.5	2.67
	불가능	(37)	8.1	32.4	35.1	21.6	2.7	24.3	40.5	2.78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3) 예술활동 발표기회가 많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2.2	39.9	37.9	8.6	1.4	10.0	52.0	2.47
거주지 1	성남	(290)	13.8	44.5	34.1	6.9	0.7	7.6	58.3	2.3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7.5	33.8	45.0	11.3	2.5	13.8	41.3	2.68
	서울	(49)	10.2	22.4	49.0	14.3	4.1	18.4	32.7	2.80
거주지 2	수정구	(64)	7.8	53.1	35.9	3.1	0.0	3.1	60.9	2.34
	중원구	(56)	12.5	57.1	25.0	5.4	0.0	5.4	69.6	2.23
	분당구	(170)	16.5	37.1	36.5	8.8	1.2	10.0	53.5	2.4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2.7	40.7	36.8	8.8	1.0	9.8	53.4	2.45
	겸업	(215)	11.6	39.1	39.1	8.4	1.9	10.2	50.7	2.50
성별	여성	(225)	12.0	43.1	31.1	11.1	2.7	13.8	55.1	2.49
	남성	(194)	12.4	36.1	45.9	5.7	0.0	5.7	48.5	2.45
연령	20대 이하	(43)	14.0	32.6	39.5	11.6	2.3	14.0	46.5	2.56
	30대	(103)	15.5	42.7	32.0	8.7	1.0	9.7	58.3	2.37
	40대	(152)	12.5	42.1	36.8	7.9	0.7	8.6	54.6	2.42
	50대	(86)	8.1	34.9	44.2	9.3	3.5	12.8	43.0	2.65
	60대 이상	(35)	8.6	42.9	42.9	5.7	0.0	5.7	51.4	2.4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7.9	38.8	42.1	9.6	1.7	11.2	46.6	2.58
	성남 외 경기	(107)	16.8	44.9	29.9	7.5	0.9	8.4	61.7	2.31
	서울	(117)	16.2	36.8	36.8	8.5	1.7	10.3	53.0	2.43
	그 외 지역	(17)	0.0	41.2	52.9	5.9	0.0	5.9	41.2	2.6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45.5	36.4	0.0	0.0	0.0	63.6	2.18
	사진	(11)	18.2	36.4	45.5	0.0	0.0	0.0	54.5	2.27
	미술	(106)	9.4	44.3	34.0	10.4	1.9	12.3	53.8	2.51
	국악	(47)	6.4	42.6	36.2	14.9	0.0	14.9	48.9	2.60
	무용	(37)	18.9	43.2	32.4	5.4	0.0	5.4	62.2	2.24
	연극	(36)	22.2	41.7	36.1	0.0	0.0	0.0	63.9	2.14
	음악	(100)	13.0	26.0	49.0	10.0	2.0	12.0	39.0	2.62
	영화	(19)	5.3	57.9	26.3	10.5	0.0	10.5	63.2	2.42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공연)	(10)	10.0	50.0	40.0	0.0	0.0	0.0	60.0	2.3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6.9	41.4	31.0	13.8	6.9	20.7	48.3	2.72
	3년 미만	(23)	0.0	47.8	39.1	8.7	4.3	13.0	47.8	2.70
	3~5년	(40)	30.0	25.0	32.5	12.5	0.0	12.5	55.0	2.28
	6~10년	(67)	10.4	43.3	37.3	7.5	1.5	9.0	53.7	2.46
	11~20년	(121)	17.4	41.3	35.5	5.0	.8	5.8	58.7	2.31
	20년 이상	(168)	6.5	39.9	41.1	10.7	1.8	12.5	46.4	2.6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2.3	39.8	38.0	8.6	1.3	9.9	52.1	2.47
	불가능	(37)	10.8	40.5	37.8	8.1	2.7	10.8	51.4	2.51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4) 예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4.3	34.8	34.1	13.6	3.1	16.7	49.2	2.56
거주지 1	성남	(290)	16.9	40.0	30.7	10.0	2.4	12.4	56.9	2.4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8	21.3	47.5	20.0	2.5	22.5	30.0	2.86
	서울	(49)	8.2	26.5	32.7	24.5	8.2	32.7	34.7	2.98
거주지 2	수정구	(64)	14.1	42.2	35.9	7.8	0.0	7.8	56.3	2.38
	중원구	(56)	14.3	44.6	37.5	3.6	0.0	3.6	58.9	2.30
	분당구	(170)	18.8	37.6	26.5	12.9	4.1	17.1	56.5	2.46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6.7	35.8	30.9	13.7	2.9	16.7	52.5	2.50
	겸업	(215)	12.1	34.0	37.2	13.5	3.3	16.7	46.0	2.62
성별	여성	(225)	12.9	36.9	32.9	14.2	3.1	17.3	49.8	2.58
	남성	(194)	16.0	32.5	35.6	12.9	3.1	16.0	48.5	2.55
연령	20대 이하	(43)	9.3	39.5	37.2	14.0	0.0	14.0	48.8	2.56
	30대	(103)	19.4	35.9	28.2	14.6	1.9	16.5	55.3	2.44
	40대	(152)	14.5	33.6	33.6	15.1	3.3	18.4	48.0	2.59
	50대	(86)	12.8	29.1	39.5	12.8	5.8	18.6	41.9	2.70
	60대 이상	(35)	8.6	45.7	37.1	5.7	2.9	8.6	54.3	2.4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3.5	32.0	34.3	16.3	3.9	20.2	45.5	2.65
	성남 외 경기	(107)	19.6	36.4	31.8	9.3	2.8	12.1	56.1	2.39
	서울	(117)	12.8	36.8	36.8	12.0	1.7	13.7	49.6	2.53
	그 외 지역	(17)	0.0	41.2	29.4	23.5	5.9	29.4	41.2	2.94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36.4	36.4	9.1	0.0	9.1	54.5	2.36
	사진	(11)	18.2	36.4	36.4	9.1	0.0	9.1	54.5	2.36
	미술	(106)	15.1	34.0	37.7	11.3	1.9	13.2	49.1	2.51
	국악	(47)	10.6	34.0	38.3	12.8	4.3	17.0	44.7	2.66
	무용	(37)	18.9	35.1	35.1	10.8	0.0	10.8	54.1	2.38
	연극	(36)	19.4	38.9	30.6	11.1	0.0	11.1	58.3	2.33
	음악	(100)	11.0	31.0	33.0	19.0	6.0	25.0	42.0	2.78
	영화	(19)	5.3	42.1	42.1	10.5	0.0	10.5	47.4	2.58
	만화	(2)	0.0	0.0	50.0	50.0	0.0	50.0	0.0	3.50
	연예(방송,공연)	(10)	30.0	30.0	10.0	30.0	0.0	30.0	60.0	2.4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13.8	44.8	20.7	10.3	10.3	20.7	58.6	2.59
	3년 미만	(23)	8.7	43.5	26.1	21.7	0.0	21.7	52.2	2.61
	3~5년	(40)	17.5	37.5	25.0	20.0	0.0	20.0	55.0	2.48
	6~10년	(67)	16.4	37.3	37.3	6.0	3.0	9.0	53.7	2.42
	11~20년	(121)	19.0	35.5	32.2	10.7	2.5	13.2	54.5	2.42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10.1	31.5	37.5	16.1	4.8	20.8	41.7	2.74
	가능	(382)	14.7	35.1	34.0	12.8	3.4	16.2	49.7	2.55
	불가능	(37)	10.8	32.4	35.1	21.6	0.0	21.6	43.2	2.68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5) 예술활동 커뮤니티 육성책이 좋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3.6	39.4	34.1	10.0	2.9	12.9	53.0	2.49
거주지 1	성남	(290)	17.2	41.4	32.1	7.6	1.7	9.3	58.6	2.35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6.3	35.0	43.8	12.5	2.5	15.0	41.3	2.70
	서울	(49)	4.1	34.7	30.6	20.4	10.2	30.6	38.8	2.98
거주지 2	수정구	(64)	14.1	43.8	32.8	9.4	0.0	9.4	57.8	2.38
	중원구	(56)	16.1	46.4	33.9	1.8	1.8	3.6	62.5	2.27
	분당구	(170)	18.8	38.8	31.2	8.8	2.4	11.2	57.6	2.37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4.2	41.2	35.3	7.4	2.0	9.3	55.4	2.42
	겸업	(215)	13.0	37.7	33.0	12.6	3.7	16.3	50.7	2.56
성별	여성	(225)	12.4	42.7	30.7	9.8	4.4	14.2	55.1	2.51
	남성	(194)	14.9	35.6	38.1	10.3	1.0	11.3	50.5	2.47
연령	20대 이하	(43)	14.0	30.2	46.5	7.0	2.3	9.3	44.2	2.53
	30대	(103)	15.5	35.0	32.0	14.6	2.9	17.5	50.5	2.54
	40대	(152)	15.8	42.8	29.6	9.9	2.0	11.8	58.6	2.39
	50대	(86)	8.1	44.2	34.9	7.0	5.8	12.8	52.3	2.58
	60대 이상	(35)	11.4	37.1	42.9	8.6	0.0	8.6	48.6	2.4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4.0	37.6	34.8	8.4	5.1	13.5	51.7	2.53
	성남 외 경기	(107)	15.9	38.3	35.5	9.3	.9	10.3	54.2	2.41
	서울	(117)	12.8	41.9	30.8	12.8	1.7	14.5	54.7	2.49
	그 외 지역	(17)	0.0	47.1	41.2	11.8	0.0	11.8	47.1	2.6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3.6	50.0	27.3	9.1	0.0	9.1	63.6	2.32
	사진	(11)	9.1	36.4	54.5	0.0	0.0	0.0	45.5	2.45
	미술	(106)	13.2	40.6	34.9	8.5	2.8	11.3	53.8	2.47
	국악	(47)	6.4	38.3	40.4	10.6	4.3	14.9	44.7	2.68
	무용	(37)	18.9	37.8	32.4	10.8	0.0	10.8	56.8	2.35
	연극	(36)	22.2	33.3	33.3	11.1	0.0	11.1	55.6	2.33
	음악	(100)	12.0	38.0	35.0	11.0	4.0	15.0	50.0	2.57
	영화	(19)	10.5	42.1	36.8	5.3	5.3	10.5	52.6	2.53
	만화	(2)	0.0	50.0	50.0	0.0	0.0	0.0	50.0	2.50
	연예(방송,공연)	(10)	10.0	60.0	20.0	10.0	0.0	10.0	70.0	2.3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20.7	34.5	20.7	17.2	6.9	24.1	55.2	2.55
	3년 미만	(23)	4.3	34.8	39.1	17.4	4.3	21.7	39.1	2.83
	3~5년	(40)	25.0	32.5	32.5	7.5	2.5	10.0	57.5	2.30
	6~10년	(67)	11.9	44.8	32.8	9.0	1.5	10.4	56.7	2.43
	11~20년	(121)	19.0	33.9	34.7	9.9	2.5	12.4	52.9	2.43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8.9	43.5	33.9	10.1	3.6	13.7	52.4	2.56
	가능	(382)	14.1	39.5	34.3	9.2	2.9	12.0	53.7	2.47
	불가능	(37)	8.1	37.8	32.4	18.9	2.7	21.6	45.9	2.70

문25. 성남시의 예술정책과 지원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6) 예술활동 정보교류가 활발하다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15.8	37.7	36.0	9.1	1.4	10.5	53.5	2.43
거주지 1	성남	(290)	18.3	40.3	34.1	6.2	1.0	7.2	58.6	2.31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8	33.8	42.5	13.8	1.3	15.0	42.5	2.65
	서울	(49)	12.2	28.6	36.7	18.4	4.1	22.4	40.8	2.73
거주지 2	수정구	(64)	15.6	46.9	31.3	6.3	0.0	6.3	62.5	2.28
	중원구	(56)	19.6	42.9	32.1	3.6	1.8	5.4	62.5	2.25
	분당구	(170)	18.8	37.1	35.9	7.1	1.2	8.2	55.9	2.35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6.2	41.2	34.8	6.4	1.5	7.8	57.4	2.36
	겸업	(215)	15.3	34.4	37.2	11.6	1.4	13.0	49.8	2.49
성별	여성	(225)	13.8	43.1	30.2	10.7	2.2	12.9	56.9	2.44
	남성	(194)	18.0	31.4	42.8	7.2	0.5	7.7	49.5	2.41
연령	20대 이하	(43)	16.3	30.2	41.9	11.6	0.0	11.6	46.5	2.49
	30대	(103)	17.5	38.8	34.0	8.7	1.0	9.7	56.3	2.37
	40대	(152)	19.7	38.2	33.6	7.9	0.7	8.6	57.9	2.32
	50대	(86)	8.1	39.5	39.5	8.1	4.7	12.8	47.7	2.62
	60대 이상	(35)	11.4	37.1	37.1	14.3	0.0	14.3	48.6	2.54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5.2	38.2	36.5	8.4	1.7	10.1	53.4	2.43
	성남 외 경기	(107)	16.8	40.2	34.6	6.5	1.9	8.4	57.0	2.36
	서울	(117)	17.1	33.3	37.6	11.1	0.9	12.0	50.4	2.45
	그 외 지역	(17)	5.9	47.1	29.4	17.6	0.0	17.6	52.9	2.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9.1	45.5	22.7	22.7	0.0	22.7	54.5	2.59
	사진	(11)	18.2	36.4	45.5	0.0	0.0	0.0	54.5	2.27
	미술	(106)	14.2	39.6	34.0	11.3	0.9	12.3	53.8	2.45
	국악	(47)	6.4	38.3	44.7	10.6	0.0	10.6	44.7	2.60
	무용	(37)	18.9	40.5	35.1	5.4	0.0	5.4	59.5	2.27
	연극	(36)	25.0	30.6	38.9	2.8	2.8	5.6	55.6	2.28
	음악	(100)	16.0	35.0	40.0	7.0	2.0	9.0	51.0	2.44
	영화	(19)	15.8	36.8	36.8	5.3	5.3	10.5	52.6	2.47
	만화	(2)	0.0	0.0	100.0	0.0	0.0	0.0	0.0	3.00
	연예(방송, 공연)	(10)	20.0	60.0	20.0	0.0	0.0	0.0	80.0	2.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24.1	34.5	20.7	17.2	3.4	20.7	58.6	2.41
	3년 미만	(23)	4.3	47.8	26.1	21.7	0.0	21.7	52.2	2.65
	3~5년	(40)	25.0	35.0	35.0	5.0	0.0	5.0	60.0	2.20
	6~10년	(67)	17.9	46.3	31.3	3.0	1.5	4.5	64.2	2.24
	11~20년	(121)	21.5	29.8	36.4	10.7	1.7	12.4	51.2	2.4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10.1	39.3	39.3	9.5	1.8	11.3	49.4	2.54
	가능	(382)	16.5	37.7	35.9	8.4	1.6	9.9	54.2	2.41
	불가능	(37)	8.1	37.8	37.8	16.2	0.0	16.2	45.9	2.62

문26. 최근 코로나 사태 발생(2020. 1.) 이후, 이와 관련하여 공공 및 민간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있다	없다
전 체		(419)	49.6	50.4
거주지 1	성남	(290)	54.1	45.9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46.3	53.8
	서울	(49)	28.6	71.4
거주지 2	수정구	(64)	68.8	31.3
	중원구	(56)	57.1	42.9
	분당구	(170)	47.6	52.4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53.4	46.6
	겸업	(215)	46.0	54.0
성별	여성	(225)	52.0	48.0
	남성	(194)	46.9	53.1
연령	20대 이하	(43)	51.2	48.8
	30대	(103)	51.5	48.5
	40대	(152)	47.4	52.6
	50대	(86)	50.0	50.0
	60대 이상	(35)	51.4	4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8.3	51.7
	성남 외 경기	(107)	57.0	43.0
	서울	(117)	43.6	56.4
	그 외 지역	(17)	58.8	41.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18.2	81.8
	사진	(11)	54.5	45.5
	미술	(106)	52.8	47.2
	국악	(47)	57.4	42.6
	무용	(37)	62.2	37.8
	연극	(36)	44.4	55.6
	음악	(100)	43.0	57.0
	영화	(19)	52.6	47.4
	만화	(2)	0.0	10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4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41.4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39.1	60.9
	3~5년	(40)	52.5	47.5
	6~10년	(67)	55.2	44.8
	11~20년	(121)	50.4	49.6
	20년 이상	(168)	47.6	52.4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51.0	49.0
	불가능	(37)	35.1	64.9

문26-1. 지원받은 경험이 있다면, 어디서 지원을 받으셨습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경기도	성남시	성남문화재단	그 외 공공기관	민간
전 체		(208)	59.1	47.6	24.5	43.3	8.7
거주지 1	성남	(157)	59.2	54.1	27.4	40.1	9.6
	성남시 외 경기지역	(37)	73.0	27.0	18.9	48.6	8.1
	서울	(14)	21.4	28.6	7.1	64.3	0.0
거주지 2	수정구	(44)	61.4	54.5	25.0	45.5	6.8
	중원구	(32)	53.1	62.5	37.5	21.9	6.3
	분당구	(81)	60.5	50.6	24.7	44.4	12.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09)	56.9	45.0	20.2	46.8	11.0
	겸업	(99)	61.6	50.5	29.3	39.4	6.1
성별	여성	(117)	56.4	49.6	25.6	43.6	9.4
	남성	(91)	62.6	45.1	23.1	42.9	7.7
연령	20대 이하	(22)	63.6	63.6	27.3	45.5	9.1
	30대	(53)	64.2	37.7	24.5	54.7	5.7
	40대	(72)	54.2	50.0	25.0	47.2	13.9
	50대	(43)	69.8	41.9	18.6	25.6	7.0
	60대 이상	(18)	33.3	61.1	33.3	33.3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86)	52.3	57.0	25.6	31.4	4.7
	성남 외 경기	(61)	67.2	41.0	21.3	54.1	14.8
	서울	(51)	56.9	39.2	27.5	52.9	7.8
	그 외 지역	(10)	80.0	50.0	20.0	30.0	1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4)	25.0	25.0	0.0	75.0	0.0
	사진	(6)	50.0	50.0	16.7	50.0	16.7
	미술	(56)	57.1	42.9	32.1	37.5	5.4
	국악	(27)	70.4	66.7	29.6	25.9	11.1
	무용	(23)	52.2	47.8	13.0	47.8	13.0
	연극	(16)	75.0	31.3	25.0	75.0	6.3
	음악	(43)	62.8	51.2	25.6	39.5	11.6
	영화	(10)	70.0	30.0	20.0	70.0	0.0
	연예(방송, 공연)	(6)	66.7	66.7	16.7	33.3	0.0
	기타(다원예술 등)	(17)	35.3	47.1	17.6	41.2	11.8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9)	44.4	44.4	44.4	44.4	0.0
	3~5년	(21)	71.4	42.9	14.3	38.1	14.3
	6~10년	(37)	54.1	40.5	16.2	59.5	2.7
	11~20년	(61)	65.6	50.8	32.8	44.3	9.8
	20년 이상	(80)	55.0	50.0	22.5	36.3	10.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195)	60.5	47.2	23.6	44.6	9.2
	불가능	(13)	38.5	53.8	38.5	23.1	0.0

문26-2.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원정책을 몰라서	지원을 신청했으나, 탈락해서	지원받는 방법을 몰라서	지원정책의 실효성이 없어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서	기타
전 체		(211)	36.5	23.7	23.7	16.6	9.5	7.6
거주지 1	성남	(133)	40.6	25.6	21.8	16.5	7.5	9.0
	성남시 외 경기지역	(43)	27.9	20.9	37.2	18.6	11.6	2.3
	서울	(35)	31.4	20.0	14.3	14.3	14.3	8.6
거주지 2	수정구	(20)	40.0	30.0	10.0	20.0	20.0	0.0
	중원구	(24)	25.0	25.0	20.8	20.8	4.2	20.8
	분당구	(89)	44.9	24.7	24.7	14.6	5.6	7.9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95)	36.8	26.3	26.3	12.6	11.6	3.2
	겸업	(116)	36.2	21.6	21.6	19.8	7.8	11.2
성별	여성	(108)	42.6	18.5	25.9	16.7	9.3	6.5
	남성	(103)	30.1	29.1	21.4	16.5	9.7	8.7
연령	20대 이하	(21)	47.6	23.8	23.8	19.0	4.8	14.3
	30대	(50)	26.0	30.0	24.0	22.0	4.0	6.0
	40대	(80)	37.5	22.5	25.0	16.3	8.8	8.8
	50대	(43)	37.2	23.3	20.9	7.0	23.3	4.7
	60대 이상	(17)	47.1	11.8	23.5	23.5	0.0	5.9
주요활동 지역	성남	(92)	39.1	17.4	25.0	12.0	12.0	9.8
	성남 외 경기	(46)	43.5	34.8	26.1	8.7	4.3	4.3
	서울	(66)	30.3	24.2	18.2	28.8	9.1	7.6
	그 외 지역	(7)	14.3	28.6	42.9	14.3	14.3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18)	33.3	11.1	33.3	22.2	5.6	11.1
	사진	(5)	40.0	40.0	0.0	0.0	20.0	0.0
	미술	(50)	38.0	28.0	16.0	24.0	2.0	4.0
	국악	(20)	35.0	30.0	15.0	10.0	25.0	0.0
	무용	(14)	35.7	21.4	35.7	7.1	7.1	7.1
	연극	(20)	40.0	30.0	20.0	15.0	5.0	10.0
	음악	(57)	33.3	21.1	31.6	12.3	14.0	5.3
	영화	(9)	11.1	11.1	22.2	33.3	0.0	33.3
	만화	(2)	50.0	0.0	0.0	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4)	75.0	25.0	25.0	0.0	0.0	25.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12)	50.0	25.0	25.0	25.0	8.3	16.7
	3년 미만	(14)	64.3	21.4	21.4	7.1	0.0	7.1
	3~5년	(19)	21.1	26.3	26.3	15.8	5.3	21.1
	6~10년	(30)	33.3	20.0	30.0	40.0	0.0	10.0
	11~20년	(60)	36.7	23.3	20.0	20.0	6.7	10.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88)	36.4	25.0	23.9	8.0	17.0	2.3
	가능	(187)	37.4	25.7	23.5	15.5	9.1	6.4
	불가능	(24)	29.2	8.3	25.0	25.0	12.5	16.7

문27. 지원받은 경험이 없다면 이유가 무엇입니까?(종합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창작 준비 지원금 지급	연습실, 공연장, 전시장 등 문화예술시설 사용 지원	지원사업 선급금 지급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문화예술조직 (단체, 기관)의 운영 지원	인턴십 등 예술 일자리 지원
전 체		(419)	59.4	37.9	33.9	22.2	21.7	20.8
거주지 1	성남	(290)	64.1	37.9	33.1	20.3	23.8	21.7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51.3	36.3	38.8	26.3	16.3	17.5
	서울	(49)	44.9	40.8	30.6	26.5	18.4	20.4
	수정구	(64)	65.6	32.8	26.6	21.9	23.4	25.0
거주지 2	중원구	(56)	67.9	32.1	35.7	19.6	23.2	26.8
	분당구	(170)	62.4	41.8	34.7	20.0	24.1	18.8
	필요소득 해결방법							
성별	전업	(204)	60.8	33.8	35.3	26.0	24.0	17.6
	겸업	(215)	58.1	41.9	32.6	18.6	19.5	23.7
연령	여성	(225)	56.9	41.3	28.4	21.3	20.4	27.6
	남성	(194)	62.4	34.0	40.2	23.2	23.2	12.9
주요활동 지역	20대 이하	(43)	55.8	32.6	37.2	27.9	11.6	48.8
	30대	(103)	72.8	33.0	39.8	18.4	15.5	19.4
	40대	(152)	53.3	42.1	34.9	24.3	21.7	13.8
	50대	(86)	60.5	31.4	26.7	24.4	30.2	22.1
	60대 이상	(35)	48.6	57.1	25.7	11.4	31.4	17.1
주요활동 분야	성남	(178)	45.5	43.8	32.6	21.9	25.8	24.7
	성남 외 경기	(107)	57.9	34.6	35.5	24.3	20.6	20.6
	서울	(117)	77.8	33.3	32.5	23.1	17.9	14.5
	그 외 지역	(17)	88.2	29.4	47.1	5.9	11.8	23.5
예술활동 전체경력	문학(출판)	(22)	81.8	22.7	54.5	9.1	4.5	40.9
	사진	(11)	63.6	18.2	27.3	18.2	18.2	27.3
	미술	(106)	82.1	25.5	28.3	20.8	11.3	22.6
	국악	(47)	48.9	51.1	36.2	23.4	23.4	19.1
	무용	(37)	43.2	54.1	29.7	16.2	21.6	29.7
	연극	(36)	61.1	27.8	36.1	30.6	33.3	25.0
	음악	(100)	44.0	54.0	34.0	20.0	32.0	12.0
	영화	(19)	73.7	26.3	36.8	42.1	0.0	15.8
	만화	(2)	50.0	0.0	50.0	100.0	0.0	0.0
	연예(방송,공연)	(10)	50.0	60.0	40.0	10.0	5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41.4	20.7	34.5	27.6	27.6	24.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3년 미만	(23)	52.2	30.4	34.8	30.4	4.3	47.8
	3~5년	(40)	60.0	37.5	35.0	20.0	22.5	30.0
	6~10년	(67)	73.1	28.4	37.3	19.4	17.9	25.4
	11~20년	(121)	62.8	30.6	41.3	24.8	19.8	14.9
	20년 이상	(168)	52.4	48.2	26.8	20.8	26.8	17.3
가능여부	가능	(382)	59.7	38.0	35.1	22.3	22.5	20.2
	불가능	(37)	56.8	37.8	21.6	21.6	13.5	27.0

구 분		사례수	생계 안전 응자 지원	작품 구입 지원	고용유지 지원	아이디어 기획/조 사연구 활동 지원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지역문화 예술계 피해 영향조사	지원사업 중단에 따른 공연장 대관료 피해 보상 지원	기타
전 체		(419)	19.3	17.7	16.9	14.1	9.5	6.2	1.2
거주지 1	성남	(290)	19.0	18.3	13.1	14.8	9.3	6.2	0.7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5.0	18.8	26.3	5.0	11.3	3.8	2.5
	서울	(49)	12.2	12.2	24.5	24.5	8.2	10.2	2.0
거주지 2	수정구	(64)	18.8	17.2	17.2	18.8	9.4	6.3	1.6
	중원구	(56)	23.2	12.5	8.9	10.7	14.3	3.6	1.8
	분당구	(170)	17.6	20.6	12.9	14.7	7.6	7.1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8.6	18.6	18.1	8.3	12.3	6.9	1.0
	겸업	(215)	20.0	16.7	15.8	19.5	7.0	5.6	1.4
성별	여성	(225)	16.4	17.8	19.6	16.4	10.2	4.0	1.3
	남성	(194)	22.7	17.5	13.9	11.3	8.8	8.8	1.0
연령	20대 이하	(43)	16.3	14.0	16.3	11.6	14.0	0.0	0.0
	30대	(103)	21.4	18.4	11.7	13.6	11.7	11.7	0.0
	40대	(152)	19.7	16.4	17.8	17.8	8.6	5.9	2.6
	50대	(86)	20.9	17.4	22.1	11.6	8.1	4.7	1.2
	60대 이상	(35)	11.4	25.7	17.1	8.6	5.7	2.9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0.2	12.9	19.7	11.8	11.8	6.7	1.7
	성남 외 경기	(107)	19.6	15.9	21.5	15.9	10.3	4.7	0.9
	서울	(117)	17.9	24.8	9.4	16.2	6.8	6.8	0.9
	그 외 지역	(17)	17.6	29.4	11.8	11.8	0.0	5.9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18.2	9.1	13.6	0.0	4.5	0.0
	사진	(11)	18.2	63.6	0.0	9.1	0.0	0.0	0.0
	미술	(106)	10.4	49.1	9.4	13.2	7.5	4.7	0.9
	국악	(47)	14.9	0.0	25.5	6.4	12.8	10.6	2.1
	무용	(37)	18.9	5.4	21.6	13.5	10.8	5.4	0.0
	연극	(36)	27.8	0.0	16.7	16.7	16.7	0.0	0.0
	음악	(100)	23.0	4.0	20.0	14.0	11.0	8.0	2.0
	영화	(19)	36.8	0.0	10.5	31.6	15.8	0.0	0.0
	만화	(2)	50.0	0.0	0.0	0.0	5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20.0	30.0	0.0	0.0	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10.3	27.6	24.1	3.4	17.2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21.7	21.7	17.4	17.4	17.4	4.3	0.0
	3~5년	(40)	22.5	17.5	20.0	17.5	10.0	5.0	0.0
	6~10년	(67)	17.9	23.9	6.0	10.4	9.0	9.0	1.5
	11~20년	(121)	19.8	14.0	14.0	15.7	6.6	6.6	2.5
	20년 이상	(168)	18.5	17.3	22.6	13.1	10.7	5.4	0.6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7.3	17.3	17.3	14.1	8.6	6.3	1.0
	불가능	(37)	40.5	21.6	13.5	13.5	18.9	5.4	2.7

문28. 아래 문항 중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증진을 위해 성남문화재단에 보강될 필요가 있는 정책사업은 무엇입니까?(종합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지원금 확대 (다액 소건 지원사업 확충)	예술활동 공간 및 시설 확충	지원사업 공모 기회 확대	공간 (임차료) 지원	지원 분야 (장르)의 다양화	창작 준비/기 획/조사 연구 활동 지원	다년도 창작 지원
전 체		(419)	39.9	32.9	28.2	25.1	22.7	19.8	17.4
거주지 1	성남	(290)	38.6	31.4	28.3	25.9	21.7	21.4	18.3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42.5	30.0	31.3	21.3	27.5	11.3	11.3
	서울	(49)	42.9	46.9	22.4	26.5	20.4	24.5	22.4
거주지 2	수정구	(64)	37.5	31.3	23.4	34.4	12.5	23.4	23.4
	중원구	(56)	33.9	37.5	28.6	21.4	21.4	21.4	25.0
	분당구	(170)	40.6	29.4	30.0	24.1	25.3	20.6	14.1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3.1	30.9	25.0	27.0	24.0	18.1	16.2
	겸업	(215)	36.7	34.9	31.2	23.3	21.4	21.4	18.6
성별	여성	(225)	39.6	36.4	30.7	23.1	21.8	21.8	15.6
	남성	(194)	40.2	28.9	25.3	27.3	23.7	17.5	19.6
연령	20대 이하	(43)	48.8	41.9	46.5	25.6	23.3	14.0	7.0
	30대	(103)	47.6	30.1	27.2	27.2	21.4	28.2	22.3
	40대	(152)	30.3	36.8	25.7	27.0	19.7	19.7	17.8
	50대	(86)	45.3	27.9	26.7	24.4	26.7	15.1	16.3
	60대 이상	(35)	34.3	25.7	22.9	11.4	28.6	14.3	17.1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39.9	38.2	29.8	26.4	20.8	17.4	12.9
	성남 외 경기	(107)	37.4	27.1	23.4	26.2	25.2	15.9	20.6
	서울	(117)	42.7	30.8	30.8	22.2	23.1	26.5	20.5
	그 외 지역	(17)	35.3	29.4	23.5	23.5	23.5	23.5	23.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36.4	40.9	27.3	4.5	31.8	40.9	36.4
	사진	(11)	0.0	36.4	9.1	9.1	36.4	27.3	27.3
	미술	(106)	36.8	44.3	32.1	30.2	17.0	22.6	25.5
	국악	(47)	53.2	36.2	27.7	21.3	25.5	10.6	8.5
	무용	(37)	35.1	32.4	37.8	21.6	29.7	16.2	8.1
	연극	(36)	44.4	13.9	33.3	22.2	16.7	22.2	25.0
	음악	(100)	44.0	27.0	23.0	28.0	17.0	13.0	9.0
	영화	(19)	47.4	31.6	26.3	26.3	42.1	36.8	26.3
	만화	(2)	50.0	50.0	50.0	0.0	100.0	50.0	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20.0	30.0	20.0	30.0	1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27.6	27.6	20.7	34.5	24.1	20.7	17.2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7.8	47.8	30.4	26.1	13.0	26.1	13.0
	3~5년	(40)	57.5	30.0	42.5	20.0	27.5	25.0	17.5
	6~10년	(67)	37.3	37.3	32.8	25.4	23.9	22.4	14.9
	11~20년	(121)	38.0	27.3	25.6	26.4	20.7	23.1	19.8
	20년 이상	(168)	36.9	33.9	24.4	25.0	23.8	14.3	17.3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9.0	32.7	27.7	24.3	23.6	19.4	18.6
	불가능	(37)	48.6	35.1	32.4	32.4	13.5	24.3	5.4

구 분		사례수	지역예술인 참여 협업 예술 프로그램 개발	인력 운영비 지원	예술 협업활동 지원 (융복합 창작, 해외교류)	강의/ 워크숍 강사 양성 교육 및 활동 기회제공	예술인 (예술단 체) 지원 조례 및 제도 등 연구	지역예술인 예술활동 홍보마케 팅 지원	비대면 콘텐츠 제작 시스템/ 장비 및 기술지원
전 체		(419)	16.9	12.6	11.5	11.5	8.8	8.4	7.4
거주지 1	성남	(290)	19.7	12.8	13.1	9.7	7.9	8.6	5.5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0.0	12.5	8.8	18.8	8.8	10.0	12.5
	서울	(49)	12.2	12.2	6.1	10.2	14.3	4.1	10.2
거주지 2	수정구	(64)	15.6	20.3	14.1	7.8	4.7	12.5	4.7
	중원구	(56)	17.9	12.5	12.5	3.6	10.7	12.5	7.1
	분당구	(170)	21.8	10.0	12.9	12.4	8.2	5.9	5.3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15.2	14.2	10.8	9.3	12.3	9.8	7.8
	겸업	(215)	18.6	11.2	12.1	13.5	5.6	7.0	7.0
성별	여성	(225)	17.8	10.2	16.0	11.1	8.9	4.4	7.1
	남성	(194)	16.0	15.5	6.2	11.9	8.8	12.9	7.7
연령	20대 이하	(43)	23.3	16.3	4.7	4.7	7.0	4.7	7.0
	30대	(103)	8.7	14.6	14.6	9.7	9.7	8.7	3.9
	40대	(152)	20.4	7.9	11.2	11.8	9.9	8.6	9.9
	50대	(86)	14.0	16.3	14.0	12.8	7.0	7.0	8.1
	60대 이상	(35)	25.7	14.3	5.7	20.0	8.6	14.3	5.7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15.7	12.9	10.7	10.7	11.2	9.0	6.2
	성남 외 경기	(107)	22.4	13.1	15.0	12.1	7.5	10.3	7.5
	서울	(117)	15.4	10.3	9.4	13.7	7.7	6.0	9.4
	그 외 지역	(17)	5.9	23.5	11.8	0.0	0.0	5.9	5.9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22.7	4.5	18.2	9.1	0.0	9.1	0.0
	사진	(11)	9.1	0.0	9.1	18.2	0.0	18.2	9.1
	미술	(106)	11.3	3.8	13.2	7.5	8.5	7.5	5.7
	국악	(47)	23.4	14.9	10.6	12.8	12.8	6.4	6.4
	무용	(37)	21.6	13.5	24.3	18.9	2.7	2.7	8.1
	연극	(36)	22.2	36.1	5.6	11.1	0.0	5.6	8.3
	음악	(100)	17.0	19.0	7.0	14.0	17.0	12.0	9.0
	영화	(19)	15.8	0.0	5.3	15.8	5.3	0.0	15.8
	만화	(2)	0.0	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30.0	0.0	10.0	0.0	20.0	3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0.3	13.8	13.8	6.9	3.4	6.9	10.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13.0	4.3	8.7	8.7	4.3	0.0	13.0
	3~5년	(40)	20.0	12.5	5.0	7.5	10.0	7.5	2.5
	6~10년	(67)	11.9	11.9	16.4	11.9	4.5	6.0	4.5
	11~20년	(121)	16.5	12.4	12.4	9.1	9.9	10.7	9.9
	20년 이상	(168)	19.0	14.3	10.7	14.3	10.1	8.9	7.1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16.5	13.4	11.5	11.5	8.9	8.1	7.1
	불가능	(37)	21.6	5.4	10.8	10.8	8.1	10.8	10.8

구 분		사례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문화기술 , 온라인 협업 툴) 지원	지역예술 인 DB 및 아카이빙 플랫폼 구축	기초문화 재단형 예술인 지원센터 (팀) 구축	생활예술 인과 전문예술 인의 교류 및 협업 강화	예술창업 컨설팅 지원 (시장분석, 경영전략, 파이낸싱)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확충 등 지역연계 강화	무응답
전 체		(419)	6.2	5.5	5.5	4.8	4.1	1.2	0.2
거주지 1	성남	(290)	5.2	7.2	6.6	6.2	3.4	.7	0.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12.5	2.5	3.8	2.5	6.3	2.5	1.3
	서울	(49)	2.0	0.0	2.0	0.0	4.1	2.0	0.0
거주지 2	수정구	(64)	7.8	6.3	6.3	4.7	3.1	0.0	0.0
	중원구	(56)	1.8	7.1	8.9	7.1	3.6	0.0	0.0
	분당구	(170)	5.3	7.6	5.9	6.5	3.5	1.2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4	4.4	5.9	5.4	3.9	1.0	0.5
	겸업	(215)	7.9	6.5	5.1	4.2	4.2	1.4	0.0
성별	여성	(225)	6.7	7.1	5.8	3.6	4.0	.9	0.0
	남성	(194)	5.7	3.6	5.2	6.2	4.1	1.5	0.5
연령	20대 이하	(43)	4.7	4.7	0.0	7.0	9.3	0.0	0.0
	30대	(103)	1.9	3.9	3.9	2.9	5.8	0.0	0.0
	40대	(152)	9.2	5.9	7.2	5.9	2.6	1.3	0.7
	50대	(86)	7.0	9.3	5.8	1.2	3.5	2.3	0.0
	60대 이상	(35)	5.7	0.0	8.6	11.4	0.0	2.9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4.5	5.1	6.2	5.6	3.4	1.1	0.6
	성남 외 경기	(107)	10.3	2.8	3.7	6.5	6.5	0.9	0.0
	서울	(117)	2.6	7.7	5.1	2.6	2.6	1.7	0.0
	그 외 지역	(17)	23.5	11.8	11.8	0.0	5.9	0.0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0.0	9.1	0.0	4.5	0.0	0.0	0.0
	사진	(11)	18.2	9.1	9.1	18.2	0.0	0.0	0.0
	미술	(106)	2.8	7.5	7.5	3.8	3.8	0.9	0.0
	국악	(47)	2.1	2.1	6.4	4.3	4.3	0.0	0.0
	무용	(37)	5.4	5.4	0.0	0.0	2.7	0.0	0.0
	연극	(36)	8.3	2.8	11.1	5.6	0.0	0.0	0.0
	음악	(100)	9.0	5.0	5.0	8.0	3.0	3.0	1.0
	영화	(19)	0.0	5.3	0.0	0.0	0.0	0.0	0.0
	만화	(2)	0.0	0.0	0.0	0.0	0.0	0.0	0.0
	연예(방송, 공연)	(10)	10.0	10.0	10.0	10.0	20.0	0.0	0.0
	기타(다원예술 등)	(29)	17.2	3.4	3.4	0.0	17.2	3.4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17.4	4.3	0.0	8.7	13.0	0.0	0.0
	3~5년	(40)	0.0	5.0	0.0	2.5	5.0	0.0	0.0
	6~10년	(67)	7.5	6.0	3.0	3.0	6.0	1.5	0.0
	11~20년	(121)	6.6	2.5	5.8	5.8	2.5	0.8	0.8
	20년 이상	(168)	5.4	7.7	8.3	4.8	3.0	1.8	0.0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3	5.8	5.8	5.0	3.7	1.3	0.3
	불가능	(37)	5.4	2.7	2.7	2.7	8.1	0.0	0.0

문29. 귀하께서는 성남시가 ICT 산업 메카로서의 지역특성을 살려 문화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그렇다	아니다
전 체		(419)	82.6	17.4
거주지 1	성남	(290)	83.4	16.6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83.8	16.3
	서울	(49)	75.5	24.5
거주지 2	수정구	(64)	76.6	23.4
	중원구	(56)	80.4	19.6
	분당구	(170)	87.1	12.9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80.9	19.1
	겸업	(215)	84.2	15.8
성별	여성	(225)	85.8	14.2
	남성	(194)	78.9	21.1
연령	20대 이하	(43)	76.7	23.3
	30대	(103)	77.7	22.3
	40대	(152)	84.2	15.8
	50대	(86)	84.9	15.1
	60대 이상	(35)	91.4	8.6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84.8	15.2
	성남 외 경기	(107)	84.1	15.9
	서울	(117)	79.5	20.5
	그 외 지역	(17)	70.6	29.4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95.5	4.5
	사진	(11)	81.8	18.2
	미술	(106)	76.4	23.6
	국악	(47)	80.9	19.1
	무용	(37)	89.2	10.8
	연극	(36)	75.0	25.0
	음악	(100)	85.0	15.0
	영화	(19)	84.2	15.8
	만화	(2)	100.0	0.0
	연예(방송, 공연)	(10)	90.0	10.0
	기타(다원예술 등)	(29)	86.2	13.8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73.9	26.1
	3~5년	(40)	75.0	25.0
	6~10년	(67)	76.1	23.9
	11~20년	(121)	81.8	18.2
	20년 이상	(168)	88.7	11.3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83.0	17.0
	불가능	(37)	78.4	21.6

문29-1. ICT 산업 강점 지역특성을 살린 문화정책에는 다음 중 반드시 필요한 정책은 무엇입니까? (단위 : %)

구 분		사례수	융복합 창작 등 기술기반 예술 협업활동 지원	온라인 문화예술 콘텐츠 제작 및 유통서비스 지원	융복합 예술체험 공간 등 디지털 문화기반 확충	융복합 기술기반 예술창업 컨설팅 등 지원 강화	콘텐츠 중심 사업구조 재편 및 콘텐츠 관리 강화	기타
전 체		(346)	38.7	27.2	15.3	10.1	8.1	0.6
거주지 1	성남	(242)	38.8	26.4	15.7	10.3	7.9	0.8
	성남시 외 경기지역	(67)	40.3	31.3	14.9	4.5	9.0	0.0
	서울	(37)	35.1	24.3	13.5	18.9	8.1	0.0
거주지 2	수정구	(49)	28.6	24.5	28.6	6.1	8.2	4.1
	중원구	(45)	53.3	20.0	13.3	6.7	6.7	0.0
	분당구	(148)	37.8	29.1	12.2	12.8	8.1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165)	38.2	28.5	15.8	10.3	6.7	0.6
	겸업	(181)	39.2	26.0	14.9	9.9	9.4	0.6
성별	여성	(193)	42.0	24.4	14.0	10.4	8.8	0.5
	남성	(153)	34.6	30.7	17.0	9.8	7.2	0.7
연령	20대 이하	(33)	36.4	30.3	24.2	0.0	9.1	0.0
	30대	(80)	43.8	23.8	12.5	12.5	6.3	1.3
	40대	(128)	35.2	28.9	14.1	11.7	10.2	0.0
	50대	(73)	41.1	21.9	16.4	11.0	9.6	0.0
	60대 이상	(32)	37.5	37.5	15.6	6.3	0.0	3.1
주요활동 지역	성남	(151)	35.1	26.5	19.2	12.6	5.3	1.3
	성남 외 경기	(90)	42.2	23.3	16.7	6.7	11.1	0.0
	서울	(93)	39.8	32.3	9.7	9.7	8.6	0.0
	그 외 지역	(12)	50.0	25.0	0.0	8.3	16.7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1)	38.1	33.3	0.0	9.5	19.0	0.0
	사진	(9)	66.7	22.2	0.0	11.1	0.0	0.0
	미술	(81)	48.1	22.2	12.3	12.3	2.5	2.5
	국악	(38)	31.6	34.2	26.3	5.3	2.6	0.0
	무용	(33)	45.5	12.1	15.2	15.2	12.1	0.0
	연극	(27)	37.0	37.0	14.8	0.0	11.1	0.0
	음악	(85)	32.9	29.4	17.6	11.8	8.2	0.0
	영화	(16)	25.0	37.5	6.3	6.3	25.0	0.0
	만화	(2)	50.0	0.0	50.0	0.0	0.0	0.0
	연예(방송,공연)	(9)	11.1	44.4	11.1	22.2	11.1	0.0
	기타(다원예술 등)	(25)	40.0	20.0	24.0	8.0	8.0	0.0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17)	35.3	17.6	29.4	0.0	11.8	5.9
	3~5년	(30)	30.0	36.7	16.7	10.0	6.7	0.0
	6~10년	(51)	47.1	25.5	9.8	11.8	5.9	0.0
	11~20년	(99)	35.4	29.3	14.1	10.1	11.1	0.0
	20년 이상	(149)	40.3	25.5	16.1	10.7	6.7	0.7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17)	39.7	26.8	14.8	10.4	7.6	0.6
	불가능	(29)	27.6	31.0	20.7	6.9	13.8	0.0

문30. 귀하께서 현재 종사하고 계시는 예술분야에서의 디지털 전환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하십니까? (단위 :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공감 하지 않는다	별로 공감 하지 않는다	보통 이다	다소 공감 한다	매우 공감 한다	긍정	부정	평균
전 체		(419)	4.1	11.7	19.1	37.2	27.9	65.2	15.8	3.73
거주지 1	성남	(290)	4.1	12.4	19.7	36.6	27.2	63.8	16.6	3.7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5	10.0	21.3	33.8	32.5	66.3	12.5	3.84
	서울	(49)	6.1	10.2	12.2	46.9	24.5	71.4	16.3	3.73
거주지 2	수정구	(64)	3.1	14.1	21.9	29.7	31.3	60.9	17.2	3.72
	중원구	(56)	8.9	12.5	19.6	41.1	17.9	58.9	21.4	3.46
	분당구	(170)	2.9	11.8	18.8	37.6	28.8	66.5	14.7	3.78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4.9	13.7	16.7	35.3	29.4	64.7	18.6	3.71
	겸업	(215)	3.3	9.8	21.4	39.1	26.5	65.6	13.0	3.76
성별	여성	(225)	2.7	10.7	19.1	41.8	25.8	67.6	13.3	3.77
	남성	(194)	5.7	12.9	19.1	32.0	30.4	62.4	18.6	3.69
연령	20대 이하	(43)	2.3	7.0	20.9	39.5	30.2	69.8	9.3	3.88
	30대	(103)	2.9	9.7	21.4	41.7	24.3	66.0	12.6	3.75
	40대	(152)	5.9	14.5	15.8	32.9	30.9	63.8	20.4	3.68
	50대	(86)	2.3	15.1	16.3	38.4	27.9	66.3	17.4	3.74
	60대 이상	(35)	5.7	2.9	31.4	37.1	22.9	60.0	8.6	3.69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7	9.6	18.5	36.5	28.7	65.2	16.3	3.71
	성남 외 경기	(107)	0.0	10.3	23.4	39.3	27.1	66.4	10.3	3.83
	서울	(117)	3.4	17.1	15.4	37.6	26.5	64.1	20.5	3.67
	그 외 지역	(17)	5.9	5.9	23.5	29.4	35.3	64.7	11.8	3.82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0.0	0.0	22.7	40.9	36.4	77.3	0.0	4.14
	사진	(11)	0.0	9.1	18.2	45.5	27.3	72.7	9.1	3.91
	미술	(106)	3.8	12.3	25.5	35.8	22.6	58.5	16.0	3.61
	국악	(47)	8.5	12.8	21.3	34.0	23.4	57.4	21.3	3.51
	무용	(37)	5.4	18.9	16.2	35.1	24.3	59.5	24.3	3.54
	연극	(36)	5.6	11.1	8.3	44.4	30.6	75.0	16.7	3.83
	음악	(100)	4.0	13.0	17.0	36.0	30.0	66.0	17.0	3.75
	영화	(19)	0.0	5.3	26.3	36.8	31.6	68.4	5.3	3.95
	만화	(2)	0.0	0.0	0.0	50.0	50.0	100.0	0.0	4.50
	연예(방송, 공연)	(10)	10.0	20.0	0.0	40.0	30.0	70.0	30.0	3.60
	기타(다원예술 등)	(29)	0.0	6.9	17.2	37.9	37.9	75.9	6.9	4.07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4.3	8.7	39.1	13.0	34.8	47.8	13.0	3.65
	3~5년	(40)	0.0	12.5	5.0	55.0	27.5	82.5	12.5	3.98
	6~10년	(67)	6.0	6.0	22.4	40.3	25.4	65.7	11.9	3.73
	11~20년	(121)	5.0	9.1	21.5	32.2	32.2	64.5	14.0	3.78
	20년 이상	(168)	3.6	16.1	16.7	38.7	25.0	63.7	19.6	3.65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3.9	12.0	19.1	37.4	27.5	64.9	16.0	3.73
	불가능	(37)	5.4	8.1	18.9	35.1	32.4	67.6	13.5	3.81

문31. 귀하께서 현재 활동하시는 예술분야의 디지털 전환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종합순위) (단위 : %)

구 분		사례수	비대면 콘텐츠 제작을 위한 시스템/장비 및 기술 지원	비대면 예술콘텐츠 제작비용 및 온라인 유통 서비스 지원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문화기술, 온라인 협업 툴)	예술-기술-미디어 플랫폼 연계 디지털 예술 생태계 구축
전 체		(419)	66.1	54.7	40.6	40.6
거주지 1	성남	(290)	65.5	53.4	42.4	40.0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67.5	60.0	38.8	37.5
	서울	(49)	67.3	53.1	32.7	49.0
거주지 2	수정구	(64)	56.3	50.0	39.1	37.5
	중원구	(56)	66.1	48.2	46.4	35.7
	분당구	(170)	68.8	56.5	42.4	42.4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69.6	59.3	34.8	41.7
	겸업	(215)	62.8	50.2	46.0	39.5
성별	여성	(225)	64.9	57.3	43.6	40.4
	남성	(194)	67.5	51.5	37.1	40.7
연령	20대 이하	(43)	67.4	53.5	39.5	39.5
	30대	(103)	66.0	52.4	32.0	41.7
	40대	(152)	63.2	52.6	43.4	45.4
	50대	(86)	68.6	59.3	41.9	39.5
	60대 이상	(35)	71.4	60.0	51.4	2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66.9	52.2	43.3	34.3
	성남 외 경기	(107)	66.4	53.3	38.3	42.1
	서울	(117)	65.0	58.1	36.8	51.3
	그 외 지역	(17)	64.7	64.7	52.9	23.5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40.9	63.6	54.5	36.4
	사진	(11)	72.7	36.4	63.6	36.4
	미술	(106)	58.5	57.5	35.8	49.1
	국악	(47)	72.3	55.3	42.6	27.7
	무용	(37)	78.4	59.5	40.5	35.1
	연극	(36)	72.2	52.8	38.9	44.4
	음악	(100)	76.0	51.0	45.0	34.0
	영화	(19)	42.1	63.2	21.1	57.9
	만화	(2)	100.0	0.0	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60.0	70.0	30.0	40.0
	기타(다원예술 등)	(29)	58.6	44.8	41.4	48.3
예술활동 전체경력	3년 미만	(23)	52.2	52.2	56.5	39.1
	3~5년	(40)	70.0	57.5	37.5	37.5
	6~10년	(67)	62.7	50.7	35.8	49.3
	11~20년	(121)	70.2	50.4	40.5	42.1
	20년 이상	(168)	65.5	58.9	41.1	36.9
예술교육 / 강의 가능여부	가능	(382)	66.0	54.5	40.8	40.1
	불가능	(37)	67.6	56.8	37.8	45.9

구 분		사례수	디지털 지역문화 기반 및 예술공동체 채널(플랫폼) 구축	디지털 격차 해소하는 시민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타 예술분야와의 협업 · 융합 시도	기타
전 체		(419)	27.7	24.3	21.7	1.2
거주지 1	성남	(290)	28.3	22.4	22.8	1.4
	성남시 외 경기지역	(80)	25.0	25.0	20.0	1.3
	서울	(49)	28.6	34.7	18.4	0.0
거주지 2	수정구	(64)	21.9	29.7	28.1	4.7
	중원구	(56)	33.9	30.4	26.8	1.8
	분당구	(170)	28.8	17.1	19.4	0.0
필요소득 해결방법	전업	(204)	28.9	18.1	20.1	1.5
	겸업	(215)	26.5	30.2	23.3	0.9
성별	여성	(225)	25.8	24.0	20.9	1.8
	남성	(194)	29.9	24.7	22.7	0.5
연령	20대 이하	(43)	27.9	30.2	25.6	4.7
	30대	(103)	26.2	30.1	26.2	1.0
	40대	(152)	28.3	22.4	19.1	1.3
	50대	(86)	29.1	18.6	18.6	0.0
	60대 이상	(35)	25.7	22.9	22.9	0.0
주요활동 지역	성남	(178)	27.5	28.7	18.5	2.2
	성남 외 경기	(107)	30.8	23.4	29.9	0.0
	서울	(117)	27.4	17.1	19.7	0.9
	그 외 지역	(17)	11.8	35.3	17.6	0.0
주요활동 분야	문학(출판)	(22)	31.8	22.7	36.4	0.0
	사진	(11)	9.1	9.1	36.4	0.0
	미술	(106)	25.5	30.2	21.7	0.9
	국악	(47)	23.4	25.5	19.1	0.0
	무용	(37)	16.2	16.2	24.3	0.0
	연극	(36)	27.8	22.2	27.8	2.8
	음악	(100)	32.0	23.0	12.0	1.0
	영화	(19)	36.8	21.1	31.6	0.0
	만화	(2)	50.0	0.0	50.0	50.0
	연예(방송, 공연)	(10)	40.0	10.0	20.0	10.0
예술활동 전체경력	기타(다원예술 등)	(29)	34.5	34.5	24.1	0.0
	3년 미만	(23)	26.1	56.5	13.0	4.3
	3~5년	(40)	32.5	27.5	17.5	5.0
	6~10년	(67)	25.4	16.4	29.9	1.5
	11~20년	(121)	26.4	24.0	22.3	0.8
예술교육 /강의 가능여부	20년 이상	(168)	28.6	22.6	20.2	0.0
	가능	(382)	28.0	23.0	21.7	0.8
	불가능	(37)	24.3	37.8	21.6	5.4

도움주신 분들

- | (사)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성남지회
- | (사)경기민예총 성남지부
- | (사)성남문화원
- | 성남시립예술단
- | 성남문화예술공유 네트워크

2020년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에
도움을 주신 예술인 및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0 성남 예술인·예술단체 실태조사

주관기관 | (재)성남문화재단

수행기관 | (주)비욘드리서치
연구책임 | 백 경 현 (비욘드리서치 대표)
연구분석 | 차 민 주 (비욘드리서치 부대표)
 | 이 세 웅 (비욘드리서치 전무)
 | 손 영 곤 (비욘드리서치 이사)
 | 김 경 남 (비욘드리서치 부장)
 | 은 세 계 (비욘드리서치 과장)
 | 방 휘 연 (비욘드리서치 대리)